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318-13



■ 정책보고서 2013-92

아동종합실태조사

김미숙 · 전진아 · 하태정 · 김효진 · 오미애
정은희 · 최은진 · 이봉주 · 김선숙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아동복지지출 실태 및 적정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하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아동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영역별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제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이러한 목적 하에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이 속한 가정의 양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지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와 아동 본인으로 엄격한 표본설계를 통해서 대표성 있는 아동가구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아동의 주요 지표 실태, 아동의 복지욕구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투자를 위해 필요한 아동의 성 및 연령별, 계층별, 가족유형별 욕구 등 기초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요보호 아동 중심의 아동정책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일반아동에 대한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거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는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중장기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개발하고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조사에 응해주신 아동 양육자분들과 아동들께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실사를 담당해주신 (주) 리서치 앤 리서치계도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연구가 나오기까지 유익한 조언을 주신 여러 자문위원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 제고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5
제2절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개요	38
제2장 국내외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53
제1절 국내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55
제2절 국외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60
제3장 표본추출 및 가중치	63
제1절 표본 규모	65
제2절 표본설계	67
제3절 가중치	72
제4장 가구특성	77
제1절 조사 대상 가구 일반 사항	79
제2절 조사 대상 가구의 지출 및 소득	104
제3절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106
제4절 소결	110
제5장 가정생활	113
제1절 주양육자용 설문분석	115
제2절 아동용 설문분석	167
제3절 소결	177

제6장 사회성 및 정서 179

제1절 사회성 181

제2절 정서 208

제3절 소결 221

제7장 인지 및 언어생활 223

제1절 인지 225

제2절 언어 227

제3절 학업성취 231

제4절 소결 235

제8장 건강 및 안전생활 237

제1절 아동의 건강특성 239

제2절 주양육자의 건강특성 269

제3절 아동의 방임 및 학대실태 291

제4절 안전실태 319

제5절 소결 333

제9장 학교생활 335

제1절 학교생활 337

제2절 친구관계 345

제3절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 350

제4절 소결 368

제10장 방과후 생활 371

제1절 방과후 생활실태 373

제2절 사회활동 참여실태	386
제3절 아동의 권리	397
제4절 소결	402
제11장 사교육 및 복지서비스	405
제1절 보육 및 사교육 이용실태	407
제2절 초중고생의 사교육 이용실태	417
제3절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이용실태	434
제4절 돌봄 및 해외연수 이용실태	437
제5절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438
제6절 소결	451
제12장 진로 및 아르바이트	453
제1절 진로	455
제2절 아르바이트	460
제3절 소결	469
제13장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환경	471
제1절 주거생활	473
제2절 지역사회 환경	477
제3절 소결	486
제14장 결론: 논의 및 정책제언	489
제1절 논의	491
제2절 정책제언	492

참고문헌	505
〈부록 1〉 아동종합실태조사 보호자용 조사표: 설문 문항과 문항작성의 근거	509
〈부록 2〉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용 조사표: 설문 문항과 문항작성의 근거	514
〈부록 3〉 시도별 연령대별 모집단 분포	519
〈부록 4〉 보호자용 조사표	520
〈부록 5〉 아동용 조사표	540

표 목차

〈표 1- 1〉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의 대상 가구 정의	38
〈표 1- 2〉 법에 의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아동 정의	39
〈표 1- 3〉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표 유형 및 조사대상	40
〈표 1- 4〉 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조사대상	40
〈표 1- 5〉 2008년과 2013년 실태조사 비교	41
〈표 1- 6〉 2008년과 2013년 조사표 영역 비교	42
〈표 1- 7〉 2008년과 2013년 설문지 구성 비교	43
〈표 1- 8〉 보호자용 조사표 조사항목	48
〈표 1- 9〉 아동용 조사표 조사항목	50
〈표 2- 1〉 국내 아동관련 대규모 조사	56
〈표 2- 2〉 국내 아동관련 주요조사 연구결과	59
〈표 2- 3〉 국외 아동관련 실태조사	61
〈표 3- 1〉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표본할당분포	68
〈표 3- 2〉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 및 연령별 표본수	69
〈표 3- 3〉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조사 완료 가구수	69
〈표 3- 4〉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조사 완료 아동수	70
〈표 3- 5〉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 및 연령별 조사 완료 아동수	70
〈표 3- 6〉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 및 연령별 조사 완료 가구수	71
〈표 4- 1〉 소득수준별 가구특성	79
〈표 4- 2〉 다문화 가구 여부	80
〈표 4- 3〉 가구원 수	81
〈표 4- 4〉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수	81
〈표 4- 5〉 아동의 주양육자	82
〈표 4- 6〉 주양육자의 성	83
〈표 4- 7〉 주양육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84
〈표 4- 8〉 주양육자의 연령대	85
〈표 4- 9〉 주양육자의 교육수준	86
〈표 4-10〉 주양육자의 장애종류	87
〈표 4-11〉 주양육자의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	88
〈표 4-12〉 주양육자의 혼인상태	89

〈표 4-13〉 주양육자의 근로능력	90
〈표 4-14〉 주양육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91
〈표 4-15〉 가구주의 성	92
〈표 4-16〉 가구주의 연령대	93
〈표 4-17〉 가구주의 교육수준	94
〈표 4-18〉 가구주의 장애 종류	95
〈표 4-19〉 가구주의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	96
〈표 4-20〉 가구주의 혼인상태	97
〈표 4-21〉 가구주의 근로능력	98
〈표 4-22〉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99
〈표 4-23〉 조사 대상 아동 현황	100
〈표 4-24〉 만9세~만17세 아동 현황	100
〈표 4-25〉 만9세~만17세 아동의 학년	101
〈표 4-26〉 대상 아동의 장애 종류	102
〈표 4-27〉 대상 아동의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	103
〈표 4-28〉 월평균 총생활비	104
〈표 4-29〉 월평균 총소득	105
〈표 5- 1〉 결혼생활 만족여부	116
〈표 5- 2〉 배우자와 싸움빈도	117
〈표 5- 3〉 경제적 도움	118
〈표 5- 4〉 정서적 도움	119
〈표 5- 5〉 생활에의 도움	120
〈표 5- 6〉 정보제공	121
〈표 5- 7〉 희망교육수준	122
〈표 5- 8〉 가능교육수준	123
〈표 5- 9〉 경제적 어려움: 살 돈이 없음	124
〈표 5-10〉 경제적 어려움: 균형잡힌 식사 어려움	125
〈표 5-11〉 경제적 어려움: 식사를 거름	126
〈표 5-12〉 가족관계 문항 내용	127
〈표 5-13〉 가족관계(가족기능)	128
〈표 5-14〉 양육스트레스 문항 내용	129

〈표 5-15〉 양육스트레스	130
〈표 5-16〉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본인)	132
〈표 5-17〉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배우자)	133
〈표 5-18〉 신체적 처벌 필요성	134
〈표 5-19〉 훈육방법 (신체적 처벌)	135
〈표 5-20〉 훈육방법 (벌세우기)	136
〈표 5-21〉 훈육방법 (말로 야단치기)	137
〈표 5-22〉 훈육방법 (장난감이나 게임기 사용제한)	138
〈표 5-23〉 훈육방법 (칭찬과 보상 사용)	139
〈표 5-24〉 용돈 여부 및 액수	140
〈표 5-25〉 주양육자의 아동 양육행동 문항 내용	141
〈표 5-26〉 주양육자의 아동 양육행동	142
〈표 5-27〉 주양육자(부모)의 교육참여 행동 문항 내용	143
〈표 5-28〉 주양육자(부모) 교육참여 행동	143
〈표 5-29〉 TV/비디오 시청 (주중)	144
〈표 5-30〉 TV/비디오 시청 (주말)	145
〈표 5-31〉 독서 (주중)	146
〈표 5-32〉 독서 (주말)	147
〈표 5-33〉 인터넷 사용 (주중)	148
〈표 5-34〉 인터넷 사용 (주말)	149
〈표 5-35〉 매체 제한	150
〈표 5-36〉 여가활동 (운동 및 나들이)	151
〈표 5-37〉 여가활동 (외식)	152
〈표 5-38〉 여가활동 (쇼핑)	153
〈표 5-39〉 여가활동 (여행)	154
〈표 5-40〉 여가활동 (영화나 공연관람)	155
〈표 5-41〉 여가활동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관람)	156
〈표 5-42〉 상상놀이	157
〈표 5-43〉 노래불러주기	158
〈표 5-44〉 책읽어주기	159
〈표 5-45〉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	160

〈표 5-46〉 가정형편 수준	161
〈표 5-47〉 가족유형	162
〈표 5-48〉 만족스런 아동정책(1+2순위) (중복응답)	164
〈표 5-49〉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1+2순위) (중복응답)	165
〈표 5-50〉 주보호자에 대한 생각 문항 내용	167
〈표 5-51〉 주양육자에 대한 생각	168
〈표 5-52〉 주보호자에 대한 생각 문항 내용	169
〈표 5-53〉 주보호자와의 관계	169
〈표 5-54〉 아버지에게 고민상담	170
〈표 5-55〉 어머니에게 고민상담	171
〈표 5-56〉 보호자에게 고민상담	171
〈표 5-57〉 가정형편(경제수준)	172
〈표 5-58〉 아동의 성별, 연령별 결핍 현황	174
〈표 5-59〉 아동의 소득수준별 결핍 현황	175
〈표 5-60〉 아동의 지역 및 가족유형별 결핍 현황	175
〈표 6- 1〉 아동의 공격성 척도	182
〈표 6- 2〉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척도	182
〈표 6- 3〉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 및 불안	183
〈표 6- 4〉 아동의 공격성 및 우울 · 불안 평균	184
〈표 6- 5〉 자존감 및 유능감 문항내용	185
〈표 6- 6〉 아동의 자존감과 유능감	186
〈표 6- 7〉 아동의 스트레스 11문항 평균	187
〈표 6- 8〉 문항별 스트레스 평균	188
〈표 6- 9〉 스트레스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189
〈표 6-10〉 스트레스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190
〈표 6-11〉 스트레스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191
〈표 6-12〉 스트레스4: 숙제나 시험 때문에	191
〈표 6-13〉 스트레스5: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192
〈표 6-14〉 스트레스6: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193
〈표 6-15〉 스트레스7: 몸무게 때문에	193
〈표 6-16〉 스트레스8: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194

〈표 6-17〉 스트레스9: 얼굴생김새 때문에	194
〈표 6-18〉 스트레스10: 용돈이 부족해서	195
〈표 6-19〉 스트레스11: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195
〈표 6-20〉 공동체의식 문항내용	196
〈표 6-21〉 공동체의식	196
〈표 6-22〉 학생생활만족도 조사문항	197
〈표 6-23〉 학생생활 만족도	198
〈표 6-24〉 현재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199
〈표 6-25〉 행복감 문항내용	201
〈표 6-26〉 행복감	202
〈표 6-27〉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문항내용	203
〈표 6-28〉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204
〈표 6-29〉 초등생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205
〈표 6-30〉 중고생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206
〈표 6-3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	207
〈표 6-32〉 부모애착 문항내용	208
〈표 6-33〉 부모애착 수준	209
〈표 6-34〉 부모애착1: 반응	210
〈표 6-35〉 부모애착2: 신체접촉	210
〈표 6-36〉 부모애착3: 눈맞춤	211
〈표 6-37〉 부모애착4: 상호작용	211
〈표 6-38〉 기질 문항내용	212
〈표 6-39〉 아동의 기질	212
〈표 6-40〉 활동성1: 활동적	213
〈표 6-41〉 활동성2: 순하다	213
〈표 6-42〉 활동성3: 예민하고 까다롭다	214
〈표 6-43〉 활동성4: 더디다	214
〈표 6-44〉 친구수	215
〈표 6-45〉 정서지능 문항내용	216
〈표 6-46〉 연령대별 정서지능비교	217
〈표 6-47〉 정서지능1: 정서인식	217

〈표 6-48〉 정서지능2: 정서표현	218
〈표 6-49〉 정서지능3: 감정이입	218
〈표 6-50〉 정서지능4: 정서조절	219
〈표 6-51〉 정서지능(9-11세)	220
〈표 6-52〉 정서지능(12-17세)	220
〈표 7- 1〉 전반적 인지 발달 수준(0-8세)	226
〈표 7- 2〉 전반적 언어 발달 수준(0-8세)	228
〈표 7- 3〉 비속어 사용빈도(9-17세)	229
〈표 7- 4〉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9-17세)	230
〈표 7- 5〉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9-17세)	232
〈표 7- 6〉 연령별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9-17세)	233
〈표 8- 1〉 주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의 건강상태	240
〈표 8- 2〉 9-17세 아동의 건강상태	240
〈표 8- 3〉 아동의 BMI	241
〈표 8- 4〉 현재의 몸무게	242
〈표 8- 5〉 현재 키	242
〈표 8- 6〉 질병으로 누워 보내는 날	247
〈표 8- 7〉 주요 질병 및 병명	249
〈표 8- 8〉 안경 착용 여부	250
〈표 8- 9〉 기상 시각	252
〈표 8-10〉 취침 시각	253
〈표 8-11〉 수면습관	254
〈표 8-12〉 아침식사 여부	255
〈표 8-13〉 점심식사 여부	256
〈표 8-14〉 저녁식사 여부	256
〈표 8-15〉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	257
〈표 8-16〉 점심/저녁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거름	257
〈표 8-17〉 인스턴트 식품 섭취현황	258
〈표 8-18〉 최근 7일 30분 이상 운동한 날	259
〈표 8-19〉 건강검진 여부	260
〈표 8-20〉 치과검진 여부	261

〈표 8-21〉 예방접종	262
〈표 8-22〉 최근 1년 병원 응급실 이용 경험	264
〈표 8-23〉 응급실 이용 원인	265
〈표 8-24〉 보건의료기관 이용 현황	266
〈표 8-25〉 9-17세 아동의 자살생각 여부	267
〈표 8-26〉 9-17세 아동의 자살 시도 여부	268
〈표 8-27〉 부모의 건강상태	269
〈표 8-28〉 연간음주(본인)	270
〈표 8-29〉 연간음주(배우자)	271
〈표 8-30〉 음주량(본인)	272
〈표 8-31〉 음주량(배우자)	273
〈표 8-32〉 흡연(본인)	274
〈표 8-33〉 흡연(배우자)	275
〈표 8-34〉 가정 실내흡연(본인)	276
〈표 8-35〉 가정 실내흡연(배우자)	277
〈표 8-36〉 우울감	278
〈표 8-37〉 분만 형태	281
〈표 8-38〉 조산여부	282
〈표 8-39〉 정기적인 산전 진찰 여부	283
〈표 8-40〉 임신 중 철분제 복용	284
〈표 8-41〉 임신 중 위험요인 경험률	285
〈표 8-4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여부	286
〈표 8-43〉 출생시 몸무게	287
〈표 8-44〉 출생시 저체중 여부	288
〈표 8-45〉 모유수유 형태	289
〈표 8-46〉 모유수유 기간	290
〈표 8-47〉 지난 6개월간 집에서 30분이상 아동이 혼자 있었던 경험(방치): 부모응답	291
〈표 8-48〉 방임경험 문항	292
〈표 8-49〉 방임경험	293
〈표 8-50〉 방임경험1: 아동을 혼자 둠	296
〈표 8-51〉 방임경험2: 아동에게 애정표현을 안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음	297

〈표 8-52〉 방임경험3: 끼니를 챙기지 못함	298
〈표 8-53〉 방임경험4: 병원을 데려가지 않음	299
〈표 8-54〉 방임경험5: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못함	300
〈표 8-55〉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문항	301
〈표 8-56〉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가해경험(주양육자 응답)	302
〈표 8-57〉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피해경험(아동응답)	303
〈표 8-58〉 신체학대경험1: 밀쳐서 벽에 부딪침	307
〈표 8-59〉 신체학대경험2: 물건을 던져서 맞음	308
〈표 8-60〉 신체학대경험3: 발로차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 때림	309
〈표 8-61〉 신체학대경험4: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때림	310
〈표 8-62〉 신체학대경험5: 칼이나 흉기에 찔림	311
〈표 8-63〉 정서학대경험1: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음	312
〈표 8-64〉 정서학대경험2: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음	313
〈표 8-65〉 정서학대경험3: '명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함	314
〈표 8-66〉 아동학대 및 방임을 종합	315
〈표 8-67〉 성희롱 및 성관계 요구 피해 경험	316
〈표 8-68〉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함	317
〈표 8-69〉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욕을 하거나 화냄	318
〈표 8-70〉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 또는 말을 함	318
〈표 8-71〉 아동안전교육 경험	319
〈표 8-72〉 안전습관	322
〈표 8-73〉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1순위	326
〈표 8-74〉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2순위	327
〈표 8-75〉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1+2순위) 중복응답	328
〈표 8-76〉 과거 잃어버린 경험	329
〈표 8-77〉 아동을 잃어버린 장소: 부모응답	331
〈표 8-78〉 잃어버린 장소: 아동응답	331
〈표 8-79〉 잃어버릴 당시 연령	332
〈표 9- 1〉 9-17세 아동 취학여부	337
〈표 9- 2〉 9-17세 아동의 학업중단 의사여부	338
〈표 9- 3〉 9-17세 아동의 희망교육 수준	340

〈표 9- 4〉 연령별 아동의 희망교육 수준	341
〈표 9- 5〉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343
〈표 9- 6〉 9-17세 아동의 친구의 도움 정도	345
〈표 9- 7〉 9-17세 아동의 친구애착 및 친구일탈 정도	347
〈표 9- 8〉 9-17세 아동의 친한 친구의 수	348
〈표 9- 9〉 9-17세 아동의 이성교제 경험유무	349
〈표 9-10〉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비행행동 경험률	351
〈표 9-11〉 9-17세 아동의 지역별 가족유형별 비행행동 경험률	351
〈표 9-12〉 연령별 비행행동 경험률	353
〈표 9-13〉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평균 비행횟수	356
〈표 9-14〉 9-17세 아동의 지역별, 가족유형별 평균 비행횟수	359
〈표 9-15〉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362
〈표 9-16〉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피해유형별)	364
〈표 9-17〉 9-17세 아동의 지역별 및 가족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피해유형별)	364
〈표 9-18〉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가해유형별)	365
〈표 9-19〉 9-17세 아동의 지역별 및 가족유형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가해유형별)	365
〈표 9-20〉 9-17세 아동의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367
〈표 9-21〉 9-17세 아동의 유형별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368
〈표 10-1〉 평일 방과후 생활(1순위): 주양육자 응답	374
〈표 10-2〉 평일 방과후 생활(1순위): 아동응답	375
〈표 10-3〉 방과후 희망활동(1+2순위)(중복응답): 부모응답	376
〈표 10-4〉 방과후 희망활동(1+2순위)(중복응답): 아동응답	377
〈표 10-5〉 돌봄교사 1명당 적정아동수: 주양육자 응답	379
〈표 10-6〉 평일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복수응답): 주양육자 응답	380
〈표 10-7〉 주말/방학 함께 지내는 사람(복수응답): 주양육자 응답	381
〈표 10-8〉 주말/방학 함께 지내는 사람(복수응답): 아동응답	382
〈표 10-9〉 혼자 집에 있는 빈도: 부모응답	383
〈표 10-10〉 혼자 집에 있는 빈도: 아동응답	384
〈표 10-11〉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주양육자 응답	385
〈표 10-12〉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아동응답	386
〈표 10-13〉 유형별 사회활동 참여율	388

〈표 10-14〉 유형별 사회활동 참여횟수	389
〈표 10-15〉 유형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391
〈표 10-16〉 자원봉사활동 횟수	392
〈표 10-17〉 동아리활동 참여율	393
〈표 10-18〉 가입 동아리수	394
〈표 10-19〉 종교 (본인)	394
〈표 10-20〉 종교활동 빈도	396
〈표 10-21〉 아동권리협약 인식여부	400
〈표 10-22〉 아동권리보장정도	401
〈표 11- 1〉 2012년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아동수	407
〈표 11- 2〉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409
〈표 11- 3〉 보육시설 이용비용	411
〈표 11- 4〉 민간학원 및 사교육 이용여부	412
〈표 11- 5〉 0-5세 사교육 이용비용	413
〈표 11- 6〉 기타 돌봄 이용실태	414
〈표 11- 7〉 문화센터 이용실태	415
〈표 11- 8〉 0-5세 돌봄이용비용	415
〈표 11- 9〉 주로 있는 곳	416
〈표 11-10〉 기관 이용후 돌봐주는 대상	417
〈표 11-11〉 사교육 이용실태	418
〈표 11-12〉 한 번이라도 사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420
〈표 11-13〉 9-17세 아동의 과목별 사교육 수강여부	421
〈표 11-14〉 9-17세 아동의 연령별 사교육 수강여부	421
〈표 11-15〉 9-17세 아동의 평균 사교육 수강 과목 수	423
〈표 11-16〉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국어(중복응답)	424
〈표 11-17〉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수학(중복응답)	424
〈표 11-18〉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영어(중복응답)	425
〈표 11-19〉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사회(중복응답)	425
〈표 11-20〉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과학(중복응답)	426
〈표 11-21〉 9-17세 아동의 사교육 과목별 평균 수강시간	427
〈표 11-22〉 사교육을 통한 과목별 성적향상정도	428

〈표 11-23〉 사교육 이용비용	429
〈표 11-24〉 초중고생 사교육 이용비율	430
〈표 11-25〉 월평균 사교육 이용비용	431
〈표 11-26〉 2013년 사교육특별활동 비용	433
〈표 11-27〉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보육비·사교육비 비중	433
〈표 11-28〉 학교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이용여부	435
〈표 11-29〉 학교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이용비용	436
〈표 11-30〉 기타 이용실태	437
〈표 11-31〉 돌봄 및 해외연수 이용비용	438
〈표 11-32〉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441
〈표 11-33〉 복지서비스 필요여부	442
〈표 11-34〉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이용여부	444
〈표 11-35〉 상담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이용률	445
〈표 11-36〉 무료급식 및 학비지원	446
〈표 11-37〉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필요여부	448
〈표 11-38〉 상담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필요여부	449
〈표 11-39〉 무료급식 및 학비지원 필요여부	450
〈표 12- 1〉 원하는 직업 1순위(9-17세)	456
〈표 12- 2〉 원하는 직업 2순위(9-17세)	457
〈표 12- 3〉 진로성숙도(9-17세)	458
〈표 12- 4〉 진로계획(9-17세)	459
〈표 12- 5〉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12-17세 아동용)	460
〈표 12- 6〉 아르바이트 종류(12-17세 아동용)	461
〈표 12- 7〉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 일/년(12-17세 아동용)	462
〈표 12- 8〉 하루평균 아르바이트 시간(12-17세 아동용)	463
〈표 12- 9〉 아르바이트 임금(12-17세 아동용)	464
〈표 12-10〉 아르바이트 진로 선택 도움정도(12-17세 아동용)	465
〈표 12-11〉 아르바이트 경험 후 좋아하는 과목을 알게 됨(12-17세 아동용)	466
〈표 12-12〉 아르바이트 경험 후 학교 교육 중요성 인식 정도(12-17세 아동용)	467
〈표 12-13〉 아르바이트 경험 후 성격이 나빠짐(12-17세 아동용)	468
〈표 13- 1〉 점유형태	473

〈표 13- 2〉 방의 수	474
〈표 13- 3〉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료의 양호성 여부	475
〈표 13- 4〉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475
〈표 13- 5〉 주택의 소음진동약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476
〈표 13- 6〉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476
〈표 13- 7〉 문화체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477
〈표 13- 8〉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478
〈표 13- 9〉 의료기관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478
〈표 13-10〉 교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479
〈표 13-11〉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	479
〈표 13-12〉 자연환경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480
〈표 13-13〉 지역사회 환경의 요인 및 문항 내용	481
〈표 13-14〉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	481
〈표 13-15〉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만족	482
〈표 13-16〉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482
〈표 13-17〉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응집력	483
〈표 13-18〉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	484
〈표 13-19〉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만족	485
〈표 13-20〉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485
〈표 13-21〉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응집력	486

그림 목차

[그림 3- 1] 지역별 가중치 상자그림	73
[그림 3- 2] 16개 시도별 가중치 상자그림	74
[그림 3- 3] 계층별 가중치 상자그림	74
[그림 3- 4] 연령별 가중치 상자그림	75
[그림 4- 1] 2013년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107
[그림 4- 2] 2013년 가족형태별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107
[그림 4- 3] 연령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108
[그림 4- 4] 상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108
[그림 4- 5] 국가간 아동가구 상대적 빈곤율 비교	109
[그림 5- 1] 계층별 식품미보장 실태	126
[그림 5- 2] 아동의 성별 및 연령대별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130
[그림 5- 3] 소득수준, 지역, 가족유형별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131
[그림 5- 4] 소득수준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166
[그림 5- 5] 연령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166
[그림 5- 6] 아동의 항목별 결핍 현황	173
[그림 5- 7] 아동 결핍 수준 국가 비교	176
[그림 6- 1] 아동의 공격성 수준	184
[그림 6- 2] 아동의 우울 수준	184
[그림 6- 3] 아동의 자존감(2008년, 2013년)	186
[그림 6- 4] 아동의 유능감(2008년, 2013년)	186
[그림 6- 5] 스트레스 정도 비교	188
[그림 6- 6] UNICEF 기준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200
[그림 6- 7] 아동 특성별 행복감 비교	202
[그림 6- 8] 학령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유형 비율	206
[그림 6- 9] 소득수준별 고위험군 비율	207
[그림 7- 1] 아동의 연령별 주관적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2008-2013	234
[그림 8- 1]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소득수준별-차상위)	243
[그림 8- 2]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소득수준별-기초수급)	243
[그림 8- 3]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소득수준별-일반)	243
[그림 8- 4]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지역별-대도시)	244

[그림 8- 5]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지역별-중소도시)	244
[그림 8- 6]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지역별-농어촌)	244
[그림 8- 7] 아동의 평균 신장 변화(소득수준별-기초수급)	245
[그림 8- 8] 아동의 평균 신장 변화(소득수준별-차상위)	245
[그림 8- 9] 아동의 평균 신장 변화(소득수준별-일반)	245
[그림 8-10] 아동의 비만 비율 (소득수준별; 3-17세)	246
[그림 8-11] 아동의 연령별 평균 BMI	246
[그림 8-12] 안경착용률 비교표	251
[그림 8-13] 아동의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을 변화	255
[그림 8-14] 예방접종률 미완료율 변화	263
[그림 8-15] 17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의 소득수준1별 우울증의심군 유형 구성 비율	279
[그림 8-16] 17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의 소득수준2별 우울증 의심군 유형 구성 비율	280
[그림 8-17] 2013년 아동방임 및 학대경험률	315
[그림 9- 1] 9-17세 아동의 학업중단의사 유무별 학업성취도, 친구애착정도, 학교생활만족도 점수	339
[그림 9- 2] 9-17세 아동의 연령별 희망교육수준 변화추이, 2008-2013	342
[그림 9- 3] 아동의 연령별 학교생활만족도 변화추이, 2008-2013	344
[그림 9- 4] 9-17세 아동의 연령별 비행행동 경험률 변화 추이, 2008-2013	354
[그림 9- 5] 9-17세 아동의 연령별 학교폭력피해경험률 변화추이, 2008-2013	363
[그림 11-1] 9-17세 아동의 연령별 사교육 수강여부 변화추이, 2008-2013	422
[그림 11-2]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소득수준 2유형 기준)	430
[그림 11-3]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소득수준 3유형 기준)	430
[그림 11-4]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 비용 (소득수준 2유형 기준)	431
[그림 11-5]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 비용 (소득수준 3유형 기준)	43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학력제일 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음.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인 영역(건강, 교육, 안전 등)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임.
- 아동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저출산 사회 대응 정책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임.
- 아동을 위한 대응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제특성 파악이 중요함.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정책 개발을 위해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지표를 개발하여 아동 및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용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법제화로 매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일환으로 본 조사를 수행함. 본 조사는 2008년 실시한 바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서 아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표로 함.
-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욕구와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아동지표 개발, 둘째, 아동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및 정책수요 진단, 셋째, 아동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투자를 위해 필요한 아동의 연령별, 계층별 욕구 등 기초자료 구축, 넷째, 요보호 아동 중심의 정책

2 아동종합실태조사

에서 벗어나 일반아동에 대한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거자료 제공, 다섯째, 실증자료에 입각한 중장기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개발하고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5일까지 전국의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함.

○ 조사 대상 가구 유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 일반가구로 나뉨.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리스트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함.

- 기초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의 정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 중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차상위가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과 동법 시행규칙 2조에서 명시한 빈곤아동에 관한 정의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단, 시설아동은 제외)
- 일반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조사표 유형은 보호자용 조사표, 아동용 조사표로 구분되며, 만0세-만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호자용 조사표에 응답하고, 만9세-만18세 미만 아동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응답하도록 함(자가 응답이 불가능한 만0-8세는 보호자가 응답),

2. 표본추출 및 가중치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일반가구의 경우, 조사 시점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의. 저소득층 가구는 차상위층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음.
- 조사모집단은 일반가구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명부에 포함된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였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적정 표본수를 산정하고, 전국을 3개 층으로 층화 한 다음, 연령대를 6개로 나누어 조사구 특성에 따라 표본조사구를 추출함.
 - 3개 층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층화하여 아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함.
 - 대도시: 7대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
 - 중소도시: 기타 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동부)
 - 농어촌: 읍·면지역 (기타 시 읍·면지역)
 - 6개의 연령대는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일치하도록 0-2, 3-5, 6-8, 9-11, 12-14, 15-17 로 나누었음.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최초 600개 조사구(150개 조사구를 중심으로 인접조사구 3개를 묶어 하나의 조사구 클러스터로 사용), 4,000 가구였으며, 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수준을 검토하여 600개 조사구, 4,002가구로 정하였음.
 - 95% 신뢰수준의 목표허용오차가 3%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목표오차는 전국 지역의 경우 1.55%이고, 일반가구는 1.96%, 저소득가구는 2.53%로 예상됨.

4 아동종합실태조사

- 각 층별 표본조사구는 권역별 통계작성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층 내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제공근 비례배분법(각 지역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여 배분)을 적용.
- 전국 600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뒤, 각 표본조사구 클러스터로부터 27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 가구 내 가구원(보호자) 중 한 명을 조사하는 것으로 함. 각 층의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확률 비례 계통추출법을 사용하고, 추출된 표본이 해당 층의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을 잘 반영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 클러스터에서는 27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 및 리스트에서 27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표본조사 대상가구를 선정함. 표본조사구 내에서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거처번호가 28번째 이후의 가구를 순서대로 대체하도록 하며, 해당조사구 내에서 무응답 가구를 대체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조사구에서 2가구까지만 대체를 허용함.
- 가중치는 가중표본 합계치 (weighted sample total)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함.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함.

3. 조사 주요 결과

1) 가구특성

□ 아동종합실태조사 대상 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보호자용 설문은 전 연령대를, 아동용 설문은 만 9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함.

○ 가구 일반 특성

-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가 96.1%, 기초수급가구가 2.6%, 차상위가구는 1.3%이고,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은 98.8%가 일반가구에 속했으며, 한 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초수급가구가 18.2%, 차상위가구가 8.5%로 나타남.
- 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전체 응답자의 2%가 다문화가구였음.
- 조사완료 가구 내 대상아동을 포함한 만18세 미만 아동 수는 평균 1.64명이었음. 전체 가구원 수는 4인가구 46.2%, 3인가구 37.0%, 5인가구 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3.7명이었음.

○ 주양육자의 일반적 특성

- 전체가구 중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는 9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버지(4.1%), 친가나 친조부모(1.5%), 외가나 외조부모(0.7%), 기타(0.1%) 순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의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각각 44.4%, 44.5%로 가장 많았으며, 혼인상태는 유배우인 경우가 전체의 91.8%로 가장 많았고, 이혼 5.5%, 사별 1.7%, 별거 0.7%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조사가구의 주양육자 근로능력은 91.2%가 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가 전체의 50%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 25.0%, 임시직 임금근로자 9.4% 순이었음.
- 소득수준별로는 빈곤가구일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는 36.3%였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50.5%였음.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족에서 주양육자

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53.4%였으나 한부모·조손가족에서는 22.8%로 나타남.

○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인 경우가 91.6%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 분석결과 40대인 경우가 53.4%, 30대 34.9%, 50대 이상 9.9%, 20대 이하 1.8% 순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으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3.1%로 가장 많았음.
- 가구주의 근로능력은 96.9%가 근로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상용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가 76.0%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14.4%), 임시직 임금근로자(3.5%) 순이었음.

○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 조사완료된 가구 중 보호자가 대신 응답한 만8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만0~2세가 14.5%, 만3~5세가 14.5%, 만6~8세가 14.0%였음.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응답한 만9세~17세까지의 아동은 만9세~11세가 16.0%, 만12~17세가 40.9%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의 지출 및 소득

○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343만원으로 나타나났으며, 월평균 생활비는 약 226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에 따른 월평균 소득/생활비는 기초수급가구(빈곤가구)는 123만원/110만원(136/117만원), 일반가구는 351만원/230만원, 소득계층간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족형태에 따른 월평균 소득/생활비는 한부모 및 조손가구는 191만원/146만원, 일반가구는 361만원/235만원으로, 가족형태에 따라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빈곤통계연보)에서는 9.4%로 나타났으며¹⁾ 2013년 아동실태조사에서는 1.2 포인트 낮은 8.25%로 나타남²⁾.
-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가족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은 일반가구의 경우, 3.9%로 나타났지만 한부모·조손가족의 경우, 46.6%로 나타나 일반가구보다 12배가량 높게 나타남.
-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와 같은 빈곤가구의 아동은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가정해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빈곤가구의 주양육자와 한부모·조손가족의 주양육자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빈곤가구일수록 근로빈곤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부모·조손가족에서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 123만원은 4인 가구기준의 최저생계비 보다 낮음.
- 아동이 있는 수급자 가구에게 취업지원과 현금지원확대를 통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함.
- 상대적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 일반가구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구가 12배 높음.
-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 대한 현금지원 및 소득활동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 농어가가구 및 1인가구 제외한 전가구 기준임

2) 2013년 아동실태조사와 빈곤통계연보에서 제시한 빈곤율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2013년 아동실태조사 샘플의 소득분포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 2013년 아동실태 조사의 일반가구에 일부 차상위 가구가 포함되었음. 가구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가구의 경우 38%정도가 소득 하위 3분위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2) 가정생활

□ 보호자용 설문분석

- 결혼생활 만족: 유배우 주양육자의 90% 이상이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양육자는 아동이 있는 앞에서 배우자와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음.
- 가족의 사회자본: 대부분 별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음.
 - 정서적 도움과 정보제공이 경제적 도움이나 생활도움보다 약간 많음.
- 아동에 대한 교육기대: 대부분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희망
 -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전문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낮음.
 - 실제 가능하다고 여기는 교육수준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미보장: 우리나라 아동의 약 8%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는 식품빈곤 경험의 빈도가 더 심해서 각 약 45%와 36%의 아동이 그런 경험을 함.
 - 기초수급가구의 약 50%와 차상위가구의 약 40%가 식품빈곤으로 인해 영양섭취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을 함.
 -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은 전체 1.6%인데 반해, 수급자의 경우는 12.1%, 그리고 차상위가구는 9.8%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
- 가족관계: 전반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보여줌. (40점 만점에 28점)
 -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별로 큰 차이가 없음.
-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가 높지 않음(25점 만점에 12점). 단,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았음.
-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 58%의 응답자 본인과 약 23%의 배우자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자녀와 놀아준다고 응답
 - 아동이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어촌일수록 더 많이 놀아줌.

- 신체처벌 필요성: 전체 부모의 35%가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
 - 특히 6-11세 아동의 주양육자가 신체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 말로 야단치거나 ‘칭찬이나 보상’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자주 사용
- 자녀용돈: 6-17세 자녀를 가진 주양육자의 약 2/3(67%)가 용돈을 줌.
- 부모 교육참여: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5개 행동 중 약 2/3의 행동을 함.
 -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평균은 2.3에 머물러, 일반가구가 3.5와는 큰 격차를 보임.
- 미디어 노출: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1-3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주중: 50.4%; 주말: 50.3%).
 - 약 70%의 부모가 아동의 TV/비디오 시청과 인터넷 사용을 제한함.
- 아동과의 여가활동: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외식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약 65%의 아동이 주양육자와 한 달에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음.
 - 가장 빈도가 낮은 여가 활동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임(약 5.5% 한 달에 한 번 이상).
- 아동정책 평가
 - 만족하고 있는 아동정책: 무상보육지원정책 41.5%, 빈곤아동지원정책이 31.3%의 순으로 만족함.
 - 요보호아동 시설보호정책(3.5%)이나 다문화아동지원정책(9.8%), 아동권리증진정책(12.2%) 등의 만족도는 낮은 편임.
 -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정책: 아동 성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9.7%). 왕따 등 학교폭력예방정책(29.2%),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9%) 등의 순임.
 - 빈곤층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 이상), 의료비지원(30%내외), 아동수당정책(27 ~ 30%) 선호
 - 일반가구는 아동성폭력예방(30.4%), 학교폭력예방정책 (29.6%), 방과후 돌봄정책(29.1%) 선호

□ 아동용 설문분석

- 주보호자에 대한 생각: 24점 만점에 평균은 약 17점으로 ‘자주 그렇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주양육자에 대한 생각을 보여줌.
- 주보호자와의 관계: 32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약 26점으로 ‘그런 편이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임.
- 보호자와의 고민상담: 약 57%의 아동들이 아버지와의 고민상담을 쉽거나 매우 쉽다라고 응답한 반면, 어머니와의 고민상담은 약 77%라고 함.
- 주관적 가정형편: 7점 만점에 척도의 평균이 4.53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가정형편을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동들이 응답한 평균은 약 3점 정도로, 일반가구의 4.6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음.
- 아동 결핍 수준: 14개 문항 중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52.8%),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3.5%로 가장 낮았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나 조손가족일수록 결핍 비율이 높음.
 - 14개 문항 중 2개 이상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아동 비율로 측정되는 아동 결핍수준을 23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54.8%로 최하위

3) 사회성 및 정서

□ 문제행동: 공격성 및 우울/불안

- 공격성: 54점 만점에 평균 22.9점으로 중간이하임.
 - 여아, 연령이 낮을수록, 차상위가구의 경우가 높았음.
- 우울 및 불안: 33점 만점에 16.3점으로 중간이하로 낮은 편
 - 여아,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아동의 경우가 약간 더 높음.

□ 자존감 및 유능감

- 자존감: 4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평균이 2.95로 2008년 평균과 동일한 수준
- 유능감: 전체 평균은 4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2.75로 파악됨.

□ 스트레스: 4점 만점에 2.12로 파악됨.

- 연령이 상승할수록, 중소도시 및 농어촌거주의 경우가 약간 더 높음.
- 스트레스는 주로 학업 및 부모와의 관계 갈등에서 주로 기인.

□ 공동체의식

- 4점 만점에 2.12점으로 파악됨. 이는 2008년 2.75에 비해 낮아진 수치임.
 - 남아, 저연령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낮았음.

□ 삶의 질

- 학생 삶의 만족도: 아동의 학생생활만족도 평균은 35점 만점에 22.83점으로 파악되었고, 5점 평균은 3.26임(100점 만점으로는 65.2점).
 - 12-17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음.
- WHO 기준 삶의 만족도: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척도를 사용한 결과(WHO에서 사용),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10.
 - 성별차이는 없었고, 고연령일수록, 저소득층의 경우,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경우가 더 낮았음.

○ UNICEF 기준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차지.

○ 행복감: 4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03으로 2008년 3.05과 거의 유사함.

- 여아, 고연령대, 농어촌 및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경우가 낮았음.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 총점: 총 60점 만점에 평균 32.38점으로 파악됨.

- 중고생, 남자, 일반가구, 농어촌 및 중소도시 거주, 양부모가족 아동의 중독비율이 높음.
- 초등생의 16.3%, 중고생의 9.3%가 고위험군으로 파악됨.

□ 정서

○ 부모애착: 평균은 3.6으로 비교적 높은 편. 2008년의 경우는 3.5.

○ 기질: 4점 만점에 활동적이다 3.3~3.4로 되어 있고, 순하다는 3.1,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1.9~2.3, 더디다는 1.9~2.2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함.

○ 정서지능(EQ): 총점은 2.6~3.1의 사이임.

- 4유형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정서지능은 정서인식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이입, 정서표현, 정서조절 등의 순임.

4) 인지 및 언어생활

□ 인지

○ 0세에서 8세까지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동은 평균 3.4 정도의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비슷하다’ 와 ‘빠른 편이다’ 의 사이를 의미함.

- 차상위가구나 기초수급가구 및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이 일반가구 및 양부모가족의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차상위가구 및 기초수급가구에 속하는 아동과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비속어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11세 아동의 경우 32.8%이며 12-17세 아동의 경우 15%로 나타남.
- 비속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1세 아동의 경우 9.6%이며 12-17세의 경우 24.6%로 나타남.
- 비속에 사용에 대해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11세 경우에는 43.2%로 나타났으며, 12-17세의 경우에는 21.5%로 나타남.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올라가며, 아동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대함.

□ 언어

- 0세에서 8세까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은 평균 3.41로,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비슷하다' 와 '빠른 편이다' 사이임.
 -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 및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이 일반가구 및 양부모가족의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 또한 약간 느린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및 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에 대한 인지발달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됨.

□ 학업성취

- 9-11세가 평균 6.9점으로 12-17세의 6.2점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취도가 낮아짐
 -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취도가 낮아지고, 소득수준별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커짐.

- 학업성취도는 소득계층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시사점

- 아동이 어릴수록 비속어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속어 사용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음.
 - 아동의 연령이 어릴 때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학업성취도는 소득계층과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저소득층일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구일수록 일반소득계층 및 일반가구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소득계층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영어과목과 수학과목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5) 건강 및 안전생활

- 아동의 건강수준관련 조사는 부모용은 0-17세, 아동용은 9-17세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 척도로 설문하였고, 전체적으로 90%이상이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평균점수는 3.3점이었음.
- 예방접종률은 필수항목을 모두 다한 비율이 0-2세에서 95.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2008년의 경우 0-2세 필수항목접종률은 96.8%로 나타났음. (OECD 평균 93.7%; 백일해예방접종률 기준)
- 안경착용률
 - 아동이 안경을 착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안경을 착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29.9%로 높게 나타났음. 6-8세부터 10%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고, 12-17

세에서는 45.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안경착용의 경향도 소득수준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였음.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의 순으로 안경착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 2008년 조사와 비교시 3-5세의 동연령대 안경착용률보다 증가하였고, 6-8세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음. 6-8세를 지역별로 200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증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6-8세의 안경착용률은 감소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연간 응급실 이용률은 0-2세 2.9%, 3-5세 1.5%, 6-8세 1.1%, 9-11세 1.1%, 12-17세 1.6% 등으로 낮게 나타났음.

□ 식습관

- 항상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은 3세 이상 아동에서 61.3%였음.
- 아침식사 결식률은 연령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비율은 9-11세 10.8%, 12-17세에서 16.4%로 나타났음. 2008년과 비교시 아침식사결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아동의 51.2%가 주 3회 이상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가구의 아동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주간 30분 이상 운동일수가 3일 이상인 아동은 주양육자 응답(3세 이상)에서는 약 34.0%로 나타났음. 고등학생 시기의 운동실천율이 급감하였음.

□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아동의 평균 기상시각은 7시 16분, 취침시각은 평균 10시 12분으로 나타났음.

- 12-17세 연령층에서 기상시각이 빨라지고, 취침시각은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음.
- 중고등학생 시기인 12-17세의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28분 정도였음. 2008년 12-17세 평균수면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동의 평균체중은 12-17세에서 53.2kg으로 2008년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음.
아동의 평균신장은 12-17세 162.1cm로 2008년보다 감소하였음.

○ 아동 비만율은 빈곤층이 일반계층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양육자의 건강특성

○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의 95%가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다고 응답함.

○ 주양육자의 음주 및 흡연은 주양육자 중 61.5%, 주양육자의 배우자 중 24.7%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양육자 본인의 흡연율은 약 4.9%, 주양육자의 배우자의 흡연율은 35.1%로 나타났음.

○ 주양육자의 우울감: 주 양육자의 평균 우울수준은 5.65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조손가족일수록 주양육자의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음

□ 임신출산 건강

○ 아동을 출산할 당시의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71.4%, 제왕절개 28.3%로 나타났으며, 출산했을 때 조산했던 경우는 남자 8.1%, 여자 6.7%로 나타났음.

○ 정기적인 산전진찰은 9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신기간 중 철분제 복용률은 88.9%였음.

○ 아동의 출생 시 몸무게는 평균 3.2kg로, 대체로 건강한 수준으로 출생하였으며,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1.5%로 나타났음.

○ 모유만 먹인 경우가 22.3%로, 평균 모유수유기간은 13.7개월이었음.

□ 아동 방임 및 학대 실태

○ 0~8세 아동이 지난 6개월간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률은 약 18.7%였으며, 6-8세 아동은 38.1%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방치율은 빈곤가구, 농어촌 지역, 한부모·조손가족이 높게 나타남.

○ 아동방임 및 학대와 관련해서 정서적 학대가 신체 학대보다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및 가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아동이 보고한 경험률(피해)은 신체학대 6.1%, 정서학대 11.9%, 방임 40.7%로 나타남.

- 주양육자가 보고한 경험률(가해)는 신체학대 3.9%, 정서학대 8.8%, 방임 38.4%로 나타남.

• 9-18세 아동(피해)이 부모(가해)에 비하여 경험을 높게 보고하였음.

□ 안전교육 및 안전습관

○ 안전교육을 받은 아동은 44.3%로 절반 미만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교육 경험률이 높지 않음.

○ 안전습관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실천율이 높으나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흡함.

- 카시트 사용률은 65.2%, 안전벨트 사용률은 75.8% 나타남

• 카시트의 착용률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질수록 낮아짐(기초수급가구 24.1%, 차상위가구 38.2%, 일반가구 66.1%),

○ 아동의 안전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성범죄와 유괴에 대한 우려도 높은 편이었음.

- 이러한 사고에 대한 걱정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만0-2세 ①놀이중사고(25.7%), ②유괴(24.8%), ③교통사고(16.7%)

• 만3-5세 ①교통사고(31.4%), ②놀이중사고(26.9%), ③유괴(18.9%)

• 만6-8세 ①교통사고(37.3%), ②놀이중사고(18.9%), ③성범죄(17.5%)

• 만9-11세 ①교통사고(36.2%), ②성범죄(21.2%), ③놀이중사고(14.7%)

• 만12-17세 ①교통사고(31.2%), ②유해미디어(23.9%), ③성범죄(22.0%)

○ 아동을 잃어버린 경험은 약 6%로 나타났으며, 실종경험 시기는 취학 전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실종의 위험이 높았음.

□ 시사점

- 전반적으로 아동의 건강지표들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안정 착용률, 과체중 및 비만율과 같은 주요 건강문제들이 빈곤층, 가구형태, 어머니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음.
 - 만성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맞벌이 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예방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
- 모유수유율 증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생후 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 권장). 조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을 위한 모성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함. 특히 건강증진정책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임신부, 영유아 대상 건강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음주 및 흡연, 우울감과 같이 부모의 건강상태 및 가족기능강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아동방임 및 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및 가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이는 취약계층에서 학대 발생률이 높으며, 취약 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 아동발달특성에 근거한 아동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아동보호용구 착용 의무화 이행 강화 등이 필요함.

6) 학교생활

□ 학교생활

○ 취학현황

- 전체 아동 중 99.9%가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취학여부가 조금씩 차이를 보임.

○ 학업중단의사

- 전체 아동 중 0.6%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남자아동이 0.7%로 여자아동 0.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9-11세=0.3% vs 12-17세=0.7%), 차상위가구 아동(1.5%)과 기초수급가구 아동(1.2%)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1.2%),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일수록(1.3%) 높게 나타남.

○ 희망교육수준

- 대다수의 아동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학교생활만족도

-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 학교생활만족도는 3.1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관계

○ 친구도움정도

- 과반 수 이상의 아동(52.9%)이 친구들이 친절하고 도와준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이 응답한 친구의 도움 정도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친구들이 친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비율이 기초수급가구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남.

○ 친구애착 및 이탈정도

- 아동의 친구애착 정도는 평균 3.0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탈 정도는 평균 1.4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친구 애착 정도가 높고 이탈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 친한 친구 수

- 아동 평균 7.8명의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아동일수록, 12-17세 아동일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친한 친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성교제 경험률

- 9-17세 아동의 11.8%가 현재 서로 좋아하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반이나 기초수급가구 아동일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 아동일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

○ 비행행동

- 전체 아동의 6.9%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2.1%의 아동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7%의 아동이 무단결석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 각 비행행동마다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특성이 상이함.

○ 학교폭력 피해/가해 행동

- 학교폭력 피해: 전체 아동의 32.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차상위가구 아동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학교폭력 가해: 전체 아동의 21.5%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일수록, 기초수급가구 아동일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가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사이버 폭력 피해/가해 행동

- 사이버 폭력 피해: 전체 아동의 2.8%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사이버 폭력 가해: 전체 아동의 2.7%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음.

□ 시사점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업중단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의 운영강화가 필요함.
- 아동의 비행행동마다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다각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비행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습관화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적으로 지속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한 폭력 예방 및 치료·개입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

7) 방과후생활

□ 방과후 생활

- 방과후 활동실태 1: 주양육자가 인지한 아동의 평일 방과후 생활은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4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집에서 쉬기(22.4%),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 또는 방과후 학교 참여가 14.7% 순임.
- 여자아동일수록, 9-11세 연령대의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일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가정 아동일수록 평일 방과후에 학

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방과후 활동실태 2: 아동이 응답한 평일 방과후 생활은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집에서 쉬기(21.8%),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 또는 방과후 학교 참여(15.5%) 순임.

- 남자아동일수록, 9-11세 연령대의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일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가정 아동일수록 평일 방과후에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방과후 희망활동 1: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을 보면, 거의 절반은 '학원 및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활동을 희망하며(49.2%), 다음이 집에서 숙제하기(39.8%), 집에서 쉬기(33.3%) 등이었음.

○ 방과후 희망활동 2: 아동이 인지하는 방과후 희망활동을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집에서 쉬기(61.2%)였으며, 다음이 친구들과 놀기(48.7%)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후 활동 실태가 '학원 및 과외'와 같은 사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숙제하기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은 방과후 휴식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휴식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음.

○ 교사 1인당 적정 돌봄아동수: 2-5명이 가장 많은 64.1%이었고, 그 다음은 6-10명으로 24.9%이다. 대부분의 부모가 10명 이하를 원하고 있음.

○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 (부모응답)

- 평일: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 혼자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주말 및 방학: 부모님이 가장 많았으나, 형제·자매, 혼자, 친구 등 아동들끼리 혹은 아동혼자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 (아동응답)

- 주말 및 방학: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형제/자매, 혼

자, 친구 등 아동들끼리 혹은 아동혼자 자내는 경우도 부모의 응답과 동일하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방과후 나홀로 실태

- 방과후 나홀로 빈도: 아동의 1/5 이상(20.6%)은 방과후 혼자 집에 있는 날이 3일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 이상(10.5%)은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보다 농촌지역 아동의 돌봄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의 아동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3배 이상 많음.
- 방과후 나홀로 시간: 아동의 20% 이상이 한번에 3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함.
 - 남자 아동일수록 오랜 시간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농촌지역 아동일수록 오랜시간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대상, 농촌지역 대상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충 및 개발이 요청됨.

□ 사회활동 참여실태

- 사회활동 참여율 및 횟수: 참여율이 높은 영역은 문화예술이었고, 그 다음은 취미특기, 직업능력의 순임.
 - 아동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거주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참여 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대도시 거주, 차상위 가구, 혹은 한부모·조손 가족 아동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
- 자원봉사활동: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 자원봉사유형은 일손돕기였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임.
 - 일반가구,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저조함. 일반가구 아동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구는 경제적인 여유없음으

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짐.

- 이는 이러한 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동아리활동: 학교 동아리 참여율은 30.0%이었고, 시설 및 단체는 5.9%로 저조하고, 사이버 동아리는 2.9%임.

- 일반가구, 농어촌 거주 아동, 양부모가족의 아동일수록 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저조함.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가입동아리 수는 1-2개가 가장 많은 30.7%.

○ 아동의 종교생활: 무교 64.7%, 불교 21.2%, 개신교 7.2%, 천주교 5.5% 순임.

□ 아동의 권리

○ 아동의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들어본 적 없다’가 67.3%로 절반 이상임.

- 2008년도와 비교하면 인지도가 상승했음.

○ 부모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들어본 적 없다’가 51.3%로 절반이상을 차지.

- 내용도 알고 있는 경우는 7.8%로 매우 낮은 편.

○ 아동권리보장 정도(아동): 전혀 못 받고 있다 29.1%, 약간 보장되고 있다 56.3%, 상당히 받고 있다 13.3%, 매우 많이 받고 있다 1.4%로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권리보장 정도(부모): 전혀 못 받고 있다 27.5%, 약간 보장되고 있다 64.4%, 상당히 받고 있다 7.7%, 매우 많이 받고 있다 0.4%로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8) 사교육 및 복지서비스

□ 0-5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및 사교육 이용실태

○ 영유아의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양육수당 39.5%, 국공립 어린이집 15.3%, 민간어린이집 32.0%, 가정어린이집 8.5%, 직장어린이집은 0.5%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의 경우는 정규시간외 유치원 2.3%, 정규시간 유치원 3.9%, 지역아동센터 0.4%를 이용하고 있음.

○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5.4%였으며, 개인 및 그룹과외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0.8%,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12.6%로 나타남.

○ 영유아의 기관외의 돌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친인척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경우는 2.2%, 이웃이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는 0.7%로 나타남. 문화센터의 이용률은 4.8%로 낮은 편이었음.

○ 돌봄기관 및 사교육기관 이용 후 대부분의 아동은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집 2.0%, 학원 0.4%로 소수 나타남.

□ 6-17세 초중고생의 사교육 이용실태

○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68.1%로 절반이상이었으며, 개인 및 그룹과외를 이용은 9.1%,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22.0%로 나타남

- 사교육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짐
- 연령에 따라서는 학원은 9-11세 아동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 및 그룹과외는 6-8세 아동에 비해 고학년과 중고생의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았음.
- 학습지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중고생에 비하여 현격히 높았음.

○ 사교육 이용비용은 평균 학원비로는 30.4만원, 개인 및 그룹과외비로는 27.5만원, 학습지는 7.7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학원이용비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도 높아짐.

□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의 이용실태

○ 학교 내 방과후 보충학습을 이용하는 경우는 24.9%, 학교 외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5.9%로 나타남.

○ 학교 내 방과후 보충학습 이용비용은 평균 6.2만원, 학교 외 방과후 교실 이용

비용은 평균 6.2만원으로 유사하였음.

□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 0-5세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복지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영아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26.2%,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 14.8%, 24시간 보육시설 2.0%, 아동상담 프로그램 3.8%,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6.6%로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영아이용어린이집 외에는 소수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복지서비스의 필요도는 영아이용어린이집은 72.8%,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 77.0%, 24시간 보육시설 52.2%, 아동상담 프로그램 58.2%,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59.1%로 나타남.

□ 6-17세 아동의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필요여부

- 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방과후 학습은 25.8%, 취미기능교실 25.7%, 문화활동 15.5%, 성격, 정서문제 등 상담프로그램의 이용률은 4.5%,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의 이용률은 6.0%로 나타남.
-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의 이용률은 9.4%, 장학금 등 학비지원의 이용률은 7.9%로 나타남.
 -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조손가족의 이용률이 높았음.
- 복지서비스 필요율은 방과후 학습 73.1%, 취미기능 교실 77.7%, 문화활동 75.2%로 70%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정서문제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7.9%, 부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5.1%로 나타남.
 -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6-8세와 9-11세 초등학생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필요도도 높게 나타남.
 -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가구의 필요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사점

- 사교육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사교육 비용의 비중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음.
 - 이는 빈곤가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시사
-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의 이용률과 필요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농어촌은 이용률과 필요도가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 복지서비스 정보에 대한 홍보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9) 진로 및 아르바이트

□ 진로

- 9-17세 아동이 원하는 직업순위는 전문직 및 관련종사자가 67.3%로 가장 높은 응답률 보임.
- 9-17세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39.9%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 12~17세 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매우 낮고 아르바이트 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이 높지 않음.
- 12~17세 아동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식당, 레스토랑 및 카페서빙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단지 돌리기가 16.8%로 높게 나타났음.
-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8일 정도임.
 - 남자일수록, 저소득계층일수록, 대도시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기간이 길어짐. 한부모·조속가족보다 양부모 가족에 속하는 아동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이 길어짐.

-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남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농어촌일수록, 한부모·조손가족일수록 길게 나타남.
- 아르바이트 시간당 임금은 여자일수록, 저소득계층일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조손가족일수록 낮게 나타남.

□ 시사점

-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높지 않은 편이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동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낮음.
 -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아동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향후 본인이 원하는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저소득계층일수록,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한부모·조손가구에 속하는 아동일수록 아르바이트 연간 아르바이트 기간은 짧으나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길고 시급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성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시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10)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환경

□ 주거생활

○ 주거실태

- 전체적으로 점유형태는 자가(57.1%), 전세(31.1%), 월세(5.2%), 보증부월세(5.0%), 기타(1.5%) 순으로 나타났음.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자가인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59.0%)을 넘었으나, 기초수급가구는 보증부월세인 경우가 35.4%, 차상위가구는 월세가 31.2%로 가장 많았음.

○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양호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임.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 및 성능 등이 양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지역사회 환경

○ 지역 내 생활환경

- 지역 내 생활환경 파악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 자연환경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는지 질문함.
- 전반적으로는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임. 대체로 빈곤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일반가구와 지역규모가 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인식

- 주양육자 및 만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환경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만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응집력으로 나누어 조사함.
- 지역사회 무질서는 주양육자와 아동 모두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어촌 지역에 비해 무질서 수준이 높았음.
- 지역사회 만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응집력과 같은 긍정적인 부분은 일반가구가 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규모로 살펴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지역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이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주거 정책 및 지역 주민들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4. 논의 및 정책제언

-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이후 지난 5년 간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약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공격성 및 우울, 행복도나 만족도, 자존감 및 유능감 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IT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경우 중독률이 급증한 상황임.

-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은 매체 중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취약계층(빈곤가구, 한부모·조손가족)의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 수준은 영역별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는데, 아동의 주관적 건강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주관적 삶의 질과 결핍 면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빈곤 아동 가족지원을 위해, 현금 지원 확대 및 소득보장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이 제고되어야 함.
 - 또한 아동 빈곤율 감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가구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현금지원의 확대방안이 필요함.
- 아동 삶의 만족도는 가족의 경제수준, 친구관계, 여가활동이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가활동은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수준에서 가장 높은 결핍 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동의 생활시간 및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우려할 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지난 5년 간 중독아동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중독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과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동의 생애주기별 아동건강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먼저 신생아 및 영유가지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적 건강검진의 수검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취학전 및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증진과 정신적 건강증진이 모두 필요함. 또한 아동기의 건강은 모성건강과 양육자의 건강 상태와도 관련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가 필요함. 또한 학업중단을 감소, 비행행동 예방 및 감소,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감소 관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의 양적·질적 제고가 필요함.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관한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함. 또한 아동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안전교육과 아동 안전보호 장비 착용 의무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아동권리 제고를 위해 아동정책의 기본 프레임을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실제로 어느 영역에서의 권리가 취약하고, 어떠한 문제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임. 더불어, 아동 스스로의 권리에 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우리나라 아동의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을 살펴본 결과, 빈곤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열악한 편이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사업 및 프로그램 활성화, 빈곤가구의 밀집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필요성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의 팽배와 함께, 학력제일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아동은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UNICEF(2007)에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분석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객관적인 영역(건강, 교육, 안전 등)에서는 양호하나, 주관적인 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가장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의 건강성은 곧 사회의 건강성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 아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저출산 사회 대응 정책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2012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었다.

아동을 위한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제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대응정책개발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아동의 처한 가정환경실태에 대한 통계생산이 요구된다.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대표성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적 조사를 통해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지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변화와 연령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조사를 통해 자료가 주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지표를 개발하여 아동 및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용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8년에 수행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이와 같은 자료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고, 후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변화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아동의 특성과 다양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2008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은 연령대별로 특성을 다르게 보이고, 아동이 속한 가족의 생활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학업성취도가 차상위 이상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9-1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행동에 있어서 빈곤층과 차상위 이상층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외현화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했으며, 특히 12-18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7.1시간으로 다른 연령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과 후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동'은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급변하고 있어 아동실태의 특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조사시점마다 전체 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가능한 횡단적 조사의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 당사자 뿐 아니라 아동의 주양육자에 대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양육 방법, 정서 및 건강 실태 등을 파악하여 아동의 양육환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아동의 성장은 가정양육환경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이 처한 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영역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 조성'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투자를 위해 아동의 연령별, 계층별 욕구 등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향후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 생산 기제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은 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2012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로 매5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일환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실시한 바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서 아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동생활의 변화추이를 예측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아동정책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욕구와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아동지표를 개발하며, 아동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및 정책수요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2008년에 수행된 기존의 조사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 다가올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아동생활실태, 아동인권 및 사회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 및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여 아동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아동의 수준을 국제 비교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인식 및 복지욕구를 심층파악하고, 향후 적극적인 정책개발·수행이 요구되어지는 복지정책, 아동의 인권보장 정책, 아동의 다양한 사회참여 정책 등의 새로운 욕구 발견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실태에 대한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아동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8년 실시된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본분포를 유지하되 가중치 조정을 통하여 2013년 기준으로 0~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제 특성을 비교하고, 자료 활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2008년 실태조사 영역 및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되,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조사영역을 분류 및 항목을 개발하고 아울러 국제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시켰다(예: 아동의 행복도, 만족도 등).

조사자료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정책 및 학문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사사업은 당年度の 조사의 실시 뿐 아니라 조사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자료의 홍보, 배포 등을 포괄하여 조사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욕구와 아동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표성 있는 아동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아동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및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한다. 셋째, 아동에 대한 적극적, 선제적 투자를 위해 필요한 아동의 연령별, 계층별 욕구 등 기초자료 구축한다. 넷째, 요보호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아동에 대한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다섯째, 실증적 자료에 입각한 중장기 아동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개발하고,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제2절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개요

1.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3년 11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5일까지 전국의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보호자의 경우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해 조사되었고, 아동은 만0세에서 만8세까지는 아동의 보호자가 응답하고, 만9세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 가구유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의 정의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의 대상 가구 정의

구분	내용
기초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의 정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차상위가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명시한 빈곤아동에 관한 정의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단, 시설아동은 제외함)
일반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먼저 기초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의 정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 리스트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차상위 가구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항에서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다(〈표 1-2〉 참고). 그러나 현재 차상위계층은 사업별, 정책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가구와 같이 해당자의 리스트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과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빈곤아동에 관한 정의(〈표 1-3〉 참고)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의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가구로 정의내리고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리스트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표본추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표 1-2〉 법에 의한 기초수급 및 차상위 아동 정의

구분		내용
기초수급 아동 차상위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정의)에서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2. 조사표 유형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표 유형은 보호자용 조사표, 아동용 조사표로 구분된다. 자가 응답이 불가능한 만 0세부터 만8세까지는 해당 사항을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 1-3, 1-4 참고).

〈표 1-3〉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표 유형 및 조사대상

보호자용 조사표	아동용 조사표
- 조사대상: 만0세-만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 ※ 만0세~만8세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응답함.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 조사 - 기준응답시점: 2013년 10월 31일 기준	- 조사대상: 만 9세-만 18세 미만의 아동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아동 자기기입식 조사 - 기준응답시점: 2013년 10월 31일 기준

조사표 문항은 공통문항과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있다.

〈표 1-4〉 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조사대상

만 3세 미만 (2010.10.1이후)	만 3~5세 (2010.9.30~2007.10.1)	만 6~8세 (2007.9.30~2004.10.1)	만 9~11세 (2004.9.30~2001.10.1)	만 12~18세 미만 (2001.9.30~1995. 10.1)
보호자				
×			아동	

3. 조사내용

본 실태조사는 2008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아동대상실태조사이다. 그러나 5년전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 아동연령이 0세에서 18세까지인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기반하여 0세에서 18세 미만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조사표의 유형과 관련하여 2008년에는 부모용 5가지(0-2세용, 3-5세용, 6-8세용, 9-11세용, 12-18세용)였고, 아동용은 2가지(9-11세용, 12-18세용)이었는데, 이를 ‘보호자

용'과 '아동용' 2가지로 통폐합하였다. 이는 데이터를 운영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셋째, 이번조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에서도 청소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가급적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주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항목이 해당된다. 그리고 2008년 아동용 조사에서는 9-11세용과 12-18세용이 문항수면 차이가 많았는데, 이번조사에서는 거의 동일한 문항수로 조사하였다. 넷째,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2013년 조사에는 OECD 국가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아동결핍지수, 주관적 웰빙척도 등을 포함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2조사의 조사영역 및 항목수 등의 차이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1-5〉 2008년과 2013년 실태조사 비교

연도	2008년 조사	2013년 조사
실태조사근거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제11조
조사명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소요예산	6.2억원	3.7억원
표본수	6,923가구	4,007가구
연구기간	'08.07.21 ~ '09.01.20 (6개월)	'13.6.12 ~ '13.12.20 (6개월)
조사항목		
조사표 종류 및 영역수	1. 부모용 1) 0-2세: 12개 영역 2) 3-5세: 12개 영역 3) 6-8세: 13개 영역 4) 9-11세: 11개 영역 5) 12-18세: 11개 영역 2. 아동용 6) 9-11세: 6개 영역 7) 12-18세: 6개 영역	1. 보호자용: 9개 영역 2. 아동용: 7개 영역
조사항목 수	1. 부모용 1) 0-2세: 97개 항목 2) 3-5세: 97개 항목 3) 6-8세: 96개 항목 4) 9-11세: 59개 항목 5) 12-18세: 56개 항목 2. 아동용 6) 9-11세: 34개 항목 7) 12-18세: 62개 항목	1. 보호자용: 83개 항목 (연령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 2. 아동용: 64개 항목 (연령별로 약간 차이가 있음)
주요 차이점	연령대별 설문지 부모용 5종, 아동용 2종 (총 7종)	다양한 연령대 보호자용 5종의 설문지 통합 및 2종의 아동용 설문지 통합 (총 2종) 설문 중 청소년과 관련된 항목 삭제 폭력에서 가해의 경우 추가 국제비교를 위한 항목 추가

보다 구체적인 영역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부모용 조사영역은 2009년에는 13개 이었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이를 9개 영역으로 축소하였다. 의료영역은 삭제하였고(건강보험 가입여부로 다른 자료를 보면 파악가능), 분리된 주거와 지역환경은 합하였고, 생활비와 소득도 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보호자 대상에는 가구일반사항,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인지 및 언어생활, 방과후 생활, 건강 및 안전, 사교육 및 특별활동, 주거생활, 지출 및 소득의 영역을 조사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는 2008년에는 6개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언어생활을 추가하여 총 7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언어생활, 학교생활, 방과후 생활, 건강 및 안전, 진로 및 아르바이트가 포함된다.

<표 1-6> 2008년과 2013년 조사표 영역 비교

부모용		아동용	
2008년	2013년	2008년	2013년
I. 가구일반사항	I. 가구일반사항 (경제활동 상태 포함)	I. 사회성 및 정서	I. 사회성 및 정서
II. 지역환경	II. 사회성 및 정서	II. 가정생활	II. 가정생활
III. 가족생활 및 가정환경	III. 가정생활	III. 학업 및 학교생활	III. 언어생활 (추가)
IV. 방과후 생활	IV. 인지 및 언어생활	IV. 방과후 생활	IV. 학교생활
V. 인지 및 언어	V. 방과후 생활	V. 건강 및 안전	V. 방과후 생활
VI. 사회성 및 정서	VI. 건강 및 안전	VI. 진로	VI. 건강 및 안전
VII. 건강 및 안전	VII. 사교육 및 특별활동		VII. 진로 및 아르바이트
VIII. 사교육 및 특별활동	VIII. 주거 및 지역환경		
IX. 경제활동 상태	IX. 지출 및 소득		
X. 의료	(삭제)		
XI. 주거	(주거에 포함)		
XII. 생활비	(지출 및 소득에 포함)		
XIII. 소득	(지출 및 소득에 포함)		

보다 구체적인 2개년도의 문항별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1-7〉 2008년과 2013년 설문지 구성 비교

2008년 (총7종)							2013년 (총2종)	
항목	0~2세용 가구일반사항 (문1~문1-8)	3~5세용 가구일반사항 (문1~문1-8)	6~8세용 가구일반사항 (문1~문1-8)	9~11세용 가구일반사항 (부1~부1-8)	12~18세용 가구일반사항 (부1~부1-8)	0~18세미만 가구일반사항 (보1)		
지역 환경	지역사회환경(문2)	지역사회환경(문2)	지역사회환경(문2)	지역사회환경(부2)	지역사회환경(부2)	- 수정: -보호자:Ⅷ. 주거 생활로 이동(일부문항삭제) - 추가: -아동:지역사회환경추가 - 유지: -보호자:사회적 지원, 용돈, 관심, 부모감독, 부모참여, 미디어노출, 가족여가활동 - 삭제: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생각, 보호자와 관계		
가족 생활 및 가정 환경	부부관계(문3~문3-4), 이혼이후 양육기간(문4), 주기적 만남여부(문5), 사회적 지원(문6, 문7), 부모효능감(문8), 기대교육수준(문9, 문10), 양육태도 및 신념(문11), 이주여부(문12), 양육실제 (문13~문21), 용돈(문22), 미디어 노출(문23, 문24), 가족여가활동(문25), 인지적 자극 (문25, 문26))	부부관계(문3~문3-4), 이혼이후 양육기간(문4), 주기적 만남여부(문5), 사회적 지원(문6, 문7), 부모효능감(문8), 기대교육수준(문9, 문10), 양육태도 및 신념(문11), 이주여부(문12), 양육실제(문13~문21), 용돈(문22), 부모감독(문23), 부모참여 (문24), 미디어 노출(문25), 인지적 자극(문26, 문27)	부부관계(문3~문3-4), 이혼이후 양육기간(문4), 주기적 만남여부(문5), 사회적 지원(문6, 문7), 부모효능감(문8), 기대교육수준(문9, 부10), 양육태도 및 신념(문12), 이주여부(문13), 양육실제 (부14~부22), 용돈(부23), 부모감독(부24), 부모 참여(부25), 미디어 노출(부26), 인지적 자극(부27), 가족여가활동(부28), 부모님에 대한 생각(아24), 부모님과의 관계(아25)	부부관계(부3~부3-4), 이혼이후양육기간(부4), 주기적 만남여부(부5), 사회적 지원(부6, 부7), 부모효능감(부8), 기대교육수준(부9, 부10), 양육태도 및 신념(부12), 이주여부(부13), 양육실제 (부14~부22), 용돈(부23), 관심(부24), 부모 참여 (부25), 미디어 노출(부26), 인지적 자극(부27), 가족여가활동(부28), 부모님에 대한 생각(아24), 부모님과의 관계(아25)	- 수정: -보호자:가족관계(기능), 주관적 가정행위, 가족유형, 아동경제평가, 아동: 보호자와 고만상 담, 주관적 가정행위 - 삭제: -보호자:이혼이후 양육 기간, 주기적 만남, 부모효능감, 이주여부, 양육실제(채별만)			

2008년 (총7종)						2013년 (총2종)	
항목	0~2세용	3~5세용	6~8세용	9~11세용	12~18세용	0~18세미만	
인지 및 언어	0세용: 인지, 언어 (문27, 문28) 1세용: 인지, 언어 (문29, 문30) 2세용: 인지, 언어 (문31, 문32)	3세용: 인지, 언어 (문28, 문29) 4세용: 인지, 언어 (문30, 문31) 5세용: 인지, 언어 (문32, 문33)	6세용: 인지, 언어 (문33, 문34) 7세용: 인지, 언어 (문35, 문36) 8세용: 인지, 언어 (문37, 문38)			- 수정항목: -보호자: 인지 및 언어 발달수준 -추가항목: -아동: 비속어사용 관련	
						- 유지: -보호자: 애착, 활동성, 대인관계, 기질 -아동: 공동체성, 정서지능, 자존감 및 유능감, 행복감 - 수정: -아동: 아동행동평가(공격성, 우울불안) - 추가: -아동: 스트레스, 학생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 삭제: -보호자: 사회성, 문제행동, 정서발달을 위한 부모의 태도 -아동: 자기표현, 성취동기, 대인관계, 자기관리, 낙관성, 자신감, 문제해결, 이동전화 및 인터넷 이용시기, 인터넷 이용경험 및 윤리	
사회 성 및 정서	사회성(문33), 문제행동 (문34), 포래 및 대인관계(문35~문38), 사회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39), 기질(문40), 애착(문41~문44), 정서지능(문45), 정서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46)	사회성(문34), 문제행동 (문35), 포래 및 대인관계(문36~문39), 사회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40), 기질(문41), 애착(문42~문45), 정서지능(문46), 정서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47)	사회성(문39), 문제행동 (문40), 포래 및 대인관계(문41~문44), 사회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45), 기질(문46), 애착(문47, 문48), 정서지능(문49), 정서발달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50)	아동행동평가(아1), 자아존중감(아2)	아동행동평가(아1), 자기표현(아2), 성취동기(아3), 공동체성(아4), 대인관계(아5), 자기관리(아6), 정서지능(아7), 자아존중감(아8), 낙관성(아9), 행복감(아10), 자신감 (아11), 문제해결(아12), 평일휴일 주요활동시간(아13), 청소년 활동 참여경험 (아14, 아14-1), 동아리활동 경험(아15, 아16), 매체 이용현황(아17), 이동전화 및 인터넷 이용시기(아18), 인터넷 이용경험 및 윤리(아19~아23)		

항목	2008년 (총7종)				2013년 (총2종)	
	0~2세용	3~5세용	6~8세용	9~11세용	12~18세용	0~18세미만
건강 및 안전	아동의 건강특성(문47~문56), 수면(문57~문60), 영양 및 섭식(문61~문63), 신체활동(문64~문65-1), 부모의 건강특성(문66~문68-1), 우울-부모(문69), 임신과 출산(문70~문77-1), 배변(문78, 문78-1), 아동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79), 아동학대(문80), 방임(문81), 일상안전(문82),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83), 아동권리의식(문84~문86)	아동의 건강특성(문48~문57), 수면(문58~문61), 영양 및 섭식(문62~문64), 신체활동(문65~문67), 부모의 건강특성(문68~문70-1), 우울-부모1(문71), 임신과 출산(문72~문77-1), 배변(문78, 문78-1), 아동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79), 아동학대(문80), 방임(문81), 일상안전(문82),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83), 아동권리의식(문84~문86)	아동의 건강특성(문51~문60), 수면(문61~문63), 영양 및 섭식(문64~문66), 신체활동(문67~문69), 부모의 건강특성(문70~문72-1), 우울-부모(문73), 임신과 출산(문74~문79-1), 아동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80), 방임(문82), 일상안전(문83),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84), 아동권리의식(문85~문87)	아동의 건강특성(문41~문46), 수면(문47~문51), 영양 및 섭식(문52, 문53), 신체활동(문54~문56), 부모의 건강특성(문57~문62-1), 우울-부모(문63), 임신과 출산(문64~문73-1), 아동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74), 방임(문75), 일상안전(문76),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77), 아동권리의식(문78~문83)	아동의 건강특성(문40~문45), 수면(문46~문49), 영양 및 섭식(문50~문54), 신체활동(문55~문58), 부모의 건강특성(문59~문64-1), 우울-부모(문65), 임신과 출산(문66~문75-1), 아동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76), 방임(문77), 일상안전(문78),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문79), 아동권리의식(문80~문85)	- 유지: -보호자: 아동건강특성, 수면, 영양 및 섭식, 신체활동, 부모의 건강특성, 우울, 임신과 출산 -아동: 아동건강특성, 수면, 영양 및 섭식, 신체활동, 방임, 학대 - 수정: -보호자: 아동건강을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 일상안전 - 추가 -보호자: 안경착용, 아동건강상태, 외병일수, 삶의 만족도, 방임, 학대, 성학대, 부모-자녀 갈등, 아동실종 -아동: 안경착용, 아동건강상태, 외병일수, 동네안전, 안전교육, 실종경험, 자살 - 삭제: -보호자: 배변 -아동: 인권 및 사회참여의식 일부
사교 육 및 특별 활동	보육 및 사교육(문87), 방과후 거처(문88), 방과후 주 양육자(문89), 복지서비스(문90)	보육 및 사교육(문87), 방과후 거처(문88), 방과후 주 양육자(문89), 복지서비스(문90)	보육 및 사교육(문88), 복지서비스(문89)	보육 및 사교육(문51), 복지서비스(문52)	보육 및 사교육(문49), 복지서비스(문50)	- 유지: -보호자: 보육 및 사교육,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여부

항목	2008년 (총7종)				2013년 (총2종)	
	0~2세용	3~5세용	6~8세용	9~11세용	12~18세용	0~18세미만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문91-1~문91-6)	경제활동상태(문91-1~문91-6)	경제활동상태(문90-1~문90-6)	경제활동상태(부53-1~부53-6)	경제활동상태(부51-1~부51-6)	- 수정: -보호자: 가구일반사항으로 이동
의료	건강보험(문92~문92-2)	건강보험(문92~문92-2)	건강보험(문91~문91-2)	건강보험(부54-54-2)	건강보험(부52~52-2)	- 삭제: -보호자:건강보험
주거	주거일반(문93), 구조·성능·환경(문94), 거주지역 생활환경(문95)	주거일반(문93), 구조·성능·환경(문94), 거주지역 생활환경(문95)	주거일반(문92), 구조·성능·환경(문93), 거주지역 생활환경(문94)	주거일반(부55), 구조·성능·환경(부56), 거주지역 생활환경(부57)	주거일반(부53), 구조·성능·환경(부54), 거주지역 생활환경(부55)	- 유지: -보호자: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지역내 환경 - 수정: -보호자: 주거일반
생활	생활비(문96)	생활비(문96)	생활비(문95)	생활비(부58)	생활비(부56)	유지
소득	월평균 소득(문97)	월평균 소득(문97)	월평균 소득(문96)	월평균 소득(부59)	월평균 소득(부57)	유지
학업 및 학교 생활				학업 성적(아4), 학업 충실도 및 성적 향상(아5), 사교육(아6), 개인공부 시간 및 성적향상 효과 (아7), 희망 교육수준(아8), 학교생활 만족도(아9), 문제행동(아10), 학교폭력(아11), 또래관계(아12)	학생여부(아26), 학업성적(아27), 학업 충실도 및 성적 향상(아28), 사교육(아29), 개인공부 시간 및 성적향상 효과(아30), 학교생활 계획(아31), 학교생활만족도(아32), 진로계획(아33, 아34), 희망 교육수준(아35), 문제행동(아36), 학교폭력(아37), 또래관계(아38)	- 유지: -아동: 학업성적, 사교육, 학교생활계획, 학교생활만족도, 희망교육수준, 또래관계 - 수정: -아동: 학생여부(진로로 이동), 문제행동, 학교폭력(가해추가) - 추가: -아동: 반친구의 친절, 친구수, 이성교제여부, 사이버폭력 - 삭제: -아동: 학업충실도 및 성적향상, 개인공부시간 및 성적향상효과,

2008년 (총7종)						2013년 (총2종)
항목	0~2세용	3~5세용	6~8세용	9~11세용	12~18세용	0~18세미만
방과 후 생활			평일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문29), 방임 2(문30, 문30-1), 평일 방과 후 주요활동(문31-1, 문31-2), 주말·방학 중 함께 지내는 사람(문32)	방임(아13, 아13-1), 평일 방과후 시간활동(아14-1, 아14-2), 주말·방학 중 함께 지내는 사람(아15), 평일·후일 주요 활동시간(아16)	평일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아39), 방임(아40), 평일 방과후 시간활동(아41-1, 아41-2)	● 유지: -아동: 평일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 방임, 주말·방학 중 함께 지내는 사람, 청소년활동 참여(사회성에서 이동) ● 수정: -아동: 방과후 시간활동, 인권 및 참여의식(건강에서 이동) ● 추가: -아동: 방과후 희망활동, 종교
				원하는 직업(아33), 진로 성숙도(아34)	원하는 직업(아61), 진로 성숙도(아62)	● 유지: -아동: 원하는 직업(2순위) ● 수정: -아동: 진로성숙도 ● 추가: -아동: 아르바이트실태
진로						

2013년 조사표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조사문항번호는 다음 <표 1-8>, <표 1-9>에 제시하였다. 보호자용 조사표와 아동용 조사표는 공통영역을 가지는데,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인지 및 언어생활(아동용 조사표의 경우 ‘언어생활’로 구분됨)’, ‘방과후 생활’, ‘건강 및 안전’이다. 아동이 응답하기 어려운 ‘가구 일반 사항’과, ‘사교육 및 특별활동’, ‘주거생활’, ‘지출 및 소득’은 보호자용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교생활’과 ‘진로 및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은 아동이 응답하도록 하였다(부록4, 부록5의 조사표 참조).

<표 1-8> 보호자용 조사표 조사항목

영역	문항 (문항번호)	조사항목
I. 가구일반사항	1) 가구특성	가구원수, 성, 연령, 교육, 장애, 만성질환,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II. 사회성 및 정서	2) 애착	어머니의 말이나 웃음에 대한 반응, 신체접촉, 눈 맞춤, 상호작용 시 함께 웃음(4문항)
	3) 기질	활동적, 순함, 예민, 더듬(4문항)
	4-5) 또래 및 대인관계	친한 친구 수, 친구와 얼마나 자주 노는가
	6) 정서기능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7) 부부관계	배우자 동거 여부, 결혼생활 만족도, 부부갈등
III. 가정생활	8) 사회적 지원	배우자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는 정도
	9) 희망 및 가능 교육수준	
	10) 경제적 어려움	가구 내 식생활 경험(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내 영양 및 섭식 상황)
	11) 아동 결핍	하루 세끼, 육류 및 생선 섭취, 과일 및 채소 섭취,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야외활동 기구, 정기적 여가활동, 실내용 게임 및 기구, 행사 및 현장 학습을 위한 경제적 여유, 가정 내 아동을 위한 공간, 인터넷 연결 여부, 새 옷 및 신발 소지, 친구 초대 기회, 생일파티 기회
	12) 가족관계	가족기능 (8문항)
	13) 양육스트레스	5문항
	14-16) 양육실제, 신체체벌 필요성, 훈육방법	아동과 하루에 놀아주는 시간 신체적 체벌에 대한 생각, 훈육실제
	17) 용돈	실제 주는 용돈 금액
	18) 양육행동	부모감독, 양육 방식
	19) 부모의 교육 참여	5문항
	20-21) 미디어 노출	매체 이용시간, 매체 이용시간 제한 여부
	22) 여가활동 빈도	운동 및 놀이기, 외식, 쇼핑, 여행, 영화나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관람
	23) 인지적 자극	자녀와의 놀이 및 신체활동
	24) 주관적 경제수준	7점 척도
	25) 가족형태	
	2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의견	만족스런 정책, 개선 필요정책
IV. 인지 및 언어생활	27) 인지발달 수준	전반적 인지발달 수준
	28) 언어발달 수준	전반적 언어 발달 수준

영역	문항 (문항번호)	조사항목
V. 방과후 생활	29-30) 평일 방과 후 생활	평일 방과후 주요 활동, 평일 방과후 아동이 하길 바라는 활동
	31-32) 나홀로 아동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일수,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하루 시간.
	33-34) 주말 및 방학중 생활	평일 및 방학중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 평일 및 방학중 방과후 함께 지내길 바라는 사람
	35) 적정 돌봄아동수	교사 1인당 적정 아동수
VI. 건강 및 안전	36-37) 임신과 출산	자연분만 여부, 조산 여부
	38) 산전관리	산전관리
	39-41) 출생 건강관련	출생시 몸무게, 출생시 저체중여부 현재 키 및 몸무게, 예방접종 여부
	42) 수유형태	수유방법 및 모유수유 기간
	43-44) 아동건강상태	건강상태, 외병일수
	45) 응급실 이용여부	병원응급실 이용 경험 및 원인
	46) 이용의료기관 형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47) 건강검진 여부	건강검진 여부
	48) 아동질병	주요 병명
	49) 치과검진 여부	
	50) 안경착용여부	
	51-52) 수면시간 및 습관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간, 수면습관
	53) 영양 및 섭식	세끼 섭취 여부
	54) 신체활동	지난 7일간 신체활동 30분 이상 한 일수
	55-57) 부모건강특성	건강상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 및 흡연
	58-59) 삶의 만족도 및 우울	삶에 대한 만족도, 우울
	60-64) 아동방임 및 학대, 성폭력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희롱, 성폭력
	65) 부모-자녀 갈등	부모에 대한 자녀의 행동
	66) 아동실종	자녀 잃어버린 경험, 장소, 연령
	67-68) 안전수칙 준수	아동 안전에 대한 태도, 가장 걱정되는 안전사고
VII. 사교육 및 특별활동	69-70) 아동권리 보장	아동권리 인식 유무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생각
	71) 종교활동	종교유무, 종교 참여정도
	72) 보육 및 사교육	보육시설 및 양육수당, 민간학원 및 사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여부 및 사교육비
	73-74) 방과후 이용기관, 주양육자	
	75) 영유아 사교육 이용 및 필요여부	영아이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아동상담, 부모상담/교육
	76) 초등생 사교육 이용 및 사교육비	민간학원,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기타기관
VIII. 주거생활	77) 복지서비스 이용 및 필요여부	방과후 학습지도, 취미교실, 문화활동, 상담, 부모교육, 무료급식, 학비지원
	78) 주거일반	점유형태, 방수
	79)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재질,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소음진동 차취 및 대기오염에의 적절성, 자연재해
	80) 지역 내 생활환경 및 지역사회안전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자연환경 / 지역사회 무질서,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유대 및 애착
IX. 지출 및 소득	81) 세금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82) 지출	월평균 총 생활비
	83) 소득	가구 월평균 총 소득

〈표 1-9〉 아동용 조사표 조사항목

영역	문항 (문항번호)	조사항목
I. 사회성 및 정서	1) 문제행동	공격성, 우울/불안
	2) 정서지능	
	3)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4) 스트레스	성적, 부모와의 관계, 진로, 친구, 외모, 용돈
	5-7) 인생의 만족도	학생 생활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8) 공동체 의식	
	9)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II. 가정생활	10-12) 부모(보호자)자녀 유대감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대화
	13) 가정형편 수준(경제수준)	
III. 언어생활	14) 비속어 사용여부	
	15)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	
IV. 학교생활	16) 학생여부	
	17) 학업성적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성적(10점 척도)
	18) 사교육	수강여부, 수강형태, 수강시간, 성적향상 효과여부
	19) 학교생활 계획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닐계획 여부
	20)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과목, 선생님, 수업태도, 과제물 등에 대한 태도
	21) 반친구 관계	친구의 친절여부
	22) 또래관계	10문항 척도
	23) 친구수	
	24) 이성친구여부	
	25) 희망 교육수준	
	26) 비행여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타인 괴롭히기, 왕따, 패싸움, 폭력행사, 협박, 물건 뺏기, 물건 훔치기, 성관계, 임신, 성폭행이나 성희롱, 도박 게임
	27-28)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29-30)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V. 방과후 생활	31-32) 평일 방과후 생활	방과후 하는 활동, 방과후 희망활동,
	33-35) 나홀로 아동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일수,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하루 시간
	36) 주말 및 방학중 생활	주말에 함께 지내는 사람, 방학중에 함께 지내는 사람
	37) 문화여가생활 여부	문화예술, 취미특기, 과학정보,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자원봉사, 재능기부, 현그기부, 정책참여, 교육 등
	38-39) 동아리 활동	동아리활동 경험 및 가입한 동아리 수
	40) 종교생활	종교 유무, 종교활동 참여 정도,
	41-42) 아동권리	아동권리 인식 유무,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생각
VI. 건강 및 안전	43-49) 아동건강특성	몸무게, 키,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검진 여부, 치과검진 여부, 신체증상, 외병일수
	50) 영양 및 섭식	세끼 섭취 여부, 아침식사 안하는 이유, 체중감량을 위해 식사 거르는지 여부

영역	문항 (문항번호)	조사항목
	51) 아동 결핍	하루 세끼 식사여부, 육류 및 생선 섭취, 과일 및 채소 섭취,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책 보유, 야외활동 기구, 정기적 여가활동, 실내용 게임 및 기구, 행사 및 현장학습을 참가하기 위한 경제적 여유, 가정 내 아동을 위한 공간, 인터넷 연결 여부, 새옷 및 신발 소지, 친구 초대 기회, 생일 파티 기회
	52) 운동	지난 7일간 운동 30분 이상 한 일수
	53-56) 아동방임 및 학대, 성폭력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희롱, 성폭력
	57)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 무질서,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유대 및 애착 (8문항)
	58) 아동 안전교육	아동 안전교육 경험 여부
	59) 실종	보호자 잃어버린 경험, 장소, 연령
	60) 자살 생각 및 시도경험	자살 생각, 시도경험, 시도 횟수
VII. 진로 및 아르바이트	61-62) 진로	원하는 직업, 진로성숙도 및 진로계획 (22문항)
	63-66)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 종류, 총 근로기간, 주당 근로기간, 하루 근로시간, 임금수준, 아르바이트 경험관련 생각



제2장

국내외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제1절 국내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제2절 국외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2

국내외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

제1절 국내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실태조사는 2008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아동학대실태조사,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등이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1회 조사 되었는데,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그 부모이었고, 아동만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측면인 인권, 학업, 활동, 문화, 진로, 직업 등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영유아 및 주양육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약 5년마다 전국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 주관으로 초·중·고 아동과 주양육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즉, 국내에서의 아동 관련 조사는 특정 영역의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 전국조사가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조사(2008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관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2011년)에서는 유해환경에의 노출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는 특정 항목에 초점을 두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특정 항목에 초점을 둔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부터는 패널 조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로 확대되어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의 발달실태와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아동부가조사를 실시한 한국복지패널, 학교생활 중심으로 조사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내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폭넓은 주제를 포괄하는 전국아동실태 조사는 1회 실시되었을 뿐이며, 아동을 둘러싼 생태체계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전국

횡단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동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2-1〉 국내 아동관련 대규모 조사

구분	조사명	조사주관기관	조사주기	조사년	조사대상
전국횡단조사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5년	2008	전국 0~18세 아동·청소년 6,900가구 및 부모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불규칙	2009 2010	전국 초4-6, 중고생 8,533명 -인권, 고등학생 학업, 활동·문화, 진로·직업, 핵심역량 전국 초4-6학년, 중고 9,844명 -건강, 안전, 인권, 핵심역량, 가족의식, 체험활동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5년	2011	전국 18세 미만 아동가구 5,051가구(아동 및 주양육자),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전문가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08	중고교생 2,140명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매년	2011	중학교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15,954명
전국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구. 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매년 (2010년)	2012 (2차년도)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보호자 13,200명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연구소	매년 (2008년)	2012 (5차년도)	신생아 가구 2,078가구(5차년도 참여패널 수 1,703가구.)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매년 (2005년)	2012 (7차년도)	2005년도 기준 중학교 1학년 청소년 6,908명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년 (2006년 시작)	2012	만 17세 이하의 아동 521명
지역패널조사	서울아동패널	서울대학교	매년	2011	서울 초4년 1,785명과 부모

국내의 아동 관련 몇몇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에 진행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가구 중 0~18세 아동·청소년이 있는 6,900가구의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이다. 조사내용은 사회경제적요인(가구환경, 지역환경, 학교환경 등), 가족생활 및 환경(부모역할수행, 부모-자녀관계, 미디어노출, 문화생활 등), 인지 및 언어(기본인지기술, 수과학적 사고력, 기본언어기술, 의사소통 등), 사회성 및 정서(사회적유능감, 문제행동, 기질, 애착 등), 건강 및 안전(아동의 건강특성, 수면, 아동학대 및 방임, 복지인식 및 실태 등), 진로 및 아르바이트(직업체험 활동 유무, 장래희망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절대빈곤율은 전체적으로 약 7.8%로 나타났고, 중위소득 50%미만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 약 11.5%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에 속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18세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모두 전반적인 만족을 하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역할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적극적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격차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빈곤층 아동·청소년에서의 학업성취도 중 영어에서 아동과 큰 차이가 있었다. 9-11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의 내재화 행동에 있어서 빈곤층과 차상위이상층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외현화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시간이 감소했으며, 특히 12-18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7.1시간으로 다른 연령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학대 실태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0-2세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1.3점, 방임 1.2점으로 나타났다. 3-5세, 6-8세 아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신체적 학대 점수가 가장 높았고, 9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대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대 유형 중 상대적으로 언어적/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과 후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18세 아동·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차상위이상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곤층, 차상위층 순이었다.

다음으로 아동부가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아동부가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2012년까지 현재 3번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동 부가조사 대상은 총 521명이었으며 조사완료 된 아동은 총 512명이다. 조사내용은 현재상태(휴학/중퇴 시기 등), 학교생활(학교환경, 학교성적, 학업스트레스 등), 생각과 행동(자존감, 우울/불안, 자살관련, 음주/흡연, 방과 후생활 등), 부모님(부모여부, 부모와의 관계, 학대, 방임 등), 친구(친구들과의 접촉 및 친구애착, 친구의 비행경험 등), 건강 및 생활(건강, 전학, 결식 등), 아르바이트경험 및 활동, 진로로 구성되어있다.

한국복지패널의 아동부가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력을 보면 휴학, 중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미진학한 아동은 총 3.4%이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10.1점이었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평균 9.4점, 일반가구 아동의 평균 10.2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평점은 25.1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4.8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5.1점이었다. 아동의 비행정도는 1.0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1.3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1.0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살생각 평균은 2.0점이었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1점, 일반가구 2.0점이었다. 학대의 경우, 방임은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0.3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0.2점이었다. 친구들의 일탈행동에 대해 아동의 친한 친구들 중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로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아동의 8.8%가 친한 친구들 중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로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17.0%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7.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2〉 국내 아동관련 주요조사 연구결과

조사명	주요연구결과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8	- 아동 절대빈곤율: 7.8%,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 11.5% - 학교생활만족도: 9-18세 아동청소년이 전반적으로 만족함. - 학부모의 역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적극적 - 학업성취도: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격차에 따른 차이가 큼.(빈곤층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특히 영어에서 차상위이상 아동과 큰 차이를 보임) - 내재화 행동: 빈곤층, 차상위 이상층 간 차이는 9-11세 아동청소년이 보다 분명한 것으로 나타남(외현화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 - 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 - 아동학대: 0-2세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정서적 학대 1.3점, 방임 1.2점 순(4점 척도. 3-5세, 6-8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9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대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방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음. - 12-18세 아동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차상위이상층, 빈곤층, 차상위층 순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2012	- 학력: 휴학, 중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미진학한 아동이 총 3.4%로 나타남. - 학업스트레스(총16점): 전체 10.1점, 저소득 아동 9.4점, 일반 아동 10.2점 - 자아존중감: 전체 평균 25.1점, 저소득가구 아동 24.8점, 일반가구 아동 25.1점 - 비행: 전체 평균 1.0점, 저소득가구 아동 1.3점, 일반가구 아동 1.0점 - 자살생각: 전체 평균 2.0점, 저소득가구 아동 2.1점, 일반가구 아동 2.0점 - 학대 및 방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들의 일탈행동: 전체아동의 8.8%가 친한 친구들 중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로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17.0%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7.1%가 있다고 응답)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2010	- 휴일: 남자청소년의 경우 게임 25.5%, TV시청 19.9%, 친구와 놀기 13.3% 등 - 여가시간: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 - 고민 상담대상: 동성친구 40.2%, 어머니 20.8%, 그 뒤로 형제자매, 이성친구의 순(아버지를 고민상담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3.9%) -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대할 때: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응답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73% -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 높은 편(장애요인: '정보부족, '사회적 편견', '시간부족' 등)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중 하나로 2006년부터 연속사업으로 수행되어온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의 5차년도 과제인 「201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발달권·참여권」이 있다. 조사대상은 12개 시도의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9,591명이다. 조사내용은 발달권(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직업적 발달, 신체적 발달), 참여권(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참여관련 인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휴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 가장 높았으며(25.5%), 19.9%는 TV시청, 친구와 놀기 13.3%로 나타났고, 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 상담대상으로 40.2%가 동성친구라고 응답했으며,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20.8%, 그 뒤로 형제자매, 이성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를 고민상담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고민상담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3.9%에 달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대할 때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응답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73%(‘그렇다’ 53.8%, ‘매우 그렇다’ 19.2%)였다. 또한 사회참여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높은 편이며,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정보부족’과 ‘사회적 편견’, ‘시간부족’ 등의 사안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국외 아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동향

본 절에서는 국외의 아동 관련 조사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전국 소학교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가정아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부모 직업, 가족식사횟수, 상담, 장애희망 등이다(매년 12월 1일 조사). 아울러 2001년부터 밀레니엄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아동종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모의 취업여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녀양육의 어려움 및 유익,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비용, 수면시간, 자녀의 가사지원 등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변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저출산 등과 같은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하고자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아동관련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 아동 및 청소년 웰빙조사와 취약가족 및 아동웰빙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 아동 및 청소년 웰빙조사는 학대아동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0-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취약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는 1998년 이후 출생한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아동과 가족의 건강 및 발달을 파악하고 있다.

〈표 2-3〉 국외 아동관련 실태조사

구분	조사명	조사주관기관	조사주기	조사 년도	조사대상
일본	全國家庭兒童調査	후생노동성	평성 11, 16, 21년 5년주기	1999 2004 2009	- 전국 소학교 ~ 18세 미만 아동 - 부모직업, 가족식사횟수, 상담, 장래희망 등
	Longitudinal Survey of Babies in 21 st Century	후생노동성	매년(종단)	2001 ~ 2010	- 아동 53,575명 - 모의 취업여부, 가족유형, 자녀 양육,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비 용, 수면시간 등
미국	The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 (NSCAW)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ornell University)	1999년 시작 매년(종단)	2012	- 아동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0-14세 아동 6,200명 및 주양육 자, 사회복지사 - 인지, 학업성취, 의사소통, 정신 건강, 적응, 정서, 학대, 부모와 의 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
	The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	Princeton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ACF	2000년 시작 5회차 (0, 1, 3, 5, 9세)	2010/ 1	- 1998.2-2000.9월생, 4,898가족 (698-831 이민가구 포함) - 아동 월빙, 건강 및 발달, 부모- 자녀관계
캐나 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NLSCY)	Statistics Canada	1994 ~ 현재 격년	2010	- 0~11세 아동 35,795명
영국	British Cohort Study(BCS70)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1970 ~ 현재 매 5-6년	2008	- 1970년에 태어난 아동 17,200 명과 그 가족 - 건강, 발달, 활동, 교육, 보육, 심 리적 웰빙, 행동발달, 가족생활, 태도, 취업 등
	Millennium Cohort Study(MCS)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2001 ~ 현재 (2001, 2003, 2006, 2008)	2008	- Child Benefit Records에 따라 선정된 19,244가구에서 2000년 9월 1일~2001년 8월 31일에 태어난 아동 19,517명과 부모 - 빈곤가구 과대표집 - 양육 및 돌봄, 학교선택, 아동의 행동 및 인지발달, 아동과 부모 건강, 부모 고용상태 및 학력, 소 득 및 빈곤, 주거, 이웃환경 및 주거이동성, 사회적 자본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패널조사가 수행되고 있는데, 패널을 통해서 아동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고, 특히 아동기 이후 성인기에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전생애에 걸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전국 아동청소년 종단연구를 199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오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British 코호트 연구를 197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British 코호트 연구는 1970년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발달, 활동, 교육, 보육, 심리, 행동, 가족생활 등 다각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영국에서 수행되는 또다른 코호트 연구로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로서, 이는 격년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양육 및 돌봄, 학교선택, 인지, 건강, 부모 고용상태 및 학력, 소득 및 빈곤, 주거, 지역사회 환경, 사회적 자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도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매우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고, 특히 종단 및 패널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며, 2000년 이후 태어난 코호트를 대상으로 집중 연구하여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구축하고 있다.



제3장

표본추출 및 가중치

제1절 표본 규모

제2절 표본설계

제3절 가중치

3

표본추출 및 가중치 <<

제1절 표본 규모

1. 조사 개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조사구 내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총 4,000여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수행기간은 2013년 11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의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대도시에는 7대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가 포함되며, 중소도시에는 기타 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동부)를, 농어촌 지역은 읍·면지역(그 외 읍·면지역)을 포함하였다.

조사수행 범위를 살펴보면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 16개 시도가 해당되고, 시간적 범위로 조사 기준시점을 2012년으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아동실태 조사 데이터 구축 및 결과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수행 및 현장 관리를 위해 현장 조사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하고자 하였고, 조사결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전달 체계 구축하고, 면접조사 완료 시 에디팅 및 에러체크 등을 통한 검증 실시하였다.

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가. 조사대상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일반가구의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차상위

층 포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³⁾ 명부에 포함된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들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국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 리스트이고 600여개의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확률 비례 추출하였다. 추출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대상인 가구는 (2010년 인구센서스) 가구형태 중 일반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나. 모집단분석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일반가구의 경우, 조사 시점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하였다. 저소득층 가구는 차상위층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하였다.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모집단 분포는 <부록 3>과 같다.

전체 아동 수는 안전행정부의 2012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근거로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현황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모집단 층화를 위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에서 적정 표본수를 산정하고, 전국을 3개 층으로 층화한 다음, 조사구 특성에 따라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3개 층(권역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층화하여 아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대도시에는 7대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부)가 포함되며, 중소도시에는 기타 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동부). 농어촌에는 기타 시의 읍·면지역이 해당된다.

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과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빈곤아동에 관한 정의에 따라, 시행령 제2조의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 가구로 정의내리고 조사를 진행함.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장의 조사개요를 참고하기를 바람.

제2절 표본설계

1. 층화 및 표본배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층화하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1차추출단위, 가구와 가구 내 가구원을 2차추출단위로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60~80가구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최초 600개 조사구(150개 조사구를 중심으로 인접 조사구 3개를 묶어 하나의 조사구 클러스터로 사용), 4,000 가구였으며, 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수준을 검토하여 600개 조사구, 4,002가구로 정하였다. 95% 신뢰수준의 목표허용오차가 3%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목표오차는 전국 지역의 경우 1.55%이고, 일반가구는 1.96%, 저소득가구는 2.53%로 예상된다.

각 층별 표본조사구는 권역별 통계작성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층 내 가구수를 기준으로 제공근 비례배분법(각 지역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여 배분)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전국 60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뒤, 각 표본조사구 클러스터로부터 27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 가구 내 가구원(보호자) 중 한 명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층의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확률 비례 계통추출법을 사용하고, 추출된 표본이 해당 층의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을 잘 반영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 클러스터에서는 27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었다. 또한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 및 리스트에서 27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표본조사 대상가구를 선정하였다.

조사실시에 앞서 최종적으로 600개 표본조사구(150개 조사구 클러스터), 4,002가구를 배분하였으며, 전국 16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는 <표 3-2>와 같다.

2. 표본대체와 조사원료 가구수

표본조사구 내에서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거처번호가 28번째 이후의 가구를 순서대로 대체하도록 하며, 해당조사구 내에서 무응답 가구를 대체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조사구에서 2가구까지만 대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조사 불가능인 경우, 추출된 표본조사구가 조사시점 차이로 인하여 표본조사구 전체가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층 내에서 예비조사구(표본조사구의 20%)로 대체하여 조사 진행하였다.

조사실시 결과,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가구수는 600개 조사구의 4,007가구이며, 16개 시도별 조사 완료 수는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1>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표본할당분포

(단위: 명)

연령대	전체조사		합계
	일반	저소득층	
0-2세	417	250	667
3-5세	417	250	667
6-8세	417	250	667
9-11세	417	250	667
12-14세	417	250	667
15-17세	417	250	667
합계	2,502	1,500	4,002

〈표 3-2〉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 및 연령별 표본수

(단위: 가구)

행정구역명	합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총합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전국	4,002	2,502	1,500	417	250	417	250	417	250	417	250	417	250	417	250
서울특별시	746	466	280	77	46	77	46	78	47	78	47	78	47	78	47
부산광역시	268	168	100	28	16	28	16	28	17	28	17	28	17	28	17
대구광역시	160	100	60	17	10	17	10	16	10	16	10	17	10	17	10
인천광역시	188	118	70	20	12	20	12	20	12	20	11	19	11	19	12
광주광역시	106	66	40	11	7	11	7	11	7	11	7	11	6	11	6
대전광역시	106	66	40	11	7	11	7	11	7	11	7	11	6	11	6
울산광역시	78	48	30	8	5	8	5	8	5	8	5	8	5	8	5
경기도	798	498	300	83	50	83	50	83	50	83	50	83	50	83	50
강원도	162	102	60	17	10	17	10	17	10	17	10	17	10	17	10
충청북도	188	118	70	19	12	19	12	20	12	20	11	20	11	20	12
충청남도	212	132	80	22	13	22	14	22	13	22	13	22	14	22	13
전라북도	160	100	60	17	10	17	10	16	10	16	10	17	10	17	10
전라남도	212	132	80	22	13	22	14	22	13	22	13	22	14	22	13
경상북도	268	168	100	28	17	28	16	28	16	28	17	28	17	28	17
경상남도	294	184	110	31	19	31	18	31	18	31	19	30	18	30	18
제주도	56	36	20	6	3	6	3	6	3	6	3	6	4	6	4

〈표 3-3〉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조사 완료 가구수

(단위: 가구)

연령대	전체조사		합계
	일반가구	저소득층가구	
0-2세	411	226	637
3-5세	461	264	725
6-8세	392	244	636
9-11세	414	225	639
12-14세	437	271	708
15-17세	393	269	662
합계	2,508	1,499	4,007

70 아동종합실태조사

〈표 3-4〉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연령별 조사 완료 아동수

(단위: 명)

연령대	전체조사		합계
	일반아동	저소득층아동	
9-11세	414	225	639
12-14세	437	271	708
15-17세	393	269	662
합계	1,244	765	2,009

〈표 3-5〉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 및 연령별 조사 완료 아동수

(단위: 명)

행정구역명	합계				9-11세			12-14세			15-17세		
	총합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전국	2,009	1,244	109	656	414	22	203	437	42	229	393	45	224
서울특별시	382	232	43	107	85	9	29	74	15	36	73	19	42
부산광역시	129	80	7	42	27	0	13	27	4	13	26	3	16
대구광역시	84	50	2	32	19	0	10	18	1	11	13	1	11
인천광역시	89	54	6	29	20	2	9	19	0	14	15	4	6
광주광역시	51	31	5	15	8	2	6	12	2	5	11	1	4
대전광역시	47	31	0	16	9	0	5	11	0	5	11	0	6
울산광역시	41	26	2	13	9	2	3	7	0	5	10	0	5
경기도	411	253	23	135	93	2	48	89	9	45	71	12	42
강원도	80	52	3	25	14	2	8	17	1	8	21	0	9
충청북도	91	57	2	32	14	1	10	24	1	13	19	0	9
충청남도	107	68	4	35	20	0	7	26	3	17	22	1	11
전라북도	80	51	0	29	14	0	9	16	0	12	21	0	8
전라남도	105	66	1	38	23	1	11	22	0	13	21	0	14
경상북도	137	89	6	42	27	0	13	35	3	11	27	3	18
경상남도	148	88	4	56	28	0	20	30	3	15	30	1	21
제주도	27	16	1	10	4	1	2	10	0	6	2	0	2

〈표 3-6〉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 지역 및 연령별 조사 완료 가구수

(단위: 가구)

행정구역명	합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총합	일반	차상위	기초 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 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 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 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 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 수급	일반	차상위	기초 수급
전국	4,007	2,508	326	1,173	411	75	151	461	98	166	392	44	200	414	22	203	437	42	229	393	45	224
서울특별시	753	471	95	187	77	12	25	84	27	20	78	13	35	85	9	29	74	15	36	73	19	42
부산광역시	264	165	24	75	28	8	11	30	5	10	27	4	12	27	0	13	27	4	13	26	3	16
대구광역시	170	102	11	57	18	3	5	18	5	10	16	1	10	19	0	10	18	1	11	13	1	11
인천광역시	187	117	14	56	19	4	4	25	3	12	19	1	11	20	2	9	19	0	14	15	4	6
광주광역시	99	59	10	30	13	0	4	6	2	4	9	3	7	8	2	6	12	2	5	11	1	4
대전광역시	95	60	2	33	11	1	4	9	1	4	9	0	9	9	0	5	11	0	5	11	0	6
울산광역시	79	49	4	26	6	0	6	9	2	2	8	0	5	9	2	3	7	0	5	10	0	5
경기도	807	505	85	217	86	23	24	95	25	27	71	14	31	93	2	48	89	9	45	71	12	42
강원도	159	101	5	53	13	2	9	20	0	12	16	0	7	14	2	8	17	1	8	21	0	9
충청북도	186	116	11	59	18	5	12	21	3	8	20	1	7	14	1	10	24	1	13	19	0	9
충청남도	212	133	19	60	23	2	1	22	9	11	20	4	13	20	0	7	26	3	17	22	1	11
전라북도	160	101	0	59	17	0	11	20	0	8	13	0	11	14	0	9	16	0	12	21	0	8
전라남도	214	135	7	72	23	4	8	26	1	13	20	1	13	23	1	11	22	0	13	21	0	14
경상북도	275	178	24	73	22	6	10	37	10	11	30	2	10	27	0	13	35	3	11	27	3	18
경상남도	293	182	14	97	33	5	14	30	5	11	31	0	16	28	0	20	30	3	15	30	1	21
제주도	54	34	1	19	4	0	3	9	0	3	5	0	3	4	1	2	10	0	6	2	0	2

제3절 가중치

1. 가중치 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먼저, 설계 가중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본설계 단계에서 표본추출의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 및 가구원(보호자)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하였다.

L : 층의 수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의 총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총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

$$\text{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각 표본 조사구 클러스터에서 27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27$ 이다. 표본추출틀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와의 차이가 작은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27}$

가 된다.

다음으로, 무응답 조정은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최초 목표 표본 크기를 유효 표본크기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최초 표본단위를 대체표본으로 교체(substitution)하는 경우 무응답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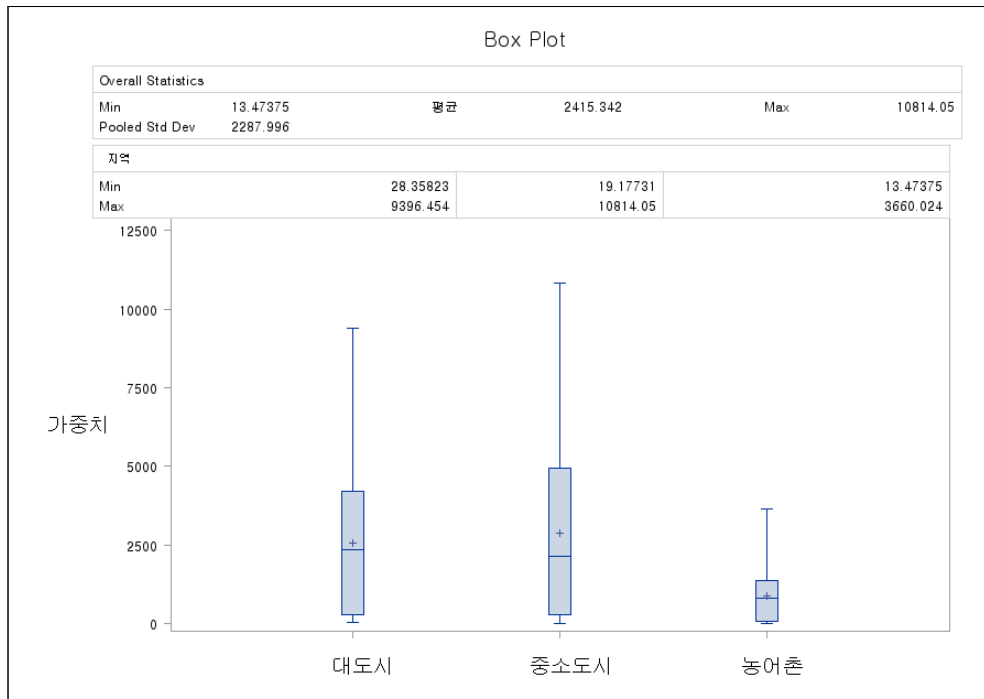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사후층화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가구가중치는 가구계층(일반가구,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역, 연령층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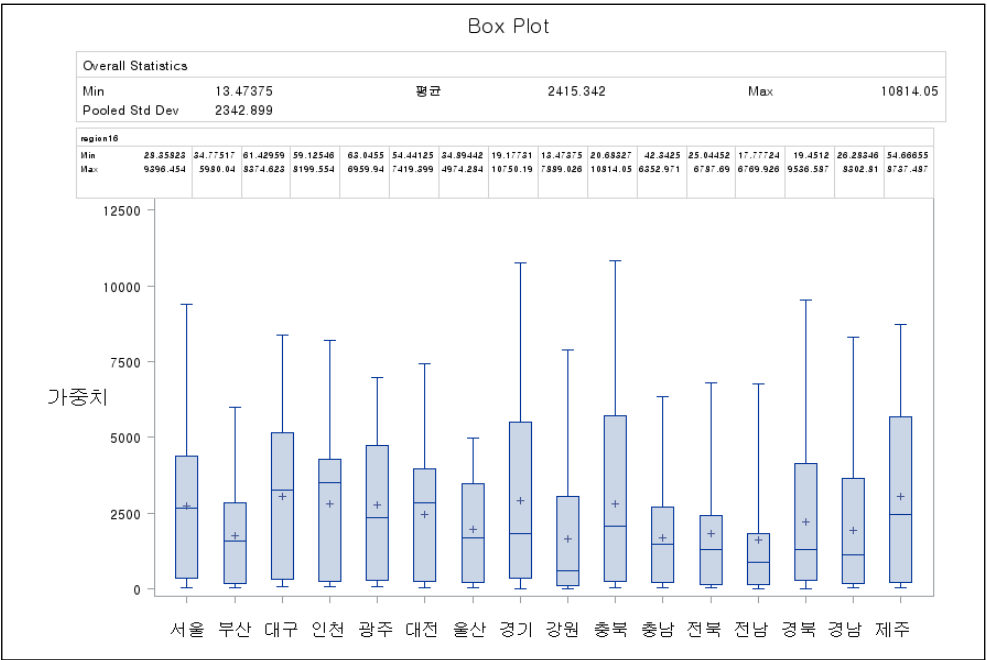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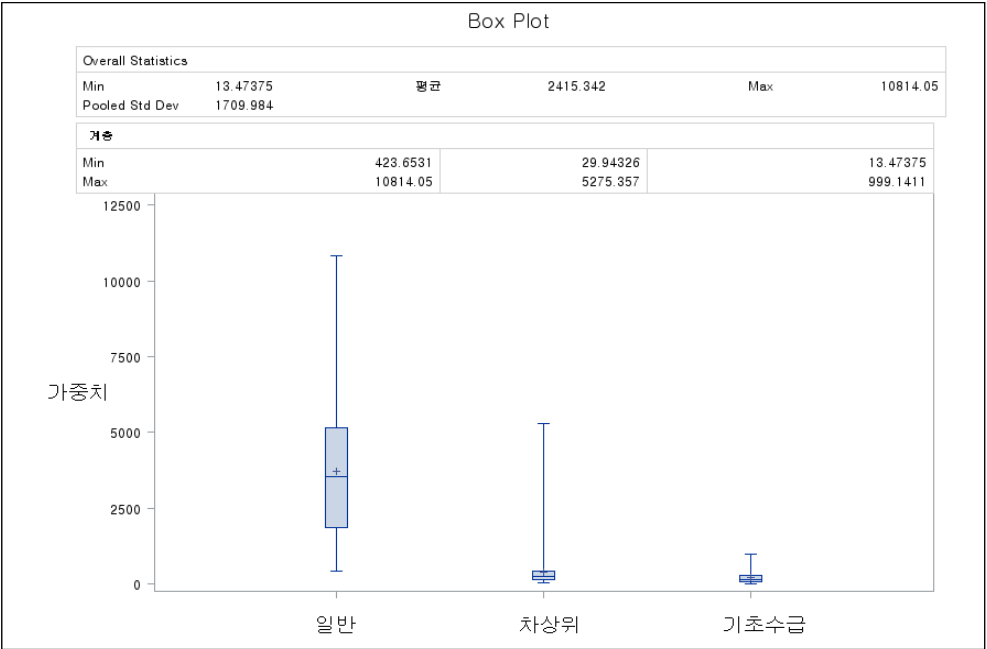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가중치 상자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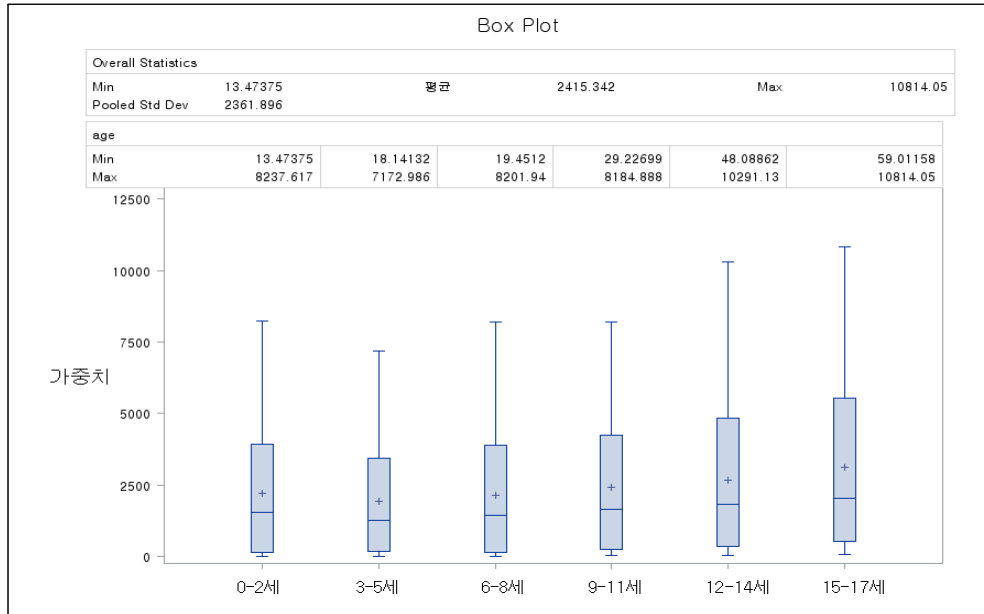
[그림 3-2] 16개 시도별 가중치 상자그림



[그림 3-3] 계층별 가중치 상자그림



[그림 3-4] 연령별 가중치 상자그림



2. 추정

가중표본 합계치 (weighted sample total)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평균, 구성비 등의 통계치를 산출하도록 함.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증화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w_{hij} :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text{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hat{\bar{Y}}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 \sum \sum \sum w_{hij}$$

추정량의 분산식은 다음과 같다.

$$f_h = n_h / 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var(\hat{Y}) = \sum_{h=1}^L \frac{n_h (1 - 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2$$



제4장

가구특성

제1절 조사 대상 가구 일반 사항

제2절 조사 대상 가구의 지출 및 소득

제3절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제4절 소결

4

가구특성 <<

제1절 조사 대상 가구 일반 사항

1. 가구 일반 특성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보호자용 설문은 전 연령대(만 0세~만 18세미만)를 조사하였고 아동용 설문은 만 9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전체적으로 일반가구가 9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수급가구가 2.6%, 차상위가구는 1.3%이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모가 모두 있는 일반가정은 전체의 98.8%였으나,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18.2%가 기초수급가구였으며, 8.5%가 차상위가구로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있는 일반가족에 비해 한부모·조손가족은 빈곤가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소득수준별 가구특성

(단위: %, 명)

구분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계 (명)
전체		2.6	1.3	96.1	100.0 (9,678,277)
연령	0-2세	0.9	0.9	98.2	100.0 (1,407,369)
	3-5세	1.2	2.2	96.6	100.0 (1,407,945)
	6-8세	1.8	0.8	97.5	100.0 (1,357,821)
	9-11세	2.5	0.4	97.1	100.0 (1,546,503)
	12-17세	3.9	1.7	94.3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65.7	34.3	0.0	100.0 (376,738)
	일반	0.0	0.0	100.0	100.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0.0	100.0	0.0	100.0 (247,664)
	차상위	0.0	0.0	100.0	100.0 (129,073)
	일반	100.0	0.0	0.0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2.4	1.8	95.8	100.0 (4,218,761)
	중소도시	2.7	1.0	96.3	100.0 (4,869,141)
	농어촌	2.4	0.8	96.8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0.7	0.5	98.8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18.2	8.5	73.3	100.0 (1,012,991)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다문화 가구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2%가 다문화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차상위가구의 경우 다문화인 가구가 26.0%로 기초수급가구나 일반가구 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의 대상 가구 정의⁴⁾에 따라 차상위가구에 다문화가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 다문화 가구 여부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명)
전체		2.0	98.0	100.0 (9,607,683)
연령	0-2세	4.4	95.6	100.0 (1,398,951)
	3-5세	3.6	96.4	100.0 (1,391,897)
	6-8세	1.5	98.5	100.0 (1,350,684)
	9-11세	1.9	98.1	100.0 (1,522,482)
	12-17세	0.8	99.2	100.0 (3,943,670)
소득수준1	빈곤	11.8	88.2	100.0 (372,693)
	일반	1.6	98.4	100.0 (9,234,991)
소득수준2	기초수급	4.2	95.8	100.0 (243,619)
	차상위	26.0	74.0	100.0 (129,073)
	일반	1.6	98.4	100.0 (9,234,991)
지역	대도시	2.4	97.6	100.0 (4,208,245)
	중소도시	1.5	98.5	100.0 (4,822,253)
	농어촌	3.6	96.4	100.0 (577,185)
가족유형	양부모	2.1	97.9	100.0 (8,505,604)
	한부모·조손	1.2	98.8	100.0 (1,003,502)

다음으로 조사 완료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살펴보았다(<표 4-3> 참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3.7명이었으며, 4인 가구 46.2%, 3인 가구 37.0%, 5인 가구 11.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대상 아동의 연령대별, 지역별로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으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는 경우는 4인가구인 경우가 47.1%로 가장 높은 반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3인 가구인 경우가 각각 40.0%, 34.8%로 가장 많았다.

4)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가구 정의는 제1장의 조사개요를 참고할 것

〈표 4-3〉 가구원 수

(단위: %, 명)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이상	계 (명)	평균 (SD)
전체		3.9	37.0	46.2	11.0	1.7	0.2	0.0	100.0 (9,678,277)	3.70 (0.80)
연령	0-2세	2.1	61.1	28.6	7.0	1.3	0.0	0.0	100.0 (1,407,369)	3.44 (0.71)
	3-5세	2.2	46.6	43.5	6.7	0.9	0.1	0.0	100.0 (1,407,945)	3.58 (0.70)
	6-8세	2.8	30.1	52.8	11.1	2.2	1.1	0.0	100.0 (1,357,821)	3.83 (0.82)
	9-11세	3.7	30.4	50.2	12.6	2.8	0.2	0.1	100.0 (1,546,503)	3.81 (0.83)
	12-17세	5.7	29.9	49.5	13.2	1.5	0.1	0.0	100.0 (3,958,639)	3.75 (0.82)
소득 수준1	빈곤	24.7	38.4	22.9	10.0	2.6	0.9	0.5	100.0 (376,738)	3.32 (1.14)
	일반	3.1	36.9	47.1	11.0	1.7	0.2	0.0	100.0 (9,301,539)	3.72 (0.78)
소득 수준2	기초수급	20.6	40.0	23.0	11.8	2.9	0.9	0.7	100.0 (247,664)	3.42 (1.16)
	차상위	33.1	34.8	22.5	6.5	2.0	0.7	0.3	100.0 (129,073)	3.13 (1.08)
	일반	3.1	36.9	47.1	11.0	1.7	0.2	0.0	100.0 (9,301,539)	3.72 (0.78)
지역	대도시	5.4	39.5	44.0	9.4	1.8	0.0	0.0	100.0 (4,218,761)	3.63 (0.80)
	중소도시	2.8	35.4	48.3	11.6	1.6	0.3	0.0	100.0 (4,869,141)	3.75 (0.79)
	농어촌	2.8	32.5	44.6	16.9	2.2	0.8	0.2	100.0 (590,375)	3.86 (0.89)

〈표 4-4〉는 조사 완료 가구 내의 대상 아동을 포함하여 만18세 미만의 아동의 수를 보여주며, 평균 아동 수는 1.64명이다. 응답 가구 중 46.4%는 가구 내에 18세 미만 아동이 2명이었으며, 1명(45.0%), 3명(7.8%), 4명 이상(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명)	평균 (SD)
전체		45.0	46.4	7.8	0.7	100.0 (9,678,277)	1.64 (0.66)
연령	0-2세	65.1	29.0	5.2	0.7	100.0 (1,407,369)	1.41 (0.62)
	3-5세	49.7	43.8	6.2	0.3	100.0 (1,407,945)	1.57 (0.63)
	6-8세	34.8	55.1	8.7	1.4	100.0 (1,357,821)	1.77 (0.66)
	9-11세	35.3	53.4	10.3	1.0	100.0 (1,546,503)	1.77 (0.68)
	12-17세	43.6	47.9	8.1	0.5	100.0 (3,958,639)	1.66 (0.65)
소득 수준1	빈곤	44.9	39.5	11.7	3.8	100.0 (376,738)	1.76 (0.87)
	일반	45.0	46.7	7.7	0.6	100.0 (9,301,539)	1.64 (0.6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41.4	39.5	14.2	5.0	100.0 (247,664)	1.85 (0.94)
	차상위	51.7	39.7	7.1	1.6	100.0 (129,073)	1.59 (0.69)
	일반	45.0	46.7	7.7	0.6	100.0 (9,301,539)	1.64 (0.65)
지역	대도시	48.5	44.9	6.1	0.5	100.0 (4,218,761)	1.58 (0.63)
	중소도시	42.5	48.0	8.6	0.9	100.0 (4,869,141)	1.68 (0.67)
	농어촌	40.8	44.7	13.3	1.2	100.0 (590,375)	1.75 (0.73)
가족유형	양부모	43.9	47.3	8.1	0.6	100.0 (8,565,684)	1.66 (0.66)
	한부모·조손	53.6	39.7	5.8	0.9	100.0 (1,012,991)	1.54 (0.66)

가정에서 아동의 주양육자는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표4-5〉 참고), 전체 가구 중에서 어머니가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9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버지(4.1%), 친가나 친조부모(1.5%), 외가나 외조부모(0.7%),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대나 지역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친가나 친조부모가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10.5%로 나타났고, 차상위가구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19.6%로 나타나 일반가구가 보통 1~3%대 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아동의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친가나 친조부모	외가나 외조부모	기타	계 (명)
전체		4.1	93.7	1.5	0.7	0.1	100.0 (9,678,277)
연령	0-2세	3.0	95.6	1.0	0.4	0.0	100.0 (1,407,369)
	3-5세	2.9	95.2	1.1	0.9	0.0	100.0 (1,407,945)
	6-8세	3.0	94.0	1.8	1.0	0.2	100.0 (1,357,821)
	9-11세	3.8	93.6	1.9	0.8	0.0	100.0 (1,546,503)
	12-17세	5.4	92.4	1.6	0.5	0.1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12.4	75.0	8.2	3.7	0.8	100.0 (376,738)
	일반	3.7	94.5	1.2	0.5	0.0	100.0 (9 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8.6	75.9	10.5	4.0	1.0	100.0 (247,664)
	차상위	19.6	73.6	3.8	2.6	0.5	100.0 (129,073)
	일반	3.7	94.5	1.2	0.5	0.0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3.6	94.2	1.5	0.6	0.1	100.0 (4,218,761)
	중소도시	3.9	94.1	1.3	0.6	0.0	100.0 (4,869,141)
	농어촌	9.1	86.8	3.1	1.1	0.0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1	96.3	0.3	0.2	0.0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13.0	71.4	10.7	4.4	0.5	100.0 (1,012,991)

2. 주양육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주양육자가 보호자용 설문에 응답하였다. 우선 주양육자의 성별은 대부분이 여자로(92.4%)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도 비슷했으나, 빈곤가구의 경우는 주양육자가 남자인 경우가 19.6%(기초수급가구 14.6%, 차상위 29.2%)로 일반가구(7.1%)에 비해 많았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조손가족의 경우 주양육자가 남자인 경우가 16.6%로 양부모가족(6.5%)에 비해 많았다.

〈표 4-6〉 주양육자의 성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명)
전체		7.6	92.4	100.0 (9,668,483)
연령	0-2세	6.9	93.1	100.0 (1,407,369)
	3-5세	6.9	93.1	100.0 (1,403,087)
	6-8세	5.9	94.1	100.0 (1,357,821)
	9-11세	6.4	93.6	100.0 (1,546,503)
	12-17세	9.1	90.9	100.0 (3,953,703)
소득수준1	빈곤	19.6	80.4	100.0 (376,557)
	일반	7.1	92.9	100.0 (9,291,927)
소득수준2	기초수급	14.6	85.4	100.0 (247,483)
	차상위	29.2	70.8	100.0 (129,073)
	일반	7.1	92.9	100.0 (9,291,927)
지역	대도시	9.0	91.0	100.0 (4,208,967)
	중소도시	5.9	94.1	100.0 (4,869,141)
	농어촌	11.2	88.8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6.5	93.5	100.0 (8,562,290)
	한부모·조손	16.6	83.4	100.0 (1,011,528)

다음으로 아동의 주양육자와 가구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4-7 참조), 전체적으로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84.3%로 나타났으며, 가구주라고 응답한 경우가 14.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는 주양육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가 86.9%로 대다수인 반면, 기초수급가구는 주양육자가 가구주인 경우가 77.0%, 차상위가구가 75.0%로 일반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4-7〉 주양육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가구주의 아버지	가구주의 어머니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가구주의 조부	가구주의 조모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가구주의 첫째 자녀	가구주의 둘째 자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첫째 자녀 배우자	가구주의 둘째 자녀 배우자	가구주의 형제/매형/제/매	가구주의 첫째 자녀	기타 친인척	계 (명)
전체	0.2	0.4	0.0	0.0	0.1	0.1	0.0	0.0	14.5	0.2	0.0	84.3	0.1	0.1	0.0	0.0	100.0 (9,667,544)
주 양육자 성별	2.2	0.0	0.0	0.0	1.0	0.0	0.0	0.0	89.0	0.6	0.0	7.1	0.0	0.0	0.0	0.0	100.0 (735,660)
	0.0	0.4	0.0	0.0	0.0	0.1	0.1	0.1	8.4	0.2	0.0	90.7	0.1	0.1	0.0	0.0	100.0 (8,931,885)
연령	0.0	0.3	0.0	0.0	0.0	0.0	0.0	0.0	8.9	0.7	0.0	89.2	0.4	0.4	0.0	0.0	100.0 (1,407,369)
	0.3	0.0	0.0	0.0	0.0	0.3	0.0	0.0	10.3	0.1	0.0	88.9	0.0	0.0	0.0	0.0	100.0 (1,403,087)
	0.0	0.7	0.0	0.0	0.0	0.0	0.0	0.0	9.8	0.3	0.0	89.0	0.0	0.0	0.0	0.0	100.0 (1,357,724)
	0.4	0.9	0.0	0.0	0.0	0.0	0.3	0.0	13.5	0.1	0.0	84.8	0.0	0.0	0.0	0.0	100.0 (1,546,381)
	0.1	0.2	0.0	0.0	0.2	0.0	0.0	0.0	20.1	0.1	0.0	79.1	0.0	0.0	0.0	0.0	100.0 (3,952,983)
소득 수준1)	0.2	1.0	0.0	0.0	0.0	0.2	0.0	0.0	77.0	0.3	0.1	19.9	0.0	0.2	0.7	0.0	100.0 (246,544)
	0.7	1.4	0.1	0.4	0.3	0.0	0.0	0.0	75.0	0.4	0.0	21.6	0.0	0.0	0.0	0.1	100.0 (129,073)
	0.2	0.4	0.0	0.0	0.1	0.0	0.1	0.0	12.0	0.2	0.0	86.9	0.1	0.1	0.0	0.0	100.0 (9,291,927)
지역	0.3	0.2	0.0	0.0	0.0	0.0	0.0	0.0	16.3	0.3	0.0	82.6	0.2	0.0	0.0	0.0	100.0 (4,208,967)
	0.0	0.4	0.0	0.0	0.1	0.1	0.1	0.1	12.9	0.1	0.0	86.0	0.0	0.1	0.0	0.0	100.0 (4,868,473)
	0.0	1.6	0.0	0.0	0.0	0.0	0.0	0.0	15.1	0.3	0.0	82.9	0.0	0.0	0.1	0.0	100.0 (590,104)
가족 유형	0.1	0.2	0.0	0.0	0.0	0.0	0.1	0.0	6.6	0.2	0.0	92.9	0.1	0.0	0.0	0.0	100.0 (8,561,744)
	0.7	2.1	0.0	0.0	0.7	0.5	0.0	0.0	83.1	0.7	0.0	11.3	0.0	0.5	0.1	0.0	100.0 (1,011,134)

다음으로 주양육자의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30대와 40대가 각 44.4%,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만0세~만 1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주양육자가 3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만12세~만17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주양육자가 4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8〉 주양육자의 연령대

(단위: %,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명)
전체		5.3	44.4	44.5	5.8	100.0 (9,613,496)
주양육자 성별	남자	0.7	25.4	59.9	14.0	100.0 (731,614)
	여자	5.7	46.0	43.3	5.1	100.0 (8,881,883)
연령	0-2세	24.2	65.1	9.6	1.1	100.0 (1,403,212)
	3-5세	9.8	75.1	12.7	2.3	100.0 (1,396,419)
	6-8세	0.9	70.4	25.2	3.5	100.0 (1,340,375)
	9-11세	0.6	50.1	44.2	5.1	100.0 (1,535,215)
	12-17세	0.3	15.1	75.0	9.7	100.0 (3,938,275)
소득수준1	빈곤	5.0	22.7	51.4	20.9	100.0 (376,349)
	일반	5.3	45.3	44.3	5.2	100.0 (9,237,148)
소득수준2	기초수급	3.6	20.5	52.1	23.8	100.0 (247,359)
	차상위	7.7	26.8	50.3	15.3	100.0 (128,989)
	일반	5.3	45.3	44.3	5.2	100.0 (9,237,148)
지역	대도시	4.8	40.5	48.5	6.1	100.0 (4,178,796)
	중소도시	5.7	48.1	41.0	5.2	100.0 (4,844,326)
	농어촌	5.4	41.1	45.5	8.0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5.4	47.0	43.8	3.7	100.0 (8,507,427)
	한부모·조손	4.3	21.9	51.0	22.9	100.0 (1,011,404)

주양육자의 최종학력으로 살펴본 교육수준은 〈표 4-9〉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졸업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이 33.7%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의 경우 주양육자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각각 62.3%, 70.5%로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기초수급가구는 고등학교 졸업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12.3%)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4-9〉 주양육자의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계 (명)
전체		0.1	2.1	1.7	44.5	17.0	33.7	1.0	100.0 (9,635,218)
주양육자 성별	남자	0.0	4.6	2.6	42.1	9.2	39.1	2.5	100.0 (5,024,223)
	여자	0.1	1.9	1.6	44.6	17.7	33.2	0.9	100.0 (4,610,995)
연령	0-2세	0.0	1.3	0.5	29.0	20.4	47.0	1.8	100.0 (1,396,472)
	3-5세	0.0	2.7	1.5	31.0	20.1	43.9	1.0	100.0 (1,393,688)
	6-8세	0.0	1.3	1.5	39.4	20.5	35.5	1.9	100.0 (1,348,747)
	9-11세	0.0	2.6	1.8	43.1	19.9	31.6	1.1	100.0 (1,543,988)
	12-17세	0.2	2.2	2.3	57.0	12.5	25.6	0.3	100.0 (3,952,322)
소득 수준1	빈곤	0.2	10.4	10.7	65.1	5.2	8.1	0.3	100.0 (376,433)
	일반	0.1	1.8	1.3	43.6	17.5	34.7	1.0	100.0 (9,258,78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0.3	12.1	12.3	62.3	6.1	6.6	0.3	100.0 (247,359)
	차상위	0.0	7.2	7.8	70.5	3.4	11.0	0.2	100.0 (129,073)
	일반	0.1	1.8	1.3	43.6	17.5	34.7	1.0	100.0 (9,258,785)
지역	대도시	0.0	2.1	1.6	40.9	14.5	39.9	1.0	100.0 (4,192,455)
	중소도시	0.1	1.7	1.8	46.2	19.3	29.9	1.0	100.0 (4,853,770)
	농어촌	0.0	4.8	2.0	55.3	16.8	20.2	1.0	100.0 (588,993)
가족유형	양부모	0.1	1.1	1.2	42.6	17.8	36.2	1.1	100.0 (8,529,148)
	한부모·조손	0.1	11.0	6.4	59.9	10.8	11.7	0.1	100.0 (1,011,404)

주양육자가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대부분(99%)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 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6.4%로 차상위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지체장애가 4.3%, 시각장애가 1.7%의 비율을 보였다.

〈표 4-10〉 주양육자의 장애종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간질 장애	비등 록 장애인	비해당	계 (명)
전체		0.2	0.0	0.2	0.1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3	99.0	100.0 (9,493,548)
주양육자 성별	남자	1.1	0.3	1.5	0.1	0.0	0.4	0.0	0.2	0.1	0.1	0.0	0.0	0.0	0.0	0.3	95.9	100.0 (7,289,34)
	여자	0.2	0.0	0.1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3	99.2	100.0 (8,764,614)
연령	0-2세	0.0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7	100.0 (1,383,022)
	3-5세	0.3	0.0	0.1	0.3	0.0	0.0	0.0	0.0	0.0	0.0	0.4	0.0	0.0	0.0	0.2	98.6	100.0 (1,379,416)
	6-8세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7	100.0 (1,332,669)
	9-11세	0.1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98.8	100.0 (1,522,992)
	12-17세	0.4	0.0	0.2	0.0	0.1	0.1	0.0	0.1	0.0	0.0	0.1	0.0	0.0	0.0	0.3	98.6	100.0 (3,875,450)
소득 수준 ¹	빈곤	2.8	0.4	1.3	0.3	0.0	0.1	0.0	1.0	0.6	0.5	1.0	0.3	0.1	0.2	1.6	89.7	100.0 (373,014)
	일반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2	99.4	100.0 (9,120,534)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4.3	0.5	1.7	0.5	0.0	0.2	0.1	1.1	0.9	0.7	0.7	0.4	0.1	0.2	2.2	86.4	100.0 (246,637)
	차상위	0.0	0.0	0.4	0.1	0.0	0.0	0.0	1.0	0.0	0.0	1.5	0.0	0.0	0.3	0.4	96.2	100.0 (126,377)
	일반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2	99.4	100.0 (9,120,534)
지역	대도시	0.2	0.0	0.2	0.1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3	98.9	100.0 (4,133,820)
	중소도시	0.1	0.0	0.2	0.0	0.0	0.0	0.0	0.0	0.0	0.0	0.2	0.0	0.0	0.0	0.3	99.1	100.0 (4,793,226)
	농어촌	1.3	0.3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8.2	100.0 (566,502)
가족 유형	양부모	0.2	0.0	0.1	0.0	0.1	0.0	0.0	0.0	0.0	0.0	0.1	0.0	0.0	0.0	0.2	99.3	100.0 (8,405,379)
	한부모 및 조손	1.0	0.0	0.4	0.1	0.0	0.1	0.0	0.4	0.2	0.1	0.3	0.1	0.0	0.1	0.8	96.4	100.0 (993,504)

주양육자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투병 및 투약 기간을 질문한 경우에도 장애종류를 질문한 문항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차상위가구와 일반가구는 비해당인 경우가 90% 대인 것에 비해, 기초수급가구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한 경우가 19.0%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주양육자의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

(단위: %, 명)

구분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6개월 투병/투약	6개월 이상 투병/투약	비해당	계 (명)
전체		0.3	0.1	1.7	97.9	100.0 (9,502,363)
주양육자 성별	남자	0.1	0.5	4.9	94.5	100.0 (732,101)
	여자	0.3	0.1	1.4	98.2	100.0 (8,770,262)
연령	0~2세	0.2	0.0	0.6	99.3	100.0 (1,383,022)
	3~5세	0.3	0.0	1.1	98.6	100.0 (1,379,768)
	6~8세	0.8	0.0	0.8	98.4	100.0 (1,332,816)
	9~11세	0.0	0.0	2.0	97.9	100.0 (1,522,992)
	12~17세	0.2	0.3	2.4	97.0	100.0 (3,883,765)
소득수준1	빈곤	14.9	1.5	1.3	82.2	100.0 (373,514)
	일반	1.1	0.2	0.1	98.6	100.0 (9,128,849)
소득수준2	기초수급	1.5	1.5	19.0	78.0	100.0 (246,784)
	차상위	1.7	0.8	6.6	90.9	100.0 (126,729)
	일반	0.2	0.1	1.1	98.6	100.0 (9,128,849)
지역	대도시	0.3	0.3	1.5	97.9	100.0 (4,141,414)
	중소도시	0.2	0.0	1.9	97.8	100.0 (4,794,447)
	농어촌	0.6	0.1	0.7	98.7	100.0 (566,502)
가족유형	양부모	0.3	0.0	0.8	98.9	100.0 (8,413,694)
	한부모·조손	0.5	1.1	8.8	89.6	100.0 (994,003)

다음으로 주양육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았다(표 4-12 참고). 전체적으로 유배우인 경우가 91.8%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가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이혼인 경우가 49.7%로 가장 많았으며, 유배우와 사별이 그 뒤를 잇는다. 차상위가구도 이혼 상태인 경우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일반가구가 유배우인 상태인 경우가 94.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는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12〉 주양육자의 혼인상태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계 (명)
전체		91.8	1.7	5.5	0.7	0.2	100.0 (9,544,581)
주양육자 성별	남자	81.4	1.7	15.8	0.9	0.2	100.0 (717,193)
	여자	92.7	1.7	4.7	0.7	0.2	100.0 (8,827,387)
연령	0-2세	96.5	0.4	1.8	0.6	0.6	100.0 (1,397,571)
	3-5세	96.0	1.1	2.3	0.5	0.1	100.0 (1,398,391)
	6-8세	95.7	0.9	2.7	0.7	0.0	100.0 (1,344,536)
	9-11세	91.4	1.7	5.9	0.7	0.2	100.0 (1,515,778)
	12-17세	87.4	2.7	8.9	0.9	0.1	100.0 (3,888,305)
소득수준1	빈곤	31.3	13.3	50.5	2.6	2.3	100.0 (365,868)
	일반	94.2	1.3	3.8	0.7	0.1	100.0 (9,178,713)
소득수준2	기초수급	28.2	16.5	49.7	3.7	1.9	100.0 (237,877)
	차상위	37.3	7.4	51.9	0.4	2.9	100.0 (127,991)
	일반	94.2	1.3	3.8	0.7	0.1	100.0 (9,178,713)
지역	대도시	90.8	1.8	6.7	0.6	0.2	100.0 (4,152,429)
	중소도시	92.6	1.4	4.8	0.8	0.2	100.0 (4,806,097)
	농어촌	92.4	3.5	3.3	0.7	0.1	100.0 (586,055)
가족유형	양부모	99.8	0.1	0.1	0.1	0.0	100.0 (8,509,045)
	한부모·조손	19.6	16.7	54.9	7.0	1.9	100.0 (94,1083)

주양육자의 근로능력은 〈표 4-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91.2%였으며, 단순근로가능(4.9%), 단순근로미약자(2.8%), 근로능력없음(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이는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4-13〉 주양육자의 근로능력

(단위: %, 명)

구분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자	근로능력없음	계 (명)
전체		91.2	4.9	2.8	1.1	100.0 (9,610,427)
주양육자 성별	남자	94.9	1.9	0.8	2.3	100.0 (735,660)
	여자	91.0	5.1	3.0	1.0	100.0 (8,874,767)
연령	0-2세	89.4	4.8	5.8	0.1	100.0 (1,397,060)
	3-5세	91.1	4.7	3.7	0.5	100.0 (1,393,962)
	6-8세	88.2	8.3	2.3	1.2	100.0 (1,347,871)
	9-11세	94.2	2.7	1.6	1.5	100.0 (1,532,277)
	12-17세	91.8	4.7	2.0	1.5	100.0 (3,939,256)
소득수준1	빈곤	72.4	7.5	6.5	13.7	100.0 (375,797)
	일반	92.0	4.8	2.6	0.6	100.0 (9,234,629)
소득수준2	기초수급	64.4	8.8	8.1	18.7	100.0 (246,948)
	차상위	87.7	4.9	3.3	4.1	100.0 (128,849)
	일반	92.0	4.8	2.6	0.6	100.0 (9,234,629)
지역	대도시	92.8	4.5	1.7	1.0	100.0 (4,173,800)
	중소도시	89.8	5.3	3.7	1.2	100.0 (4,853,427)
	농어촌	91.5	4.4	2.9	1.2	100.0 (583,200)
가족유형	양부모	94.9	2.0	0.8	2.3	100.0 (735,660)
	한부모·조손	90.9	5.1	3.0	1.0	100.0 (8,874,767)

〈표 4-14〉의 주양육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경제활동인구(근로무능력, 군복무, 가사, 구직포기, 학업, 양육, 간병, 근로의사 없음 등)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5%, 임시직 임금 근로자가 9.4%, 자영업자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러한 경향성이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차상위가구의 경우 주양육자가 상용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가 31.2%, 임시직 임금 근로자가 23.8%, 비경제활동 인구가 22.1%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의 경우에는 주양육자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가 44.1% 였으며, 임시직 임금근로자 18.0%, 일용직 임금근로자 17.3% 등의 순이었다.

〈표 4-14〉 주양육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자활 근로 및 공공 근로	고용주	자영업 자	무급가 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계 (명)
전체		25.0	9.4	3.1	0.3	0.1	7.9	3.6	0.6	50.0	100.0 (9,511,643)
주양육자 성별	남자	59.4	8.3	4.0	1.1	0.0	16.3	0.7	1.5	8.7	100.0 (743,506)
	여자	22.1	9.5	3.0	0.3	0.1	7.2	3.9	0.5	53.4	100.0 (8,768,137)
연령	0-2세	14.4	2.2	1.3	0.5	0.0	2.3	3.9	0.4	74.9	100.0 (1,378,411)
	3-5세	21.4	6.4	2.1	0.1	0.0	3.8	3.1	0.4	62.8	100.0 (1,370,921)
	6-8세	21.7	7.0	2.4	0.2	0.0	6.1	5.3	0.0	57.2	100.0 (1,337,000)
	9-11세	28.5	10.6	4.3	0.7	0.0	9.2	2.7	0.5	43.4	100.0 (1,511,144)
	12-17세	29.9	13.4	3.9	0.2	0.1	11.4	3.4	1.0	36.7	100.0 (3,914,166)
소득수준1	빈곤	16.7	20.2	16.2	3.3	0.5	3.0	1.5	2.3	36.3	100.0 (375,804)
	일반	25.4	9.0	2.6	0.2	0.0	8.1	3.7	0.5	50.5	100.0 (9,136,492)
소득수준2	기초수급	9.1	18.0	17.3	4.5	0.0	2.5	1.9	2.8	44.1	100.0 (246,731)
	차상위	31.2	23.8	14.1	1.0	1.4	3.9	0.8	1.6	22.1	100.0 (128,421)
	일반	25.4	9.0	2.6	0.2	0.0	8.1	3.7	0.5	50.5	100.0 (9,136,492)
지역	대도시	24.5	9.4	3.2	0.2	0.1	6.2	2.9	0.7	52.6	100.0 (4,194,034)
	중소도시	25.8	9.4	3.1	0.5	0.0	8.8	3.6	0.6	48.3	100.0 (4,742,428)
	농어촌	22.7	9.4	2.3	0.2	0.0	13.1	8.4	0.0	43.9	100.0 (575,181)
가족유형	양부모	23.8	8.5	2.6	0.2	0.0	7.3	3.7	0.5	53.4	100.0 (735,660)
	한부모 및 조손	34.7	18.1	7.3	1.4	0.2	12.0	2.2	1.3	22.8	100.0 (8,776,636)

3.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가구주의 성별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남자인 경우가 91.6%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우는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가 64.5%로 남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가구와 일반가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족에서는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가 98.8%였으나, 한부모·조손가족에서는 가구주가 여자인 경우가 70.6%로 양부모 가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4-15〉 가구주의 성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명)
전체		91.6	8.4	100.0 (9,643,688)
연령	0-2세	96.6	3.4	100.0 (1,407,080)
	3-5세	94.7	5.3	100.0 (1,401,064)
	6-8세	94.7	5.3	100.0 (1,354,361)
	9-11세	91.5	8.5	100.0 (1,541,504)
	12-17세	87.8	12.2	100.0 (3,939,679)
소득수준1	빈곤	41.2	58.8	100.0 (372,855)
	일반	93.7	6.3	100.0 (9,270,833)
소득수준2	기초수급	35.5	64.5	100.0 (244,691)
	차상위	52.0	48.0	100.0 (128,163)
	일반	93.7	6.3	100.0 (9,270,833)
지역	대도시	90.5	9.5	100.0 (4,198,258)
	중소도시	92.2	7.8	100.0 (4,856,410)
	농어촌	95.0	5.0	100.0 (589,019)
가족유형	양부모	98.8	1.2	100.0 (8,561,212)
	한부모·조손	29.4	70.6	100.0 (995,459)

가구주의 연령대 분석결과는 <표 4-16>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40대 인 경우가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34.9%, 50대 이상 9.9%, 20대 이하 1.8%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의 연령대나 소득수준, 지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16> 가구주의 연령대

(단위: %,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명)
전체		1.8	34.9	53.4	9.9	100.0 (9,437,573)
가구주 성별	남자	1.6	35.7	53.3	9.4	100.0 (8,641,278)
	여자	3.7	26.0	55.0	15.4	100.0 (796,295)
연령	0-2세	7.7	73.8	16.1	2.4	100.0 (1,375,617)
	3-5세	3.5	69.2	25.3	1.9	100.0 (1,375,244)
	6-8세	0.6	50.2	44.8	4.5	100.0 (1,327,846)
	9-11세	0.0	24.0	69.8	6.2	100.0 (1,518,796)
	12-17세	0.2	7.6	73.4	18.8	100.0 (3,840,070)
소득수준1	빈곤	3.3	19.1	54.4	23.1	100.0 (371,370)
	일반	1.7	35.5	53.4	9.4	100.0 (9,066,203)
소득수준2	기초수급	2.9	18.4	51.9	26.8	100.0 (243,206)
	차상위	4.2	20.5	59.2	16.1	100.0 (128,163)
	일반	1.7	35.5	53.4	9.4	100.0 (9,066,203)
지역	대도시	1.9	32.0	54.6	11.5	100.0 (4,129,596)
	중소도시	1.7	37.6	52.5	8.2	100.0 (4,723,311)
	농어촌	2.0	33.1	52.6	12.3	100.0 (584,666)
가족유형	양부모	1.6	36.3	53.4	8.6	100.0 (8,355,222)
	한부모·조손	3.3	22.1	53.7	20.9	100.0 (995,335)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이 41.8%, 고등학교 졸업이 36.5%, 전문대학 졸업 16.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고등학교 졸업이 각 63.0%, 7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가구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3.1%, 고등학교 졸업이 35.3%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는 대학교 졸업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47.2%로 나타나 거주 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7〉 가구주의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계 (명)
전체		0.2	1.1	1.9	36.5	16.2	41.8	2.4	100.0 (9,606,719)
가구주 성별	남자	0.2	0.8	1.5	34.2	16.5	44.2	2.6	100.0 (8,801,149)
	여자	0.2	4.7	6.1	61.9	12.5	14.5	0.1	100.0 (805,571)
연령	0-2세	0.0	0.4	1.1	24.5	18.7	51.4	3.9	100.0 (1,392,481)
	3-5세	0.3	1.1	1.6	23.3	20.7	51.4	1.6	100.0 (1,391,665)
	6-8세	0.0	1.0	1.6	34.0	16.1	44.0	3.3	100.0 (1,345,287)
	9-11세	0.0	0.7	2.8	32.6	21.7	40.1	2.2	100.0 (1,538,989)
	12-17세	0.3	1.6	2.1	47.8	11.6	34.8	1.8	100.0 (3,938,297)
소득 수준 ¹	빈곤	0.5	8.0	10.9	66.6	4.8	8.7	0.5	100.0 (372,731)
	일반	0.1	0.8	1.5	35.3	16.7	43.1	2.4	100.0 (9,233,989)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0.6	10.4	12.2	63.0	5.6	7.6	0.5	100.0 (244,567)
	차상위	0.3	3.3	8.3	73.5	3.1	10.9	0.5	100.0 (128,163)
	일반	0.1	0.8	1.5	35.3	16.7	43.1	2.4	100.0 (9,233,989)
지역	대도시	0.1	1.3	1.7	33.9	13.0	47.4	2.6	100.0 (4,178,043)
	중소도시	0.2	0.7	2.0	37.5	18.6	38.7	2.3	100.0 (4,841,039)
	농어촌	0.3	3.1	2.2	47.2	19.1	27.1	0.9	100.0 (587,637)
가족 유형	양부모	0.0	0.4	1.3	34.0	16.7	45.0	2.7	100.0 (8,524,368)
	한부모·조손	1.3	7.4	7.7	60.0	11.5	12.0	0.1	100.0 (995,335)

다음으로 가구주의 장애종류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비해당인 경우가 98.5%로 응답가구의 대부분이 가구주에게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장애를 가진 경우가 전체 응

답자 중 17.2%로 나타났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종류는 지체장애 (4.8%)였으며, 비등록 장애인(3.0%)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18〉 가구의 장애 종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간질 장애	비등 록 장애 인	비해당	계 (명)
전체		0.4	0.2	0.2	0.0	0.0	0.1	0.0	0.0	0.0	0.0	0.0	0.1	0.0	0.1	0.2	98.5	100.0 (9,476,205)
가구주 성별	남자	0.3	0.2	0.2	0.0	0.0	0.1	0.0	0.0	0.0	0.0	0.0	0.1	0.0	0.1	0.2	98.7	100.0 (8,686,862)
	여자	0.9	0.1	0.3	0.1	0.0	0.1	0.0	0.2	0.2	0.1	0.3	0.1	0.0	0.1	0.5	97.1	100.0 (789,343)
연령	0-2세	0.0	0.4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4	100.0 (1,382,733)
	3-5세	0.4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98.9	100.0 (1,377,630)
	6-8세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1	100.0 (1,326,539)
	9-11세	0.1	0.1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0.4	98.7	100.0 (1,517,773)
	12-17세	0.5	0.3	0.2	0.1	0.0	0.3	0.0	0.1	0.1	0.0	0.1	0.2	0.0	0.0	0.3	97.8	100.0 (3,871,530)
소득 수준1	빈곤	3.5	0.8	1.4	0.4	0.0	0.5	0.1	1.1	1.1	0.4	0.8	0.6	0.2	0.4	2.0	86.9	100.0 (369,587)
	일반	0.3	0.2	0.1	0.0	0.0	0.1	0.0	0.0	0.0	0.0	0.0	0.1	0.0	0.1	0.1	99.0	100.0 (9,106,618)
소득 수준2	기초수급	4.8	1.2	1.8	0.4	0.1	0.8	0.1	1.1	1.2	0.6	0.4	0.9	0.4	0.4	3.0	82.8	100.0 (243,480)
	차상위	1.0	0.0	0.4	0.3	0.0	0.0	0.0	1.0	0.9	0.0	1.5	0.0	0.0	0.3	0.0	94.6	100.0 (126,107)
	일반	0.3	0.2	0.1	0.0	0.0	0.1	0.0	0.0	0.0	0.0	0.0	0.1	0.0	0.1	0.1	99.0	100.0 (9,106,618)
지역	대도시	0.5	0.2	0.2	0.0	0.0	0.2	0.0	0.0	0.0	0.0	0.0	0.2	0.0	0.1	0.4	98.1	100.0 (4,130,929)
	중소 도시	0.2	0.2	0.2	0.1	0.0	0.1	0.0	0.0	0.0	0.0	0.1	0.0	0.0	0.0	0.1	99.0	100.0 (4,780,129)
	농어촌	1.5	0.3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97.9	100.0 (565,146)
가족 유형	양부모	0.3	0.1	0.2	0.0	0.0	0.1	0.0	0.0	0.0	0.0	0.0	0.1	0.0	0.1	0.2	98.8	100.0 (8,411,479)
	한부모 가족	1.0	0.6	0.3	0.1	0.0	0.1	0.0	0.3	0.3	0.1	0.3	0.1	0.0	0.0	0.8	95.9	100.0 (977,710)

가구주의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을 살펴본 결과 비해당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7.6%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기초수급가구에서는 21.6%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가 1.4%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4-19〉 가구주의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

(단위: %, 명)

구분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6개월 투병/투약	6개월 이상 투병/투약	비해당	계 (명)
전체		0.2	0.2	2.0	97.6	100.0 (9,481,042)
가구주 성별	남자	0.1	0.0	1.7	98.2	100.0 (8,691,200)
	여자	1.1	1.3	6.0	91.6	100.0 (789,843)
연령	0-2세	0.2	0.0	0.5	99.3	100.0 (1,382,733)
	3-5세	0.0	0.0	0.8	99.1	100.0 (1,377,983)
	6-8세	0.5	0.0	2.3	97.2	100.0 (1,326,832)
	9-11세	0.2	0.0	1.4	98.3	100.0 (1,517,773)
	12-17세	0.1	0.3	3.2	96.3	100.0 (3,875,722)
소득 수준1	빈곤	1.7	1.4	17.1	79.9	100.0 (370,233)
	일반	0.1	0.1	1.4	98.3	100.0 (9,110,810)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7	1.6	21.6	75.1	100.0 (243,773)
	차상위	1.6	0.8	8.4	89.2	100.0 (126,460)
	일반	0.1	0.1	1.4	98.3	100.0 (9,110,810)
지역	대도시	0.2	0.3	2.2	97.3	100.0 (4,134,399)
	중소도시	0.2	0.0	2.1	97.7	100.0 (4,781,497)
	농어촌	0.6	0.1	0.8	98.6	100.0 (565,146)
가족 유형	양부모	0.2	0.0	1.4	98.5	100.0 (8,415,671)
	한부모·조손	0.5	1.1	8.2	90.2	100.0 (978,356)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인 경우가 전체 응답가구의 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모두 가구주가 이혼상태인 경우가 각각 50.1%, 52.3%로 일반가구가 3.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4-20〉 가구주의 혼인상태

(단위: %, 명)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비해당	계 (명)
전체		91.9	1.6	5.5	0.8	0.2	0.0	100.0 (9,541,374)
가구주 성별	남자	98.2	0.2	1.4	0.2	0.0	0.0	100.0 (8,794,234)
	여자	17.7	18.1	53.8	7.9	2.4	0.0	100.0 (747,139)
연령	0-2세	96.6	0.7	1.7	0.4	0.6	0.0	100.0 (1,397,282)
	3-5세	96.4	1.1	1.9	0.5	0.1	0.0	100.0 (1,396,606)
	6-8세	95.7	0.4	2.7	1.2	0.0	0.0	100.0 (1,341,238)
	9-11세	91.4	1.5	6.2	0.7	0.2	0.0	100.0 (1,519,560)
	12-17세	87.4	2.5	9.0	0.9	0.2	0.0	100.0 (3,886,687)
소득수준1	빈곤	31.7	12.5	50.8	2.5	2.3	0.1	100.0 (362,711)
	일반	94.3	1.2	3.7	0.7	0.1	0.0	100.0 (9,178,663)
소득수준2	기초수급	28.6	15.8	50.1	3.6	1.9	0.0	100.0 (235,392)
	차상위	37.4	6.5	52.3	0.6	2.9	0.3	100.0 (127,319)
	일반	94.3	1.2	3.7	0.7	0.1	0.0	100.0 (9,178,663)
지역	대도시	90.9	1.8	6.5	0.6	0.1	0.0	100.0 (4,149,619)
	중소도시	92.7	1.3	4.9	0.9	0.2	0.0	100.0 (4,806,329)
	농어촌	92.6	2.8	3.3	0.9	0.3	0.0	100.0 (585,426)
가족유형	양부모	99.8	0.1	0.1	0.0	0.0	0.0	100.0 (8,524,349)
	한부모·조손	19.0	15.7	56.0	7.3	1.9	0.0	100.0 (930,222)

가구주의 근로능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가구주 96.9%는 근로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21.1%, 차상위가구는 6.9%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결핍이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가구주의 근로능력

(단위: %, 명)

구분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자	근로능력없음	계 (명)
전체		96.9	1.9	0.2	1.0	100.0 (9,620,064)
가구주 성별	남자	97.8	1.5	0.1	0.6	100.0 (8,816,463)
	여자	86.7	6.2	2.0	5.1	100.0 (803,601)
연령	0-2세	98.3	1.1	0.5	0.1	100.0 (1,403,826)
	3-5세	96.8	2.3	0.1	0.8	100.0 (1,399,526)
	6-8세	96.8	2.1	0.2	0.9	100.0 (1,352,894)
	9-11세	96.5	2.4	0.1	1.1	100.0 (1,531,839)
	12-17세	96.6	1.8	0.3	1.4	100.0 (3,931,978)
소득수준1	빈곤	72.9	6.3	4.6	16.2	100.0 (371,876)
	일반	97.8	1.7	0.1	0.4	100.0 (9,248,188)
소득수준2	기초수급	64.6	7.8	6.6	21.1	100.0 (243,937)
	차상위	88.7	3.5	1.0	6.9	100.0 (127,939)
	일반	97.8	1.7	0.1	0.4	100.0 (9,248,188)
지역	대도시	96.5	2.1	0.2	1.2	100.0 (4,187,965)
	중소도시	97.3	1.7	0.2	0.8	100.0 (4,845,908)
	농어촌	96.4	2.5	0.3	0.7	100.0 (586,191)
가족유형	양부모	98.1	1.4	0.0	0.5	100.0 (8,542,937)
	한부모·조손	86.1	6.3	2.3	5.3	100.0 (993,366)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구주가 상용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가 76.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영업자가 14.4%,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수급가구는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직 임금 근로자가 19.2%,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8.2%,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처럼 상용직 임금 근로자인 경우가 가장 많으나(40.9%), 임시직 임금근로자 22.7%, 일용직 임금근로자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가구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명)

구분		상용직 임금 근로자	임시직 임금 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자활 근로 및 공공 근로	고용주	자영업 자	무급가 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계 (명)
전체		76.0	3.5	2.1	0.2	0.4	14.4	0.2	0.4	2.9	100.0 (9,584,411)
가구주 성별	남자	79.0	2.4	1.6	0.1	0.4	14.5	0.2	0.3	1.5	100.0 (8,779,187)
	여자	42.5	15.3	7.4	1.0	0.2	13.3	0.4	1.5	18.3	100.0 (805,224)
연령	0~2세	83.8	1.9	1.2	0.5	0.0	8.1	0.2	0.2	4.0	100.0 (1,400,340)
	3~5세	83.7	2.9	0.5	0.0	0.0	9.0	0.0	0.4	3.4	100.0 (1,389,781)
	6~8세	80.1	3.0	1.5	0.1	0.4	13.4	0.0	0.1	1.5	100.0 (1,354,361)
	9~11세	74.3	5.4	3.3	0.1	1.0	13.5	0.0	0.5	2.0	100.0 (1,530,317)
	12~17세	69.7	3.7	2.8	0.2	0.3	19.2	0.4	0.4	3.3	100.0 (3,909,612)
소득 수준 ¹	빈곤	22.5	19.9	17.7	2.8	0.5	3.8	0.9	2.6	29.4	100.0 (372,032)
	일반	78.1	2.8	1.5	0.1	0.3	14.8	0.2	0.3	1.9	100.0 (9,212,379)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12.9	18.2	19.2	4.1	0.0	3.2	1.1	3.0	38.3	100.0 (243,869)
	차상위	40.9	22.7	15.1	0.4	1.5	4.9	0.6	1.8	12.1	100.0 (128,163)
	일반	78.0	2.8	1.5	0.1	0.3	14.8	0.2	0.3	2.0	100.0 (9,212,379)
지역	대도시	76.2	3.2	2.1	0.1	0.3	14.2	0.1	0.6	3.3	100.0 (4,195,516)
	중소도시	76.4	3.8	2.2	0.3	0.3	13.6	0.3	0.2	3.0	100.0 (4,806,577)
	농어촌	69.8	2.8	2.1	0.2	0.6	22.2	0.3	0.0	2.1	100.0 (582,318)
가족 유형	양부모	80.1	1.8	1.6	0.1	0.4	14.4	0.2	0.3	1.3	100.0 (8,502,283)
	한부모· 조손	40.2	16.8	7.4	1.0	0.2	14.7	0.4	1.5	17.6	100.0 (995,112)

4.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아동 현황은 〈표 4-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호자가 대신 응답한 만8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만0세~만2세가 14.5%, 만3세~만5세가 14.5%, 만6세~만8세가 14.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에 직접 응답한 만9세~만17세까지의 아동은 만9세~만11세가 16.0%, 만12세~만17세가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조사 대상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7세	계 (명)
전체		14.5	14.5	14.0	16.0	40.9	100.0 (9,678,277)
아동 성별	남자	14.4	15.2	13.0	15.7	41.7	100.0 (5,049,157)
	여자	14.7	13.8	15.2	16.3	40.1	100.0 (4,629,120)
소득 수준 ¹	빈곤	6.6	12.8	9.1	12.0	59.5	100.0 (376,738)
	일반	14.9	14.6	14.2	16.1	40.2	100.0 (9,301,539)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4.8	6.9	9.7	15.9	62.6	100.0 (247,664)
	차상위	10.0	24.1	7.9	4.4	53.5	100.0 (129,073)
	일반	14.9	14.6	14.2	16.1	40.2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15.1	13.7	14.2	16.7	40.3	100.0 (4,218,761)
	중소도시	14.2	15.5	13.7	15.5	41.2	100.0 (4,869,141)
	농어촌	14.0	13.0	15.5	14.8	42.6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15.5	15.4	14.4	15.8	38.8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6.4	7.9	9.5	17.1	59.1	100.0 (1,012,991)

〈표 4-23〉의 조사 대상 아동 현황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직접 조사에 참여한 만 9세에서 만17세인 아동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24〉와 같으며, 아동의 학년은 〈표 4-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24〉 만9세~만17세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남	여	계 (명)
전체		52.6	47.4	100.0 (5,505,142)
연령	9-11세	51.3	48.7	100.0 (1,546,503)
	12-17세	53.1	46.9	100.0 (3,958,639)
소득수준 ¹	빈곤	46.6	53.4	100.0 (269,146)
	일반	52.9	47.1	100.0 (5,235,996)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50.2	49.8	100.0 (194,415)
	차상위	37.2	62.8	100.0 (74,731)
	일반	52.9	47.1	100.0 (5,235,996)
지역	대도시	54.2	45.8	100.0 (2,404,831)
	중소도시	51.1	48.9	100.0 (2,761,142)
	농어촌	53.5	46.5	100.0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52.7	47.3	100.0 (4,680,979)
	한부모·조손	53.5	46.5	100.0 (771,512)

〈표 4-25〉 만9세~만17세 아동의 학년

(단위: %, 명)

구분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생 아님	계 (명)
전체		0.3	7.3	10.0	9.3	10.4	12.6	11.3	11.1	11.5	12.1	3.9	0.1	100.0 (5,505,142)
아동 성별	남자	0.1	6.6	10.5	9.3	10.0	13.3	10.9	12.6	9.3	12.6	4.6	0.1	100.0 (2,897,704)
	여자	0.5	8.0	9.6	9.4	10.9	11.9	11.7	9.3	13.9	11.6	3.1	0.1	100.0 (2,607,438)
연령	9-11세	1.0	25.7	35.1	32.2	5.2	0.5	0.0	0.0	0.2	0.0	0.0	0.0	100.0 (1,546,503)
	12-17세	0.0	0.1	0.2	0.4	12.4	17.4	15.7	15.4	15.9	16.9	5.4	0.1	100.0 (3,958,639)
소득 수준1	빈곤	0.7	4.2	5.5	6.3	7.6	15.6	7.9	10.7	19.4	17.3	4.3	0.6	100.0 (269,146)
	일반	0.3	7.4	10.3	9.5	10.6	12.5	11.5	11.1	11.1	11.9	3.9	0.0	100.0 (5,235,996)
소득 수준2	기초수급	0.0	5.8	5.5	8.0	9.3	14.3	9.5	9.1	16.9	16.0	5.4	0.2	100.0 (194,415)
	차상위	2.5	0.2	5.4	1.7	3.2	18.8	3.9	14.6	25.9	20.7	1.3	1.7	100.0 (74,731)
	일반	0.3	7.4	10.3	9.5	10.6	12.5	11.5	11.1	11.1	11.9	3.9	0.0	100.0 (5,235,996)
지역	대도시	0.3	6.9	10.3	10.1	9.8	12.9	11.7	10.5	12.6	11.0	4.0	0.0	100.0 (2,404,831)
	중소도시	0.4	7.6	9.8	8.9	11.1	12.4	10.5	11.4	10.9	13.2	3.8	0.0	100.0 (2,761,142)
	농어촌	0.2	6.9	10.1	7.5	9.8	12.3	14.8	12.7	9.1	12.1	3.9	0.6	100.0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0.3	7.7	10.1	9.6	11.3	12.4	11.0	10.1	11.8	11.9	3.8	0.0	100.0 (4,680,979)
	한부모조손	0.2	5.4	8.2	8.4	5.3	15.2	12.7	16.7	8.3	14.3	4.6	0.5	100.0 (771,512)

다음으로 대상 아동의 장애종류와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을 살펴본 결과 (표 4-26, 표 4-27 참고), 대상 아동의 대부분이 장애나 만성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우는 비장애인 경우가 차상위가구, 일반가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다.

〈표 4-26〉 대상 아동의 장애 종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질 장애	비등 록 장애인	비해 당	계 (명)
전체		0.0	0.0	0.1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99.7	100.0 (9,497,981)
아동 성별	남자	0.0	0.0	0.0	0.0	0.0	0.0	0.3	0.1	0.0	0.0	0.0	0.0	0.0	99.5	100.0 (4,952,100)
	여자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8	100.0 (4,545,881)
연령	0-2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383,022)
	3-5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9	100.0 (1,383,378)
	6-8세	0.0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0.0	99.7	100.0 (1,326,460)
	9-11세	0.0	0.0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5	100.0 (1,519,514)
	12-17세	0.0	0.0	0.0	0.0	0.0	0.0	0.3	0.1	0.0	0.0	0.0	0.0	0.0	99.5	100.0 (3,885,607)
소득 수준1	빈곤	0.2	0.2	0.1	0.0	0.3	0.4	0.2	0.6	0.2	0.0	0.1	0.0	0.4	97.2	100.0 (372,466)
	일반	0.0	0.0	0.1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99.8	100.0 (9,125,51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0.3	0.4	0.2	0.1	0.5	0.6	0.3	0.5	0.3	0.0	0.2	0.0	0.6	96.2	100.0 (246,389)
	차상위	0.0	0.0	0.0	0.0	0.0	0.0	0.0	0.7	0.0	0.0	0.0	0.1	0.0	99.1	100.0 (126,077)
	일반	0.0	0.0	0.1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99.8	100.0 (9,125,515)
지역	대도시	0.0	0.0	0.1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99.6	100.0 (4,138,022)
	중소도시	0.0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0.0	0.0	99.7	100.0 (4,793,422)
	농어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566,537)
가족 유형	양부모	0.0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99.8	100.0 (8,408,592)
	한부모 및 조손	0.0	0.1	0.6	0.0	0.1	0.1	0.0	0.1	0.1	0.0	0.0	0.0	0.1	98.6	100.0 (989,788)

〈표 4-27〉 대상 아동의 만성질환 여부 및 투병·투약 기간

(단위: %, 명)

구분		3개월 미만 투병/투약	3~6개월 투병/투약	6개월 이상 투병/투약	비해당	계 (명)
전체		0.0	0.0	0.3	99.6	100.0 (9,498,209)
아동 성별	남자	0.0	0.1	0.5	99.4	100.0 (4,952,355)
	여자	0.0	0.0	0.1	99.9	100.0 (4,545,854)
연령	0-2세	0.0	0.0	0.1	99.9	100.0 (1,382,930)
	3-5세	0.0	0.2	0.0	99.7	100.0 (1,383,378)
	6-8세	0.0	0.0	0.3	99.7	100.0 (1,326,304)
	9-11세	0.0	0.0	0.1	99.9	100.0 (1,519,330)
	12-17세	0.0	0.0	0.6	99.4	100.0 (3,886,267)
소득수준1	빈곤	0.2	0.2	1.5	98.1	100.0 (372,478)
	일반	0.0	0.0	0.3	99.7	100.0 (9,123,966)
소득수준2	기초수급	0.3	0.4	1.9	97.5	100.0 (246,801)
	차상위	0.0	0.0	0.6	99.4	100.0 (125,892)
	일반	0.0	0.0	0.3	99.7	100.0 (9,125,515)
지역	대도시	0.0	0.1	0.2	99.7	100.0 (4,138,250)
	중소도시	0.0	0.0	0.5	99.5	100.0 (4,793,422)
	농어촌	0.0	0.0	0.0	100.0	100.0 (566,537)
가족유형	양부모	0.0	0.0	0.3	99.7	100.0 (8,406,817)
	한부모·조손	0.1	0.1	0.4	99.5	100.0 (990,026)

제2절 조사 대상 가구의 지출 및 소득

〈표 4-28〉 월평균 총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평균	SD	명
전체		226.06	94.03	9,678,277
소득수준1	빈곤	117.00	51.47	376,738
	일반	230.45	92.7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110.65	45.99	247,664
	차상위	129.07	58.66	129,073
	일반	230.45	92.70	9,301,539
지역	대도시	233.46	102.82	4,218,761
	중소도시	221.50	86.61	4,869,141
	농어촌	210.90	82.28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235.81	91.72	8,565,684
	한부모·조손	145.82	75.59	1,012,991
전체(2008)		206.40	96.20	9,910,558
소득수준2 (2008)	기초수급	89.10	40.20	768,435
	차상위	122.50	43.50	416,683
	일반	226.70	92.50	8,725,440
지역 (2008)	대도시	216.10	97.50	5,074,676
	중소도시	201.30	94.80	5,314,189
	농어촌	182.80	91.30	960,610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월 평균 총 생활비는 평균 22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230만원,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111만원, 차상위가구의 경우 12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시점에서 일반가구 총 생활비가 기초수급가구의 총 생활비 보다 2.1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조사 당시에는 일반가구의 총 생활비가 빈곤층의 총 생활비의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도 기초수급 아동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2008년 조사당시보다 24%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일반 아동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2008년 조사 당시보다 1.7%만 증가했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월평균 생활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 총 생활비는 103만원이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하는 경

우에는 87만원이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82만원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향은 2008년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월 평균 생활비는 양부모 가족 아동의 월평균 생활비의 62% 정도로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월 평균 총 생활비가 146만원이나, 양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236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29〉 월평균 총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SD	명
전체		343.31	147.38	9,657,118
성별	남자	344.10	143.48	5,041,086
	여자	342.47	151.46	4,616,032
연령	0-2세	309.28	121.18	1,407,332
	3-5세	320.99	129.50	1,406,168
	6-8세	347.40	166.52	1,353,700
	9-11세	367.64	154.38	1,541,550
	12-17세	352.99	149.24	3,948,368
소득수준1	빈곤	136.06	65.06	373,804
	일반	351.55	143.65	9,283,314
소득수준2	기초수급	122.97	53.48	245,713
	차상위	160.08	76.52	128,091
	일반	351.55	143.65	9,283,314
지역	대도시	350.28	168.58	4,200,478
	중소도시	342.11	128.74	4,866,266
	농어촌	307.05	121.1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61.17	141.31	8,553,425
	한부모·조손	190.92	110.48	1,011,419
전체(2008)		323.10	215.10	9,910,558
소득수준 (2008)	기초수급	91.90	30.80	768,435
	차상위	144.30	30.70	416,683
	일반	357.50	212.70	8,725,440
지역* (2008)	대도시	332.80	219.90	5,074,676
	중소도시	318.90	210.00	5,314,189
	농어촌	294.00	212.40	960,610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월 평균 총 소득은 평균 343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소득은 기초수급 가구가 123만원이며, 차상위가구가 160만원, 일반가구가 352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 당시에는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의 월 평균 총 소득이 아동이 있는 기초수급가구의 월 평균 총 소득의 3.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 조사시점에서 일반가구 월 평균 총소득이 기초수급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보다 2.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월평균 총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13년도 기초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이 2008년도 조사당시보다 33.8% 증가하기도 했지만, 2013년도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의 소득이 2008년도 조사당시보다 1.7%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⁵⁾.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총 소득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아동 월평균 소득의 53%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미만 가구 비율(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빈곤통계연보)에서는 9.4%로 나타났으며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1.2% 포인트 낮은 8.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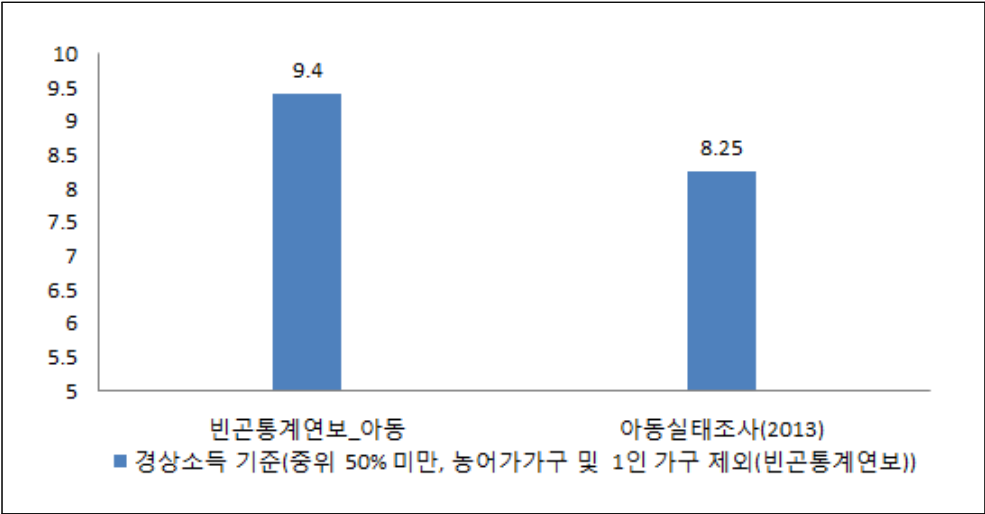
2013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가족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가구의 경우, 3.9%로 나타났지만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46.6%로 나타나 양부모가구보다 1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8세 아동가구의 경우에는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자세한 원인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⁶⁾

5) 2013년도 조사에서 일반가구의 소득이 2008년 조사 당시보다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2013년 조사에서 일반가구에 일부 차상위가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가구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가구의 경우 38%정도가 소득 하위 3분위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 때문에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이 하향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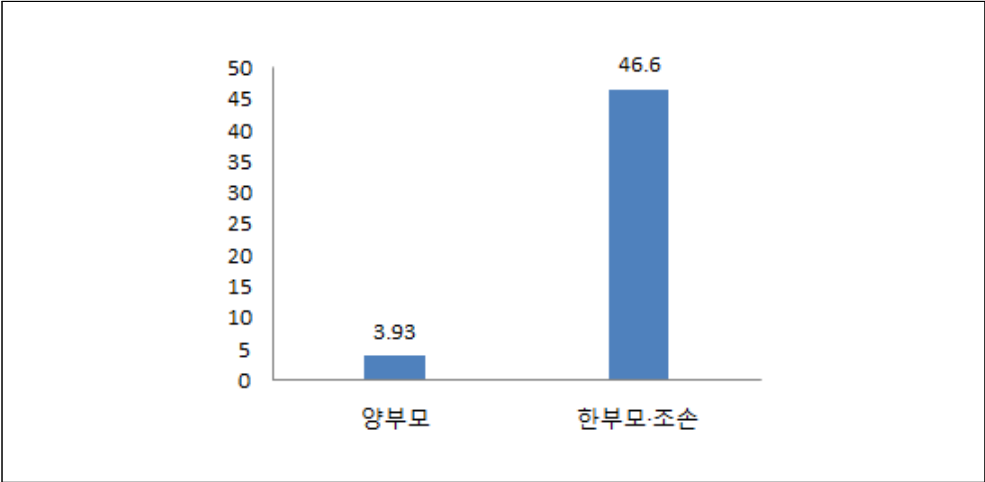
[그림 4-1] 2013년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단위: %)



[그림 4-2] 2013년 가족형태별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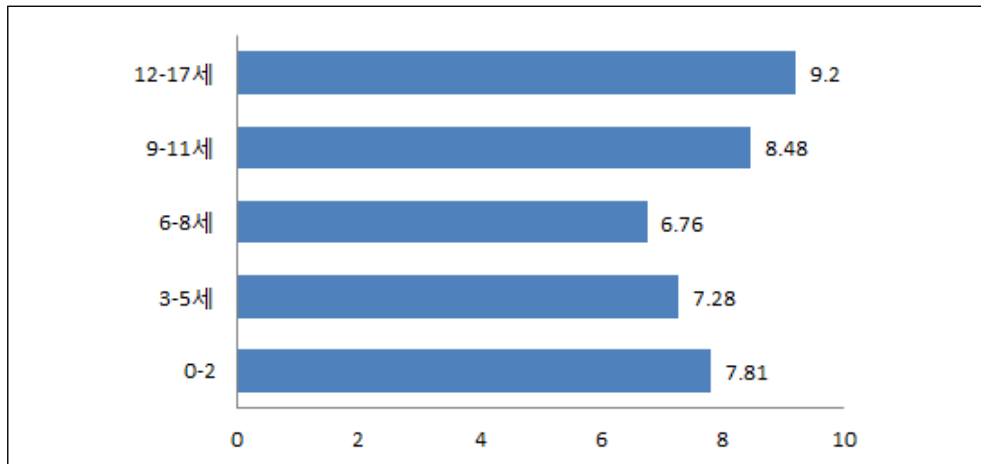
(단위: %)



6)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소득의 출처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함. 2013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소득만을 파악하고 소득출처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어려움.

[그림 4-3] 연령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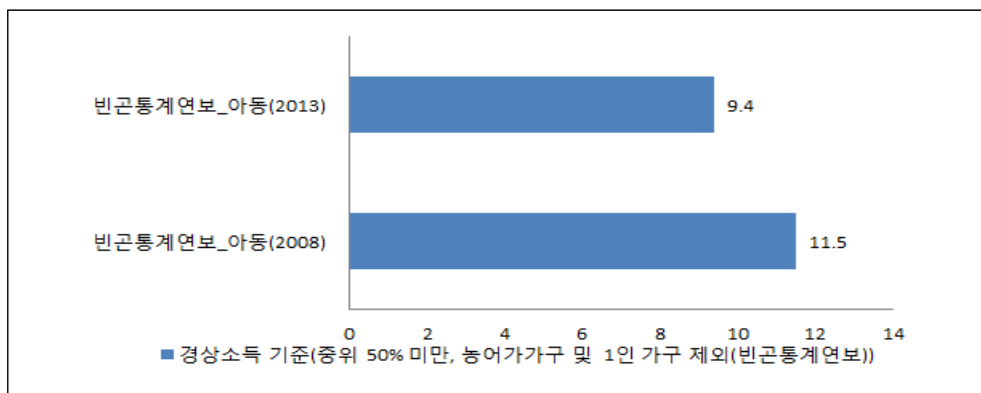
(단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시한 상대적 빈곤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3년도에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1.5%에서 9.4%로 2.1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림 4-4] 상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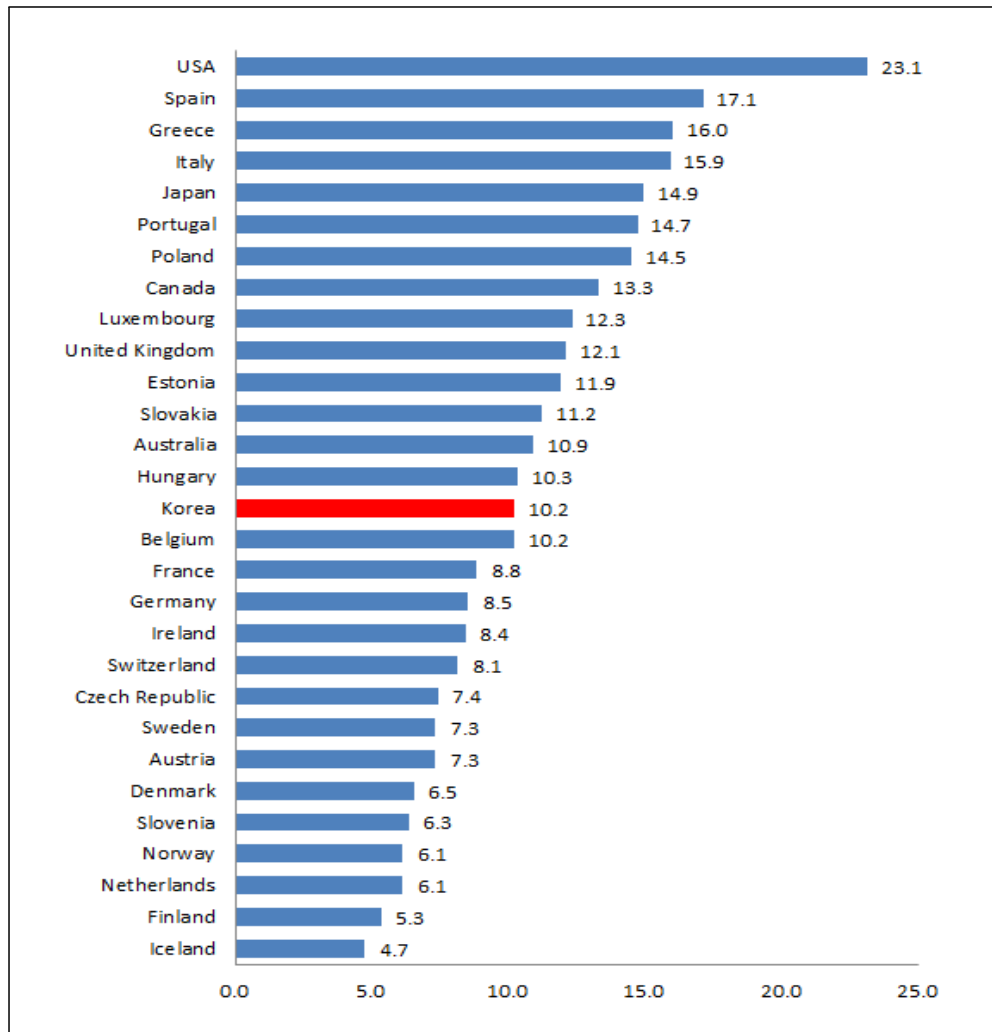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빈곤통계연보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여기서는 가처분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

균 빈곤율인 11% 보다 약간 낮은 10.2%(가계동향조사)이며 순위로는 1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국가간 아동가구 상대적 빈곤율 비교



자료: EU-SILC 2009, HILDA 2009, SLID 2009, SHP 2009, PSID 2007. 일본의 경우는 Cabinet Office, Gender Equality Bureau(2011). 한국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자료는 UNICEF(2013)에서 재인용)

7) OECD 34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터키 이스라엘을 제외 함. 사용된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가구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중위 50% 미만을 빈곤으로 규정 함. 한국의 경우에는 2013년도(2012년 소득자료) 조사자료이나 나머지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름.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소득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구성은 4인가구가 가장 많았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30대와 4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어머니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가족유형에 있어서 한부모·조손가족의 비율은 일반가구보다 빈곤가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양육자의 유배우 비율도 빈곤가구가 현저히 낮았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의 아동은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가정해체와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빈곤가구의 주양육자와 한부모·조손가족의 주양육자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가구가 근로빈곤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부모·조손가족에서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정해체 감소,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 생활비 및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조사당시와 2013년 조사시점에서 비교하여 보면, 기초수급 가구와 일반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와 월평균 소득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있는 기초수급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나아진 점도 있지만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의할 점은 아동이 있는 기초수급가구와 아동이 있는 일반가구의 경제적 생활 격차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동이 있는 기초수급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1인에서 2인 사이이다. 2012년 최저생계비가 3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 정도이며 4인 가구의 경우 15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수급 아동가구는 월평균 생활비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가구원의 소득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손가족의 경우, 가구주가 노인이기 때문에 근로를 통한 지원보다 이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

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조손가족이 12배 높아 이들에 대한 현금지원 및 소득활동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 방식이 아동빈곤율을 낮추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10년 동안 빈곤율의 감소폭이 매우 작다.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빈곤율이 11.7%임을 감안하면 2013년도와 비교시 아동빈곤율은 2.3% 감소한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시행된 아동빈곤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빈곤율 감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가구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현금지원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아동가족복지지출 항목 중 육아휴직급여지출비중과 보육가사서비스 지출비중은 아동빈곤율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김미숙 외, 2012). 아동빈곤율이 낮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경우에는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고, 가구원의 근로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육아휴직급여지출비중과 보육가사서비스 지출비중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기간 동안 육아 및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근로의욕을 낮추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

가정생활

제1절 주양육자용 설문 분석

제2절 아동용 설문 분석

제3절 소결

가정생활은 아동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영역이다. 가정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의 주양육자와 아동에게 모두 질문하였다. 주양육자에게는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 희망 및 가능교육수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품미보장, 가족의 기능, 양육스트레스, 양육실제, 용돈, 양육행동, 주양육자의 교육참여, 미디어 노출, 여가활동 빈도, 인지적 자극, 가구형태, 주관적 경제수준,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아동에게는 부모자녀 유대감과 가정형편을 조사하였다.

제1절 주양육자용 설문분석

1. 주양육자의 결혼생활만족도

우리나라 아동의 주양육자의 결혼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90% 이상이 ‘만족하는 편이다’ 이상으로 결혼생활을 평가하고 있다. 1점(‘매우 불만족’)에서 4점(‘매우 만족’)까지의 척도로 결혼생활만족도를 측정했을 때, 평균은 3.0으로 나타나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평균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주양육자의 결혼생활만족도는 주양육자의 성별,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결혼생활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수급가구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에서는 ‘불만족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0% 이상을 차지했고, 만족도 척도의 평균도 2.7로 나타나 차상위가구나 일반가구에 비해 결혼생활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5-1〉 결혼생활 만족여부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한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계 (명)	평균 (SD)
전체		1.0	6.5	79.0	13.5	100.0 (8,641,200)	3.05 (0.49)
아동 성별	남자	0.9	6.2	80.0	13.0	100.0 (4,513,132)	3.05 (0.47)
	여자	1.2	6.7	77.9	14.1	100.0 (4,128,068)	3.05 (0.51)
연령	0-2세	0.5	1.9	76.0	21.6	100.0 (1,328,306)	3.19 (0.47)
	3-5세	0.6	5.7	79.2	14.6	100.0 (1,328,740)	3.08 (0.47)
	6-8세	0.8	7.2	80.7	11.4	100.0 (1,262,148)	3.03 (0.46)
	9-11세	1.7	2.9	81.5	13.9	100.0 (1,378,114)	3.08 (0.48)
	12-17세	1.3	9.8	78.4	10.5	100.0 (3,343,893)	2.98 (0.50)
소득수준1	빈곤	4.1	15.9	72.2	7.8	100.0 (113,066)	2.84 (0.61)
	일반	1.0	6.3	79.1	13.6	100.0 (8,528,135)	3.05 (0.49)
소득수준2	기초수급	5.5	21.6	68.7	4.2	100.0 (66,633)	2.72 (0.63)
	차상위	2.0	7.8	77.2	13.0	100.0 (46,432)	3.01 (0.54)
	일반	1.0	6.3	79.1	13.6	100.0 (8,528,135)	3.05 (0.49)
지역	대도시	1.2	6.0	82.1	10.7	100.0 (3,709,054)	3.02 (0.46)
	중소도시	1.0	6.7	76.1	16.2	100.0 (4,407,106)	3.08 (0.51)
	농어촌	0.7	7.8	80.6	10.9	100.0 (525,040)	3.02 (0.46)
가족유형	양부모	1.1	6.4	78.9	13.6	100.0 (8,364,070)	3.05 (0.49)
	한부모·조손	0.6	9.9	83.3	6.2	100.0 (190,286)	2.95 (0.43)

2. 아동 앞에서 주양육자가 배우자와 싸우는 빈도

대부분의 주양육자는 아동 앞에서 싸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싸우지 않는다’와 ‘일년에 1-2회 싸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경우인 ‘일주일에 1-2회 이상 싸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7%로 나타나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앞에서 배우자와 싸우는 빈도는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경우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싸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 6.7%와 5.5%를 차지해 일반가구의 1.6%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났다.

〈표 5-2〉 배우자와 싸움빈도

(단위: %, 명)

구분		거의 싸우지 않는다	일년에 1~2회 싸운다	일년에 3~4회 싸운다	일년에 5~6회 싸운다	한달에 1~2회 싸운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싸운다	계 (명)
전체		36.3	25.0	16.5	7.8	12.8	1.7	100.0 (8,564,134)
아동 성별	남자	35.2	25.4	16.9	8.3	12.5	1.7	100.0 (4,484,569)
	여자	37.4	24.5	16.0	7.3	13.2	1.6	100.0 (4,079,565)
연령	0~2세	45.8	21.7	10.2	8.0	12.5	1.7	100.0 (1,327,069)
	3~5세	37.0	24.9	15.7	7.9	13.9	0.6	100.0 (1,302,980)
	6~8세	36.9	26.0	13.8	6.0	15.4	1.9	100.0 (1,259,327)
	9~11세	35.9	24.1	21.1	6.2	11.5	1.2	100.0 (1,360,589)
	12~17세	32.1	26.2	18.4	9.0	12.1	2.2	100.0 (3,314,168)
소득수준1	빈곤	40.4	19.6	14.9	7.4	11.5	6.2	100.0 (112,375)
	일반	36.2	25.0	16.5	7.8	12.9	1.6	100.0 (8,451,759)
소득수준2	기초수급	37.7	19.4	17.3	6.8	12.0	6.7	100.0 (66,602)
	차상위	44.3	20.0	11.4	8.1	10.7	5.5	100.0 (45,773)
	일반	36.2	25.0	16.5	7.8	12.9	1.6	100.0 (8,451,759)
지역	대도시	34.4	26.8	19.3	7.7	10.5	1.3	100.0 (3,695,870)
	중소도시	38.7	23.2	13.6	7.6	14.7	2.1	100.0 (4,368,646)
	농어촌	28.2	26.5	20.0	10.9	13.8	0.7	100.0 (499,618)
가족유형	양부모	36.4	24.9	16.5	7.8	12.7	1.7	100.0 (8,288,531)
	한부모·조손	31.7	29.8	12.2	7.1	19.1	0.1	100.0 (191,337)

3. 가족의 사회자본(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정도)

〈표 5-3〉에서 〈표 5-6〉은 가족의 사회자본 정도를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생활에의 도움, ‘정보 제공’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도움의 정도를 1점(‘전혀 받지 않는다’)부터 4점(‘매우 많이 받는다’)까지의 척도로 파악했을 때 평균점수는 도움의 영역별로 1.4에서 2.1 정도로 나타나 영역에 상관없이 대부분 별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정서적 도움과 정보 제공의 경우가 경제적 도움이나 생활에의 도움보다는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사회자본의 수준은 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경제적 도움

(단위: %, 명)

구분		전혀 받지않는다	별로 받지않는다	받는 편이다	매우 많이받는다	계 (명)	평균 (SD)
전체		66.8	22.6	9.7	1.0	100.0 (9,651,271)	1.45 (0.71)
아동 성별	남자	66.6	24.0	8.7	0.7	100.0 (5,036,923)	1.44 (0.68)
	여자	67.0	21.0	10.8	1.2	100.0 (4,614,348)	1.46 (0.73)
연령	0-2세	64.5	20.9	12.0	2.5	100.0 (1,407,369)	1.53 (0.80)
	3-5세	63.5	25.0	10.0	1.4	100.0 (1,407,945)	1.49 (0.73)
	6-8세	65.4	26.2	8.2	0.3	100.0 (1,357,624)	1.43 (0.65)
	9-11세	63.1	25.1	11.3	0.6	100.0 (1,546,503)	1.49 (0.71)
	12-17세	70.7	20.1	8.7	0.6	100.0 (3,931,830)	1.39 (0.67)
소득수준1	빈곤	55.8	22.3	21.2	0.7	100.0 (376,541)	1.67 (0.83)
	일반	67.2	22.6	9.2	1.0	100.0 (9,274,730)	1.44 (0.70)
소득수준2	기초수급	53.1	23.1	23.2	0.7	100.0 (247,468)	1.72 (0.84)
	차상위	61.1	20.9	17.3	0.8	100.0 (129,073)	1.58 (0.80)
	일반	67.2	22.6	9.2	1.0	100.0 (9,274,730)	1.44 (0.70)
지역	대도시	62.3	25.0	11.0	1.7	100.0 (4,215,180)	1.52 (0.76)
	중소도시	70.5	20.4	8.8	0.3	100.0 (4,846,481)	1.39 (0.66)
	농어촌	68.4	23.2	7.5	0.9	100.0 (589,610)	1.41 (0.67)
가족유형	양부모	68.6	22.2	8.4	0.8	100.0 (8,546,163)	1.41 (0.68)
	한부모·조손	53.5	23.9	20.3	2.2	100.0 (1,012,795)	1.71 (0.86)

〈표 5-4〉 정서적 도움

(단위: %, 명)

구분		전혀 받지않는다	별로 받지않는다	받는 편이다	매우 많이받는다	계 (명)	평균 (SD)
전체		34.9	20.5	39.3	5.2	100.0 (9,651,271)	2.15 (0.96)
아동 성별	남자	35.9	20.9	38.2	4.9	100.0 (5,036,923)	2.12 (0.96)
	여자	33.9	20.1	40.5	5.6	100.0 (4,614,348)	2.18 (0.97)
연령	0-2세	38.1	13.2	42.3	6.3	100.0 (1,407,369)	2.17 (1.01)
	3-5세	28.4	20.2	44.8	6.6	100.0 (1,407,945)	2.29 (0.95)
	6-8세	31.9	23.1	38.9	6.1	100.0 (1,357,624)	2.19 (0.96)
	9-11세	35.4	24.8	34.2	5.5	100.0 (1,546,503)	2.10 (0.95)
	12-17세	37.0	20.7	38.4	4.0	100.0 (3,931,830)	2.09 (0.95)
소득수준1	빈곤	35.5	29.0	30.7	4.9	100.0 (376,541)	2.05 (0.92)
	일반	34.9	20.2	39.6	5.3	100.0 (9,274,730)	2.15 (0.97)
소득수준2	기초수급	35.3	28.9	32.6	3.2	100.0 (247,468)	2.04 (0.90)
	차상위	35.8	29.1	27.1	8.0	100.0 (129,073)	2.07 (0.97)
	일반	34.9	20.2	39.6	5.3	100.0 (9,274,730)	2.15 (0.97)
지역	대도시	36.5	22.6	36.6	4.3	100.0 (4,215,180)	2.09 (0.95)
	중소도시	31.9	18.6	43.5	6.0	100.0 (4,846,481)	2.23 (0.97)
	농어촌	48.3	21.4	24.2	6.0	100.0 (589,610)	1.88 (0.98)
가족유형	양부모	35.2	19.9	39.5	5.4	100.0 (8,546,163)	2.15 (0.97)
	한부모·조손	33.0	23.9	38.8	4.4	100.0 (1,012,795)	2.15 (0.93)

〈표 5-5〉 생활에의 도움

(단위: %, 명)

구분		전혀 받지않는다	별로 받지않는다	받는 편이다	매우 많이받는다	계 (명)	평균 (SD)
전체		57.9	21.9	16.7	3.5	100.0 (9,651,224)	1.66 (0.88)
아동 성별	남자	56.9	21.9	17.9	3.3	100.0 (5,036,875)	1.68 (0.88)
	여자	59.1	21.8	15.5	3.6	100.0 (4,614,348)	1.64 (0.87)
연령	0-2세	54.5	18.8	22.3	4.4	100.0 (1,407,369)	1.77 (0.94)
	3-5세	51.7	24.5	21.2	2.6	100.0 (1,407,898)	1.75 (0.88)
	6-8세	53.6	21.7	21.5	3.2	100.0 (1,357,624)	1.74 (0.90)
	9-11세	55.8	24.9	16.0	3.4	100.0 (1,546,503)	1.67 (0.86)
	12-17세	63.7	21.0	11.8	3.6	100.0 (3,931,830)	1.55 (0.84)
소득수준1	빈곤	58.9	23.7	14.7	2.7	100.0 (376,493)	1.61 (0.83)
	일반	57.9	21.8	16.8	3.5	100.0 (9,274,730)	1.66 (0.88)
소득수준2	기초수급	61.8	21.0	15.3	1.9	100.0 (247,420)	1.57 (0.81)
	차상위	53.5	28.8	13.4	4.3	100.0 (129,073)	1.69 (0.86)
	일반	57.9	21.8	16.8	3.5	100.0 (9,274,730)	1.66 (0.88)
지역	대도시	52.5	24.7	20.6	2.2	100.0 (4,215,180)	1.72 (0.86)
	중소도시	62.5	19.7	13.6	4.1	100.0 (4,846,433)	1.59 (0.87)
	농어촌	58.4	19.3	14.9	7.4	100.0 (589,610)	1.71 (0.97)
가족유형	양부모	58.6	21.5	16.4	3.5	100.0 (8,546,163)	1.65 (0.88)
	한부모·조손	53.2	24.1	19.1	3.6	100.0 (1,012,747)	1.73 (0.89)

〈표 5-6〉 정보제공

(단위: %, 명)

구분		전혀 받지않는다	별로 받지않는다	받는 편이다	매우 많이받는다	계 (명)	평균 (SD)
전체		33.8	22.7	38.7	4.8	100.0 (9,648,238)	2.14 (0.95)
아동 성별	남자	33.8	23.8	38.0	4.4	100.0 (5,036,923)	2.13 (0.94)
	여자	33.8	21.6	39.4	5.2	100.0 (4,611,315)	2.16 (0.96)
연령	0-2세	34.1	15.6	43.1	7.2	100.0 (1,407,369)	2.23 (1.00)
	3-5세	23.8	22.8	49.1	4.4	100.0 (1,407,945)	2.34 (0.89)
	6-8세	29.6	20.7	45.0	4.7	100.0 (1,357,624)	2.25 (0.93)
	9-11세	34.4	22.5	37.7	5.5	100.0 (1,543,470)	2.14 (0.96)
	12-17세	38.6	26.1	31.5	3.8	100.0 (3,931,830)	2.01 (0.92)
소득수준1	빈곤	43.4	28.8	26.1	1.7	100.0 (376,541)	1.86 (0.86)
	일반	33.5	22.5	39.2	4.9	100.0 (9,271,697)	2.16 (0.95)
소득수준2	기초수급	45.9	27.9	25.0	1.2	100.0 (247,468)	1.82 (0.85)
	차상위	38.6	30.5	28.3	2.7	100.0 (129,073)	1.95 (0.88)
	일반	33.5	22.5	39.2	4.9	100.0 (9,271,697)	2.16 (0.95)
지역	대도시	34.3	24.7	37.1	3.9	100.0 (4,215,180)	2.11 (0.93)
	중소도시	32.6	21.1	41.1	5.3	100.0 (4,843,448)	2.19 (0.95)
	농어촌	41.0	22.1	29.9	7.0	100.0 (589,610)	2.03 (0.99)
가족유형	양부모	33.2	22.2	39.7	4.9	100.0 (8,546,163)	2.16 (0.95)
	한부모·조손	39.3	26.5	30.0	4.2	100.0 (1,009,762)	1.99 (0.93)

4. 주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교육 기대

주양육자의 절대 다수가 자녀들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이 보여주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4년제 대학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약 25%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원하고 있다.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고등학교라고 답한 비중이 각 3.9%와 3.4%에 달해 일반가구의 0.6%보다 현격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전문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희망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이상 (석사/박사)	계 (명)
전체		0.0	0.7	3.6	70.5	25.2	100.0 (9,654,614)
아동 성별	남자	0.1	0.8	3.6	69.9	25.7	100.0 (5,040,069)
	여자	0.0	0.6	3.6	71.1	24.7	100.0 (4,614,545)
연령	0-2세	0.0	0.4	1.9	69.3	28.4	100.0 (1,407,369)
	3-5세	0.2	0.5	3.5	67.2	28.6	100.0 (1,407,945)
	6-8세	0.0	0.2	2.7	68.4	28.6	100.0 (1,357,821)
	9-11세	0.0	0.1	3.4	72.0	24.6	100.0 (1,541,761)
	12-17세	0.0	1.3	4.6	72.1	22.0	100.0 (3,939,719)
소득수준1	빈곤	0.2	3.7	13.2	75.1	7.8	100.0 (376,738)
	일반	0.0	0.6	3.2	70.3	25.9	100.0 (9,277,876)
소득수준2	기초수급	0.3	3.9	13.8	73.9	8.0	100.0 (247,664)
	차상위	0.0	3.4	12.0	77.3	7.3	100.0 (129,073)
	일반	0.0	0.6	3.2	70.3	25.9	100.0 (9,277,876)
지역	대도시	0.1	0.6	2.4	70.6	26.4	100.0 (4,210,437)
	중소도시	0.0	0.8	4.5	70.1	24.6	100.0 (4,854,566)
	농어촌	0.0	0.3	4.4	72.8	22.5	100.0 (589,610)
가족유형	양부모	0.0	0.4	2.9	70.5	26.1	100.0 (8,554,052)
	한부모-조손	0.1	3.2	9.6	70.8	16.4	100.0 (1,012,991)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비해 실제 가능하다고 여기는 교육수준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을 보여 주는데, <표 5-7>의 희망 교육수준에 비해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낮아지고, 전문대학과 고등학교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희망 교육수준과 기대 교육수준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의 경우는 약 45% 정도가 자녀의 실제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미만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차상위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약 35%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실제 기대 교육수준은 90% 이상이 4년제 대학이라고 응답한 일반가구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표 5-8> 가능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이상 (석사/박사)	계 (명)
전체		0.1	3.2	6.8	70.6	19.4	100.0 (9,656,658)
아동 성별	남자	0.1	3.0	6.1	71.1	19.7	100.0 (5,043,132)
	여자	0.1	3.4	7.5	70.0	19.1	100.0 (4,613,526)
연령	0~2세	0.0	1.9	3.1	71.0	23.9	100.0 (1,407,251)
	3~5세	0.2	1.7	6.8	68.5	22.8	100.0 (1,407,708)
	6~8세	0.0	1.2	7.7	69.1	22.0	100.0 (1,356,341)
	9~11세	0.1	2.4	7.0	71.1	19.4	100.0 (1,546,503)
	12~17세	0.0	5.2	7.7	71.5	15.6	100.0 (3,938,854)
소득수준1	빈곤	0.3	20.0	21.0	55.3	3.3	100.0 (375,922)
	일반	0.0	2.5	6.2	71.2	20.0	100.0 (9,280,7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0.4	21.9	23.0	51.9	2.8	100.0 (247,309)
	차상위	0.1	16.3	17.2	61.9	4.5	100.0 (128,613)
	일반	0.0	2.5	6.2	71.2	20.0	100.0 (9,280,736)
지역	대도시	0.1	3.2	5.7	68.9	22.1	100.0 (4,215,180)
	중소도시	0.0	3.3	7.7	71.3	17.6	100.0 (4,853,751)
	농어촌	0.0	2.2	6.4	77.3	14.1	100.0 (587,727)
가족유형	양부모	0.1	1.9	5.2	72.0	20.9	100.0 (8,552,168)
	한부모·조손	0.1	14.4	20.3	59.6	5.6	100.0 (1,012,176)

5. 식품 미보장: 식품결핍과 영양섭취 부족

가정생활에서 식생활은 가족구성원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다. <표 5-9>에서 <표 5-11>은 가족의 식생활을 빈곤으로 인한 식품결핍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표 5-9>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약 8%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을 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는 식품빈곤 경험의 빈도가 더 심해서 각 약 45%와 36%의 아동이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빈곤 때문에 균형잡힌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9% 정도로 나타났다(표 5-10 참조). 여기서도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그런 경험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의 약 50%와 차상위가구의 약 40%가 식품빈곤으로 인해 영양섭취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경제적 어려움: 살 돈이 없음

(단위: %, 명)

구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평균
전체		1.2	6.7	92.1	100.0 (9,580,172)	2.91
아동 성별	남자	1.5	6.0	92.6	100.0 (5,006,012)	2.91
	여자	0.9	7.5	91.6	100.0 (4,574,160)	2.91
연령	0-2세	0.2	3.0	96.9	100.0 (1,386,212)	2.97
	3-5세	2.3	4.9	92.8	100.0 (1,392,061)	2.90
	6-8세	0.9	9.6	89.5	100.0 (1,356,831)	2.89
	9-11세	1.6	9.2	89.2	100.0 (1,538,732)	2.88
	12-17세	1.1	6.7	92.2	100.0 (3,906,336)	2.91
소득수준1	빈곤	7.7	34.5	57.9	100.0 (372,855)	2.50
	일반	0.9	5.6	93.5	100.0 (9,207,316)	2.93
소득수준2	기초수급	8.7	36.4	54.9	100.0 (244,438)	2.46
	차상위	5.7	30.7	63.6	100.0 (128,418)	2.58
	일반	0.9	5.6	93.5	100.0 (9,207,316)	2.93
지역	대도시	1.2	6.8	92.1	100.0 (4,178,918)	2.91
	중소도시	1.3	7.0	91.7	100.0 (4,812,859)	2.90
	농어촌	0.3	4.3	95.5	100.0 (588,395)	2.95
가족유형	양부모	0.9	4.6	94.5	100.0 (8,489,463)	2.94
	한부모·조손	4.0	24.5	71.5	100.0 (998,395)	2.68

〈표 5-10〉 경제적 어려움: 균형잡힌 식사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평균
전체		2.0	7.3	90.7	100.0 (9,603,244)	2.89
아동 성별	남자	2.3	6.6	91.1	100.0 (5,028,609)	2.89
	여자	1.6	8.2	90.2	100.0 (4,574,635)	2.89
연령	0-2세	1.0	3.9	95.2	100.0 (1,396,842)	2.94
	3-5세	2.8	4.6	92.6	100.0 (1,401,454)	2.90
	6-8세	2.7	8.4	88.8	100.0 (1,348,298)	2.86
	9-11세	2.8	7.6	89.6	100.0 (1,545,700)	2.87
	12-17세	1.4	9.1	89.5	100.0 (3,910,950)	2.88
소득수준1	빈곤	8.8	37.8	53.4	100.0 (372,569)	2.45
	일반	1.7	6.1	92.2	100.0 (9,230,675)	2.91
소득수준2	기초수급	9.5	40.8	49.7	100.0 (244,958)	2.40
	차상위	7.4	32.1	60.4	100.0 (127,612)	2.53
	일반	1.7	6.1	92.2	100.0 (9,230,675)	2.91
지역	대도시	2.5	7.1	90.5	100.0 (4,191,749)	2.88
	중소도시	1.7	7.9	90.4	100.0 (4,823,078)	2.89
	농어촌	0.2	4.8	95.0	100.0 (588,417)	2.95
가족유형	양부모	1.7	5.1	93.3	100.0 (8,512,021)	2.92
	한부모·조손	4.4	27.5	68.1	100.0 (998,910)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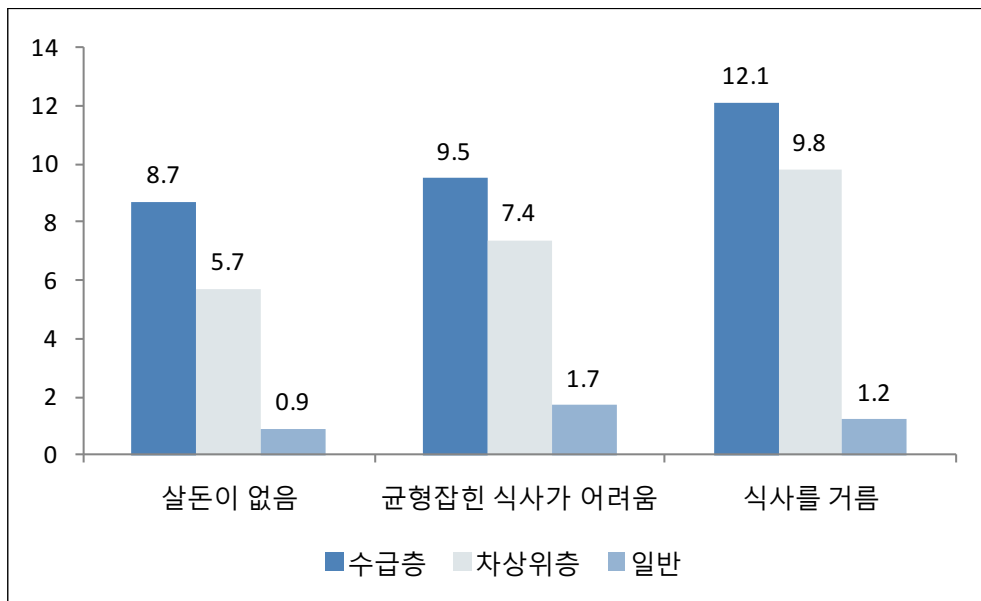
〈표 5-11〉은 식품빈곤 때문에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1.6%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기초수급가구의 경우는 12.1%, 그리고 차상위가구는 9.8%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저소득층의 식품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1〉 경제적 어려움: 식사를 거름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명)
전체		1.6	98.4	100.0 (9,525,268)
아동 성별	남자	1.5	98.5	100.0 (4,987,170)
	여자	1.6	98.4	100.0 (4,538,098)
연령	0-2세	1.3	98.7	100.0 (1,367,684)
	3-5세	1.6	98.4	100.0 (1,396,173)
	6-8세	1.1	98.9	100.0 (1,355,858)
	9-11세	2.4	97.6	100.0 (1,528,353)
	12-17세	1.5	98.5	100.0 (3,877,200)
소득수준1	빈곤	11.3	88.7	100.0 (366,888)
	일반	1.2	98.8	100.0 (9,158,380)
소득수준2	기초수급	12.1	87.9	100.0 (239,877)
	차상위	9.8	90.2	100.0 (127,011)
	일반	1.2	98.8	100.0 (9,158,380)
지역	대도시	1.8	98.2	100.0 (4,170,848)
	중소도시	1.5	98.5	100.0 (4,774,079)
	농어촌	0.3	99.7	100.0 (580,341)
가족유형	양부모	0.8	99.2	100.0 (8,432,209)
	한부모·조손	7.9	92.1	100.0 (1,000,745)

〔그림 5-1〕 계층별 식품미보장 실태



6. 가족관계(가족기능)

가족관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 척도를 통해 측정됐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나타낸다.

〈표 5-12〉 가족관계 문항 내용

구분	문항내용
가족관계	결정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참여 시킨다
	각자의 제안을 들어주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모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각자의 능력껏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서로 이야기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가족 결정에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간의 사랑이 줄지는 않는다
	부모들은 모든 결정을 하기 전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

〈표 5-13〉은 가족관계 척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약 28점으로 ‘그렇다’ 정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별로 가족관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가족관계(가족기능)

(단위: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27.89	4.98	9,678,277
아동 성별	남자	27.85	4.74	5,049,157
	여자	27.94	5.22	4,629,120
연령	0-2세	25.65	6.76	1,407,369
	3-5세	27.71	5.15	1,407,945
	6-8세	28.29	4.83	1,357,821
	9-11세	28.45	4.60	1,546,503
	12-17세	28.40	4.05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5.96	5.36	376,738
	일반	27.97	4.95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25.95	5.26	247,664
	차상위	25.96	5.55	129,073
	일반	27.97	4.95	9,301,539
지역	대도시	28.16	5.03	4,218,761
	중소도시	27.67	4.97	4,869,141
	농어촌	27.77	4.53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27.96	4.99	8,565,684
	한부모·조손	26.98	4.85	1,012,991

7.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항목을 사용하였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낸다.

〈표 5-14〉 양육스트레스 문항 내용

구분	문항내용
양육스트레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내가 우리 △△(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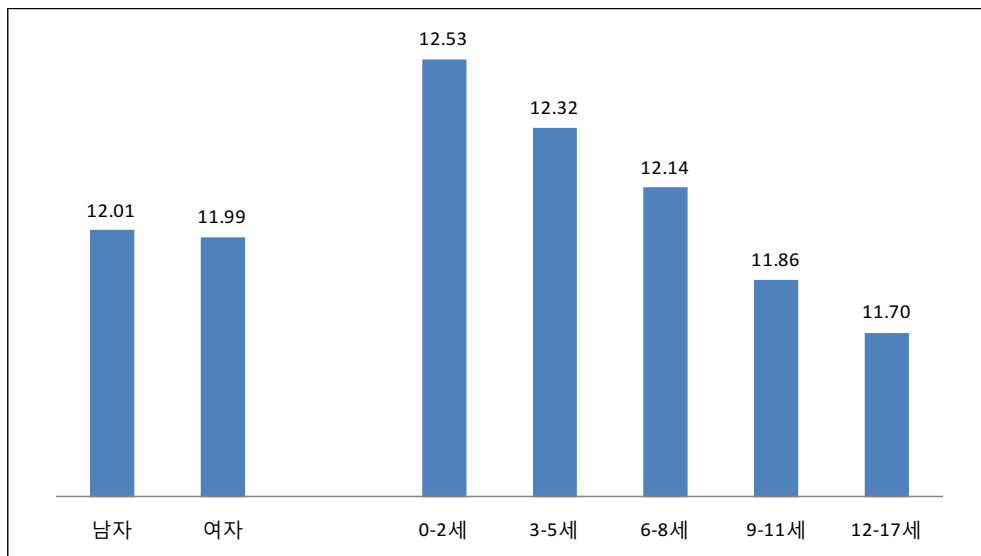
〈표 5-15〉는 자녀에 대한 태도 척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약 12점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별로 자녀에 대한 태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았다.

〈표 5-15〉 양육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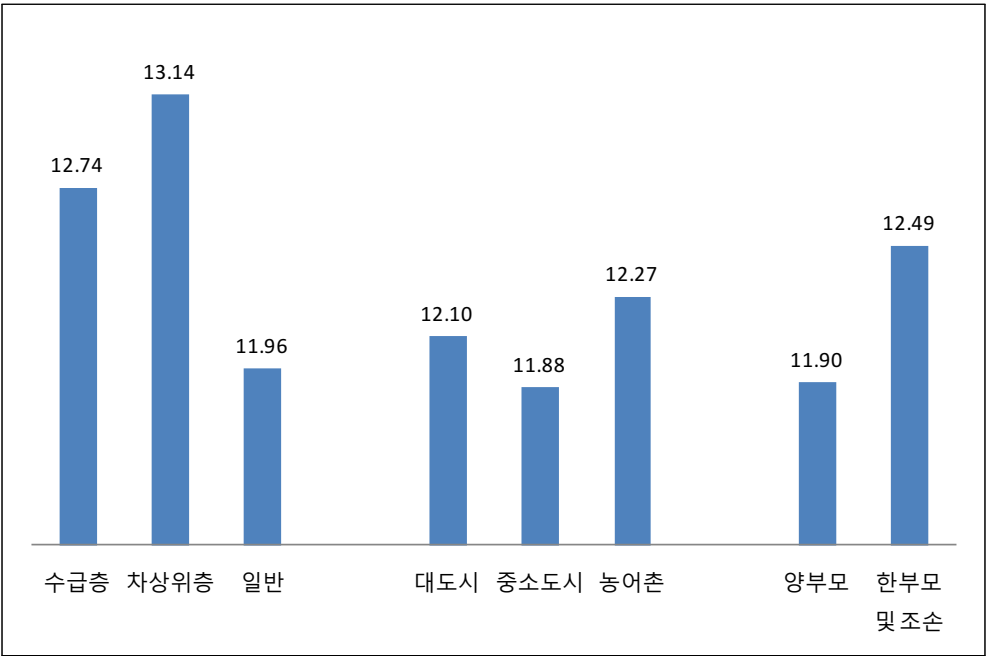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12.00	4.37	9,678,277
아동 성별	남자	12.01	4.37	5,049,157
	여자	11.99	4.37	4,629,120
연령	0-2세	12.53	4.40	1,407,369
	3-5세	12.32	4.33	1,407,945
	6-8세	12.14	4.55	1,357,821
	9-11세	11.86	4.44	1,546,503
	12-17세	11.70	4.26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12.88	4.27	376,738
	일반	11.96	4.37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12.75	4.27	247,664
	차상위	13.14	4.27	129,073
	일반	11.96	4.37	9,301,539
지역	대도시	12.10	4.21	4,218,761
	중소도시	11.88	4.46	4,869,141
	농어촌	12.27	4.73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11.90	4.37	8,565,684
	한부모·조손	12.49	4.16	1,012,991

〔그림 5-2〕 아동의 성별 및 연령대별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그림 5-3] 소득수준, 지역, 가족유형별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8.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

〈표 5-16〉과 〈표 5-17〉은 아동의 주양육자와 그 배우자가 0-8세 자녀들과 놀아주는 정도를 보여준다. 약 58%의 응답자 본인과 약 23%의 배우자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자녀와 놀아준다고 응답했다.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아동이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어촌일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본인)

(단위: %, 명)

구분		전혀 놀아주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없음	계 (명)
전체		1.2	4.5	14.9	21.7	57.5	0.3	100.0 (4,156,432)
아동 성별	남자	1.7	5.1	14.5	23.5	54.8	0.3	100.0 (2,138,946)
	여자	0.7	3.8	15.2	19.9	60.2	0.2	100.0 (2,017,486)
연령	0-2세	1.0	1.9	5.7	12.7	78.3	0.5	100.0 (1,402,562)
	3-5세	1.6	2.9	17.4	21.3	56.4	0.4	100.0 (1,407,945)
	6-8세	1.1	8.8	21.7	31.6	36.8	0.0	100.0 (1,345,925)
소득수준 ¹	빈곤	3.2	10.4	18.8	24.7	42.3	0.7	100.0 (2,138,946)
	일반	1.2	4.3	14.7	21.6	57.9	0.3	100.0 (2,017,486)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3.7	11.1	20.6	21.8	42.2	0.5	100.0 (53,174)
	차상위	2.6	9.6	17.0	27.5	42.4	0.8	100.0 (54,343)
	일반	1.2	4.3	14.7	21.6	57.9	0.3	100.0 (4,048,916)
지역	대도시	0.6	4.3	15.6	22.6	56.6	0.2	100.0 (1,810,828)
	중소도시	1.7	4.7	15.0	20.4	57.8	0.4	100.0 (2,095,567)
	농어촌	0.9	3.4	8.1	26.4	61.1	0.0	100.0 (250,037)
가족유형	양부모	1.2	4.4	14.7	21.2	58.2	0.3	100.0 (3,868,077)
	한부모·조손	1.4	4.8	16.9	27.2	49.7	0.1	100.0 (241,404)

〈표 5-17〉 자녀와 놀아주는 정도(배우자)

(단위: %, 명)

구분		전혀 놀아주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없음	계 (명)
전체		2.8	22.7	27.0	20.6	23.3	3.6	100.0 (4,146,926)
아동 성별	남자	3.6	21.9	30.1	21.6	19.1	3.7	100.0 (2,134,633)
	여자	2.0	23.7	23.7	19.6	27.6	3.4	100.0 (2,012,294)
연령	0~2세	2.1	17.7	26.4	20.8	28.9	4.1	100.0 (1,397,318)
	3~5세	3.5	23.6	25.4	20.8	23.9	2.8	100.0 (1,406,791)
	6~8세	2.8	27.1	29.3	20.3	16.7	3.8	100.0 (1,342,817)
소득수준1	빈곤	4.4	10.5	17.9	11.3	19.4	36.5	100.0 (105,268)
	일반	2.7	23.1	27.3	20.9	23.4	2.7	100.0 (4,041,659)
소득수준2	기초수급	5.5	10.6	11.7	9.4	14.6	48.2	100.0 (52,078)
	차상위	3.3	10.5	23.9	13.2	24.1	25.0	100.0 (53,190)
	일반	2.7	23.1	27.3	20.9	23.4	2.7	100.0 (4,041,659)
지역	대도시	1.7	20.2	29.5	22.1	22.2	4.3	100.0 (1,809,338)
	중소도시	3.8	26.2	25.2	17.8	24.2	2.8	100.0 (2,088,061)
	농어촌	1.9	12.5	24.3	34.1	22.6	4.5	100.0 (249,528)
가족유형	양부모	2.9	23.2	27.9	21.4	23.7	0.9	100.0 (3,862,825)
	한부모·조손	0.5	15.0	13.3	7.8	16.1	47.3	100.0 (237,150)

9. 자녀 훈육방법

우리나라 주양육자의 상당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를 살펴보면, 전체 주양육자의 35%가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신체적 처벌의 필요성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6-11세 아동의 주양육자가 신체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 신체적 처벌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체적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르겠음	계 (명)
전체		35.0	56.8	8.2	100.0 (9,678,277)
아동 성별	남자	35.1	58.3	6.6	100.0 (5,049,157)
	여자	34.9	55.1	10.0	100.0 (4,629,120)
연령	0-2세	31.4	61.1	7.5	100.0 (1,407,369)
	3-5세	33.4	59.5	7.1	100.0 (1,407,945)
	6-8세	39.5	54.0	6.4	100.0 (1,357,821)
	9-11세	40.4	52.4	7.2	100.0 (1,546,503)
	12-17세	33.2	56.9	9.8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34.5	53.1	12.5	100.0 (376,738)
	일반	35.0	56.9	8.0	100.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35.3	51.7	13.0	100.0 (247,664)
	차상위	32.8	55.8	11.4	100.0 (129,073)
	일반	35.0	56.9	8.0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33.8	56.0	10.2	100.0 (4,218,761)
	중소도시	35.2	58.3	6.6	100.0 (4,869,141)
	농어촌	42.3	50.5	7.2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4.9	57.4	7.6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34.9	53.4	11.7	100.0 (1,012,991)

〈표 5-19〉에서 〈표 5-23〉는 주양육자가 3-17세 자녀를 훈육할 때 쓰는 방법의 빈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들에서 볼 수 있듯이, 말로 야단치거나 ‘칭찬이나 보상’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방법의 평균은 3에 가까워, 모두 자주 사용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장난감이나 게임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벌세우기, 신체적 처벌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처벌이 가장 덜 사용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훈육방법은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훈육방법 (신체적 처벌)

(단위: %, 명)

구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계 (명)	평균 (SD)
전체		59.6	36.0	4.2	0.1	100.0 (8,252,320)	1.45 (0.58)
아동 성별	남자	58.3	37.0	4.5	0.3	100.0 (4,310,004)	1.47 (0.60)
	여자	61.1	34.9	4.0	0.0	100.0 (3,942,317)	1.43 (0.57)
연령	3-5세	60.5	34.2	4.9	0.5	100.0 (1,404,314)	1.45 (0.61)
	6-8세	52.7	42.4	4.9	0.0	100.0 (1,404,314)	1.52 (0.59)
	9-11세	55.7	40.7	3.6	0.0	100.0 (1,357,821)	1.48 (0.57)
	12-17세	63.3	32.6	4.0	0.1	100.0 (1,544,001)	1.41 (0.57)
소득수준1	빈곤	61.0	35.3	3.7	0.0	100.0 (351,332)	1.43 (0.57)
	일반	59.6	36.0	4.3	0.1	100.0 (7,900,988)	1.45 (0.58)
소득수준2	기초수급	61.7	33.8	4.5	0.1	100.0 (3,946,185)	1.43 (0.58)
	차상위	59.7	38.3	2.0	0.0	100.0 (235,608)	1.42 (0.53)
	일반	59.6	36.0	4.3	0.1	100.0 (115,724)	1.45 (0.58)
지역	대도시	60.9	34.0	5.2	0.0	100.0 (7,900,988)	1.44 (0.59)
	중소도시	58.9	37.3	3.5	0.3	100.0 (3,574,926)	1.45 (0.58)
	농어촌	57.2	38.7	4.1	0.0	100.0 (4,172,433)	1.47 (0.58)
가족유형	양부모	59.9	36.1	3.8	0.2	100.0 (504,962)	1.44 (0.58)
	한부모·조손	57.3	35.8	6.9	0.0	100.0 (7,216,590)	1.50 (0.62)

〈표 5-20〉 훈육방법 (벌세우기)

(단위: %, 명)

구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계 (명)	평균 (SD)
전체		51.9	36.9	11.0	0.2	100.0 (8,246,588)	1.60 (0.69)
아동 성별	남자	51.5	35.9	12.3	0.3	100.0 (4,310,004)	1.61 (0.72)
	여자	52.3	38.1	9.6	0.1	100.0 (3,936,584)	1.57 (0.66)
연령	3-5세	47.3	37.7	15.0	0.1	100.0 (1,404,314)	1.68 (0.72)
	6-8세	35.0	51.3	12.8	0.9	100.0 (1,357,821)	1.80 (0.69)
	9-11세	48.4	40.2	11.4	0.0	100.0 (1,538,268)	1.63 (0.68)
	12-17세	60.7	30.5	8.8	0.1	100.0 (3,946,185)	1.48 (0.66)
소득수준1	빈곤	57.5	33.4	9.0	0.1	100.0 (351,332)	1.52 (0.66)
	일반	51.6	37.1	11.1	0.2	100.0 (7,895,256)	1.60 (0.69)
소득수준2	기초수급	58.5	30.8	10.5	0.2	100.0 (235,608)	1.52 (0.69)
	차상위	55.4	38.6	5.9	0.0	100.0 (115,724)	1.51 (0.61)
	일반	51.6	37.1	11.1	0.2	100.0 (7,895,256)	1.60 (0.69)
지역	대도시	53.9	37.1	8.9	0.2	100.0 (3,569,193)	1.55 (0.66)
	중소도시	51.1	36.5	12.2	0.2	100.0 (4,172,433)	1.62 (0.70)
	농어촌	44.0	39.7	16.3	0.0	100.0 (504,962)	1.72 (0.73)
가족유형	양부모	50.7	37.6	11.4	0.2	100.0 (7,210,857)	1.61 (0.69)
	한부모·조손	59.1	32.7	8.0	0.2	100.0 (947,932)	1.49 (0.65)

〈표 5-21〉 훈육방법 (말로 야단치기)

(단위: %, 명)

구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계 (명)	평균 (SD)
전체		11.9	22.3	56.7	9.0	100.0 (8,250,582)	2.63 (0.81)
아동 성별	남자	11.3	22.1	57.6	9.0	100.0 (4,308,311)	2.64 (0.80)
	여자	12.5	22.5	55.8	9.1	100.0 (3,942,270)	2.61 (0.82)
연령	3-5세	13.2	25.8	54.8	6.2	100.0 (1,404,314)	2.54 (0.80)
	6-8세	10.5	21.9	55.9	11.7	100.0 (1,357,774)	2.69 (0.81)
	9-11세	10.0	20.0	60.0	10.0	100.0 (1,544,001)	2.70 (0.78)
	12-17세	12.6	22.1	56.5	8.8	100.0 (3,944,492)	2.61 (0.82)
소득수준1	빈곤	12.3	25.2	56.9	5.7	100.0 (351,286)	2.56 (0.78)
	일반	11.9	22.2	56.7	9.2	100.0 (7,899,296)	2.63 (0.81)
소득수준2	기초수급	12.5	25.9	54.4	7.3	100.0 (235,562)	2.57 (0.80)
	차상위	12.0	23.7	61.9	2.4	100.0 (115,724)	2.55 (0.73)
	일반	11.9	22.2	56.7	9.2	100.0 (7,899,296)	2.63 (0.81)
지역	대도시	15.3	23.5	55.1	6.2	100.0 (3,574,926)	2.52 (0.82)
	중소도시	9.4	20.8	58.4	11.4	100.0 (4,170,740)	2.72 (0.79)
	농어촌	8.8	27.3	54.8	9.1	100.0 (504,915)	2.64 (0.77)
가족유형	양부모	11.9	21.9	56.5	9.7	100.0 (7,214,898)	2.64 (0.81)
	한부모·조손	11.1	24.9	59.5	4.5	100.0 (947,885)	2.57 (0.75)

〈표 5-22〉 훈육방법 (장난감이나 게임기 사용제한)

(단위: %, 명)

구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계 (명)	평균 (SD)
전체		32.3	30.0	35.1	2.6	100.0 (8,225,693)	2.08 (0.88)
아동 성별	남자	30.0	29.9	36.9	3.2	100.0 (4,294,710)	2.13 (0.88)
	여자	34.8	30.2	33.1	1.9	100.0 (3,930,983)	2.02 (0.87)
연령	3-5세	26.3	34.3	37.9	1.5	100.0 (1,403,048)	2.15 (0.82)
	6-8세	24.0	29.6	42.2	4.2	100.0 (1,357,821)	2.26 (0.87)
	9-11세	26.1	28.7	42.8	2.4	100.0 (1,532,916)	2.21 (0.86)
	12-17세	39.7	29.2	28.6	2.5	100.0 (3,931,908)	1.94 (0.88)
소득수준1	빈곤	36.8	33.0	26.7	3.4	100.0 (350,787)	1.97 (0.88)
	일반	32.1	29.9	35.5	2.5	100.0 (7,874,906)	2.08 (0.88)
소득수준2	기초수급	38.7	31.3	26.5	3.5	100.0 (235,062)	1.95 (0.89)
	차상위	33.2	36.6	27.0	3.3	100.0 (115,724)	2.00 (0.86)
	일반	32.1	29.9	35.5	2.5	100.0 (7,874,906)	2.08 (0.88)
지역	대도시	34.8	28.3	34.4	2.5	100.0 (3,559,294)	2.05 (0.89)
	중소도시	30.6	30.6	35.9	2.8	100.0 (4,161,480)	2.11 (0.87)
	농어촌	28.7	37.1	33.1	1.0	100.0 (504,919)	2.06 (0.81)
가족유형	양부모	31.6	29.5	36.3	2.6	100.0 (7,194,842)	2.10 (0.88)
	한부모·조손	37.1	35.4	26.0	1.5	100.0 (943,052)	1.92 (0.83)

〈표 5-23〉 훈육방법 (칭찬과 보상 사용)

(단위: %, 명)

구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한다	매우 자주 사용한다	계 (명)	평균 (SD)
전체		13.8	21.1	51.3	13.8	100.0 (8,246,794)	2.65 (0.88)
아동 성별	남자	13.4	21.2	53.3	12.2	100.0 (4,310,004)	2.64 (0.86)
	여자	14.2	21.1	49.2	15.5	100.0 (3,936,790)	2.66 (0.90)
연령	3-5세	8.8	14.8	50.5	25.9	100.0 (1,404,314)	2.93 (0.87)
	6-8세	10.8	15.2	56.8	17.1	100.0 (1,352,294)	2.80 (0.85)
	9-11세	11.9	18.1	55.0	15.0	100.0 (1,544,001)	2.73 (0.86)
	12-17세	17.3	26.6	48.3	7.8	100.0 (3,946,185)	2.47 (0.87)
소득수준1	빈곤	17.2	29.1	45.0	8.6	100.0 (351,108)	2.45 (0.87)
	일반	13.6	20.8	51.6	14.0	100.0 (7,895,686)	2.66 (0.88)
소득수준2	기초수급	18.5	28.6	44.1	8.9	100.0 (235,608)	2.43 (0.89)
	차상위	14.6	30.2	47.1	8.1	100.0 (115,500)	2.49 (0.84)
	일반	13.6	20.8	51.6	14.0	100.0 (7,895,686)	2.66 (0.88)
지역	대도시	16.0	18.0	52.6	13.4	100.0 (3,574,702)	2.63 (0.91)
	중소도시	11.8	22.3	50.8	15.1	100.0 (4,167,130)	2.69 (0.87)
	농어촌	14.6	33.4	46.8	5.2	100.0 (504,962)	2.43 (0.80)
가족유형	양부모	13.0	21.0	51.5	14.5	100.0 (7,211,064)	2.67 (0.88)
	한부모·조손	19.3	23.7	48.6	8.4	100.0 (947,932)	2.46 (0.90)

10. 자녀 용돈

6-17세 자녀를 가진 주양육자의 약 2/3(67%)가 용돈을 주는 것을 나타냈다(표 5-24 참조).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용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표 5-24〉 용돈 여부 및 액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평균 (SD)
전체		67.3	32.7	100.0 (6,802,522)	33.12 (28.79)
아동 성별	남자	67.5	32.5	100.0 (3,521,300)	32.31 (23.18)
	여자	67.0	33.0	100.0 (3,281,221)	33.98 (33.82)
연령	6-8세	27.1	72.9	100.0 (1,346,044)	12.46 (9.85)
	9-11세	66.0	34.0	100.0 (1,531,899)	21.41 (14.39)
	12-17세	81.5	18.5	100.0 (3,924,579)	39.18 (31.30)
소득수준1	빈곤	65.6	34.4	100.0 (302,770)	33.17 (25.46)
	일반	67.3	32.7	100.0 (6,499,751)	33.11 (28.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63.2	36.8	100.0 (217,832)	30.72 (24.66)
	차상위	71.8	28.2	100.0 (84,938)	38.81 (26.36)
	일반	67.3	32.7	100.0 (6,499,751)	33.11 (28.93)
지역	대도시	64.6	35.4	100.0 (2,971,760)	34.06 (29.35)
	중소도시	70.7	29.3	100.0 (3,401,773)	31.88 (24.21)
	농어촌	58.7	41.3	100.0 (428,988)	37.75 (53.46)
가족유형	양부모	66.6	33.4	100.0 (5,859,174)	33.37 (29.70)
	한부모-조손	72.5	27.5	100.0 (867,972)	32.17 (23.19)

11. 주양육자의 아동 양육행동(6-17세 아동)

6-17세 아동을 둔 주양육자의 아동 양육행동은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아동 양육태도 척도를 통해 측정됐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아동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표 5-25〉 주양육자의 아동 양육행동 문항 내용

구분	문항 내용
주양육자의 아동 양육행동	△△(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한다
	△△(이)와 얘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이)와 얘기할 때 △△(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이)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 준다
	△△(이)가 집에서 학교 숙제를 할 때,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준다

〈표 5-26〉은 아동 양육행동 척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약 25점으로 ‘그런 편이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행동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별로 아동 양육행동 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주양육자의 아동 양육행동

(단위: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24.94	3.52	9,678,277
아동 성별	남자	24.75	3.49	5,049,157
	여자	25.14	3.54	4,629,120
연령	6-8세	25.99	3.81	1,357,821
	9-11세	25.63	3.19	1,546,503
	12-17세	24.31	3.4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3.90	3.76	376,738
	일반	24.99	3.5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23.92	3.75	247,664
	차상위	23.84	3.78	129,073
	일반	24.99	3.50	9,301,539
지역	대도시	25.04	3.30	4,218,761
	중소도시	24.95	3.73	4,869,141
	농어촌	24.12	3.18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25.06	3.49	8,565,684
	한부모·조손	24.23	3.51	1,012,991

12. 주양육자(부모) 교육참여 행동(6-17세)

주양육자(부모)가 아동의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 교육참여 행동 척도를 통해 측정됐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참여하고 있을 경우 1점('예')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 0점('아니오')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교육에 대한 활발한 참여행동을 나타낸다.

〈표 5-27〉 주양육자(부모)의 교육참여 행동 문항 내용

구분	문항 내용
주양육자(부모) 의 교육참여 행동	△△(이)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얘기한다
	나는(혹은 배우자) △△(이)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다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
	△△(이)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이)의 알림장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표 5-28〉은 주양육자(부모) 교육참여 행동 척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3.4점으로 5개 행동 중 약 2/3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의 경우 부모의 참여 정도가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나타났는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평균은 2.3에 머물러, 일반가구의 3.5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표 5-28〉 주양육자(부모) 교육참여 행동

(단위: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3.45	1.63	9,678,277
아동 성별	남자	3.47	1.63	5,049,157
	여자	3.43	1.63	4,629,120
연령	6-8세	4.13	1.36	1,357,821
	9-11세	3.82	1.36	1,546,503
	12-17세	3.07	1.7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34	1.70	376,738
	일반	3.50	1.61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2.34	1.68	247,664
	차상위	2.34	1.76	129,073
	일반	3.50	1.61	9,301,539
지역	대도시	3.66	1.64	4,218,761
	중소도시	3.27	1.60	4,869,141
	농어촌	3.40	1.66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54	1.58	8,565,684
	한부모·조손	2.78	1.79	1,012,991

13. 미디어 노출

〈표 5-29〉에서 〈표 5-34〉는 TV/비디오 시청, 독서, 인터넷 등의 미디어 사용 정도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5-29〉, 〈표 5-30〉은 TV/비디오 시청 시간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1-3시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중: 50.4%; 주말: 50.3%). 주말에는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3-5시간 시청의 경우가 주중에는 4.3%였으나 주말에는 18.1%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9〉 TV/비디오 시청 (주중)

(단위: %, 명)

구분		시청/사용 안함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전체		10.8	33.8	50.4	4.3	0.8	100.0 (9,657,185)
아동 성별	남자	11.1	34.1	49.6	4.2	1.1	100.0 (5,032,480)
	여자	10.4	33.4	51.2	4.4	0.6	100.0 (4,624,705)
연령	0-2세	22.4	33.3	41.5	2.0	0.9	100.0 (1,396,123)
	3-5세	3.5	35.7	54.2	5.7	0.9	100.0 (1,407,663)
	6-8세	3.9	32.9	57.0	5.5	0.7	100.0 (1,348,377)
	9-11세	8.6	26.4	58.6	5.0	1.3	100.0 (1,546,454)
	12-17세	12.4	36.4	46.6	3.9	0.7	100.0 (3,958,568)
소득수준1	빈곤	12.6	34.4	44.3	6.8	1.9	100.0 (376,051)
	일반	10.7	33.7	50.6	4.2	0.8	100.0 (9,281,134)
소득수준2	기초수급	11.2	33.6	44.5	8.3	2.4	100.0 (247,240)
	차상위	15.1	36.0	44.1	3.7	1.1	100.0 (128,811)
	일반	10.7	33.7	50.6	4.2	0.8	100.0 (9,281,134)
지역	대도시	10.5	33.4	51.6	3.7	0.7	100.0 (4,203,662)
	중소도시	11.3	34.3	48.5	4.9	0.9	100.0 (4,863,315)
	농어촌	7.9	31.7	56.6	2.8	0.9	100.0 (590,208)
가족유형	양부모	10.5	34.5	50.3	4.0	0.8	100.0 (8,550,780)
	한부모·조손	13.7	28.0	49.6	7.2	1.6	100.0 (1,012,367)

〈표 5-30〉 TV/비디오 시청 (주말)

(단위: %, 명)

구분		시청/사용 안함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전체		6.5	21.7	50.3	18.1	3.5	100.0 (9,660,303)
아동 성별	남자	6.1	22.3	52.6	15.8	3.2	100.0 (5,031,899)
	여자	6.8	21.0	47.8	20.5	3.8	100.0 (4,628,403)
연령	0~2세	19.8	33.9	40.9	3.9	1.5	100.0 (1,396,123)
	3~5세	5.2	24.4	53.1	15.4	1.9	100.0 (1,406,969)
	6~8세	1.5	16.7	57.3	21.5	2.9	100.0 (1,352,258)
	9~11세	3.3	13.4	48.9	30.9	3.5	100.0 (1,546,503)
	12~17세	5.1	21.3	50.8	17.8	5.0	100.0 (3,958,449)
소득수준1	빈곤	8.8	22.9	44.5	16.8	6.9	100.0 (375,820)
	일반	6.4	21.6	50.5	18.1	3.4	100.0 (9,284,483)
소득수준2	기초수급	8.0	22.5	43.3	17.8	8.3	100.0 (247,009)
	차상위	10.3	23.6	46.8	15.0	4.3	100.0 (128,811)
	일반	6.4	21.6	50.5	18.1	3.4	100.0 (9,284,483)
지역	대도시	5.6	24.8	51.6	15.8	2.3	100.0 (4,207,544)
	중소도시	7.2	19.6	48.6	19.8	4.8	100.0 (4,863,034)
	농어촌	6.6	16.3	55.2	19.8	2.1	100.0 (589,724)
가족유형	양부모	6.7	21.5	50.7	17.8	3.3	100.0 (8,553,895)
	한부모·조손	5.3	22.9	46.0	20.3	5.5	100.0 (1,012,369)

TV/비디오 시청 시간보다 독서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1〉, 〈표 5-32〉).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독서 시간은 하루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중: 56.9%, 주말: 56.1%). 독서의 경우는 주중과 주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은 주중에는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43.9%), 주말에는 1-3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1.9%).

〈표 5-31〉 독서 (주중)

(단위: %, 명)

구분		시청/사용 안함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전체		22.1	56.9	18.0	2.0	1.0	100.0 (8,243,217)
아동 성별	남자	23.0	57.1	17.1	1.9	1.0	100.0 (4,302,945)
	여자	21.2	56.7	19.1	2.0	1.0	100.0 (3,940,271)
연령	3-5세	11.1	63.9	22.2	1.7	1.1	100.0 (1,396,371)
	6-8세	4.0	67.9	24.6	2.7	0.8	100.0 (1,349,061)
	9-11세	16.4	58.5	20.9	3.0	1.1	100.0 (1,546,333)
	12-17세	34.4	50.0	13.1	1.4	1.0	100.0 (3,951,451)
소득수준1	빈곤	32.2	47.6	16.4	3.2	0.6	100.0 (349,296)
	일반	21.7	57.3	18.1	1.9	1.0	100.0 (7,893,921)
소득수준2	기초수급	33.0	48.9	15.4	2.0	0.7	100.0 (233,879)
	차상위	30.6	45.0	18.4	5.6	0.4	100.0 (115,417)
	일반	21.7	57.3	18.1	1.9	1.0	100.0 (7,893,921)
지역	대도시	21.5	56.1	18.6	2.6	1.2	100.0 (3,572,978)
	중소도시	23.0	56.1	18.4	1.7	0.9	100.0 (4,162,772)
	농어촌	19.6	68.7	10.9	0.4	0.5	100.0 (507,467)
가족유형	양부모	21.2	57.5	18.4	1.9	0.9	100.0 (7,217,117)
	한부모·조손	29.3	50.4	16.0	2.7	1.5	100.0 (943,864)

〈표 5-32〉 독서 (주말)

(단위: %, 명)

구분		시청/사용 안함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전체		21.4	56.1	19.7	2.5	0.4	100.0 (8,239,417)
아동 성별	남자	23.1	56.5	18.3	1.9	0.2	100.0 (4,298,745)
	여자	19.5	55.6	21.2	3.0	0.7	100.0 (3,940,672)
연령	3~5세	14.2	60.1	24.2	1.1	0.4	100.0 (1,397,672)
	6~8세	8.9	59.7	26.9	4.1	0.3	100.0 (1,349,061)
	9~11세	20.1	54.7	21.4	3.0	0.8	100.0 (1,540,768)
	12~17세	28.7	54.0	14.9	2.1	0.3	100.0 (3,951,916)
소득수준1	빈곤	32.8	44.9	18.0	3.5	0.9	100.0 (349,696)
	일반	20.9	56.6	19.8	2.4	0.4	100.0 (7,889,721)
소득수준2	기초수급	32.0	47.8	17.2	2.3	0.7	100.0 (234,280)
	차상위	34.5	38.9	19.6	5.9	1.2	100.0 (115,417)
	일반	20.9	56.6	19.8	2.4	0.4	100.0 (7,889,721)
지역	대도시	21.1	57.1	18.4	2.8	0.6	100.0 (3,569,775)
	중소도시	21.9	53.8	21.6	2.4	0.2	100.0 (4,162,658)
	농어촌	18.5	67.4	12.8	0.7	0.5	100.0 (506,984)
가족유형	양부모	20.4	57.1	19.9	2.2	0.4	100.0 (7,218,883)
	한부모·조손	29.2	47.3	18.9	4.4	0.2	100.0 (938,298)

〈표 5-33〉 인터넷 사용 (주중)

(단위: %, 명)

구분		시청/사용 안함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전체		20.9	43.9	31.5	3.1	0.6	100.0 (6,838,931)
아동 성별	남자	19.1	42.7	33.8	3.5	0.9	100.0 (3,537,715)
	여자	22.7	45.2	29.0	2.8	0.3	100.0 (3,301,216)
연령	6~8세	34.1	46.6	18.0	1.2	0.0	100.0 (1,346,425)
	9~11세	18.6	43.5	33.7	3.8	0.3	100.0 (1,545,707)
	12~17세	17.2	43.2	35.2	3.5	0.9	100.0 (3,946,799)
소득수준1	빈곤	17.0	39.5	36.5	5.6	1.4	100.0 (302,479)
	일반	21.0	44.1	31.3	3.0	0.6	100.0 (6,536,452)
소득수준2	기초수급	17.0	39.0	37.1	4.9	2.0	100.0 (217,541)
	차상위	17.1	40.7	34.7	7.5	0.0	100.0 (84,938)
	일반	21.0	44.1	31.3	3.0	0.6	100.0 (6,536,452)
지역	대도시	18.8	44.9	31.8	4.0	0.4	100.0 (2,994,457)
	중소도시	23.3	42.6	30.7	2.6	0.8	100.0 (3,413,644)
	농어촌	15.5	47.4	35.8	1.2	0.1	100.0 (430,830)
가족유형	양부모	21.0	44.5	31.0	3.1	0.4	100.0 (5,904,295)
	한부모·조손	21.2	37.8	35.6	3.8	1.6	100.0 (864,823)

〈표 5-34〉 인터넷 사용 (주말)

(단위: %, 명)

구분		시청/사용 안함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명)
전체		13.4	32.7	41.9	10.1	1.9	100.0 (6,842,246)
아동 성별	남자	11.6	29.5	46.0	10.7	2.2	100.0 (3,540,981)
	여자	15.4	36.1	37.4	9.6	1.5	100.0 (3,301,266)
연령	6~8세	27.2	44.9	22.1	5.3	0.4	100.0 (1,346,425)
	9~11세	13.5	32.3	42.2	10.6	1.3	100.0 (1,546,207)
	12~17세	8.7	28.7	48.5	11.6	2.6	100.0 (3,949,614)
소득수준1	빈곤	13.1	30.0	43.9	8.4	4.5	100.0 (302,979)
	일반	13.4	32.8	41.8	10.2	1.7	100.0 (6,539,267)
소득수준2	기초수급	13.3	30.3	42.7	8.4	5.4	100.0 (218,040)
	차상위	12.8	29.2	47.1	8.6	2.3	100.0 (84,938)
	일반	13.4	32.8	41.8	10.2	1.7	100.0 (6,539,267)
지역	대도시	12.7	36.9	37.7	11.8	0.9	100.0 (2,998,037)
	중소도시	15.1	29.6	43.7	8.9	2.7	100.0 (3,414,094)
	농어촌	5.1	28.2	55.9	9.1	1.7	100.0 (430,115)
가족유형	양부모	13.7	33.9	40.7	10.2	1.6	100.0 (5,907,561)
	한부모·조손	12.0	23.7	50.6	9.6	4.1	100.0 (864,873)

14. TV 시청과 인터넷 사용 제한

〈표 5-35〉는 아동의 TV/비디오 시청과 인터넷 사용을 주양육자가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0%의 주양육자가 아동의 TV/비디오 시청과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양육자의 TV/비디오 시청과 인터넷 사용 제한 행동에서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특히 TV/비디오 시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약 52%에 머물고 있어, 일반가구의 67.3% 보다는 제한하는 경우가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35〉 매체 제한

(단위: %, 명)

구분		TV/비디오 시청	TV/비디오 프로그램 종류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이트 종류와 내용	명
전체		66.7	69.2	69.1	70.5	9,678,277
아동 성별	남자	68.7	70.0	71.0	70.8	5,049,157
	여자	64.5	68.4	67.1	70.1	4,629,120
연령	0-2세	58.9	61.4	-	-	1,407,369
	3-5세	76.5	77.0	-	-	1,407,945
	6-8세	78.3	81.3	74.0	74.0	1,357,821
	9-11세	74.3	75.8	73.6	75.3	1,546,503
	12-17세	59.0	62.6	65.7	67.4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52.2	58.1	57.4	57.6	376,738
	일반	67.3	69.7	69.7	71.1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52.6	59.4	58.9	59.9	247,664
	차상위	51.5	55.7	53.7	51.7	129,073
	일반	67.3	69.7	69.7	71.1	9,301,539
지역	대도시	67.9	68.3	69.7	71.3	4,218,761
	중소도시	66.0	70.6	68.8	70.1	4,869,141
	농어촌	63.1	65.3	67.3	67.9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68.3	70.8	71.0	72.4	8,565,684
	한부모·조손	54.5	57.6	57.6	57.7	1,012,991

15. 아동과의 여가활동

〈표 5-36〉에서 〈표 5-41〉까지는 주양육자가 아동들과 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빈도를 분석해서 보여준다. 우리나라 주양육자가 아동과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외식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약 65%의 아동이 주양육자와 한 달에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도가 낮은 여가 활동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이었다(약 5.5% 한 달에 한 번 이상).

〈표 5-36〉 여가활동 (운동 및 나들이)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 (명)
전체		8.0	21.1	21.4	33.7	15.9	100.0 (9,648,213)
아동 성별	남자	7.7	20.6	21.6	35.2	14.9	100.0 (5,031,835)
	여자	8.3	21.6	21.1	32.1	16.9	100.0 (4,616,378)
연령	0~2세	9.2	12.6	13.9	33.8	30.6	100.0 (1,399,519)
	3~5세	3.8	13.9	14.0	40.9	27.4	100.0 (1,390,044)
	6~8세	4.1	14.7	18.3	43.5	19.4	100.0 (1,357,578)
	9~11세	2.7	23.5	24.2	37.2	12.3	100.0 (1,546,503)
	12~17세	12.5	27.9	26.5	26.4	6.8	100.0 (3,954,569)
소득수준1	빈곤	30.5	29.0	12.7	18.7	9.1	100.0 (376,021)
	일반	7.1	20.8	21.7	34.3	16.1	100.0 (9,272,192)
소득수준2	기초수급	30.2	28.9	15.3	19.3	6.3	100.0 (246,947)
	차상위	31.0	29.2	7.7	17.6	14.5	100.0 (129,073)
	일반	7.1	20.8	21.7	34.3	16.1	100.0 (9,272,192)
지역	대도시	8.3	22.2	21.0	34.5	14.1	100.0 (4,206,925)
	중소도시	7.8	20.5	20.9	33.3	17.5	100.0 (4,856,219)
	농어촌	8.0	18.0	27.7	31.3	15.0	100.0 (585,068)
가족유형	양부모	6.6	20.0	22.1	34.7	16.6	100.0 (8,536,094)
	한부모-조손	19.4	30.6	16.2	25.2	8.6	100.0 (1,012,517)

〈표 5-37〉 여가활동 (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 (명)
전체		5.5	7.7	21.6	51.7	13.5	100.0 (9,653,834)
아동 성별	남자	4.7	7.6	22.0	54.0	11.7	100.0 (5,033,984)
	여자	6.3	7.7	21.3	49.1	15.6	100.0 (4,619,850)
연령	0~2세	14.8	7.2	21.0	41.8	15.2	100.0 (1,400,827)
	3~5세	3.9	8.4	17.6	53.2	16.9	100.0 (1,390,044)
	6~8세	1.9	9.0	18.0	56.4	14.6	100.0 (1,357,821)
	9~11세	4.1	4.4	19.1	56.0	16.4	100.0 (1,546,503)
	12~17세	4.5	8.4	25.5	51.3	10.3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5.2	24.6	23.1	23.6	3.6	100.0 (376,358)
	일반	4.7	7.0	21.6	52.8	13.9	100.0 (9,277,47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7.0	23.4	23.9	22.8	2.9	100.0 (247,284)
	차상위	21.8	26.8	21.6	25.0	4.9	100.0 (129,073)
	일반	4.7	7.0	21.6	52.8	13.9	100.0 (9,277,476)
지역	대도시	6.4	8.2	22.1	50.3	12.9	100.0 (4,208,847)
	중소도시	4.6	6.9	20.7	52.7	15.0	100.0 (4,856,462)
	농어촌	5.8	9.9	25.8	52.2	6.3	100.0 (588,525)
가족유형	양부모	4.1	6.1	21.8	53.5	14.4	100.0 (8,541,621)
	한부모·조손	16.8	19.8	20.8	35.9	6.7	100.0 (1,012,611)

〈표 5-38〉 여가활동 (쇼핑)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 (명)
전체		9.0	14.8	32.1	36.6	7.5	100.0 (9,647,165)
아동 성별	남자	9.8	16.4	31.3	36.3	6.2	100.0 (5,027,315)
	여자	8.2	13.0	33.0	37.0	8.8	100.0 (4,619,850)
연령	0~2세	15.7	9.2	21.1	41.5	12.4	100.0 (1,400,827)
	3~5세	6.6	10.7	26.5	41.9	14.4	100.0 (1,383,376)
	6~8세	6.2	14.9	27.4	43.0	8.4	100.0 (1,357,821)
	9~11세	5.6	13.2	36.8	38.1	6.4	100.0 (1,546,503)
	12~17세	9.7	18.7	37.8	30.3	3.4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32.8	29.5	21.9	13.4	2.3	100.0 (376,358)
	일반	8.0	14.2	32.6	37.6	7.7	100.0 (9,270,808)
소득수준2	기초수급	33.3	29.0	22.7	13.0	2.0	100.0 (247,284)
	차상위	31.9	30.6	20.4	14.2	3.0	100.0 (129,073)
	일반	8.0	14.2	32.6	37.6	7.7	100.0 (9,270,808)
지역	대도시	9.8	14.5	32.5	34.6	8.6	100.0 (4,208,847)
	중소도시	8.5	13.6	31.3	39.5	7.1	100.0 (4,849,794)
	농어촌	7.5	25.8	36.6	27.6	2.4	100.0 (588,525)
가족유형	양부모	7.3	14.0	32.5	38.1	8.2	100.0 (8,534,953)
	한부모·조손	23.2	22.2	29.0	23.5	2.1	100.0 (1,012,611)

〈표 5-39〉 여가활동 (여행)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 (명)
전체		15.5	54.3	22.5	6.5	1.2	100.0 (9,637,273)
아동 성별	남자	15.5	55.1	22.0	6.4	1.0	100.0 (5,017,666)
	여자	15.5	53.5	23.1	6.6	1.4	100.0 (4,619,607)
연령	0~2세	18.1	45.2	26.5	8.0	2.2	100.0 (1,400,827)
	3~5세	9.8	49.5	28.7	9.7	2.2	100.0 (1,384,880)
	6~8세	10.9	53.7	25.8	7.6	2.0	100.0 (1,357,578)
	9~11세	10.5	53.0	28.0	7.5	1.0	100.0 (1,544,949)
	12~17세	20.1	60.0	15.6	4.1	0.2	100.0 (3,949,040)
소득수준1	빈곤	62.1	30.1	5.5	2.1	0.2	100.0 (376,115)
	일반	13.6	55.3	23.2	6.7	1.2	100.0 (9,261,158)
소득수준2	기초수급	63.4	28.2	5.7	2.5	0.2	100.0 (247,042)
	차상위	59.6	33.6	5.3	1.5	0.0	100.0 (129,073)
	일반	13.6	55.3	23.2	6.7	1.2	100.0 (9,261,158)
지역	대도시	14.8	55.7	21.1	6.9	1.4	100.0 (4,195,985)
	중소도시	16.3	52.0	24.3	6.3	1.0	100.0 (4,854,318)
	농어촌	13.7	63.4	17.5	4.6	0.8	100.0 (586,970)
가족유형	양부모	12.0	56.0	24.0	6.8	1.3	100.0 (8,526,962)
	한부모·조손	44.7	42.0	9.7	3.5	0.0	100.0 (1,010,710)

〈표 5-40〉 여가활동 (영화나 공연관람)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 (명)
전체		20.1	42.2	25.9	10.0	1.7	100.0 (8,219,056)
아동 성별	남자	21.4	42.9	25.1	9.3	1.3	100.0 (4,293,389)
	여자	18.7	41.6	26.8	10.7	2.1	100.0 (3,925,667)
연령	3~5세	28.8	39.7	18.7	10.3	2.5	100.0 (1,372,761)
	6~8세	13.5	41.0	33.4	10.6	1.6	100.0 (1,351,848)
	9~11세	12.3	42.1	30.9	12.3	2.4	100.0 (1,546,503)
	12~17세	22.5	43.6	23.9	8.8	1.2	100.0 (3,947,944)
소득수준1	빈곤	54.7	27.6	12.5	4.5	0.7	100.0 (349,991)
	일반	18.6	42.9	26.5	10.2	1.8	100.0 (7,869,066)
소득수준2	기초수급	52.1	29.2	13.2	4.6	0.9	100.0 (234,451)
	차상위	59.9	24.4	11.1	4.3	0.3	100.0 (115,539)
	일반	18.6	42.9	26.5	10.2	1.8	100.0 (7,869,066)
지역	대도시	19.8	39.6	27.5	11.1	2.0	100.0 (3,571,160)
	중소도시	19.6	44.1	25.0	9.7	1.6	100.0 (4,143,479)
	농어촌	26.6	45.9	22.4	4.3	0.8	100.0 (504,418)
가족유형	양부모	17.8	43.3	26.8	10.4	1.8	100.0 (7,183,859)
	한부모-조손	38.3	35.2	17.2	7.9	1.4	100.0 (947,399)

〈표 5-41〉 여가활동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관람)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계 (명)
전체		32.0	46.4	16.1	4.8	0.6	100.0 (8,232,989)
아동 성별	남자	33.2	46.2	14.8	5.1	0.7	100.0 (4,300,126)
	여자	30.7	46.7	17.6	4.6	0.5	100.0 (3,932,863)
연령	3~5세	24.9	43.7	20.2	9.6	1.6	100.0 (1,370,150)
	6~8세	15.2	55.0	22.3	6.4	1.1	100.0 (1,357,821)
	9~11세	20.7	54.8	17.9	6.3	0.4	100.0 (1,546,503)
	12~17세	44.6	41.2	11.9	2.1	0.1	100.0 (3,958,515)
소득수준1	빈곤	70.5	22.5	4.8	1.7	0.5	100.0 (349,866)
	일반	30.3	47.5	16.6	5.0	0.6	100.0 (7,883,123)
소득수준2	기초수급	69.3	23.2	5.1	1.6	0.7	100.0 (234,327)
	차상위	73.1	20.9	4.1	2.0	0.0	100.0 (115,539)
	일반	30.3	47.5	16.6	5.0	0.6	100.0 (7,883,123)
지역	대도시	30.0	46.9	17.0	5.3	0.9	100.0 (3,571,160)
	중소도시	32.7	45.6	16.4	4.8	0.4	100.0 (4,159,382)
	농어촌	40.3	50.0	7.7	1.5	0.5	100.0 (502,448)
가족유형	양부모	28.8	48.3	17.1	5.2	0.6	100.0 (7,197,792)
	한부모·조손	57.4	32.4	8.0	1.6	0.6	100.0 (947,399)

16. 0-5세 아동과의 활동

〈표 5-42〉에서 〈표 5-45〉는 주양육자가 0-5세 아동들과 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유아기의 아동들과 상상놀이, 노래 부르기, 책 읽기, 운동하기 등의 활동을 자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빈도의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평균점수가 상상놀이는 2.8, 노래 불러주기는 3.2, 책 읽어주기는 3.2, 운동하기는 3.1로 나타나 모두 ‘자주 그렇다’ 응답범주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상상놀이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계 (명)	평균 (SD)
전체		8.6	22.0	50.8	18.6	100.0 (2,791,920)	2.79 (0.84)
아동 성별	남자	9.2	24.4	52.6	13.8	100.0 (1,477,864)	2.71 (0.82)
	여자	7.9	19.3	48.9	23.9	100.0 (1,314,056)	2.89 (0.86)
연령	0-2세	12.4	19.5	45.9	22.2	100.0 (1,401,089)	2.78 (0.93)
	3-5세	4.7	24.6	55.8	14.9	100.0 (1,390,831)	2.81 (0.74)
소득수준1	빈곤	15.4	33.3	38.6	12.7	100.0 (72,346)	2.49 (0.90)
	일반	8.4	21.7	51.1	18.7	100.0 (2,719,575)	2.80 (0.84)
소득수준2	기초수급	19.4	33.9	37.2	9.6	100.0 (72,346)	2.37 (0.90)
	차상위	12.8	32.9	39.5	14.8	100.0 (2,719,575)	2.56 (0.89)
	일반	8.4	21.7	51.1	18.7	100.0 (28,727)	2.80 (0.84)
지역	대도시	9.7	21.8	55.6	12.9	100.0 (43,618)	2.72 (0.81)
	중소도시	7.6	22.3	46.7	23.5	100.0 (2,719,575)	2.86 (0.86)
	농어촌	9.4	21.3	51.8	17.4	100.0 (1,205,776)	2.77 (0.84)
가족유형	양부모	8.4	21.2	51.3	19.1	100.0 (1,429,979)	2.81 (0.84)
	한부모-조손	13.0	40.1	39.5	7.5	100.0 (156,165)	2.41 (0.81)

〈표 5-43〉 노래불러주기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계 (명)	평균 (SD)
전체		2.5	11.9	52.7	32.8	100.0 (2,791,920)	3.16 (0.72)
아동 성별	남자	2.3	13.8	54.7	29.2	100.0 (1,477,864)	3.11 (0.72)
	여자	2.7	9.9	50.5	37.0	100.0 (1,314,056)	3.22 (0.73)
연령	0-2세	3.1	5.1	49.7	42.0	100.0 (1,401,089)	3.31 (0.71)
	3-5세	1.9	18.8	55.7	23.6	100.0 (1,390,831)	3.01 (0.71)
소득수준1	빈곤	8.2	29.3	43.4	19.1	100.0 (72,346)	2.73 (0.86)
	일반	2.3	11.5	53.0	33.2	100.0 (2,719,575)	3.17 (0.72)
소득수준2	기초수급	9.3	26.0	42.4	22.3	100.0 (28,727)	2.78 (0.90)
	차상위	7.5	31.5	44.1	17.0	100.0 (43,618)	2.70 (0.84)
	일반	2.3	11.5	53.0	33.2	100.0 (2,719,575)	3.17 (0.72)
지역	대도시	3.6	14.3	55.2	27.0	100.0 (1,205,776)	3.06 (0.74)
	중소도시	1.7	9.7	50.9	37.8	100.0 (1,429,979)	3.25 (0.69)
	농어촌	1.8	14.9	50.4	32.8	100.0 (156,165)	3.14 (0.73)
가족유형	양부모	2.4	11.0	53.2	33.4	100.0 (2,625,844)	3.18 (0.71)
	한부모·조손	4.9	31.1	44.2	19.7	100.0 (144,486)	2.79 (0.81)

〈표 5-44〉 책읽어주기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계 (명)	평균 (SD)
전체		2.7	11.8	49.2	36.3	100.0 (2,787,956)	3.19 (0.74)
아동 성별	남자	3.2	11.6	52.3	32.9	100.0 (1,477,864)	3.15 (0.74)
	여자	2.1	12.2	45.7	40.1	100.0 (1,310,092)	3.24 (0.74)
연령	0-2세	3.0	9.6	42.7	44.8	100.0 (1,401,089)	3.29 (0.76)
	3-5세	2.4	14.1	55.8	27.7	100.0 (1,386,867)	3.09 (0.71)
소득수준1	빈곤	7.8	32.5	42.8	16.8	100.0 (72,346)	2.69 (0.84)
	일반	2.6	11.3	49.4	36.8	100.0 (2,715,610)	3.20 (0.74)
소득수준2	기초수급	9.1	22.5	48.9	19.5	100.0 (28,727)	2.79 (0.86)
	차상위	6.9	39.2	38.8	15.1	100.0 (43,618)	2.62 (0.82)
	일반	2.6	11.3	49.4	36.8	100.0 (2,715,610)	3.20 (0.74)
지역	대도시	2.6	14.7	51.0	31.7	100.0 (1,201,812)	3.12 (0.75)
	중소도시	2.7	9.3	47.1	40.9	100.0 (1,429,979)	3.26 (0.73)
	농어촌	3.2	13.0	54.2	29.6	100.0 (156,165)	3.10 (0.74)
가족유형	양부모	2.7	11.1	49.4	36.8	100.0 (2,621,880)	3.20 (0.74)
	한부모·조손	2.2	27.5	46.2	24.2	100.0 (144,486)	2.92 (0.77)

〈표 5-45〉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계 (명)	평균 (SD)
전체		2.7	16.8	51.9	28.6	100.0 (2,787,956)	3.06 (0.75)
아동 성별	남자	3.4	16.8	56.2	23.5	100.0 (1,477,864)	3.00 (0.73)
	여자	1.9	16.7	47.0	34.4	100.0 (1,310,092)	3.14 (0.75)
연령	0-2세	3.6	12.1	45.8	38.5	100.0 (1,401,089)	3.19 (0.78)
	3-5세	1.9	21.5	58.0	18.7	100.0 (1,386,867)	2.93 (0.69)
소득수준1	빈곤	7.3	33.9	44.3	14.5	100.0 (72,346)	2.66 (0.81)
	일반	2.6	16.3	52.1	29.0	100.0 (2,715,610)	3.08 (0.74)
소득수준2	기초수급	9.9	30.8	42.1	17.2	100.0 (28,727)	2.67 (0.87)
	차상위	5.5	36.0	45.8	12.7	100.0 (43,618)	2.66 (0.77)
	일반	2.6	16.3	52.1	29.0	100.0 (2,715,610)	3.08 (0.74)
지역	대도시	3.2	19.1	48.5	29.2	100.0 (1,201,812)	3.04 (0.78)
	중소도시	2.2	15.2	54.4	28.3	100.0 (1,429,979)	3.09 (0.72)
	농어촌	3.5	13.7	55.3	27.5	100.0 (156,165)	3.07 (0.74)
가족유형	양부모	2.5	16.2	51.9	29.5	100.0 (2,621,880)	3.08 (0.74)
	한부모·조손	7.4	30.0	53.1	9.5	100.0 (144,486)	2.65 (0.75)

17. 주양육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

〈표 5-46〉은 주양육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은 본인들의 가정형편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높게 응답한 수준은 ‘보통 수준’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약 절반(46.5%)의 주양육자가 가정형편을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대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의 정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가 인식한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기초수급가구의 26.1%와 차상위가구의 11.7%가 본인들의 형편을 ‘매우 못 산다’로 응답했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오직 0.8%만이 그 항목으로 응답했다.

〈표 5-46〉 가정형편 수준

(단위: %, 명)

구분		(1)매우 못 산다	(2)	(3)	(4) 보통 수준	(5)	(6)	(7)매우 잘 산다	계 (명)	평균 (SD)
전체		1.6	4.7	10.3	46.5	27.4	9.5	0.1	100.0 (9,626,181)	4.22 (1.02)
아동 성별	남자	1.2	3.9	9.1	49.6	26.7	9.5	0.0	100.0 (5,024,525)	4.25 (0.97)
	여자	2.1	5.5	11.7	43.1	28.2	9.4	0.1	100.0 (4,601,656)	4.19 (1.07)
연령	0-2세	1.1	2.1	10.4	45.1	30.0	11.4	0.0	100.0 (1,407,369)	4.35 (0.96)
	3-5세	0.7	4.1	7.9	50.1	26.4	10.8	0.0	100.0 (1,407,945)	4.30 (0.96)
	6-8세	1.0	5.6	9.0	50.9	23.5	9.7	0.4	100.0 (1,343,798)	4.21 (1.01)
	9-11세	1.8	4.7	11.3	43.9	28.6	9.7	0.0	100.0 (1,541,539)	4.22 (1.05)
	12-17세	2.2	5.5	11.2	45.3	27.7	8.1	0.0	100.0 (3,925,529)	4.15 (1.05)
소득 수준 ¹	빈곤	21.1	33.5	23.9	16.5	4.1	0.9	0.0	100.0 (374,442)	2.52 (1.16)
	일반	0.8	3.5	9.8	47.7	28.3	9.8	0.1	100.0 (9,251,739)	4.29 (0.95)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26.1	33.8	24.8	11.9	2.6	0.8	0.0	100.0 (245,579)	2.34 (1.11)
	차상위	11.7	32.9	22.2	25.4	6.8	1.0	0.0	100.0 (128,863)	2.86 (1.18)
	일반	0.8	3.5	9.8	47.7	28.3	9.8	0.1	100.0 (9,251,739)	4.29 (0.95)
지역	대도시	1.8	5.6	10.4	39.6	30.4	12.3	0.0	100.0 (4,194,335)	4.28 (1.10)
	중소도시	1.6	4.1	10.6	53.4	23.5	6.7	0.1	100.0 (4,847,467)	4.14 (0.95)
	농어촌	0.8	2.3	7.4	39.2	38.1	12.1	0.1	100.0 (584,379)	4.48 (0.94)
가족 유형	양부모	0.7	2.7	8.3	48.8	29.2	10.1	0.1	100.0 (8,550,145)	4.34(0.92)
	한부모조손	9.1	21.2	27.3	27.2	11.3	4.0	0.0	100.0 (1,009,915)	3.22 (1.27)

18. 가족유형

〈표 5-47〉은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유형의 분포를 보여준다. 절대다수의 경우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나타났다(87%).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약 8%의 가구가 이 유형에 속했다. 하지만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가구유형을 보였다. 가장 많은 유형이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형태로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모두 약 58%의 경우가 이 가구형태에 속하고 있었다.

〈표 5-47〉 가족유형

(단위: %, 명)

구분		부모 +자녀	한부모 +자녀	양조부모/ 한조부모 +부모 +자녀	양조부모/ 한조부모 +한부모 +자녀	양조부모/ 한조부모 +자녀	기타	계 (명)
전체		87.0	8.1	2.4	1.2	0.8	0.5	100.0 (9,578,676)
아동 성별	남자	87.0	8.3	2.3	1.1	0.6	0.7	100.0 (5,008,912)
	여자	87.0	7.9	2.5	1.4	0.9	0.3	100.0 (4,569,764)
연령	0-2세	92.8	3.1	2.5	0.1	1.4	0.0	100.0 (1,395,566)
	3-5세	92.2	3.8	2.1	1.1	0.4	0.4	100.0 (1,398,158)
	6-8세	88.4	4.3	4.3	2.3	0.4	0.3	100.0 (1,332,460)
	9-11세	87.0	7.8	1.7	1.8	0.7	1.0	100.0 (1,530,533)
	12-17세	82.6	12.8	2.1	1.2	0.8	0.5	100.0 (3,921,959)
소득수준1	빈곤	25.3	58.3	2.5	5.8	4.3	3.7	100.0 (375,298)
	일반	89.5	6.1	2.4	1.1	0.6	0.3	100.0 (9,203,378)
소득수준2	기초수급	23.2	58.2	1.9	7.7	5.3	3.8	100.0 (246,225)
	차상위	29.5	58.6	3.7	2.0	2.6	3.6	100.0 (129,073)
	일반	89.5	6.1	2.4	1.1	0.6	0.3	100.0 (9,203,378)
지역	대도시	85.9	9.2	2.5	1.1	1.0	0.3	100.0 (4,146,502)
	중소도시	88.2	7.5	2.1	1.2	0.5	0.6	100.0 (4,845,791)
	농어촌	85.2	5.5	4.7	2.5	1.4	0.7	100.0 (586,383)
가족유형	양부모	97.3	0.0	2.7	0.0	0.0	0.0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0.0	76.6	0.0	11.8	7.1	4.5	100.0 (1,012,991)

19. 아동정책에 대한 주양육자의 평가

〈표 5-48〉은 가장 만족스러운 아동정책을 2개 꼽았을 때 나타난 결과이다. 아동의 주양육자가 가장 만족하고 있는 아동정책은 무상보육지원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지원정책이 41.5%로 가장 만족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빈곤아동지원정책이 31.3%로 만족하는 정책이었다. 상대적으로 요보호아동 시설보호정책(3.5%)이나 다문화아동지원정책(9.8%), 아동권리증진정책(12.2%) 등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한편, 가장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물었을 때는 아동 성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9.7%), 왕따 등 학교폭력예방정책(29.2%),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9%)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된 정책분야였다. 〈표 5-49〉에 제시되었듯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에 있어서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소득수준별로 보면, 빈곤층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 이상), 의료비지원(30% 내외), 아동수당정책(27~30%) 선호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아동성폭력예방(30.4%), 학교폭력예방정책(29.6%), 방과후 돌봄정책(29.1%)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연령대(0-2세)는 방과후 돌봄정책을 선호하고(32.8%), 아동수당정책(27.9%) 등을 선호하는 반면, 고연령대(12-17세)는 학교폭력예방대책(32.1%), 아동성폭력 예방 및 보호정책(31.1%),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21.7%)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아동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계층별 차등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가족을 위해서는 아동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성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방과후 돌봄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빈곤층을 위해서는 선별적 아동수당정책 도입 및 빈곤층 아동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5-48〉 만족스런 아동정책(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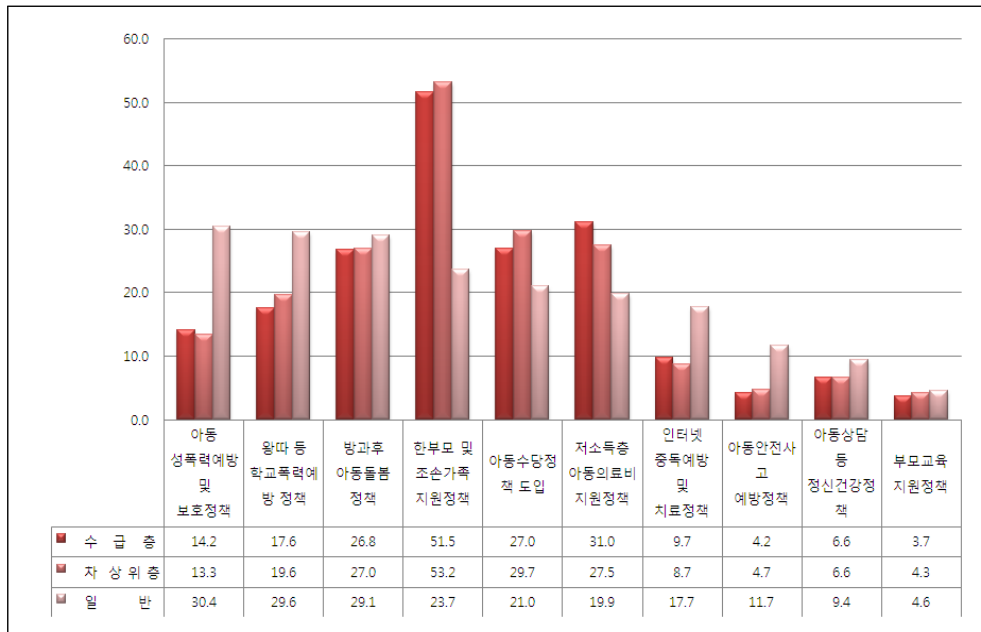
구분		무상 보육 지원 정책	빈곤 아동 지원 정책	학대 아동 보호 정책	아동 건강 증진 정책	장애 아동 지원 정책	가정 위탁 및 입양 정책	아동 권리 증진 정책	다문 화 아동 지원 정책	요보 호 아동 시설 보호 정책	기타	없음	계 (명)
전체		41.5	31.3	27.1	26.6	19.2	15.0	12.2	9.8	3.5	0.1	4.5	100.0 (9,601,310)
아동 성별	남자	40.7	32.1	26.2	28.3	19.3	15.6	12.1	9.9	2.9	0.0	4.6	100.0 (5,013,443)
	여자	42.4	30.3	28.1	24.8	19.1	14.4	12.4	9.7	4.0	0.2	4.3	100.0 (4,587,867)
연령	0-2세	47.4	26.1	26.6	27.7	17.6	15.2	11.3	9.6	3.1	0.3	4.7	100.0 (1,407,369)
	3-5세	47.7	30.0	26.8	29.9	16.1	14.1	9.2	13.2	2.4	0.0	3.3	100.0 (1,403,846)
	6-8세	40.6	31.9	29.5	28.2	20.2	15.7	11.0	10.7	2.9	0.0	2.0	100.0 (1,338,387)
	9-11세	44.3	30.0	24.9	30.1	20.3	14.0	10.2	9.8	5.2	0.2	3.3	100.0 (1,539,923)
	12-17세	36.4	33.8	27.4	23.2	20.1	15.5	14.9	8.4	3.5	0.1	6.1	100.0 (3,911,786)
소득 수준 1	빈곤	49.3	53.6	15.7	17.7	14.7	12.2	5.1	12.0	1.7	0.6	6.1	100.0 (375,577)
	일반	41.2	30.3	27.6	27.0	19.4	15.1	12.5	9.7	3.5	0.1	4.4	100.0 (9,225,733)
소득 수준 2	기초수급	50.6	51.9	15.7	19.2	15.6	10.7	5.1	7.4	1.5	0.9	7.4	100.0 (246,504)
	차상위	46.8	56.7	15.6	14.9	13.0	15.1	5.2	20.9	2.1	0.0	3.8	100.0 (129,073)
	일반	41.2	30.3	27.6	27.0	19.4	15.1	12.5	9.7	3.5	0.1	4.4	100.0 (9,225,733)
지역	대도시	40.7	36.7	25.2	26.2	19.9	14.0	11.7	12.2	3.7	0.1	2.8	100.0 (4,182,489)
	중소도시	43.4	26.6	28.5	26.8	18.0	15.9	11.7	7.7	3.3	0.1	6.3	100.0 (4,830,392)
	농어촌	31.9	31.1	29.3	27.9	24.0	15.1	20.0	11.1	3.5	0.3	1.2	100.0 (588,430)
가족 유형	양부모	40.6	29.8	28.4	27.3	19.8	15.9	12.3	10.0	3.6	0.1	3.8	100.0 (8,524,794)
	한부모· 조손	50.0	42.9	16.5	20.6	14.0	7.5	10.9	8.7	2.6	0.6	9.9	100.0 (1,010,654)

〈표 5-49〉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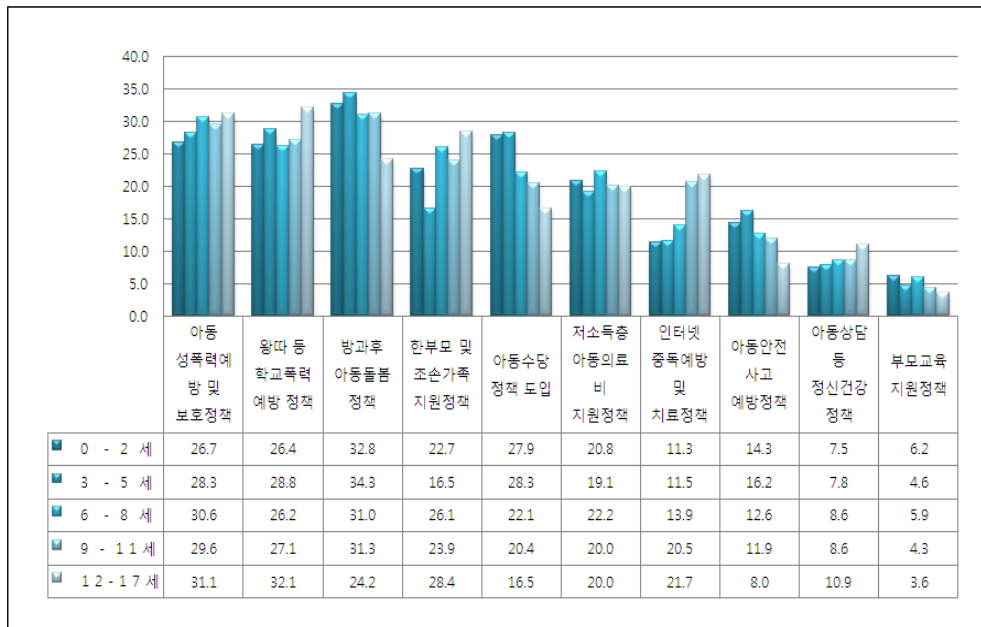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아동 성폭 력예 방 및 보호 정책	왕따 등 학교 폭력 예방 정책	방과 후 아동 돌봄 정책	한부 모 조손 가족 지원 정책	아동 수당 정책 도입	저소 득층 아동 의료 비 지원 정책	인터 넷 중독 예방 및 치료 정책	아동 안전 사고 예방 정책	아동 상담 등 정신 건강 정책	부모 교육 지원 정책	없음	기타	명
전체		29.7	29.2	29.0	24.8	21.3	20.3	17.4	11.4	9.3	4.5	1.1	0.1	9,632,951
아동 성별	남자	26.7	30.5	28.1	26.3	21.1	21.1	17.7	10.7	10.4	4.2	1.2	0.1	5,030,011
	여자	33.1	27.7	30.0	23.2	21.5	19.5	17.1	12.1	8.0	4.9	1.1	0.0	4,602,940
연령	0-2세	26.7	26.4	32.8	22.7	27.9	20.8	11.3	14.3	7.5	6.2	1.0	0.0	1,405,334
	3-5세	28.3	28.8	34.3	16.5	28.3	19.1	11.5	16.2	7.8	4.6	1.8	0.2	1,404,828
	6-8세	30.6	26.2	31.0	26.1	22.1	22.2	13.9	12.6	8.6	5.9	0.2	0.0	1,346,470
	9-11세	29.6	27.1	31.3	23.9	20.4	20.0	20.5	11.9	8.6	4.3	0.9	0.0	1,539,923
	12-17세	31.1	32.1	24.2	28.4	16.5	20.0	21.7	8.0	10.9	3.6	1.3	0.0	3,936,395
소득 수준 1	빈곤	13.9	18.3	26.8	52.1	27.9	29.8	9.3	4.4	6.6	3.9	2.1	0.9	375,954
	일반	30.4	29.6	29.1	23.7	21.0	19.9	17.7	11.7	9.4	4.6	1.1	0.0	9,256,997
소득 수준 2	기초수급	14.2	17.6	26.8	51.5	27.0	31.0	9.7	4.2	6.6	3.7	2.0	1.2	246,881
	차상위	13.3	19.6	27.0	53.2	29.7	27.5	8.7	4.7	6.6	4.3	2.4	0.3	129,073
	일반	30.4	29.6	29.1	23.7	21.0	19.9	17.7	11.7	9.4	4.6	1.1	0.0	9,256,997
지역	대도시	23.5	26.2	29.6	33.2	21.9	19.7	16.4	12.5	8.5	6.2	0.7	0.0	4,187,456
	중소도시	35.9	32.5	27.6	18.0	20.1	20.0	18.0	10.7	9.9	3.2	1.6	0.1	4,857,065
	농어촌	23.1	22.6	36.9	20.8	26.4	27.0	19.8	9.1	9.8	3.8	0.0	0.0	588,430
가족 유형	양부모	31.1	30.3	29.5	21.1	21.4	19.9	18.3	11.7	9.6	4.8	0.8	0.0	8,556,177
	한부모· 조손	18.1	21.2	23.7	55.8	20.2	23.2	10.3	7.4	7.4	2.5	4.3	0.3	1,010,654

[그림 5-4] 소득수준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그림 5-5] 연령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제2절 아동용 설문분석

1. 주양육자에 대한 생각

아동이 주양육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주양육자에 대한 생각 척도를 통해 측정됐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24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주양육자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다

〈표 5-50〉 주보호자에 대한 생각 문항 내용

구분	문항 내용
주보호자에 대한 생각	나는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어머니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나는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
	나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아버지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나는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

〈표 5-51〉은 아동이 주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 척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약 17점으로 ‘자주 그렇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주양육자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 별로는 아동이 주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동의 경우는 일반가구보다 주양육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척도 평균점수인 17.6에 비해, 기초수급가구의 11.3과 차상위가구의 12.5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표 5-51〉 주양육자에 대한 생각

(단위: 점수,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17.36	4.22	5,505,142
아동 성별	남자	17.15	4.05	2,897,704
	여자	17.59	4.40	2,607,438
연령	9-11세	17.93	4.12	1,546,503
	12-17세	17.14	4.24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12.13	5.50	269,146
	일반	17.63	3.97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12.46	5.54	194,415
	차상위	11.28	5.29	74,731
	일반	17.63	3.97	5,235,996
지역	대도시	17.22	4.42	2,404,831
	중소도시	17.46	4.08	2,761,142
	농어촌	17.52	3.92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18.11	3.46	4,680,979
	한부모·조손	12.75	5.21	771,512

2. 주보호자와의 관계

아동이 평가한 주보호자와의 관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주보호자 관계 척도를 통해 측정됐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척도의 점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이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5-52〉 주보호자에 대한 생각 문항 내용

구분	문항 내용
주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
	보호자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보호자는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보호자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나는 보호자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들 때 보호자께서 용기를 주셨다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

〈표 5-53〉은 아동이 평가한 주보호자와의 관계 정도 척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약 26점으로 ‘그런 편이다’에 가까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소득수준, 거주지역 별로 아동이 평가한 주보호자와의 관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3〉 주보호자와의 관계

(단위: 점수,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25.68	4.49	5,504,678
아동 성별	남자	25.70	4.21	2,897,704
	여자	25.66	4.79	2,606,973
연령	9-11세	26.29	4.37	1,546,503
	12-17세	25.44	4.52	3,958,174
소득수준1	빈곤	24.17	5.09	268,681
	일반	25.76	4.45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4.30	5.27	193,951
	차상위	23.82	4.54	74,731
	일반	25.76	4.45	5,235,996
지역	대도시	25.86	4.43	2,404,367
	중소도시	25.62	4.57	2,761,142
	농어촌	24.96	4.22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5.78	4.49	4,680,515
	한부모·조손	25.14	4.54	771,512

3. 보호자와의 고민상담

〈표 5-54〉에서 〈표 5-56〉은 아동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른 보호자들과의 고민상담을 얼마나 쉽게(혹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아버지나 다른 친척들보다는 어머니와의 고민상담을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4〉에서 볼 수 있듯이, 약 57%의 아동들이 아버지와의 고민상담을 쉽거나 매우 쉽다라고 응답한 반면, 어머니와의 고민상담에서는 약 77%의 아동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표 5-55 참조).

〈표 5-54〉 아버지에게 고민상담

(단위: %, 명)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렵다	쉽다	매우 쉽다	없음/만나지 못함	계 (명)	평균 (SD)
전체		4.8	31.5	41.4	15.9	6.3	100.0 (5,503,147)	2.73 (0.80)
아동 성별	남자	3.2	33.0	40.8	16.2	6.8	100.0 (2,896,728)	2.75 (0.78)
	여자	6.7	29.9	42.0	15.5	5.8	100.0 (2,606,419)	2.71 (0.82)
연령	9-11세	2.1	25.9	45.5	19.8	6.7	100.0 (1,546,503)	2.89 (0.84)
	12-17세	5.9	33.7	39.8	14.4	6.2	100.0 (3,956,644)	2.67 (0.81)
소득수준 1	빈곤	6.7	24.8	20.3	5.0	43.2	100.0 (267,151)	2.42 (0.81)
	일반	4.7	31.9	42.5	16.4	4.5	100.0 (5,235,996)	2.74 (0.80)
소득수준 2	기초수급	6.1	22.6	20.0	5.6	45.8	100.0 (192,577)	2.46 (0.82)
	차상위	8.3	30.7	21.3	3.4	36.4	100.0 (74,574)	2.31 (0.76)
	일반	4.7	31.9	42.5	16.4	4.5	100.0 (5,235,996)	2.74 (0.80)
지역	대도시	3.5	30.1	41.9	17.2	7.3	100.0 (2,404,210)	2.79 (0.79)
	중소도시	6.2	31.7	41.5	14.8	5.8	100.0 (2,759,769)	2.69 (0.81)
	농어촌	3.5	40.5	37.1	15.1	3.8	100.0 (339,169)	2.66 (0.78)
가족유형	양부모	4.8	33.0	45.1	16.7	0.4	100.0 (4,680,515)	2.74 (0.79)
	한부모·조손	5.5	23.1	18.9	10.3	42.1	100.0 (769,982)	2.59 (0.89)

〈표 5-55〉 어머니에게 고민상담

(단위: %, 명)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렵다	쉽다	매우 쉽다	없음/만나 지못함	계 (명)	평균 (SD)
전체		1.8	18.5	50.7	26.3	2.7	100.0 (5,505,142)	3.04 (0.73)
아동 성별	남자	1.8	18.5	53.1	23.9	2.7	100.0 (2,897,704)	3.02 (0.71)
	여자	1.7	18.5	48.1	29.0	2.7	100.0 (2,607,438)	3.07 (0.74)
연령	9-11세	1.4	13.6	49.6	31.4	3.9	100.0 (1,546,503)	3.16 (0.71)
	12-17세	1.9	20.4	51.2	24.3	2.2	100.0 (3,958,639)	3.00 (0.73)
소득수준 1	빈곤	4.7	17.5	40.3	16.5	20.9	100.0 (269,146)	2.87 (0.81)
	일반	1.6	18.5	51.3	26.8	1.8	100.0 (5,235,996)	3.05 (0.72)
소득수준 2	기초수급	5.7	17.6	41.6	18.0	17.2	100.0 (194,415)	2.87 (0.83)
	차상위	2.4	17.5	37.1	12.5	30.5	100.0 (74,731)	2.86 (0.74)
	일반	1.6	18.5	51.3	26.8	1.8	100.0 (5,235,996)	3.05 (0.72)
지역	대도시	1.0	13.8	54.8	27.7	2.7	100.0 (2,404,831)	3.12 (0.67)
	중소도시	2.5	21.0	47.9	25.9	2.8	100.0 (2,761,142)	3.00 (0.76)
	농어촌	1.4	31.1	45.8	19.6	2.2	100.0 (339,169)	2.85 (0.74)
가족유형	양부모	1.5	18.0	53.2	26.9	0.4	100.0 (4,680,979)	3.06 (0.71)
	한부모·조손	3.2	22.2	36.3	21.8	16.5	100.0 (771,512)	2.92 (0.82)

〈표 5-56〉 보호자에게 고민상담

(단위: %, 명)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렵다	쉽다	매우 쉽다	없음/만나 지못함	계 (명)	평균 (SD)
전체		9.6	33.3	39.5	13.1	4.5	100.0 (5,486,057)	2.59 (0.85)
아동 성별	남자	10.0	35.1	38.0	13.1	3.8	100.0 (2,880,990)	2.56 (0.85)
	여자	9.2	31.3	41.2	13.1	5.2	100.0 (2,605,066)	2.61 (0.84)
연령	9-11세	6.6	30.3	41.6	17.0	4.3	100.0 (1,538,063)	2.72 (0.83)
	12-17세	10.7	34.5	38.7	11.5	4.5	100.0 (3,947,994)	2.53 (0.85)
소득수준 1	빈곤	12.7	35.0	31.9	8.3	12.0	100.0 (268,524)	2.41 (0.85)
	일반	9.4	33.2	39.9	13.3	4.1	100.0 (5,217,532)	2.60 (0.85)
소득수준 2	기초수급	13.7	34.7	30.2	9.5	11.9	100.0 (193,951)	2.40 (0.88)
	차상위	10.2	35.8	36.4	5.1	12.5	100.0 (74,574)	2.42 (0.77)
	일반	9.4	33.2	39.9	13.3	4.1	100.0 (5,217,532)	2.60 (0.85)
지역	대도시	7.7	32.0	38.9	15.5	5.9	100.0 (2,392,279)	2.66 (0.85)
	중소도시	10.9	33.6	40.5	11.5	3.5	100.0 (2,757,161)	2.54 (0.84)
	농어촌	12.5	40.6	35.9	9.0	1.9	100.0 (336,617)	2.42 (0.83)
가족유형	양부모	9.8	34.5	39.1	13.3	3.2	100.0 (4,662,051)	2.58 (0.85)
	한부모·조손	8.9	27.7	39.9	11.2	12.3	100.0 (771,355)	2.61 (0.83)

4.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은 1점(‘매우 못 산다’)에서 7점(‘매우 잘 산다’)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해 조사됐다. 이 경우 보통수준은 4점으로 제시됐다. <표 5-57>은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척도의 평균이 4.53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가정형편을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에 차이가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동들이 응답한 평균은 약 3점 정도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4.6에 비해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7> 가정형편(경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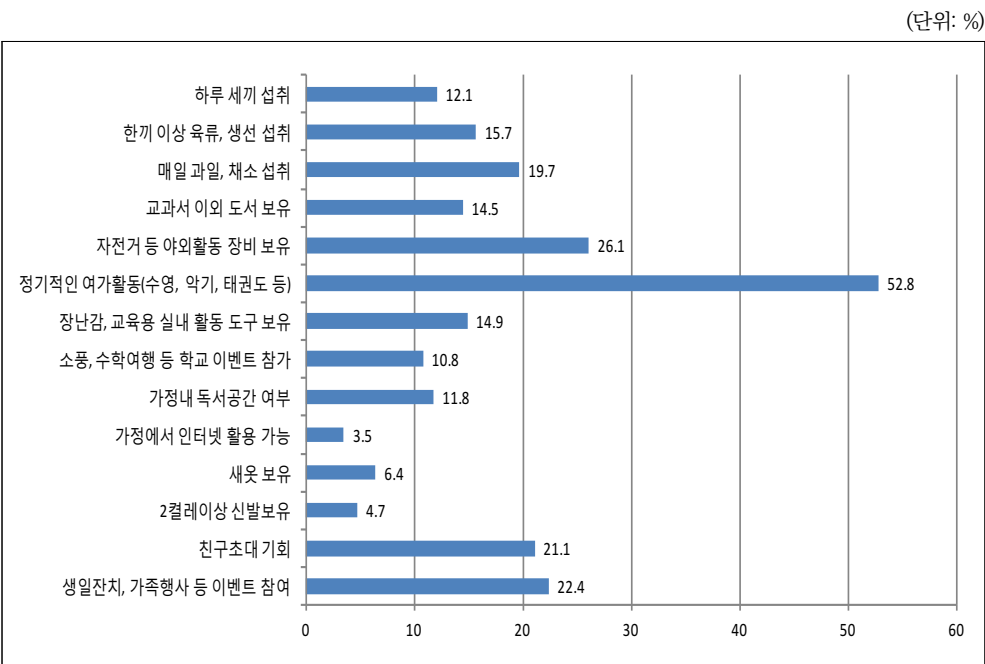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4.53	1.03	5,503,215
아동 성별	남자	4.54	0.97	2,895,776
	여자	4.52	1.08	2,607,438
연령	9-11세	4.64	1.04	1,544,576
	12-17세	4.49	1.02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3.10	1.26	268,845
	일반	4.60	0.96	5,234,369
소득수준2	기초수급	3.13	1.29	194,114
	차상위	3.02	1.19	74,731
	일반	4.60	0.96	5,234,369
지역	대도시	4.54	1.06	2,404,831
	중소도시	4.50	1.01	2,759,214
	농어촌	4.70	0.90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4.67	0.93	4,679,353
	한부모·조손	3.71	1.18	771,211

5. 아동 결핍

아동 결핍(child deprivation) 수준은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8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주양육자가 응답하였으며, 9세 이상 아동은 스스로 응답하였다. 결핍 문항은 ‘하루 세끼 섭취’ 등과 같은 식습관, ‘교과서 이외의 도서보유’나 ‘자전거 등 야외활동 장비보유’ 등과 같은 장비보유 여부,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나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가능’과 같은 환경적 측면 등이 포함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그림 5-6]에 나타나 있다. 문항별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 않음’, ‘없음’을 의미)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보면, 정기적 여가활동(수영, 악기, 태권도 등)을 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2.8%),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5-6] 아동의 항목별 결핍 현황



주: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않음, 없음)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임.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결핍 현황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나 조손가족일수록 결핍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0-2세 아동의 결핍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은 연령 특성상 식습관, 장비보유여부, 환경적 측면, 친구초대기회 및 이벤트 참여기회 등에서 제한적인 보유 및 참여가 가능하므로, 이들 연령대의 아동 결핍 비율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5-58〉 아동의 성별, 연령별 결핍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남자	여자	0-2세	3-5세	6-8세	9-11세	12-17세
하루 세끼 섭취	12.1	10.4	13.9	3.4	5.3	5.2	11.5	20.2
한 끼 이상 육류, 생선 섭취	15.7	14.6	16.9	16.2	13.8	13.7	16.8	16.5
매일 과일, 채소 섭취	19.7	20.1	19.2	15.1	11.4	15.3	22.0	24.7
교과서 이외 도서 보유	14.5	15.3	13.7	11.4	6.9	8.2	12.3	21.3
자전거 등 야외활동 장비 보유	26.1	23.6	28.8	44.5	25.4	16.3	15.8	27.2
정기적인 여가활동(수영, 악기, 태권도 등)	52.8	51.5	54.2	68.4	52.2	33.6	41.2	58.6
장난감, 교육용 실내 활동 도구 보유	14.9	13.9	16.0	20.6	7.4	8.4	11.1	19.3
소품, 수학여행 등 학교 이벤트 참가	10.8	11.3	10.2	13.1	4.3	3.6	8.2	15.7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	11.8	11.9	11.8	14.7	6.7	9.2	6.3	15.7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 가능	3.5	3.2	3.8	4.7	4.4	2.4	3.1	3.3
새 옷 보유	6.4	6.4	6.4	4.3	3.5	5.0	6.4	8.6
2켤레 이상 신발 보유	4.7	4.3	5.0	5.3	2.7	5.0	3.1	5.7
친구초대 기회	21.1	22.0	20.2	31.8	14.1	19.5	16.4	22.2
생일잔치, 가족행사 등 이벤트 참여	22.4	24.0	20.8	36.6	18.9	18.5	18.3	21.7
명	9,678,277	5,049,157	4,629,120	1,407,369	1,407,945	1,357,821	1,546,503	3,958,639

〈표 5-59〉 아동의 소득수준별 결핍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하루 세끼 섭취	12.1	26.5	11.5	25.6	28.0	11.5
한 끼 이상 육류, 생선 섭취	15.7	36.2	14.9	37.4	33.9	14.9
매일 과일, 채소 섭취	19.7	45.8	18.6	47.3	43.1	18.6
교과서 이외 도서 보유	14.5	38.0	13.6	41.6	31.3	13.6
자전거 등 야외활동 장비 보유	26.1	54.4	25.0	54.2	54.7	25.0
정기적인 여가활동(수영, 악기, 태권도 등)	52.8	72.8	52.0	71.7	75.0	52.0
장난감, 교육용 실내 활동 도구 보유	14.9	34.3	14.1	36.5	29.9	14.1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이벤트 참가	10.8	33.1	9.9	32.1	35.0	9.9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	11.8	37.1	10.8	35.9	39.3	10.8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 가능	3.5	7.8	3.3	7.1	9.1	3.3
새옷 보유	6.4	16.0	6.0	15.5	17.0	6.0
2컬레 이상 신발 보유	4.7	12.4	4.4	12.7	11.7	4.4
친구초대 기회	21.1	52.3	19.9	53.4	50.2	19.9
생일잔치, 가족행사 등 이벤트 참여	22.4	54.5	21.1	54.4	54.7	21.1
명	9,678,277	376,738	9,301,539	247,664	129,073	9,301,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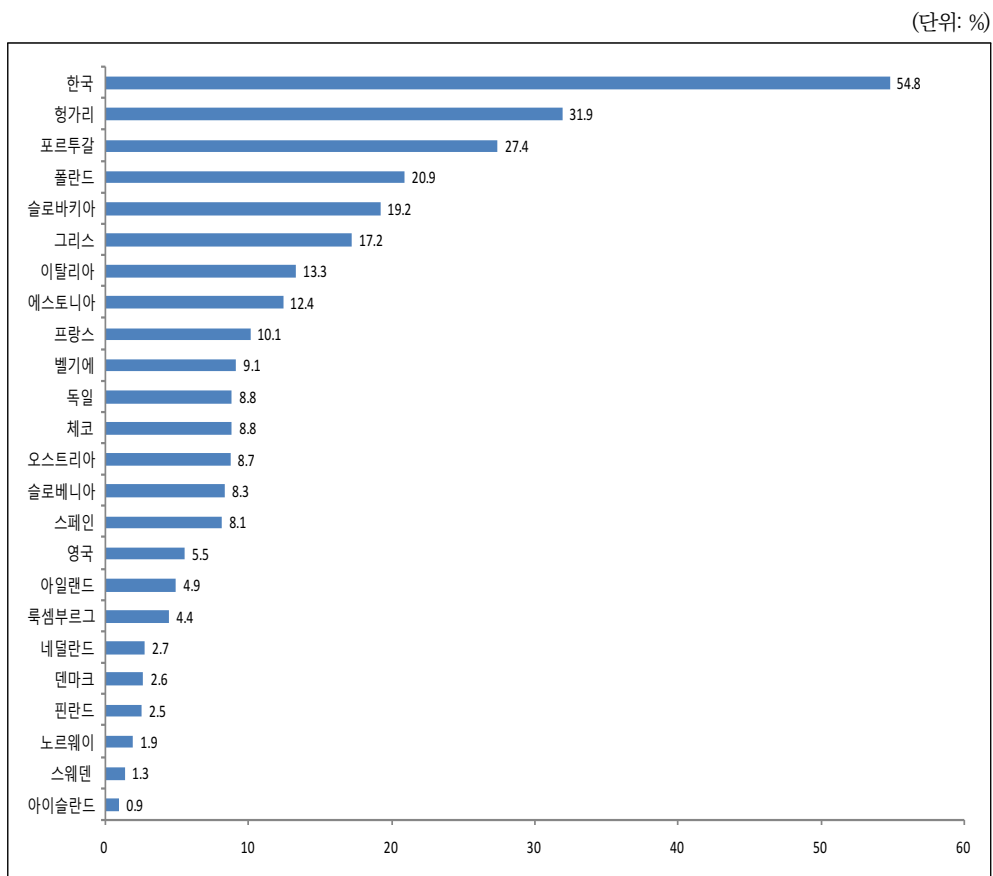
〈표 5-60〉 아동의 지역 및 가족유형별 결핍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가족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하루 세끼 섭취	12.1	11.5	12.5	12.8	10.3	26.7
한 끼 이상 육류, 생선 섭취	15.7	11.9	17.9	25.4	14.3	28.8
매일 과일, 채소 섭취	19.7	17.3	20.7	27.8	17.8	37.2
교과서 이외 도서 보유	14.5	15.7	13.2	16.8	12.5	32.2
자전거 등 야외활동 장비 보유	26.1	27.8	24.5	28.3	24.0	43.9
정기적인 여가활동(수영, 악기, 태권도 등)	52.8	49.3	55.4	57.0	51.5	64.7
장난감, 교육용 실내 활동 도구 보유	14.9	15.2	13.3	26.1	13.8	24.5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이벤트 참가	10.8	12.8	8.8	13.0	9.1	25.9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	11.8	12.2	11.3	13.4	9.9	28.6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 가능	3.5	3.5	3.2	6.0	2.8	9.4
새옷 보유	6.4	8.0	4.6	10.0	5.8	11.8
2컬레 이상 신발 보유	4.7	5.6	3.6	6.9	4.0	10.9
친구초대 기회	21.1	19.7	22.8	18.0	19.2	39.0
생일잔치, 가족행사 등 이벤트 참여	22.4	21.7	23.2	21.3	21.0	35.6
명	9,678,277	4,218,761	4,869,141	590,375	8,565,684	1,012,991

14개 문항 중 2개 이상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로 측정되는 아동결핍수준을 23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54.8%⁸⁾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식습관 및 여가활동 여부 등 생활 습관, 아동이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도구 및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지 여부 등 생활환경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7] 아동 결핍 수준 국가 비교



주: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않음, 없음)'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임.

출처: UNICEF office of research(2013). Child Well-being in Advanced Economies in the Late 2000s.
http://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iwp_2013_1.pdf (검색일: 2013. 11. 15)

8) 국가비교를 위해 OECD 국가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11, 13, 15세 아동의 결핍수준으로 계산함.

제3절 소결

우리나라 아동의 가정생활을 보호자(주양육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가족형태는 90% 정도는 양부모가 있고, 나머지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결혼생활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기초수급가구의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가족의 사회자본에 있어서는 대부분 자본수준이 높지 않았고, 있다면 주로 정서적 도움이나 정보 제공을 받고 있었다.

주양육자의 70%가 자녀가 4년제 대학 교육을 받기 원하고 있었고, 대학원도 25% 이상으로 희망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단,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전문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비해 실제 가능하다고 여기는 교육수준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수급층과 차상위층의 실제 기대 교육수준은 일반계층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가족의 식생활을 빈곤으로 인한 식품결핍은 아동의 약 8%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을 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는 식품빈곤 경험의 빈도가 더 심해서 각 약 45%와 26%의 아동이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빈곤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한 경우는 약 9%이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그런 경험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돈독한 편이었고, 주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스트레스율은 높지 않았다. 훈육방법으로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35%정도이었고,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였다. 자녀의 양육행동도 긍정적인 편으로 자녀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V/비디오 등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1일 1-3시간이었고, 자녀의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70%로 파악되었다. 단,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특히 TV/비디오 시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50%에 머물고 있어, 일반계층의 70%보다는 제한하는 경우가 현격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아동과 가장 자주하는 여가활동은 외식으로 나타났다. 약 65%의 아동이 주양육자와 한 달에 1회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도가 낮은 여가 활동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이었다(약 5.5%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부분의 주양육자는 본인들의 가정형편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높게 응답한 수준은 ‘보통 수준’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약 절반(46.5%)이 가정형편을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주양육자가 가장 만족하고 있는 아동정책은 무상보육지원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빈곤아동지원정책이 31.3%로 만족하는 정책이었다. 반면 가장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물었을 때는 아동 성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9.7%), 왕따 등 학교폭력예방정책(29.2%),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9%)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된 정책분야였다.

아동은 주보호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동의 경우는 일반가구보다 주보호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57%의 아동들이 아버지와의 고민상담을 쉽거나 매우 쉽다라고 응답한 반면, 어머니와의 고민상담에서는 약 77%의 아동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주관적 가정형편은 7점만점 중 평균이 4.5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가정형편을 보통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급층과 차상위층의 아동들의 평균은 약 3점 정도로 나타나 일반계층의 4.6에 비해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형편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수준은 정기적 여가활동(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인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나 조손가족일수록 결핍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아동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식생활 보장은 물론이고 여가활동 확충,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도구 및 환경조성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6장

사회성 및 정서

제1절 사회성

제2절 정서

제3절 소결

6

사회성 및 정서 <<

본 장에서는 아동의 사회성과 정서 부분을 분석하였다. 사회성 측정을 위해 문제행동, 자존감 및 효능감, 스트레스, 또래관계 및 공동체의식, 주관적 삶의 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다루었고, 정서측정을 위해 부모애착, 기질, 정서지능을 살펴보았다.

제1절 사회성

사회성(Sociability)이란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하게 되며 이를 원만하게 했을 때 사회성이 잘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을 제고할 때 아동은 책임성, 자율성, 성취성, 우월성,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교성, 정서성 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회성 발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집단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집단의 규칙을 준수하며 협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본 고에서는 사회성 측정을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문제행동(외현화행동 및 내현화행동), 자존감 및 유능감, 스트레스, 또래관계 및 공동체의식, 주관적 삶의 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등이 포함된다.

1. 문제행동: 공격성 및 우울/불안

사회성을 측정하는 첫 번째 도구로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문제행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본 고에서 사용한 척도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하고 오경자 등(1997)이 번역한 K-CBCL 척도 중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현화 행동문제 18문항과 내면화 행동문제 13문항을 선택하였다. 오경자 등(1997)에서는 전자를 공격성이라 명명하였고, 후자를 우울 및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표 6-1>과 <표 6-2>에 제시하였다.

〈표 6-1〉 아동의 공격성 척도

문 항		그런적 없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1	외롭다고 불평한다.	1	2	3
2	잘 운다.	1	2	3
3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1	2	3
4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1	2	3
6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7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8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9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10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11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1	2	3
1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13	걱정이 많다.	1	2	3

〈표 6-2〉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척도

문 항		그런적 없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2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3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	2	3
4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5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6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7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8	샘을 잘 낸다.	1	2	3
9	자주 싸운다.	1	2	3
10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1	2	3
11	고함을 지른다.	1	2	3
12	으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심겨운 짓을 한다.	1	2	3
13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1	2	3
14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15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16	남을 잘 놀린다.	1	2	3
17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1	2	3
18	남을 위협한다.	1	2	3

아동의 공격성은 18문항(3점 척도, 총54점) 평균은 22.9(3점 척도 환산시 1.3점)로 중간 36점을 밑돌고 있다(표 6-3 참조). 아동성별로는 여아의 공격성이 약간 더 높은 23.3이었고, 연령별로는 9-11세가 23.4로 12-17세 22.7보다 약간 더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차상위가구 아동의 공격성이 가장 높은 23.3이었고, 기초수급가구와 일반 가구 아동의 공격성은 같은 수준인 22.9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 아동의 공격성이 가장 높은 23.3이었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 23.2, 대도시 22.5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거의 유사하였다.

우울 및 불안은 총 36점(중간: 36점)인데 평균은 16.3점(3점 척도 환산시 1.3점)으로 파악되어 중간 이하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표 6-3 참조). 성별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별로는 모두 16점대를 보이고 있고, 다만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거주 아동의 우울 및 불안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거의 유사하였다.

〈표 6-3〉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 및 불안

(단위: 명)

구분		공격 (18문항) (1-54점, 중간: 36점)		우울 및 불안 (11문항) (1-33점, 중간: 22점)		명
		평균	SD	평균	SD	
전체		22.91	5.00	16.27	3.81	5,495,394
아동성별	남자	22.58	4.88	15.98	3.60	2,888,203
	여자	23.27	5.10	16.59	4.00	2,607,191
연령	9-11세	23.42	5.47	16.24	3.76	1,546,503
	12-17세	22.71	4.78	16.28	3.82	3,948,891
소득수준1	빈곤	23.00	5.11	16.44	4.03	268,899
	일반	22.90	4.99	16.26	3.79	5,226,495
소득수준2	기초수급	22.87	5.19	16.32	4.09	194,415
	차상위	23.32	4.89	16.74	3.84	74,484
	일반	22.90	4.99	16.26	3.79	5,226,495
지역	대도시	22.47	4.67	15.93	3.58	2,395,083
	중소도시	23.24	5.23	16.55	3.99	2,761,142
	농어촌	23.28	5.02	16.36	3.61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2.92	4.98	16.29	3.82	4,677,812
	한부모·조손	22.98	5.10	16.25	3.79	764,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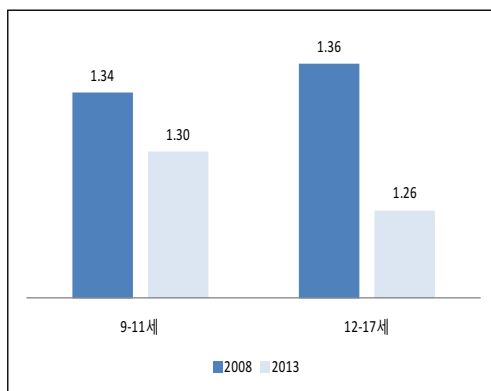
주: 3점 척도 (1 그런적 없다, 3 자주그런다)

〈표 6-4〉 아동의 공격성 및 우울·불안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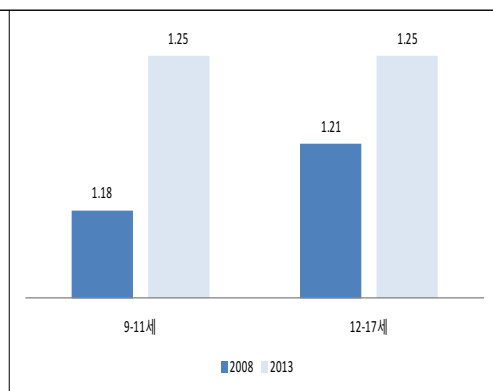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공격성		우울 및 불안		(명)
		3점 평균	SD	3점 평균	SD	
전체		1.27	0.28	1.25	0.29	5,495,394
아동성별	남자	1.25	0.27	1.23	0.28	2,888,203
	여자	1.29	0.28	1.28	0.31	2,607,191
연령	9-11세	1.30	0.30	1.25	0.29	1,546,503
	12-17세	1.26	0.27	1.25	0.29	3,948,891
소득수준1	빈곤	1.28	0.28	1.27	0.31	268,899
	일반	1.27	0.28	1.25	0.29	5,226,495
소득수준2	기초수급	1.27	0.29	1.26	0.31	194,415
	차상위	1.30	0.27	1.29	0.30	74,484
	일반	1.27	0.28	1.25	0.29	5,226,495
		지역	1.25	0.26	1.23	0.28
지역	중소도시	1.29	0.29	1.27	0.31	2,761,142
	농어촌	1.29	0.28	1.26	0.28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1.27	0.28	1.25	0.29
한부모·조손		1.28	0.28	1.25	0.29	764,931
2008년	9-11세	1.34	0.3	1.18	0.3	
	12-18세	1.36	0.3	1.21	0.3	

[그림 6-1] 아동의 공격성 수준



[그림 6-2] 아동의 우울 수준



주: 모두 3점 척도임.

2. 자존감 및 유능감

자존감은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유능감(혹은 효능감)은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Hernandez(1993)가 사용한 유능감(Resilience) 척도와 Sherer et al.(1982)이 만든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기초로 하여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척도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3문항이고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표 6-5 참조).

〈표 6-5〉 자존감 및 유능감 문항내용

구분	문항내용
자존감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능감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주: 4점 척도, *는 역코딩

분석결과 〈표 6-6〉에 제시하였듯이, 자존감은 4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평균이 2.95로 2008년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단 2008년의 경우는 연령대가 12-18세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2013년에는 9-17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자존감 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연령별로는 유사한 수준이었고, 빈곤가구에 비해 일반가구가 농어촌에 비해 도시거주 아동이, 한부모·조손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아동의 자존감이 높은 편이었다.

유능감 전체 평균은 4점척도로 환산했을 때 2.75로 파악되었다. 즉 유능감 수준은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아동성별로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고(남: 2.73, 여:

2.77), 연령별로도 9-11세가 2.79, 12-17세 2.73로 유사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차상위가구 아동이 2.76, 일반가구 2.75이었고, 기초수급가구는 2.73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가족유형별로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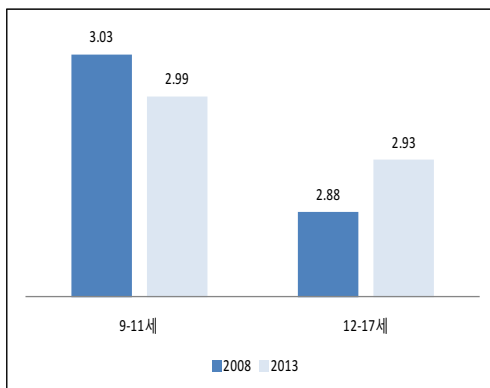
〈표 6-6〉 아동의 자존감과 유능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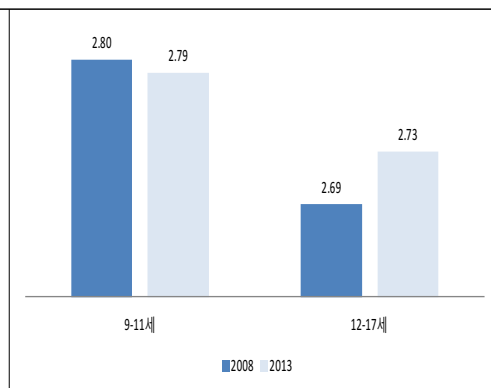
구분		자존감 (10문항)		유능감 (3문항)		명
		4점 평균	SD	4점 평균	SD	
전체		2.95	0.44	2.75	0.57	5,505,142
아동성별	남자	2.95	0.42	2.73	0.56	2,897,704
	여자	2.95	0.46	2.77	0.57	2,607,438
연령	9-11세	2.99	0.42	2.79	0.55	1,546,503
	12-17세	2.93	0.45	2.73	0.57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87	0.44	2.74	0.58	269,146
	일반	2.95	0.44	2.75	0.56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88	0.44	2.73	0.59	194,415
	차상위	2.84	0.43	2.76	0.54	74,731
	일반	2.95	0.44	2.75	0.56	5,235,996
지역	대도시	2.97	0.46	2.74	0.57	2,404,831
	중소도시	2.94	0.43	2.75	0.56	2,761,142
	농어촌	2.87	0.38	2.75	0.53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96	0.43	2.75	0.56	4,677,812
	한부모·조손	2.87	0.48	2.71	0.59	764,931
2008년	9-11세	3.03	0.5	2.80	0.6	1,957,105
	12-18세	2.88	0.4	2.69	0.6	4,868,187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않다, 4 항상그렇다)

[그림 6-3] 아동의 자존감(2008년, 2013년)



[그림 6-4] 아동의 유능감(2008년, 2013년)



3. 스트레스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이 공동으로 실시한 「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중 아동부가조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문항 11개를 활용하였다. <표 6-7>에 제시한 것과 같이,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을 낸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2.12로 파악되었다. 아동성별로는 유사하였고, 연령별로는 9-11세에 비해 12-17세의 스트레스율이 더 높은 2.16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동일한 수준이었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이 2.15로 도시지역 2.08보다 약간 더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 아동의 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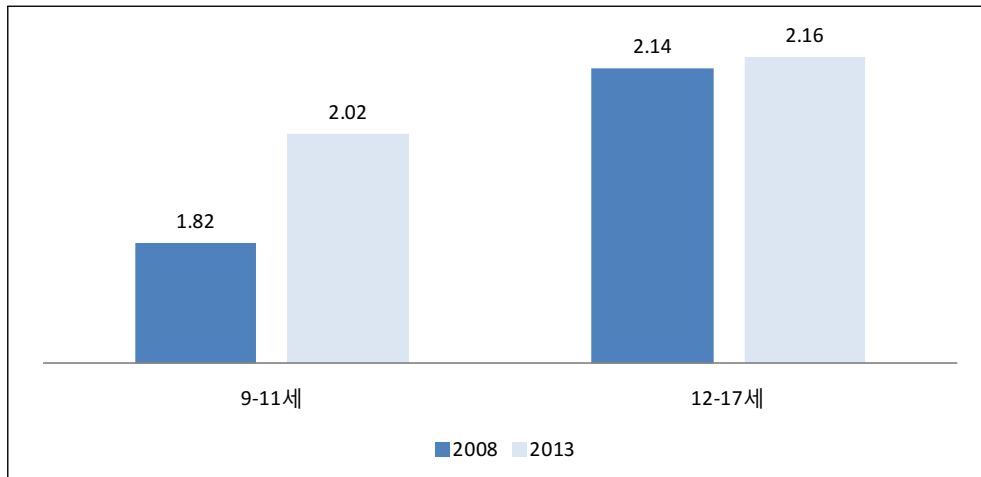
<표 6-7> 아동의 스트레스 11문항 평균

(단위: 명)

구분 (11문항)		4점 평균	SD	명
전체		2.12	0.54	5,505,142
아동성별	남자	2.10	0.55	2,897,704
	여자	2.14	0.53	2,607,438
연령	9-11세	2.02	0.57	1,546,503
	12-17세	2.16	0.53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10	0.54	269,146
	일반	2.12	0.54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9	0.57	194,415
	차상위	2.13	0.45	74,731
	일반	2.12	0.54	5,235,996
지역	대도시	2.08	0.52	2,404,831
	중소도시	2.15	0.55	2,761,142
	농어촌	2.15	0.61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13	0.54	4,680,979
	한부모·조손	2.05	0.55	771,512
2009년 (능동적복지)	초등생	1.82	0.60	1,178
	중고생	2.14	0.50	935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그림 6-5] 스트레스 정도 비교



어느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파악하기 위해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표 6-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숙제나 시험'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2.47이었고, 그 다음은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이었다 (2.30).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2.18로 높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평균 2.17이었다. 반면, 키, 몸무게, 생김새 등 신체특성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2.0내외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업 및 부모와의 관계 갈등에서 주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표 6-8> 문항별 스트레스 평균

구분	4점 평균	SD	(단위: 명)
			명
숙제나 시험 때문에	2.47	0.86	5,505,142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2.30	0.77	5,504,78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2.25	0.79	5,505,142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2.18	0.93	5,483,191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2.17	0.79	5,489,944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2.07	0.77	5,499,006
얼굴 생김새 때문에	2.01	0.80	5,492,400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1.99	0.76	5,495,406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1.98	0.80	5,500,136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1.96	0.81	5,504,278
용돈이 부족해서	1.97	0.77	5,504,278

다음 11개의 표에서는 각 스트레스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적의 경우는 연령, 소득수준별 차이가 컸다(표 6-9 참조). 연령별로는 12-17세가, 차상위가구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성적으로 인한 부모님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그리고 양부모가족 아동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간 더 높았다.

〈표 6-9〉 스트레스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30	0.77	5,504,782
아동성별	남자	2.30	0.77	2,897,344
	여자	2.30	0.77	2,607,438
연령	9-11세	2.23	0.80	1,546,503
	12-17세	2.33	0.75	3,958,279
소득수준1	빈곤	2.05	0.75	268,786
	일반	2.31	0.77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8	0.79	194,055
	차상위	1.96	0.62	74,731
	일반	2.31	0.77	5,235,996
지역	대도시	2.31	0.74	2,404,471
	중소도시	2.29	0.79	2,761,142
	농어촌	2.28	0.79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34	0.77	4,680,979
	한부모·조손	2.05	0.71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부모님과과의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는 연령, 소득수준, 가족유형별 차이가 있었다. 고연령 및 중소도시 아동, 양부모가족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표 6-10 참조).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연령, 일반가구 아동, 중소도시, 양부모아동의 경우가 높았다(표 6-11 참조).

〈표 6-10〉 스트레스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25	0.79	5,505,142
아동성별	남자	2.22	0.78	2,897,704
	여자	2.28	0.80	2,607,438
연령	9-11세	2.15	0.79	1,546,503
	12-17세	2.28	0.79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14	0.77	269,146
	일반	2.25	0.79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11	0.79	194,415
	차상위	2.22	0.70	74,731
	일반	2.25	0.79	5,235,996
지역	대도시	2.24	0.79	2,404,831
	중소도시	2.26	0.79	2,761,142
	농어촌	2.21	0.82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26	0.79	4,668,979
	한부모·조손	2.16	0.77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숙제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고연령 및 일반가구, 양부모가구 아동이 높았다(표 6-12, 표 6-13 참조), 단, 대입 또는 취업 부담은 차상위 가구 아동이 높았다.

〈표 6-11〉 스트레스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17	0.79	5,489,944
아동성별	남자	2.19	0.81	2,883,064
	여자	2.15	0.77	2,606,879
연령	9-11세	2.08	0.79	1,546,503
	12-17세	2.20	0.78	3,943,440
소득수준1	빈곤	2.04	0.79	268,587
	일반	2.18	0.79	5,221,35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2	0.80	193,857
	차상위	2.07	0.79	74,731
	일반	2.18	0.79	5,221,356
지역	대도시	2.12	0.75	2,390,191
	중소도시	2.20	0.80	2,760,583
	농어촌	2.25	0.86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18	0.79	4,666,339
	한부모-조손	2.07	0.78	770,954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12〉 스트레스4: 숙제나 시험 때문에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47	0.86	5,505,142
아동성별	남자	2.46	0.87	2,897,704
	여자	2.48	0.85	2,607,438
연령	9-11세	2.40	0.88	1,546,503
	12-17세	2.50	0.85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34	0.87	269,146
	일반	2.48	0.86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30	0.86	194,415
	차상위	2.43	0.86	74,731
	일반	2.48	0.86	5,235,996
지역	대도시	2.44	0.88	2,404,831
	중소도시	2.51	0.83	2,761,142
	농어촌	2.39	0.94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51	0.86	4,680,979
	한부모-조손	2.20	0.84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13〉 스트레스5: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18	0.93	5,483,191
아동성별	남자	2.21	0.92	2,876,147
	여자	2.15	0.93	2,607,044
연령	9-11세	1.80	0.86	1,541,670
	12-17세	2.33	0.91	3,941,521
소득수준1	빈곤	2.21	0.90	268,454
	일반	2.18	0.93	5,214,737
소득수준2	기초수급	2.19	0.93	193,723
	차상위	2.25	0.81	74,731
	일반	2.18	0.93	5,214,737
지역	대도시	2.15	0.93	2,384,436
	중소도시	2.20	0.92	2,760,450
	농어촌	2.18	0.90	338,305
가족유형	양부모	2.19	0.93	4,666,974
	한부모·조손	2.09	0.86	763,566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자 및 고연령 아동, 차상위가구 아동이 (표 6-14 참조),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연령, 기초수급, 중소도시 아동이 높았고 (표 6-15 참조), 키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아동이 높게 파악되었다(표 6-16 참조).

〈표 6-14〉 스트레스6: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1.99	0.76	5,495,406
아동성별	남자	1.96	0.75	2,888,655
	여자	2.03	0.77	2,606,751
연령	9~11세	1.92	0.78	1,538,319
	12~17세	2.02	0.75	3,957,088
소득수준1	빈곤	2.08	0.82	269,146
	일반	1.99	0.76	5,226,260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2	0.83	194,415
	차상위	2.21	0.77	74,731
	일반	1.99	0.76	5,226,260
지역	대도시	1.95	0.72	2,404,831
	중소도시	2.02	0.79	2,752,957
	농어촌	2.06	0.77	337,618
가족유형	양부모	1.99	0.76	4,667,243
	한부모·조손	2.03	0.79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15〉 스트레스7: 몸무게 때문에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1.98	0.80	5,500,136
아동성별	남자	1.93	0.80	2,892,698
	여자	2.03	0.80	2,607,438
연령	9~11세	1.88	0.77	1,542,362
	12~17세	2.01	0.81	3,957,775
소득수준1	빈곤	2.06	0.85	269,146
	일반	1.97	0.80	5,230,990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9	0.90	194,415
	차상위	1.98	0.70	74,731
	일반	1.97	0.80	5,230,990
지역	대도시	1.91	0.78	2,400,690
	중소도시	2.03	0.82	2,761,142
	농어촌	2.00	0.80	338,305
가족유형	양부모	1.99	0.80	4,667,973
	한부모·조손	1.90	0.80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16〉 스트레스8: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1.96	0.81	5,504,278
아동성별	남자	1.94	0.81	2,896,840
	여자	1.98	0.81	2,607,438
연령	9-11세	1.91	0.80	1,546,503
	12-17세	1.97	0.81	3,957,775
소득수준1	빈곤	1.92	0.79	269,146
	일반	1.96	0.81	5,235,132
소득수준2	기초수급	1.96	0.84	194,415
	차상위	1.81	0.62	74,731
	일반	1.96	0.81	5,235,132
지역	대도시	1.89	0.79	2,404,831
	중소도시	2.00	0.81	2,761,142
	농어촌	2.03	0.87	338,305
가족유형	양부모	1.97	0.82	4,667,973
	한부모·조손	1.86	0.75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얼굴생김새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아(2.09), 고연령(2.06), 농어촌 거주(2.10) 아동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표 6-17 참조)

〈표 6-17〉 스트레스9: 얼굴생김새 때문에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01	0.80	5,492,400
아동성별	남자	1.93	0.76	2,888,102
	여자	2.09	0.82	2,604,298
연령	9-11세	1.88	0.79	1,546,503
	12-17세	2.06	0.79	3,945,897
소득수준1	빈곤	1.99	0.79	268,587
	일반	2.01	0.80	5,223,813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0	0.83	193,857
	차상위	1.97	0.70	74,731
	일반	2.01	0.80	5,223,813
지역	대도시	1.95	0.78	2,402,250
	중소도시	2.05	0.80	2,751,846
	농어촌	2.10	0.85	338,305
가족유형	양부모	2.00	0.78	4,668,796
	한부모·조손	2.05	0.88	770,954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용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연령, 차상위, 농어촌,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이 높았고 (표 6-18 참조),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차상위아동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19 참조).

〈표 6-18〉 스트레스10: 용돈이 부족해서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1.97	0.77	5,504,278
아동성별	남자	1.95	0.76	2,896,840
	여자	2.00	0.78	2,607,438
연령	9-11세	1.90	0.81	1,546,503
	12-17세	2.00	0.75	3,957,775
소득수준1	빈곤	2.11	0.83	269,146
	일반	1.97	0.77	5,235,132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7	0.84	194,415
	차상위	2.22	0.79	74,731
	일반	1.97	0.77	5,235,132
지역	대도시	1.94	0.73	2,404,831
	중소도시	1.99	0.80	2,761,142
	농어촌	2.04	0.80	338,305
가족유형	양부모	1.96	0.76	4,680,115
	한부모·조손	2.04	0.82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19〉 스트레스11: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07	0.77	5,499,006
아동성별	남자	2.05	0.76	2,891,568
	여자	2.10	0.78	2,607,438
연령	9-11세	2.04	0.78	1,546,503
	12-17세	2.09	0.77	3,952,502
소득수준1	빈곤	2.19	0.84	269,146
	일반	2.07	0.77	5,229,860
소득수준2	기초수급	2.14	0.85	194,415
	차상위	2.33	0.79	74,731
	일반	2.07	0.77	5,229,860
지역	대도시	2.03	0.74	2,399,559
	중소도시	2.11	0.79	2,761,142
	농어촌	2.06	0.81	338,305
가족유형	양부모	2.07	0.77	4,667,973
	한부모·조손	2.09	0.82	771,51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4. 공동체의식

공동체 의식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표 6-20 참조).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더니, 2.12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8년 2.75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수치이다. 고연령아동,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아동, 양부모아동의 공동체의식이 더 높았다(표 6-21 참조).

〈표 6-20〉 공동체의식 문항내용

구분	문항내용
공동체 의식	나보다 못한 친구를 잘 돕는다
	내 친구가 상이나 칭찬 받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나는 양보할 줄 안다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싶다
	친구가 없는 아이와도 잘 놀아준다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시키지 않아도 봉사활동을 한다

주: 4점 척도

〈표 6-21〉 공동체의식

(단위: 명)

구분		4점 평균	SD	명
전체		2.12	0.54	5,504,278
아동성별	남자	2.10	0.55	2,896,840
	여자	2.14	0.53	2,607,438
연령	9-11세	2.02	0.57	1,546,503
	12-17세	2.16	0.53	3,957,775
소득수준1	빈곤	2.10	0.54	269,146
	일반	2.12	0.54	5,235,132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9	0.57	194,415
	차상위	2.13	0.45	74,731
	일반	2.12	0.54	5,235,132
지역	대도시	2.08	0.52	2,404,831
	중소도시	2.15	0.55	2,761,142
	농어촌	2.15	0.61	338,305
가족유형	양부모	2.13	0.54	4,680,115
	한부모·조손	2.05	0.55	771,512
2008년	12-18세	2.75	0.44	4,864,09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5. 주관적 삶의 질

다음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우선 학생생활만족도(SLSS;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WHO 기준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사용하였다.

가. 삶에 대한 만족도: 학생생활만족 척도(SLSS)

학생생활만족도는 국제비교를 위해서 선택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이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6-22 참조). 측정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은 7~35점 사이에 있다.

〈표 6-22〉 학생생활만족도 조사문항

구분	문항내용
삶에 대한 만족도 (SLSS)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은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낫다
	나는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다*
	나는 인생이 달랐으면 좋겠다*

주: 4점 척도, *는 역코딩

분석결과 학생생활만족도 평균은 22.83점으로 파악되었고, 문항수로 나눈 5점 평균은 3.26이었다(100점 만점으로는 65.2점). 즉 학생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표 6-23 참조).

아동의 아동성별로는 유사하고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는 9-11세가 12-17세보다 높은 3.39이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가 가장 높았고, 차상위가구아동이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3.30가 가장 높았고,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양부모의 만족도가 한부모·조손가족보다 높았다.

〈표 6-23〉 학생생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합계		5점 평균		명
		평균	SD	평균	SD	
전체		22.83 (65.2점)	3.95 (100점)	3.26	0.56	5,505,142
아동성별	남자	22.91	3.82	3.27	0.54	2,897,704
	여자	22.73	4.08	3.25	0.58	2,607,438
연령	9-11세	23.73	4.21	3.39	0.60	1,546,503
	12-17세	22.47	3.78	3.21	0.54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1.22	4.67	3.03	0.67	269,146
	일반	22.91	3.89	3.27	0.55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1.44	4.79	3.06	0.68	194,415
	차상위	20.65	4.28	2.95	0.61	74,731
	일반	22.91	3.89	3.27	0.55	5,235,996
지역	대도시	23.04	3.89	3.30	0.55	2,404,831
	중소도시	22.69	4.07	3.24	0.58	2,761,142
	농어촌	22.38	3.24	3.20	0.46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2.99	3.84	3.29	0.55	4,680,979
	한부모·조손	21.76	4.44	3.11	0.63	771,512
Save the Children 서울대(2013)	초3, 초5, 중1	62.0	(100점)	65.2	(100점)	-

주: 5점 척도(1 매우반대, 5 매우찬성), 7문항 (7-35점, 중간: 21점)

나. WHO 기준 삶의 만족도

이번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최소 0점에서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WHO 기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10이었다(표 6-24 참조). 아동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고, 연령대별로는 저연령대가 6.22로 고연령대 6.06보다 더 높았다.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커서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4.6으로 중간수준인 5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6.18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은 모두 6.2이었고, 중소도시는 6.04로 약간 더 낮았다. 가족유형별 차이도 커서 양부모가 6.25로 한부모·조손가구 5.24보다 높았다.

〈표 6-24〉 현재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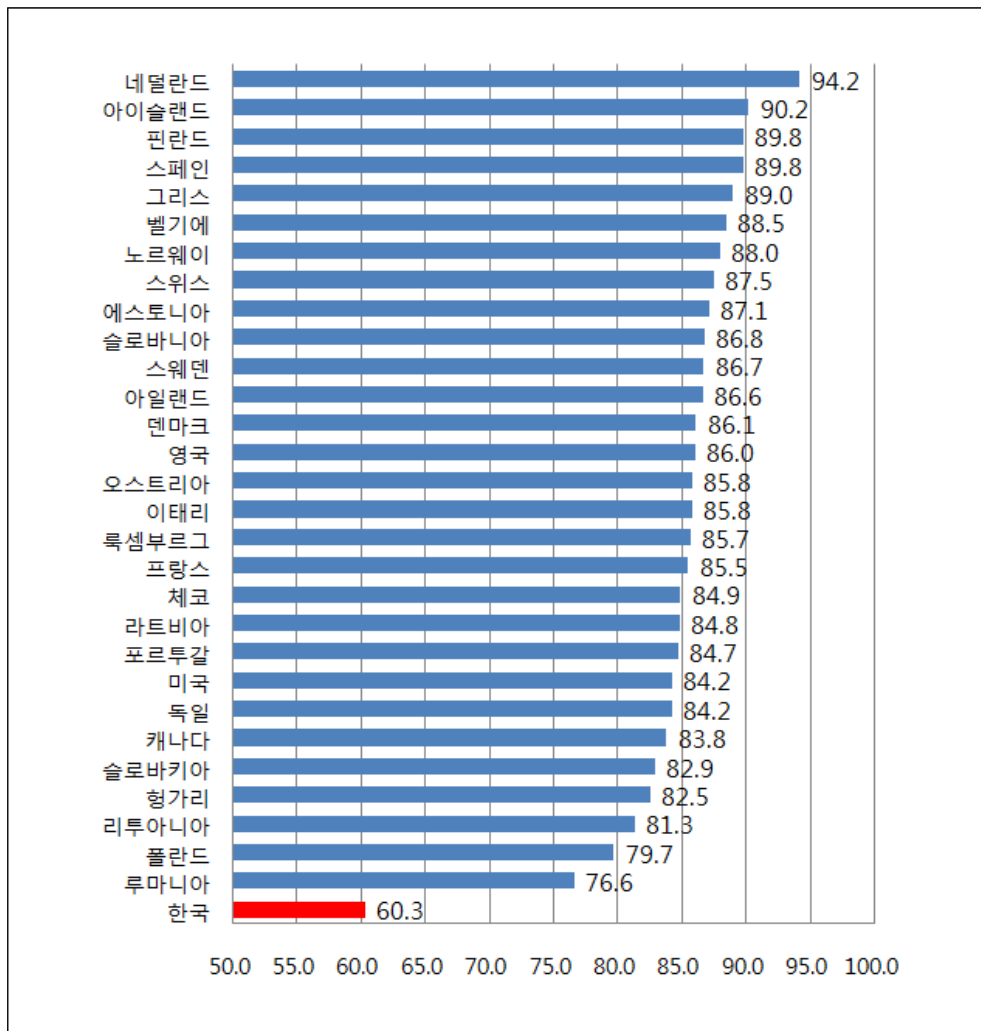
구분		10점 평균	SD	명
전체		6.10	1.59	5,364,619
아동성별	남자	6.09	1.51	2,806,268
	여자	6.12	1.68	2,558,351
연령*	9-11세	6.22	1.59	1,514,515
	12-17세	6.06	1.59	3,850,103
소득수준1	빈곤	4.61	2.19	263,366
	일반	6.18	1.51	5,101,253
소득수준2	기초수급	4.61	2.19	189,901
	차상위	4.59	2.20	73,465
	일반	6.18	1.51	5,101,253
지역	대도시	6.17	1.63	2,331,936
	중소도시	6.04	1.58	2,704,214
	농어촌	6.16	1.36	328,469
가족유형	양부모	6.25	1.46	4,546,400
	한부모·조손	5.24	2.02	765,568

주: 10점 척도(0 낮은 삶의 수준, 10 높은 삶의 수준)

한편, UNICEF 기준 삶의 만족도란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점 이상 응답한 비율을 말한다. 삶의 만족도를 UNICEF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비율은 60.3점으로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다. 9세 이상 모든 아동을 포괄하여 보았을 때는 61.5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6-6] UNICEF 기준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단위: %)



주: 11세, 13세,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점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외국의 경우 - UNICEF.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2013-03

다. 행복감

행복감은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행복감 척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표 6-25 참조).

〈표 6-25〉 행복감 문항내용

구분	문항내용
행복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일기나 편지, 메모지 등에 자살에 대한 글을 자주 쓴다*
	나는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활한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주: 4점척도. *는 역코딩

행복감은 4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03이었다. 이는 2008년 3.05과 거의 같은 수치이다(표 6-26 참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75.8이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유사한 수준이고, 소득수준별 및 지역별, 가족유형별 차이는 있다. 일반가구 아동이 기초수급 및 차상위 아동보다 약간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비해서 도시거주 아동의 행복감이 0.1%p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 한부모 및 조손가족보다 행복감이 높았다.

한편,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실시한 행복감 1문항 결과는 78.7점으로 본 조사보다는 3점 더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유사하게 80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은 높은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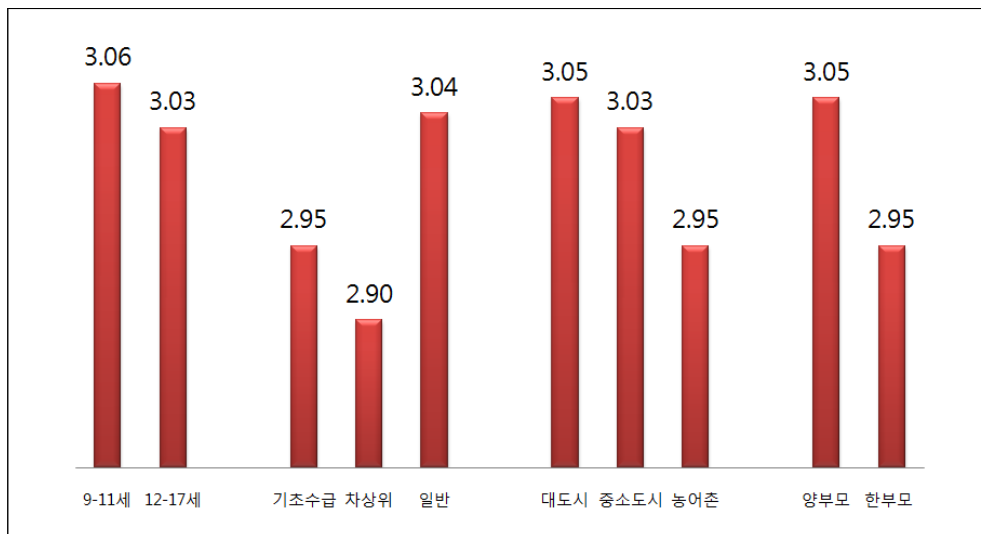
〈표 6-26〉 행복감

(단위: 명)

구분 (6문항)		4점 평균	SD	명
전체		3.03 (75.8)	0.44 (100점)	5,505,142
아동성별	남자	3.06	0.42	2,897,704
	여자	3.01	0.46	2,607,438
연령	9-11세	3.06	0.48	1,546,503
	12-17세	3.03	0.44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2.94	0.48	269,146
	일반	3.04	0.44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95	0.50	194,415
	차상위	2.90	0.40	74,731
	일반	3.04	0.44	5,235,996
지역	대도시	3.05	0.44	2,404,831
	중소도시	3.04	0.43	2,761,142
	농어촌	2.95	0.39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3.05	0.42	4,680,979
	한부모·조손	2.95	0.47	771,512
2008년	12-18세	3.05 (76.3)	0.5 (100점)	4,868,187
Save the Children 서울대(2013)	초3, 초5, 중1 (행복감 1문항)	(78.7)	(100점)	8,39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총 6문항의 평균

〔그림 6-7〕 아동 특성별 행복감 비교



6.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에서 개발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3가지 (K, G, S-척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용으로 만들어진 K-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표 6-27 참조).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파악하는 근거는 문항의 합산점수에 있다. 진단은 3유형으로 나뉘는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이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초등생의 경우 42점 이상인 경우, 중고생의 경우 44점 이상인 경우이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총점이 초등생의 경우 39~41점 이하인 경우, 중고생의 경우 41점~43점 이하인 경우이다. 일반 사용자군은 총점이 초등생의 경우 38점 이하인 경우, 중고생의 경우 40점 이하인 경우이다.

〈표 6-27〉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문항내용

구분	문항내용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인터넷·스마트폰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스마트폰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 진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인터넷·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스마트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주: * 문항은 역코딩 (4점 척도)/ 총점 42점(초등) 및 44점(중고) 이상이면 중독(고위험)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측정 점수를 합한 결과 총 60점 만점에 평균 32.38점으로 파악되었다(표 6-28 참조). 즉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점수 평균은 잠재위험군 및 고위험군을 밀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등생의 평균은 31.51로 중고생 32.71보다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중독 비율이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빈곤가구 아동에 비해서 일반가구 아동의 중독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고,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 아동이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에 비해서 중독점수가 더 높았다.

〈표 6-28〉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구분 (총 15항목, 4점척도)		초등학생 (9-11)	중고생 (12-17세)	전체
전체		31.51	32.71	32.38
아동성별	남자	33.35	32.71	32.88
	여자	29.58	32.72	31.83
소득수준1	빈곤	29.93	30.99	30.82
	일반	31.56	32.81	32.46
소득수준2	기초수급	30.35	31.05	30.91
	차상위	24.21	30.82	30.53
	일반	31.56	32.81	32.46
지역	대도시	30.80	32.40	31.95
	중소도시	32.00	32.64	32.49
	농어촌	32.84	35.07	34.50
가족유형	양부모	31.75	32.90	32.58
	한부모·조손	28.83	31.79	31.16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초등생의 경우, 중독유형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일반군은 76.2%이었고, 잠재적 위험군 7.5%, 고위험군 16.3%로 파악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고위험군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아동의 경우 고위험군이 22.1%로 여자아동 10.2%의 2배이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 고위험군이 16.4%로 빈곤가구 11.8%보다 많았

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고위험군이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은 농어촌에 많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의 경우 고위험군이 16.3%로 한부모·조손 12.6%보다 높았다.

〈표 6-29〉 초등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위: %, 명)

구분 (총15항목, 4점척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 (명)	평균
전체		76.2	7.5	16.3	100.0 (1,482,674)	31.5
아동성별	남자	69.4	8.5	22.1	100.0 (759,634)	33.3
	여자	83.4	6.4	10.2	100.0 (723,041)	29.6
소득수준1	빈곤	82.4	5.9	11.8	100.0 (45,123)	29.9
	일반	76.0	7.5	16.4	100.0 (1,501,380)	31.6
소득수준2	기초수급	80.3	8.5	11.2	100.0 (38,091)	30.3
	차상위	98.9	0.0	1.1	100.0 (2,781)	24.2
	일반	76.1	7.5	16.4	100.0 (1,441,844)	31.6
지역	대도시	79.9	9.5	10.6	100.0 (659,823)	30.8
	중소도시	73.3	5.2	21.5	100.0 (768,207)	32.0
	농어촌	73.1	11.3	15.6	100.0 (84,644)	32.8
가족유형	양부모	75.5	8.2	16.3	100.0 (1,310,562)	31.8
	한부모·조손	84.8	2.7	12.6	100.0 (156,141)	28.8

중고생의 경우를 중독유형별로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일반군은 82.5%로 초등생보다 많았다. 잠재적 위험군 8.1%, 고위험군 9.3%로 파악되었다. 즉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중독위험이 있는 경우는 초등생의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고위험군은 성별로는 초등생과 달리 중고생의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은 8-9%대 있고, 소득수준별로는 일반아동이 빈곤아동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가 많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초등생과는 달리 양부모 9.0%보다 한부모·조손이 10.3% 약간 더 높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성향은 연령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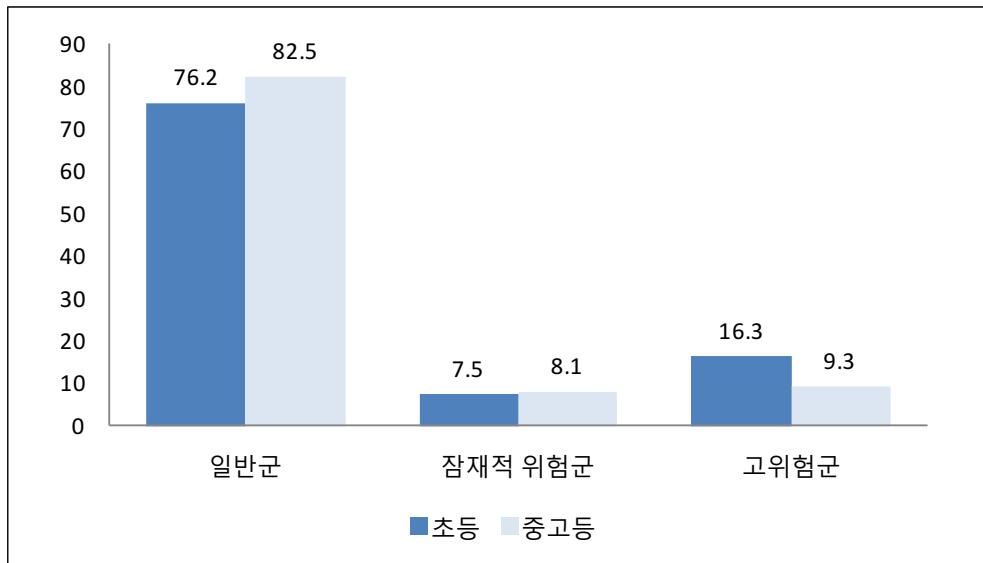
한편 2008년에 비해 중독 고위험군은 1.3%에서 9.3%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잠재 위험군도 1.6%에서 8.1%로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반군은 97.1%에서 82.5%로 14.6%p 감소하여, 지난 5년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율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30〉 중고생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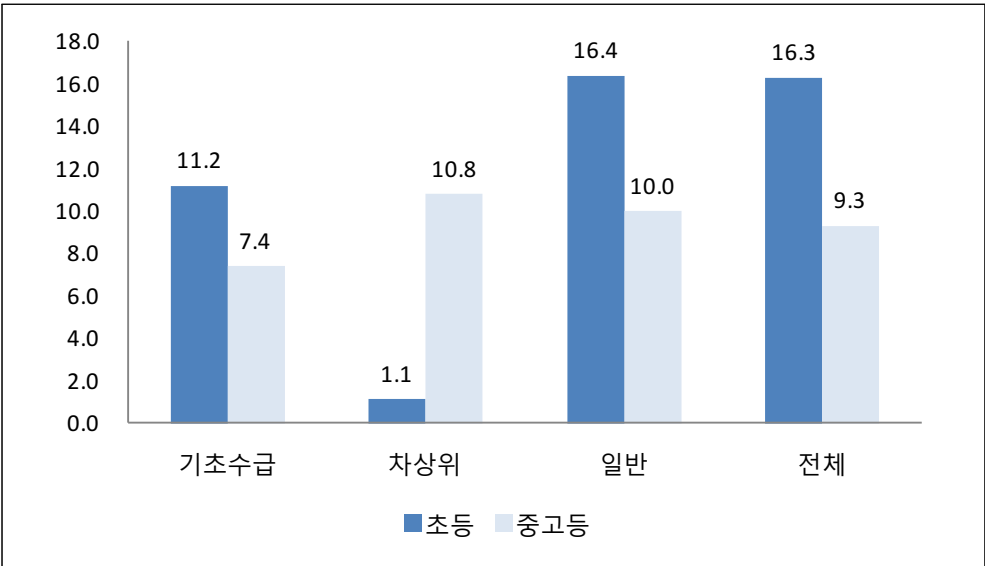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총 15항목, 4점척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계 (명)	평균
전체		82.5	8.1	9.3	100.0 (3,901,899)	32.7
아동성별	남자	81.1	9.1	9.8	100.0 (2,075,189)	32.7
	여자	84.0	7.2	8.8	100.0 (1,826,710)	32.7
소득수준1	빈곤	88.8	5.6	5.6	100.0 (224,023)	31.0
	일반	82.1	8.4	9.5	100.0 (3,734,616)	32.8
소득수준2	기초수급	86.7	6.8	6.5	100.0 (153,293)	31.0
	차상위	93.7	2.0	4.2	100.0 (61,074)	30.8
	일반	82.1	8.4	9.5	100.0 (3,687,531)	32.8
지역	대도시	83.0	9.6	7.4	100.0 (2,317,991)	32.4
	중소도시	82.5	6.7	10.8	100.0 (2,734,351)	32.6
	농어촌	78.3	11.7	10.0	100.0 (332,231)	35.1
가족유형	양부모	82.4	8.5	9.0	100.0 (3,280,614)	32.9
	한부모·조손	82.6	7.1	10.3	100.0 (584,606)	31.8
2008년	12-18세 미만	97.1	1.6	1.3	100.0 (4,572,449)	22.9

[그림 6-8] 학령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유형 비율



[그림 6-9] 소득수준별 고위험군 비율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과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가장 커다란 관계를 보이는 것은 스트레스로 중독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 다음은 학업성적, 학교 만족도 등으로 중독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과 학교만족도도 낮았다. 이 밖에 공격성, 우울, 비속어 사용률은 높았고, 반면 자존감, 인생만족도, 공동체의식, 친구관계 등은 낮았다. 따라서 중독은 아동의 여러 생활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3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

	공격성	우울	자존감	스트레스	인생만족도	행복감	공동체의식
상관계수	.291**	.288**	-.463**	.593**	-.354**	-.387**	-.237**
	비속어사용	학업성적	폭력가해	사이버폭력 가해	보호자와의 관계	학교만족도	친구관계
상관계수	.337***	-.581***	.056**	.122**	-.259**	-.458**	-.302**

제2절 정서

정서(emotion)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이다(국립국어원, 2014). 이는 희로애락과 같은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 또는 기분 등을 말한다.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와의 애착, 기질, 친구수, 아동의 정서지능을 살펴보았다.

1.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부모와의 애착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8년 조사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애착은 0-5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총 4문항,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표 6-32〉 참조).

〈표 6-32〉 부모애착 문항내용

구분	문항내용
부모애착	△△(이)는 어머니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이)는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이)와 어머니가 서로 눈 맞춤을 한다
	△△(이)와 어머니는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분석 결과 2013년 부모애착 평균은 3.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표 6-33 참조). 2008년의 경우는 3.5로 지난 5년간 0.1p 증가하였다.

2013년의 경우는 0-2세의 경우 남아의 애착이 여아보다 높았고, 빈곤층이 일반층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가 약간 더 높았다. 3-5세의 경우는 여아가 3.7로 남아 3.5보다 0.2p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빈곤층이 일반층보다 0.2p 낮았고,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높았다.

〈표 6-33〉 부모애착 수준

(단위: 점)

구분 (4문항, 4점척도) 4점 평균 (SD)		2013년		2008년	
		0-2세	3-5세	0-2세	3-5세
전체		3.6 (0.5)	3.6 (0.5)	3.5 (0.45)	3.4 (0.5)
아동성별	남자	3.7 (0.4)	3.5 (0.5)	-	-
	여자	3.6 (0.5)	3.7 (0.4)	-	-
소득수준1	빈곤	3.7 (0.4)	3.5 (0.5)	-	-
	일반	3.6 (0.5)	3.7 (0.4)	-	-
소득수준2	기초수급	3.6 (0.5)	3.6 (0.5)	3.5 (0.5)	3.4 (0.5)
	차상위	3.6 (0.5)	3.5 (0.5)	3.4 (0.5)	3.3 (0.5)
	일반	3.6 (0.5)	3.6 (0.5)	3.5 (0.5)	3.5 (0.5)
지역	대도시	3.6 (0.5)	3.5 (0.5)	3.5 (0.5)	3.4 (0.4)
	중소도시	3.7 (0.4)	3.6 (0.4)	3.5 (0.5)	3.5 (0.5)
	농어촌	3.7 (0.4)	3.6 (0.4)	3.4 (0.5)	3.5 (0.5)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밑줄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함

다음 4개의 표(표 6-34~표 6-37)에서는 각 문항별로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애착 정도를 제시하였다.

〈표 6-34〉 부모애착1: 반응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0.0	2.7	34.3	63.0	100.0 (2,779,872)	3.60 (0.54)
아동성별	남자	0.0	3.4	36.3	60.3	100.0 (1,470,536)	3.57 (0.56)
	여자	0.0	2.0	32.0	66.0	100.0 (1,309,335)	3.64 (0.52)
연령	0-2세	0.0	3.3	33.2	63.5	100.0 (1,402,562)	3.60 (0.55)
	3-5세	0.0	2.2	35.4	62.5	100.0 (1,377,310)	3.60 (0.53)
소득수준1	빈곤	0.0	1.9	38.5	59.6	100.0 (72,587)	3.58 (0.53)
	일반	0.0	2.8	34.2	63.1	100.0 (2,707,285)	3.60 (0.54)
소득수준2	기초수급	0.0	2.0	38.1	59.9	100.0 (28,677)	3.58 (0.53)
	차상위	0.0	1.8	38.8	59.5	100.0 (43,910)	3.58 (0.53)
	일반	0.0	2.8	34.2	63.1	100.0 (2,707,285)	3.60 (0.54)
지역	대도시	0.0	2.6	41.7	55.8	100.0 (1,204,212)	3.53 (0.55)
	중소도시	0.0	3.1	27.6	69.3	100.0 (1,418,184)	3.66 (0.53)
	농어촌	0.0	0.6	37.8	61.6	100.0 (157,475)	3.61 (0.50)
가족유형	양부모	0.0	2.9	33.7	63.5	100.0 (2,613,829)	3.61 (0.54)
	한부모·조손	0.0	1.2	40.9	57.9	100.0 (144,453)	3.57 (0.5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35〉 부모애착2: 신체접촉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0.0	2.9	31.4	66.5	100.0 (2,779,872)	3.64 (0.52)
아동성별	남자	0.0	0.9	34.9	64.1	100.0 (1,470,536)	3.63 (0.50)
	여자	0.0	3.4	27.4	69.2	100.0 (1,309,335)	3.66 (0.54)
연령	0-2세	0.0	1.9	30.2	68.0	100.0 (1,402,562)	3.66 (0.51)
	3-5세	0.0	2.3	32.7	65.0	100.0 (1,377,310)	3.63 (0.53)
소득수준1	빈곤	0.0	3.9	33.9	62.2	100.0 (72,587)	3.58 (0.57)
	일반	0.0	2.0	31.3	66.6	100.0 (2,707,285)	3.65 (0.52)
소득수준2	기초수급	0.0	2.2	34.9	62.9	100.0 (28,677)	3.61 (0.53)
	차상위	0.0	5.0	33.2	61.8	100.0 (43,910)	3.57 (0.59)
	일반	0.0	2.0	31.3	66.6	100.0 (2,707,285)	3.65 (0.52)
지역	대도시	0.0	2.4	32.6	65.0	100.0 (1,204,212)	3.63 (0.53)
	중소도시	0.0	2.0	30.3	67.7	100.0 (1,418,184)	3.66 (0.51)
	농어촌	0.0	1.0	31.9	67.2	100.0 (157,475)	3.66 (0.49)
가족유형	양부모	0.0	2.2	30.8	67.1	100.0 (2,613,829)	3.65 (0.52)
	한부모·조손	0.0	0.6	38.6	60.8	100.0 (144,453)	3.60 (0.50)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36〉 부모애착3: 눈맞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0.3	2.7	33.8	63.2	100.0 (2,779,589)	3.60 (0.56)
아동성별	남자	0.0	3.5	34.6	62.0	100.0 (1,470,254)	3.59 (0.56)
	여자	0.6	1.9	33.0	64.6	100.0 (1,309,335)	3.61 (0.56)
연령	0-2세	0.6	1.8	30.9	66.7	100.0 (1,402,279)	3.64 (0.55)
	3-5세	0.0	3.7	36.7	59.6	100.0 (1,377,310)	3.56 (0.57)
소득수준 1	빈곤	0.0	3.3	42.8	53.9	100.0 (72,304)	3.51 (0.56)
	일반	0.3	2.7	33.6	63.4	100.0 (2,707,285)	3.60 (0.56)
소득수준 2	기초수급	0.0	3.2	37.7	59.1	100.0 (28,677)	3.56 (0.56)
	차상위	0.0	3.3	46.2	50.5	100.0 (43,628)	3.47 (0.56)
	일반	0.3	2.7	33.6	63.4	100.0 (2,707,285)	3.60 (0.56)
지역	대도시	0.7	2.6	39.4	57.4	100.0 (1,204,212)	3.53 (0.58)
	중소도시	0.0	3.0	28.8	68.3	100.0 (1,417,901)	3.65 (0.54)
	농어촌	0.0	1.1	36.6	62.3	100.0 (157,475)	3.61 (0.51)
가족유형	양부모	0.3	2.7	33.3	63.7	100.0 (2,613,546)	3.60 (0.56)
	한부모·조손	0.0	3.2	41.4	55.4	100.0 (144,453)	3.52 (0.56)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37〉 부모애착4: 상호작용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0.4	1.4	36.6	61.6	100.0 (2,772,591)	3.59 (0.54)
아동성별	남자	0.0	1.8	38.8	59.4	100.0 (1,465,483)	3.58 (0.53)
	여자	0.9	1.0	34.2	63.9	100.0 (1,307,108)	3.61 (0.56)
연령	0-2세	0.6	2.1	33.9	63.4	100.0 (1,397,805)	3.60 (0.56)
	3-5세	0.3	0.7	39.4	59.7	100.0 (1,374,786)	3.58 (0.52)
소득수준1	빈곤	0.0	1.3	42.6	56.1	100.0 (71,878)	3.55 (0.52)
	일반	0.4	1.4	36.5	61.7	100.0 (2,700,713)	3.59 (0.54)
소득수준2	기초수급	0.0	1.2	39.0	59.8	100.0 (28,547)	3.59 (0.52)
	차상위	0.0	1.3	45.0	53.7	100.0 (43,331)	3.52 (0.53)
	일반	0.4	1.4	36.5	61.7	100.0 (2,700,713)	3.59 (0.54)
지역	대도시	1.0	1.0	43.3	54.8	100.0 (1,199,441)	3.52 (0.57)
	중소도시	0.0	1.9	30.5	67.5	100.0 (1,415,675)	3.66 (0.51)
	농어촌	0.0	0.3	40.7	59.0	100.0 (157,475)	3.59 (0.50)
가족유형	양부모	0.5	1.2	35.8	62.5	100.0 (2,611,022)	3.60 (0.54)
	한부모·조손	0.0	5.2	47.6	47.3	100.0 (139,979)	3.42 (0.59)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2. 기질

기질은 2008년에 사용한 활동성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의 기질척도는 Thomas & Chess(1977: 서울대, 2013에서 재인용)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활동적, 순함, 까다로움, 더딤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표 6-38 참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해당하는 기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6-38〉 기질 문항내용

구분	문항내용
기질	우리 △△(이)는 활동적이다 (예: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한다)
	우리 △△(이)는 순하다 (예: 환경이 바뀌어도 잘 적응한다)
	우리 △△(이)는 예민하고 까다롭다 (예: 밤에 자주 깬다)
	우리 △△(이)는 더디다 (예: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동기질 평균은 4점 만점에 ‘활동적이다’의 항목은 3.3~3.4로 되어 있고, ‘순하다’는 3.1,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항목은 1.9~2.3, ‘더디다’는 1.9~2.2로 나타났다(표 6-39 참조). 이를 2008년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약간의 상승적 변화가 있었다. 즉, 아동이 활성성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순함, 예민하고 까다로움, 더딤 등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표 6-39〉 아동의 기질

(단위: 명)

구분 (4점평균)		활동적이다		순하다		예민하고 까다롭다		더디다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2013년	0-2세	3.3	0.6	3.1	0.6	2.3	0.8	2.1	0.8
	3-5세	3.4	0.6	3.1	0.6	2.2	0.8	2.2	0.8
	6-8세	3.4	0.6	3.1	0.6	2.2	0.8	2.1	0.9
2008년	0-2세	3.2	0.7	2.9	0.7	2.1	0.8	2.0	0.7
	3-5세	3.2	0.6	2.9	0.6	2.1	0.7	2.0	0.7
	6-8세	3.1	0.7	3.0	0.6	1.9	0.7	1.9	0.7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다음 4개의 표(표 6-40 ~ 표 6-43)에서는 각 문항별로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의 기질 정도를 제시하였다.

〈표 6-40〉 활동성1: 활동적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0.6	6.5	50.0	43.0	100.0 (4,126,520)	3.35 (0.63)
아동성별	남자	0.9	5.5	48.8	44.8	100.0 (2,127,883)	3.38 (0.63)
	여자	0.3	7.4	51.2	41.0	100.0 (1,998,637)	3.33 (0.62)
연령	0-2세	1.0	6.0	52.4	40.6	100.0 (1,402,562)	3.33 (0.63)
	3-5세	0.0	6.8	48.8	44.3	100.0 (1,400,689)	3.38 (0.61)
	6-8세	0.8	6.6	48.6	44.0	100.0 (1,323,269)	3.36 (0.64)
소득수준1	빈곤	0.5	6.4	50.3	42.8	100.0 (106,426)	3.36 (0.62)
	일반	0.6	6.5	50.0	43.0	100.0 (4,020,094)	3.35 (0.63)
소득수준2	기초수급	0.9	8.5	46.1	44.5	100.0 (52,672)	3.34 (0.67)
	차상위	0.0	4.4	54.4	41.2	100.0 (53,755)	3.37 (0.57)
	일반	0.6	6.5	50.0	43.0	100.0 (4,020,094)	3.35 (0.63)
지역	대도시	0.8	4.8	57.6	36.8	100.0 (1,807,064)	3.30 (0.60)
	중소도시	0.4	8.3	43.5	47.8	100.0 (2,071,103)	3.39 (0.65)
	농어촌	0.0	3.1	49.4	47.5	100.0 (248,354)	3.44 (0.56)
가족유형	양부모	0.6	6.6	49.6	43.3	100.0 (3,838,674)	3.35 (0.63)
	한부모·조손	0.2	6.1	54.1	39.6	100.0 (240,896)	3.33 (0.60)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41〉 활동성2: 순하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0.8	12.6	60.3	26.3	100.0 (4,126,884)	3.12 (0.64)
아동성별	남자	0.7	13.3	60.1	26.0	100.0 (2,128,246)	3.11 (0.64)
	여자	1.0	11.8	60.6	26.6	100.0 (1,998,637)	3.13 (0.64)
연령	0-2세	1.1	14.2	62.4	22.3	100.0 (1,402,562)	3.06 (0.64)
	3-5세	0.5	12.8	58.0	28.7	100.0 (1,401,053)	3.15 (0.64)
	6-8세	0.9	10.7	60.6	27.8	100.0 (1,323,269)	3.15 (0.63)
소득수준1	빈곤	0.6	12.1	62.4	24.8	100.0 (106,790)	3.12 (0.62)
	일반	0.8	12.6	60.3	26.3	100.0 (4,020,094)	3.12 (0.64)
소득수준2	기초수급	0.7	13.9	59.2	26.2	100.0 (52,672)	3.11 (0.65)
	차상위	0.5	10.4	65.6	23.5	100.0 (54,118)	3.12 (0.59)
	일반	0.8	12.6	60.3	26.3	100.0 (4,020,094)	3.12 (0.64)
지역	대도시	0.6	12.9	63.0	23.5	100.0 (1,807,427)	3.09 (0.62)
	중소도시	0.9	12.4	58.8	27.9	100.0 (2,071,103)	3.14 (0.65)
	농어촌	1.7	11.8	53.2	33.2	100.0 (248,354)	3.18 (0.70)
가족유형	양부모	0.8	12.4	59.9	26.8	100.0 (3,839,037)	3.13 (0.64)
	한부모·조손	0.9	17.4	63.8	17.9	100.0 (240,896)	2.99 (0.62)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42〉 활동성3: 예민하고 까다롭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17.2	51.5	24.0	7.3	100.0 (4,126,884)	2.21 (0.81)
아동성별	남자	16.4	52.3	23.7	7.6	100.0 (2,128,246)	2.23 (0.81)
	여자	18.1	50.6	24.4	6.9	100.0 (1,998,637)	2.20 (0.81)
연령	0-2세	14.3	52.9	25.1	7.7	100.0 (1,402,562)	2.26 (0.80)
	3-5세	17.0	51.9	24.2	7.0	100.0 (1,401,053)	2.21 (0.80)
	6-8세	20.5	49.6	22.7	7.2	100.0 (1,323,269)	2.17 (0.83)
소득수준1	빈곤	17.4	50.9	23.2	8.5	100.0 (106,790)	2.23 (0.83)
	일반	17.2	51.5	24.1	7.2	100.0 (4,020,094)	2.21 (0.81)
소득수준2	기초수급	16.7	51.0	23.9	8.5	100.0 (52,672)	2.24 (0.83)
	차상위	18.1	50.9	22.5	8.5	100.0 (54,118)	2.21 (0.84)
	일반	17.2	51.5	24.1	7.2	100.0 (4,020,094)	2.21 (0.81)
지역	대도시	13.9	54.7	23.9	7.6	100.0 (1,807,427)	2.25 (0.79)
	중소도시	20.5	48.9	24.4	6.2	100.0 (2,071,103)	2.16 (0.82)
	농어촌	14.2	49.6	22.2	14.0	100.0 (248,354)	2.36 (0.89)
가족유형	양부모	17.5	51.7	23.6	7.2	100.0 (3,839,037)	2.21 (0.81)
	한부모·조손	9.9	52.8	29.4	8.0	100.0 (240,896)	2.35 (0.77)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표 6-43〉 활동성4: 더디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23.7	45.5	26.0	4.9	100.0 (4,117,462)	2.12 (0.82)
아동성별	남자	22.3	46.2	26.5	5.0	100.0 (2,128,246)	2.14 (0.82)
	여자	25.2	44.7	25.4	4.7	100.0 (1,989,216)	2.10 (0.83)
연령	0-2세	22.4	49.7	24.5	3.4	100.0 (1,402,562)	2.09 (0.77)
	3-5세	22.4	46.0	25.8	5.8	100.0 (1,397,072)	2.15 (0.83)
	6-8세	26.4	40.4	27.8	5.4	100.0 (1,317,829)	2.12 (0.86)
소득수준1	빈곤	19.4	42.0	32.7	5.8	100.0 (106,790)	2.25 (0.83)
	일반	23.8	45.6	25.8	4.8	100.0 (4,010,672)	2.12 (0.82)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0	45.3	28.3	6.4	100.0 (52,672)	2.21 (0.83)
	차상위	18.9	38.8	37.1	5.3	100.0 (54,118)	2.29 (0.83)
	일반	23.8	45.6	25.8	4.8	100.0 (4,010,672)	2.12 (0.82)
지역	대도시	20.7	45.7	28.9	4.7	100.0 (1,801,987)	2.18 (0.81)
	중소도시	27.3	44.9	22.8	5.0	100.0 (2,067,122)	2.05 (0.83)
	농어촌	15.2	48.6	31.2	5.0	100.0 (248,354)	2.26 (0.77)
가족유형	양부모	24.3	45.2	25.7	4.9	100.0 (3,835,056)	2.11 (0.83)
	한부모·조손	15.8	54.0	26.1	4.1	100.0 (235,455)	2.19 (0.74)

주: 4점 척도(1 전혀그렇지 않다, 4 매우그렇다)

3. 친구수

아동(3-8세)의 친구 수는 3-5명이 가장 많은 51.9%이고, 그 다음은 1-2명으로 21.5%이다(표 6-44 참조). 6-10명은 14.9%으로 파악되었다. 친구가 없는 경우는 4.7%로 파악되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친구수의 분포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표 6-44〉 친구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2명	3~5명	6~10명	11명 이상	계 (명)
전체		4.7	21.5	51.9	14.9	7.0	100.0 (2,755,815)
아동성별	남자	5.8	20.2	52.5	14.3	7.2	100.0 (1,414,932)
	여자	3.4	22.8	51.3	15.7	6.7	100.0 (1,340,882)
연령	3-5세	5.6	27.9	48.1	12.9	5.6	100.0 (1,406,161)
	6-8세	3.7	14.8	56.0	17.1	8.5	100.0 (1,349,653)
소득수준1	빈곤	5.5	24.8	42.5	15.6	11.6	100.0 (80,790)
	일반	4.6	21.4	52.2	14.9	6.8	100.0 (2,675,025)
소득수준2	기초수급	5.3	25.1	49.1	14.7	5.8	100.0 (41,097)
	차상위	5.6	24.5	35.6	16.5	17.7	100.0 (39,693)
	일반	4.6	21.4	52.2	14.9	6.8	100.0 (2,675,025)
지역	대도시	5.1	21.3	53.6	14.8	5.3	100.0 (1,177,245)
	중소도시	4.5	21.5	51.6	14.7	7.7	100.0 (1,410,772)
	농어촌	2.6	22.6	43.5	18.1	13.2	100.0 (167,798)
가족유형	양부모	4.6	21.8	51.9	15.1	6.6	100.0 (2,544,286)
	한부모·조손	7.1	18.2	50.6	12.8	11.3	100.0 (176,380)
2008년	3-5세	1.5	19.7	52.1	26.8		100.0 (1,411,213)
	6-8세	0.4	12.2	49.4	38.0		100.0 (1,745,078)

4. 정서지능

정서지능(EQ: Emotional Quotient)이란 Salovey와 Mayer(1990)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이다. 그들에 의하면 정서지능이란 사회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monitor)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discriminate)하며, 생각(thinking)하고 행동(actions)하는데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ability)이라고 정의된다(서울대, 2013에서 재인용). 정서지능은 1995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Salovey와 Mayer(1990)의 정서지능 모형을 기초로 하여 문용린(1996, 1997)이 정서인식 능력, 정서표현 능력, 정서조절 능력, 정서활용 능력 등 다섯 가지 영역과 능력으로 구분하여 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하였다(서울대, 2013에서 재인용).

2008년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용린(1996)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용 정서지능 진단 검사지의 일부분항을 사용하였다(서울대, 2013년에서 재인용). 2013년 조사에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로 명명된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다음 <표 6-45>와 같다.

<표 6-45> 정서지능 문항내용

구분	문항내용
정서인식	우리 △△(이)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정서표현	우리 △△(이)는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낀다
감정이입	우리 △△(이)는 친구가 울 때 친구의 기분을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정서조절	놀이터에서 친구가 밀었을 때, 우리 △△(이)는 화가 나지만 참는다

주: 4점 척도로 측정

분석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대체적으로 평균은 2.6~3.1의 사이에 있다(표 6-46 참조). 4유형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정서지능은 정서인식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이입, 정서표현, 정서조절 등의 순이었다. 2008년과 비교하면(1.9~3.1) 모든 항목에서 지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서지능 수준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46〉 연령대별 정서지능비교

(단위: 점수)

구분 (4점평균)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2013년	3-5세	3.0	0.7	2.6	0.8	2.7	0.7	2.7	0.7
	6-8세	3.1	0.6	2.9	0.8	2.9	0.6	2.7	0.7
	9-11세	2.9	0.7	2.8	0.7	2.9	0.7	2.6	0.7
	12-17세	2.8	0.7	2.7	0.7	2.9	0.7	2.7	0.7
2008년	0-2세	2.7	0.8	1.8	0.8	2.0	0.9	1.9	0.8
	3-5세	3.1	0.6	2.4	0.7	2.7	0.7	2.5	0.7
	6-8세	3.1	0.6	2.7	0.7	2.8	0.6	2.6	0.6
	12-18세	2.8	0.4	2.7	0.5	2.8	0.4	2.6	0.6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다음 4개의 표(표 6-47 ~ 표 6-50)에서는 각 문항별로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의 정서지능 정도를 제시하였다.

〈표 6-47〉 정서지능1: 정서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SD)
전체		1.5	11.6	63.2	23.6	100.0 (2,756,876)	3.09 (0.64)
아동성별	남자	1.7	11.9	64.7	21.7	100.0 (1,415,994)	3.07 (0.63)
	여자	1.3	11.4	61.7	25.6	100.0 (1,340,882)	3.12 (0.64)
연령	3-5세	2.0	14.7	60.7	22.7	100.0 (1,407,273)	3.04 (0.67)
	6-8세	1.0	8.5	65.9	24.6	100.0 (1,349,603)	3.14 (0.59)
소득수준1	빈곤	1.5	15.3	61.6	21.6	100.0 (81,852)	3.03 (0.66)
	일반	1.5	11.5	63.3	23.7	100.0 (2,675,025)	3.09 (0.63)
소득수준2	기초수급	1.9	8.4	62.6	27.2	100.0 (41,047)	3.15 (0.64)
	차상위	1.2	22.3	60.5	16.0	100.0 (40,805)	2.91 (0.65)
	일반	1.5	11.5	63.3	23.7	100.0 (2,675,025)	3.09 (0.63)
지역	대도시	1.7	9.9	64.4	24.0	100.0 (1,178,357)	3.11 (0.63)
	중소도시	1.3	14.0	61.7	23.0	100.0 (1,410,772)	3.06 (0.65)
	농어촌	1.2	4.2	68.0	26.6	100.0 (167,747)	3.20 (0.56)
가족유형	양부모	1.4	11.6	62.6	24.4	100.0 (2,545,398)	3.10 (0.64)
	한부모·조손	3.3	14.2	65.4	17.2	100.0 (176,330)	2.96 (0.67)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표 6-48〉 정서지능2: 정서표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6.3	30.0	48.9	14.9	100.0 (2,756,711)	2.72 (0.79)
아동성별	남자	6.9	28.8	50.8	13.5	100.0 (1,415,829)	2.71 (0.78)
	여자	5.6	31.3	46.8	16.3	100.0 (1,340,882)	2.74 (0.79)
연령	3-5세	7.8	36.7	44.9	10.6	100.0 (1,407,108)	2.58 (0.78)
	6-8세	4.7	23.0	53.0	19.3	100.0 (1,349,603)	2.87 (0.77)
소득수준1	빈곤	4.1	33.5	48.6	13.8	100.0 (81,686)	2.72 (0.75)
	일반	6.3	29.9	48.9	14.9	100.0 (2,675,025)	2.72 (0.79)
소득수준2	기초수급	5.2	24.0	52.6	18.1	100.0 (40,882)	2.84 (0.78)
	차상위	3.0	42.9	44.6	9.5	100.0 (40,805)	2.61 (0.70)
	일반	6.3	29.9	48.9	14.9	100.0 (2,675,025)	2.72 (0.79)
지역	대도시	5.0	30.8	47.4	16.8	100.0 (1,178,357)	2.76 (0.79)
	중소도시	7.2	30.2	50.0	12.6	100.0 (1,410,606)	2.68 (0.78)
	농어촌	7.4	22.6	50.1	20.0	100.0 (167,747)	2.83 (0.83)
가족유형	양부모	6.4	30.0	48.4	15.2	100.0 (2,545,280)	2.72 (0.80)
	한부모·조손	4.4	35.4	52.0	8.2	100.0 (176,283)	2.64 (0.69)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표 6-49〉 정서지능3: 감정이입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2.4	24.7	60.1	12.9	100.0 (2,756,711)	2.83 (0.67)
아동성별	남자	2.3	26.0	59.2	12.5	100.0 (1,415,829)	2.82 (0.67)
	여자	2.4	23.3	61.0	13.3	100.0 (1,340,882)	2.85 (0.66)
연령	3-5세	3.0	30.7	56.8	9.5	100.0 (1,407,108)	2.73 (0.67)
	6-8세	1.7	18.5	63.5	16.3	100.0 (1,349,603)	2.94 (0.64)
소득수준1	빈곤	2.2	30.4	54.5	12.8	100.0 (81,686)	2.78 (0.69)
	일반	2.4	24.5	60.2	12.9	100.0 (2,675,025)	2.84 (0.66)
소득수준2	기초수급	2.6	26.4	55.7	15.3	100.0 (40,882)	2.84 (0.70)
	차상위	1.8	34.4	53.4	10.4	100.0 (40,805)	2.72 (0.67)
	일반	2.4	24.5	60.2	12.9	100.0 (2,675,025)	2.84 (0.66)
지역	대도시	2.6	22.5	61.3	13.7	100.0 (1,178,357)	2.86 (0.67)
	중소도시	2.3	26.8	59.1	11.8	100.0 (1,410,606)	2.80 (0.66)
	농어촌	1.3	22.8	60.3	15.6	100.0 (167,747)	2.90 (0.65)
가족유형	양부모	2.3	25.1	59.8	12.8	100.0 (2,545,280)	2.83 (0.66)
	한부모·조손	4.0	22.5	59.3	14.1	100.0 (176,283)	2.84 (0.71)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표 6-50〉 정서지능4: 정서조절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4점 평균 (SD)
전체		3.0	33.0	55.0	8.9	100.0 (2,756,829)	2.70 (0.67)
아동성별	남자	2.8	32.5	56.3	8.5	100.0 (1,415,947)	2.70 (0.66)
	여자	3.3	33.6	53.7	9.4	100.0 (1,340,882)	2.69 (0.68)
연령	3-5세	3.5	35.7	53.6	7.2	100.0 (1,407,226)	2.64 (0.66)
	6-8세	2.6	30.1	56.5	10.8	100.0 (1,349,603)	2.76 (0.67)
소득수준1	빈곤	1.8	36.7	54.3	7.1	100.0 (81,805)	2.67 (0.63)
	일반	3.1	32.9	55.1	9.0	100.0 (2,675,025)	2.70 (0.67)
소득수준2	기초수급	3.4	30.4	58.2	8.0	100.0 (41,000)	2.71 (0.66)
	차상위	0.3	43.0	50.5	6.2	100.0 (40,805)	2.63 (0.60)
	일반	3.1	32.9	55.1	9.0	100.0 (2,675,025)	2.70 (0.67)
지역	대도시	2.2	30.3	59.0	8.5	100.0 (1,178,357)	2.74 (0.64)
	중소도시	3.6	35.0	52.2	9.2	100.0 (1,410,725)	2.67 (0.69)
	농어촌	4.2	35.0	50.7	10.1	100.0 (167,747)	2.67 (0.71)
가족유형	양부모	2.8	33.5	54.6	9.1	100.0 (2,545,398)	2.70 (0.67)
	한부모·조손	6.4	29.0	58.3	6.3	100.0 (176,283)	2.65 (0.70)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다음 2개의 표(표 6-51 ~ 표 6-52)에서는 9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직접 응답한 정서지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9-11세의 경우 정서인식은 남자가,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은 여자가 더 높았다. 일반가구가 정서지능이 높았는데, 단 정서표현의 경우 차상위 가구아동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가족유형별로는 정서인식 및 감정이입에서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경우가 높았다.

12-18세 미만의 경우 감정이입은 여자 아동이 높았고, 차상위가구 아동의 경우의 정서지능이 높은 항목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별로 없고, 가족유형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51〉 정서지능(9-11세)

(단위: 점수)

구분 (4점평균)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체		2.9	0.7	2.9	0.7	2.9	0.7	2.6	0.7
아동 성별	남자	2.9	0.7	2.8	0.7	2.8	0.7	2.6	0.7
	여자	2.8	0.7	2.9	0.7	2.9	0.8	2.7	0.7
소득 수준1	빈곤	2.8	0.8	2.8	0.8	2.8	0.8	2.6	0.7
	일반	2.9	0.7	2.9	0.7	2.9	0.7	2.6	0.7
소득 수준2	기초수급	2.8	0.8	2.7	0.8	2.8	0.8	2.6	0.8
	차상위가구	2.9	0.6	3.4	0.8	2.9	0.5	2.8	0.6
	일반	2.9	0.7	2.9	0.7	2.9	0.7	2.6	0.7
지역	대도시	2.9	0.7	2.9	0.8	2.9	0.7	2.7	0.7
	중소도시	2.9	0.7	2.9	0.7	2.8	0.7	2.6	0.7
	농어촌	2.9	0.7	2.7	0.8	2.9	0.6	2.7	0.7
가족 유형	양부모	2.9	0.7	2.9	0.7	2.9	0.7	2.7	0.7
	한부모·조손	3.0	0.6	2.9	0.8	3.0	0.7	2.7	0.7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표 6-52〉 정서지능(12-17세)

(단위: 점수)

구분 (4점평균)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체		2.8	0.7	2.7	0.7	2.9	0.7	2.7	0.7
아동 성별	남자	2.8	0.7	2.7	0.8	2.8	0.7	2.7	0.7
	여자	2.8	0.7	2.8	0.7	3.0	0.7	2.7	0.7
소득 수준1	빈곤	2.9	0.7	2.7	0.7	2.9	0.7	2.7	0.7
	일반	2.8	0.7	2.7	0.7	2.9	0.7	2.7	0.7
소득 수준2	기초수급	2.9	0.7	2.7	0.8	2.9	0.7	2.6	0.7
	차상위가구	2.9	0.7	2.9	0.6	3.0	0.7	2.8	0.6
	일반	2.8	0.7	2.7	0.7	2.9	0.7	2.7	0.7
지역	대도시	2.8	0.7	2.7	0.8	2.8	0.7	2.7	0.7
	중소도시	2.8	0.7	2.8	0.7	2.9	0.6	2.7	0.7
	농어촌	2.9	0.6	2.6	0.7	2.8	0.7	2.7	0.6
가족 유형	양부모	2.8	0.7	2.7	0.7	2.9	0.7	2.7	0.7
	한부모·조손	2.9	0.7	2.7	0.8	2.9	0.7	2.7	0.7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의 사회성과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성 중 공격성이나 우울 및 불안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2 차원 모두 1.3에 불과하여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존감과 유능감은 4점 만점에 각 2.95와 2.75로 파악되었다. 자존감 수준은 지난 5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트레스의 경우 비교적 중간 이하 수준(4점 평균: 2.1)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특히 성적, 학업 및 시험 등이나 부모와의 관계상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반면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다. 고연령 및 중소도시 거주 아동의 스트레스가 더 유의하게 높았다.

공동체의식은 4점 평균 2.12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5점 환산점수가 3.3, 10점 만점 6.1로 낮은 편이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행복감도 4점 평균 3.03으로 중간정도로 파악되었다. 이는 2008년 3.05과 거의 유사한 수치이다. 특히 고연령, 저소득층, 농어촌거주,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의 행복감 수준이 낮았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60점 만점에 32.4로 중간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고위험군은 초등생이 16%이고 중고생이 9%대로 높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지난 5년간 중독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였다는데 있다. 특히, 남아, 초등생, 일반아동, 농어촌가구 아동의 점수가 높아 이 대상에 대한 중독 관리가 필요하다. 잠재위험군도 7-8% 정도 이어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정서측면에서는 부모애착은 5년 전보다 0.1p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아동성별 및 지역별 차이가 발견되어 여아가 그리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아동이 부모애착이 높았다. 아동의 기질은 4항목 중 활동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순함, 예민하고 까다로움 및 더듬의 순이었다. 2008년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약간 상승하여 아동의 활동적 특성과 기타 기질적 특성이 더 뚜렷하게 표현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에 있어서는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표현, 정소조절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5년 전보다 약간씩 점수가 상승하여 정서지능이 더 개발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행동은 지난 5년간의 변화는 크지는 않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편은 아니다. 단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서 중독수준이 급상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소득수준별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의 차이가 유의하여, 취약계층 아동 및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OECD 국가 기준 삶의 만족도 수준이 회원국 중 최하위이므로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7장

인지 및 언어생활

제1절 인지

제2절 언어

제3절 학업성취

제4절 소결

본 장은 9세에서 17세까지 우리나라 아동의 인지발달수준, 언어발달 수준 및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였다. 인지발달수준과 언어발달수준은 본 연구를 위해 자체개발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이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지발달수준과 언어발달수준은 0세에서 8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수준을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관적인 학업성취도는 9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본인이 인식하는 학업성취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1절 인지

1. 전반적 인지 발달 수준

0세에서 8세까지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동은 평균 3.4 정도의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발달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비슷하다’와 ‘빠른 편이다’의 사이의 값이며, ‘비슷하다’에 약간 더 가까운 값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평균 인지발달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동은 전반적인 인지발달 수준이 평균 3.2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아동은 인지발달수준이 평균 3.4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속하는 아동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일반가구에 속하는 아동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속하는 아동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인지발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가구(10.7%)와 차상위가구(11.4%)는 전반적인 인지발달 수준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느린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2.0%)에 비해 높다. 한부모·조손가족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인지발달 수준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느린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양부모가족(2.0%)에 비해 3.5% 가량 더 높다. 즉, 차상위가구나

기초수급가구 및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이 일반가구 및 양부모가족의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 약간 낮으며, 또래 아동에 비해 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1〉 전반적 인지 발달 수준(0-8세)

(단위: %, 명)

구분		매우 느린편이다	느린편이다	비슷하다	빠른편이다	매우 빠른편이다	계 (명)	평균(SD)
전체		0.2	2.3	56.8	36.0	4.8	100.0 (9,678,277)	3.43(0.63)
아동 성별	남자	0.2	3.4	55.4	36.3	4.8	100.0 (5,049,157)	3.40(0.60)
	여자	0.2	1.1	58.3	35.6	4.8	100.0 (4,629,120)	3.40(0.60)
연령	0-2세	0.0	0.8	61.2	33.8	4.1	100.0 (1,407,369)	3.40(0.60)
	3-5세	0.2	3.2	53.2	37.6	5.8	100.0 (1,407,945)	3.50(0.70)
	6-8세	0.3	2.8	56.0	36.6	4.4	100.0 (1,357,821)	3.40(0.60)
소득수준1	빈곤	0.8	11.0	57.7	26.7	3.8	100.0 (376,738)	3.20(0.70)
	일반	0.2	2.0	56.8	36.2	4.8	100.0 (9,301,539)	3.40(0.60)
소득수준2	기초수급	1.6	10.7	58.5	25.2	4.0	100.0 (247,664)	3.20(0.80)
	차상위	0.0	11.4	56.9	28.1	3.7	100.0 (129,073)	3.20(0.70)
	일반	0.2	2.0	56.8	36.2	4.8	100.0 (9,301,539)	3.40(0.60)
지역	대도시	0.2	2.0	56.5	37.1	4.2	100.0 (4,218,761)	3.40(0.60)
	중소도시	0.2	2.4	57.6	34.3	5.6	100.0 (4,869,141)	3.40(0.60)
	농어촌	0.0	3.2	52.3	42.1	2.4	100.0 (590,375)	3.40(0.60)
가족유형	양부모	0.2	2.0	56.8	35.9	5.1	100.0 (8,565,684)	3.40(0.60)
	한부모·조손	0.2	5.6	59.0	34.4	0.9	100.0 (1,012,991)	3.30(0.60)

주: 전반적 인지 발달 수준은 아동이 0-8세 인 경우에만 부모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제2절 언어

1. 전반적 언어 발달 수준

0세에서 8세까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은 평균 3.41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비슷하다’와 ‘빠른 편이다’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평균 언어발달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동은 전반적인 언어발달 수준이 평균 3.20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아동은 언어발달수준이 평균 3.40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속하는 아동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일반가구에 속하는 아동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속하는 아동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언어발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가구(11.6%)와 차상위가구(12.4%)는 전반적인 언어발달 수준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느린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2.2%)에 비해 높다. 한부모·조손가족(5.4%)도 전반적인 언어발달 수준이 또래 아동과 비교해서 ‘느린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양부모가족(2.1%)에 비해 높다. 즉,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이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이나 차상위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에 속하는 아동에 비해,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이 양부모가구에 속하는 아동에 비해 약간 더 낮으며 느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인지발달과 마찬가지로,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가구 및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이 일반가구 및 양부모가족의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 또한 약간 느리다고 볼 수 있다.

〈표 7-2〉 전반적 언어 발달 수준(0-8세)

(단위: %, 명)

구분		매우 느린편이다	느린편이다	비슷하다	빠른편이다	매우 빠른편이다	계 (명)	평균(SD)
전체		0.2	2.4	58.6	33.4	5.4	100.0 (9,678,277)	3.41(0.64)
아동 성별	남자	0.2	3.6	56.4	34.2	5.6	100.0 (5,049,157)	3.40(0.70)
	여자	0.2	1.3	61.0	32.4	5.2	100.0 (4,629,120)	3.40(0.60)
연령	0-2세	0.0	2.8	66.4	27.3	3.5	100.0 (1,407,369)	3.30(0.60)
	3-5세	0.2	3.1	52.5	36.3	8.0	100.0 (1,407,945)	3.50(0.70)
	6-8세	0.3	1.4	56.9	36.6	4.8	100.0 (1,357,821)	3.40(0.60)
소득수준1	빈곤	1.1	12.0	57.6	24.4	4.9	100.0 (376,738)	3.20(0.80)
	일반	0.2	2.2	58.6	33.6	5.4	100.0 (9,301,539)	3.40(0.60)
소득수준2	기초수급	1.7	11.6	58.1	24.1	4.5	100.0 (247,664)	3.20(0.80)
	차상위	0.5	12.4	57.1	24.7	5.3	100.0 (129,073)	3.20(0.80)
	일반	0.2	2.2	58.6	33.6	5.4	100.0 (9,301,539)	3.40(0.60)
지역	대도시	0.2	2.2	58.2	34.7	4.7	100.0 (4,218,761)	3.40(0.60)
	중소도시	0.2	2.5	59.5	31.7	6.2	100.0 (4,869,141)	3.40(0.70)
	농어촌	0.0	3.9	54.0	37.5	4.6	100.0 (590,375)	3.40(0.60)
가족유형	양부모	0.2	2.1	58.4	33.8	5.5	100.0 (8,565,684)	3.40(0.70)
	한부모·조손	0.3	5.5	61.1	31.4	1.8	100.0 (1,012,991)	3.40(0.60)

주: 전반적 언어 발달 수준은 아동이 0-8세 인 경우에만 부모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2. 비속어 사용빈도

9세에서 18세 미만까지 아동의 비속어 사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11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끔 사용한다’ 범주와 ‘자주 사용한다’ 범주 사이의 값을 나타내지만 ‘가끔 사용한다’ 범주에 더욱 가까운 값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아동의 평균 비속어 사용빈도가 차이난다. 남자가 여자보다, 아동의 연령이 12세와 17세 사이인 집단이 9세와 11세 사이의 집단보다 비속어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속어 사용빈도는 대도시와 농어촌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과 중소도시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중소도시에 살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속어 사용빈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비속어 사용빈도(9-17세)

(단위: %, 명)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매일 사용한다	계 (명)	평균(SD)
전체		20.0	54.6	20.4	5.1	100.0 (5,505,142)	2.11(0.77)
아동 성별	남자	15.4	58.5	20.4	5.8	100.0 (2,897,704)	2.17(0.75)
	여자	25.1	50.2	20.4	4.3	100.0 (2,607,438)	2.04(0.79)
연령	9-11세	32.8	53.2	9.6	4.4	100.0 (1,546,503)	1.86(0.76)
	12-17세	15.0	55.1	24.6	5.4	100.0 (3,958,639)	2.20(0.75)
소득수준1	빈곤	19.8	49.5	25.1	5.7	100.0 (269,146)	2.28(0.81)
	일반	20.0	54.8	20.1	5.1	100.0 (5,235,996)	2.12(0.81)
소득수준2	기초수급	22.1	48.2	24.9	4.8	100.0 (194,415)	2.10(0.77)
	차상위	13.7	53.0	25.5	7.9	100.0 (74,731)	2.28(0.81)
	일반	20.0	54.8	20.1	5.1	100.0 (5,235,996)	2.12(0.81)
지역	대도시	22.9	56.9	16.6	3.6	100.0 (2,404,831)	2.01(0.73)
	중소도시	16.8	53.0	23.5	6.6	100.0 (2,761,142)	2.20(0.79)
	농어촌	24.6	50.3	21.2	3.9	100.0 (339,169)	2.04(0.78)
가족유형	양부모	20.5	54.3	19.8	5.4	100.0 (4,680,979)	2.10(0.78)
	한부모·조손	17.8	53.2	25.2	3.7	100.0 (771,512)	2.15(0.75)

3.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

〈표 7-4〉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9-17세)

(단위: %, 명)

구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계 (명)
전체		27.6	65.5	6.9	100.0 (5,498,421)
성별	남자	25.4	65.1	9.5	100.0 (2,890,983)
	여자	29.9	66.0	4.1	100.0 (2,607,438)
연령	9-11세	43.2	50.2	6.6	100.0 (1,542,281)
	12-17세	21.5	71.5	7.0	100.0 (3,956,140)
소득수준 ¹	빈곤	30.7	64.4	4.9	100.0 (269,146)
	일반	27.4	65.6	7.0	100.0 (5,229,275)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28.2	65.8	6.0	100.0 (194,415)
	차상위	37.1	60.8	2.1	100.0 (74,731)
	일반	27.4	65.6	7.0	100.0 (5,229,275)
지역	대도시	34.1	60.2	5.7	100.0 (2,398,110)
	중소도시	21.6	70.1	8.2	100.0 (2,761,142)
	농어촌	29.5	65.5	5.0	100.0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27.2	65.6	7.3	100.0 (4,674,258)
	한부모·조손	29.8	65.0	5.1	100.0 (771,512)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은 9세에서 18세미만의 아동을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가 2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6.9%로 나타났다. 각 범주에 응답한 비율에 대한 경향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지역에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9세에서 18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패턴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생각의 각 범주는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일수록, 어릴수록,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농어촌간에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에 응답한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농어촌 보다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에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속어를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범주의 경우, 연령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 및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비속어는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와 농어촌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가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속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성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비속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아동이 어릴수록 비속어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속어 사용에 대해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제3절 학업성취

1. 주관적 학업성취도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보면 6.43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국어과목이 6.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학이 6.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9-11세=6.91점, 12-17세=6.25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학과 영어 과목의 경우 소득수준별, 가족형태별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가구 아동의 수학 및 영어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6.25점과 6.36점으로 나타났으나, 차상위가구 아동의 경우 4.46점과 4.90점,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5.21점과 5.26점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가 6.31점과 6.44점으로 나타났으나,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5.48점과 5.43점으로 나타났다.

〈표 7-5〉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9-17세)

(단위: 점수, 명)

구분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명 ⁹⁾
전체		6.43	6.63	6.19	6.30	6.47	6.35	5,460,982
아동성별	남자	6.40	6.48	6.28	6.31	6.39	6.43	2,883,053
	여자	6.47	6.79	6.10	6.30	6.55	6.26	2,577,930
연령	9-11세	6.91	6.99	6.89	6.87	6.81	6.85	1,539,897
	12-17세	6.25	6.48	5.92	6.08	6.33	6.16	3,921,086
소득수준 ¹⁾	빈곤	5.49	5.94	5.00	5.16	5.75	5.47	265,811
	일반	6.48	6.66	6.25	6.36	6.50	6.40	5,195,171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5.58	6.00	5.21	5.26	5.78	5.50	192,355
	차상위	5.28	5.79	4.46	4.90	5.67	5.39	73,456
	일반	6.48	6.66	6.25	6.36	6.50	6.40	5,195,171
거주지역	대도시	6.31	6.48	6.05	6.29	6.38	6.29	2,399,851
	중소도시	6.52	6.74	6.29	6.30	6.54	6.38	2,728,095
	농어촌	6.59	6.69	6.39	6.44	6.44	6.53	333,036
가족유형	양부모	6.56	6.73	6.31	6.44	6.56	6.46	4,642,645
	한부모·조손	5.63	5.99	5.48	5.43	5.91	5.69	765,687

주: 10점 척도, 최소값=1(매우 못함), 최대값=10(매우 잘함)

연령별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9-11세 아동의 경우, 과목별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여자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12-17세 아동은 국어 과목에 대한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6.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학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5.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2-17세 아동은 수학과목을 제외하고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9) 각 문항별 응답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표 7-6〉 연령별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9-1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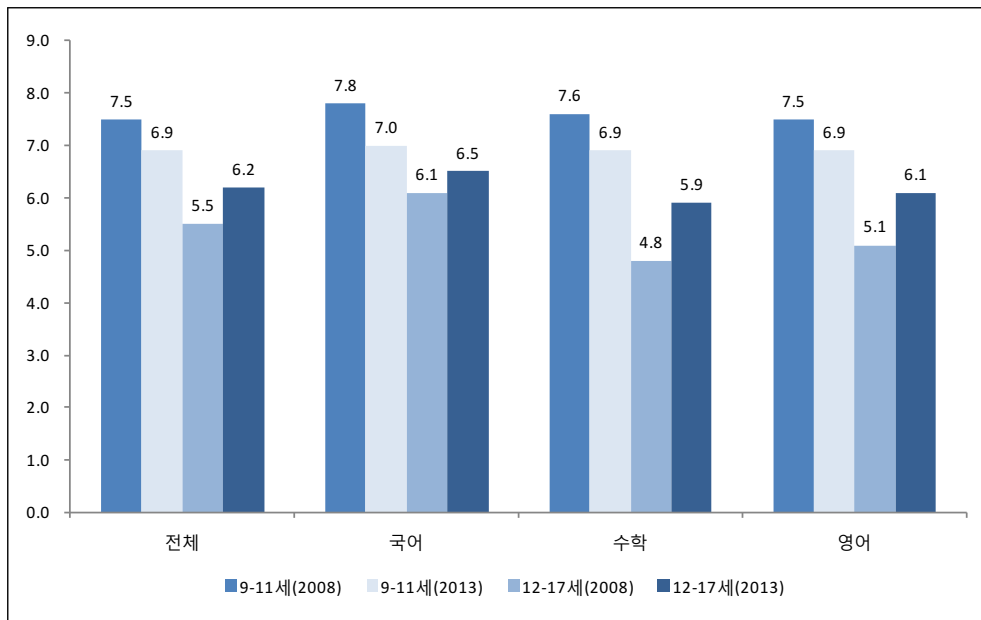
(단위: 점수)

구분	전체	아동성별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남자	여자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9-11세								
전체	6.91	6.72	7.11	6.12	6.93	6.07	6.46	6.93
국어	6.99	6.71	7.28	6.61	7.00	6.60	6.65	7.00
수학	6.89	6.80	6.98	5.83	6.92	5.80	6.00	6.92
영어	6.87	6.63	7.13	5.72	6.90	5.79	5.26	6.90
사회	6.81	6.65	6.99	6.15	6.83	6.07	6.70	6.83
과학	6.85	6.77	6.94	5.97	6.88	5.95	6.13	6.88
명 ¹⁰⁾	1,539,897	792,126	747,771	44,462	1,495,435	38,742	5,720	1,495,435
12-17세								
전체	6.25	6.28	6.21	5.37	6.30	5.45	5.18	6.30
국어	6.48	6.39	6.59	5.81	6.52	5.84	5.72	6.52
수학	5.92	6.08	5.74	4.84	5.99	5.06	4.33	5.99
영어	6.08	6.19	5.96	5.05	6.14	5.13	4.87	6.14
사회	6.33	6.30	6.37	5.67	6.37	5.70	5.59	6.37
과학	6.16	6.30	5.99	5.36	6.20	5.38	5.32	6.20
명 ¹¹⁾	3,921,086	2,090,927	1,830,159	221,350	3,699,736	153,613	67,736	3,699,736
구분	지역				가족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9-11세								
전체	6.99	6.80	7.14	6.93	6.64			
국어	6.99	6.95	7.23	7.00	6.84			
수학	6.98	6.77	7.18	6.92	6.62			
영어	6.99	6.71	7.25	6.93	6.32			
사회	6.91	6.69	7.04	6.82	6.73			
과학	6.99	6.69	7.05	6.86	6.66			
명 ¹²⁾	702,270	749,961	87,665	1,351,278	172,648			
12-17세								
전체	6.03	6.41	6.40	6.41	5.33			
국어	6.27	6.66	6.50	6.62	5.75			
수학	5.67	6.11	6.11	6.06	5.15			
영어	6.01	6.14	6.16	6.25	5.17			
사회	6.16	6.49	6.23	6.46	5.66			
과학	6.00	6.27	6.34	6.29	5.40			
명 ¹³⁾	1,697,582	1,978,133	245,371	3,291,366	593,040			

주: 10점 척도, 최소값=1(매우 못함), 최대값=10(매우 잘함)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9-11세 아동의 경우 2008년 전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균이 7.5점인 것에 반해 2013년은 6.9점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2-17세 아동은 2008년 전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균이 5.5점이었으나 2013년은 6.2점으로 약 0.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과목별 학업성취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7-1] 아동의 연령별 주관적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2008-2013



- 10) 각 문항별 응답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11) 각 문항별 응답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12) 각 문항별 응답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13) 각 문항별 응답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제4절 소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양부모와 함께 거주할수록 아동의 인지와 언어발달 및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상위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가 요구된다. 아동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비속어의 사용 빈도는 아동의 연령과 관계가 있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올라간다. 이는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서는 아동이 어릴수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성취도 또한 소득계층과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한부모·조손가족 일수록 일반가구 및 양부모가족에 속하는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 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소득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학업성취도는 특히, 영어 및 수학과목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가구 및 한부모·조손가족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영어과목과 수학과목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8장

건강 및 안전생활

제1절 아동의 건강특성

제2절 주양육자의 건강특성

제3절 아동의 방임 및 학대실태

제4절 안전실태

제5절 소결

8

건강 및 안전생활 <<

건강 및 안전생활의 범위는 영유아기부터 아동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질병의 경험, 의료이용, 가정내외의 안전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1절 아동의 건강특성

1. 현재의 건강특성

가. 주관적 건강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4점 척도로 설문하였고, 전체적으로 90%이상이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평균점수는 3.3점이었다. 2008년 조사결과에서는 0-2세 3.5점, 3-5세 3.4점, 6-8세 3.4점, 9-11세 3.3점, 12-18세 3.3점 등 이었다. 대체로 이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건강수준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차상위가구, 기초수급가구, 일반가구의 순서로 건강수준이 낮게 평가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 차이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대도시지역아동의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아동이 응답한 건강상태는 평균 3.3으로 주양육자의 응답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9-17세 아동중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쁘거나 매우 안 좋은 비율은 우리나라는 2.8% 수준이었다. 다른 OECD선진국(11, 13, 15세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스위스 7.7%보다 낮았다(2012년).

〈표 8-1〉 주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의 건강상태

(단위: %, 명, 점수)

구분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 (명)	평균(SD)
전체		33.7	65.6	0.6	0.1	100.0 (9,671,906)	3.33(0.49)
아동성별	남자	33.8	65.7	0.4	0.0	100.0 (5,044,955)	3.33(0.48)
	여자	33.6	65.6	0.7	0.1	100.0 (4,626,951)	3.33(0.49)
연령	0-2세	36.5	63.4	0.2	0.0	100.0 (1,407,369)	3.36(0.48)
	3-5세	32.1	67.0	0.5	0.4	100.0 (1,407,874)	3.31(0.50)
	6-8세	37.2	62.5	0.3	0.0	100.0 (1,353,619)	3.37(0.49)
	9-11세	35.5	64.0	0.5	0.0	100.0 (1,544,406)	3.35(0.49)
	12-17세	31.5	67.6	0.8	0.0	100.0 (3,958,639)	3.31(0.48)
소득수준1	일반	21.4	73.5	4.5	0.6	100.0 (9,295,240)	3.34(0.48)
	빈곤	34.2	65.3	0.4	0.1	100.0 (376,666)	3.16(0.51)
소득수준2	기초수급	24.5	69.0	5.5	0.9	100.0 (247,593)	3.16(0.51)
	차상위	15.4	82.1	2.4	0.0	100.0 (129,073)	3.34(0.48)
	일반	34.2	65.3	0.4	0.1	100.0 (9,295,240)	3.17(0.56)
지역	대도시	26.6	73.1	0.3	0.0	100.0 (4,214,487)	3.13(0.40)
	중소도시	39.5	59.7	0.7	0.1	100.0 (4,869,141)	3.34(0.48)
	농어촌	37.8	61.1	1.1	0.0	100.0 (588,277)	3.26(0.45)
가족유형	양부모	35.4	64.1	0.4	0.1	100.0 (8,559,385)	3.35(0.49)
	한부모·조손	20.8	77.1	2.0	0.1	100.0 (1,012,920)	3.19(0.44)

주: 매우 좋다 4점, 좋다 3점, 나쁘다 2점 매우 나쁘다 1점

〈표 8-2〉 9-17세 아동의 건강상태

(단위: %, 명, 점수)

구분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 (명)	평균(SD)
전체		31.5	65.7	2.8	0.0	100.0 (5,502,505)	3.29 (0.51)
아동성별	남자	30.1	66.9	3.0	0.0	100.0 (2,897,570)	3.27 (0.51)
	여자	33.1	64.4	2.5	0.0	100.0 (2,604,935)	3.31 (0.51)
연령	9-11세	35.1	63.9	1.0	0.0	100.0 (1,544,001)	3.34 (0.49)
	12-17세	30.2	66.4	3.5	0.0	100.0 (3,958,504)	3.27 (0.52)
소득수준1	빈곤	24.4	68.2	7.0	0.4	100.0 (269,012)	3.17 (0.55)
	일반	31.9	65.5	2.5	0.0	100.0 (5,233,493)	3.29 (0.51)
소득수준2	일반	31.9	65.5	2.5	0.0	100.0 (194,281)	3.20 (0.57)
	차상위	14.7	77.6	7.7	0.0	100.0 (74,731)	3.07 (0.47)
	기초수급	28.1	64.6	6.8	0.5	100.0 (5,233,493)	3.29 (0.51)
지역	대도시	27.6	70.0	2.4	0.0	100.0 (2,402,329)	3.25 (0.49)
	중소도시	34.8	62.0	3.2	0.0	100.0 (2,761,142)	3.32 (0.53)
	농어촌	33.0	64.9	2.1	0.0	100.0 (339,034)	3.31 (0.51)
가족유형	양부모	32.1	65.3	2.6	0.0	100.0 (4,678,342)	3.29 (0.51)
	한부모·조손	28.5	67.4	4.1	0.1	100.0 (771,512)	3.24 (0.52)

주: 1-4점 척도; 높은 점수일수록 건강한 상태

나. 체중, 신장과 비만도

아동의 평균몸무게는 0-2세 14.6kg, 3-5세 18.0kg, 6-8세 25.4kg, 9-11세 38.4kg, 12-17세 53.2kg 등이었다. 아동의 평균 신장은 0-2세 84.4 cm, 3-5세 105.6 cm, 6-8세 123.9cm, 9-11세 143.8cm, 12-17세 162.1cm 등이었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0-2세의 체중과 신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MI를 분석해본 결과 만 6세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BMI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BMI는 19.3 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에서 BMI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의 BMI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BMI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3〉 아동의 BMI

		(단위: 지수,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19.3	12.0	9,671,906
성별	남자	19.8	13.4	5,044,955
	여자	18.6	10.2	4,626,951
연령	0-2세	16.8	4.3	1,407,369
	3-5세	16.6	10.1	1,407,874
	6-8세	16.5	3.4	1,353,619
	9-11세	18.5	2.8	1,544,406
	12-17세	20.4	7.7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19.7	9.9	376,738
	일반	19.2	12.1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5	11.7	247,593
	차상위	19.1	8.0	129,073
	일반	19.2	12.1	9,295,240
지역	대도시	19.8	14.7	4,214,487
	중소도시	18.7	7.9	4,869,141
	농어촌	20.2	17.3	588,277

주: BMI= 체중(kg)/신장제곱(m²); 비만기준: BMI 25이상

〈표 8-4〉 현재의 몸무게

(단위: kg)

구분		평균	SD	명
전체		36.26	18.81	9,678,277
아동성별	남자	38.14	20.18	5,049,157
	여자	34.22	16.95	4,629,120
연령	0-2세	14.57	14.46	1,407,369
	3-5세	17.98	4.98	1,407,945
	6-8세	25.39	5.77	1,357,821
	9-11세	38.45	8.64	1,546,503
	12-17세	53.25	11.17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42.11	18.85	376,738
	일반	36.03	18.77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44.79	18.04	247,664
	차상위	37.01	19.31	129,073
	일반	36.03	18.77	9,301,539
지역	대도시	36.41	18.83	4,218,761
	중소도시	36.08	18.84	4,869,141
	농어촌	36.63	18.36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5.37	18.72	8,565,684
	한부모·조손	43.44	17.84	1,012,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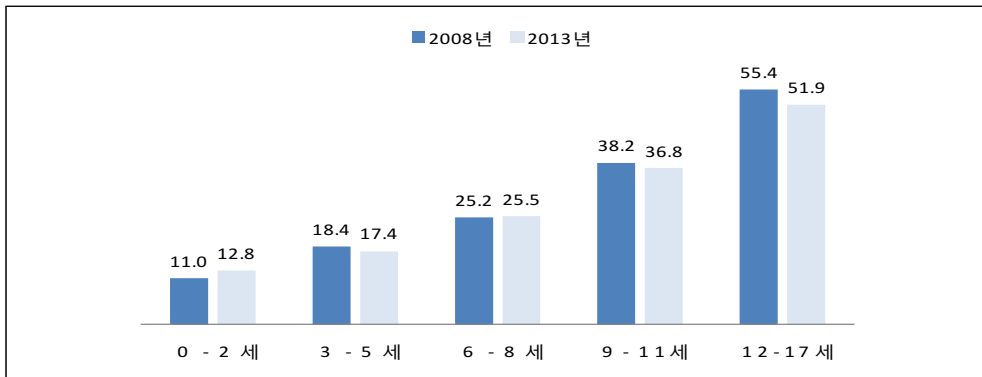
〈표 8-5〉 현재 키

(단위: cm)

구분		평균	SD	명
전체		134.9	30.8	9,678,277
아동성별	남자	136.7	32.1	5,049,157
	여자	132.9	29.3	4,629,120
연령	0-2세	84.4	15.3	1,407,369
	3-5세	105.6	12.6	1,407,945
	6-8세	123.9	9.4	1,357,821
	9-11세	143.8	9.5	1,546,503
	12-17세	162.1	11.5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143.6	28.8	376,738
	일반	134.6	30.9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147.6	26.4	247,664
	차상위	135.9	32.1	129,073
	일반	134.5	30.9	9,301,539
지역	대도시	135.0	30.5	4,218,761
	중소도시	134.9	31.0	4,869,141
	농어촌	134.4	32.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133.5	31.0	8,565,684
	한부모·조손	146.6	27.0	1,012,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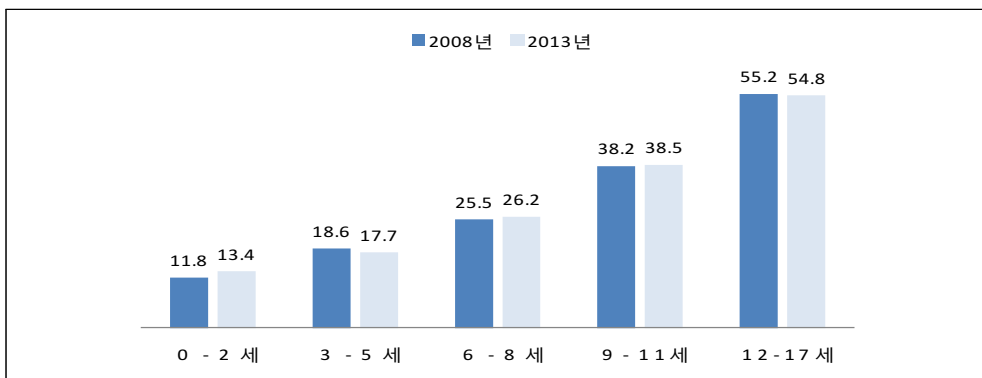
[그림 8-1]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소득수준별-차상위)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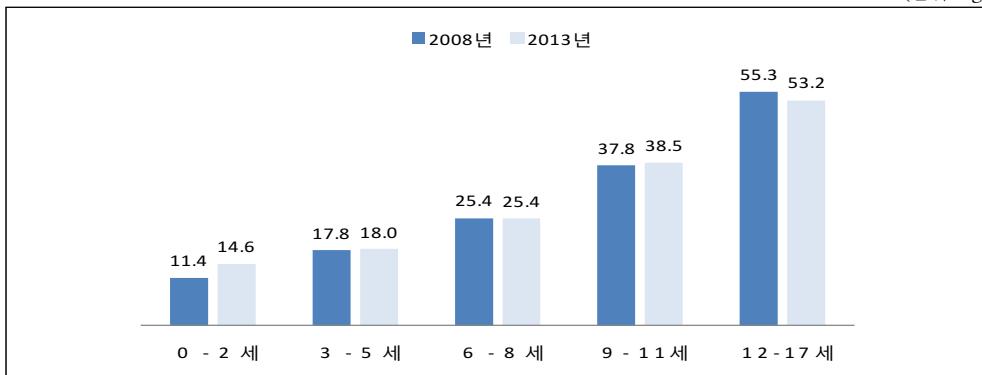
[그림 8-2]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소득수준별-기초수급)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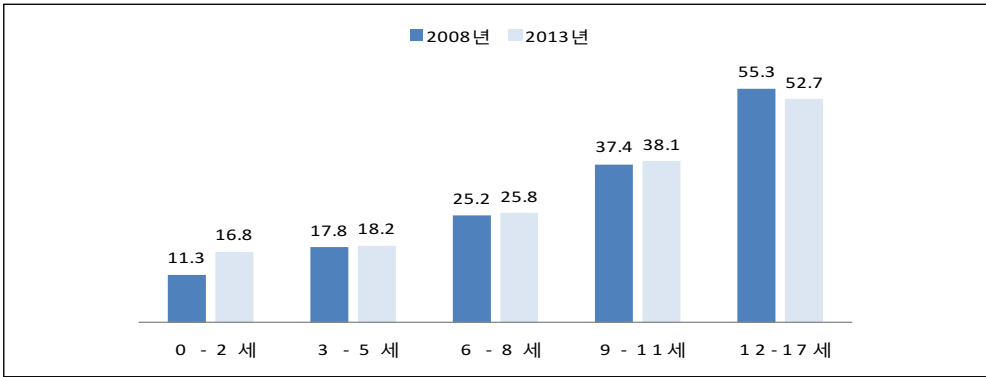
[그림 8-3]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소득수준별-일반)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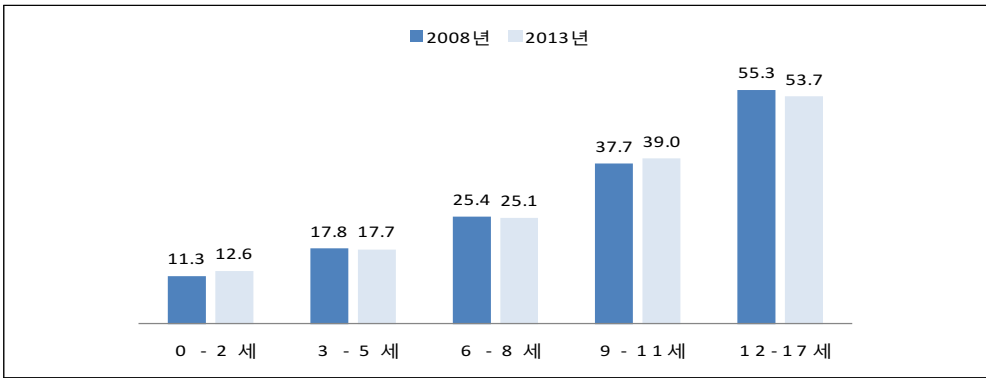
[그림 8-4]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지역별-대도시)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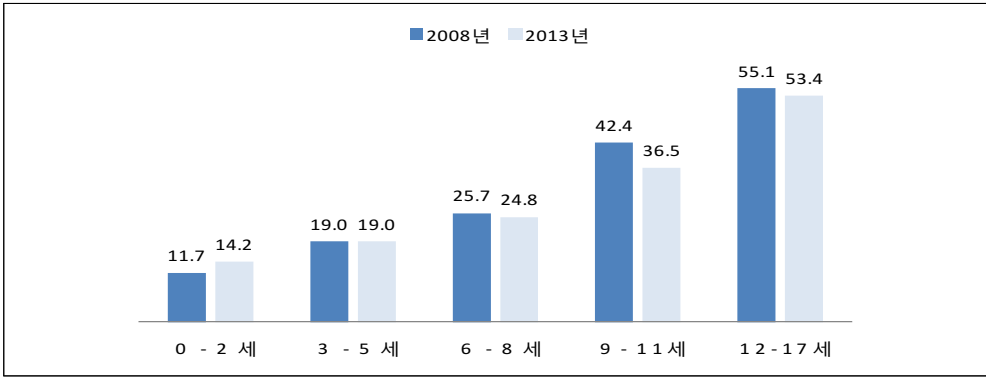
[그림 8-5]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지역별-중소도시)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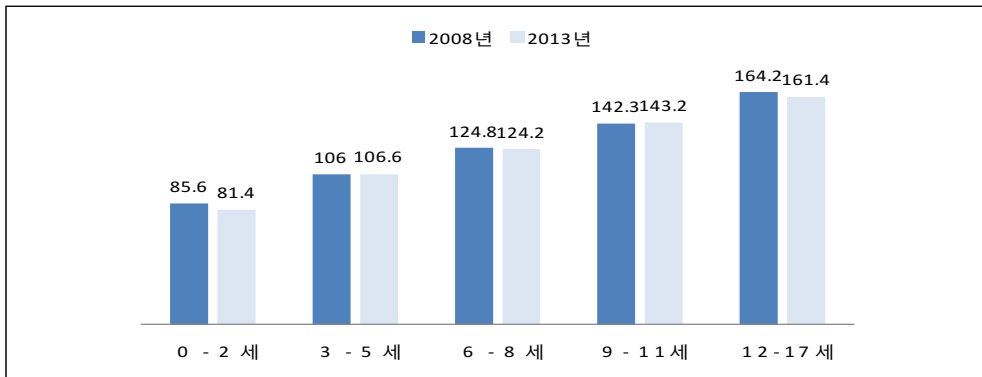
[그림 8-6] 아동의 평균 몸무게 변화(지역별-농어촌)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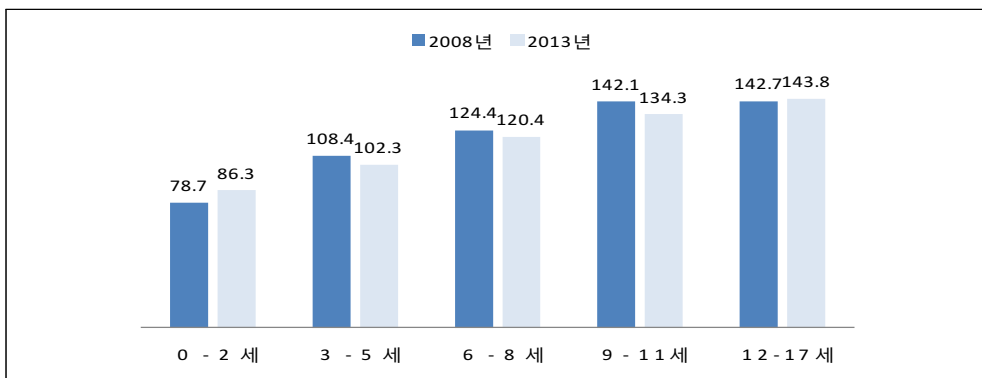
[그림 8-7] 아동의 평균 신장 변화(소득수준별-기초수급)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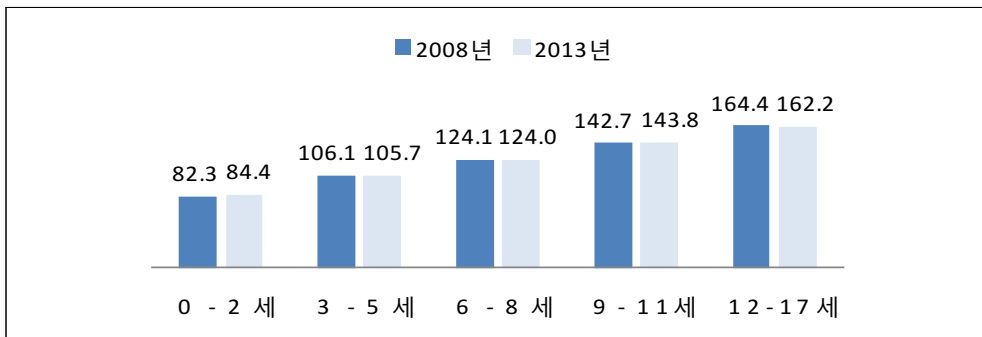
[그림 8-8] 아동의 평균 신장 변화(소득수준별-차상위)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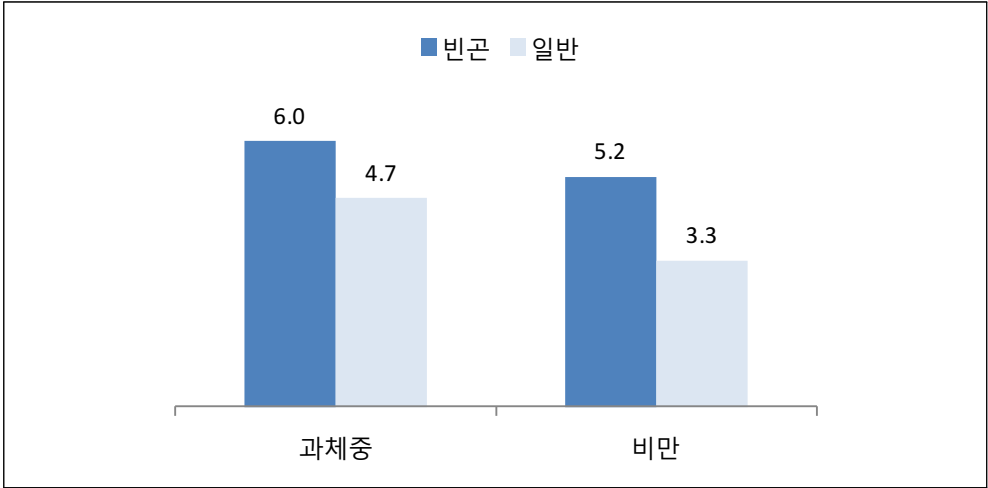
[그림 8-9] 아동의 평균 신장 변화(소득수준별-일반)

(단위: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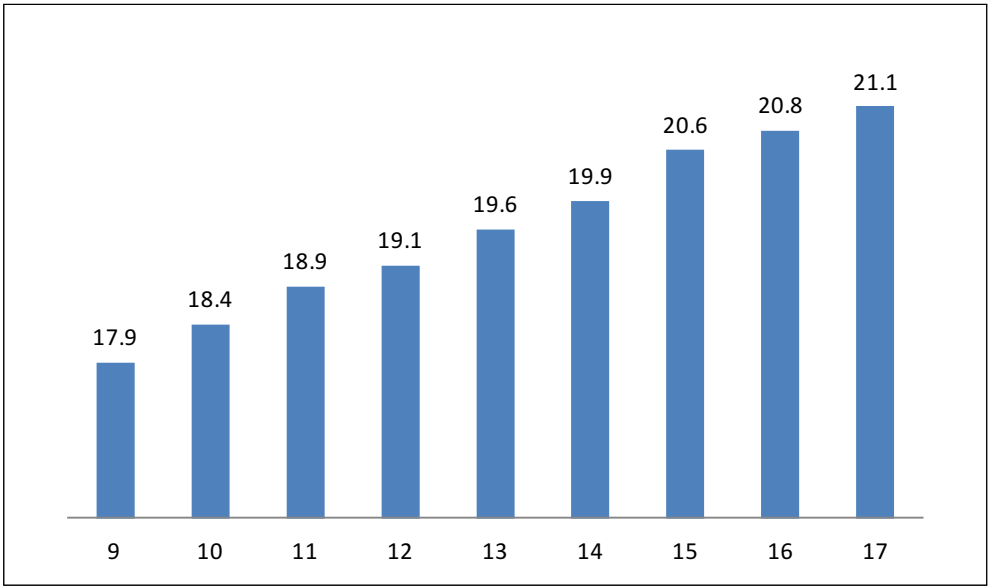
[그림 8-10] 아동의 비만 비율 (소득수준별; 3-17세)

(단위: %)



[그림 8-11] 아동의 연령별 평균 BMI

(단위: BMI)



주: 과체중 BMI 23-24; 비만 BMI 25이상

다. 와병일수

조사 전 한 달 동안 질병이나 손상으로 아동이 거의 하루 종일 집이나 병원에 누워서 보내야 했던 와병일수에 대한 설문(3세 이상)에서 121명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약 3.6%). 121명의 평균 와병일수는 4.0일(표준편차 4.2)이었다.

성별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자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6-8세에서 와병일수가 가장 높았다. 기초수급가구에서 와병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6〉 질병으로 누워 보내는 날

		(단위: 일)	
구분		평균	명
전체		0.14	9,678,277
아동성별	남자	0.12	5,049,157
	여자	0.17	4,629,120
연령	3-5세	0.15	1,407,945
	6-8세	0.16	1,357,821
	9-11세	0.14	1,546,503
	12-17세	0.14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0.22	376,738
	일반	0.14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0.26	247,664
	차상위	0.14	129,073
	일반	0.14	9,301,539
지역	대도시	0.11	4,218,761
	중소도시	0.18	4,869,141
	농어촌	0.08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0.11	8,565,684
	한부모·조손	0.40	1,012,991

라. 주요 질병

아동이 앓고 있는 주요 질병이 없는 대상이 94.7%였다. 기초수급가구에서 질병이 없는 경우는 87.3%로 낮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질병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질병을 가진 아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에서 질병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높았다.

아동이 앓고 있는 주요 질병으로는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2세에서는 알레르기성질환, 만성기관지염 등의 응답이 있었고, 3-5세에서는 알레르기성질환, 천식, 만성중이염 등이 있었다. 6-8세에서는 암, 폐결핵, 만성중이염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암이 있는 가구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에서 나타났다. 9-11세의 경우도 알레르기성 질환과 천식이 주요 질병으로 나타났다. 12-17세에서는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 우울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나타났다.

〈표 8-7〉 주요 질병 및 병명

(단위: %, 명)

구분		암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폐결핵, 결핵	만성 기관지염	천식	만성 중이염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알레르기 질환	주의 집중 장애	우울 장애	섭식 장애	기타 질병	없음	계(명)
전체		0.1	0.1	0.0	0.1	0.6	0.2	0.1	3.6	0.1	0.2	0.1	0.8	94.7	100.0 (9,420,989)
아동 성별	남자	0.1	0.0	0.1	0.1	0.8	0.2	0.2	3.9	0.2	0.1	0.1	1.0	94.0	100.0 (4,907,910)
	여자	0.1	0.2	0.0	0.0	0.5	0.1	0.0	3.3	0.1	0.3	0.0	0.5	95.6	100.0 (4,513,080)
연령	0-2세	0.0	0.0	0.0	0.1	0.0	0.0	0.0	0.6	0.0	0.0	0.0	0.3	99.1	100.0 (1,374,840)
	3-5세	0.0	0.0	0.0	0.1	1.3	0.4	0.0	3.1	0.0	0.0	0.0	0.9	95.2	100.0 (1,384,711)
	6-8세	0.3	0.0	0.2	0.0	1.2	0.3	0.0	4.2	0.0	0.0	0.0	1.1	93.3	100.0 (1,337,870)
	9-11세	0.0	0.2	0.0	0.0	0.3	0.0	0.0	4.4	0.3	0.0	0.0	1.1	94.1	100.0 (1,509,839)
	12-17세	0.1	0.1	0.0	0.1	0.6	0.2	0.2	4.3	0.2	0.4	0.1	0.7	93.7	100.0 (3,813,730)
소득 수준 1	빈곤	1.0	0.2	0.0	0.2	0.9	0.4	0.1	5.4	1.0	0.3	0.1	3.3	89.4	100.0 (369,614)
	일반	0.0	0.1	0.0	0.1	0.6	0.2	0.1	3.5	0.1	0.2	0.1	0.7	95.0	100.0 (9,051,375)
소득 수준 2	기초 수급	1.3	0.1	0.0	0.3	0.8	0.6	0.2	6.5	1.1	0.4	0.1	4.2	87.3	100.0 (241,141)
	차상위	0.6	0.4	0.0	0.0	1.1	0.0	0.0	3.3	0.8	0.0	0.0	1.6	93.2	100.0 (128,474)
	일반	0.0	0.1	0.0	0.1	0.6	0.2	0.1	3.5	0.1	0.2	0.1	0.7	95.0	100.0 (9,051,375)
지역	대도시	0.1	0.1	0.1	0.0	0.7	0.0	0.0	3.0	0.3	0.1	0.1	0.4	95.8	100.0 (4,089,704)
	중소 도시	0.0	0.1	0.0	0.1	0.6	0.3	0.2	4.3	0.0	0.3	0.0	1.2	93.5	100.0 (4,764,640)
	농어촌	0.3	0.0	0.0	0.0	0.3	0.0	0.0	2.2	0.0	0.2	0.0	0.5	97.1	100.0 (566,645)
가족 유형	양부모	0.1	0.0	0.0	0.1	0.7	0.2	0.1	3.4	0.1	0.2	0.1	0.6	95.1	100.0 (8,357,583)
	한부모· 조손	0.3	0.6	0.0	0.1	0.5	0.1	0.0	5.7	0.2	0.3	0.0	2.1	91.3	100.0 (989,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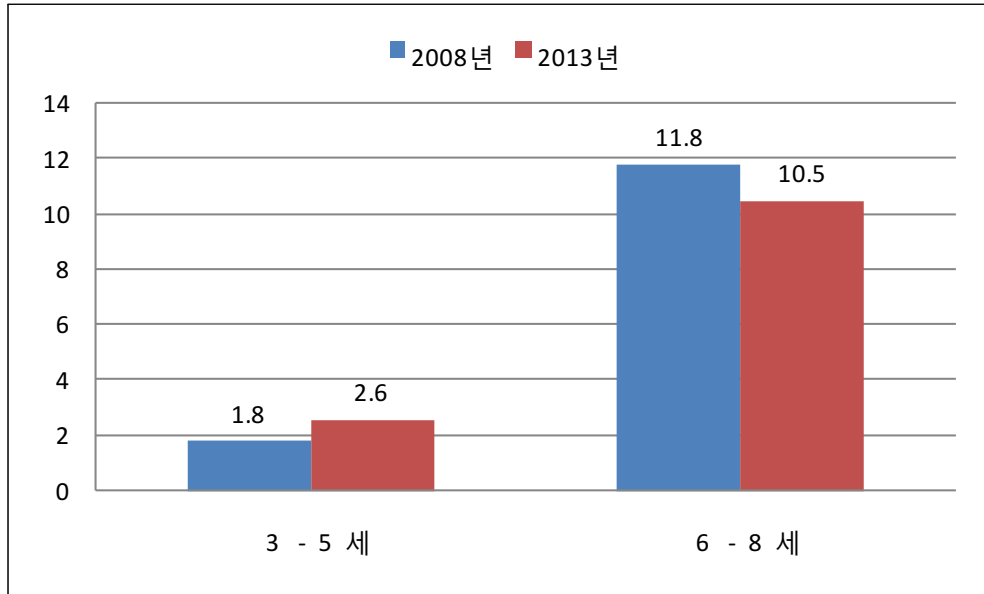
마. 시력

아동이 안경을 착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안경을 착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29.9%로 높게 나타났다. 6-8세부터 10%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고, 12-17세에서는 45.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안경착용의 경향도 소득수준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의 순으로 안경착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안경착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 조사와 비교시 3-5세의 동연령대 안경착용률보다 증가하였고, 6-8세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6-8세를 지역별로 200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6-8세의 안경착용률은 감소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8-8〉 안경 착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29.9	70.1	100.0 (8,264,083)
아동성별	남자	29.8	70.2	100.0 (4,321,785)
	여자	30.1	69.9	100.0 (3,942,298)
연령	3-5세	2.6	97.4	100.0 (1,407,660)
	6-8세	10.5	89.5	100.0 (1,357,821)
	9-11세	32.8	67.2	100.0 (1,546,503)
	12-17세	45.3	54.7	100.0 (3,952,098)
소득수준1	빈곤	34.4	65.6	100.0 (351,382)
	일반	29.7	70.3	100.0 (7,912,701)
소득수준2	기초수급	35.1	64.9	100.0 (235,497)
	차상위	32.9	67.1	100.0 (115,885)
	일반	29.7	70.3	100.0 (7,912,701)
지역	대도시	31.2	68.8	100.0 (3,576,759)
	중소도시	29.6	70.4	100.0 (4,179,926)
	농어촌	23.4	76.6	100.0 (507,398)
가족유형	양부모	29.2	70.8	100.0 (7,228,441)
	한부모·조손	34.9	65.1	100.0 (947,843)

[그림 8-12] 안경착용률 비교표



2. 건강생활습관

가. 수면습관

아동의 평균 기상시각은 7시 16분경으로 나타났다. 12-17세 연령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상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취침시각은 평균 10시 12분경으로 나타났다. 12-17세 연령층에서 기상시각이 빨라지고, 취침시각은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령기 중 중고등학생 시기인 12-17세의 수면시간은 평균적으로 7시간 28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8년 아동실태조사의 12-17세 평균수면시간 7.1시간 보다는 다소 증가했다. 외국 청소년들의(15-24세) 평균 수면시간을 비교해보면 (BLS & ATUS, 2004; EUROSTAT & HETUS, 2005), 미국이 8시간 47분, 영국 8시간 36분, 핀란드 8시간 31분, 스웨덴 8시간 26분 등으로 외국에 비해 1시간 가량 짧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면의 질과 관련된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잘 자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70.4%정도였다. 대체로 수면을 잘 하는 연령층은 9-11세 연령층으로 81.7%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개인별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6-8세의 총 수면시간은 9시간 26분, 9-11세는 8시간 41분, 12-14세는 8시간, 15-17세는 6시간 58분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시기로 가면서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9〉 기상 시각

(단위: %, 명, 시각)

구분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계 (명)	평균 시각 ¹
전체		0.6	15.1	57.7	22.0	3.7	0.9	0.0	100.0 (9,673,331)	7시 16분
아동성 별	남자	0.7	14.1	57.1	24.2	3.2	0.5	0.0	100.0 (5,047,799)	7시 16분
	여자	0.4	16.2	58.4	19.5	4.1	1.4	0.0	100.0 (4,625,532)	7시 16분
연령	0-2세	1.0	8.9	24.0	44.8	15.8	5.5	0.0	100.0 (1,404,875)	7시 52분
	3-5세	1.0	3.4	33.2	54.7	6.8	0.8	0.0	100.0 (1,407,945)	7시 46분
	6-8세	0.0	5.9	64.4	28.2	1.5	0.0	0.0	100.0 (1,357,821)	7시 23분
	9-11세	0.0	5.1	82.2	12.5	0.2	0.0	0.0	100.0 (1,546,503)	7시 13분
	12-17세	0.7	28.6	66.5	3.8	0.3	0.0	0.1	100.0 (3,956,187)	6시 52분
소득 수준 ¹	빈곤	0.9	21.3	58.3	15.3	3.0	0.9	0.4	100.0 (376,709)	7시 7분
	일반	0.6	14.9	57.7	22.2	3.7	0.9	0.0	100.0 (9,296,622)	7시 17분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1.3	21.1	62.0	12.3	2.4	0.7	0.2	100.0 (247,636)	7시 4분
	차상위	0.0	21.8	51.0	21.0	4.1	1.1	1.0	100.0 (129,073)	7시 14분
	일반	0.6	14.9	57.7	22.2	3.7	0.9	0.0	100.0 (9,296,622)	7시 17분
지역	대도시	0.3	11.7	57.4	24.6	4.7	1.2	0.0	100.0 (4,218,733)	7시 22분
	중소도시	0.8	18.1	57.5	19.8	3.0	0.7	0.0	100.0 (4,868,034)	7시 12분
	농어촌	0.0	14.8	62.2	20.6	1.9	0.2	0.3	100.0 (586,565)	7시 12분
가족 유형	양부모	0.6	14.9	56.9	22.6	4.0	1.0	0.0	100.0 (8,560,767)	7시 17분
	한부모·조손	0.3	17.7	64.1	16.1	0.9	0.5	0.3	100.0 (1,012,963)	7시 7분

주1: 평균 시각은 시, 분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임.

〈표 8-10〉 취침 시각

(단위: %, 명, 시각)

구분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계 (명)	평균 시각 ¹
전체		0.6	2.9	14.6	33.7	26.9	18.4	2.1	0.7	0.0	100.0 (9,671,120)	10시 12분
아동 성별	남자	0.5	3.2	14.7	33.0	28.0	17.6	2.2	0.8	0.0	100.0 (5,045,587)	10시 11분
	여자	0.8	2.6	14.5	34.4	25.7	19.3	2.0	0.6	0.0	100.0 (4,625,532)	10시 14분
연령	0-2세	1.6	8.4	38.4	36.9	9.3	5.0	0.3	0.1	0.0	100.0 (1,403,587)	9시 45분
	3-5세	1.8	5.7	31.1	47.2	11.9	1.7	0.6	0.0	0.0	100.0 (1,407,945)	9시 41분
	6-8세	0.6	5.0	21.1	56.6	14.1	2.1	0.0	0.5	0.0	100.0 (1,357,821)	9시 52분
	9-11세	0.2	1.0	7.5	46.6	35.5	8.0	1.2	0.0	0.0	100.0 (1,546,503)	10시 21분
	12-17세	0.1	0.0	1.0	14.8	39.5	38.8	4.4	1.5	0.0	100.0 (3,955,263)	10시 41분
소득 수준 ¹	빈곤	0.4	1.3	11.3	30.7	27.2	24.5	2.8	1.7	0.2	100.0 (375,786)	10시 15분
	일반	0.7	3.0	14.8	33.8	26.9	18.2	2.1	0.7	0.0	100.0 (9,295,334)	10시 12분
소득 수준	기초수급	0.2	0.8	10.8	29.9	30.0	24.3	2.9	0.9	0.3	100.0 (246,712)	10시 20분
	차상위	0.7	2.4	12.2	32.3	21.8	24.9	2.5	3.2	0.0	100.0 (129,073)	10시 4분
	일반	0.7	3.0	14.8	33.8	26.9	18.2	2.1	0.7	0.0	100.0 (9,295,334)	10시 12분
지역	대도시	0.2	2.9	12.9	35.8	26.6	18.2	2.7	0.5	0.0	100.0 (4,217,444)	10시 11분
	중소도시	1.0	2.9	15.6	32.2	27.0	18.6	1.7	0.9	0.0	100.0 (4,867,111)	10시 13분
	농어촌	0.7	2.8	18.8	30.7	28.1	17.8	0.8	0.3	0.0	100.0 (586,565)	10시 18분
가족 유형	양부모	0.7	3.1	15.4	33.6	26.6	18.1	1.7	0.7	0.0	100.0 (8,559,479)	10시 13분
	한부모· 조손	0.3	1.7	9.3	32.7	29.6	20.3	5.5	0.6	0.1	100.0 (1,012,040)	10시 4분

주1: 평균 시각은 시, 분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임.

〈표 8-11〉 수면습관

(단위: %, 명)

구분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한다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한다	계 (명)
전체		70.4	18.5	10.0	1.0	100.0 (9,341,792)
아동 성별	남자	71.2	18.6	9.1	1.1	100.0 (4,833,315)
	여자	69.7	18.5	11.0	0.8	100.0 (4,508,477)
연령	0-2세	44.2	42.7	10.7	2.3	100.0 (1,375,806)
	3-5세	66.5	20.2	11.6	1.7	100.0 (1,374,681)
	6-8세	75.8	16.6	7.6	0.0	100.0 (1,325,970)
	9-11세	81.7	8.4	9.2	0.7	100.0 (1,480,077)
	12-17세	75.1	13.7	10.5	0.7	100.0 (3,785,258)
소득 수준 ¹	빈곤	75.2	15.4	7.7	1.6	100.0 (371,987)
	일반	70.2	18.7	10.1	1.0	100.0 (8,969,805)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74.4	15.1	8.4	2.1	100.0 (243,095)
	차상위	76.9	16.0	6.5	0.6	100.0 (128,892)
	일반	70.2	18.7	10.1	1.0	100.0 (8,969,805)
지역	대도시	71.5	16.7	11.1	0.7	100.0 (4,031,170)
	중소도시	69.9	19.9	9.1	1.1	100.0 (4,744,299)
	농어촌	68.0	20.0	10.2	1.7	100.0 (566,323)
가족 유형	양부모	70.2	19.2	9.6	1.0	100.0 (8,269,366)
	한부모·조손	71.7	13.3	13.7	1.3	100.0 (985,271)

나. 식습관

아침식사를 항상 하는 비율은 61.3%였고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침식사비율은 절반이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항상 아침을 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8세 연령층에서 항상 아침 식사하는 비율이 높고 이후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는 86.9%로 나타났다. 항상 저녁을 먹는 비율도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가 일반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의 저녁식사비율이 높고 중소도시 농어촌 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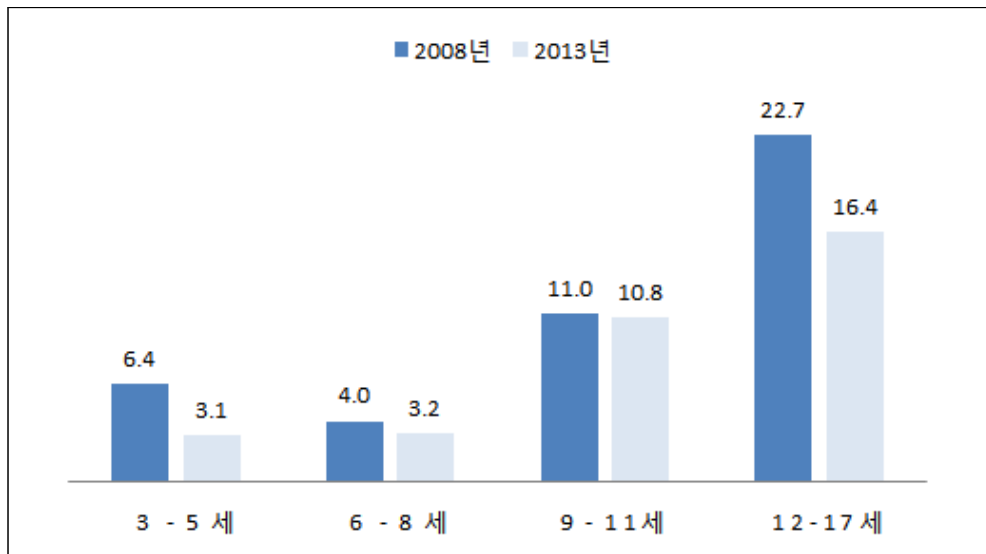
〈표 8-12〉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의 먹지 않는다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계 (명)
전체		10.9	27.9	61.3	100.0 (8,254,263)
아동성별	남자	9.7	28.1	62.3	100.0 (4,315,199)
	여자	12.1	27.7	60.2	100.0 (3,939,064)
연령	3-5세	3.1	28.2	68.7	100.0 (1,404,346)
	6-8세	3.2	24.5	72.3	100.0 (1,357,821)
	9-11세	10.8	25.7	63.5	100.0 (1,546,503)
	12-17세	16.4	29.7	53.9	100.0 (3,945,594)
소득 수준1	빈곤	26.8	29.4	43.8	100.0 (351,400)
	일반	10.1	27.8	62.1	100.0 (7,902,863)
소득 수준2	기초수급	23.0	30.3	46.7	100.0 (235,291)
	차상위	34.6	27.6	37.8	100.0 (116,109)
	일반	10.1	27.8	62.1	100.0 (7,902,863)
지역	대도시	10.8	23.5	65.7	100.0 (3,572,842)
	중소도시	11.4	30.6	58.0	100.0 (4,173,657)
	농어촌	7.2	35.9	56.9	100.0 (507,764)
가족 유형	양부모	8.9	27.5	63.5	100.0 (7,218,633)
	한부모·조손	24.5	31.4	44.1	100.0 (947,831)

〔그림 8-13〕 아동의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을 변화

(단위: %)



〈표 8-13〉 점심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의 먹지 않는다.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계 (명)
전체		0.3	11.8	87.9	100.0 (8,252,460)
아동성별	남자	0.1	12.0	87.9	100.0 (4,314,402)
	여자	0.5	11.6	87.9	100.0 (3,938,059)
연령	3-5세	0.0	9.6	90.4	100.0 (1,404,129)
	6-8세	0.3	11.4	88.3	100.0 (1,357,821)
	9-11세	0.1	11.8	88.2	100.0 (1,546,203)
	12-17세	0.4	12.7	86.8	100.0 (3,944,308)
소득 수준1	빈곤	0.8	16.6	82.6	100.0 (350,602)
	일반	0.3	11.6	88.2	100.0 (7,901,858)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1	15.0	83.8	100.0 (234,710)
	차상위	0.1	19.8	80.0	100.0 (115,893)
	일반	0.3	11.6	88.2	100.0 (7,901,858)
지역	대도시	0.2	11.2	88.6	100.0 (3,572,842)
	중소도시	0.4	11.7	88.0	100.0 (4,171,854)
	농어촌	0.2	16.9	82.8	100.0 (507,764)
가족 유형	양부모	0.2	11.1	88.7	100.0 (7,217,628)
	한부모-조손	0.7	17.0	82.3	100.0 (947,034)

〈표 8-14〉 저녁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의 먹지 않는다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계 (명)
전체		0.4	12.7	86.9	100.0 (8,250,847)
아동성별	남자	0.2	11.8	88.0	100.0 (4,312,961)
	여자	0.6	13.6	85.8	100.0 (3,937,886)
연령	3-5세	0.0	9.5	90.5	100.0 (1,404,346)
	6-8세	0.3	9.6	90.1	100.0 (1,357,821)
	9-11세	0.2	11.8	87.9	100.0 (1,546,365)
	12-17세	0.6	15.3	84.2	100.0 (3,942,316)
소득 수준1	빈곤	1.3	18.5	80.2	100.0 (350,808)
	일반	0.3	12.4	87.2	100.0 (7,900,03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6	18.3	80.1	100.0 (234,699)
	차상위	0.6	18.9	80.5	100.0 (116,109)
	일반	0.3	12.4	87.2	100.0 (7,900,039)
지역	대도시	0.3	11.8	87.9	100.0 (3,571,023)
	중소도시	0.5	13.0	86.5	100.0 (4,172,060)
	농어촌	0.6	16.5	82.9	100.0 (507,764)
가족 유형	양부모	0.2	11.7	88.1	100.0 (7,215,809)
	한부모-조손	1.6	20.4	77.9	100.0 (947,239)

〈표 8-15〉 아침식사 미취식 이유

(단위: %, 명)

구분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아서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서	살빼기 위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1.2	27.3	63.6	0.7	0.3	6.9	100.0 (894,670)
아동성별	남자	1.3	31.2	62.2	0.3	0.3	4.7	100.0 (413,022)
	여자	1.2	23.9	64.8	1.0	0.4	8.8	100.0 (481,648)
연령	9-11세	1.9	40.7	51.1	0.0	0.0	6.3	100.0 (150,062)
	12-17세	1.1	24.6	66.1	0.8	0.4	7.0	100.0 (744,608)
소득수준1	빈곤	2.8	33.5	50.9	1.6	3.4	7.8	100.0 (84,325)
	일반	1.1	26.7	64.9	0.6	0.0	6.8	100.0 (810,346)
소득수준2	기초수급	3.4	22.5	58.7	2.7	3.1	9.6	100.0 (50,517)
	차상위	1.7	50.0	39.2	0.0	3.8	5.2	100.0 (33,808)
	일반	1.1	26.7	64.9	0.6	0.0	6.8	100.0 (810,346)
지역	대도시	0.2	32.7	54.3	1.2	0.5	11.0	100.0 (377,218)
	중소도시	1.9	24.0	69.3	0.3	0.2	4.4	100.0 (455,816)
	농어촌	2.5	19.0	78.0	0.2	0.0	0.2	100.0 (61,636)
가족유형	양부모	0.9	29.6	62.4	0.8	0.0	6.3	100.0 (662,101)
	한부모·조손	2.3	21.8	65.4	0.3	1.3	8.9	100.0 (219,575)

〈표 8-16〉 점심/저녁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거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51.1	48.9	100.0 (72,279)
아동성별	남자	41.0	59.0	100.0 (26,233)
	여자	56.9	43.1	100.0 (46,046)
연령	9-11세	1.6	98.4	100.0 (11,451)
	12-17세	60.4	39.6	100.0 (60,828)
소득수준1	빈곤	56.5	43.5	100.0 (10,687)
	일반	50.2	49.8	100.0 (61,592)
소득수준2	기초수급	52.7	47.3	100.0 (4,262)
	차상위	59.0	41.0	100.0 (6,425)
	일반	50.2	49.8	100.0 (61,592)
지역	대도시	57.3	42.7	100.0 (26,371)
	중소도시	46.1	53.9	100.0 (43,054)
	농어촌	69.8	30.2	100.0 (2,854)
가족유형	양부모	55.1	44.9	100.0 (52,256)
	한부모·조손	40.8	59.2	100.0 (20,023)

또한 아동의 인스턴트 식품 섭취현황은 우리나라 만 1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라면, 햄버거, 콜라 등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주양육자가 응답하였으며, 9세 이상 아동은 스스로 응답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51.2%가 주 3회 이상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가구의 아동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7〉 인스턴트 식품 섭취현황

(단위: %,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계 (명)
전체		51.2	48.8	100.0 (9,658,143)
아동성별	남자	52.9	47.1	100.0 (5,032,607)
	여자	49.5	50.5	100.0 (4,625,534)
연령	0-2세	26.8	73.2	100.0 (1,402,562)
	3-5세	36.7	63.3	100.0 (1,407,946)
	6-8세	41.9	58.1	100.0 (1,342,492)
	9-11세	60.5	39.5	100.0 (1,546,504)
	12-17세	64.7	35.3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44.2	55.8	100.0 (376,687)
	일반	51.5	48.5	100.0 (9,281,454)
소득수준2	기초수급	43.9	56.1	100.0 (247,614)
	차상위	44.5	55.5	100.0 (129,074)
	일반	51.5	48.5	100.0 (9,281,454)
지역	대도시	52.1	47.9	100.0 (4,211,592)
	중소도시	50.5	49.5	100.0 (4,856,709)
	농어촌	51.2	48.8	100.0 (589,840)
가족유형	양부모	51.0	49.0	100.0 (8,545,599)
	한부모·조손	51.2	48.8	100.0 (1,012,941)

다. 신체활동

최근 일주일동안 30분 이상 운동을 한 평균일수는 1.9일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아동의 34.0%정도만 주3일 이상 30분 이상 운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1.2%는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실시 일수로 보면, 남자의 운동일수가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6-8세의 운동일수가 가장 높았고 연령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의 운동일수가 차상위가구 및 일반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 아동의 운동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 최근 7일 30분 이상 운동한 날

(단위: %, 명)

구분		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평균 (SD)	명
전체		31.2	15.6	19.2	15.4	4.4	14.2	1.9 (1.7)	100.0 (8,160,183)
성별	남자	24.6	15.7	19.0	17.3	5.2	18.1	2.2 (1.8)	100.0 (4,263,784)
	여자	38.3	15.4	19.5	13.3	3.5	10.0	1.6 (1.6)	100.0 (3,896,399)
연령	3-5세	40.9	17.6	14.5	11.6	3.3	12.0	1.6 (1.7)	100.0 (1,394,126)
	6-8세	25.1	10.3	20.4	16.5	4.8	22.8	2.3 (1.8)	100.0 (1,352,006)
	9-11세	26.2	13.6	23.0	16.2	4.9	16.1	2.1 (1.7)	100.0 (1,537,003)
	12-17세	31.8	17.4	19.0	16.1	4.5	11.3	1.8 (1.7)	100.0 (3,877,048)
소득 수준1	빈곤	35.6	13.9	17.4	15.3	5.1	12.6	1.8(1.8)	100.0 (349,617)
	일반	31.0	15.6	19.3	15.4	4.4	14.3	1.8(1.7)	100.0 (7,810,566)
소득 수준2	기초수급	37.4	13.3	17.7	13.8	5.2	12.5	1.7 (1.7)	100.0 (234,319)
	차상위	32.0	15.1	16.8	18.4	5.0	12.7	1.9 (1.7)	100.0 (115,298)
	일반	31.0	15.6	19.3	15.4	4.4	14.3	1.9 (1.7)	100.0 (7,810,566)
지역	대도시	28.1	15.8	19.9	16.1	3.7	16.4	2.0 (1.7)	100.0 (3,530,663)
	중소도시	33.4	15.8	19.2	15.4	4.8	11.3	1.8 (1.7)	100.0 (4,128,795)
	농어촌	34.2	12.3	13.9	10.3	6.4	22.8	2.1 (2.0)	100.0 (500,724)
가족 유형	양부모	31.2	16.1	18.5	15.2	4.4	14.6	1.8(1.7)	100.0 (7,140,924)
	한부모·조손	28.6	11.7	24.5	17.5	5.2	12.5	1.8(1.8)	100.0 (933,690)

3. 의료이용

가. 건강검진과 치과검진

연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48.5%였다. 차상위가구의 수검률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간 치과검진 수검률은 62.3%였다. 연령별로는 9-11세가 71.3%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의 치과검진수검률이 62.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서로 수검률이 높았다.

2008년 조사의 경우 9-11세는 70.5%의 치과검진 수검률을 보여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소득간의 불균형보다는 지역별 격차가 컸다. 농어촌 지역의 치과검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8-19〉 건강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48.5	51.5	100.0 (9,651,039)
성별	남자	48.3	51.7	100.0 (5,030,639)
	여자	48.8	51.2	100.0 (4,620,401)
연령	0-2세	54.8	45.2	100.0 (1,404,967)
	3-5세	52.5	47.5	100.0 (1,405,442)
	6-8세	51.3	48.7	100.0 (1,352,073)
	9-11세	44.3	55.7	100.0 (1,537,883)
	12-17세	45.5	54.5	100.0 (3,950,676)
소득수준1	빈곤	47.8	52.2	100.0 (375,423)
	일반	48.5	51.5	100.0 (9,275,616)
소득수준2	기초수급	44.9	55.1	100.0 (246,350)
	차상위	53.3	46.7	100.0 (129,073)
	일반	48.5	51.5	100.0 (9,275,616)
지역	대도시	50.0	50.0	100.0 (4,208,771)
	중소도시	46.9	53.1	100.0 (4,854,461)
	농어촌	50.4	49.6	100.0 (587,807)
가족유형	양부모	48.9	51.1	100.0 (8,548,215)
	한부모·조손	42.8	57.2	100.0 (1,006,483)

〈표 8-20〉 치과검진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62.3	37.7	100.0 (8,264,083)
성별	남자	61.0	39.0	100.0 (4,321,785)
	여자	63.6	36.4	100.0 (3,942,298)
연령	3-5세	47.8	52.2	100.0 (1,407,660)
	6-8세	69.9	30.1	100.0 (1,357,821)
	9-11세	71.3	28.7	100.0 (1,546,503)
	12-17세	61.2	38.8	100.0 (3,952,098)
소득수준1	빈곤	54.8	45.2	100.0 (351,382)
	일반	62.6	37.4	100.0 (7,912,701)
소득수준2	기초수급	56.0	44.0	100.0 (235,497)
	차상위	52.4	47.6	100.0 (115,885)
	일반	62.6	37.4	100.0 (7,912,701)
지역	대도시	64.8	35.2	100.0 (3,576,759)
	중소도시	60.6	39.4	100.0 (4,179,926)
	농어촌	57.9	42.1	100.0 (507,398)
가족유형	양부모	62.8	37.2	100.0 (7,228,441)
	한부모·조손	58.8	41.2	100.0 (947,843)

나.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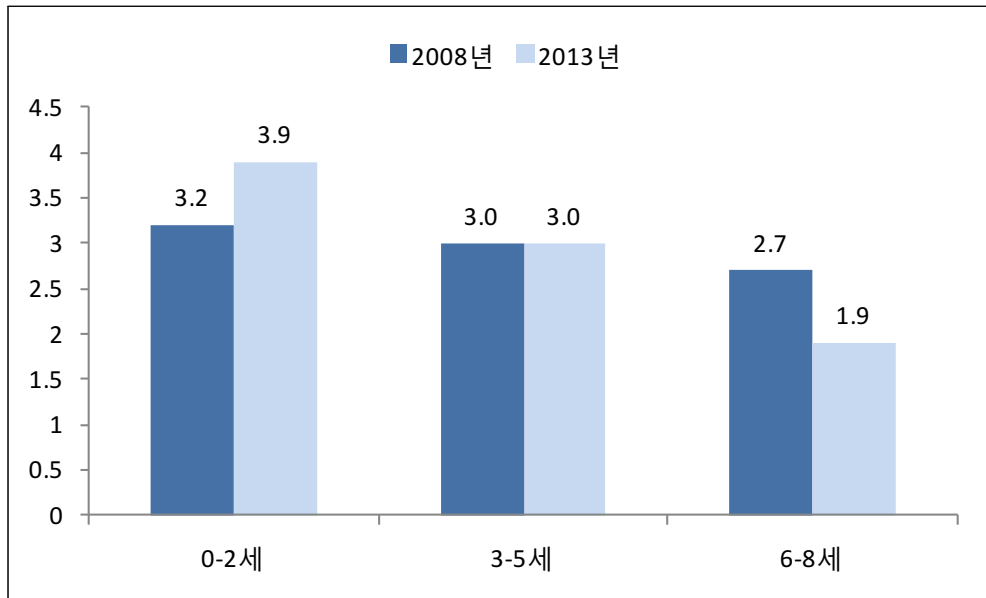
예방접종률은 필수항목을 모두 다했다는 비율이 94.4%로 높게 나타났다. 95%이상의 높은 접종률은 0세에서 11세까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에서 접종률이 낮았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의 접종률이 낮게 나타났다.

〈표 8-21〉 예방접종

		(단위: %, 명)			
구분		필수 항목 중 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필수항목을 모두 다 했다	모름	계 (명)
전체		3.7	94.4	2.0	100.0 (9,678,277)
성별	남자	3.3	94.8	2.0	100.0 (5,049,157)
	여자	4.1	93.9	2.0	100.0 (4,629,120)
연령	0~2세	3.9	95.2	1.0	100.0 (1,407,369)
	3~5세	3.0	95.8	1.2	100.0 (1,407,945)
	6~8세	1.9	97.2	1.0	100.0 (1,357,821)
	9~11세	3.3	95.6	1.2	100.0 (1,546,503)
	12~17세	4.6	92.1	3.3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9.6	84.1	6.4	100.0 (376,738)
	일반	3.4	94.8	1.8	100.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10.2	82.6	7.2	100.0 (247,664)
	차상위	8.3	86.9	4.8	100.0 (129,073)
	일반	3.4	94.8	1.8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3.4	95.0	1.6	100.0 (4,218,761)
	중소도시	3.9	94.1	2.0	100.0 (4,869,141)
	농어촌	4.0	92.1	4.0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2	95.3	1.5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7.5	87.1	5.4	100.0 (1,012,991)

[그림 8-14] 예방접종률 미완료율 변화

(단위: %)



* 필수항목 중 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다. 연간 응급실 이용

연간 응급실 이용경험은 전체적으로는 1.6%였다. 연령대별로는 0-2세가 2.9%로 가장 높았다. 주된 응급실 이용원인은 교통사고, 찢리거나 베임, 중독, 낙상, 추락 등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의 응급의료 이용 경험률이 높았다.

〈표 8-22〉 최근 1년 병원 응급실 이용 경험

구분		있다	없다	(단위: %, 명) 계 (명)
전체		1.6	98.4	100.0 (9,660,951)
성별	남자	1.7	98.3	100.0 (5,041,289)
	여자	1.5	98.5	100.0 (4,619,662)
연령	0-2세	2.9	97.1	100.0 (1,401,129)
	3-5세	1.5	98.5	100.0 (1,406,306)
	6-8세	1.1	98.9	100.0 (1,354,331)
	9-11세	1.1	98.9	100.0 (1,543,470)
	12-17세	1.6	98.4	100.0 (3,955,716)
소득수준1	빈곤	3.1	96.9	100.0 (375,729)
	일반	1.6	98.4	100.0 (9,285,222)
소득수준2	기초수급	2.9	97.1	100.0 (246,835)
	차상위	3.3	96.7	100.0 (128,894)
	일반	1.6	98.4	100.0 (9,285,222)
지역	대도시	1.3	98.7	100.0 (4,207,460)
	중소도시	1.5	98.5	100.0 (4,865,833)
	농어촌	4.8	95.2	100.0 (587,659)
가족유형	양부모	1.5	98.5	100.0 (8,552,118)
	한부모·조손	3.0	97.0	100.0 (1,009,232)

〈표 8-23〉 응급실 이용 원인

(단위: %, 명)

구분		화상	낙상	추락	교통사고	찢리거나 베임	중독	기타	계 (명)
전체		3.0	4.4	4.2	13.6	12.0	5.2	57.6	100.0 (140,797)
성별	남자	4.5	3.0	7.7	13.8	12.0	0.1	58.9	100.0 (77,327)
	여자	1.1	6.2	0.0	13.3	12.1	11.3	56.0	100.0 (63,470)
연령	0-2세	8.0	0.2	15.3	0.0	19.7	0.0	56.8	100.0 (38,645)
	3-5세	0.8	2.2	0.0	0.0	25.4	0.0	71.6	100.0 (16,451)
	6-8세	0.0	0.0	0.0	0.0	20.6	0.1	79.2	100.0 (14,718)
	9-11세	3.1	11.7	0.0	1.5	12.6	0.5	70.5	100.0 (16,708)
	12-17세	0.8	7.1	0.0	34.8	0.0	13.2	44.1	100.0 (54,276)
소득수준1	빈곤	5.3	10.5	0.0	5.8	5.7	1.0	71.7	100.0 (11,169)
	일반	2.8	3.9	4.6	14.3	12.6	5.5	56.4	100.0 (129,628)
소득수준2	기초수급	8.5	5.1	0.0	9.3	6.6	1.6	68.9	100.0 (6,936)
	차상위	0.0	19.4	0.0	0.0	4.4	0.0	76.2	100.0 (4,233)
	일반	2.8	3.9	4.6	14.3	12.6	5.5	56.4	100.0 (129,628)
지역	대도시	2.8	1.6	11.0	1.2	8.7	13.5	61.3	100.0 (53,825)
	중소도시	0.8	0.4	0.0	29.0	16.2	0.0	53.6	100.0 (63,893)
	농어촌	9.4	22.3	0.0	0.0	8.1	0.1	60.1	100.0 (23,079)
가족유형	양부모	3.2	4.7	5.3	16.6	12.3	6.5	51.4	100.0 (111,197)
	한부모·조손	2.0	3.7	0.0	2.2	11.1	0.3	80.8	100.0 (29,600)

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지역 내 병의원이 가장 높은 88.2%를 나타내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소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이용률은 일반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24〉 보건의료기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종합, 대학병원	지역내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기타	비해당	계 (명)
전체		9.0	88.2	0.9	0.6	0.1	1.1	100.0 (9,624,994)
성별	남자	9.6	87.8	0.8	0.6	0.1	1.1	100.0 (5,024,730)
	여자	8.4	88.7	1.0	0.6	0.1	1.1	100.0 (4,600,263)
연령	0-2세	11.7	84.1	1.2	1.9	0.0	1.1	100.0 (1,394,291)
	3-5세	9.6	88.9	0.5	0.5	0.0	0.5	100.0 (1,401,232)
	6-8세	6.9	92.1	0.4	0.1	0.0	0.5	100.0 (1,351,870)
	9-11세	8.3	90.0	0.5	0.7	0.3	0.3	100.0 (1,544,462)
	12-17세	8.9	87.5	1.3	0.3	0.2	1.8	100.0 (3,933,139)
소득수준1	빈곤	6.0	88.9	1.4	2.4	0.2	1.0	100.0 (375,731)
	일반	9.2	88.2	0.9	0.5	0.1	1.1	100.0 (9,249,263)
소득수준2	기초수급	6.7	89.7	0.9	1.4	0.2	1.1	100.0 (246,658)
	차상위	4.6	87.5	2.4	4.5	0.3	0.7	100.0 (129,073)
	일반	9.2	88.2	0.9	0.5	0.1	1.1	100.0 (9,249,263)
지역	대도시	7.7	90.0	0.7	0.3	0.1	1.1	100.0 (4,173,392)
	중소도시	10.2	86.6	1.2	0.6	0.1	1.2	100.0 (4,863,745)
	농어촌	8.2	89.0	0.1	2.3	0.0	0.4	100.0 (587,857)
가족유형	양부모	9.5	88.0	0.9	0.5	0.1	1.0	100.0 (8,518,509)
	한부모·조손	5.3	90.1	1.1	1.8	0.0	1.7	100.0 (1,009,112)

라. 아동의 자살행동

아동의 자살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신설된 문항으로, 9-17세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에 한해 시도 횟수를 물어보았다. 본 조사 대상 9-17세 아동의 3.6%가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8-25〉 9-17세 아동의 자살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9-11세			12-17세		
		아니오	예	계 (명)	아니오	예	계 (명)	아니오	예	계 (명)
전체		96.4	3.6	100.0 (5,500,234)	97.4	2.6	100.0 (1,543,663)	96.0	4.0	100.0 (3,956,571)
아동 성별	남자	97.3	2.7	100.0 (2,894,863)	98.2	1.8	100.0 (791,208)	96.9	3.1	100.0 (2,103,655)
	여자	95.3	4.7	100.0 (2,605,371)	96.5	3.5	100.0 (752,455)	94.9	5.1	100.0 (1,852,916)
연령	9-11세	97.4	2.6	100.0 (1,543,663)	-	-	-	-	-	-
	12-17세	96.0	4.0	100.0 (3,956,571)	-	-	-	-	-	-
소득수준1	빈곤	94.1	5.9	100.0 (269,092)	96.5	3.5	100.0 (45,069)	93.6	6.4	100.0 (224,023)
	일반	96.5	3.5	100.0 (5,231,142)	97.4	2.6	100.0 (1,498,594)	96.1	3.9	100.0 (3,732,548)
소득수준2	기초수급	92.9	7.1	100.0 (194,361)	96.0	4.0	100.0 (39,349)	92.1	7.9	100.0 (155,012)
	차상위	97.1	2.9	100.0 (74,731)	100.0	0.0	100.0 (5,720)	96.9	3.1	100.0 (69,011)
	일반	96.5	3.5	100.0 (5,231,142)	97.4	2.6	100.0 (1,498,594)	96.1	3.9	100.0 (3,732,548)
지역	대도시	97.2	2.8	100.0 (2,402,764)	99.7	0.3	100.0 (702,566)	96.2	3.8	100.0 (1,700,198)
	중소도시	95.5	4.5	100.0 (2,758,355)	95.2	4.8	100.0 (753,485)	95.7	4.3	100.0 (2,004,870)
	농어촌	96.8	3.2	100.0 (339,115)	97.6	2.4	100.0 (87,611)	96.5	3.5	100.0 (251,504)
가족유형	양부모	96.5	3.5	100.0 (467,193)	97.5	2.5	100.0 (1,354,733)	96.1	3.9	100.0 (3,323,460)
	한부모·조손	95.3	4.7	100.0 (771,458)	95.9	4.1	100.0 (172,959)	95.2	4.8	100.0 (598,499)

자살을 생각한 아동 중 25.9%(전체 9-17세 아동 중 1.0%)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자살시도율을 살펴보면 다음<표 8-26>과 같다. 여자에 비해 남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일수록 자살시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살시도 횟수를 물어본 결과, 1번에서 13까지의 분포가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워낙 작아(실제 조사 사례수=9명) 이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 8-26> 9-17세 아동의 자살시도 여부

		(단위: %, 명)		
구분		아니오	예	계 (명)
전체		74.1	25.9	100.0 (200,497)
아동 성별	남자	61.5	38.5	100.0 (79,144)
	여자	82.3	17.7	100.0 (121,353)
연령	9-11세	66.6	33.4	100.0 (40,749)
	12-17세	76.0	24.0	100.0 (159,748)
소득수준1	빈곤	72.7	27.3	100.0 (15,995)
	일반	74.2	25.8	100.0 (184,503)
소득수준2	기초수급	68.4	31.6	100.0 (13,833)
	차상위	100.0	0.0	100.0 (2,161)
	일반	74.2	25.8	100.0 (184,503)
지역	대도시	77.2	22.8	100.0 (66,206)
	중소도시	73.9	26.1	100.0 (123,435)
	농어촌	56.4	43.6	100.0 (10,856)
가족유형	양부모	75.0	25.0	100.0 (164,486)
	한부모·조손	69.7	30.3	100.0 (36,012)

제2절 주양육자의 건강특성

1. 건강수준

가.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주양육자의 건강상태는 약 95.0%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소득수준별로 볼 때 기초수급가구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 격차보다는 소득수준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7〉 부모의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18.0	77.0	4.5	0.5	100.0 (9,441,852)
성별	남자	18.5	76.8	4.2	0.5	100.0 (4,940,601)
	여자	17.4	77.2	4.8	0.6	100.0 (4,501,252)
연령	0-2세	19.1	76.8	3.7	0.5	100.0 (1,366,566)
	3-5세	20.9	76.3	2.7	0.1	100.0 (1,378,731)
	6-8세	19.0	76.6	4.3	0.1	100.0 (1,341,492)
	9-11세	19.0	74.2	6.3	0.5	100.0 (1,523,593)
	12-17세	15.8	78.6	4.7	0.9	100.0 (3,831,470)
소득수준1	빈곤	6.9	64.3	23.5	5.4	100.0 (368,715)
	일반	18.4	77.5	3.7	0.3	100.0 (9,073,137)
소득수준2	기초수급	7.3	60.3	24.7	7.7	100.0 (242,763)
	차상위	6.1	71.9	21.2	0.8	100.0 (125,952)
	일반	18.4	77.5	3.7	0.3	100.0 (9,073,137)
지역	대도시	13.3	82.2	3.9	0.6	100.0 (4,116,769)
	중소도시	20.9	73.4	5.1	0.6	100.0 (4,749,221)
	농어촌	27.5	69.3	3.0	0.1	100.0 (575,862)
가족유형	양부모	19.3	77.5	3.0	0.3	100.0 (8,361,500)
	한부모·조손	7.8	72.5	16.6	3.0	100.0 (982,980)

나. 음주

주양육자의 연간음주율은 61.5%정도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아동이 남자인 경우 1년에 2회 이하로 음주하는 비율이 63.2%로 여자보다 높았다. 아동의 연령대별로는 9-11세 아동의 부모의 주간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양육자의 배우자의 음주율은 주간 및 매일 음주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볼 때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배우자에서 주간 음주율과 매일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8-28〉 연간음주(본인)

(단위: %, 명)

구분		1년에 2회 이하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비해당	계 (명)
전체		61.5	25.9	11.0	0.8	0.8	100.0 (9,587,521)
성별	남자	63.2	24.9	10.5	0.7	0.7	100.0 (5,011,264)
	여자	59.6	27.0	11.5	1.0	0.9	100.0 (4,576,257)
연령	0-2세	70.8	19.8	8.2	0.8	0.4	100.0 (1,394,962)
	3-5세	63.5	23.6	11.3	0.2	1.4	100.0 (1,388,387)
	6-8세	60.0	27.2	11.6	0.3	0.8	100.0 (1,346,455)
	9-11세	54.8	28.6	15.2	0.8	0.5	100.0 (1,538,746)
	12-17세	60.6	27.3	10.0	1.3	0.9	100.0 (3,918,971)
소득수준1	빈곤	64.1	19.5	12.9	1.5	2.1	100.0 (368,792)
	일반	61.2	25.8	11.2	0.8	1.0	100.0 (9,218,729)
소득수준2	기초수급	65.2	17.5	13.2	1.6	2.5	100.0 (241,540)
	차상위	54.5	29.4	13.7	1.1	1.4	100.0 (127,252)
	일반	61.5	26.1	10.9	0.8	0.8	100.0 (9,218,729)
지역	대도시	66.6	22.4	9.4	0.6	1.0	100.0 (4,170,620)
	중소도시	57.2	28.7	12.5	1.0	0.5	100.0 (4,838,390)
	농어촌	60.2	27.0	10.2	0.7	1.8	100.0 (578,511)
가족유형	양부모	42.6	23.9	11.6	0.9	1.0	100.0 (8,485,616)
	한부모·조손	51.3	22.3	12.7	1.4	2.3	100.0 (1,002,426)

〈표 8-29〉 연간음주(배우자)

(단위: %, 명)

구분		1년에 2회 이하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비해당	계 (명)
전체		24.7	24.6	37.2	5.0	8.5	100.0 (8,804,344)
성별	남자	26.2	25.6	34.9	4.7	8.7	100.0 (4,576,392)
	여자	23.1	23.5	39.8	5.4	8.2	100.0 (4,227,952)
연령	0-2세	25.7	32.7	35.0	2.6	4.1	100.0 (1,342,625)
	3-5세	24.6	27.3	39.5	4.0	4.5	100.0 (1,343,331)
	6-8세	24.0	25.5	39.7	5.7	5.0	100.0 (1,287,430)
	9-11세	24.1	24.8	33.9	7.9	9.3	100.0 (1,400,405)
	12-17세	24.8	20.3	37.7	5.0	12.3	100.0 (3,430,552)
소득수준1	빈곤	20.0	8.0	9.5	2.0	60.5	100.0 (127,911)
	일반	23.9	27.0	38.1	4.7	6.3	100.0 (8,676,433)
소득수준2	기초수급	15.0	6.3	6.3	2.2	70.2	100.0 (72,777)
	차상위	25.1	8.6	11.5	2.0	52.9	100.0 (55,134)
	일반	24.9	25.3	38.4	5.2	6.3	100.0 (8,676,433)
지역	대도시	27.7	27.2	32.0	3.8	9.4	100.0 (3,802,610)
	중소도시	23.1	22.3	40.8	6.2	7.7	100.0 (4,459,377)
	농어촌	16.3	24.9	46.0	4.7	8.1	100.0 (542,357)
가족유형	양부모	28.3	27.1	37.6	5.0	2.0	100.0 (8,477,329)
	한부모·조손	7.9	2.1	3.3	0.7	86.0	100.0 (232,491)

주양육자 본인이 술을 마실 때 보통 음주량은 1-2잔 34.7%, 3-4잔 40.2%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에서 1-2잔 음주량의 비율이 35.1%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7잔 이상의 고위험음주량 비율이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배우자의 음주량은 7잔 이상이 41.0%로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에서 고위험음주량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의 7잔 이상 음주량 비율이 높았다.

〈표 8-30〉 음주량(본인)

(단위: %, 명)

구분		1-2잔	3-4잔	5-6잔	7잔 이상	없음	계 (명)
전체		34.7	40.2	15.7	8.9	0.5	100.0 (5,650,888)
성별	남자	36.2	37.8	15.9	9.3	0.8	100.0 (2,880,659)
	여자	33.2	42.6	15.5	8.5	0.3	100.0 (2,770,228)
연령	0-2세	37.0	39.5	14.5	8.2	0.8	100.0 (712,644)
	3-5세	42.5	33.7	15.7	8.1	0.0	100.0 (813,801)
	6-8세	33.0	38.1	18.1	9.6	1.2	100.0 (790,444)
	9-11세	28.8	45.9	18.1	7.1	0.0	100.0 (1,004,116)
	12-17세	34.4	40.9	14.2	9.9	0.6	100.0 (2,329,883)
소득수준1	빈곤	22.1	39.2	20.5	17.4	0.7	100.0 (177,917)
	일반	34.4	40.5	15.6	8.9	0.6	100.0 (5,472,970)
소득수준2	기초수급	23.2	40.0	19.2	16.5	1.1	100.0 (107,979)
	차상위	23.1	40.8	21.7	14.4	0.0	100.0 (69,938)
	일반	35.1	40.2	15.5	8.7	0.5	100.0 (5,472,970)
지역	대도시	33.5	40.0	17.0	8.5	0.9	100.0 (2,261,448)
	중소도시	35.8	40.1	14.7	9.1	0.2	100.0 (3,005,273)
	농어촌	33.1	41.3	15.5	9.6	0.5	100.0 (384,166)
가족유형	양부모	34.1	40.1	15.5	9.7	0.6	100.0 (5,020,392)
	한부모·조손	20.6	39.9	21.8	16.9	0.7	100.0 (577,478)

〈표 8-31〉 음주량(배우자)

(단위: %, 명)

구분		1-2잔	3-4잔	5-6잔	7잔 이상	없음	계 (명)
전체		8.5	18.3	30.7	41.0	1.5	100.0 (6,961,164)
성별	남자	9.2	19.0	29.4	40.4	2.0	100.0 (3,560,322)
	여자	7.8	17.5	32.1	41.6	1.0	100.0 (3,400,842)
연령	0-2세	8.5	20.4	30.3	39.6	1.2	100.0 (1,049,847)
	3-5세	10.7	19.8	31.8	36.8	1.0	100.0 (1,077,305)
	6-8세	7.4	18.8	36.0	36.4	1.4	100.0 (1,029,141)
	9-11세	8.6	18.9	28.2	42.5	1.7	100.0 (1,137,470)
	12-17세	8.0	16.4	29.5	44.3	1.8	100.0 (2,667,401)
소득수준1	빈곤	12.5	26.7	26.4	31.6	2.7	100.0 (71,314)
	일반	7.9	18.2	31.6	40.7	1.5	100.0 (6,889,850)
소득수준2	기초수급	15.0	18.7	23.7	38.0	4.7	100.0 (40,881)
	차상위	7.1	31.9	31.1	29.3	0.6	100.0 (30,433)
	일반	8.5	18.2	30.8	41.0	1.5	100.0 (6,889,850)
지역	대도시	9.2	23.7	30.5	34.6	2.1	100.0 (2,952,486)
	중소도시	8.8	14.4	29.9	45.9	1.0	100.0 (3,549,868)
	농어촌	2.2	13.2	38.8	44.3	1.5	100.0 (458,810)
가족유형	양부모	8.3	19.6	30.8	39.8	1.6	100.0 (6,751,786)
	한부모·조손	13.1	19.0	27.4	34.5	6.0	100.0 (143,419)

다. 흡연

주양육자(부모) 본인의 흡연율은 약 4.9%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흡연율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2-17세 청소년 부모인 경우 흡연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차상위가구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배우자의 흡연율은 35.1%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에서의 흡연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의 흡연율이 높았다.

〈표 8-32〉 흡연(본인)

(단위: %, 명)

구분		흡연하지 않는다	반갑 (10개피) 이하	반갑-한 갑	한갑 이상	흡연율	비해당	계 (명)
전체		90.0	1.4	2.4	1.1	4.9	5.1	100.0 (9,108,207)
성별	남자	90.2	1.1	2.2	1.4	4.7	5.1	100.0 (4,754,757)
	여자	89.9	1.7	2.5	0.8	5	5.1	100.0 (4,353,451)
연령	0-2세	91.2	1.4	1.1	1.2	3.7	5.0	100.0 (1,318,406)
	3-5세	90.5	1.9	1.6	0.8	4.3	5.1	100.0 (1,336,200)
	6-8세	91.1	1.0	1.5	1.5	4	4.9	100.0 (1,291,178)
	9-11세	90.9	0.8	2.9	1.1	4.8	4.2	100.0 (1,480,627)
	12-17세	88.7	1.6	3.1	1.0	5.7	5.6	100.0 (3,681,796)
소득수준1	빈곤	82.1	4.2	4.7	1.7	10.6	7.3	100.0 (350,434)
	일반	88.4	1.4	2.5	1.0	4.9	6.7	100.0 (8,757,774)
소득수준2	기초수급	82.8	4.6	3.9	1.1	9.6	7.6	100.0 (228,205)
	차상위	78.4	6.8	8.2	1.4	16.4	5.2	100.0 (122,228)
	일반	90.4	1.2	2.2	1.1	4.5	5.1	100.0 (8,757,774)
지역	대도시	89.1	1.5	3.1	1.4	6	4.8	100.0 (3,989,253)
	중소도시	91.3	1.3	1.5	0.9	3.7	5.1	100.0 (4,580,192)
	농어촌	86.2	1.5	3.8	0.5	5.8	8.1	100.0 (538,763)
가족유형	양부모	88.2	1.8	2.8	1.5	6.0	5.8	100.0 (8,120,197)
	한부모·조손	82.1	4.1	4.7	0.9	9.7	8.2	100.0 (936,513)

주: 비해당은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임.

〈표 8-33〉 흡연(배우자)

(단위: %, 명)

구분		흡연하지 않는다	반갑 (10개피) 이하	반갑-한 갑	한갑 이상	흡연율	비해당	계 (명)
전체		54.1	10.9	18.1	6.1	35.1	10.8	100.0 (8,563,130)
성별	남자	54.9	10.0	17.4	6.5	33.9	11.1	100.0 (4,444,346)
	여자	53.2	11.9	18.9	5.6	36.4	10.4	100.0 (4,118,784)
연령	0-2세	60.8	13.9	15.5	2.2	31.6	7.7	100.0 (1,285,230)
	3-5세	56.4	15.0	17.4	5.3	37.7	5.9	100.0 (1,324,621)
	6-8세	54.0	9.7	23.5	5.9	39.1	6.9	100.0 (1,261,385)
	9-11세	47.2	13.9	21.6	6.4	41.9	10.9	100.0 (1,375,267)
	12-17세	53.7	7.6	16.1	7.7	31.4	14.9	100.0 (3,316,628)
소득수준1	빈곤	25.9	4.5	5.7	2.2	12.3	61.7	100.0 (122,236)
	일반	53.8	11.4	18.9	6.1	36.4	9.8	100.0 (8,440,894)
소득수준2	기초수급	20.3	3.4	4.0	1.7	9.1	70.5	100.0 (72,009)
	차상위	27.8	8.1	5.3	1.3	14.7	57.6	100.0 (50,227)
	일반	55.3	11.2	18.7	6.3	36.2	8.6	100.0 (8,440,894)
지역	대도시	58.4	11.9	14.1	3.8	29.8	11.8	100.0 (3,686,750)
	중소도시	51.1	10.2	21.3	7.9	39.4	9.6	100.0 (4,365,205)
	농어촌	48.2	10.0	21.4	7.2	38.6	13.3	100.0 (511,176)
가족유형	양부모	56.9	12.2	19.3	6.3	37.8	5.3	100.0 (8,270,973)
	한부모-조손	10.8	1.0	1.5	0.5	3.1	86.1	100.0 (237,633)

주양육자 본인이 흡연자인 경우 가정의 실내에서 흡연하는 비율은 39.0%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9-11세와 12-17세 청소년 부모의 가정실내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배우자가 흡연자인 경우 가정 실내 흡연율은 32.3%로 주양육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가정실내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주양육자가 가정에서 주로 살림을 돌보는 여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8-34〉 가정 실내흡연(본인)

(단위: %, 명)

구분		흡연하지 않는다	가끔흡연	매일	실내 흡연율	비해당	계 (명)
전체		56.2	30.6	8.4	39	4.7	100.0 (432,253)
성별	남자	55.0	29.1	10.1	39.2	5.9	100.0 (213,565)
	여자	57.5	32.2	6.7	38.9	3.6	100.0 (218,688)
연령	0-2세	75.1	24.2	0.6	24.8	0.1	100.0 (48,212)
	3-5세	71.8	13.1	9.3	22.4	5.7	100.0 (57,846)
	6-8세	80.7	11.1	0.4	11.5	7.8	100.0 (47,179)
	9-11세	46.1	32.0	15.9	47.9	6.0	100.0 (65,051)
	12-17세	45.4	40.9	9.3	50.2	4.4	100.0 (213,966)
소득수준1	빈곤	59.9	26.1	8.9	35.0	5.1	100.0 (44,059)
	일반	64.4	23.7	5.9	29.7	5.9	100.0 (388,194)
소득수준2	기초수급	56.6	32.4	8.4	40.8	2.6	100.0 (22,883)
	차상위	40.0	47.5	12.5	60.0	0.0	100.0 (21,175)
	일반	57.0	29.7	8.2	37.9	5.1	100.0 (388,194)
지역	대도시	55.9	27.2	11.6	38.8	5.3	100.0 (231,462)
	중소도시	53.2	39.3	5.5	44.8	2.0	100.0 (173,364)
	농어촌	75.3	8.9	0.5	9.4	15.3	100.0 (27,427)
가족유형	양부모	71.6	17.3	5.6	22.8	5.6	100.0 (320,668)
	한부모·조손	47.8	36.3	10.6	46.9	5.3	100.0 (111,586)

〈표 8-35〉 가정 실내흡연(배우자)

(단위: %, 명)

구분		흡연하지 않는다	가끔흡연	매일	배우자 실내 흡연을	비해당	계 (명)
전체		63.5	24.3	8.0	32.3	4.2	100.0 (3,204,586)
성별	남자	61.7	25.5	8.0	33.5	4.8	100.0 (1,601,191)
	여자	65.4	23.0	8.1	31.1	3.5	100.0 (1,603,394)
연령	0-2세	75.5	16.2	4.1	20.3	4.1	100.0 (412,350)
	3-5세	78.3	14.0	2.6	16.6	5.0	100.0 (500,631)
	6-8세	68.0	19.6	8.7	28.3	3.6	100.0 (510,503)
	9-11세	62.1	27.2	9.0	36.2	1.8	100.0 (628,947)
	12-17세	51.7	32.0	11.0	43	5.3	100.0 (1,152,155)
소득수준1	빈곤	60.6	28.9	7.2	36.1	3.3	100.0 (38,467)
	일반	67.3	21.1	7.0	28.1	4.7	100.0 (3,166,118)
소득수준2	기초수급	58.9	31.8	5.4	37.2	3.9	100.0 (21,149)
	차상위	47.1	28.9	24.0	52.9	0.0	100.0 (17,318)
	일반	63.7	24.2	8.0	32.2	4.2	100.0 (3,166,118)
지역	대도시	63.8	22.0	8.0	30	6.3	100.0 (1,149,382)
	중소도시	62.0	26.8	8.6	35.4	2.7	100.0 (1,840,306)
	농어촌	75.3	15.2	4.1	19.3	5.4	100.0 (214,898)
가족유형	양부모	66.4	22.3	6.9	29.2	4.4	100.0 (3,142,570)
	한부모·조손	57.1	25.7	11.4	37.1	5.7	100.0 (51,880)

라. 우울감

부모의 우울감의 정도는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17세 미만 모든 아동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우울감의 최소 0점에서 최대 33점까지의 분포를 가지며, 주 양육자의 평균 우울수준은 5.6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복지패널에서 나타난 성인의 우울수준 5.1점과 유사하였다.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10-33 참조).

〈표 8-36〉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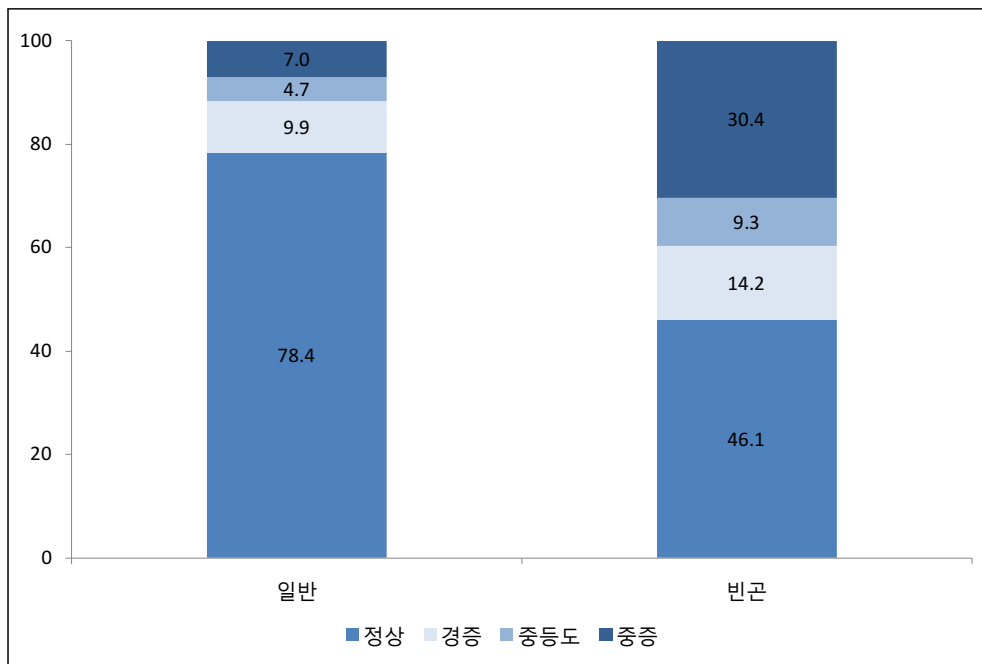
(단위: 점수,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5.65	4.94	9,678,277
성별	남자	5.59	4.92	5,049,157
	여자	5.72	4.95	4,629,120
연령	0-2세	5.21	4.34	1,407,369
	3-5세	5.28	4.51	1,407,945
	6-8세	5.35	4.65	1,357,821
	9-11세	5.83	5.09	1,546,503
	12-17세	5.97	5.27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10.10	6.65	376,738
	일반	5.47	4.77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10.50	6.76	247,664
	차상위	9.34	6.38	129,073
	일반	5.47	4.77	9,301,539
지역	대도시	5.36	4.88	4,218,761
	중소도시	5.86	5.03	4,869,141
	농어촌	5.92	4.45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5.29	4.69	8,565,684
	한부모-조손	8.53	6.01	1,012,991

주: 33점만점, 최소값 0, 최대값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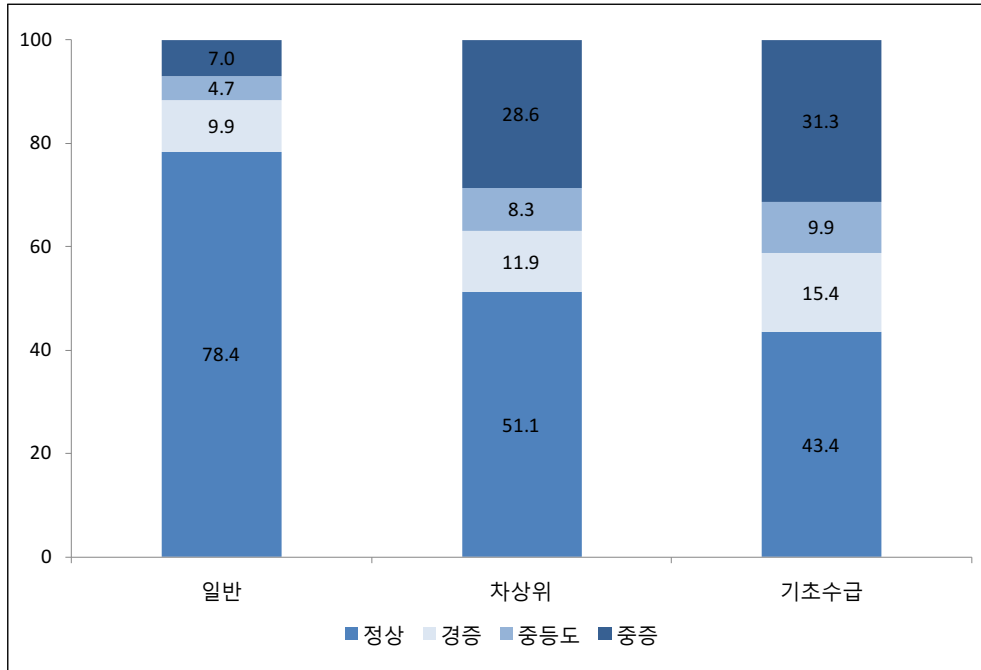
60점 환산 점수 기준 16점 이상인 우울증이 의심되는¹⁴⁾ 주양육자의 비율은 22.9%로 나타났으나, 이들 대부분은 경증우울수준을(16~20점) 보였다(16점 이상인 주양육자 중 44.0%, 전체 주양육자 중 10.1%), 60점 환산 점수 기준 25점 이상인 중증우울증이 의심되는 주양육자 비율은 전체 주양육자 중 7.9%로 나타나 2012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우울증 유병율 6.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증우울증이 의심되는 주양육자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8-15] 17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의 소득수준1별 우울증의심군 유형 구성 비율



14)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CES-D 척도는 원래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사의 용이성을 위해 주로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활용되고 있음. 11문항 CES-D 척도역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음. 20문항 척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우울수준 총점이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한 11문항의 우울총점에 20/11을 곱하여(60점 만점으로 환산) 우울증 의심군(경증, 중등도, 중증 우울증 의심군)을 계산하였음. 구체적으로 16점 이상 20점 이하인 경우 경증우울증, 21점 이상 24점 이하인 경우 중등도 우울증, 25점 이상인 경우 중증 우울증 의심군으로 계산함.

[그림 8-16] 17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의 소득수준2별 우울증 의심군 유형 구성 비율



주양육자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나쁘며($r=-0.17$),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적으며($r=-0.12$), 아동방임($r=0.29$)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양육자의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 개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접근 역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임신출산 건강

가. 임신 중 건강관리

아동을 출산할 당시의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71.4%, 제왕절개 28.3%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로 보면 자연분만한 경우는 남자아동에서 높았고, 여자아동은 제왕절개비율이 30.1%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계층별로는 기초수급가구에서 제왕절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제왕절개분만 경향이 높았다. 2008년의 경우보다 연령별 자연분만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7〉 분만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연분만	제왕절개	모름	계 (명)
전체		71.4	28.3	0.3	100.0 (9,678,277)
성별	남자	73.2	26.6	0.3	100.0 (5,049,157)
	여자	69.5	30.1	0.4	100.0 (4,629,120)
연령	0-2세	71.9	27.9	0.2	100.0 (1,407,369)
	3-5세	71.9	28.0	0.1	100.0 (1,407,945)
	6-8세	70.7	29.2	0.1	100.0 (1,357,821)
	9-11세	70.6	29.1	0.4	100.0 (1,546,503)
	12-17세	71.7	27.8	0.5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63.5	31.8	4.7	100.0 (376,738)
	일반	71.7	28.1	0.1	100.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61.5	32.8	5.7	100.0 (247,664)
	차상위	67.5	29.8	2.6	100.0 (129,073)
	일반	71.7	28.1	0.1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71.6	28.1	0.3	100.0 (4,218,761)
	중소도시	70.6	29.1	0.3	100.0 (4,869,141)
	농어촌	76.5	22.5	0.9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72.9	27.0	0.1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57.0	40.5	2.5	100.0 (1,012,991)

아동을 출산했을 때 조산했던 경우는 남자 8.1%, 여자 6.7%로 나타났다. 현재 0-2세 아동, 3-5세 아동, 12-17세 청소년의 출생 시 조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초수급가구의 경우는 모른다는 응답이 6.5%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조산한 경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38〉 조산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름	계 (명)
전체		7.4	91.6	0.9	100.0 (9,678,277)
성별	남자	8.1	91.1	0.8	100.0 (5,049,157)
	여자	6.7	92.2	1.1	100.0 (4,629,120)
연령	0-2세	9.1	90.3	0.7	100.0 (1,407,369)
	3-5세	7.7	91.7	0.5	100.0 (1,407,945)
	6-8세	5.1	94.4	0.5	100.0 (1,357,821)
	9-11세	5.0	94.4	0.6	100.0 (1,546,503)
	12-17세	8.5	90.0	1.4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7.4	87.5	5.2	100.0 (376,738)
	일반	7.4	91.8	0.8	100.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7.3	86.2	6.5	100.0 (247,664)
	차상위	7.6	89.9	2.5	100.0 (129,073)
	일반	7.4	91.8	0.8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7.5	91.8	0.7	100.0 (4,218,761)
	중소도시	7.7	91.3	1.0	100.0 (4,869,141)
	농어촌	5.2	93.2	1.6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7.1	92.5	0.4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10.7	84.9	4.5	100.0 (1,012,991)

정기적인 산전진찰은 97.0%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서로 산전진찰율이 높았다.

〈표 8-39〉 정기적인 산전 진찰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름	계 (명)
전체		97.0	1.8	1.2	100.0 (9,629,927)
성별	남자	97.5	1.6	0.9	100.0 (5,022,287)
	여자	96.5	1.9	1.6	100.0 (4,607,640)
연령	0-2세	97.7	1.5	0.8	100.0 (1,399,495)
	3-5세	96.9	1.7	1.5	100.0 (1,404,475)
	6-8세	97.7	0.8	1.4	100.0 (1,346,137)
	9-11세	97.1	1.5	1.4	100.0 (1,538,136)
	12-17세	96.6	2.3	1.1	100.0 (3,941,685)
소득수준1	빈곤	82.6	10.5	6.9	100.0 (373,150)
	일반	97.6	1.4	1.0	100.0 (9,256,777)
소득수준2	기초수급	82.2	9.8	8.0	100.0 (244,922)
	차상위	83.3	12.0	4.7	100.0 (128,228)
	일반	97.6	1.4	1.0	100.0 (9,256,777)
지역	대도시	97.4	1.1	1.5	100.0 (4,204,446)
	중소도시	96.9	2.2	0.8	100.0 (4,845,798)
	농어촌	95.7	2.3	2.0	100.0 (579,684)
가족유형	양부모	98.3	1.1	0.6	100.0 (8,541,452)
	한부모·조손	87.2	6.4	6.4	100.0 (988,874)

임신기간 중 철분제 복용률은 88.9%였다. 비교적 어린 아동의 부모일수록 철분제 복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철분제 복용률이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복용률이 낮았다.

〈표 8-40〉 임신 중 철분제 복용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름	계 (명)
전체		88.9	9.8	1.3	100.0 (9,632,943)
성별	남자	88.5	10.6	1.0	100.0 (5,021,984)
	여자	89.4	9.0	1.6	100.0 (4,610,959)
연령	0-2세	95.0	3.9	1.1	100.0 (1,399,495)
	3-5세	91.1	7.4	1.5	100.0 (1,407,945)
	6-8세	90.0	8.6	1.4	100.0 (1,346,137)
	9-11세	87.3	11.0	1.6	100.0 (1,538,136)
	12-17세	86.1	12.7	1.1	100.0 (3,941,231)
소득수준1	빈곤	69.6	23.2	7.2	100.0 (372,695)
	일반	89.7	9.3	1.1	100.0 (9,260,248)
소득수준2	기초수급	68.0	23.5	8.5	100.0 (244,468)
	차상위	72.7	22.6	4.7	100.0 (128,228)
	일반	89.7	9.3	1.1	100.0 (9,260,248)
지역	대도시	89.0	9.4	1.6	100.0 (4,208,007)
	중소도시	89.2	9.9	0.9	100.0 (4,845,252)
	농어촌	85.5	12.5	2.0	100.0 (579,684)
가족유형	양부모	90.8	8.5	0.7	100.0 (8,544,377)
	한부모·조손	73.7	19.8	6.5	100.0 (988,965)

임신 중의 음주율은 2.7%였다. 6-8세 아동의 부모에서 임신 중 음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차상위가구에서 음주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음주율이 높았다. 임신 중 흡연율은 1.5%였고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차상위 가구의 흡연율은 4.4%로 나타났다. 임신 중 합병증 경험률은 3.3%였다. 연령대별로는 6-8세 아동의 임신 중 합병증 경험률이 6.5%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서 임신합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1〉 임신 중 위험요인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임신 중 음주	임신 중 흡연	임신 중 합병증
전체		2.7	1.5	3.3
성별	남자	2.6	1.3	3.3
	여자	2.7	1.7	3.4
연령	0-2세	1.6	0.4	2.5
	3-5세	2.6	1.7	3.1
	6-8세	4.1	2.1	6.5
	9-11세	2.8	1.3	4.7
	12-17세	2.5	1.7	2.1
소득수준1	빈곤	4.1	2.8	5.0
	일반	2.6	1.4	3.3
소득수준2	기초수급	3.9	2.0	4.8
	차상위	4.5	4.4	5.5
	일반	2.6	1.4	3.3
지역	대도시	3.3	2.1	3.1
	중소도시	2.1	0.9	3.5
	농어촌	3.4	1.9	3.9
가족유형	양부모	2.4	1.3	3.1
	한부모·조손	3.8	2.9	4.7

임신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받은 경우는 58.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0-8세 아동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8-4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없음	계 (명)
전체		58.6	38.8	2.6	100.0 (9,623,750)
성별	남자	56.6	41.1	2.3	100.0 (5,020,712)
	여자	60.8	36.4	2.8	100.0 (4,603,037)
연령	0-2세	66.4	31.4	2.2	100.0 (1,399,396)
	3-5세	63.9	33.7	2.5	100.0 (1,407,945)
	6-8세	62.4	34.1	3.5	100.0 (1,346,137)
	9-11세	56.0	41.1	2.9	100.0 (1,536,313)
	12-17세	53.7	44.1	2.2	100.0 (3,933,959)
소득수준1	빈곤	38.5	53.3	8.2	100.0 (371,506)
	일반	59.4	38.3	2.3	100.0 (9,252,244)
소득수준2	기초수급	41.1	48.9	10.0	100.0 (243,931)
	차상위	33.6	61.6	4.8	100.0 (127,575)
	일반	59.4	38.3	2.3	100.0 (9,252,244)
지역	대도시	56.5	41.5	2.0	100.0 (4,200,137)
	중소도시	61.6	35.3	3.0	100.0 (4,845,504)
	농어촌	48.5	48.9	2.7	100.0 (578,109)
가족유형	양부모	60.0	38.0	2.0	100.0 (8,536,724)
	한부모-조손	46.8	45.3	7.9	100.0 (987,424)

아동의 출생 시 몸무게는 평균 3.2kg이었고 표준편차는 0.4였다. 대체로 건강한 수준으로 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k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1.5%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수급가구에서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3.8%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저체중 출생이 6.9%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3〉 출생시 몸무게

(단위: kg,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3.25	0.38	9,678,277
성별	남자	3.29	0.38	5,049,157
	여자	3.20	0.38	4,629,120
연령	0-2세	3.22	0.39	1,407,369
	3-5세	3.23	0.35	1,407,945
	6-8세	3.23	0.39	1,357,821
	9-11세	3.25	0.38	1,546,503
	12-17세	3.26	0.39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3.19	0.45	376,738
	일반	3.25	0.38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3.18	0.47	247,664
	차상위	3.20	0.41	129,073
	일반	3.25	0.38	9,301,539
지역	대도시	3.25	0.39	4,218,761
	중소도시	3.24	0.38	4,869,141
	농어촌	3.26	0.37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25	0.38	8,565,684
	한부모·조손	3.22	0.43	1,012,991

〈표 8-44〉 출생시 저체중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름	계 (명)
전체		1.5	77.8	20.7	100.0 (295,556)
성별	남자	1.8	77.5	20.7	100.0 (182,793)
	여자	1.0	78.2	20.8	100.0 (112,763)
연령	0-2세	0.0	99.8	0.2	100.0 (8,312)
	3-5세	0.0	94.9	5.1	100.0 (35,550)
	6-8세	0.2	63.0	36.8	100.0 (35,572)
	9-11세	0.6	89.8	9.6	100.0 (38,423)
	12-17세	2.3	73.7	24.0	100.0 (177,699)
소득수준1	빈곤	3.3	69.1	27.5	100.0 (34,749)
	일반	1.2	78.9	19.8	100.0 (260,807)
소득수준2	기초수급	3.8	63.5	32.7	100.0 (28,142)
	차상위	1.3	93.2	5.4	100.0 (6,607)
	일반	1.2	78.9	19.8	100.0 (260,807)
지역	대도시	0.1	76.7	23.2	100.0 (167,399)
	중소도시	2.6	83.8	13.6	100.0 (107,568)
	농어촌	6.9	55.2	37.9	100.0 (20,589)
가족유형	양부모	0.0	79.8	20.2	100.0 (192,242)
	한부모·조손	5.1	70.8	24.1	100.0 (85,935)

나. 모유수유

모유수유 현황은 모유만 먹였다는 경우가 22.3%였다. 연령별로 모유만 먹인 경우는 3-5세 26.2%, 6-8세 27.2%였다. 평균 모유수유기간은 13.7개월이었고, 표준편차는 6.2개월이었다. 따라서 생후 6개월간의 모유수유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45〉 모유수유 형태

(단위: %, 명)

구분		모유와 분유	분유만	모유만	모름	계 (명)
전체		52.2	25.0	22.3	0.5	100.0 (9,678,277)
성별	남자	53.0	24.2	22.2	0.6	100.0 (5,049,157)
	여자	51.3	25.8	22.5	0.4	100.0 (4,629,120)
연령	0-2세	55.3	23.8	20.8	0.1	100.0 (1,407,369)
	3-5세	52.7	21.1	26.2	0.0	100.0 (1,407,945)
	6-8세	54.5	18.2	27.2	0.1	100.0 (1,357,821)
	9-11세	44.4	32.7	22.4	0.5	100.0 (1,546,503)
	12-17세	53.2	26.1	19.8	0.9	100.0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39.6	31.2	25.4	3.8	100.0 (376,738)
	일반	52.7	24.7	22.2	0.3	100.0 (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40.2	30.7	24.5	4.5	100.0 (247,664)
	차상위	38.5	32.2	26.9	2.3	100.0 (129,073)
	일반	52.7	24.7	22.2	0.3	100.0 (9,301,539)
지역	대도시	50.3	26.3	22.8	0.5	100.0 (4,218,761)
	중소도시	53.0	24.5	22.1	0.4	100.0 (4,869,141)
	농어촌	59.4	19.6	20.7	0.4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52.8	24.3	22.7	0.2	100.0 (8,565,684)
	한부모-조손	45.4	31.8	19.9	2.9	100.0 (1,012,991)

〈표 8-46〉 모유수유 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평균	SD	명
전체		13.70	6.17	2,162,926
성별	남자	13.28	5.97	1,120,224
	여자	14.16	6.35	1,042,703
연령	0-2세	12.53	5.05	292,393
	3-5세	13.57	5.57	369,220
	6-8세	14.00	5.85	369,576
	9-11세	14.93	7.69	347,008
	12-17세	13.51	6.10	784,729
소득수준1	빈곤	13.97	7.30	95,559
	일반	13.69	6.11	2,067,367
소득수준2	기초수급	13.97	7.90	60,783
	차상위	13.97	6.16	34,775
	일반	13.69	6.11	2,067,367
지역	대도시	13.24	6.43	962,991
	중소도시	13.94	5.81	1,077,645
	농어촌	15.24	6.78	122,290
가족유형	양부모	13.84	6.20	1,944,485
	한부모·조손	12.64	5.83	201,738

제3절 아동의 방임 및 학대실태

1. 아동방임실태

지난 6개월간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인 방치에 대해 양육자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아동을 30분 이상 혼자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번 17.5%, 2~3개월에 1~2번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을 혼자 둔 경험이 높아졌으며 특히 0-2세의 영아인 경우 아동을 혼자 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6-8세인 경우 높아졌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빈곤가구의 방치가 높았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아동을 혼자 두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8-47〉 지난 6개월간 집에서 30분이상 아동이 혼자 있었던 경험(방치): 부모응답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계
전체		81.3	17.5	1.2	100.0(4,104,343)
성별	남자	81.5	17.1	1.4	100.0(2,107,828)
	여자	81.0	18.0	1.0	100.0(1,996,515)
연령	0-2세	95.1	4.9	0.0	100.0(1,389,996)
	3-5세	86.2	13.1	0.7	100.0(1,377,247)
	6-8세	61.8	35.2	2.9	100.0(1,337,100)
소득 수준1	빈곤	75.7	21.8	2.5	100.0(107,517)
	일반	81.4	17.4	1.2	100.0(3,996,827)
소득 수준2	기초수급	72.1	26.0	2.0	100.0(53,174)
	차상위	79.2	17.8	3.0	100.0(54,343)
	일반	81.4	17.4	1.2	100.0(3,996,827)
지역	대도시	79.2	20.4	0.4	100.0(1,770,145)
	중소도시	83.5	14.6	1.9	100.0(2,086,025)
	농어촌	76.9	21.8	1.3	100.0(248,173)
가족유형	양부모	81.9	17.1	0.9	100.0(3,837,424)
	한부모·조손	72.1	22.4	5.5	100.0(238,551)

본 조사에서는 아동의 방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이 문항은 201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행된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동일한 문항이다.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률을 구하기 위하여 Straus와 그의 동료들(1998)이 개발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Scale-Parent Child: 이하 CTSPC)를 사용하였다. CTSPC는 세 가지 차원인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아동학대실태조사와 동일하게 방임 관련된 질문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방임 질문은 주양육자에게는 가해 경험을, 아동에게는 피해경험을 질문하였다.

〈표 8-48〉 방임경험 문항

구분		문항내용
방임 경험	주양육자	△△(이)만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아동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않았다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주양육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방임실태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 0.16점으로 ‘전혀 없었다’에 가까운 응답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소 높아졌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방임점수가 일반층보다 다소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주양육자로부터 경험한 방임실태를 살펴보면 평균 0.17점으로 ‘전혀 없었다’에 가까운 응답결과를 보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방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8-49〉 방임경험

(단위: 점수, 명)

구분		보호자			아동		
		평균	SD	명	평균	SD	명
전체		0.16	0.26	9,678,277	0.17	0.26	5,498,808
성별	남자	0.16	0.27	5,049,157	0.17	0.27	2,891,370
	여자	0.16	0.26	4,629,120	0.17	0.25	2,60,7438
연령	0-2세	0.05	0.17	1,407,369	-	-	-
	3-5세	0.09	0.22	1,407,945	-	-	-
	6-8세	0.13	0.24	1,357,821	-	-	-
	9-11세	0.19	0.26	1,546,503	0.19	0.27	1,546,503
	12-17세	0.22	0.29	3,958,639	0.16	0.25	395,2305
소득 수준1	빈곤	0.27	0.34	376,738	0.24	0.32	269,146
	일반	0.15	0.26	9,301,539	0.17	0.26	5,229,662
소득 수준2	기초수급	0.28	0.34	247,664	0.24	0.33	194,415
	차상위	0.26	0.33	129,073	0.23	0.30	74,731
	일반	0.15	0.26	9,301,539	0.17	0.26	5,229,662
지역	대도시	0.16	0.28	4,218,761	0.18	0.27	2,398,497
	중소도시	0.15	0.24	4,869,141	0.16	0.25	2,761,142
	농어촌	0.18	0.29	590,375	0.18	0.27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0.15	0.25	8,565,684	0.16	0.25	4,677,812
	한부모·조손	0.26	0.31	1,012,991	0.20	0.28	768,345

주: 1점= 전혀없었다. 2점= 1년에 1~2번, 3점= 2~3개월에 1~2번정도, 4점=한달에 1~2번 정도, 5점=일주일에 1~2번 정도

이러한 방임경험에 대해 문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8-50〉부터 〈표 8-54〉과 같다. 먼저 아동을 혼자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두었는지에 대해 부모가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8-50 참고), 한 번이라도 아동을 혼자 둔 경우는 2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40.2%)이 양부모 가족(23.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가구의 경우 일주일에 1~2번 이상 아동을 혼자 두었다는 비율이 11.1%로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누군가 아동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혼자 있었던 경험에 대해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는 31.1%로 나타났다. 즉 주양육자가 응답한 방임 비율보다 아동이 스스로 응답한 방임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빈곤가구의 경우 일주일에 ‘1~2번이상 혼자 있었

다'는 응답이 8.2%이었으며, 특히 차상위가구는 16.4%로 일반가구(1.4%)와 기초수급가구(5.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또한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일주일에 1~2번 이상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양부모(1.0%)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5.3%로 높게 나타났다.

〈표 8-51〉은 아동이 원할 때 애정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지에 대한 주양육자 및 아동의 응답결과이다. 주양육자의 경우 아동에게 애정표현을 안한 경우는 20.1%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일반가구(19.5%)에 비하여 빈곤가구(34.9%)의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한부모 및 조손가족(31.2%)이 양부모가족(18.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방임에 노출된 아동은 22.6%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서방임 경험률이 높아져서 기초수급가구 34.6%, 차상위가구 29.7%, 일반가구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52〉는 아동이 필요할 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챙겨주지 못한 경우는 21.9%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빈곤가구(39.1%)가 일반가구(21.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33.6%)이 양부모가족(20.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응답결과를 보면 음식을 챙겨주지 않는 경험을 한 아동은 23.3%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수준과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빈곤가구(31.5%)가 일반가구(22.9%)에 비하여 높았으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30.0%)이 양부모가족(22.2%)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8-53〉을 통해 아동이 필요할 때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경우는 11.8%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 빈곤가구(25.2%)가 일반가구(11.3%)에 비하여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한부모 및 조손가족(22.9%)이 양부모가족(10.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은 경험을 한 아동은 9.1%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빈곤가구는 17.7%로 일반가구 8.6%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한부모 및 조손가구가 13.3%로 일반가구 8.3%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양육자 응답결과(표 8-54 참조),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돌보지 못한 경험이 이는 경우는 6.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일반가구(6.1%)에 비하여 빈곤가구(11.8%)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여 농어촌 8.3%, 대도시 7.4%, 중소도시 5.1%의 순이었다. 아동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보호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자신을 돌봐주지 못한 경험을 한 아동은 5.6%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은 남아가 여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빈곤가구(9.7%)가 일반가구(5.3%)에 비하여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한부모 및 조손가족(9.1%)이 양부모가족(4.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방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주양육자와 아동의 응답결과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하여 모든 문항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고하고 있다.

〈표 8-50〉 방임경험1: 아동을 혼자 둔

(단위: %, 명)

		주양육자										아동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 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 일에 1~2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구분	전체	74.4	14.1	4.6	3.6	3.3	74.4	25.6	100.0 (9,656,704)	68.9	19.5	5.0	4.9	1.7	68.9	31.1	100.0 (5,498,808)	
	성별	남자	73.8	15.0	4.2	3.5	3.5	73.8	26.2	100.0 (5,033,582)	69.5	18.9	5.5	4.4	1.7	69.5	30.5	100.0 (2,891,370)
		여자	75.2	13.1	5.0	3.6	3.2	75.2	24.8	100.0 (4,623,122)	68.3	20.2	4.4	5.4	1.7	68.3	31.7	100.0 (2,607,438)
	연령	0~2세	94.8	3.4	1.7	0.2	0.0	94.8	5.2	100.0 (1,407,369)	-	-	-	-	-	-	-	-
		3~5세	86.5	8.1	3.4	1.8	0.2	86.5	13.5	100.0 (1,407,593)	-	-	-	-	-	-	-	-
		6~8세	79.0	11.9	2.8	3.3	2.9	79.0	21.0	100.0 (1,352,258)	-	-	-	-	-	-	-	-
		9~11세	65.8	19.0	6.3	5.7	3.2	65.8	34.2	100.0 (1,538,179)	66.6	20.8	4.4	6.6	1.6	66.6	33.4	100.0 (1,546,503)
		12~17세	64.7	18.9	5.9	4.7	5.9	64.7	35.3	100.0 (3,951,306)	69.9	19.0	5.2	4.2	1.7	69.9	30.1	100.0 (3,952,305)
	소득 수준1	빈곤	62.5	14.2	6.4	5.8	11.1	62.5	37.5	100.0 (376,220)	65.0	16.1	5.7	5.1	8.2	65.0	35.0	100.0 (269,146)
		일반	74.9	14.1	4.5	3.5	3.0	74.9	25.1	100.0 (9,280,484)	69.1	19.7	4.9	4.8	1.4	69.1	30.9	100.0 (5,229,662)
소득 수준2	기초수급	63.4	15.5	7.1	6.2	7.8	63.4	36.6	100.0 (247,499)	66.7	18.6	4.0	5.6	5.1	66.7	33.3	100.0 (194,415)	
	차상위	60.8	11.7	5.0	5.0	17.5	60.8	39.2	100.0 (128,721)	60.4	9.4	10.0	3.8	16.4	60.4	39.6	100.0 (74,731)	
지역	일반	74.9	14.1	4.5	3.5	3.0	74.9	25.1	100.0 (9,280,484)	69.1	19.7	4.9	4.8	1.4	69.1	30.9	100.0 (5,229,662)	
	대도시	75.2	13.5	4.8	3.9	2.6	75.2	24.8	100.0 (4,205,404)	67.8	17.8	6.4	6.0	2.1	67.8	32.2	100.0 (2,398,497)	
	중소도시	74.1	14.5	4.3	3.2	4.0	74.1	25.9	100.0 (4,863,579)	69.7	21.2	3.8	3.9	1.3	69.8	30.3	100.0 (2,761,142)	
가족유 형	농어촌	72.1	14.5	5.5	4.1	3.7	72.1	27.9	100.0 (587,722)	70.6	18.1	4.8	4.7	1.8	70.6	29.4	100.0 (339,169)	
	양부모	76.1	13.8	4.0	3.4	2.7	76.1	23.9	100.0 (8,554,414)	69.8	19.4	5.1	4.7	1.0	69.8	30.2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59.8	16.6	8.8	5.6	9.2	59.8	40.2	100.0 (1008,252)	64.2	20.7	4.9	4.9	5.3	64.2	35.8	100.0 (768,345)	

〈표 8-51〉 방문경험2: 아동에게 애정표현을 안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음

(단위: %, 명)

구분	주양육자								아동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 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 일에 1~2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 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체	79.9	10.2	5.3	2.7	2.0	79.9	20.1	100.0 (9,660,161)	77.4	11.4	5.5	3.2	2.5	77.4	22.6	100.0 (5,498,344)	
연령	남자	79.6	10.1	5.4	3.0	1.9	79.6	20.4	100.0 (5,037,285)	77.3	11.4	5.6	3.1	2.7	77.3	22.7	100.0 (2,891,370)
	여자	80.3	10.2	5.2	2.3	2.1	80.3	19.7	100.0 (4,622,875)	77.6	11.5	5.4	3.3	2.3	77.6	22.5	100.0 (2,606,973)
	0~2세	91.4	5.0	1.5	0.9	1.3	91.4	8.6	100.0 (1,407,369)	-	-	-	-	-	-	-	-
	3~5세	89.5	5.8	2.9	0.4	1.3	89.5	10.5	100.0 (1,407,593)	-	-	-	-	-	-	-	-
	6~8세	85.4	8.0	4.4	0.7	1.5	85.4	14.6	100.0 (1,352,258)	-	-	-	-	-	-	-	-
소득 수준1	9~11세	76.0	14.5	4.1	2.8	2.5	76.0	24.0	100.0 (1,542,482)	75.3	11.1	5.9	3.9	3.8	75.3	24.7	100.0 (1,546,503)
	12~17세	72.1	12.6	8.2	4.8	2.4	72.1	27.9	100.0 (3,950,459)	78.3	11.6	5.3	2.9	2.0	78.3	21.7	100.0 (3,951,840)
소득 수준2	빈곤 일반	65.1 80.5	11.5 10.1	9.7 5.1	9.0 2.4	4.7 1.9	65.1 80.5	34.9 19.5	100.0 (375,454) 100.0 (9,284,706)	66.7 78.0	15.4 11.2	9.2 5.3	4.1 3.1	4.4 2.4	66.7 78.0	33.3 22.0	100.0 (268,681) 100.0 (5,229,662)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63.4 68.3 80.5	13.6 7.6 10.1	10.0 9.2 5.1	8.0 10.7 2.4	4.9 4.2 1.9	63.4 68.3 80.5	36.6 31.7 19.5	100.0 (246,981) 100.0 (128,474) 100.0 (9,284,706)	65.4 70.3 78.0	17.3 10.6 11.2	7.5 13.8 5.3	5.2 1.5 3.1	4.7 3.8 2.4	65.4 70.3 78.0	34.6 29.7 22.0	100.0 (193,951) 100.0 (74,731) 100.0 (5,229,66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79.9 80.3 76.7	9.7 10.2 13.3	5.9 4.8 4.8	3.1 2.3 2.6	1.4 2.4 2.5	79.9 80.3 76.7	20.1 19.7 23.3	100.0 (4,209,379) 100.0 (4,862,978) 100.0 (587,804)	76.6 78.6 73.3	11.6 11.2 12.8	5.8 4.9 7.8	4.5 1.8 4.6	1.6 3.4 1.5	76.6 78.6 73.3	23.4 21.4 26.6	100.0 (2,398,033) 100.0 (2,761,142) 100.0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한부모·조손	81.2 68.8	10.1 10.9	4.8 9.0	2.2 6.7	1.7 4.6	81.2 68.8	18.8 31.2	100.0 (8,554,414) 100.0 (1,011,708)	77.7 77.5	11.5 11.0	5.2 6.3	3.1 3.2	2.5 2.0	77.7 77.5	22.3 22.5	100.0 (4,677,348) 100.0 (768,345)

〈표 8-52〉 방문경험3: 끼니를 챙기지 못함

(단위: %, 명)

구분	주양육자								아동							
	전혀 없었다	1년에 1~2 번 정도	2~3 개월 에 1~2 번 정도	한 달에 1~2 번 정도	일주 일에 1~2 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체	78.1	10.7	5.6	3.4	2.2	78.1	21.9	100.0 (9,660,761)	76.7	11.4	6.9	3.3	1.7	76.7	23.3	100.0 (5,498,808)
	78.5	10.4	5.7	3.8	1.7	78.5	21.5	100.0 (5,037,886)	76.1	11.1	7.0	3.9	1.9	76.2	23.9	100.0 (2,891,370)
성별	77.7	11.1	5.4	3.0	2.8	77.7	22.3	100.0 (4,622,875)	77.2	11.8	6.7	2.6	1.6	77.2	22.8	100.0 (2,607,438)
연령	94.2	4.1	1.3	0.3	0.1	94.2	5.8	100.0 (1,407,369)	-	-	-	-	-	-	-	-
	91.2	4.9	3.0	0.5	0.4	91.2	8.8	100.0 (1,407,593)	-	-	-	-	-	-	-	-
	85.7	7.2	5.2	1.5	0.5	85.7	14.3	100.0 (1,352,258)	-	-	-	-	-	-	-	-
	77.7	12.0	5.8	3.4	1.2	77.7	22.3	100.0 (1,542,482)	78.7	12.3	4.8	3.4	0.8	78.7	21.3	100.0 (1,546,503)
	65.4	15.9	8.0	6.2	4.5	65.4	34.6	100.0 (3,951,059)	75.9	11.1	7.7	3.3	2.1	75.9	24.1	100.0 (3,952,305)
소득 수준1	60.9	11.1	9.0	10.0	9.0	60.9	39.1	100.0 (376,054)	68.5	10.9	6.7	7.0	6.8	68.5	31.5	100.0 (269,146)
	78.8	10.7	5.4	3.1	1.9	78.8	21.2	100.0 (9,284,706)	77.1	11.4	6.9	3.1	1.5	77.1	22.9	100.0 (5,229,662)
소득 수준2	60.8	13.3	9.9	8.3	7.7	60.8	39.2	100.0 (247,581)	69.3	11.2	7.6	7.7	4.3	69.3	30.7	100.0 (194,415)
	61.0	6.8	7.4	13.4	11.5	61.0	39.0	100.0 (128,474)	66.6	9.9	4.6	5.4	13.5	66.6	33.5	100.0 (74,731)
지역	78.8	10.7	5.4	3.1	1.9	78.8	21.2	100.0 (9,284,706)	77.1	11.4	6.9	3.1	1.5	77.1	22.9	100.0 (5,229,662)
	77.1	10.6	6.7	3.4	2.2	77.1	22.9	100.0 (4,209,379)	75.6	10.6	7.7	3.9	2.1	75.6	24.4	100.0 (2,398,497)
가족 유형	78.9	11.0	4.4	3.3	2.3	78.9	21.1	100.0 (4,863,579)	77.3	12.3	6.2	2.6	1.6	77.3	22.7	100.0 (2,761,142)
	79.1	8.9	6.6	4.3	1.1	79.1	20.9	100.0 (587,804)	78.8	9.9	6.2	4.8	0.4	78.8	21.2	100.0 (339,169)
가족 유형	79.5	10.9	5.4	2.7	1.5	79.5	20.5	100.0 (8,554,414)	77.8	11.5	6.0	3.2	1.5	77.8	22.2	100.0 (4,677,812)
	66.4	10.2	6.9	9.6	7.0	66.4	33.6	100.0 (1,012,308)	70.0	10.8	12.5	4.1	2.6	70.0	30.0	100.0 (768,345)

〈표 8-53〉 병임경험4: 병원을 데려가지 않음

구분		주요육자							아동							(단위: %,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성별	전체	88.2	8.2	2.2	1.1	0.4	88.2	11.8	100.0 (9,657,108)	90.9	5.6	2.3	0.8	0.4	90.9	9.1	100.0 (5,498,808)
	남자	88.9	7.3	2.6	1.0	0.3	88.9	11.1	100.0 (5,037,886)	90.3	5.0	3.2	0.9	0.6	90.3	9.7	100.0 (2,891,370)
연령	여자	87.4	9.2	1.8	1.2	0.4	87.4	12.6	100.0 (4,619,223)	91.7	6.2	1.3	0.6	0.3	91.7	8.3	100.0 (2,607,438)
	0~2세	95.6	3.3	0.7	0.4	0.1	95.6	4.4	100.0 (1,407,369)	-	-	-	-	-	-	-	-
	3~5세	93.2	4.7	2.0	0.0	0.1	93.2	6.8	100.0 (1,407,593)	-	-	-	-	-	-	-	-
	6~8세	89.9	8.4	1.5	0.2	0.0	89.9	10.1	100.0 (1,352,258)	-	-	-	-	-	-	-	-
	9~11세	89.3	7.0	2.8	0.5	0.3	89.3	10.7	100.0 (1,542,482)	90.2	6.4	2.8	0.6	0.1	90.2	9.8	100.0 (1,546,503)
소득 수준1	12~17세	82.7	11.6	2.9	2.2	0.7	82.7	17.3	100.0 (3,947,406)	91.2	5.3	2.1	0.8	0.6	91.2	8.8	100.0 (3,952,305)
	빈곤 일반	74.8 88.7	15.2 7.9	7.0 2.0	1.5 1.0	1.5 0.3	74.8 88.7	25.2 11.3	100.0 (376,054) 100.0 (9,281,054)	82.3 91.4	9.8 5.4	2.8 2.3	3.0 0.6	2.1 0.3	82.3 91.4	17.7 8.6	100.0 (269,146) 100.0 (5,229,662)
소득 수준2	기초수급 차상위	74.1 76.1	15.5 14.7	7.0 7.0	1.7 1.1	1.8 1.1	74.1 76.1	25.9 23.9	100.0 (247,581) 100.0 (128,474)	81.2 85.2	10.0 9.3	3.3 1.5	2.6 4.1	3.0 0.0	81.2 85.2	18.8 14.8	100.0 (194,415) 100.0 (74,731)
	일반	88.7	7.9	2.0	1.0	0.3	88.7	11.3	100.0 (9,281,054)	91.4	5.4	2.3	0.6	0.3	91.4	8.6	100.0 (5,229,662)
지역	대도시	87.2	8.1	2.9	1.4	0.4	87.2	12.8	100.0 (4,205,726)	90.9	4.3	3.1	1.1	0.6	90.9	9.2	100.0 (2,398,497)
	중소도시	89.0	8.4	1.6	0.7	0.4	89.0	11.0	100.0 (4,863,579)	90.9	6.8	1.6	0.3	0.4	90.9	9.1	100.0 (2,761,142)
	농어촌	88.0	6.9	3.4	1.7	0.0	88.0	12.0	100.0 (587,804)	92.0	4.3	2.3	1.5	0.0	92.0	8.0	100.0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89.5	7.4	2.0	0.9	0.2	89.5	10.5	100.0 (8,550,761)	91.8	5.2	2.2	0.6	0.3	91.8	8.3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77.1	15.4	4.5	2.0	1.1	77.1	22.9	100.0 (1,012,308)	86.8	7.6	3.4	1.6	0.6	86.8	13.3	100.0 (768,345)

(단위: %, 명)

〈표 8-54〉 방임경험5: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못함

(단위: %, 명)

구분	주양육자								아동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임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임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성별	전체	93.7	4.4	1.1	0.6	0.2	93.7	6.3	100.0 (9,657,108)	94.4	3.6	1.3	0.5	0.2	94.4	5.6	100.0 (5,498,808)
	남자	93.9	4.4	0.7	0.8	0.2	93.9	6.1	100.0 (5,037,886)	93.6	4.3	1.2	0.8	0.0	93.6	6.4	100.0 (2,891,370)
연령	여자	93.5	4.4	1.6	0.4	0.2	93.5	6.5	100.0 (4,619,223)	95.4	2.8	1.3	0.2	0.3	95.4	4.6	100.0 (2,607,438)
	0~2세	97.5	2.1	0.4	0.0	0.0	97.5	2.5	100.0 (1,407,369)	-	-	-	-	-	-	-	-
	3~5세	95.9	3.4	0.4	0.0	0.3	95.9	4.1	100.0 (1,407,593)	-	-	-	-	-	-	-	-
	6~8세	94.2	4.5	0.9	0.4	0.0	94.2	5.8	100.0 (1,352,258)	-	-	-	-	-	-	-	-
	9~11세	93.6	4.1	1.9	0.4	0.0	93.6	6.4	100.0 (1,542,482)	93.2	4.7	0.7	1.3	0.1	93.2	6.8	100.0 (1,546,503)
	12~17세	91.5	5.6	1.4	1.3	0.3	91.5	8.5	100.0 (3,947,406)	94.9	3.2	1.5	0.2	0.2	94.9	5.1	100.0 (3,952,305)
소득 수준1	빈곤	88.2	6.5	3.2	1.4	0.7	88.2	11.8	100.0 (376,054)	90.3	4.0	3.0	1.6	1.1	90.3	9.7	100.0 (269,146)
	일반	93.9	4.3	1.0	0.6	0.2	93.9	6.1	100.0 (9,281,054)	94.7	3.6	1.2	0.5	0.1	94.7	5.3	100.0 (5,229,662)
소득 수준2	기초수급	86.2	7.9	3.3	1.8	0.8	86.2	13.8	100.0 (247,581)	89.1	4.7	2.5	2.2	1.6	89.1	10.9	100.0 (194,415)
	차상위	91.9	3.8	3.0	0.7	0.6	91.9	8.1	100.0 (128,474)	93.4	2.2	4.4	0.0	0.0	93.4	6.6	100.0 (74,731)
지역	일반	93.9	4.3	1.0	0.6	0.2	93.9	6.1	100.0 (9,281,054)	94.7	3.6	1.2	0.5	0.1	94.7	5.3	100.0 (5,229,662)
	대도시	92.6	4.5	1.5	1.4	0.0	92.6	7.4	100.0 (4,205,726)	93.5	3.6	2.2	0.4	0.3	93.5	6.5	100.0 (2,398,497)
	중소도시	94.9	4.2	0.6	0.0	0.3	94.9	5.1	100.0 (4,863,579)	95.3	3.6	0.4	0.6	0.0	95.3	4.7	100.0 (2,761,142)
가족 유형	농어촌	91.7	5.4	2.6	0.3	0.0	91.7	8.3	100.0 (587,804)	93.7	3.3	1.9	0.8	0.3	93.7	6.3	100.0 (339,169)
	양부모	94.0	4.3	1.1	0.6	0.0	94.0	6.0	100.0 (8,550,761)	95.1	3.2	1.1	0.5	0.1	95.1	4.9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91.3	5.6	1.4	0.5	1.2	91.3	8.7	100.0 (1,012,308)	90.9	5.9	2.2	0.8	0.3	90.9	9.1	100.0 (768,345)

(단위: %, 명)

2. 신체 및 정서학대 실태

아동의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학대 관련 5문항, 정서학대 관련 3문항 총 8문항을 질문하였다. 이 문항들은 2008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Straus와 동료들(1998)에 의해 개발된 부모자녀 갈등전술 척도(CTSPC: Conflict Tactics Scale-Parent Child)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표 8-55〉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문항

구분		문항내용
신체학대	주양육자	△△(이)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주위의 물건(예. 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아이가 맞았다
		△△(이)를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때렸다
		칼이나 흉기(예. 송곳, 못, 도끼 등)으로 찔렀다
	아동	어른이 나를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어른이 주위의 물건(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어른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어른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허리띠로 맞았다
		어른이 칼이나 흉기(예. 송곳, 못, 도끼 등)으로 나를 찔렀다
정서학대	주양육자	△△(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적이 있다
		△△(이)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아동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어른이 꾸짖은 적이 있다
		어른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어른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가족이나 주양육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학대실태를 주양육자와 아동의 응답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0.01~0.07 수준을 나타내어 “전혀 없었다”에 가까운 응답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56〉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가해경험(주양육자 응답)

구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평균	SD	명	평균	SD	명
전체		0.01	0.07	9,678,277	0.05	0.18	9,678,277
성별	남자	0.01	0.06	5,049,157	0.04	0.17	5,049,157
	여자	0.01	0.07	4,629,120	0.06	0.19	4,629,120
연령	0-2세	0.00	0.04	1,407,369	0.00	0.04	1,407,369
	3-5세	0.01	0.05	1,407,945	0.03	0.14	1,407,945
	6-8세	0.02	0.10	1,357,821	0.06	0.21	1,357,821
	9-11세	0.01	0.08	1,546,503	0.07	0.21	1,546,503
	12-17세	0.01	0.06	3,958,639	0.06	0.19	3,958,639
소득 수준1	빈곤	0.01	0.08	376,738	0.09	0.24	376,738
	일반	0.01	0.07	9,301,539	0.05	0.18	9,301,53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0.01	0.06	247,664	0.08	0.21	247,664
	차상위	0.02	0.11	129,073	0.12	0.28	129,073
	일반	0.01	0.07	9,301,539	0.05	0.18	9,301,539
지역	대도시	0.01	0.07	4,218,761	0.04	0.16	4,218,761
	중소도시	0.01	0.06	4,869,141	0.06	0.19	4,869,141
	농어촌	0.02	0.10	590,375	0.06	0.18	590,375
가족 유형	양부모	0.01	0.07	8,565,684	0.05	0.17	8,565,684
	한부모·조손	0.01	0.06	1,012,991	0.07	0.21	1,012,991

주: 1점= 전혀없었다. 2점= 1년에 1~2번, 3점= 2~3개월에 1~2번정도, 4점=한달에 1~2번 정도, 5점=일주일
1~2번 정도

〈표 8-57〉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피해경험(아동응답)

구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평균	SD	명	평균	SD	명
전체		0.02	0.08	5,495,394	0.07	0.22	5,495,394
성별	남자	0.02	0.08	2,888,203	0.07	0.20	2,888,203
	여자	0.02	0.09	2,607,191	0.08	0.24	2,607,191
연령	9-11세	0.01	0.06	1,546,503	0.06	0.20	1,546,503
	12-17세	0.02	0.09	3,948,891	0.08	0.22	3,948,891
소득 수준1	빈곤	0.02	0.10	268,899	0.07	0.22	268,899
	일반	0.02	0.08	5,226,495	0.07	0.22	5,226,49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0.02	0.10	194,415	0.07	0.22	194,415
	차상위	0.02	0.09	74,484	0.08	0.22	74,484
	일반	0.02	0.08	5,226,495	0.07	0.22	5,226,495
지역	대도시	0.02	0.08	2,395,083	0.07	0.22	2,395,083
	중소도시	0.02	0.09	2,761,142	0.08	0.22	2,761,142
	농어촌	0.00	0.04	339,169	0.07	0.21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0.02	0.08	4,677,812	0.07	0.21	467,7812
	한부모·조손	0.02	0.08	764,931	0.10	0.27	764,931

주: 1점= 전혀없었다. 2점= 1년에 1~2번, 3점= 2~3개월에 1~2번정도, 4점=한달에 1~2번 정도, 5점=일주일에 1~2번 정도

지난 1년 동안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에 대한 결과를 각각의 질문별로 분석해보면 〈표 8-58〉부터 〈표 8-65〉와 같다.

아동을 벽에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경험(표 8-58 참고)은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한 번이라도 가해한 경우가 1.0%로 대체적으로 낮은 가해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낙 경험을 자체가 낮아서 아동 특성별(성별, 연령 등)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아동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주양육자 응답결과와 유사하게 1.1%로 낮은 피해율을 보고하였으며 아동의 특성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1.6%)가 여아(0.5%)보다 피해경험이 높았으며, 9-11세 아동(0.7%)보다 12세 이상 아동의 피해경험률(1.2%)이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 지역유형,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아져 기초수급가구(2.2%), 차상위가구(1.7%), 일반가구(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대도시(1.3%)와 중소도시(1.0%)가 농어촌(0.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0.5%)이 양부모가족(1.2%)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아동에게 물건을 던진 경험에 대해서는 주양육자의 0.9%가 가해경험

이 있었다(표 8-59 참고). 이러한 주양육자의 가해율을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아(1.3%)가 남아(0.5%)로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면 6-8세(1.7%)와 9-11세(1.3%)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가(2.9%)로 기초수급가구(0.7%)와 일반가구(0.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지난 1년간 어른이 자신에게 물건을 던져서 맞은 경험은 1.9%로 주양육자의 응답보다 높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여아(3.0%)가 남아(0.8%)보다 높았으며, 9-11세(1.4%)보다 12-17세(2.0%)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아져 기초수급가구 2.7%, 차상위가구 2.3%, 일반가구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2.9%)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0.9%), 농어촌(0.2%)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2.1%)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신체학대 경험 중에서 지난 1년간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때린 경험에 대해서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가해경험은 1.8%로 나타났다(표 8-60 참고).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아(2.1%)가 남아(1.5%)보다 높았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6-8세(4.4%)가 발생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9-11세(2.7%)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3.5%)가 가장 높았으며 기초수급가구(2.2%), 일반가구(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1.3%)가 중소도시(2.2%)와 농어촌(2.0%)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1.9%)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1.3%)에 비하여 높았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어른에게 발로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은 경험을 한번 이상이라도 겪은 아동은 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응답자 아동특성별로 살펴보면, 9-11세(1.6%)보다 12-17세(2.0%)가 높았으며, 일반가구(1.9%)에 비하여 빈곤가구(2.6%)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2.8%)가 대도시(1.0%)와 농어촌(1.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2.0%)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1.6%)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지난 1년간 아동에게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허리띠로 때린 경험에 대해서 주양육자의 1.4%가 한번이라도 아동에게 가해한 경험이 있었다(표 8-61 참고).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별로는 9-11세(2.1%)가 가장 높았으며, 6-8세(1.8%), 12-17세(1.7%)로 대체적으로 고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가 2.2%로 기초수급가구(1.2%)와 일반가구(1.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1.3%)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2.8%)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어른에게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허리띠로 맞은 경험은 3.7%로 주양육자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아동의 특성에 따라서는 여아가(4.9%) 남아보다(2.6%)로 높았으며, 12-17세 아동의 피해율은 4.3%로 9-11세 2.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빈곤가구(2.3%)에 비하여 일반가구(3.8%)의 피해경험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4.2%, 중소도시 3.7%, 농어촌 0.4%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의 경험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3.2%)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7.2%)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신체학대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학대행위라 볼 수 있는 칼이나 흉기로 찌르는 경험에 대해서는(표 8-62 참고), 주양육자의 응답결과에 따라서는 0.5%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응답결과는 0.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일주일에 1-2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주양육자와 아동은 모두 없었으며, 한 달에 1~2번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도 부모와 아동 거의 없었다. 학대 가해율(부모)과 피해율(아동) 모두 낮은 비율을 보여 세부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제시하면, 남아(0.2%)에 비하여 여아(0.8%)가 높았으며, 6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험률이 영유아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0.3%)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1.1%)의 경험률이 높았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아가(0.9%) 여아(0.5%)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9-11세(0.9%)가 12-17세(0.6%)에 비하여 높았다. 소득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0.4%)에 비하여 기초수급가구(0.8%)와 일반가구(0.7%)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1.3%로 중소도시(0.2%), 농어촌(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족(0.8%)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0.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경험은 <표 8-63>부터 <표 8-65>까지 제시되어있다.

우선 아동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경험에 대해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표 8-63 참고), 4.8%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6세 이상의 연령대 주양육자가 영유아 주양육자에 비하여 경험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반가구(4.6%)에 비하여 차상위가구(14.0%)

가 높았으며, 기초수급가구는 7.2%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5.9%)이 양부모가족(4.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모욕감과 수치심의 꾸짖음을 경험한 아동은 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11세(3.5%)에 비하여 12-17세(6.4%)가 훨씬 높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가 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일반가구(5.6%), 기초수급가구(4.8%)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6.7%)와 농어촌(6.4%)에 비해 중소도시가 4.6%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5.5%)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족(6.9%)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언어적 폭력에 대한 경험은 <표 8-64>와 같다. 주양육자의 경우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언어적 폭력을 한 경우가 4.5%였다.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1~2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주양육자는 거의 없어서 비교적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3.5%)가 여아(5.6%)에 비해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9-11세(7.5%)와 6-8세(6.0%)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0-2세 영아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 11.6%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수급가구 7.4%로 빈곤가구에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6.0%)로 대도시(2.9%), 농어촌(3.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경험률은 7.6%로 주양육자보다 높았으며, 남아(5.9%)에 비해 여아(9.6%)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가 11.1%로 기초수급가구(8.1%)와 일반가구(7.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6%)가 대도시(6.6%)와 농어촌(6.9%)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12.5%)이 양부모가족(6.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멍청한 것, 개보다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에 대한 경험(<표 8-65> 참고)은 주양육자의 경우 5.9%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남아(5.4%)에 비해 여아(6.5%)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9-11세 8.7%, 12-17세 7.5%, 6-8세 6.4%로 영유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빈곤가구(8.8%)가 일반가구(5.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8.9%), 중소도시(6.8%), 대도시(4.5%)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5.6%)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8.3%)이 높게 나타났다.

〈표 8-58〉 신체학대경험1: 말처서 벽에 부딪침

구분		주양육자										아동							(단위: %, 명)
		전혀 없었 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 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 일에 1~2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 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 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 일에 1~2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체		99.0	0.8	0.1	0.1	0.0	99.0	1.0	100.0 (9,606,809)	98.9	1.0	0.1	0.0	-	98.9	1.1	100.0 (5,495,394)		
	성별	남자	98.9	0.8	0.1	0.2	0.0	98.9	1.1	100.0 (4,999,491)	98.4	1.4	0.2	0.0	-	98.4	1.6	100.0 (2,888,203)	
연령	여자	99.1	0.7	0.1	0.0	0.0	99.1	0.9	100.0 (4,607,318)	99.5	0.5	0.0	0.0	-	99.5	0.5	100.0 (2,607,191)		
	0~2세	99.1	0.9	0.0	0.0	0.0	99.1	0.9	100.0 (1,400,032)	-	-	-	-	-	-	-	-		
	3~5세	99.5	0.5	0.0	0.0	0.0	99.5	0.5	100.0 (1,401,043)	-	-	-	-	-	-	-	-		
	6~8세	98.8	0.5	0.3	0.4	0.0	98.8	1.2	100.0 (1,340,702)	-	-	-	-	-	-	-	-		
	9~11세	99.5	0.4	0.1	0.0	0.0	99.5	0.5	100.0 (1,539,123)	99.3	0.7	0.0	0.0	-	99.4	0.7	100.0 (1,546,503)		
소득 수준1	12~17세	98.7	1.0	0.1	0.1	0.0	98.7	1.3	100.0 (3,925,908)	98.8	1.1	0.1	0.0	-	98.8	1.2	100.0 (3,948,891)		
	빈곤	98.9	0.9	0.2	0.0	0.0	98.9	1.1	100.0 (374,446)	97.9	1.8	0.1	0.2	-	97.9	2.1	100.0 (268,899)		
소득 수준2	일반	99.0	0.8	0.1	0.1	0.0	99.0	1.0	100.0 (9,232,364)	99.0	0.9	0.1	0.0	-	99.0	1.0	100.0 (5,226,495)		
	기초수급	99.0	0.7	0.3	0.0	0.0	99.0	1.0	100.0 (246,708)	97.8	1.9	0.1	0.2	-	97.8	2.2	100.0 (194,415)		
	차상위	98.7	1.3	0.0	0.0	0.0	98.7	1.3	100.0 (127,738)	98.3	1.6	0.1	0.0	-	98.3	1.7	100.0 (74,484)		
지역	일반	99.0	0.8	0.1	0.1	0.0	99.0	1.0	100.0 (9,232,364)	99.0	0.9	0.1	0.0	-	99.0	1.0	100.0 (5,226,95)		
	대도시	98.6	0.9	0.2	0.2	0.0	98.6	1.4	100.0 (4,172,568)	98.7	1.1	0.2	0.0	-	98.7	1.3	100.0 (2,395,083)		
	중소도시	99.4	0.6	0.0	0.0	0.0	99.4	0.6	100.0 (4,846,346)	99.0	1.0	0.0	0.0	-	99.0	1.0	100.0 (2,761,142)		
가족유형	농어촌	98.4	1.0	0.5	0.1	0.0	98.4	1.6	100.0 (587,895)	99.7	0.2	0.0	0.0	-	99.7	0.3	100.0 (339,169)		
	양부모	99.0	0.8	0.1	0.1	0.0	99.0	1.0	100.0 (8,520,803)	98.8	1.1	0.1	0.0	-	98.8	1.2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99.1	0.8	0.1	0.0	0.0	99.1	0.9	100.0 (991,967)	99.5	0.4	0.0	0.1	-	99.6	0.5	100.0 (764,931)		

(단위: %, 명)

〈표 8-59〉 신체학대경험2: 물건을 던져서 맞음

(단위: %, 명)

구분	주양육자							아동								
	전혀 없었다	1년에 1~2 번 정도	2~3 개월 에 1~2 번 정도	한 달에 1~2 번 정도	일주 일에 1~2 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체	99.1	0.8	0.0	0.1	0.0	99.1	0.9	100.0 (9,610,190)	98.1	1.7	0.0	0.1	0.0	98.1	1.9	100.0 (5,495,394)
	99.5	0.4	0.0	0.1	0.0	99.5	0.5	100.0 (5,002,408)	99.2	0.8	0.0	0.0	0.0	99.2	0.8	100.0 (2,888,203)
성별	98.7	1.1	0.0	0.1	0.0	98.7	1.3	100.0 (4,607,783)	97.0	2.7	0.0	0.2	0.0	97.0	3.0	100.0 (2,607,191)
연령	0~2세	99.5	0.2	0.0	0.3	99.5	0.5	100.0 (1,400,032)	-	-	-	-	-	-	-	-
	3~5세	99.6	0.3	0.0	0.0	99.6	0.4	100.0 (1,400,905)	-	-	-	-	-	-	-	-
	6~8세	98.3	1.3	0.0	0.4	98.3	1.7	100.0 (1,340,702)	-	-	-	-	-	-	-	-
	9~11세	98.7	1.2	0.1	0.0	98.7	1.3	100.0 (1,535,922)	98.6	1.4	0.0	0.0	0.0	98.6	1.4	100.0 (1,546,503)
	12~17세	99.2	0.8	0.0	0.0	99.2	0.8	100.0 (3,932,629)	98.0	1.8	0.0	0.2	0.0	98.0	2.0	100.0 (3,948,891)
소득 수준1	빈곤	98.6	1.3	0.1	0.0	98.6	1.4	100.0 (374,772)	97.4	2.2	0.4	0.0	0.0	97.4	2.6	100.0 (268,899)
	일반	99.1	0.7	0.0	0.1	99.1	0.9	100.0 (9,235,418)	98.2	1.7	0.0	0.1	0.0	98.2	1.8	100.0 (5,226,49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99.3	0.7	0.0	0.0	99.3	0.7	100.0 (247,173)	97.3	2.2	0.5	0.0	0.0	97.3	2.7	100.0 (194,415)
	차상위	97.1	2.5	0.4	0.0	97.1	2.9	100.0 (127,600)	97.7	2.0	0.3	0.0	0.0	97.7	2.3	100.0 (74,484)
	일반	99.1	0.7	0.0	0.1	99.1	0.9	100.0 (9,235,418)	98.2	1.7	0.0	0.1	0.0	98.2	1.8	100.0 (5,226,495)
지역	대도시	99.3	0.6	0.0	0.1	99.3	0.7	100.0 (4,171,320)	99.1	0.9	0.0	0.0	0.0	99.1	0.9	100.0 (2,395,083)
	중소도시	99.0	0.9	0.0	0.1	99.0	1.0	100.0 (4,850,975)	97.1	2.6	0.0	0.2	0.0	97.1	2.9	100.0 (2,761,142)
	농어촌	98.7	0.9	0.3	0.1	98.7	1.3	100.0 (587,895)	99.8	0.1	0.0	0.0	0.0	99.8	0.2	100.0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99.1	0.7	0.0	0.1	99.1	0.9	100.0 (8,524,185)	97.9	1.9	0.0	0.1	0.0	97.9	2.1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98.8	1.2	0.0	0.0	98.8	1.2	100.0 (991,967)	99.3	0.6	0.1	0.0	0.0	99.3	0.7	100.0 (764,931)

〈표 8-60〉 신체학대경험3: 발로치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 때림

(단위: %, 명)

구분		주양육자								아동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성별	전체	98.2	1.4	0.1	0.2	0.0	98.2	1.8	100.0 (9,611,817)	98.1	1.6	0.1	0.2	0.0	98.1	1.9	100.0 (5,495,360)
	남자	98.5	1.2	0.2	0.1	0.0	98.5	1.5	100.0 (5,004,034)	98.4	1.3	0.2	0.1	0.0	98.4	1.6	100.0 (2,888,203)
	여자	97.9	1.6	0.1	0.3	0.1	97.9	2.1	100.0 (4,607,783)	97.8	2.0	0.0	0.2	0.0	97.8	2.2	100.0 (2,607,157)
	0~2세	99.3	0.2	0.1	0.0	0.3	99.3	0.7	100.0 (1,400,032)	98.4	-	-	-	-	-	-	-
	3~5세	98.9	1.0	0.0	0.0	0.0	98.9	1.1	100.0 (1,400,905)	98.0	-	-	-	-	-	-	-
연령	6~8세	95.6	3.2	0.3	0.9	0.0	95.6	4.4	100.0 (1,340,702)	97.4	-	-	-	-	-	-	-
	9~11세	97.3	2.2	0.5	0.0	0.0	97.3	2.7	100.0 (1,537,549)	98.4	1.6	0.0	0.0	0.0	98.4	1.6	100.0 (1,546,470)
	12~17세	98.8	1.0	0.0	0.2	0.0	98.8	1.2	100.0 (3,932,629)	98.0	1.6	0.1	0.3	0.0	98.0	2.0	100.0 (3,948,891)
	빈곤 수준1	97.3	2.5	0.1	0.0	0.1	97.3	2.7	100.0 (374,772)	97.4	2.1	0.1	0.0	0.3	97.4	2.6	100.0 (268,865)
소득 수준2	일반	98.2	1.4	0.2	0.2	0.0	98.2	1.8	100.0 (9,237,045)	98.1	1.6	0.1	0.2	0.0	98.1	1.9	100.0 (5,226,495)
	기초수급	97.8	2.1	0.0	0.0	0.1	97.8	2.2	100.0 (247,173)	97.5	1.9	0.2	0.1	0.4	97.5	2.5	100.0 (194,415)
	차상위	96.5	3.3	0.1	0.0	0.1	96.5	3.5	100.0 (127,600)	97.1	2.9	0.0	0.0	0.0	97.1	2.9	100.0 (74,450)
지역	일반	98.2	1.4	0.2	0.2	0.0	98.2	1.8	100.0 (9,237,045)	98.1	1.6	0.1	0.2	0.0	98.1	1.9	100.0 (5,226,495)
	대도시	98.7	0.9	0.2	0.1	0.0	98.7	1.3	100.0 (4,171,320)	99.0	0.8	0.2	0.0	0.0	99.0	1.0	100.0 (2,395,083)
	중소도시	97.8	1.8	0.1	0.2	0.1	97.8	2.2	100.0 (4,852,602)	97.2	2.4	0.0	0.4	0.0	97.2	2.8	100.0 (2,761,142)
가족 유형	농어촌	98.0	1.4	0.2	0.3	0.0	98.0	2.0	100.0 (587,895)	99.0	0.9	0.0	0.0	0.0	99.0	1.0	100.0 (339,135)
	양부모	98.1	1.4	0.2	0.2	0.0	98.1	1.9	100.0 (8,525,811)	98.0	1.7	0.1	0.2	0.0	98.0	2.0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98.7	1.3	0.0	0.0	0.0	98.7	1.3	100.0 (991,967)	98.4	1.4	0.0	0.0	0.1	98.4	1.6	100.0 (764,897)

〈표 8-61〉 신체학대경험4: 동동이를 휘두르거나 굶은 막대기, 책대로 때림

구분		주양육자								아동								(단위: %,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성별	전체	98.6	1.2	0.1	0.2	-	98.6	1.4	100.0 (9,606,042)	96.3	3.0	0.4	0.3	0.0	96.3	3.7	100.0 (5,495,394)	
	남자	98.4	1.5	0.1	0.0	-	98.4	1.6	100.0 (5,004,034)	97.4	2.0	0.3	0.2	0.0	97.4	2.6	100.0 (2,888,203)	
	여자	98.7	0.9	0.1	0.3	-	98.7	1.3	100.0 (4,602,008)	95.1	4.1	0.4	0.4	0.0	95.1	4.9	100.0 (2,607,191)	
	0~2세	99.9	0.0	0.1	0.0	-	99.9	0.1	100.0 (1,400,032)	-	-	-	-	-	-	-	-	
	3~5세	98.9	1.0	0.0	0.1	-	98.9	1.1	100.0 (1,400,905)	-	-	-	-	-	-	-	-	
연령	6~8세	98.2	1.1	0.1	0.7	-	98.2	1.8	100.0 (1,340,702)	-	-	-	-	-	-	-	-	
	9~11세	97.9	1.7	0.1	0.3	-	97.9	2.1	100.0 (1,537,549)	97.8	1.6	0.5	0.0	0.0	97.8	2.2	100.0 (1,546,503)	
	12~17세	98.3	1.5	0.1	0.0	-	98.3	1.7	100.0 (3,926,854)	95.7	3.6	0.3	0.4	0.0	95.7	4.3	100.0 (3,948,891)	
	빈곤 수준1	98.4	1.1	0.3	0.1	-	98.4	1.6	100.0 (374,772)	97.7	1.4	0.6	0.1	0.2	97.7	2.3	100.0 (268,899)	
소득 수준2	일반	98.6	1.2	0.1	0.2	-	98.6	1.4	100.0 (9,231,270)	96.2	3.1	0.3	0.3	0.0	96.2	3.8	100.0 (5,226,495)	
	기초수급	98.8	1.0	0.2	0.1	-	98.8	1.2	100.0 (247,173)	97.7	1.2	0.7	0.1	0.3	97.7	2.3	100.0 (194,415)	
	차상위	97.8	1.4	0.6	0.1	-	97.8	2.2	100.0 (127,600)	97.6	2.0	0.4	0.0	0.0	97.6	2.4	100.0 (74,484)	
지역	일반	98.6	1.2	0.1	0.2	-	98.6	1.4	100.0 (9,231,270)	96.2	3.1	0.3	0.3	0.0	96.2	3.8	100.0 (5,226,495)	
	대도시	98.4	1.2	0.0	0.3	-	98.4	1.6	100.0 (4,165,546)	95.8	3.3	0.6	0.3	0.0	95.8	4.2	100.0 (2,395,083)	
	중소도시	98.7	1.2	0.1	0.0	-	98.7	1.3	100.0 (4,852,602)	96.3	3.1	0.2	0.4	0.0	96.3	3.7	100.0 (2,761,142)	
가족 유형	농어촌	98.1	1.2	0.4	0.3	-	98.1	1.9	100.0 (587,895)	99.6	0.3	0.0	0.0	0.0	99.6	0.4	100.0 (339,169)	
	양부모	98.7	1.0	0.1	0.2	-	98.7	1.3	100.0 (8,520,037)	96.8	2.5	0.4	0.3	0.0	96.84	3.2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97.2	2.6	0.2	0.0	-	97.2	2.8	100.0 (991,967)	92.8	6.4	0.2	0.6	0.0	92.8	7.2	100.0 (76,4931)	

(단위: %, 명)

〈표 8-62〉 신체학대경험5: 칼이나 흉기에 찔림

구분		주양육자						아동						(단위: %,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체		99.5	0.3	0.1	0.0	0.0	99.5	0.5	100.0 (9,605,661)	99.3	0.6	0.1	0.0	0.0	99.3	0.7	100.0 (5,495,394)
성별	남자	99.8	0.1	0.0	0.0	0.0	99.8	0.2	100.0 (5,003,734)	99.1	0.7	0.2	0.0	0.0	99.1	0.9	100.0 (2,888,203)
	여자	99.2	0.5	0.3	0.0	0.0	99.2	0.8	100.0 (4,601,928)	99.5	0.5	0.0	0.0	0.0	99.5	0.5	100.0 (2,607,191)
연령	0-2세	99.9	0.0	0.1	0.0	0.0	99.9	0.1	100.0 (1,400,032)	-	-	-	-	-	-	-	-
	3-5세	99.9	0.1	0.0	0.0	0.0	99.9	0.1	100.0 (1,400,905)	-	-	-	-	-	-	-	-
	6-8세	99.4	0.0	0.6	0.0	0.0	99.4	0.6	100.0 (1,340,702)	-	-	-	-	-	-	-	-
	9-11세	99.4	0.4	0.2	0.0	0.0	99.4	0.6	100.0 (1,531,393)	99.1	0.9	0.0	0.0	0.0	99.1	0.9	100.0 (1,546,503)
	12-17세	99.4	0.6	0.0	0.0	0.0	99.4	0.6	100.0 (3,932,629)	99.4	0.5	0.1	0.0	0.0	99.4	0.6	100.0 (3,948,891)
소득 수준1	빈곤	99.6	0.4	0.0	0.0	0.0	99.6	0.4	100.0 (374,471)	99.3	0.4	0.0	0.3	0.0	99.3	0.7	100.0 (268,899)
	일반	99.5	0.3	0.1	0.0	0.0	99.5	0.5	100.0 (9,231,190)	99.3	0.6	0.1	0.0	0.0	99.3	0.7	100.0 (5,226,49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99.6	0.4	0.0	0.0	0.0	99.6	0.4	100.0 (246,872)	99.2	0.5	0.0	0.4	0.0	99.2	0.8	100.0 (194,415)
	차상위	99.6	0.4	0.0	0.0	0.0	99.6	0.4	100.0 (127,600)	99.6	0.3	0.1	0.0	0.0	99.6	0.4	100.0 (74,484)
	일반	99.5	0.3	0.1	0.0	0.0	99.5	0.5	100.0 (9,231,190)	99.3	0.6	0.1	0.0	0.0	99.3	0.7	100.0 (5,226,495)
지역	대도시	99.2	0.6	0.2	0.0	0.0	99.2	0.8	100.0 (4,165,465)	98.7	1.1	0.2	0.0	0.0	98.7	1.3	100.0 (2,395,083)
	중소도시	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4,852,301)	99.8	0.2	0.0	0.0	0.0	99.8	0.2	100.0 (2,761,142)
	농어촌	98.7	0.4	0.6	0.3	0.0	98.7	1.3	100.0 (587,895)	99.7	0.3	0.0	0.0	0.0	99.7	0.3	100.0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99.7	0.2	0.2	0.0	0.0	99.7	0.3	100.0 (8,519,956)	99.2	0.7	0.1	0.0	0.0	99.2	0.8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98.9	1.1	0.0	0.0	0.0	98.9	1.1	100.0 (991,666)	99.7	0.2	0.0	0.1	0.0	99.7	0.3	100.0 (764,931)

(단위: %, 명)

〈표 8-63〉 정서학대경험1: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음

(단위: %, 명)

구분	주양육자								아동								
	전혀 없었다	1년 에 1~2 번 정도	2~3 개월 에 1~2 번 정도	한 달에 1~2 번 정도	일주 일에 1~2 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체		95.2	4.2	0.4	0.2	0.0	95.2	4.8	100.0 (9,611,516)	94.4	4.1	0.6	0.5	0.4	94.4	5.6	100.0 (5,495,394)
	성별	남자	95.7	3.8	0.3	0.1	0.0	95.7	4.3	100.0 (5,003,734)	94.1	4.4	0.5	0.6	94.1	5.9	100.0 (2,888,203)
연령	여자	94.6	4.7	0.5	0.3	0.0	94.6	5.4	100.0 (4,607,783)	94.7	3.8	0.7	0.5	0.2	94.7	5.3	100.0 (2,607,191)
	0~2세	99.9	0.1	0.0	0.0	0.0	99.9	0.1	100.0 (1,400,032)	-	-	-	-	-	-	-	-
	3~5세	97.3	2.6	0.1	0.0	0.0	97.3	2.7	100.0 (1,400,905)	-	-	-	-	-	-	-	-
	6~8세	93.7	4.5	1.1	0.8	0.0	93.7	6.3	100.0 (1,340,702)	-	-	-	-	-	-	-	-
	9~11세	93.9	4.8	1.2	0.1	0.0	93.9	6.1	100.0 (1,537,248)	96.5	2.7	0.1	0.2	0.5	96.5	3.5	100.0 (1,546,503)
소득 수준1	12~17세	93.8	5.9	0.1	0.2	0.0	93.8	6.2	100.0 (3,932,629)	93.6	4.6	0.8	0.6	0.4	93.6	6.4	100.0 (3,948,891)
	빈곤	90.5	8.4	0.8	0.2	0.0	90.5	9.5	100.0 (374,471)	94.6	4.1	0.3	0.7	0.3	94.6	5.4	100.0 (268,899)
소득 수준2	일반	95.4	4.1	0.4	0.2	0.0	95.4	4.6	100.0 (9,237,045)	94.4	4.1	0.7	0.5	0.4	94.4	5.6	100.0 (5,226,495)
	기초수급	92.8	6.3	0.5	0.3	0.1	92.8	7.2	100.0 (246,872)	95.2	3.9	0.4	0.1	0.4	95.2	4.8	100.0 (194,415)
지역	차상위	86.0	12.5	1.5	0.0	0.0	86.0	14.0	100.0 (127,600)	93.0	4.7	0.0	2.3	0.0	93.0	7.0	100.0 (74,484)
	일반	95.4	4.1	0.4	0.2	0.0	95.4	4.6	100.0 (9,237,045)	94.4	4.1	0.7	0.5	0.4	94.4	5.6	100.0 (5,226,495)
	대도시	95.4	4.1	0.5	0.0	0.0	95.4	4.6	100.0 (4,171,320)	93.4	4.9	0.2	0.9	0.7	93.4	6.7	100.0 (2,395,083)
가족유형	중소도시	95.1	4.3	0.2	0.4	0.0	95.1	4.9	100.0 (4,852,301)	95.4	3.4	0.8	0.2	0.2	95.4	4.6	100.0 (2,761,142)
	농어촌	94.6	4.5	1.0	0.0	0.0	94.6	5.4	100.0 (587,895)	93.6	4.2	2.1	0.0	0.0	93.6	6.4	100.0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95.3	4.1	0.4	0.2	0.0	95.3	4.7	100.0 (8,525,811)	94.5	3.7	0.7	0.5	0.5	94.5	5.5	100.0 (4,677,812)
	한부모·조손	94.1	5.6	0.2	0.1	0.0	94.1	5.9	100.0 (991,666)	93.1	6.4	0.1	0.2	0.1	93.1	6.9	100.0 (76,4931)

〈표 8-64〉 정서학대경험2: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음

구분		주양육자							아동							(단위: %,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전체		95.5	3.8	0.5	0.2	0.0	95.5	4.5	100.0 (9,611,516)	92.4	4.9	1.9	0.5	0.4	92.4	7.6	100.0 (5,489,526)
성별	남자	96.5	3.2	0.2	0.1	0.0	96.5	3.5	100.0 (5,003,734)	94.1	3.8	1.5	0.2	0.4	94.1	5.9	100.0 (2,888,203)
	여자	94.4	4.6	0.8	0.3	0.0	94.4	5.6	100.0 (4,607,783)	90.4	6.0	2.5	0.8	0.3	90.4	9.6	100.0 (2,601,323)
연령	0~2세	99.8	0.2	0.0	0.0	0.0	99.8	0.2	100.0 (1,400,032)	-	-	-	-	-	-	-	-
	3~5세	96.9	3.1	0.0	0.0	0.0	96.9	3.1	100.0 (1,400,905)	-	-	-	-	-	-	-	-
	6~8세	94.0	4.4	1.1	0.5	0.0	94.0	6.0	100.0 (1,340,702)	-	-	-	-	-	-	-	-
	9~11세	92.5	6.5	1.1	0.0	0.0	92.5	7.5	100.0 (1,537,248)	92.2	6.2	1.1	0.3	0.3	92.2	7.8	100.0 (1,546,503)
	12~17세	95.1	4.2	0.4	0.3	0.0	95.1	4.9	100.0 (3,932,629)	92.4	4.3	2.3	0.6	0.4	92.4	7.6	100.0 (3,943,022)
소득 수준1	빈곤	91.1	7.4	1.2	0.3	0.1	91.1	8.9	100.0 (374,471)	91.0	6.3	0.8	1.0	0.8	91.0	9.0	100.0 (268,899)
	일반	95.6	3.7	0.5	0.2	0.0	95.6	4.4	100.0 (9,237,045)	92.4	4.8	2.0	0.5	0.3	92.4	7.6	100.0 (5,220,627)
소득 수준2	기초수급	92.6	5.8	1.1	0.4	0.1	92.6	7.4	100.0 (246,872)	91.9	5.9	0.7	0.5	1.1	91.9	8.1	100.0 (194,415)
	차상위	88.4	10.4	1.2	0.0	0.1	88.4	11.6	100.0 (127,600)	88.9	7.4	1.2	2.5	0.0	88.9	11.1	100.0 (74,484)
	일반	95.6	3.7	0.5	0.2	0.0	95.6	4.4	100.0 (9,237,045)	92.4	4.8	2.0	0.5	0.3	92.4	7.6	100.0 (522,0627)
	대도시	97.1	2.6	0.2	0.2	0.0	97.1	2.9	100.0 (4,171,320)	93.4	3.6	2.0	0.6	0.5	93.4	6.6	100.0 (2,395,083)
지역	중소도시	94.0	5.0	0.7	0.2	0.0	94.0	6.0	100.0 (4,852,301)	91.4	5.9	2.0	0.4	0.3	91.4	8.6	100.0 (2,755,274)
	농어촌	96.2	3.3	0.5	0.0	0.0	96.2	3.8	100.0 (587,895)	93.1	5.6	1.2	0.0	0.0	93.1	6.9	100.0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95.8	3.6	0.5	0.2	0.0	95.8	4.2	100.0 (8,525,811)	93.2	4.5	1.5	0.5	0.4	93.2	6.8	100.0 (4,671,944)
	한부모·조손	92.5	6.6	0.6	0.2	0.0	92.5	7.5	100.0 (991,666)	87.5	6.6	5.1	0.6	0.2	87.5	12.5	100.0 (764,931)

(단위: %, 명)

〈표 8-65〉 정서학대경험3: '명칭한 것', '개만 못한 것', '비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함

(단위: %, 명)

구분	부모								아동									
	전혀 없었 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 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 일에 1~2번 이상	미경 험	경험	계 (명)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미경험	경험	계 (명)		
성별	전체	94.1	4.9	0.6	0.3	0.1	94.1	5.9	100.0 (9,610,574)	91.2	4.8	2.5	0.9	0.7	91.2	8.8	100.0 (5,489,061)	
	남자	94.6	4.7	0.4	0.2	0.0	94.6	5.4	100.0 (5,003,399)	92.0	4.4	2.1	0.8	0.6	92.0	8.0	100.0 (2,888,203)	
	여자	93.5	5.1	0.9	0.4	0.1	93.5	6.5	100.0 (4,607,175)	90.2	5.2	2.8	1.0	0.8	90.2	9.8	100.0 (2,600,858)	
	연령	0~2세	99.7	0.3	0.0	0.0	0.0	99.7	0.3	100.0 (1,400,032)	-	-	-	-	-	-	-	-
		3~5세	96.6	3.4	0.1	0.0	0.0	96.6	3.4	100.0 (1,400,905)	-	-	-	-	-	-	-	-
		6~8세	93.6	4.1	1.3	0.5	0.5	93.6	6.4	100.0 (1,340,702)	-	-	-	-	-	-	-	-
9~11세		91.3	7.2	1.2	0.3	0.0	91.3	8.7	100.0 (1,537,248)	92.8	5.2	1.5	0.3	0.2	92.8	7.2	100.0 (1,546,503)	
12~17세	92.5	6.5	0.6	0.5	0.0	92.5	7.5	100.0 (3,931,687)	90.5	4.7	2.8	1.1	0.9	90.5	9.5	100.0 (3,942,557)		
소득 수준1	빈곤	91.2	7.1	1.1	0.2	0.4	91.2	8.8	100.0 (374,137)	92.0	4.1	1.1	0.9	1.9	92.0	8.0	100.0 (268,434)	
	일반	94.2	4.8	0.6	0.3	0.1	94.2	5.8	100.0 (9,236,437)	91.1	4.8	2.5	0.9	0.6	91.1	8.9	100.0 (5,220,627)	
소득 수준2	기초수급	91.5	7.3	0.6	0.3	0.2	91.5	8.5	100.0 (246,537)	91.6	4.9	1.2	1.1	1.3	91.6	8.4	100.0 (193,951)	
	차상위	90.5	6.7	2.1	0.1	0.7	90.5	9.5	100.0 (127,600)	93.1	2.2	0.7	0.5	3.5	93.1	6.9	100.0 (74,484)	
일반	일반	94.2	4.8	0.6	0.3	0.1	94.2	5.8	100.0 (9,236,437)	91.1	4.8	2.5	0.9	0.6	91.1	8.9	100.0 (5,220,627)	
	대도시	95.5	3.8	0.5	0.2	0.0	95.5	4.5	100.0 (4,170,986)	92.4	3.2	2.9	0.7	0.8	92.4	7.6	100.0 (2,394,618)	
지역	중소도시	93.2	5.4	0.7	0.5	0.2	93.2	6.8	100.0 (4,852,301)	89.8	6.2	2.1	1.2	0.7	89.8	10.2	100.0 (2,755,274)	
	농어촌	91.1	8.1	0.8	0.0	0.0	91.1	8.9	100.0 (587,287)	93.4	5.0	1.5	0.1	0.0	93.4	6.6	100.0 (339,169)	
가족 유형	양부모	94.4	4.6	0.6	0.3	0.1	94.4	5.6	100.0 (8,525,204)	91.5	4.6	2.2	1.0	0.7	91.5	8.5	100.0 (4,671,479)	
	한부모·조손	91.7	7.5	0.6	0.2	0.0	91.7	8.3	100.0 (991,332)	88.5	6.3	4.2	0.5	0.6	88.5	11.5	100.0 (764,931)	

이상 아동방임 및 학대 경험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방임이 정서 및 신체학대보다 높았으며, 정서학대가 신체학대에 비하여 높았다. 9-17세 아동(피해)이 부모(가해)에 비하여 경험을 높게 보고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며, 방임(수급)차상위>일반과 정서학대(차상위)수급>일반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발생률이 높다. 아동이 보고한 경험률(피해)은 신체학대 6.1%로 337,921명의 아동이 경험하였으며, 정서학대 11.9%(652,487명), 방임 40.7%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보고한 경험률(가해)은 신체학대 3.9%로 371,347명의 아동이 경험하였으며, 정서학대 8.8%(844,769명), 방임 38.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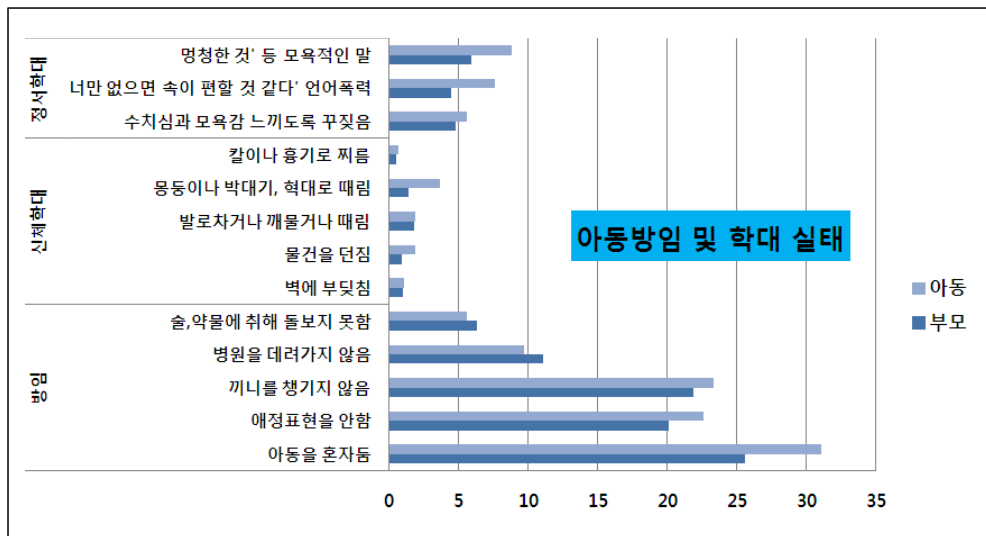
〈표 8-66〉 아동학대 및 방임을 종합

(단위: %)

구분	피해 (아동응답)				가해 (부모응답)			
	수급층	차상위	일반	전체	수급층	차상위	일반	전체
방임	47.1	48.4	40.4	40.7	56.2	48.2	37.8	38.4
신체학대	5.4	5.6	6.2	6.1	4.4	4.8	3.8	3.9
정서학대	12.0	15.8	11.8	11.9	14.3	18.8	8.2	8.8

주: 방임 5문항 중 1문항 이상 경험, 신체학대 5문항 중 1문항 이상 경험, 정서학대 3문항 중 1문항 이상 경험률임.

〔그림 8-17〕 2013년 아동방임 및 학대경험률



3. 성학대 실태

지난 1년간 아동이 성적으로 마지거나 만지도록 강요받은 성학대 경험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아동 주양육자의 대다수인 99.3%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의 성학대 경험에 대해서는 0.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최근 1년간 한번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1%로 나타났다. 성관계 요구경험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9.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0%로 성관계 요구에 대한 경험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1년 이내가 아니라도 성관계요구경험을 하였다는 응답은 0.3%였다.

아동응답도 거의 유사하게 성희로 피해경험이 대다수인 99.0%가 없었고, 성관계 요구피해 경험도 99.5%가 없어 경험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1년간 경험률은 각 0.7%와 0.3%이었고, 지난 1년간 1번 있었다는 응답은 0.3%와 0.2%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8-67〉 성희롱 및 성관계 요구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그런 일이 일어난적 없다	지난1년간 그런이 없었지만 그전에는 있다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딱 1번 일어났다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2번 이상 일어났다	계 (명)
주양육자	성희롱 피해 경험	99.3	0.5	0.1	0.0	100.0 (9,630,892)
	성관계 요구 피해 경험	99.8	0.2	0.0	0.0	100.0 (9,621,737)
아동	성희롱 피해 경험	99.0	0.7	0.3	0.0	100.0 (5,491,162)
	성관계 요구 피해 경험	99.5	0.3	0.2	0.0	100.0 (5,491,162)

4. 부모자녀관계: 부모(보호자) 학대 경험

9-17세 아동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행한 부정적 표현이나 행동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동경험, 욕을 하거나 화를 낸 경험,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

이나 말을 한 경우 세 가지 항목을 질문하였다.

응답결과(표 8-68 참고) 아동이 부모(보호자)와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경험은 27.1%로 나타났으며, 9-11세 아동에 비해 12-17세 아동의 부모(보호자)의 경험률이 높았으며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험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21.1%가 경험한 적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12-17세 아동이 9-11세 아동보다 높았으며,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더 많이 경험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표 8-69 참고).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 또는 말을 한 경우는 14.5%가 경험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차상위가구, 기초수급가구, 일반가구의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으며,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높았다(표 8-70 참고).

〈표 8-68〉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함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계 (명)
전체		72.9	20.9	3.4	2.5	0.4	100.0 (5,475,528)
성별	남자	73.0	21.6	3.4	1.6	0.5	100.0 (2,882,255)
	여자	72.8	20.0	3.4	3.7	0.2	100.0 (2,593,274)
연령	9~11세	79.5	16.2	2.3	2.0	0.1	100.0 (1,541,970)
	12~17세	70.3	22.7	3.8	2.8	0.5	100.0 (3,933,559)
소득 수준1	빈곤	67.6	18.5	6.2	5.1	2.7	100.0 (266,267)
	일반	73.1	21.0	3.2	2.4	0.2	100.0 (5,209,262)
소득 수준2	기초수급	68.6	17.6	6.8	4.3	2.7	100.0 (192,930)
	차상위	65.0	20.8	4.6	7.0	2.6	100.0 (73,337)
	일반	73.1	21.0	3.2	2.4	0.2	100.0 (5,209,262)
지역	대도시	76.4	18.7	2.3	2.6	0.2	100.0 (2,386,414)
	중소도시	70.5	22.3	4.1	2.7	0.4	100.0 (2,750,101)
	농어촌	67.5	24.9	5.3	1.4	0.9	100.0 (339,013)
가족유형	양부모	73.4	21.4	3.3	1.6	0.3	100.0 (4,660,579)
	한부모·조손	69.6	18.0	3.7	7.7	1.0	100.0 (762,299)

〈표 8-69〉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욕을 하거나 화냄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계 (명)
전체		78.9	16.1	2.8	1.9	0.5	100.0 (5,465,078)
성별	남자	80.0	15.7	2.7	1.3	0.3	100.0 (2,871,804)
	여자	77.7	16.5	2.8	2.5	0.6	100.0 (2,593,274)
연령	9~11세	82.4	13.3	2.5	1.3	0.6	100.0 (1,537,686)
	12~17세	77.5	17.1	2.9	2.1	0.4	100.0 (3,927,392)
소득 수준1	빈곤	73.8	15.5	4.4	5.1	1.3	100.0 (265,761)
	일반	79.1	16.1	2.7	1.7	0.4	100.0 (5,199,317)
소득 수준2	기초수급	73.6	14.5	5.5	5.2	1.2	100.0 (192,424)
	차상위	74.2	18.0	1.5	4.7	1.6	100.0 (73,337)
	일반	79.1	16.1	2.7	1.7	0.4	100.0 (5,199,317)
지역	대도시	79.6	15.7	2.6	1.8	0.5	100.0 (2,376,470)
	중소도시	79.9	14.8	2.8	2.0	0.4	100.0 (2,749,595)
	농어촌	66.3	28.8	3.5	1.1	0.3	100.0 (339,013)
가족유형	양부모	79.8	15.6	2.6	1.6	0.3	100.0 (4,650,635)
	한부모·조손	72.3	19.1	3.8	3.5	1.3	100.0 (761,793)

〈표 8-70〉 아동이 부모(보호자)에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 또는 말을 함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 개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 에 1~2번 이상	계 (명)
전체		85.5	12.5	1.2	0.8	0.0	100.0 (5,461,821)
성별	남자	87.6	11.2	0.6	0.6	0.0	100.0 (2,871,804)
	여자	83.1	13.9	1.9	1.0	0.1	100.0 (2,590,017)
연령	9~11세	88.9	10.4	0.1	0.6	0.6	100.0 (1,534,653)
	12~17세	84.1	13.3	1.6	0.9	0.4	100.0 (3,927,168)
소득 수준1	빈곤	80.8	13.1	2.6	2.5	1.3	100.0 (265,537)
	일반	85.7	12.4	1.1	0.7	0.4	100.0 (5,196,284)
소득 수준2	기초수급	82.4	11.2	3.4	2.5	1.2	100.0 (192,200)
	차상위	76.9	18.2	0.6	2.7	1.6	100.0 (73,337)
	일반	85.7	12.4	1.1	0.7	0.4	100.0 (5,196,284)
지역	대도시	89.7	8.4	1.2	0.5	0.5	100.0 (2,376,245)
	중소도시	83.5	14.3	1.1	1.1	0.4	100.0 (2,746,562)
	농어촌	71.6	25.8	2.0	0.5	0.3	100.0 (339,013)
가족유형	양부모	85.8	12.6	1.0	0.7	0.3	100.0 (4,650,635)
	한부모·조손	82.5	12.7	2.8	1.8	1.3	100.0 (758,536)

제4절 안전실태

1. 안전교육

최근 1년 동안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동에게 직접 질문한 결과 44.3%의 아동이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절반 미만의 아동만이 안전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9-11세 아동이 54.9%, 12-17세 청소년이 40.1%로 학령후기 아동이 청소년(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 44.3%, 차상위가구 37.5%, 기초수급가구 47.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44.3%)와 중소도시(45.6%)에 비하여 농어촌(34.2%)의 안전교육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표 8-71〉 아동안전교육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44.3	55.7	100.0 (5,489,541)
성별	남자	43.7	56.3	100.0 (2,889,505)
	여자	45.0	55.0	100.0 (2,600,036)
연령	9-11세	54.9	45.1	100.0 (1,546,503)
	12-17세	40.1	59.9	100.0 (3,943,037)
소득 수준1	빈곤	44.9	55.1	100.0 (269,031)
	일반	44.3	55.7	100.0 (5,220,50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47.8	52.2	100.0 (194,301)
	차상위	37.5	62.5	100.0 (74,731)
	일반	44.3	55.7	100.0 (5,220,509)
지역	대도시	44.3	55.7	100.0 (2,396,517)
	중소도시	45.6	54.4	100.0 (2,753,855)
	농어촌	34.2	65.8	100.0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43.9	56.1	100.0 (4,665,492)
	한부모·조손	47.4	52.6	100.0 (771,398)

2. 안전습관 실태

아동의 안전습관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8-72>와 같다. 영유아기에 아동의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방치비율은 18.7%로 나타났으며 이는 0-2세의 영아에 비해 3-5세의 유아가 높게 나타났다.

카시트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0-2세 69.8%, 3-5세 60.5%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시 0-2세 아동의 31.5%, 3-5세 아동의 51.9% 만이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많이 상승하였으며 0-2세의 경우는 확연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약품, 뜨거운 물, 화기 등 위험한 물건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0~5세 아동의 양육자의 84.4%가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의 주양육자가 위험한 물건을 방치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0-5세 주양육자보다 6-8세 주양육자가 위험한 물건 방치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는 응답률이 일반가구(84.6%)가 기초수급가구(78.5%)와 차상위가구(76.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90.4%)이 대도시(82.5%), 중소도시(8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외출시 성인을 동반하는 지에 대하여 3-8세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질문한 결과 93.7%로 대부분 아동 외출시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높았으며, 3-5세가 6-8세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일반가구의 주양육자가 외출시 성인을 동반한다는 응답률이 수급층과 차상위층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외출시 성인동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8세 아동을 둔 주양육자에게 욕조나 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두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3-5세는 29.5%, 6-8세는 40.5%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빈곤가구에 비해 일반가구가 욕조나 화장실에 아동을 혼자 두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39.9%), 농어촌(38.2%), 대도시(28.5%) 순으로 나타났다.

3-8세 아동을 둔 주양육자에게 도로보행시 아동의 손을 잡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손을 잡고 이동한다는 응답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

이가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5세가 6-8세 보다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가 86.0%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수급가구 81.9%, 차상위가구 79.4%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89.6%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3-8세 아동을 둔 주양육자에게 아동의 안전모 착용여부를 질문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60.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가 62.5%(여아 5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8세 아동의 64.1%, 3-5세 아동의 57.0%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의 안전모 착용률이 61.1%로 빈곤가구(39.5%)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66.0%), 대도시(62.8%), 중소도시(57.9%) 순이었다.

6-12세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승용차 탑승시 아동의 안전벨트 사용여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응답이 7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벨트 사용률은 낮아졌다. 소득수준별로는 일반가구(77.2%)가 빈곤가구에 비하여 안전벨트 착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8-72〉 안전습관

구분		조그만 물건을 가지고 놀게 함			카세트 사용			위험한 물건 방치			외출시 성인동반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비해당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성별	전체	18.7	81.3	100.0(2,779,473)	65.2	27.6	7.2	100.0(2,779,571)	15.6	84.4	100.0(4,085,670)	93.7	6.3
	남자	17.3	82.7	100.0(1,472,142)	66.5	26.3	7.2	100.0(1,472,142)	13.6	86.4	100.0(2,090,050)	95.2	4.8
	여자	20.2	79.8	100.0(1,307,331)	63.8	29.0	7.2	100.0(1,307,429)	17.7	82.3	100.0(1,995,620)	92.2	7.8
	연령	0-2세	13.7	86.3	100.0(1,407,369)	69.8	21.8	8.4	100.0(1,407,369)	16.5	83.5	100.0(1,398,038)	-
소득 수준1	3-5세	23.8	76.2	100.0(1,372,104)	60.5	33.5	6.0	100.0(1,372,203)	16.1	83.9	100.0(1,383,028)	94.9	5.1
	6-8세	-	-	-	-	-	-	-	14.2	85.8	100.0(1,304,603)	92.5	7.5
소득 수준2	빈곤	16.5	83.5	100.0(72,575)	32.7	34.9	32.4	100.0(72,674)	22.3	77.7	100.0(104,114)	84.5	15.5
	일반	18.7	81.3	100.0(2,706,897)	66.1	27.4	6.5	100.0(2,706,897)	15.4	84.6	100.0(3,981,556)	94.0	6.0
	기초수급	14.8	85.2	100.0(28,665)	24.1	37.2	38.7	100.0(28,763)	21.5	78.5	100.0(50,377)	85.0	15.0
	차상위	17.7	82.3	100.0(43,910)	38.2	33.4	28.4	100.0(43,910)	23.1	76.9	100.0(53,737)	84.1	15.9
지역	일반	18.7	81.3	100.0(2,706,897)	66.1	27.4	6.5	100.0(2,706,897)	15.4	84.6	100.0(3,981,556)	94.0	6.0
	대도시	17.6	82.4	100.0(1,204,636)	64.8	26.6	8.6	100.0(1,204,734)	17.5	82.5	100.0(1,792,595)	92.2	7.8
가족유형	중소도시	20.4	79.6	100.0(1,417,306)	67.4	26.7	5.9	100.0(1,417,306)	14.7	85.3	100.0(2,046,106)	94.9	5.1
	농어촌	11.7	88.3	100.0(157,531)	48.5	43.5	8.0	100.0(157,531)	9.6	90.4	100.0(246,969)	95.1	4.9
	양부모	18.5	81.5	100.0(2,613,505)	67.6	27.3	5.1	100.0(2,613,505)	15.7	84.3	100.0(3,806,070)	94.1	5.9
	한부모조손	16.3	83.7	100.0(144,378)	24.0	29.6	46.4	100.0(144,477)	17.0	83.0	100.0(239,075)	88.1	11.9

주: 비해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함(예: 승용차가 없는 경우, 인터넷스케트 등이 없는 경우 등).

(단위: %, 명)

〈표 8-72〉 안전습관 (계속)

구분		육조나 화장실에 혼자들			도로보행시 아이 손을 잡음			안전모 착용			안전벨트 사용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비해당	계 (명)	예	아요	비해당	계 (명)
성별	전체	34.9	65.1	100.0(2,738,895)	85.9	14.1	100.0(2,738,895)	60.5	22.6	16.9	100.0(2,732,816)	75.8	17.6	6.6	100.0(6,741,467)
	남자	38.1	61.9	100.0(1,397,841)	85.9	14.1	100.0(1,397,841)	62.5	22.6	14.8	100.0(1,397,841)	76.6	15.8	7.6	100.0(3,476,969)
	여자	31.5	68.5	100.0(1,341,054)	85.8	14.2	100.0(1,341,054)	58.4	22.5	19.1	100.0(1,334,975)	75.0	19.5	5.5	100.0(3,264,498)
연령	3-5세	29.5	70.5	100.0(1,394,515)	88.6	11.4	100.0(1,394,515)	57.0	28.2	14.8	100.0(1,391,121)	-	-	-	-
	6-8세	40.5	59.5	100.0(1,344,379)	83.0	17.0	100.0(1,344,379)	64.1	16.7	19.1	100.0(1,341,695)	83.1	12.2	4.7	100.0(1,322,040)
	9-11세	-	-	-	-	-	-	-	-	-	-	78.3	16.8	4.8	100.0(1,538,168)
	12-17세	-	-	-	-	-	-	-	-	-	-	72.3	19.7	7.9	100.0(3,881,258)
소득 수준1	빈곤	28.9	71.1	100.0(81,987)	80.6	19.4	100.0(81,987)	39.5	37.0	23.5	100.0(81,939)	45.1	12.8	42.1	100.0(300,157)
	일반	35.1	64.9	100.0(2,656,908)	86.0	14.0	100.0(2,656,908)	61.1	22.1	16.7	100.0(2,650,877)	77.2	17.8	4.9	100.0(6,441,310)
소득 수준2	기초수급	27.2	72.8	100.0(40,833)	81.9	18.1	100.0(40,833)	43.9	40.4	15.7	100.0(40,785)	49.8	14.4	35.8	100.0(216,493)
	차상위	30.5	69.5	100.0(41,154)	79.4	20.6	100.0(41,154)	35.2	33.7	31.2	100.0(41,154)	32.9	8.7	58.4	100.0(83,664)
	일반	35.1	64.9	100.0(2,656,908)	86.0	14.0	100.0(2,656,908)	61.1	22.1	16.7	100.0(2,650,877)	77.2	17.8	4.9	100.0(6,441,310)
지역	대도시	28.5	71.5	100.0(1,174,941)	83.1	16.9	100.0(1,174,941)	62.8	20.1	17.1	100.0(1,168,910)	73.1	18.1	8.8	100.0(2,985,655)
	중소도시	39.9	60.1	100.0(1,395,628)	87.8	12.2	100.0(1,395,628)	57.9	26.0	16.1	100.0(1,395,628)	77.5	17.4	5.1	100.0(3,327,656)
	농어촌	38.2	61.8	100.0(168,326)	89.6	10.4	100.0(168,326)	66.0	11.4	22.6	100.0(168,278)	81.4	16.0	2.6	100.0(428,155)
가족유형	양부모	35.2	64.8	100.0(2,533,161)	86.3	13.7	100.0(2,533,161)	60.8	22.3	16.9	100.0(2,529,718)	77.4	18.8	3.8	100.0(5,803,770)
	한부모·조손	29.4	70.6	100.0(176,149)	84.7	15.3	100.0(176,149)	59.3	27.7	13.1	100.0(176,149)	64.7	10.8	24.5	100.0(865,248)

주: 비해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함(예, 승용차가 없는 경우, 인라인스케트 등이 없는 경우 등).

3.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1순위는 교통사고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범죄 17.5% 놀이 중 사고 16.8%, 유괴 13.0%, 유해 미디어 노출 1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심먹거리 4.3%, 안전여부 미확인 놀잇감 3.8%, 자연재해 0.8%, 약물사고 0.8%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 남아의 양육자인 경우 7.3%로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낮게 응답한 반면, 여아의 양육자인 경우 성범죄가 28.5%로 교통사고 26.9%보다도 높아 모든 안전사고 유형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도 성범죄의 대상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전 걱정에 대한 성별 인식차이는 유해 미디어 환경 노출에서도 나타나 남아의 양육자인 경우 유해환경 미디어 노출에 대해 16.0%나 응답한 반면, 여아의 양육자인 경우 8.3%로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2세의 양육자인 경우 놀이 중 사고 25.7%, 유괴 24.8%, 교통사고 16.7%, 안전미확인 놀잇감 1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5세의 양육자인 경우 교통사고 31.4%, 놀이 중 사고 26.9%, 유괴 18.9%, 성범죄 1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8세의 양육자는 교통사고 37.3%, 놀이중 사고 18.9%, 성범죄 17.5%, 유괴 1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9-11세 양육자인 경우 교통사고 36.2%, 성범죄 21.2%, 놀이 중 사고 14.7%, 유괴 13.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연령대에 비하여 유해미디어 노출도 9.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12-17세의 양육자는 교통사고 31.2%, 유해미디어 23.9%, 성범죄 22.0%, 놀이 중 사고 10.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별 결과는 연령대별로 신체발달 수준이나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빈도 등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영유아기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놀이 중 사고에 대한 걱정이 높았으며, 특히 영아기인 경우는 놀잇감에 대한 안전여부의 걱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걱정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걱정도 높아졌으며, 유해미디어 노출의 경우는 청소년연령대에서 타연령대에 비하여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응답양상은 비슷하였으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유괴에 대해 걱정하는 응답이 높았으며 반대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걱정하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경우 놀이 중 사고에 대해 걱정하는 응답률(20.4%)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유괴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거주자는 성범죄에 대한 걱정률이 21.5%로 대도시(13.4%)나, 농어촌(13.2%)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걱정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표 8-73〉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1순위

구분		교통사고	성범죄	놀이중 사고	유괴	유해 미디어 환경노출	안전 먹거리 부족	안전여부 미확인 놀잇감	자연재해	약물사고	계 (명)
전체(1순위)		30.8	17.5	16.8	13.0	12.3	4.3	3.8	0.8	0.8	100.0(9,677,932)
성별	남자	34.3	7.3	19.2	12.3	16.0	4.5	4.4	1.0	0.8	100.0(5,048,856)
	여자	26.9	28.5	14.0	13.7	8.3	4.1	3.2	0.6	0.7	100.0(4,629,076)
연령	0-2세	16.7	5.8	25.7	24.8	1.8	7.7	13.7	0.4	3.4	100.0(1,407,369)
	3-5세	31.4	12.2	26.9	18.9	1.5	5.9	2.2	0.4	0.7	100.0(1,407,902)
	6-8세	37.3	17.5	18.9	16.1	4.1	1.9	3.5	0.3	0.3	100.0(1,357,821)
	9-11세	36.2	21.2	14.7	13.1	9.4	2.3	2.0	1.2	0.2	100.0(1,546,203)
	12-17세	31.2	22.0	10.1	5.6	23.9	4.2	1.7	1.1	0.3	100.0(3,958,639)
소득 수준1	빈곤	32.1	24.0	15.0	6.4	13.9	5.2	2.4	0.3	0.6	100.0(376,393)
	일반	30.7	17.2	16.8	13.2	12.3	4.3	3.9	0.8	0.8	100.0(9,301,53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32.8	25.8	14.9	5.0	13.3	4.3	2.6	0.5	0.8	100.0(247,320)
	차상위	30.8	20.5	15.2	9.0	15.1	6.9	2.1	0.0	0.3	100.0(129,073)
	일반	30.7	17.2	16.8	13.2	12.3	4.3	3.9	0.8	0.8	100.0(9,301,539)
지역	대도시	32.6	13.4	16.7	12.0	12.6	5.9	4.9	1.2	0.8	100.0(4,218,761)
	중소도시	28.4	21.5	16.3	14.5	12.2	3.0	2.9	0.4	0.7	100.0(4,868,797)
	농어촌	37.5	13.2	20.4	7.4	11.4	4.5	3.8	1.1	0.7	100.0(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30.6	16.9	17.0	13.4	12.1	4.3	4.0	0.8	0.8	100.0(8,565,684)
	한부모·조손	31.1	22.7	14.9	9.8	12.9	4.8	2.2	0.8	0.8	100.0(1,012,647)

(단위: %, 명)

〈표 8-74〉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2순위

구분		교통사고	성범죄	놀이중 사고	유괴	유해 미디어 환경노출	안심 먹거리 부족	안전여부 미확인 놀이감	자연재해	악물사고	계 (명)
전체(2순위)		18.9	17.6	14.7	14.1	13.3	10.3	6.8	3.4	0.9	100.0(9,655,160)
성별	남자	23.4	17.9	12.7	8.6	14.1	10.9	7.2	4.4	0.8	100.0(5,026,774)
	여자	14.0	17.3	16.9	20.1	12.5	9.6	6.4	2.2	1.0	100.0(4,628,386)
연령	0-2세	25.8	12.1	14.9	9.0	3.2	11.6	18.5	1.6	3.3	100.0(1,402,281)
	3-5세	26.6	16.8	18.1	13.1	3.8	8.9	10.2	1.5	1.1	100.0(1,406,780)
	6-8세	17.4	17.5	22.6	13.7	11.7	10.2	4.5	2.3	0.1	100.0(1,357,493)
	9-11세	20.7	18.4	14.6	15.1	18.0	7.6	2.5	2.9	0.2	100.0(1,543,760)
	12-17세	13.5	19.7	10.8	16.0	19.0	11.3	4.0	5.2	0.5	100.0(3,944,847)
	빈곤	21.4	19.4	10.4	12.9	16.3	8.8	5.4	4.1	1.3	100.0(373,495)
소득 수준1	일반	18.8	17.6	14.9	14.2	13.2	10.3	6.9	3.3	0.9	100.0(9,281,66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22.2	21.6	8.5	11.1	18.6	8.7	4.7	3.3	1.3	100.0(244,421)
	차상위	19.9	15.3	14.0	16.3	11.8	9.0	6.8	5.5	1.3	100.0(129,073)
	일반	18.8	17.6	14.9	14.2	13.2	10.3	6.9	3.3	0.9	100.0(9,281,665)
지역	대도시	20.5	17.9	12.1	14.9	12.8	9.7	7.1	4.0	1.0	100.0(4,199,587)
	중소도시	16.9	17.7	17.3	14.0	14.0	9.7	6.6	2.9	0.8	100.0(4,866,380)
	농어촌	23.6	15.2	11.9	9.8	10.9	18.4	6.9	2.4	0.8	100.0(589,192)
가족유형	양부모	18.9	17.7	15.6	13.7	12.8	10.1	7.1	3.1	0.9	100.0(8,553,147)
	한부모·조손	18.6	17.1	7.6	17.6	18.5	11.2	4.2	4.5	0.7	100.0(1,002,412)

(단위: %, 명)

〈표 8-75〉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1+2순위) 중복응답

구분		교통사고	성범죄	놀이중 사고	유괴	유해 미디어 환경노출	안심 먹거리 부족	안전여부 미확인 놀이감	자연재해	약물사고	계 (명)
전체(2순위)		48.4	35.6	31.5	27.6	25.6	14.6	10.7	4.2	1.6	100.0(9,677,932)
성별	남자	52.1	42.5	15.9	24.9	30.0	15.4	11.6	5.5	1.6	100.0(5,048,856)
	여자	44.2	28.0	48.6	30.6	20.8	13.7	9.6	2.8	1.7	100.0(4,629,076)
연령	0-2세	28.7	51.3	14.8	39.7	5.0	19.3	32.1	2.0	6.7	100.0(1,407,369)
	3-5세	48.2	53.4	25.2	36.9	5.3	14.8	12.5	1.9	1.8	100.0(1,407,902)
	6-8세	54.8	36.3	31.3	38.7	15.8	12.1	8.0	2.6	0.4	100.0(1,357,821)
	9-11세	54.6	35.4	36.3	27.6	27.3	9.9	4.4	4.1	0.4	100.0(1,546,203)
	12-17세	50.8	23.5	38.0	16.3	42.9	15.5	5.7	6.3	0.7	100.0(3,958,639)
소득 수준1	빈곤	51.4	36.2	36.8	16.7	30.0	14.0	7.8	4.4	1.9	100.0(376,393)
	일반	48.2	35.6	31.3	28.1	25.4	14.6	10.8	4.2	1.6	100.0(9,301,53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54.1	36.8	36.8	13.4	31.7	13.0	7.2	3.8	2.1	100.0(247,320)
	차상위	46.1	35.1	36.8	23.1	26.9	16.0	8.9	5.5	1.6	100.0(129,073)
	일반	48.2	35.6	31.3	28.1	25.4	14.6	10.8	4.2	1.6	100.0(9,301,539)
지역	대도시	50.4	37.1	28.2	24.0	25.4	15.5	11.9	5.2	1.8	100.0(4,218,761)
	중소도시	46.1	33.2	35.5	31.8	26.2	12.7	9.6	3.4	1.5	100.0(4,868,797)
	농어촌	52.7	44.0	23.0	19.3	22.2	22.9	10.7	3.6	1.5	100.0(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48.3	35.9	30.6	29.0	24.9	14.4	11.1	3.9	1.7	100.0(8,565,684)
	한부모조손	48.0	33.4	40.1	17.3	31.1	15.9	6.4	5.2	1.5	100.0(1,012,647)

(단위: %, 명)

4. 실종실태

아동의 실종경험은 주양육자와 9세 이상 아동에게 동시에 질문하였다. 우선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아동을 1-2시간 이상 한번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은 6.1%로 나타났으며, 현재 6-8세 아동의 양육자가 아동의 실종경험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수준계층에 비하여 아동을 잃어버린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의 순이었다.

9세 이상의 아동에게 과거 보호자(주양육자)를 잃어버린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6.0%의 아동이 보호자를 잃어버린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 6.2%, 여아 5.7%로 나타났으며, 9-11세 아동 4.1%, 12-17세 아동 6.7%로 12-17세 아동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6.1%), 일반가구(6.0%), 차상위가구(5.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2.0%)이 대도시(5.9%)와 중소도시(6.5%)보다 실종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표 8-76〉 과거 잃어버린 경험

(단위: %, 명)

구분		부모			아동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6.1	93.9	100.0(9,621,384)	6.0	94.0	100.0(5,494,045)
성별	남자	6.5	93.5	100.0(5,007,780)	6.2	93.8	100.0(2,897,704)
	여자	5.7	94.3	100.0(4,613,604)	5.7	94.3	100.0(2,596,341)
연령	0-2세	3.6	96.4	100.0(1,399,915)	-	-	-
	3-5세	6.7	93.3	100.0(1,392,887)	-	-	-
	6-8세	13.1	86.9	100.0(1,339,652)	-	-	-
	9-11세	2.8	97.2	100.0(1,543,700)	4.1	95.9	100.0(1,542,553)
	12-17세	5.7	94.3	100.0(3,945,229)	6.7	93.3	100.0(3,951,492)
소득 수준1	빈곤	7.8	92.2	100.0(374,846)	6.0	94.0	100.0(269,146)
	일반	6.0	94.0	100.0(9,246,538)	6.0	94.0	100.0(5,224,89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8.7	91.3	100.0(247,046)	6.1	93.9	100.0(194,415)
	차상위	5.9	94.1	100.0(127,800)	5.6	94.4	100.0(74,731)
	일반	6.0	94.0	100.0(9,246,538)	6.0	94.0	100.0(5,224,899)
지역	대도시	5.7	94.3	100.0(4,176,889)	5.9	94.1	100.0(2,393,734)
	중소도시	6.6	93.4	100.0(4,854,983)	6.5	93.5	100.0(2,761,142)
	농어촌	4.7	95.3	100.0(589,511)	2.0	98.0	100.0(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6.1	93.9	100.0(8,524,921)	6.0	94.0	100.0(4,672,111)
	한부모·조손	6.3	93.7	100.0(1,002,424)	5.2	94.8	100.0(771,512)

잃어버린 장소에 대해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을 잃어버린 장소로 유원지 42.7%로 가장 많았으며 집주변 23.4%, 시장 6.8%, 쇼핑센터 6.7%, 길거리 4.4%, 학교주변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유원지에서 잃어버린 경우가 남아 39.8%, 여아 46.4%였으며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경우가 남아 6.1%, 여아 2.3%, 시장에서 잃어버린 경우 남아 2.5%, 여아 12.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유원지에서 잃어버린 경우는 0-2세는 91.5%로 아주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특히 9-11세의 아동은 11.5%, 12-17세는 0.2%로 아주 소수였다. 9세 이상의 아동은 집주변에서 잃어버린 경우가 9-11세 45.0%, 12-17세 47.5%로 가장 많았으며, 9-11세 아동의 경우는 학원주변도 23.8%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잃어버린 장소가 다양해졌는데, 12-17세 아동이 다른 연령대의 아동보다 잃어버린 장소가 가장 다양하였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집주변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길거리 14.8%, 쇼핑센터 13.7%, 운동 경기장 8.2%, 학교주변 8.0%, 놀이공원 5.2%, 학원주변 4.9%, 역·터미널 4.4%, 시장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의 경우 길거리, 학교주변, 학원주변, 운동경기장에서 잃어버린 경험이 여아보다 높았으며 반면에 여아는 집주변, 쇼핑센터, 시장, 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9-11세는 집주변이 42.1%로 높게 나타났으며 12-17세는 9-11세에 비하여 다양한 장소를 응답하고 있다.

〈표 8-77〉 아동을 잃어버린 장소: 부모응답

구분		유원지	집주변	시장	쇼핑센터 / 백화점	기타	길거리	운동 경기장	학교 주변	학원 주변	친척집	종교 기관	놀이 공원	친구집	역/ 터미널	계 (명)
성별	전체	42.7	23.4	6.8	6.7	5.4	4.4	2.2	2.1	1.7	1.3	1.0	0.9	0.7	0.7	100.0(586,721)
	남자	39.8	23.9	2.5	6.8	6.4	6.1	3.4	3.7	3.1	0.0	1.5	1.4	0.3	1.2	100.0(325,414)
	여자	46.4	22.8	12.0	6.6	4.1	2.3	0.8	0.1	0.0	2.8	0.5	0.4	1.2	0.0	100.0(261,307)
연령	0-2세	91.5	8.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50,540)
	3-5세	79.0	3.9	0.0	0.1	9.8	0.5	4.5	0.0	0.0	0.0	1.3	0.1	0.6	0.0	100.0(93,209)
	6-8세	71.6	2.0	5.9	0.0	12.5	2.5	0.0	0.2	0.0	0.0	0.0	1.5	1.8	2.0	100.0(175,377)
	9-11세	11.5	45.0	3.4	11.6	1.2	0.8	0.0	1.2	23.8	0.0	0.0	1.5	0.0	0.0	100.0(42,151)
	12-17세	0.2	47.5	12.4	15.3	0.0	9.2	3.9	5.0	0.0	3.3	2.1	0.9	0.2	0.2	100.0(225,444)

〈표 8-78〉 잃어버린 장소: 아동응답

구분		집주변	길거리	학교주변	학원주변	쇼핑센터 ·백화점	역· 터미널	놀이공원	운동 경기장	시장	병원	유원지	친척집	기타	계 (명)
성별	전체	25.4	14.8	8.0	4.9	13.7	4.4	5.2	8.2	3.9	2.5	0.1	0.0	8.8	100.0(324,348)
	남자	22.0	22.0	14.5	8.9	10.5	3.4	4.0	11.2	2.8	0.0	0.3	0.0	0.6	100.0(179,309)
	여자	29.5	5.9	0.0	0.0	17.7	5.5	6.8	4.6	5.3	5.6	0.0	0.1	19.0	100.0(145,039)
연령	9-11세	42.1	10.7	0.0	8.4	13.5	0.0	0.4	8.5	0.4	0.0	0.0	0.1	15.8	100.0(62,997)
	12-17세	21.3	15.8	9.9	4.1	13.8	5.4	6.4	8.2	4.8	3.1	0.2	0.0	7.1	100.0(261,351)

가장 최근의 경험을 토대로 아동을 잃어버릴 당시 연령은 주양육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3-5세 81.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6-8세도 13.1%로 나타났다. 아동의 응답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잃어버린 당시 연령은 만 3-5세인 유아기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만 6-8세 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시기는 유아기와 학령전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79〉 잃어버릴 당시 연령

(단위: %, 명)

구분	만0-2세	만3-5세	만6-8세	만9-11세	만12-14세	계 (명)
부모 응답	2.7	81.4	13.1	1.1	1.7	100.0 (586,978)
아동 응답	5.2	53.5	31.2	8.7	1.4	100.0 (323,942)

제5절 소결

전반적으로 아동의 건강지표들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의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유수유율 증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생후 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 권장). 조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을 위한 모성건강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증진정책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임신부, 영유아 대상 건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증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방임 및 학대와 관련해서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및 가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에서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으며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안전습관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전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영유아에게 작은 물건을 가지고 놀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 아동을 혼자 두는 경우도 소수나마 발생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특성에 근거한 아동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카시트 미사용률은 27.6%에 달하여 보호용구 착용 의무화가 완전히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부모의 걱정으로는 교통사고가 1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카시트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2008년 실태조사에 비하여 유괴와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등 사회적으로 아동안전에 대해 강력한 보호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9장

학교생활

제1절 학교생활

제2절 친구관계

제3절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

제4절 소결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은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중단의사 유무, 아동의 희망교육수준, 학교생활 만족도, 친구관계,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 피해·가해 행동으로 분석되었다.

제1절 학교생활

1. 취학여부

아동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아동의 학교 취학여부, 학업중단의사 유무, 아동의 희망교육수준 역시 살펴보았다. 본 조사 대상 아동들의 학교 취학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아동 중 99.9%가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취학여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 99.9%가 취학생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99.8%가 취학생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상위가구 아동의 경우 98.3%가 취학생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수준계층보다는 약간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9-1〉 9-17세 아동 취학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99.9	0.1	100.0 (5,505,142)
성별	남자	99.9	0.1	100.0 (2,897,704)
	여자	99.9	0.1	100.0 (2,607,438)
연령	9-11세	100.0	0.0	100.0 (1,546,503)
	12-17세	99.9	0.1	100.0 (3,958,639)
소득수준 1	빈곤	99.4	0.6	100.0 (269,146)
	일반	99.96	0.04	100.0 (5,233,997)
소득수준2	기초수급	99.8	0.2	100.0 (194,415)
	차상위	98.3	1.7	100.0 (74,731)
	일반	99.96	0.04	100.0 (5,233,997)
지역	대도시	99.96	0.02	100.0 (2,404,831)
	중소도시	99.98	0.05	100.0 (2,761,142)
	농어촌	99.4	0.6	100.0 (339,169)
가족유형	양부모	100.0	0.0	100.0 (4,680,979)
	한부모·조손	99.5	0.5	100.0 (771,512)

2. 학업중단 의사

아동의 학업중단 의사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 중 0.6%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남자아동이 0.7%로 여자아동 0.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학업중단 의사 유무에서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9-11세 아동보다 12-17세 아동의 학업중단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0.3% vs 0.7%), 차상위가구 아동 (1.5%)과 기초수급가구 아동 (1.2%)에게서 학업중단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업중단 의사가 1.2%로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보다 한부모나 조손가족 아동의 학업중단 의사가 1.3%로 높게 나타났다.

〈표 9-2〉 9-17세 아동의 학업중단 의사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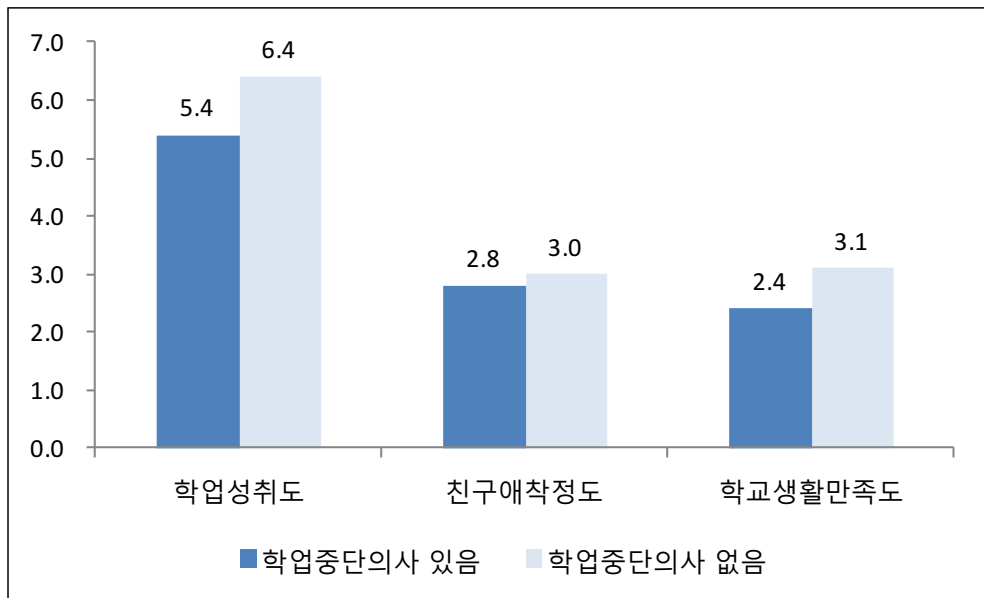
구분		현재 학생으로 졸업까지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다	현재 학생이지만 조만간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다	계 (명)
전체		99.4	0.6	100.0 (4,984,763)
아동 성별	남자	99.3	0.7	100.0 (2,623,600)
	여자	99.5	0.5	100.0 (2,361,163)
연령	9-11세	99.7	0.3	100.0 (1,369,472)
	12-17세	99.3	0.7	100.0 (3,615,290)
소득수준1	빈곤	98.7	1.3	100.0 (255,373)
	일반	99.4	0.6	100.0 (4,729,389)
소득수준2	기초수급	98.8	1.2	100.0 (182,938)
	차상위	98.5	1.5	100.0 (72,435)
	일반	99.4	0.6	100.0 (4,729,389)
지역	대도시	98.8	1.2	100.0 (2,118,623)
	중소도시	99.8	0.2	100.0 (2,567,744)
	농어촌	100.0	0.0	100.0 (298,395)
가족유형	양부모	99.5	0.5	100.0 (4,221,472)
	한부모·조손	98.7	1.3	100.0 (724,506)

다른 조사와 비교해볼 때, 교육기본통계(교육부, 2012)에서의 학업중단율은 1.1%로 아동실태조사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아동실태조사의 학업중단율은 교육기본통계(2012)와 유사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교육기본통계: 초등학생=0.6%, 중학생=0.9%, 고등학생=1.9%; 아동실태조사: 9-11세=0.3%, 12-17세=0.7%).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 및 학업부진, 인간관계악화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이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로 부각되고 있다(교육부, 2012), 본 조사에서도 학업성취도, 친구 간의 애착정도, 학교만족도와 학업중단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하였다($p < .05$). 즉, 학업중단의사가 있는 아동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친구애착 정도가 낮으며,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그림 9-1 참조). 따라서 학업성취, 친구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9-1] 9-17세 아동의 학업중단의사 유무별 학업성취도, 친구애착정도, 학교생활만족도 점수

(단위: %)



3. 희망교육 수준

아동의 희망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아동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의 경우 고등학교 및 2-3년제 전문대 졸업을 희망하는 아동의 비율이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 14%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9-17세 아동의 희망교육 수준

(단위: %,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 이상 (석사 및 박사)	계 (명)
전체		0.4	4.8	7.0	74.0	13.7	100.0 (5,489,417)
아동 성별	남자	0.5	6.8	7.9	72.6	12.2	100.0 (2,891,192)
	여자	0.3	2.6	6.0	75.6	15.4	100.0 (2,598,225)
연령	9-11세	0.9	3.3	3.9	76.5	15.5	100.0 (1,540,685)
	12-17세	0.3	5.4	8.3	73.1	13.1	100.0 (3,948,732)
소득 수준 ¹	빈곤	2.4	10.3	21.9	57.4	7.9	100.0 (267,007)
	일반	0.3	4.5	6.3	74.9	14.0	100.0 (5,222,410)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2.8	9.1	19.6	59.4	9.1	100.0 (192,354)
	차상위	1.4	13.3	27.9	52.4	5.0	100.0 (74,653)
	일반	0.3	4.5	6.3	74.9	14.0	100.0 (5,222,410)
지역	대도시	0.8	3.4	7.5	74.0	14.2	100.0 (2,398,063)
	중소도시	0.1	6.1	6.6	73.5	13.7	100.0 (2,752,453)
	농어촌	0.3	3.7	7.0	78.1	11.0	100.0 (338,901)
가족 유형	양부모	0.4	3.8	6.0	75.3	14.5	100.0 (4,671,067)
	한부모·조손	0.7	11.2	13.6	66.0	8.6	100.0 (765,699)

연령별 아동의 희망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9-11세 아동의 76.5%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15.5%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1세 아동의 소득수준별 희망교육수준을 보면, 일반가구 아동의 77%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15.6%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것에 반해,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59.5%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17.1%가 2-3년제 전문대 졸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기초수급가구 아동의 6.2%) 및 고등학교 (기초수급가

구 아동의 7.9%)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일반가구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경향성은 12-17세 아동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9-4〉 연령별 아동의 희망교육 수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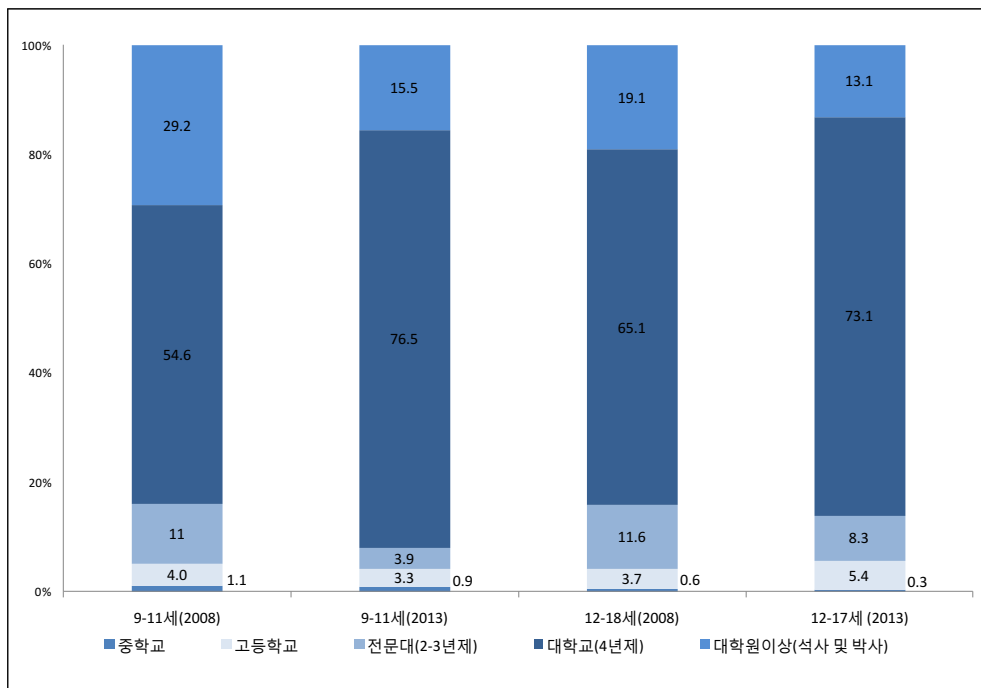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 이상 (석사 및 박사)	계 (명)
9-11세	전체		0.9	3.3	3.9	76.5	15.5	100.0 (1,540,685)
	성별	남자	1.5	4.8	3.0	78.6	12.1	100.0 (792,397)
		여자	0.2	1.7	4.8	74.2	19.1	100.0 (748,288)
	소득 수준1	빈곤	5.7	7.3	16.0	61.0	10.0	100.0 (45,046)
		일반	0.7	3.2	3.5	77.0	15.6	100.0 (1,495,63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6.2	7.9	17.1	59.5	9.3	100.0 (39,403)
		차상위	1.5	1.9	4.1	76.6	16.0	100.0 (696,747)
		일반	0.7	3.2	3.5	77.0	15.6	100.0 (1,495,639)
	지역	대도시	1.5	1.9	4.1	76.6	16.0	100.0 (696,747)
		중소도시	0.3	4.7	3.1	77.1	14.8	100.0 (756,272)
		농어촌	1.0	3.2	8.5	70.7	16.7	100.0 (87,665)
	가족 유형	양부모	0.9	2.4	3.3	77.0	16.5	100.0 (1,355,945)
		한부모·조손	0.9	10.2	8.7	72.4	7.8	100.0 (168,769)
12-17세	전체		0.3	5.4	8.3	73.1	13.1	100.0 (3,948,732)
	성별	남자	0.1	7.5	9.8	70.3	12.3	100.0 (2,098,795)
		여자	0.4	2.9	6.5	76.2	13.9	100.0 (1,849,937)
	소득 수준1	빈곤	1.8	10.9	23.1	56.7	7.5	100.0 (221,961)
		일반	0.2	5.0	7.4	74.0	13.4	100.0 (3,726,770)
	소득 수준2	기초수급	2.0	9.4	20.2	59.4	9.1	100.0 (152,950)
		차상위	1.3	14.2	29.5	50.9	4.1	100.0 (69,011)
		일반	0.2	5.0	7.4	74.0	13.4	100.0 (3,726,770)
	지역	대도시	0.5	4.0	9.0	73.0	13.5	100.0 (1,701,315)
		중소도시	0.1	6.7	7.9	72.1	13.2	100.0 (1,996,181)
		농어촌	0.0	3.9	6.5	80.7	9.0	100.0 (251,236)
	가족 유형	양부모	0.2	1.3	7.1	74.6	13.7	100.0 (3,315,121)
		한부모·조손	0.6	11.5	15.0	64.2	8.8	100.0 (596,930)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의 희망교육 수준을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 9-2]와 같다. 9-11세 아동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전문대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11%에서 3.9%로, 대학원 이

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비율도 29.2%에서 15.5%로 감소한데 반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54.6%에서 76.5%로 증가하였다. 12-17세 아동역시 9-11세 아동과 유사하게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비율이 2008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65.1%에서 73.1%로 증가하였다. 다만 12-17세 아동의 경우 2008년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아동 비율이 2008년 3.7%에서 2013년 5.4%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9-2] 9-17세 아동의 연령별 희망교육수준 변화추이, 2008-2013

(단위: %)



4. 학교생활만족도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등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나타내는 6개 문항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의 부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3개 문항으로 총 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부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역코딩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들은 최소 1점에서부터 최대 4점까지를 가지며,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 학교생활만족도는 3.1점으로 나타났다. 학교만족도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교만족도 역시 아동의 성별, 소득수준별, 지역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9-5〉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점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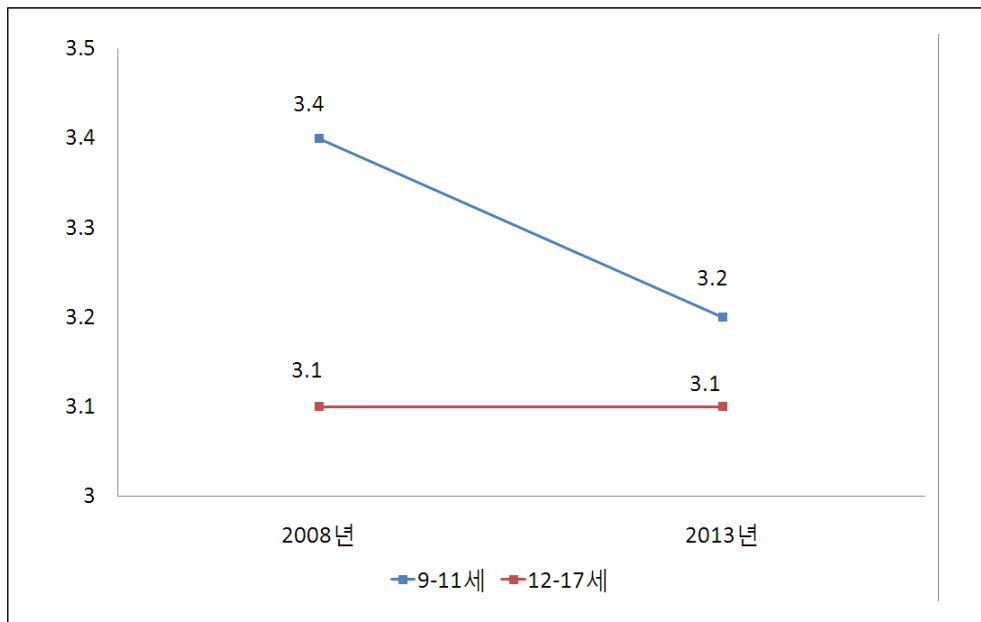
구분		전체			9-11세			12-17세		
		평균	SD	명	평균	SD	명	평균	SD	명
전체		3.09	0.42	5,496,897	3.19	0.42	1,542,185	3.05	0.42	3,954,713
아동 성별	남자	3.06	0.43	2,895,447	3.15	0.44	794,049	3.03	0.43	2,101,398
	여자	3.12	0.41	2,601,450	3.23	0.40	748,136	3.08	0.41	1,853,314
연령	9-11세	3.19	0.42	1,542,185	-	-	-	-	-	-
	12-17세	3.05	0.42	3,954,713	-	-	-	-	-	-
소득수준 ¹	빈곤	2.99	0.47	267,219	3.05	0.48	45,123	2.98	0.46	222,096
	일반	3.10	0.42	5,229,678	3.19	0.42	1,497,062	3.06	0.42	3,732,616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3.01	0.48	193,763	3.06	0.49	39,403	2.99	0.47	154,360
	차상위	2.95	0.43	73,456	2.93	0.40	5,720	2.95	0.44	67,736
	일반	3.10	0.42	5,229,678	3.19	0.42	1,497,062	3.06	0.42	3,732,616
지역	대도시	3.09	0.43	2,404,437	3.23	0.37	702,566	3.04	0.44	1,701,871
	중소도시	3.10	0.42	2,755,549	3.15	0.46	751,954	3.08	0.40	2,003,595
	농어촌	3.01	0.41	336,912	3.13	0.40	87,665	2.97	0.40	249,246
가족유형	양부모	3.10	0.42	4,676,661	3.19	0.43	1,353,201	3.06	0.41	3,323,460
	한부모·조손	3.04	0.45	767,586	3.21	0.37	173,013	2.99	0.46	594,573

주: 4점 척도, 최소값=1(전혀 그렇지 않다), 최대값=4(매우 그렇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12-17세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에서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9-11세 아동은 2008년에 비해 0.2점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9-3] 아동의 연령별 학교생활만족도 변화추이, 2008-2013

(단위: 점수)



제2절 친구관계

친구 관계는 조사대상 아동의 친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도와주는 지, 친구 애착의 정도와 친구 이탈 정도, 친한 친구의 수 및 이성교제 여부 등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친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아동을 도와주는 지를 물어본 결과, 약 과반 수 이상의 아동(52.9%)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0%의 아동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0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여 평균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2.67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응답한 친구의 도움 정도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다($p<.05$). 친구들이 친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비율¹⁵⁾이 기초수급아동에게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소득수준2 참조: 일반가구 아동 중 5.7% vs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 8.6%).

〈표 9-6〉 9-17세 아동의 친구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평균(SD))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명)	평균	SD
전체		0.9	4.9	31.0	52.9	10.4	100.0 (5,414,885)	2.67	0.76
아동 성별	남자	0.9	5.5	34.1	49.5	10.0	100.0 (2,828,003)	2.62	0.77
	여자	0.9	4.3	27.6	56.5	10.7	100.0 (2,586,882)	2.72	0.74
연령	9-11세	1.3	3.7	31.1	53.3	10.6	100.0 (1,502,898)	2.68	0.76
	12-17세	0.7	5.4	30.9	52.7	10.3	100.0 (3,911,987)	2.66	0.76
소득 수준1	빈곤	0.6	6.5	37.1	41.8	14.0	100.0 (265,267)	2.62	0.82
	일반	0.9	4.8	30.7	53.4	10.2	100.0 (192,537)	2.67	0.76
소득 수준2	기초수급	0.8	7.8	36.9	39.6	14.9	100.0 (192,537)	2.60	0.86
	차상위	0.1	3.2	37.7	47.5	11.5	100.0 (72,729)	2.67	0.72
	일반	0.9	4.8	30.7	53.4	10.2	100.0 (5,149,618)	2.67	0.76
지역	대도시	1.3	3.4	29.8	55.4	10.1	100.0 (2,364,318)	2.70	0.75
	중소도시	0.5	6.2	30.9	51.5	11.0	100.0 (2,719,657)	2.66	0.77
	농어촌	1.6	5.4	39.6	46.3	7.0	100.0 (330,910)	2.52	0.77
가족 유형	양부모	0.7	4.7	31.2	52.7	10.6	100.0 (4,610,805)	2.68	0.75
	한부모·조손	1.9	6.1	31.0	51.5	9.5	100.0 (754,992)	2.61	0.81

주: 최소값=0(전혀 그렇지 않다), 최대값=4(매우 그렇다)

15) 친구들이 친절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비율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과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의 합으로 계산함.

친구 애착 및 친구 이탈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9-7>에 제시되어 있다. 친구 애착 정도는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최소 1점에서부터 최대 4점까지의 값을 가진다. 친구 이탈 정도는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최소 1점에서부터 최대 4점까지의 값을 가진다. 친구애착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친구이탈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이탈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아동의 친구애착 정도는 평균 3.03점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이탈 정도는 평균 1.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 애착 정도가 높고 친구이탈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우선 친구애착 정도에서의 연령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소득수준별 친구애착 정도는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친구애착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비교 시, 친구애착 정도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2008년=3.1, 2013년=3.03).

친구이탈 정도의 경우, 성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9-11세 아동보다 12-17세 아동의 친구이탈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9-11세=1.33, 12-17세=1.45). 또한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비교 시, 친구이탈 정도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2008년=1.30, 2013년=1.41).

〈표 9-7〉 9-17세 아동의 친구애착 및 친구일탈 정도

(단위: 평균(SD), 명)

구분		전체			9-11세			12-17세		
		친구애착	친구일탈	명	친구애착	친구일탈	명	친구애착	친구일탈	명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체		3.03 (0.44)	1.41 (0.63)	5,505,142	3.05 (0.46)	1.33 (0.62)	1,546,503	3.03 (0.43)	1.45 (0.63)	3,958,639
아동 성별	남자	3.00 (0.42)	1.44 (0.64)	2,897,704	3.03 (0.42)	1.37 (0.64)	794,049	2.99 (0.43)	1.46 (0.63)	2,103,655
	여자	3.07 (0.45)	1.38 (0.62)	2,607,438	3.08 (0.49)	1.28 (0.58)	752,455	3.07 (0.44)	1.42 (0.63)	1,854,983
연령	9-11세	3.05 (0.46)	1.33 (0.62)	1,546,503	-	-	-	-	-	-
	12-17세	3.03 (0.43)	1.45 (0.63)	3,958,639	-	-	-	-	-	-
소득 수준 ¹	빈곤	2.97 (0.50)	1.46 (0.62)	269,146	2.91 (0.50)	1.40 (0.59)	45,123	2.98 (0.50)	1.47 (0.62)	224,023
	일반	3.04 (0.44)	1.41 (0.63)	5,235,996	3.06 (0.45)	1.33 (0.62)	1,501,380	3.03 (0.43)	1.44 (0.63)	3,734,616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2.99 (0.53)	1.41 (0.58)	194,415	2.91 (0.53)	1.37 (0.58)	39,403	3.01 (0.53)	1.41 (0.58)	155,012
	차상위	2.91 (0.41)	1.59 (0.69)	74,731	2.90 (0.27)	1.58 (0.62)	5,720	2.91 (0.42)	1.60 (0.70)	69,011
	일반	3.04 (0.44)	1.41 (0.63)	5,235,996	3.06 (0.45)	1.33 (0.62)	1,501,380	3.03 (0.43)	1.44 (0.63)	3,734,616
거주 지역	대도시	3.03 (0.45)	1.42 (0.62)	2,404,831	3.07 (0.49)	1.26 (0.55)	702,566	3.01 (0.44)	1.49 (0.64)	1,702,265
	중소도시	3.05 (0.43)	1.40 (0.63)	2,761,142	3.05 (0.43)	1.39 (0.67)	756,272	3.05 (0.43)	1.41 (0.61)	2,004,870
	농어촌	2.93 (0.42)	1.43 (0.64)	339,169	2.96 (0.44)	1.32 (0.56)	87,665	2.92 (0.41)	1.47 (0.66)	251,504
가족 유형	양부모	3.04 (0.44)	1.40 (0.62)	4,680,979	3.05 (0.46)	1.34 (0.63)	1,357,520	3.03 (0.42)	1.43 (0.61)	3,323,460
	한부모 · 조손	3.00 (0.47)	1.47 (0.68)	771,512	3.05 (0.40)	1.21 (0.42)	173,013	2.98 (0.48)	1.55 (0.71)	598,499

친구애착과 친구일탈 정도는 아동의 학업중단의사 뿐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친구 애착: $r=0.44$, 친구일탈: $r=-0.44$), 자존감 (친구애착: $r=0.35$, 친구일탈: $r=-0.28$), 행복감(친구애착: $r=0.32$, 친구일탈: $r=-0.32$)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친구애착 정도가 낮고 친구일탈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아동(예. 남자아동, 12-17세 아동, 소득수

준이 낮은 가구 아동)의 친구관계 증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의 친한 친구수를 물어본 결과, 아동 평균 7.8명의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아동이 평균 8.7명으로 여자 아동의 6.8명보다 더 많은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11세 아동보다 12-17세 아동이 친한 친구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평균 7.7~7.8명으로 친한 친구 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차상위가구 아동의 경우, 평균 6.7명의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8〉 9-17세 아동의 친한 친구의 수

(단위: 평균(SD), 명)

구분		전체			9-11세			12-17세		
		평균	SD	명	평균	SD	명	평균	SD	명
전체		7.78	10.84	5,479,525	7.42	7.77	1,540,638	7.91	11.82	3,938,887
아동 성별	남자	8.66	13.77	2,881,390	8.31	9.26	792,350	8.79	15.14	2,089,039
	여자	6.80	5.96	2,598,135	6.47	5.65	748,288	6.93	6.08	1,849,847
연령	9-11세	7.42	7.77	1,540,638	-	-	-	-	-	-
	12-17세	7.91	11.82	3,938,887	-	-	-	-	-	-
소득수준1	빈곤	7.42	9.32	266,366	7.73	8.61	45,123	7.36	9.46	221,243
	일반	7.79	10.91	5,213,159	7.41	7.75	1,495,515	7.95	11.94	3,717,643
소득수준2	기초수급	7.68	10.02	191,635	8.01	8.92	39,403	7.60	10.28	152,232
	차상위	6.75	7.21	74,731	5.75	5.68	5,720	6.83	7.31	69,011
	일반	7.79	10.91	5,213,159	7.41	7.75	1,495,515	7.95	11.94	3,717,643
지역	대도시	7.82	10.24	2,399,013	7.28	7.14	698,399	8.04	11.26	1,700,614
	중소도시	7.97	11.82	2,743,041	7.69	8.39	756,272	8.08	12.89	1,986,769
	농어촌	5.90	4.77	337,470	6.15	6.82	85,967	5.82	3.81	251,504
가족유형	양부모	7.56	8.80	466,144	7.50	8.00	135,821	7.59	9.10	330,602
	한부모·조손	9.25	19.13	765,030	7.02	6.04	168,846	9.88	21.39	596,184

9-17세 아동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다음의 〈표 9-9〉와 같다. 아동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서로 좋아하여 사귀는 이성친구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9-17세 아동의

11.8%가 현재 서로 좋아하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반이나 기초수급가구 아동일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 아동일수록 이성교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9〉 9-17세 아동의 이성교제 경험유무

(단위: %, 명)

구분		전체			9-11세			12-17세		
		없다	있다	계 (명)	없다	있다	계 (명)	없다	있다	계 (명)
전체		88.2	11.8	100.0 (5,356,972)	91.4	8.6	100.0 (1,503,103)	86.9	13.1	100.0 (3,853,869)
아동 성별	남자	88.8	11.2	100.0 (2,831,039)	93.0	7.0	100.0 (773,676)	87.2	12.8	100.0 (2,057,363)
	여자	87.6	12.4	100.0 (2,525,933)	89.8	10.2	100.0 (729,427)	86.7	13.3	100.0 (1,796,506)
연령	9-11세	91.4	8.6	100.0 (1,503,103)	-	-	-	-	-	-
	12-17세	86.9	13.1	100.0 (3,853,869)	-	-	-	-	-	-
소득수준1	빈곤	89.0	11.0	100.0 (266,359)	91.2	8.8	100.0 (44,450)	88.6	11.4	100.0 (221,909)
	일반	88.2	11.8	100.0 (5,090,613)	91.4	8.6	100.0 (1,458,654)	86.8	13.2	100.0 (3,631,960)
소득수준2	기초수급	88.6	11.4	100.0 (191,789)	90.4	9.6	100.0 (38,891)	88.1	11.9	100.0 (152,898)
	차상위	90.1	9.9	100.0 (74,570)	97.1	2.9	100.0 (5,559)	89.5	10.5	100.0 (69,011)
	일반	88.2	11.8	100.0 (5,090,613)	91.4	8.6	100.0 (1,458,654)	86.8	13.2	100.0 (3,631,960)
거주지역	대도시	90.9	9.1	100.0 (2,350,609)	93.0	7.0	100.0 (686,706)	90.0	10.0	100.0 (1,663,903)
	중소도시	85.8	14.2	100.0 (2,676,022)	89.7	10.3	100.0 (730,758)	84.3	15.7	100.0 (1,945,264)
	농어촌	88.8	11.2	100.0 (330,342)	94.0	6.0	100.0 (85,640)	87.0	13.0	100.0 (244,702)
가족유형	양부모	88.1	11.9	100.0 (4,553,650)	92.0	8.0	100.0 (1,321,050)	86.5	13.5	100.0 (3,232,600)
	한부모·조손	88.6	11.4	100.0 (761,164)	88.6	11.4	100.0 (170,826)	88.6	11.4	100.0 (590,338)

주: 9-17세 아동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제3절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

본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비행행동, 학교폭력 피해·가해 행동, 사이버 폭력 피해·가해 행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행행동의 경우, 비행행동 경험 유무와 비행경험 횟수로 측정되었으며,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경우 역시 피해 경험 뿐 아니라 가해 경험 모두 측정하였다.

1. 비행행동

9-17세 아동의 비행행동의 경우 비행행동을 한 경험 유무와 비행경험 횟수로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9-10>에서 <표 9-14>까지 제시되어 있다. 비행행동 경험은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놀리기)’,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폭행)’, ‘다른 사람 협박하기(협박)’,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뺏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도둑)’, ‘성관계’, ‘임신 또는 임신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게임하기(도박)’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의 비행행동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의 6.9%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1%의 아동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7%의 아동이 무단결석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담배와 술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살수록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경험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일반가구나 기초수급가구 아동보다 차상위가구 아동에게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로 남자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행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비행행동마다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다각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표 9-10〉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비행행동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담배	4.0	5.5	2.4	1.7	4.9	5.1	4.0	4.4	7.0	4.0
술	6.9	7.1	6.7	1.2	9.1	7.0	6.9	6.2	9.1	6.9
결석	1.7	1.4	2.1	1.0	2.0	4.2	1.6	3.8	5.2	1.6
가출	1.1	0.7	1.5	0.8	1.2	1.8	1.1	2.5	0.0	1.1
놀리기	2.1	2.6	1.6	2.5	2.0	2.8	2.1	3.5	1.1	2.1
왕따	1.0	1.4	0.5	1.7	0.7	1.1	1.0	1.6	0.0	1.0
패싸움	0.5	0.5	0.5	0.8	0.4	0.3	0.5	0.4	0.0	0.5
폭행	0.9	1.5	0.4	0.8	1.0	0.6	1.0	0.8	0.2	1.0
협박	0.8	1.4	0.1	0.5	0.9	0.6	0.8	0.8	0.0	0.8
빙뜯기	0.5	0.8	0.1	0.7	0.4	0.3	0.5	0.4	0.0	0.5
도박	0.6	0.6	0.5	1.4	0.2	0.3	0.6	0.4	0.0	0.6
성관계	0.3	0.1	0.5	0.8	0.1	0.0	0.3	0.0	0.0	0.3
임신	0.3	0.1	0.5	0.8	0.1	0.0	0.3	0.0	0.0	0.3
성폭행	0.2	0.3	0.1	0.7	0.0	0.3	0.2	0.4	0.0	0.2
도박	1.2	1.5	0.9	1.4	1.1	1.0	1.2	0.5	2.3	1.2
명	5,492,378	2,888,069	2,604,309	1,546,503	3,945,874	268,112	5,224,266	194,281	73,831	5,224,266

〈표 9-11〉 9-17세 아동의 지역별 가족유형별 비행행동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가족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담배	4.0	2.6	5.0	5.6	3.8	5.3
술	6.9	3.4	9.5	9.8	6.9	6.9
결석	1.7	1.5	2.0	1.5	1.4	3.6
가출	1.1	0.8	1.3	1.9	0.9	1.9
놀리기	2.1	3.2	1.5	0.0	2.1	2.3
왕따	1.0	1.2	0.9	0.0	1.0	0.7
패싸움	0.5	0.3	0.6	1.0	0.4	0.5
폭행	0.9	1.3	0.7	0.0	0.9	1.1
협박	0.8	0.8	0.9	0.0	0.7	1.4
빙뜯기	0.5	0.1	0.9	0.0	0.5	0.5
도박	0.6	0.2	0.9	0.9	0.5	0.5
성관계	0.3	0.2	0.4	0.3	0.2	0.4
임신	0.3	0.2	0.4	0.3	0.2	0.4
성폭행	0.2	0.0	0.4	0.0	0.2	0.5
도박	1.2	0.8	1.7	0.4	1.1	1.6
명	5,492,378	2,392,201	2,761,142	339,034	4,675,449	764,278

연령별로 비행행동 경험률을 성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9-11세 아동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가 2.5%로 비행행동 중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담배피우기(1.7%), 왕따(1.7%), 도벽(1.4%), 도박(1.4%)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놀리기의 경우, 남자아동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기초수급가구 아동),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반면 12-17세 아동은 술 마시기가 9.1%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배피우기(4.9%), 무단결석 (2.0%), 놀리기 (2.0%), 가출(1.2%), 도박(1.1%)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술 마시기의 경우, 남자아동일수록,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9-11세 아동보다 12-17세 아동에게서 비행행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행행동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및 생애주기적 지속적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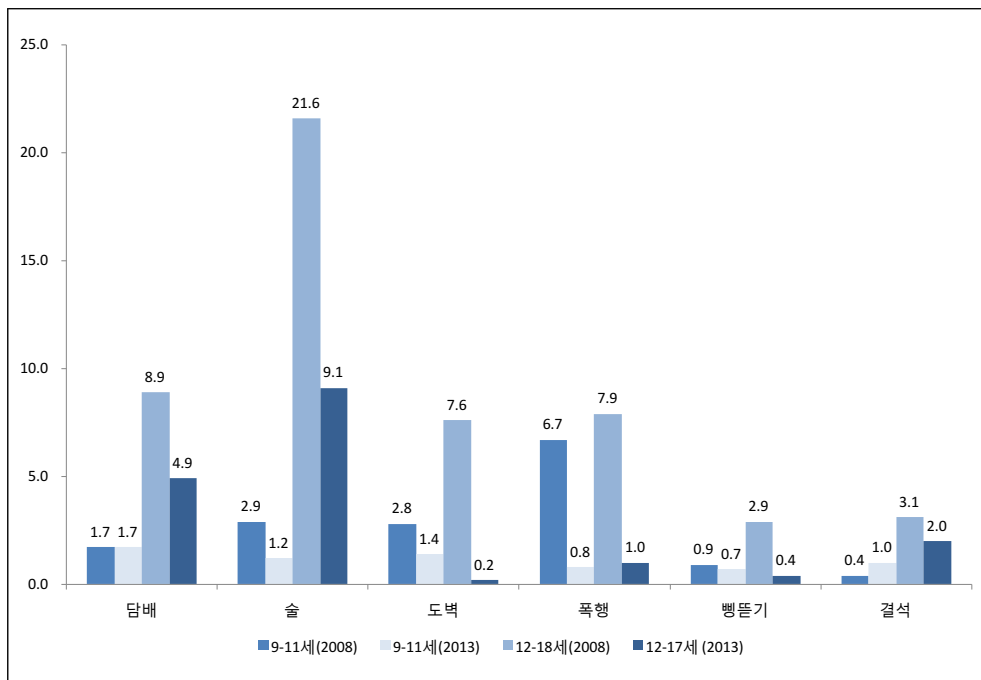
〈표 9-12〉 연령별 비행행동 경험률

(단위: %)

구분	전체	아동성별		소득수준1		소득수준2			거주지역			가족유형	
		남자	여자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9-11세													
담배	1.7	2.2	1.1	0.2	1.7	0.2	0.0	1.7	0.5	2.8	1.2	1.4	1.8
술	1.2	1.3	1.1	0.2	1.2	0.2	0.0	1.2	0.5	1.8	1.2	0.8	1.8
결석	1.0	1.0	1.1	1.5	1.0	1.7	0.0	1.0	1.0	1.1	1.2	0.6	1.9
가출	0.8	0.6	1.1	1.6	0.8	1.9	0.0	0.8	0.5	1.1	1.2	0.4	2.2
놀리기	2.5	3.4	1.4	5.7	2.4	6.6	0.0	2.4	3.0	2.3	0.0	1.8	7.6
왕따	1.7	2.1	1.3	3.0	1.7	3.4	0.0	1.7	2.1	1.5	0.0	1.6	2.2
패싸움	0.8	0.5	1.1	0.9	0.8	1.0	0.0	0.8	0.5	1.0	1.2	0.4	2.0
폭행	0.8	1.2	0.4	2.0	0.8	2.3	0.0	0.8	1.3	0.5	0.0	0.3	4.6
훔치	0.5	0.7	0.4	2.2	0.5	2.5	0.0	0.5	0.6	0.5	0.0	0.3	2.2
빙뜰기	0.7	1.0	0.4	0.9	0.7	1.0	0.0	0.7	0.0	1.4	0.0	0.5	2.0
도박	1.4	1.7	1.1	0.9	1.4	1.0	0.0	1.4	0.5	2.2	1.2	1.0	2.0
성관계	0.8	0.5	1.1	0.0	0.8	0.0	0.0	0.8	0.5	1.0	1.2	0.4	1.8
임신	0.8	0.5	1.1	0.0	0.8	0.0	0.0	0.8	0.5	1.0	1.2	0.4	1.8
성폭행	0.7	0.9	0.5	0.9	0.7	1.1	0.0	0.7	0.0	1.4	0.0	0.5	2.0
도박	1.4	1.7	1.1	0.4	1.5	0.5	0.0	1.5	0.6	2.3	1.3	1.1	1.9
명	1,546,503	794,049	752,455	45,123	150,180	39,403	5,720	150,180	702,566	756,272	87,665	135,520	173,013
12-17세													
담배	4.9	6.7	2.9	6.1	4.9	5.5	7.6	4.9	3.5	5.9	7.2	4.7	6.3
술	9.1	9.3	8.9	8.3	9.2	7.7	9.8	9.2	4.6	12.5	12.8	9.3	8.4
결석	2.0	1.6	2.5	4.7	1.9	4.4	5.6	1.9	1.7	2.4	1.6	1.7	4.2
가출	1.2	0.8	1.7	1.9	1.2	2.7	0.0	1.2	1.0	1.3	2.1	1.1	1.9
놀리기	2.0	2.3	1.7	2.3	2.0	2.8	1.1	2.0	3.3	1.2	0.0	2.3	0.8
왕따	0.7	1.1	0.2	0.8	0.7	1.1	0.0	0.7	0.8	0.7	0.0	0.8	0.3
패싸움	0.4	0.5	0.3	0.2	0.4	0.3	0.0	0.4	0.2	0.4	0.9	0.4	0.1
폭행	1.0	1.6	0.3	0.3	1.0	0.4	0.2	1.0	1.3	0.8	0.1	1.1	0.1
훔치	0.9	1.7	0.0	0.2	0.9	0.3	0.0	0.9	0.8	1.0	0.0	0.9	1.1
빙뜰기	0.4	0.8	0.0	0.2	0.4	0.3	0.0	0.4	0.1	0.7	0.0	0.5	0.1
도박	0.2	0.3	0.2	0.2	0.2	0.3	0.0	0.2	0.0	0.4	0.8	0.3	0.1
성관계	0.1	0.0	0.2	0.0	0.1	0.1	0.0	0.1	0.0	0.2	0.0	0.1	0.0
임신	0.1	0.0	0.2	0.0	0.1	0.1	0.0	0.1	0.0	0.2	0.0	0.1	0.0
성폭행	0.01	0.0	0.0	0.1	0.0	0.2	0.0	0.0	0.0	0.0	0.0	0.0	0.1
도박	1.1	1.4	0.8	1.1	1.1	0.5	2.5	1.1	0.9	1.5	0.0	1.1	1.5
명	3,945,874	2,094,020	1,851,855	222,989	3,722,886	154,878	68,111	3,722,886	1,680,635	2,048,770	251,369	331,729	591,265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의 비행행동 경험률을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모든 연령에서 2008년보다 2013년의 비행행동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¹⁶⁾. 예를 들어, 12-17세의 흡연경험률은 2008년 8.9%에서 2013년 4.9%로 감소하였고, 음주경험률도 2008년 21.6%에서 2013년 9.1%로 감소하였다. 이는 아동의 흡연 및 음주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정책(예. 음주청정지역 확대선정 및 금연구역지정확대, 아동 음주·흡연 예방 및 홍보사업,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른 비행행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4] 9-17세 아동의 연령별 비행행동 경험률 변화 추이, 2008-2013



16) 12-17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흡연과 음주율을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와 비교해보면, 아동실태조사의 흡연 및 음주율이 매우 낮게 측정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흡연율=11.4%, 음주율=19.4%). 하지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서도,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비행행동경험이 최근에 감소한 경향을 나타냄 (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흡연율=12.8%, 음주율=24.5%).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비행 횟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행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실제 사례 아동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측정한 비행행동 횟수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다만 비행행동 유형 중 가장 많은 경험률을 보인 담배피우기와 술마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담배피우기의 경우 1년 평균 442.72회(1일 평균 흡연 횟수=4.30회)로 나타났으며, 술 마시기의 경우 1년 평균 8.43회(1달 평균 음주횟수=3.62회)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행횟수를 살펴보면, 9-11세 아동에게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놀리기는 1년 평균 9.24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12-17세 아동에게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담배피우기는 1년 평균 480.6회(1일 평균 흡연 횟수=3.98회), 술마시기는 1년 평균 7.6회(1달 평균 음주횟수=3.26회)로 나타났다.

〈표 9-13〉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평균 비행횟수

(단위: 회(1년 평균), SD, 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답배	평균 ¹⁷⁾	442.72	534.42	25.94	480.62	1,199.39	387.80	1,079.00	1,399.28	387.80
	SD	975.38	1,037.57	39.90	1,010.21	1,691.99	876.41	1,886.39	1,282.25	876.41
솔	실제사례수 ¹⁸⁾	70	15	4	66	30	40	26	4	40
	명(모수)	202,328	53,555	16,866	185,462	13,690	188,638	8,544	5,146	188,638
술	평균	8.43	6.67	38.72	7.57	15.48	8.05	12.81	19.87	8.05
	SD	19.39	17.11	49.37	17.05	22.84	19.11	20.86	25.16	19.11
결석	실제사례수	105	36	3	102	38	67	32	6	67
	명	345,953	154,887	9,536	336,417	17,685	328,267	10,997	6,688	328,267
가출	평균	6.93	10.87	5.82	7.05	3.10	7.64	3.15	3.00	7.64
	SD	13.93	18.97	4.48	14.59	2.78	15.01	3.42	0.00	15.01
놀이	실제사례수	38	25	5	33	23	15	20	3	15
	명	71,940	35,087	7,089	64,851	11,177	60,764	7,352	3,825	60,764
가출	평균	2.67	2.82	9.47	2.06	2.64	2.68	2.64	-	2.68
	SD	3.21	3.06	3.16	2.40	2.91	3.24	2.91	-	3.24
놀이	실제사례수	26	14	3	23	13	13	13	0	13
	명	45,664	30,221	3,772	41,891	4,787	40,877	4,787	0	40,877
왕따	평균	6.42	7.59	9.24	5.23	19.36	5.49	21.44	1.07	5.49
	SD	19.28	23.43	34.09	5.67	69.74	5.90	73.31	0.26	5.90
왕따	실제사례수	50	9	20	30	24	26	22	2	26
	명	113,579	38,034	33,777	79,802	7,639	105,940	6,860	779	105,940
왕따	평균	2.93	2.78	2.54	3.32	6.46	2.75	6.46	-	2.75
	SD	4.67	4.85	4.34	4.94	9.37	4.21	9.37	-	4.21
왕따	실제사례수	22	4	10	12	9	13	9	0	13
	명	53,129	13,636	26,186	26,943	2,651	50,478	2,651	0	50,478

17) 지난 1년간 다음에 제시된 비행행동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간 경험한 비행행동의 횟수의 평균을 측정함.

18) 지난 1년간 다음에 제시된 비행행동들은 경험했다고 응답한 실제 조사 사례 수.

〈표 9-13〉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평균 비행횟수(계속)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패싸움	평균	5.14	2.92	11.00	10.09	2.92		11.05	4.74		11.05	-
	SD	4.95	3.98	0.00	2.54	4.08		8.96	4.26		8.96	-
폭행	실제사례수	7	6	1	3	4		3	4		3	0
	명	11,019	7,986	3,033	3,422	7,597		703	10,316		703	0
협박	평균	5.91	6.27	4.27	12.90	3.66		71.29	3.71		75.17	31.00
	SD	27.61	30.41	4.69	55.07	3.10		137.01	3.01		142.87	0.00
협박	실제사례수	23	21	2	8	15		10	13		9	1
	명	51,357	42,070	9,287	12,514	38,843		1,669	49,688		1,522	147
협박	평균	3.43	2.86	11.00	5.23	2.99		5.67	3.35		5.67	-
	SD	3.61	3.06	0.00	5.34	2.89		6.73	3.42		6.73	-
협박	실제사례수	17	16	1	6	11		7	10		7	0
	명	43,424	40,391	3,033	8,380	35,044		1,477	41,947		1,477	0
뺑돌기	평균	6.08	5.45	11.00	10.15	3.32		7.60	6.03		7.60	-
	SD	4.47	4.36	0.00	1.03	3.73		2.46	4.51		2.46	-
뺑돌기	실제사례수	11	10	1	4	7		4	7		4	0
	명	26,622	23,589	3,033	10,752	15,870		825	25,797		825	0
도벽	평균	12.94	13.54	10.58	14.80	6.44		4.31	13.36		4.31	-
	SD	7.26	7.98	1.67	6.92	3.91		0.80	7.17		0.80	-
도벽	실제사례수	9	7	2	5	4		4	5		4	0
	명	15,946	12,718	3,228	12,405	3,541		740	15,206		740	0
성관계	평균	11.00	.	11.00	11.00	.		.	11.00		.	-
	SD	0.00	.	0.00	0.00	.		.	0.00		.	-
성관계	실제사례수	1	0	1	1	0		0	1		0	0
	명	3,033	0	3,033	3,033	0		0	3,033		0	0

(단위: 회(1년 평균), SD, 명)

〈표 9-13〉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평균 비행횟수(계속)

(단위: 회(1년 평균), SD, 명)

구분		전체	이동성별		연령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임신	평균	11.00	-	11.00	11.00	-	-	11.00	-	-	11.00
	SD	0.00	-	0.00	0.00	-	-	0.00	-	-	0.00
	실제사례수	1	0	1	0	0	0	1	0	0	1
	명	3,033	0	3,033	3,033	0	0	3,033	0	0	3,033
성폭행	평균	6.37	5.00	9.04	6.53	1.00	1.00	6.76	1.00	.	6.76
	SD	3.00	0.00	3.97	2.90	0.00	0.00	2.73	0.00	.	2.73
	실제사례수	4	1	3	3	1	2	2	2	0	2
	명	11,101	7,331	3,770	10,786	315	737	10,364	737	0	10,364
도박	평균	11.30	14.14	3.27	32.92	4.25	1.60	11.77	3.01	1.00	11.77
	SD	16.10	17.70	4.29	19.41	4.32	3.02	16.32	5.29	0.00	16.32
	실제사례수	13	10	3	5	8	4	9	3	1	9
	명	52,956	39,128	13,828	13,021	39,935	2,443	50,513	725	1,718	50,513

〈표 9-14〉 9-17세 아동의 지역별, 가족유형별 평균 비행횟수

(단위: 회(1년 평균), SD, 명)

구분		전체	지역			가족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담배	평균 ¹⁹⁾	442.72	1,063.66	169.58	461.84	258.36	1,234.04
	SD	975.38	1,544.98	425.35	328.01	659.35	1,548.21
	실제사례수 ²⁰⁾	70	22	36	12	38	32
	명(모수)	202,328	56829	130263	15236	164099	38230
술	평균	8.43	8.10	7.11	20.36	7.29	14.84
	SD	19.39	12.43	14.20	47.03	17.20	27.83
	실제사례수	105	24	52	29	65	40
	명	345,953	70506	246113	29333	293494	52458
결석	평균	6.93	9.48	5.13	1.04	9.40	3.00
	SD	13.93	20.07	4.72	0.19	17.10	3.45
	실제사례수	38	16	18	4	15	23
	명	71,940	31565	38506	1869	44225	27716
가출	평균	2.67	1.91	2.90	4.73	2.26	3.54
	SD	3.21	1.68	3.67	3.79	2.52	4.18
	실제사례수	26	7	16	3	14	12
	명	45,664	16123	26421	3119	30980	14683
놀리기	평균	6.42	4.78	9.37	2.00	4.67	19.35
	SD	19.28	5.84	31.02	0.00	5.06	52.27
	실제사례수	50	29	20	1	28	22
	명	113,579	72817	40707	56	100008	13571
왕따	평균	2.93	1.51	4.52	-	2.22	9.54
	SD	4.67	1.48	6.24	-	3.75	6.75
	실제사례수	22	10	12	0	13	9
	명	53,129	27948	25181	0	47940	5189
패싸움	평균	5.14	1.00	6.96	21.00	2.14	11.01
	SD	4.95	0.00	3.87	0.00	1.62	3.88
	실제사례수	7	1	5	1	3	4
	명	11,019	4093	6612	314	7283	3736
폭행	평균	5.91	1.79	11.91	31.00	3.45	17.82
	SD	27.61	1.06	42.96	0.00	2.45	65.27
	실제사례수	23	11	11	1	12	11
	명	51,357	30753	20457	147	42581	8775
협박	평균	3.43	1.82	4.62	-	2.89	5.10
	SD	3.61	0.87	4.34	-	3.01	4.66
	실제사례수	17	6	11	0	9	8
	명	43,424	18551	24874	0	32812	10612
뺑뺑기	평균	6.08	1.70	6.44	-	5.37	10.27
	SD	4.47	2.41	4.41	-	4.39	1.80
	실제사례수	11	2	9	0	6	5
	명	26,622	2014	24608	0	22764	3858
도벽	평균	12.94	3.56	13.15	-	13.95	9.69
	SD	7.26	0.50	7.20	-	7.91	2.68
	실제사례수	9	2	7	0	4	5
	명	15,946	351	15595	0	12173	3773

〈표 9-14〉 9-17세 아동의 지역별, 가족유형별 평균 비행횟수(계속)

(단위: 회(1년 평균), SD, 명)

구분		전체	지역			가족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성관계	평균	11.00	-	11.00	-	-	11.00
	SD	0.00	-	0.00	-	-	0.00
	실제사례수	1	0	1	0	0	1
	명	3,033	0	3,033	0	0	3,033
임신	평균	11.00	-	11.00	-	-	11.00
	SD	0.00	-	0.00	-	-	0.00
	실제사례수	1	0	1	0	0	1
	명	3,033	0	3,033	0	0	3,033
성폭행	평균	6.37	1.00	6.53	.	5.00	9.04
	SD	3.00	0.00	2.90	.	0.00	3.97
	실제사례수	4	1	3	0	1	3
	명	11,101	315	10786	0	7331	3770
도박	평균	11.30	8.88	12.21	22.00	13.46	3.71
	SD	16.10	2.94	18.75	0.00	17.49	4.53
	실제사례수	13	4	8	1	7	6
	명	52,956	14584	38322	50	41224	11732

19) 지난 1년간 다음에 제시된 비행행동들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간 경험한 비행행동의 횟수의 평균을 측정함.

20) 지난 1년간 다음에 제시된 비행행동들은 경험했다고 응답한 실제 조사 사례 수.

2. 학교폭력 피해가해 행동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행동은 동일한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 아동이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를 했는지로 측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문항들을 살펴보면,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놀림)’,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따돌림)’,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소문)’,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협박)’,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갈취)’,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폭행)’,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성희롱)’의 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해 행동은 대상아동이 피해행동 문항과 동일한 행동을 다른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는 지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험 유무로 코딩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아동 중 하나 이상의 유형의 학교 폭력 피해 혹은 가해 경험을 한 아동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전체 아동의 32.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차상위가구 아동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 경험의 경우, 전체 아동의 21.5%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일수록, 기초수급가구 아동일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가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5〉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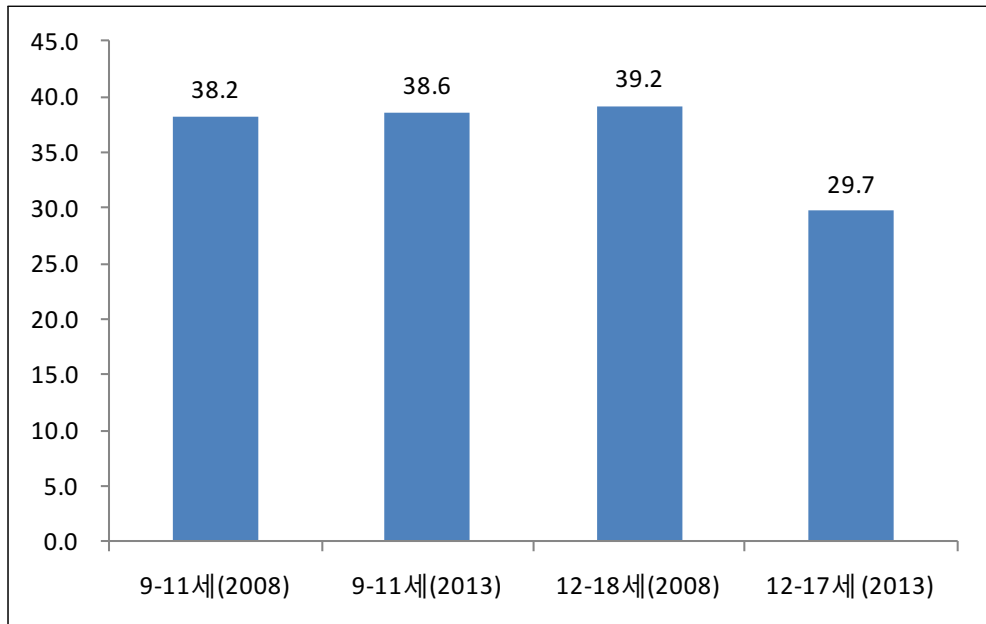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계 (명)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체		67.8	32.2	78.5	21.5	100.0 (5,487,900)
아동 성별	남자	66.6	33.4	75.4	24.6	100.0 (2,885,431)
	여자	69.1	30.9	81.9	18.1	100.0 (2,602,469)
연령	9-11세	61.4	38.6	77.8	22.2	100.0 (1,546,503)
	12-17세	70.3	29.7	78.7	21.3	100.0 (3,941,397)
소득수준1	빈곤	67.6	32.4	77.3	22.7	100.0 (265,634)
	일반	67.8	32.2	78.5	21.5	100.0 (5,222,267)
소득수준2	기초수급	69.1	30.9	75.0	25.0	100.0 (193,077)
	차상위	63.5	36.5	83.3	16.7	100.0 (72,556)
	일반	67.8	32.2	78.5	21.5	100.0 (5,222,267)
거주지역	대도시	64.6	35.4	79.4	20.6	100.0 (2,391,807)
	중소도시	69.8	30.2	77.0	23.0	100.0 (2,759,123)
	농어촌	74.9	25.1	83.9	16.1	100.0 (336,971)
가족유형	양부모	68.9	31.1	78.6	21.4	100.0 (4,675,385)
	한부모·조손	60.9	39.1	76.5	23.5	100.0 (759,865)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림 9-5]와 같다. 9-11세 아동의 경우, 2008년과 2013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2-17세 아동은 2008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39.2%로 나타났으나 2013년 29.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9-11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아동은 낮은 학교생활만족도($r=-0.14$) 및 높은 우울수준($r=0.23$)을 보일 뿐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도 밀접한 연관성을($r=0.47$) 가지므로,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9-5] 9-17세 아동의 연령별 학교폭력피해경험률 변화추이, 2008-2013

(단위: %)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보면, 아동의 26.1%가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 중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12.9%), 소문(12.5%)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피해경험률을 보인 놀림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놀림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16〉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피해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놀림	26.1	28.1	23.9	34.5	22.8	24.4	26.2	26.1	19.8	26.2
따돌림	12.9	13.7	12.1	14.3	12.4	18.8	12.6	16.6	24.7	12.6
소문	12.5	9.9	15.4	14.4	11.8	15.5	12.4	15.1	16.4	12.4
협박	5.3	5.7	4.8	7.0	4.6	7.2	5.2	7.3	6.9	5.2
갈취	3.5	4.3	2.6	3.8	3.4	4.4	3.4	5.0	3.0	3.4
폭행	4.6	5.6	3.6	6.8	3.8	5.7	4.6	6.3	4.2	4.6
성희롱	1.4	1.6	1.3	1.1	1.5	3.2	1.3	4.4	0.0	1.3
명 ²¹⁾	5,487,900	2,885,431	2,602,469	1,546,503	3,941,397	265,634	5,222,267	19,3077	72,556	5,222,267

〈표 9-17〉 9-17세 아동의 지역별 및 가족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피해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가족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놀림	26.1	30.0	23.6	19.1	25.5	29.7
따돌림	12.9	13.3	13.3	7.0	12.2	17.5
소문	12.5	12.7	12.5	10.7	11.9	16.8
협박	5.3	5.3	5.5	3.5	5.5	4.0
갈취	3.5	3.6	3.5	2.6	3.6	3.3
폭행	4.6	5.8	3.9	2.0	4.8	3.7
성희롱	1.4	2.0	0.9	1.7	1.3	2.5
명 ²²⁾	5,487,900	2,391,807	2,759,123	336,971	4,675,385	759,865

각 유형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을 보면, 아동의 17.1%가 다른 아동을 놀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폭력 가해 경험 중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9.0%), 소문(6.0%)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해 경험률을 보인 놀리기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다른 아동을 놀린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21) 각 문항별 응답 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22) 각 문항별 응답 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수준을 보면, 기초수급가구 아동에게서 놀림 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며(19.9%), 차상위가구 아동에게서 놀림 가해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15.6%).

〈표 9-18〉 9-17세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가해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소득수준1		소득수준2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놀림	17.1	20.0	13.9	18.5	16.5	18.8	17.0	19.9	15.6	17.0
따돌림	9.0	10.1	7.8	8.8	9.1	10.7	8.9	13.8	2.5	8.9
소문	6.0	5.6	6.5	4.9	6.4	5.3	6.0	7.2	0.5	6.0
협박	1.9	1.9	1.8	1.4	2.0	4.1	1.8	4.7	2.7	1.8
갈취	1.5	2.1	0.8	1.6	1.4	2.7	1.4	2.7	2.7	1.4
폭행	4.3	5.2	3.2	4.5	4.2	4.0	4.3	4.7	2.1	4.3
성희롱	0.6	0.6	0.6	0.9	0.5	1.2	0.6	1.7	0.0	0.6
명 ²³⁾	5,487,900	2,885,431	2,602,469	1,546,503	3,941,397	265,634	5,222,267	193,077	72,556	5,222,267

〈표 9-19〉 9-17세 아동의 지역별 및 가족유형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가해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가족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놀림	17.1	17.3	17.5	12.1	17.2	17.0
따돌림	9.0	7.2	10.9	6.1	9.3	8.0
소문	6.0	4.6	7.5	3.9	6.2	5.1
협박	1.9	0.6	3.1	1.2	1.9	2.0
갈취	1.5	0.4	2.3	2.8	1.4	2.3
폭행	4.3	2.7	5.8	3.5	4.1	5.8
성희롱	0.6	0.1	1.0	1.0	0.6	0.3
명 ²⁴⁾	5,487,900	2,391,807	2,759,123	336,971	4,675,385	759,865

23) 각 문항별 응답 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24) 각 문항별 응답 사례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3. 사이버 폭력 피해가해 행동

학교폭력 피해·가해 행동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아동의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행동은 동일한 문항에 대해 조사대상 아동이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를 했는 지로 측정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 피해문항들을 살펴보면, ‘아이들로부터 인터넷, 휴대폰, SNS, 카페 등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린 적이 있다(욕설)’과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 SNS, 카페 등에서 나를 왕따시킨 적이 있다(따돌림)’의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해 행동은 대상아동이 피해행동 문항과 동일한 행동을 다른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는 지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3점 척도(1=거의 없음, 2=보통, 3=자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험 유무로 코딩하여(0=거의없음, 1=경험 있음)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아동 중 한번이라도 사이버 폭력 피해 혹은 가해 경험을 한 아동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전체 아동의 2.8%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전체 아동의 2.7%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9-20〉 9-17세 아동의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단위: %)

구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계 (명)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체		97.2	2.8	97.3	2.7	100.0 (5,486,823)
아동 성별	남자	97.2	2.8	96.9	3.1	100.0 (2,885,431)
	여자	97.2	2.8	97.9	2.1	100.0 (2,601,392)
연령	9-11세	98.3	1.7	98.4	1.6	100.0 (1,546,503)
	12-17세	96.8	3.2	96.9	3.1	100.0 (3,940,319)
소득수준1	빈곤	93.0	7.1	94.2	5.8	100.0 (265,634)
	일반	97.4	2.6	97.5	2.5	100.0 (5,221,189)
소득수준2	기초수급	92.2	7.8	93.9	6.1	100.0 (193,077)
	차상위	94.9	5.1	95.1	4.9	100.0 (72,556)
	일반	97.4	2.6	97.5	2.5	100.0 (5,221,189)
거주지역	대도시	96.8	3.2	97.2	2.8	100.0 (2,390,729)
	중소도시	97.6	2.4	97.2	2.8	100.0 (2,759,123)
	농어촌	96.4	3.6	99.2	0.8	100.0 (336,971)
가족유형	양부모	97.5	2.5	97.7	2.3	100.0 (4,677,614)
	한부모·조손	95.5	4.5	95.1	4.9	100.0 (756,558)

유형별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있다. 사이버 폭력 피해 중 욕설 경험은 전체 아동의 2.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욕설로 인한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따돌림은 전체 아동의 1.8%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사이버 따돌림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은 욕설 가해 경험이 2.3%, 따돌림 가해 경험이 1.3%로 나타났으며, 남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욕설과 따돌림 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9-21〉 9-17세 아동의 유형별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률		계 (명)
		욕설	따돌림	욕설	따돌림	
전체		2.4	1.8	2.3	1.3	100.0 (5,486,823)
아동 성별	남자	2.2	2.3	2.7	2.1	100.0 (2,885,431)
	여자	2.7	1.3	1.9	0.5	100.0 (2,601,392)
연령	9-11세	1.5	1.1	1.6	0.7	100.0 (1,546,503)
	12-17세	2.7	2.1	2.6	1.6	100.0 (3,940,319)
소득수준1	빈곤	5.7	3.5	5.4	4.4	100.0 (265,634)
	일반	2.2	1.8	2.2	1.2	100.0 (5,221,189)
소득수준2	기초수급	6.2	4.2	6.0	4.4	100.0 (193,077)
	차상위	4.5	1.8	3.7	4.4	100.0 (72,556)
	일반	2.2	1.8	2.2	1.2	100.0 (5,221,189)
거주지역	대도시	2.8	2.4	2.1	2.1	100.0 (2,390,729)
	중소도시	1.9	1.3	2.8	0.8	100.0 (2,759,123)
	농어촌	3.6	2.1	0.8	0.8	100.0 (336,971)
가족유형	양부모	2.1	1.8	1.9	1.3	100.0 (4,677,614)
	한부모·조손	4.0	2.1	4.8	1.6	100.0 (756,558)

제4절 소결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은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 비행행동 및 학교/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의 취학여부, 학업 중단 의사의 여부, 희망교육수준 역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아동의 대부분은 취학생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아동은 전체 아동의 0.6%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기초수급가구 아동=1.2%, 차상위가구 아동=1.5%, 일반 아동=0.6%),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대도시=1.2%, 중소도시=0.2%, 농어촌=0.0%) 학업중단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의 운영강화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들은 긍정적인 학교생활만족도(4점 만점에 3.1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친구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은 평균 7.8명의 친한 친구가 있으며,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고 (4점 만점에 3점), 친구의 일탈 정도가 낮은 (4점 만점에 1.4점)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17세 아동의 이성교제 경험과 관련하여, 9-17세 아동의 11.8%가 현재 서로 좋아하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비행행동은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놀리기, 왕따시키기, 패싸움, 폭행, 협박, 뺑뜨기, 절도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음주(6.9%), 흡연(4.0%), 놀리기(2.1%), 무단결석 (1.7%)의 비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남자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행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각 비행행동마다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다각화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9-11세 아동보다 12-17세 아동에게서 비행행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행행동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적 지속적인 접근 방법 역시 필요하다.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아동의 32.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21.5%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하여 9-11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2-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39.2%(2008년)에서 29.7%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9-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입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2.8%는 사이버 폭력 피해를, 2.7%는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치료·개입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제10장

방과후 생활

제1절 방과후 생활실태

제2절 사회활동 참여실태

제3절 아동의 권리

제4절 소결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후 생활은 6세 이상의 취학 아동의 주양육자 및 9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평일 과 주말 및 방학 중의 방과후 활동을 분석하였고, 9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아동들의 아동권리 인식 정도와 지각하고 있는 아동권리 보장정도를 살펴보았다.

제1절 방과후 생활실태

1. 방과후 활동실태

주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의 평일 방과후 생활의 1순위 분석결과는 <표 10-1>과 같다.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4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집에서 쉬기 22.4%,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 또는 방과후 학교 참여가 14.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 가구소득, 지역,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여자아동일수록, 9-11세 연령대의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일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가정 아동일수록 평일 방과후에 학원이나 과외 같은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 평일 방과후 생활(1순위): 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구분		학원이 나 과외	집에서 쉬기	학교자 율학습 방과후 학교	집에서 숙제하 기	친구들 하고 놀이	방과후 돌봄기 관, 청소년 시설	신체활 동/ 운동하 기	아르바 이트	기타	계	명
전체		41.3	22.4	14.7	11.6	5.7	2.2	1.8	0.2	0.1	100.0	6,700,396
아동 성별	남자	40.8	24.3	13.7	9.8	6.4	2.0	2.8	0.1	0.1	100.0	3,475,119
	여자	41.8	20.4	15.8	13.5	5.0	2.4	0.7	0.3	0.1	100.0	3,225,277
연령	6-8세	33.3	26.0	11.8	15.5	9.1	3.7	0.6	0.0	0.0	100.0	1,203,522
	9-11세	49.6	17.6	8.1	13.6	3.9	3.8	3.0	0.0	0.4	100.0	1,546,503
	12-17세	40.5	23.3	18.2	9.6	5.4	1.1	1.7	0.4	0.0	100.0	3,950,371
소득 수준1	빈곤	12.7	31.2	23.1	12.7	7.8	7.8	2.8	1.6	0.2	100.0	299,803
	일반	42.6	22.0	14.3	11.5	5.6	1.9	1.7	0.1	0.1	100.0	6,400,593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3.3	31.0	20.3	14.1	6.6	8.9	3.7	1.8	0.3	100.0	216,997
	차상위	11.2	31.7	30.5	9.0	11.0	5.1	0.2	1.2	0.0	100.0	82,807
	일반	42.6	22.0	14.3	11.5	5.6	1.9	1.7	0.1	0.1	100.0	6,400,593
지역	대도시	41.3	22.9	13.8	11.8	5.2	1.9	2.8	0.2	0.0	100.0	2,950,294
	중소도시	42.3	21.6	14.4	11.5	6.3	2.5	0.9	0.2	0.1	100.0	3,326,424
	농어촌	33.3	25.5	23.4	10.5	4.5	0.9	1.6	0.0	0.4	100.0	423,678
가족 유형	양부모	44.5	20.8	14.3	11.2	5.6	1.6	1.8	0.2	0.1	100.0	5,776,227
	한부모·조손	19.4	32.9	17.5	14.5	7.3	6.1	1.8	0.5	0.1	100.0	854,356

아동이 응답한 평일 방과후 생활의 1순위로 응답한 결과는 <표 10-2>와 같다.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집에서 쉬기(21.8%),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 또는 방과후학교 참여(15.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 가구소득, 지역,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남자아동일수록, 9-11세 연령대의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일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가정 아동일수록 평일 방과후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 평일 방과후 생활(1순위): 아동응답

(단위: %, 명)

구분		집에서 쉬기	집에서 숙제하기	친구들과 놀기	학교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학원이나 과외	방과후 돌봄기관, 청소년 시설	신체활동/운동하기	아르바이트	기타	계	명
전체		21.8	9.4	8.6	15.5	40.6	1.9	1.8	0.3	0.1	100.0	5,498,618
아동 성별	남자	23.2	8.5	7.9	14.4	41.6	1.8	2.6	0.1	0.0	100.0	2,894,827
	여자	20.4	10.5	9.5	16.6	39.6	2.0	0.8	0.4	0.2	100.0	2,603,791
연령	9-11세	19.4	12.1	5.8	10.0	46.7	3.8	2.1	0.0	0.3	100.0	1,545,001
	12-17세	22.8	8.4	9.8	17.6	38.3	1.1	1.6	0.4	0.0	100.0	3,953,617
소득 수준1	빈곤	33.8	9.8	11.6	20.3	14.2	5.2	2.5	1.9	0.7	100.0	266,124
	일반	21.2	9.4	8.5	15.2	42.0	1.7	1.7	0.2	0.1	100.0	5,232,494
소득 수준2	기초수급	34.0	10.1	10.5	18.7	14.7	6.0	3.4	1.5	0.8	100.0	192,668
	차상위	33.3	9.0	14.4	24.3	12.7	3.2	0.2	2.7	0.3	100.0	73,456
	일반	21.2	9.4	8.5	15.2	42.0	1.7	1.7	0.2	0.1	100.0	5,232,494
지역	대도시	20.9	9.7	10.0	14.2	41.0	2.2	1.8	0.3	0.0	100.0	2,404,132
	중소도시	22.0	8.9	7.6	15.4	42.3	1.8	1.7	0.3	0.1	100.0	2,757,620
	농어촌	27.6	12.1	7.9	24.4	24.8	0.6	2.4	0.0	0.2	100.0	336,866
가족 유형	양부모	20.7	9.3	7.6	15.3	44.1	1.4	1.4	0.2	0.0	100.0	4,679,173
	한부모·조손	28.5	10.1	15.5	15.9	20.7	4.2	4.1	0.6	0.5	100.0	766,794

2. 방과후 희망활동

가. 주양육자 응답

주양육자가 인지하는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의 1, 2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6세 이상의 아동 주양육자 중 거의 절반인 49.2%는 ‘학원 및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한 학습활동을 희망하며, 다음이 집에서 숙제하기(39.8%), 집에서 쉬기(33.3%)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9세 이상 아동의 주양육자의 경우, 자녀가 ‘친구들과 놀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9-11세가 17.1%, 중학생 이상 연령대인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14.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방과후 희망활동(1+2순위)(중복응답): 부모응답

(단위: %, 명)

구분		학원 이나 과외	집에서 숙제 하기	집에서 쉬기	학교 자율 학습 방과후 학교	신체 활동/ 운동 하기	친구들 하고 놀기	방과후 돌봄 기관· 청소년 시설	기타	아르바 이트	계 (명)
전체	희망	49.2	39.8	33.3	27.0	25.2	16.9	5.3	0.9	0.5	6,695,093
	실제	55.6	36.9	53.4	19.8	7.3	21.7	3.0	0.8	0.2	6,700,396
아동 성별	남자	50.2	40.5	33.8	26.3	26.5	15.0	4.8	0.8	0.3	3,475,119
	여자	48.1	39.1	32.8	27.8	23.8	19.0	5.9	1.1	0.7	3,219,974
연령	6-8세	39.0	43.7	38.0	21.7	22.6	26.0	5.9	1.1	0.0	1,198,219
	9-11세	55.0	42.0	31.7	21.4	24.4	17.1	6.1	0.7	0.0	1,546,503
	12-17세	50.0	37.8	32.5	30.8	26.3	14.0	4.9	1.0	0.8	3,950,371
소득 수준 ¹	빈곤	33.1	38.5	33.0	37.7	21.8	11.2	18.1	1.5	0.9	299,803
	일반	50.0	39.9	33.4	26.5	25.3	17.2	4.7	0.9	0.4	6,395,290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34.3	38.7	34.7	33.5	22.7	13.0	16.7	2.0	0.9	216,997
	차상위	29.9	37.9	28.6	48.8	19.7	6.2	21.9	0.2	1.2	82,807
	일반	50.0	39.9	33.4	26.5	25.3	17.2	4.7	0.9	0.4	6,395,290
지역	대도시	55.0	40.8	27.3	26.2	25.2	14.9	6.1	1.9	0.4	2,950,294
	중소도시	44.3	39.1	36.9	27.7	25.8	19.0	5.0	0.2	0.5	3,321,121
	농어촌	47.4	39.3	47.1	27.7	20.5	14.7	3.0	0.0	0.0	23,678
가족 유형	양부모	50.7	39.9	33.0	26.2	25.9	17.2	4.4	0.8	0.4	5,770,925
	한부모·조손	39.0	40.2	34.4	32.3	20.8	14.7	11.8	1.8	1.0	854,356

나. 아동응답

아동이 응답한 방과후 희망활동 1, 2순위 내용을 합해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9세 이상 아동이 희망하는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집에서 쉬기(61.2%)였으며, 다음이 친구들과하고 놀기(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후 활동 실태가 ‘학원 및 과외’와 같은 사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숙제하기 등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은 방과후 휴식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4〉 방과후 희망활동(1+2순위)(중복응답): 아동응답

(단위: %, 명)

구분		학원 이나 과외	집에서 숙제 하기	학교 자율 학습 방과후 학교	집에서 쉬기	신체 활동 /운동 하기	친구들 하고 놀기	방과후 돌봄 기관 이나 청소년 시설	기타	아르바 이트	없음	명
전체	희망	24.7	21.7	13.6	61.2	21.1	48.7	2.7	0.8	3.5	0.2	5,496,485
	실제	54.3	53.4	21.9	35.9	5.9	23.2	3.2	0.5	0.3	-	5,498,618
아동 성별	남자	24.3	22.7	12.3	60.8	23.5	47.2	2.6	1.1	2.9	0.4	2,892,665
	여자	25.1	20.6	15.0	61.7	18.3	50.3	2.7	0.4	4.1	0.0	2,603,820
연령	9-11세	27.2	25.1	9.7	60.0	16.9	54.2	4.7	0.6	0.1	0.1	1,546,207
	12-17세	23.7	20.3	15.1	61.7	22.7	46.5	1.9	0.8	4.8	0.3	3,950,278
소득 수준 ¹	빈곤	20.7	20.5	19.3	56.1	22.2	40.7	6.4	1.4	8.4	0.1	266,132
	일반	24.9	21.7	13.3	61.5	21.0	49.1	2.5	0.7	3.2	0.2	5,230,353
소득 수준 ²	가최수급	22.8	19.6	16.3	54.8	23.3	42.3	6.8	1.8	7.3	0.1	192,676
	차상위	15.3	22.9	27.1	59.5	19.3	36.5	5.3	0.3	11.2	0.2	73,456
	일반	24.9	21.7	13.3	61.5	21.0	49.1	2.5	0.7	3.2	0.2	5,230,353
지역	대도시	25.3	23.1	12.4	59.0	23.2	48.2	3.2	0.2	2.7	0.0	2,402,141
	중소도시	25.5	20.4	15.0	62.2	18.7	48.6	2.5	1.1	4.0	0.4	2,757,559
	농어촌	13.9	21.6	10.8	69.0	24.4	52.4	0.3	1.7	4.1	0.0	336,784
가족 유형	양부모	24.9	21.8	13.1	61.8	21.5	49.5	2.1	0.8	2.9	0.3	4,677,032
	한부모·조손	23.2	20.5	15.9	58.6	17.1	45.6	5.7	0.5	7.3	0.0	766,802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인 9세 이상의 경우, 실제 ‘친구들과 놀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9-11세가 19.2%, 중학생 이상 연령대인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24.7%이다(표 10-2 참조). 반면, 또래와 함께 놀고 싶은 욕구는 9-11세의 경우 54.2%,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 46.5% 등으로 실제보다 20%p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교사 1인당 적정 돌봄아동수

방과후 적절한 돌봄서비스 및 특정 집단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라 함은 아동이 충분한 관심과 집중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적정수의 돌봄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돌봄교사 1명당 적정 아동수는 2-5명이 가장 많은 64.1%이었고, 그 다음은 6-10명으로 24.9%이다. 대부분의 주양육자가 10명 이하를 원하고 있다.

아동성별로는 남자아동 양육자는 돌봄교사 1명당 2-5명의 아동이 적절하다(63.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6-10명(26.1%), 1명(7.5%) 순이었다. 여자아동 양육자의 경우 역시 2-5명(65.2%)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6-10명(23.5%), 1명(8.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어린 아동 양육자일수록 교사 1명당 적은 수의 아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나, 가족유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크기에 따른 차이이다. 지역크기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2-5명의 소규모 돌봄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독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대도시(10.3%)나 농어촌(10.5%)에 비해 중소도시(5.7%)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과 돌봄교사 1명당 적정아동수의 차이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0-5〉 돌봄교사 1명당 적정아동수: 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구분		1명 (단독)	2~5명	6~10명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명
전체		8.0	64.1	24.9	2.8	0.3	0.0	100.0 (9,325,923)
아동 성별	남자	7.5	63.1	26.1	2.9	0.4	0.0	100.0 (4,884,222)
	여자	8.4	65.2	23.5	2.6	0.1	0.1	100.0 (4,441,701)
연령	0-2세	11.1	73.6	14.2	1.1	0.0	0.0	100.0 (1,268,624)
	3-5세	8.4	60.5	28.4	2.7	0.0	0.0	100.0 (1,267,588)
	6-8세	6.4	66.9	25.0	1.7	0.0	0.0	100.0 (1,311,849)
	9-11세	8.2	62.2	26.7	2.9	0.0	0.0	100.0 (1,546,503)
	12-17세	7.2	61.9	26.4	3.7	0.6	0.1	100.0 (3,931,358)
소득 수준 1	빈곤	7.8	65.1	24.3	2.2	0.4	0.2	100.0 (374,858)
	일반	8.0	64.0	24.9	2.8	0.3	0.0	100.0 (8,951,066)
소득 수준 2	기초수급	7.9	61.2	27.3	2.6	0.7	0.2	100.0 (246,635)
	차상위	7.5	72.6	18.6	1.3	0.0	0.0	100.0 (128,222)
	일반	8.0	64.0	24.9	2.8	0.3	0.0	100.0 (8,951,066)
지역	대도시	10.3	64.9	23.8	1.0	0.1	0.0	100.0 (4,085,888)
	중소도시	5.7	63.0	26.7	4.2	0.3	0.1	100.0 (4,680,172)
	농어촌	10.5	67.6	17.5	3.6	0.7	0.0	100.0 (559,863)
가족 유형	양부모	7.6	64.4	24.9	2.8	0.3	0.0	100.0 (8,233,858)
	한부모가족	9.9	61.3	25.4	3.2	0.1	0.1	100.0 (1,004,267)

3.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

가. 평일 함께 지내는 사람

평일 방과후에 아동과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주양육자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아동 혼자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과후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나, 베이비시터나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 등 개별적으로 돌봄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2.3%에 지나지 않았다.

〈표 10-6〉 평일 방과후 함께 지내는 사람(복수응답): 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혼자서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학원선생님	친척/친지	방과후 돌봄기관/친구	기타	베이비시터/집안일도와주시는 분	(명)
전체	295.9	39.4	30.5	15.7	6.4	5.4	3.8	2.2	0.4	0.1	6,684,428
아동 성별	남자	292.3	40.5	33.0	16.6	5.5	5.8	3.1	2.9	0.2	3,459,151
	여자	299.6	38.3	27.8	14.8	7.5	5.0	4.6	1.4	0.6	3,225,277
연령	6-8세	328.4	10.8	20.6	20.2	4.1	5.4	5.5	4.0	0.4	1,199,149
	9-11세	297.7	29.8	27.9	23.2	4.5	8.0	6.2	2.1	0.6	1,546,503
	12-17세	285.2	51.9	34.5	11.4	7.9	4.4	2.4	1.7	0.3	3,938,775
소득 수준 1	빈곤	200.0	71.2	51.5	50.7	7.7	1.6	7.3	6.1	3.7	299,300
	일반	300.4	38.0	29.5	14.1	6.4	5.6	3.7	2.0	0.2	6,385,128
소득 수준 2	기초수급	212.8	50.8	54.2	55.0	5.9	1.9	7.7	7.5	4.0	216,494
	차상위	166.7	124.3	44.5	39.3	12.4	1.0	6.2	2.4	3.0	82,807
	일반	300.4	38.0	29.5	14.1	6.4	5.6	3.7	2.0	0.2	6,385,128
지역	대도시	298.4	35.9	27.0	16.9	6.0	8.0	4.7	2.5	0.4	2,940,444
	중소도시	292.8	43.0	33.4	14.1	7.1	3.6	3.4	1.9	0.4	3,320,305
	농어촌	302.0	35.6	31.8	20.4	4.5	1.6	0.8	2.6	0.7	423,678
가족 유형	양부모	311.5	32.7	29.1	9.4	5.9	5.9	3.3	1.6	0.2	5,760,762
	한부모·조손	187.2	86.8	38.5	59.4	10.1	2.7	7.6	6.2	1.5	853,853

나. 주말/방학 중 함께 지내는 사람

다음에는 주말 또는 방학 중에 누구와 함께 지내는 지에 대해 주양육자와 아동을 통해 조사하였다. 먼저 주양육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아동이 주말 또는 방학에 함께 지내는 사람은 부모님이 가장 많았으나, 형제·자매, 혼자, 친구 등 아동들끼리 혹은 아동혼자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말 및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실태는 평일보다 훨씬 더 저조한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2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1.4%만이 주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12세 이상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 개발 및 확충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표 10-7〉 주말/방학 함께 지내는 사람(복수응답): 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형제/자매	혼자서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	학원선생님	방과후 돌봄 기관 친구	친척/친지	기타	베이비시터/집안일 도와주는 분	명
전체		212.6	36.8	18.6	17.4	8.7	2.8	1.4	1.2	0.3	0.1	6,680,946
아동 성별	남자	210.8	37.7	20.6	18.6	7.4	2.4	1.8	0.5	0.3	0.0	3,459,654
	여자	214.6	35.9	16.5	16.2	10.2	3.2	1.0	2.0	0.4	0.1	3,221,292
연령	6-8세	249.1	22.8	5.6	3.5	12.6	0.6	2.4	3.0	0.1	0.3	1,195,164
	9-11세	226.6	36.2	9.9	10.6	11.2	2.9	0.8	1.5	0.3	0.0	1,546,503
	12-17세	196.0	41.3	26.0	24.3	6.5	3.4	1.4	0.6	0.4	0.0	3,939,278
소득 수준 ¹	빈곤	138.5	54.7	30.4	30.9	33.8	0.4	2.8	6.1	2.3	0.0	299,803
	일반	216.1	36.0	18.1	16.8	7.5	2.9	1.3	1.0	0.2	0.1	6,381,143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135.8	56.8	29.4	24.2	39.3	0.5	3.9	7.7	2.5	0.0	216,997
	차상위	145.6	49.2	33.0	48.5	19.6	0.1	0.0	2.1	1.9	0.0	82,807
	일반	216.1	36.0	18.1	16.8	7.5	2.9	1.3	1.0	0.2	0.1	6,381,143
지역	대도시	212.9	35.9	15.7	19.4	9.7	3.3	2.0	0.7	0.2	0.1	2,940,948
	중소도시	213.7	35.7	20.8	17.1	7.1	2.7	1.0	1.5	0.5	0.0	3,316,320
	농어촌	202.0	51.8	22.0	6.5	14.7	0.1	0.5	2.4	0.0	0.0	423,678
가족 유형	양부모	224.1	36.8	14.1	14.9	4.8	3.1	1.2	0.9	0.1	0.1	5,756,777
	한부모·조손	133.4	37.9	50.5	34.1	35.4	0.7	2.6	3.7	1.7	0.0	854,356

다음은 9세 이상 아동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아동이 주말 또는 방학에 함께 지내는 사람은 부모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형제/자매, 혼자, 친구 등 아동들끼리 혹은 아동혼자 지내는 경우도 부모의 응답과 동일하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말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이용실태는 평일보다 훨씬 더 저조하였으며, 부모가 응답한 결과보다 실제 아동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를 통해 12세 이상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 개발 및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 10-8〉 주말/방학 함께 지내는 사람(복수응답): 아동응답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혼자서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친척/ 친지	방과후 돌봄 기관/ 친구	기타	베이비 시터/ 집안일 도와주 시는 분	명
전체		186.4	22.4	41.5	4.5	40.6	2.2	0.9	1.3	0.1	5,451,821
아동 성별	남자	184.9	23.6	38.7	4.4	44.0	1.9	1.2	1.3	0.0	2,867,202
	여자	188.0	21.1	44.6	4.7	36.7	2.7	0.6	1.2	0.3	2,584,619
연령	9-11세	217.3	9.1	40.3	9.1	19.5	2.7	0.7	.9	0.4	1,516,275
	12-17세	174.4	27.6	42.0	2.8	48.7	2.1	1.0	1.4	0.1	3,935,546
소득 수준 ¹	빈곤	116.8	33.3	52.5	23.4	59.5	8.6	1.9	3.8	0.0	264,273
	일반	189.9	21.9	41.0	3.6	39.6	1.9	0.9	1.1	0.2	5,187,548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129.3	31.4	57.7	28.1	41.9	6.4	2.6	2.6	0.1	189,928
	차상위	84.7	38.3	39.4	11.5	104.8	14.3	0.1	6.9	0.0	74,345
	일반	189.9	21.9	41.0	3.6	39.6	1.9	0.9	1.1	0.2	5,187,548
지역	대도시	185.0	18.4	40.5	5.1	45.1	2.5	0.9	2.2	0.2	2,386,639
	중소도시	190.5	26.3	40.4	3.4	35.6	2.1	1.1	.5	0.1	2,729,078
	농어촌	162.1	19.8	58.1	8.9	47.9	1.7	0.1	1.4	0.0	336,105
가족 유형	양부모	195.0	20.1	41.3	1.8	38.4	1.4	0.8	1.1	0.2	4,643,028
	한부모·조손	134.3	34.8	42.8	21.7	54.6	7.6	1.7	2.5	0.0	756,142

4. 방과후 나홀로 실태

가. 방과후 나홀로 빈도

평일 방과후 아동이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없이 혼자 지내는 빈도 및 시간 등에 대해 주양육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부모가 응답한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빈도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1/5 이상(20.6%)은 방과후 혼자 집에 있는 날이 3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 이상(10.5%)은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아동이 혼자 집에서 장시간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차상위가구 아동이 가장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도시보다 농촌지역 아동의 돌봄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의 아동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 특히 차상위가구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표 10-9〉 혼자 집에 있는 빈도: 부모응답

		(단위: %, 명)				
구분		거의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계 (명)
전체		54.5	24.9	10.1	10.5	100.0 (6,677,323)
아동성별	남자	51.8	25.1	11.4	11.6	100.0 (3,459,936)
	여자	57.4	24.6	8.6	9.4	100.0 (3,217,386)
연령	6-8세	74.7	16.9	3.9	4.6	100.0 (1,203,218)
	9-11세	54.1	27.6	9.8	8.4	100.0 (1,544,809)
	12-17세	48.5	26.3	12.0	13.2	100.0 (3,929,296)
소득수준1	빈곤가구	46.2	20.7	10.6	22.6	100.0 (299,500)
	일반가구	54.9	25.1	10.0	10.0	100.0 (6,377,823)
소득수준2	기초수급가구	49.4	23.8	9.3	17.5	100.0 (216,851)
	차상위가구	37.6	12.4	14.0	36.0	100.0 (82,649)
	일반가구	54.9	25.1	10.0	10.0	100.0 (6,377,823)
지역	대도시	56.8	22.8	10.7	9.7	100.0 (2,939,320)
	중소도시	53.9	25.6	9.4	11.2	100.0 (3,315,703)
	농어촌	42.7	34.3	11.1	11.9	100.0 (422,300)
가족유형	양부모	57.0	25.0	9.4	8.5	100.0 (5,757,764)
	한부모·조손	38.9	22.6	14.4	24.1	100.0 (854,052)

다음은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빈도 및 시간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표 10-10 참고). 우리나라 9세 이상 아동의 약 18%는 방과후 혼자 집에 있는 날이 3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 약 8%는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응답과 아동의 응답결과를 비교할 때 전체적인 분포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주양육자들이 아동의 방과후 돌봄실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응답결과에서도 빈곤가구 특히 차상위가구 아동에 대

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10〉 혼자 집에 있는 빈도: 아동응답

		(단위: %, 명)				
구분		거의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계 (명)
전체	주양육자응답	54.5	24.9	10.1	10.5	100.0 (6,677,323)
	아동응답	52.5	29.8	9.7	8.0	100.0 (5,495,142)
아동성별	남자	50.0	31.4	10.5	8.1	100.0 (2,887,875)
	여자	55.4	28.0	8.8	7.8	100.0 (2,607,268)
연령	9-11세	56.3	28.2	9.5	6.1	100.0 (1,546,503)
	12-17세	51.1	30.4	9.8	8.7	100.0 (3,948,639)
소득수준1	빈곤가구	48.1	24.0	10.5	17.4	100.0 (268,841)
	일반가구	52.8	30.1	9.7	7.5	100.0 (5,226,301)
소득수준2	기초수급가구	49.3	26.3	9.3	15.1	100.0 (194,110)
	차상위가구	45.0	18.2	13.6	23.3	100.0 (74,731)
	일반가구	52.8	30.1	9.7	7.5	100.0 (5,226,301)
지역	대도시	55.3	28.5	9.1	7.0	100.0 (2,397,441)
	중소도시	50.8	30.4	10.4	8.5	100.0 (2,758,666)
	농어촌	47.2	34.4	8.2	10.2	100.0 (339,034)
가족유형	양부모	53.8	30.7	9.1	6.4	100.0 (4,671,150)
	한부모·조손	45.4	23.5	14.0	17.1	100.0 (771,342)

나. 방과후 나홀로 시간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집에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이 20% 이상이 한번에 3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 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6-8세 아동 10명 중 1명은 3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아동일수록 오랜 시간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치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그리고 중소도시일수록 오랜 시간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 대상, 중소도시지역 대상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충 및 개발이 요청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은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아동의 경우 매우 심각하게 오랜시간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의 주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응답의 경우 3시간 이상 혼자있는 비율은 22.4%로 주양육자 응답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아동이 혼자 집에서 4시간 이상 지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차상위가구의 아동이 가장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주양육자의 응답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3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의 아동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약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1〉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4시간 이상	계 (명)
전체		48.2	31.5	15.6	4.7	100.0 (6,680,888)
아동성별	남자	45.1	33.2	16.5	5.1	100.0 (3,457,031)
	여자	51.5	29.7	14.7	4.1	100.0 (3,223,856)
연령	6-8세	69.1	19.8	8.7	2.3	100.0 (1,203,096)
	9-11세	50.3	32.7	13.8	3.3	100.0 (1,544,809)
	12-17세	41.0	34.6	18.5	5.9	100.0 (3,932,982)
소득수준1	빈곤	40.1	27.5	16.0	16.3	100.0 (297,420)
	일반	48.6	31.7	15.6	4.1	100.0 (6,383,468)
소득수준2	기초수급	42.6	27.9	15.9	13.6	100.0 (216,045)
	차상위	33.6	26.5	16.4	23.5	100.0 (813,74)
	일반	48.6	31.7	15.6	4.1	100.0 (6,383,468)
지역	대도시	51.7	30.3	14.0	4.0	100.0 (2,938,604)
	중소도시	45.5	32.1	17.2	5.2	100.0 (3,318,605)
	농어촌	45.1	35.5	14.1	5.3	100.0 (423,678)
가족유형	양부모	50.9	32.2	13.3	3.6	100.0 (5,763,441)
	한부모·조손	30.3	26.5	31.7	11.5	100.0 (849,994)

〈표 10-12〉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아동응답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4시간 이상	계 (명)
전체		46.7	31.0	16.6	5.8	100.0 (5,490,403)
아동성별	남자	43.2	31.7	19.0	6.1	100.0 (2,887,694)
	여자	50.5	30.2	14.0	5.4	100.0 (2,602,709)
연령	9-11세	53.4	28.5	14.4	3.7	100.0 (1,546,503)
	12-17세	44.0	31.9	17.5	6.6	100.0 (3,943,899)
소득수준1	빈곤	36.3	28.7	18.4	16.7	100.0 (268,661)
	일반	47.2	31.1	16.5	5.2	100.0 (5,221,742)
소득수준2	기초수급	39.7	28.8	17.8	13.6	100.0 (193,930)
	차상위	27.3	28.3	19.9	24.6	100.0 (74,731)
	일반	47.2	31.1	16.5	5.2	100.0 (5,221,742)
지역	대도시	47.7	32.1	14.2	6.0	100.0 (2,392,702)
	중소도시	46.2	30.0	18.8	5.0	100.0 (2,758,666)
	농어촌	42.9	30.9	15.7	10.5	100.0 (339,034)
가족유형	양부모	48.2	31.8	15.2	4.9	100.0 (4,666,591)
	한부모조손	37.2	25.9	25.9	10.9	100.0 (771,161)

제2절 사회활동 참여실태

1. 사회활동 참여율 및 횟수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활동 참여실태는 문화/예술, 취미/특기, 과학/정보,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기부활동, 정책참여, 국내외 교류활동,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에 참여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는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영역은 문화예술이었고 그 다음은 취미특기, 직업능력의 순이었다.

문화/예술관련 활동의 경우 아동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이 문화/예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의 종류에 따라 남녀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취미/특기, 과학/

정보,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재능기부관련 활동의 경우는 여학생의 참여가 보다 많았고, 현금기부, 정책참여, 교류활동 관련해서는 남학생의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9-11세 아동들이 중학생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빈곤가구의 아동보다는 일반가구의 아동들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참여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 중에서는, 문화/예술, 취미/특기와 관련해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아동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가정아동이 한부모·조손가구 가족보다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거주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참여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차상위가구, 혹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 속한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활동참여 횟수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아동일수록 참여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차상위가구 아동의 참여 수준이 더 낮았다.

〈표 10-13〉 유형별 사회활동 참여율

구분		문화/예술	취미/특기	과학/정보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재능기부	현금기부	정책참여	교류활동	출국경험
전체		68.9	32.6	21.8	9.3	13.6	25.6	3.1	13.4	2.5	4.0	5.4
아동 성별	남자	66.8	29.5	21.1	7.4	12.1	24.2	2.7	13.9	2.7	4.2	5.2
	여자	71.2	35.9	22.7	11.3	15.4	27.1	3.6	12.8	2.2	3.8	5.5
연령	9-11세	69.5	34.1	25.1	10.6	16.0	17.6	3.7	13.0	2.3	3.3	4.0
	12-17세	68.7	31.9	20.5	8.8	12.7	28.7	2.9	13.5	2.5	4.3	5.9
소득 수준1	빈곤	60.1	25.2	14.5	7.0	9.3	25.6	2.3	10.3	1.7	3.9	2.7
	일반	69.4	32.9	22.2	9.4	13.9	25.6	3.1	13.5	2.5	4.0	5.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59.9	25.4	15.1	7.1	11.8	23.7	3.1	9.8	2.4	5.0	3.2
	차상위	60.6	24.5	13.1	6.8	2.7	30.5	0.3	11.4	0.0	1.1	1.4
	일반	69.4	32.9	22.2	9.4	13.9	25.6	3.1	13.5	2.5	4.0	5.5
지역	대도시	66.8	31.6	22.2	11.3	14.3	27.1	3.1	15.0	3.7	3.3	5.0
	중소도시	70.3	33.1	21.1	7.6	13.3	25.3	3.0	12.6	1.3	4.5	6.0
	농어촌	72.4	34.4	25.3	8.3	11.7	17.3	4.1	8.3	3.7	5.4	2.7
가족 유형	양부모	70.0	33.7	22.6	9.1	13.5	25.4	3.4	14.0	2.6	3.9	5.9
	한부모존	63.2	25.7	17.3	11.0	14.0	25.9	1.3	10.5	1.6	4.7	2.2

(단위: %)

2. 자원봉사활동

아동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는 일손돕기, 위문활동, 지도/상담, 캠페인, 자선구호, 환경/시설보존, 지역사회개발 그리고 기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 자원봉사유형은 일손돕기이었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이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골고루 참여함을 볼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지도/상담, 자선구호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은 남자아동이 참여한 경우가 더 많았고, 반면 일손돕기, 위문활동, 캠페인, 환경/시설보존,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은 여자아동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중학생 이상인 12세 이상의 아동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손돕기, 위문활동, 환경/시설보존,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빈곤가구 아동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상담, 캠페인, 자선구호 등의 활동에서는 빈곤가정보다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아동의 참여가 높은 수치를 보인 일손돕기, 위문활동, 환경/시설보존, 지역사회개발 활동의 경우 특히 차상위 가구 아동의 참여수준이 다른 수준계층에 속한 아동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아동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손돕기, 캠페인, 자선구호, 환경·시설보호 등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문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모든 종류의 자원봉사활동에서 일반가정 아동들이 한부모·조손가족의 아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중등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활동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러한 가정에 속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 돌봄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시사한다.

〈표 10-15〉 유형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구분	일손동기	위문활동	지도/상담	캠페인	자산구호	환경/시설보존	지역사회개발	(단위: %)	
								기타	
전체	15.8	6.8	5.4	6.7	8.9	7.0	10.4	9.1	
아동성별	남자	15.1	5.6	5.7	5.4	9.7	6.4	10.1	9.3
	여자	16.6	8.2	5.0	8.0	8.1	7.7	10.7	8.9
연령	9-11세	6.9	3.3	5.4	6.4	6.2	6.4	8.3	3.8
	12-17세	19.3	8.2	5.4	6.7	10.0	7.3	11.2	11.1
소득수준1	빈곤	17.2	7.9	5.2	6.0	7.6	8.6	11.9	11.0
	일반	15.8	6.8	5.4	6.7	9.0	6.9	10.3	9.0
소득수준2	기초수급	16.7	7.3	5.8	6.0	8.8	7.5	11.3	8.3
	차상위	18.7	9.3	3.7	5.8	4.3	11.3	13.4	18.2
	일반	15.8	6.8	5.4	6.7	9.0	6.9	10.3	9.0
지역	대도시	18.1	5.8	6.8	8.6	10.1	7.9	10.1	11.5
	중소도시	14.5	8.0	3.9	5.0	8.2	6.2	11.1	7.1
	농어촌	10.2	5.5	7.5	6.6	6.9	7.8	6.8	7.4
가족유형	양부모	16.1	7.0	5.6	7.1	9.2	7.2	10.7	8.4
	한부모조손	14.3	6.4	4.1	4.0	8.1	6.1	8.8	13.8

〈표 10-16〉 자원봉사활동 횟수

구분	일손동기		위문활동		지도-상담		캠페인활동		자선-구호		환경시설보존		지역사회개발		기타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 체	3.65	5.73	2.08	1.96	2.24	4.34	2.55	5.47	2.64	2.89	2.07	1.46	2.55	2.35	3.68	5.83
	2.74	2.97	1.73	1.28	1.91	1.22	3.45	8.13	3.04	3.46	1.95	1.02	2.38	2.33	3.66	5.67
아동성별	4.57	7.44	2.35	2.31	2.64	6.30	1.87	1.07	2.11	1.75	2.17	1.74	2.73	2.37	3.71	6.01
	3.60	7.96	2.03	1.90	1.74	1.13	1.83	1.31	2.64	2.27	1.78	0.97	3.05	2.43	1.86	1.47
연령	3.65	5.34	2.09	1.97	2.44	5.07	2.83	6.35	2.64	3.03	2.17	1.58	2.40	2.31	3.93	6.14
	3.40	5.17	2.41	2.14	7.26	18.47	1.93	1.73	2.52	2.91	1.93	1.46	3.51	4.30	3.06	3.62
소득수준1	3.66	5.76	2.06	1.94	1.99	1.12	2.58	5.58	2.65	2.89	2.08	1.46	2.49	2.17	3.72	5.93
	2.61	2.16	2.48	2.37	7.60	20.28	2.16	1.95	2.74	3.12	2.10	1.78	2.72	1.93	4.08	4.75
소득수준2	5.12	8.42	2.27	1.56	5.66	3.26	1.36	0.68	1.37	0.67	1.65	0.51	5.23	6.81	1.93	0.57
	3.66	5.76	2.06	1.94	1.99	1.12	2.58	5.58	2.65	2.89	2.08	1.46	2.49	2.17	3.72	5.93
지역	2.91	4.43	2.40	2.70	1.99	5.63	1.71	0.99	2.19	2.28	1.71	1.02	2.46	2.60	2.42	1.92
	4.48	6.85	1.92	1.29	2.63	1.59	4.01	8.70	3.13	3.38	2.41	1.59	2.63	2.17	5.67	8.76
	3.29	4.57	1.61	1.22	2.17	2.62	1.52	0.68	2.75	2.83	2.59	2.38	2.59	1.68	2.93	1.35
가족유형	3.75	6.00	2.07	1.95	2.05	1.36	2.60	5.71	2.70	3.06	2.12	1.49	2.48	2.21	3.66	5.07
	3.13	3.56	2.14	2.02	3.82	12.43	2.03	1.37	2.25	1.20	1.72	1.13	3.09	3.15	3.78	7.99

3.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은 학교 내 동아리,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그리고 사이버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동아리에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학교 동아리 참여율은 30.0%이었고, 시설 및 단체는 5.9%로 저조하고, 사이버 동아리는 2.9%이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살펴볼 때, 학교 및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참여여부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 동아리의 경우는 여자 아동의 참여가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9-11세보다 12-17세의 참여율이 높았고,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참여율이 낮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족보다는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표 10-17〉 동아리활동 참여율

(단위: %)

구분		학교	청소년시설·단체	사이버
전체		30.0	5.9	2.9
아동성별	남자	28.4	5.7	2.3
	여자	31.9	6.1	3.5
연령	9-11세	16.8	4.5	2.4
	12-17세	35.2	6.4	3.1
소득 수준1	빈곤	35.5	8.4	4.3
	일반	29.8	5.7	2.8
소득수준2	기초수급	35.5	8.2	4.7
	차상위	35.7	9.0	3.4
	일반	29.8	5.7	2.8
지역	대도시	30.8	7.0	2.8
	중소도시	31.0	4.9	2.9
	농어촌	17.7	6.4	2.8
가족유형	양부모	29.7	5.7	2.7
	한부모·조손	32.8	7.3	4.1

가입동아리 수는 1-2개가 가장 많은 30.7%이었다. 67.7%는 아무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표 10-18〉 가입 동아리수

(단위: %, 명)

구분		없다	1~2개	3~5개	6~9개	10개 이상	계 (명)
전체		67.7	30.7	1.3	0.2	0.1	100.0 (5,398,544)
아동 성별	남자	68.4	30.3	0.8	0.2	0.2	100.0 (2,836,147)
	여자	67.0	31.1	1.7	0.2	0.0	100.0 (2,562,397)
연령	9~11세	81.4	17.6	0.3	0.3	0.4	100.0 (1,517,014)
	12~17세	62.3	35.8	1.7	0.2	0.0	100.0 (3,881,530)
소득수준1	빈곤	61.6	36.4	1.4	0.1	0.5	100.0 (259,635)
	일반	68.0	30.4	1.3	0.2	0.1	100.0 (5,138,909)
소득수준2	기초수급	63.2	35.1	1.0	0.0	0.7	100.0 (187,973)
	차상위	57.3	39.9	2.6	0.2	0.0	100.0 (71,662)
	일반	68.0	30.4	1.3	0.2	0.1	100.0 (5,138,909)
지역	대도시	67.2	30.9	1.2	0.4	0.2	100.0 (2,367,345)
	중소도시	66.4	32.3	1.2	0.1	0.0	100.0 (2,706,434)
	농어촌	82.3	15.4	2.3	0.0	0.0	100.0 (324,765)
가족유형	양부모	68.5	30.3	0.9	0.3	0.0	100.0 (4,600,399)
	한부모·조손	63.1	32.6	3.4	0.0	0.8	100.0 (745,493)

4. 종교생활

아동과 주양육자에게 종교유무와 그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의 59.5%가 무교였으며, 개신교 22.3%, 불교 11.7%, 천주교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무교 64.7%, 불교 21.2%, 개신교 7.2%, 천주교 5.5%로 나타나 주양육자보다는 종교활동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10-19〉 종교 (본인)

(단위: %, 명)

구분	무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계 (명)
주양육자 응답	59.5	22.3	11.7	5.4	1.1	100.0 (9,661,119)
아동 응답	64.7	7.2	21.2	5.5	1.3	100.0 (5,501,858)

종교가 있는 주양육자 중에서 종교활동의 빈도를 질문한 결과, 매주 규칙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달에 1-2번 18.2%, 1~2년에 1-2번 16.7%이었고, 종교는 있지만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13.2%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아동 양육자가 여자 아동부모에 비하여 규칙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0-2세 영아의 양육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주 규칙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차상위가구가 매주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63.6%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는 있지만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초수급가구가 14.4%로 가장 높아 종교활동을 가장 덜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종교활동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달에 1-2번 13.2%, 1~2년에 1~2번 12.5%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19.9%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종교활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양부모 가족일수록 활동율이 낮았다.

〈표 10-20〉 종교활동 빈도

구분		주양육자					아동				
		매주	1달에 1~2번	1년에 1~2번	가지 않음	계 (명)	매주	1달에 1~2번	1년에 1~2번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계 (명)
전체		52.0	18.2	16.7	13.2	100.0 (3,886,093)	54.4	13.2	12.5	19.9	100.0 (1,939,550)
아동성별	남자	54.0	17.4	17.4	11.2	100.0 (2,059,579)	53.3	13.6	13.3	19.9	100.0 (992,278)
	여자	49.7	19.1	15.9	15.4	100.0 (1,826,514)	55.6	12.9	11.6	19.9	100.0 (947,272)
연령	0-2세	45.8	16.6	21.8	15.8	100.0 (480,779)	-	-	-	-	-
	3-5세	52.0	19.4	15.0	13.6	100.0 (554,448)	-	-	-	-	-
	6-8세	57.7	18.0	13.1	11.2	100.0 (547,450)	-	-	-	-	-
	9-11세	52.0	15.9	17.5	14.6	100.0 (615,056)	57.8	14.3	11.4	16.6	100.0 (500,630)
	12-17세	51.9	19.1	16.7	12.4	100.0 (1,688,359)	53.2	12.9	12.8	21.1	100.0 (1,438,920)
소득수준1	빈곤	55.5	17.9	14.1	12.4	100.0 (163,131)	57.2	13.9	14.1	14.8	100.0 (112,881)
	일반	51.8	18.2	16.8	13.2	100.0 (3,722,961)	54.2	13.2	12.4	20.2	100.0 (1,826,669)
소득수준2	기초수급	52.1	18.1	15.3	14.4	100.0 (115,325)	56.2	15.5	13.5	14.9	100.0 (82,901)
	차상위	63.6	17.6	11.3	7.5	100.0 (47,807)	60.2	9.5	15.8	14.5	100.0 (29,981)
	일반	51.8	18.2	16.8	13.2	100.0 (3,722,961)	54.2	13.2	12.4	20.2	100.0 (1,826,669)
지역	대도시	51.7	20.7	16.2	11.4	100.0 (1,752,958)	51.8	14.3	17.3	16.5	100.0 (857,571)
	중소도시	52.4	16.0	16.6	15.0	100.0 (1,965,771)	57.1	11.5	8.4	23.0	100.0 (996,526)
	농어촌	50.6	17.0	22.6	9.8	100.0 (167,364)	49.0	22.7	10.3	18.0	100.0 (85,452)
가족유형	양부모	52.4	18.7	16.0	12.9	100.0 (3,502,328)	53.0	14.0	13.0	20.0	100.0 (1,676,809)
	한부모·조손	50.4	11.6	25.4	12.5	100.0 (351,207)	65.0	8.7	9.3	17.0	100.0 (255,195)

주: 성별의 경우 아동 및 부모 모두 아동의 성별을 기준으로 함.

(단위: %, 명)

제3절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아동 및 주양육자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아동권리협약 인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9~17세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표 10-21>과 같다. ‘들어본 적 없다’가 67.3%로 절반 이상의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크기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도시지역 아동들의 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중소도시 아동들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가정 아동일수록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도와 비교²⁵⁾하면 9-11세 아동의 14.2%, 12-17세 아동의 22.6%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에 비하여 상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양육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들어본 적 없다’가 51.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아동권리협약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내용도 알고 있는 경우는 약 7.9%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 연령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서만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협약을 들어보지 못한 주양육자가 0-2세 54.0%, 3-5세 53.4%로 영유아 주양육자와 12-17세 주양육자(51.7%)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

25) 2008년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본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오’의 보기만 제시하여 2013년도와 응답방식에 차이가 있음

소 높았으며, 6~8세 49.0%, 9~11세는 48.0%로 학령기 양육자가 다소 낮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일반가구의 양육자가 협약을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49.4%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수급가구는 33.4%, 차상위가구 27.9%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비해 일반가구의 주양육자가 협약을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여 중소도시의 양육자가 협약을 들어보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50.4%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는 47.4%, 농어촌은 43.6%의 순이다.

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주양육자가 24.8~39.1%정도이었던 2008년 결과에 비하여 5년 사이에 약 1.5배~ 2배 상승한 것이다. 2008년도에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0~2세 24.8%, 3~5세 30.1%, 6~8세 38.4%, 9~11세 39.1%, 12~17세 33.9%로 전 연령대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협약 인지율을 2008년과 2012년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농어촌 지역 양육자간의 협약 인지율이 가장 낮았던 2008년도의 결과와 일치하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인지율이 낮았던 2008년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아동권리 보장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실제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양육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10-22>와 같다. 우선 아동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못 받고 있다. 29.1%, 약간 보장되고 있다 56.3%, 상당히 받고 있다 13.3%, 매우 많이 받고 있다 1.4%로 나타나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남자아동의 경우 권리보장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2~17세 아동의 경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권리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2세 이상의 아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권리보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수준도 높았고, 긍정적인 응답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나 지역크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일반가정에 속할수록

아동권리보장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아동권리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경우 대도시나 농어촌 거주 아동보다 아동권리보장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양육자 응답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은 27.5%,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64.4%, 상당히 받고 있다 7.7%, 매우 많이 받고 있다 0.4%로 나타나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0-2세의 주양육자 ‘상당히 받고 있다’ 응답이 1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보다는 일반가구의 양육자가 아동권리 보장정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도시 32.0%, 중소도시 24.2%, 농어촌 22.0%의 순으로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권리보장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2008년도와 비교²⁶⁾하여 주양육자와 아동 모두 다소 낮게 나타났다. 참고로 2008년도의 아동권리보장정도에 대한 아동응답결과는 9-11세 2.0점, 12-17세 2.1점(2013년: 모두 1.8)이었으며, 주양육자 응답의 결과는 0-2세 2.0점, 3-5세 2.0점, 6-8세 2.0점, 9-11세 2.2점, 12-17세 2.0점(2013년: 모두 1.8)이었다.

26) 2008년도 질문은 “우리사회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가지 권리가 어느정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2013년 질문과 다소 상이함

〈표 10-21〉 아동권리협약 인식여부

(단위: %, 명)

구분		아동					주양육자				
		들어본 적 없다	들어봤으나 내용 모름	들어봤고 약간 알고 있음	들어봤고 잘 알고있음	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봤으나 내용 모름	들어봤고 약간 알고 있음	들어봤고 잘 알고있음	계 (명)
아동성별	전체	67.3	27.6	4.3	0.7	100.0(5,488,928)	51.3	40.8	6.6	1.3	100.0(9,677,976)
	남자	69.6	25.5	3.8	1.0	100.0(2,890,492)	52.2	40.1	6.6	1.1	100.0(5,048,856)
연령	여자	64.8	29.9	4.9	0.4	100.0(2,598,436)	50.2	41.6	6.5	1.6	100.0(4,629,120)
	0-2세	-	-	-	-	-	54.0	37.7	7.0	1.4	100.0(1,407,369)
	3-5세	-	-	-	-	-	53.4	39.7	6.3	0.5	100.0(1,407,945)
	6-8세	-	-	-	-	-	49.0	44.1	5.7	1.3	100.0(1,357,821)
	9-11세	72.3	23.2	4.0	0.6	100.0(1,542,521)	48.0	41.3	9.5	1.2	100.0(1,546,203)
소득수준1	12-17세	65.4	29.4	4.4	0.8	100.0(3,946,407)	51.7	41.0	5.7	1.7	100.0(3,958,639)
	빈곤 일반	70.6 67.2	24.4 27.8	4.2 4.3	0.8 0.7	100.0(268,652) 100.0(5,220,277)	68.5 50.6	26.7 41.4	4.0 6.7	0.7 1.4	100.0(376,437) 100.0(9,301,5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70.2	24.0	4.7	1.1	100.0(193,921)	66.6	27.6	4.8	1.0	100.0(247,363)
	차상위	71.8	25.1	3.0	0.0	100.0(74,731)	72.1	25.0	2.6	0.2	100.0(129,073)
	일반	67.2	27.8	4.3	0.7	100.0(5,220,277)	50.6	41.4	6.7	1.4	100.0(9,301,539)
지역	대도시	68.2	28.3	3.3	0.3	100.0(2,392,868)	52.6	39.2	7.5	0.7	100.0(4,218,761)
	중소도시	65.4	28.1	5.3	1.1	100.0(2,757,026)	49.6	42.3	6.2	1.9	100.0(4,868,840)
	농어촌	77.1	18.9	3.5	0.5	100.0(339,034)	56.4	40.3	2.0	1.2	100.0(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66.8	27.9	4.5	0.8	100.0(4,672,747)	49.5	42.1	6.9	1.4	100.0(8,565,684)
	한부모·조손	71.1	25.0	3.4	0.5	100.0(763,531)	65.9	29.3	4.0	0.9	100.0(1,012,691)

〈표 10-22〉 아동권리보장정도

구분		아동						주양육자					
		전혀 못 받고 있다	약간은 받고 있다	상당히 받고 있다	매우 많이 받고 있다	계 (명)	평균	SD	전혀 못 받고 있다	약간은 받고 있다	상당히 받고 있다	매우 많이 받고 있다	계 (명)
		평균	SD	계 (명)	평균	SD	계 (명)	평균	SD	계 (명)	평균	SD	계 (명)
아동성별	전체	29.1	56.3	13.3	1.4	100.0 (5,444,324)	1.87	0.68	27.5	64.4	7.7	0.4	100.0 (9,667,775)
	남자	30.7	55.9	12.0	1.5	100.0 (2,850,164)	1.84	0.68	26.4	64.7	8.6	0.3	100.0 (5,043,278)
연령	여자	27.3	56.7	14.7	1.3	100.0 (2,594,160)	1.90	0.68	28.6	64.2	6.7	0.4	100.0 (4,624,498)
	0-2세	-	-	-	-	-	-	-	29.4	59.0	11.1	0.4	100.0 (1,407,369)
	3-5세	-	-	-	-	-	-	-	28.3	63.7	7.6	0.4	100.0 (1,407,945)
	6-8세	-	-	-	-	-	-	-	26.0	66.9	6.5	0.6	100.0 (1,357,821)
	9-11세	30.8	56.7	11.2	1.3	100.0 (1,522,650)	1.83	0.67	24.2	68.0	7.6	0.1	100.0 (1,546,203)
	12-17세	28.4	56.1	14.0	1.4	100.0 (3,921,674)	1.88	0.68	28.3	64.4	7.0	0.3	100.0 (3,948,438)
소득수준1	빈곤	27.7	57.0	14.1	1.2	100.0 (268,100)	1.89	0.67	30.4	60.5	8.8	0.4	100.0 (376,437)
	일반	29.2	56.2	13.2	1.4	100.0 (5,176,224)	1.87	0.68	27.4	64.6	7.7	0.4	100.0 (9,291,339)
소득수준2	기초수급	29.2	55.9	13.4	1.5	100.0 (193,513)	1.87	0.68	30.3	60.3	8.8	0.5	100.0 (247,363)
	차상위	23.8	59.9	15.9	0.5	100.0 (74,587)	1.93	0.64	30.4	60.8	8.9	0.0	100.0 (129,073)
	일반	29.2	56.2	13.2	1.4	100.0 (5,176,224)	1.87	0.68	27.4	64.6	7.7	0.4	100.0 (9,291,339)
지역	대도시	30.3	55.1	12.8	1.8	100.0 (2,357,300)	1.86	0.69	32.0	59.9	8.0	0.2	100.0 (4,213,182)
	중소도시	27.7	57.8	13.6	0.9	100.0 (2,750,844)	1.88	0.66	24.2	67.9	7.4	0.4	100.0 (4,864,218)
	농어촌	31.3	52.1	13.7	2.9	100.0 (336,180)	1.88	0.74	22.0	68.6	8.2	1.3	100.0 (590,375)
가족유형	양부모	28.7	56.3	13.9	1.1	100.0 (4,640,225)	1.87	0.67	26.8	65.0	7.8	0.4	100.0 (8,555,483)
	한부모·조손	32.7	53.6	10.1	3.5	100.0 (756,946)	1.84	0.74	34.6	57.6	7.7	0.1	100.0 (1,012,691)

(단위: %, 명)

제4절 소결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후 생활은 6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평일 방과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아동이 방과후에 혼자 지내는 시간 및 빈도, 그리고 평일과 주말/방학 중 함께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의 평일 방과후 생활은 ‘학원이나 과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후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희망하는 활동은 주양육자의 경우 사교육을 통한 학습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9-11세 아동이 현재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방과후에 학원이나 과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아동의 경우는 사교육보다는 친구들과 놀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 아동의 놀권리가 상당히 손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이 혼자 집에 있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0명 중 2명 이상의 아동이 일주일에 3일 이상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5이상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8세 아동의 방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2세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의 1/4 이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번에 3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및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나홀로 비율이 높았다. 성인의 지도감독 없이 아동 혼자 혹은 아동들끼리 집에 있는 경우 인터넷 중독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12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그 연령대에 적합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에 돌봄서비스는 연령대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 크기에 따라 그리고 가족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저연령 아동은 물론이지만, 12세 이상의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후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방과후 서비스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참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실태를 조사한 결과, 활동 내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수록, 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일수록 참여수준이 대체로 낮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율은 2008년에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주양육자와 아동모두 협약에 대한 인식률은 절반 미만수준의 낮은 편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와 아동권리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리 보장받는 정도에 대해서도,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8년보다 다소 낮아진 결과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은 모든 아동복지정책의 최선의 과제로서, 이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우리나라의 아동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가 체감하는 아동권리 보장정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안전, 복지, 발달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11장

사교육 및 복지서비스

- 제1절 보육 및 사교육 이용실태
- 제2절 초·중·고생의 사교육 이용실태
- 제3절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이용실태
- 제4절 돌봄 및 해외연수 이용실태
- 제5절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 제6절 소결

본 장에서는 부모의 응답결과를 통해 보육 및 복지서비스, 사교육 등의 이용실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을 통해 학과목별로 학원, 학습지, 과외 등의 수강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제1절 보육 및 사교육 이용실태

1. 0-5세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및 사교육 이용실태 (주양육자 응답)

가. 보육시설 및 양육수당 이용실태 및 비용

0-5세 영유아의 주양육자를 통해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39.5%, 국공립 어린이집 15.3%, 민간어린이집 32.0%, 가정어린이집 8.5%, 직장어린이집은 0.5%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결과를 2012년도 보육통계와 비교하면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가정보육시설의 이용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11-1〉 2012년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아동수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직장
				소계	법인외	개인			
어린이집수 (%)	42,527 (100.0)	2,203 (5.5)	1,444 (3.4)	15,309 (36.0)	869 (2.0)	14,440 (34.0)	113 (0.3)	22,935 (53.9)	523 (1.2)
아동수 (%)	1,487,361 (100.0)	149,677 (10.1)	113,049 (7.6)	820,170 (55.1)	51,914 (3.5)	768,256 (51.7)	2,913 (0.2)	371,671 (25.0)	29,881 (2.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의 경우도 정규시간외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2.3%, 정규시간 유치원 3.9%, 지역아동센터 0.4%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이용률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양육수당의 경우 0-2세 영아(53.7%)가 3-5세 유아(25.2%)보다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가 47.0%로 절반가량 양육수당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반가구 39.7%, 차상위가구 2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34.4%)에 비하여 중소도시(43.0%)와 농어촌(46.9%)의 양육수당 이용률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족(40.3%)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26.7%)에 비하여 양육수당 이용률이 높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입소율이 높았으며, 0-2세 영아(7.8%)에 비하여 3-5세 유아(22.8%)의 입소율이 약 3배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22.1%)와 차상위가구(23.1%)에 비하여 일반가구(15.1%)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에게 입소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입소율은 농어촌(18.2%), 대도시(17.1%), 중소도시(13.4%) 순이었으며 농어촌과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20.1%)의 이용률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시 취약가족 아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여아(35.9%)가 남아(28.5%)보다 이용률이 높았으며, 0-2세 영아(16.6%)보다 3-5세 유아(47.7%)의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가 28.8%로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일반가구 31.9%, 차상위가구 44.5%로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24.6%로 가장 낮았으며 대도시 31.4%, 중소도시 3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장어린이집, 정규시간외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 아동의 특성별로 비교는 제시하지 않았다. 유치원의 경우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3-5세 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표 11-2〉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 명)

구분	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성별	전체											
	60.5	39.5	100.0 (2,774,059)	84.7	15.3	100.0 (2,776,434)	68.0	32.0	100.0 (2,779,961)	91.5	8.5	100.0 (2,779,961)
연령	남자											
	60.0	40.0	100.0 (1,463,709)	82.9	17.1	100.0 (1,463,595)	71.5	28.5	100.0 (1,465,180)	92.0	8.0	100.0 (1,465,180)
	여자											
	60.9	39.1	100.0 (1,310,350)	86.8	13.2	100.0 (1,312,840)	64.1	35.9	100.0 (1,314,781)	90.9	9.1	100.0 (1,314,781)
소득수준1	0-2세											
	46.3	53.7	100.0 (1,396,612)	92.2	7.8	100.0 (1,397,854)	83.4	16.6	100.0 (1,399,439)	90.0	10.0	100.0 (1,399,439)
	3-5세											
	74.8	25.2	100.0 (1,377,447)	77.2	22.8	100.0 (1,378,580)	52.3	47.7	100.0 (1,380,521)	93.0	7.0	100.0 (1,380,521)
소득수준2	빈곤											
	65.8	34.2	100.0 (72,162)	77.3	22.7	100.0 (72,130)	61.8	38.2	100.0 (72,130)	91.6	8.4	100.0 (72,130)
	일반											
	60.3	39.7	100.0 (2,701,896)	84.9	15.1	100.0 (2,704,304)	68.1	31.9	100.0 (2,707,830)	91.5	8.5	100.0 (2,707,830)
소득수준2	기초수급											
	53.0	47.0	100.0 (28,779)	77.9	22.1	100.0 (28,747)	71.2	28.8	100.0 (28,747)	94.6	5.4	100.0 (28,747)
	차상위											
	74.3	25.7	100.0 (43,383)	76.9	23.1	100.0 (43,383)	55.5	44.5	100.0 (43,383)	89.6	10.4	100.0 (43,383)
	일반											
	60.3	39.7	100.0 (2,701,896)	84.9	15.1	100.0 (2,704,304)	68.1	31.9	100.0 (2,707,830)	91.5	8.5	100.0 (2,707,830)
지역	대도시											
	65.6	34.4	100.0 (1,189,426)	82.9	17.1	100.0 (1,185,248)	68.6	31.4	100.0 (1,189,472)	93.3	6.7	100.0 (1,189,472)
	중소도시											
	57.0	43.0	100.0 (1,426,530)	86.6	13.4	100.0 (1,433,083)	66.6	33.4	100.0 (1,433,083)	89.4	10.6	100.0 (1,433,083)
가족유형	농어촌											
	53.1	46.9	100.0 (158,103)	81.8	18.2	100.0 (158,103)	75.4	24.6	100.0 (157,405)	97.0	3.0	100.0 (157,405)
	양부모											
	59.7	40.3	100.0 (2,619,489)	84.8	15.2	100.0 (2,616,607)	68.0	32.0	100.0 (2,620,133)	91.3	8.7	100.0 (2,620,133)
	한부모·조손											
	73.3	26.7	100.0 (132,980)	79.9	20.1	100.0 (138,238)	63.2	36.8	100.0 (138,238)	94.7	5.3	100.0 (138,238)

〈표 11-2〉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이용여부) (계속)

(단위: %, 명)

구분		직장어린이집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전체		99.5	0.5	100.0 (2,779,961)	97.7	2.3	100.0 (2,773,837)	96.1	3.9	100.0 (2,779,961)	99.6	0.4	100.0 (2,779,961)
	성별	남자	99.3	0.7	100.0 (1,465,180)	98.3	1.7	100.0 (1,465,180)	95.7	4.3	100.0 (1,465,180)	99.7	0.3
		여자	99.7	0.3	100.0 (1,314,781)	97.0	3.0	100.0 (1,308,657)	96.5	3.5	100.0 (1,314,781)	99.6	0.4
연령	0-2세	100.0	0.0	100.0 (1,399,439)	100.0	0.0	100.0 (1,399,439)	100.0	0.0	100.0 (1,399,439)	99.9	0.1	100.0 (1,399,439)
	3-5세	99.0	1.0	100.0 (1,380,521)	95.3	4.7	100.0 (1,374,398)	92.1	7.9	100.0 (1,380,521)	99.3	0.7	100.0 (1,380,521)
소득수준1	빈곤	100.0	0.0	100.0 (72,130)	98.9	1.1	100.0 (72,130)	97.6	2.4	100.0 (72,130)	99.2	0.8	100.0 (72,130)
	일반	99.5	0.5	100.0 (2,707,830)	97.6	2.4	100.0 (2,701,707)	96.0	4.0	100.0 (2,707,830)	99.6	0.4	100.0 (2,707,830)
소득수준2	기초수급	100.0	0.0	100.0 (28,747)	98.7	1.3	100.0 (28,747)	98.5	1.5	100.0 (28,747)	100.0	0.0	100.0 (28,747)
	차상위	100.0	0.0	100.0 (43,383)	99.1	0.9	100.0 (43,383)	97.0	3.0	100.0 (43,383)	98.6	1.4	100.0 (43,383)
	일반	99.5	0.5	100.0 (2,707,830)	97.6	2.4	100.0 (2,701,707)	96.0	4.0	100.0 (2,707,830)	99.6	0.4	100.0 (2,707,830)
지역	대도시	99.2	0.8	100.0 (1,189,472)	97.2	2.8	100.0 (1,189,472)	95.8	4.2	100.0 (1,189,472)	99.2	0.8	100.0 (1,189,472)
	중소도시	99.7	0.3	100.0 (1,433,083)	98.1	1.9	100.0 (1,426,960)	96.2	3.8	100.0 (1,433,083)	100.0	0.0	100.0 (1,433,083)
	농어촌	100.0	0.0	100.0 (157,405)	97.3	2.7	100.0 (157,405)	97.2	2.8	100.0 (157,405)	99.6	0.4	100.0 (157,405)
가족유형	양부모	99.5	0.5	100.0 (2,620,133)	97.7	2.3	100.0 (2,614,010)	96.2	3.8	100.0 (2,620,133)	99.6	0.4	100.0 (2,620,133)
	한부모·조손	100.0	0.0	100.0 (138,238)	97.3	2.7	100.0 (138,238)	95.4	4.6	100.0 (138,238)	99.7	0.3	100.0 (138,238)

이용비용을 살펴보면²⁷⁾,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어린이집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3만9천원, 민간어린이집 17만 4천원, 가정어린이집 12만9천원, 직장어린이집은 11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현, 무상보육제도에서도 보육비용외에 보육시설에 13~17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이러한 지출금액을 2008년도와 비교하면, 2008년도는 0-2세의 보육시설 평균이용비용은 16.0만원, 3-5세는 22.3만원이었다. 2008년도의 경우 무상보육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보육료 감면서비스)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유치원의 경우는 방과후 정규시간외 돌봄서비스도 제공되는 유치원의 경우는 23.3만원,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1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비용도 6.6만원을 보였다.

〈표 11-3〉 보육시설 이용비용

(단위: 만원)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금액	13.9	17.4	12.9	11.4	23.3	13.6	6.6

나. 민간학원 및 사교육

영유아의 민간학원 및 사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5.4%였으며, 개인 및 그룹과외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0.8%,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12.6%로 나타났다. 학원 이용률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학원 이용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0-2세 영아보다 3-5세 유아가 이용률이 현저히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가구와 일반가구가 학원 이용률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학원이용률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 또는 그룹과외의 이용률도 영아보다 유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27) 사교육 및 특별활동 이용비용분석에서는 양육수당의 경우 국가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라 지정되어 있기에 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서는 차상위가구의 이용률이 1.5%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 0.8%, 기초수급가구 0.2%의 순으로 기초수급가구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1.3%, 중소도시 0.6%, 농어촌 0.1%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영유아의 학습지 이용여부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 0-2세는 2.7%로 낮았으나 3-5세는 22.5%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학습지 프로그램이 바우처로 제공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13.2%)와 중소도시(12.5%)가 농어촌(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4〉 민간학원 및 사교육 이용여부

(단위: %, 명)

구분		학원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등)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전체		94.6	5.4	100.0 (2,779,961)	99.2	0.8	100.0 (2,779,961)	87.4	12.6	100.0 (2,779,961)
성별	남자	93.8	6.2	100.0 (1,465,180)	99.1	0.9	100.0 (1,465,180)	88.2	11.8	100.0 (1,465,180)
	여자	95.4	4.6	100.0 (1,314,781)	99.2	0.8	100.0 (1,314,781)	86.7	13.3	100.0 (1,314,781)
연령	0~2세	98.8	1.2	100.0 (1,399,439)	99.6	0.4	100.0 (1,399,439)	97.3	2.7	100.0 (1,399,439)
	3~5세	90.3	9.7	100.0 (1,380,521)	98.7	1.3	100.0 (1,380,521)	77.5	22.5	100.0 (1,380,521)
소득 수준 ¹	빈곤	95.8	4.2	100.0 (72,130)	99.0	1.0	100.0 (72,130)	86.5	13.5	100.0 (72,130)
	일반	94.5	5.5	100.0 (2,707,830)	99.2	0.8	100.0 (2,707,830)	87.5	12.5	100.0 (2,707,830)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97.9	2.1	100.0 (28,747)	99.8	0.2	100.0 (28,747)	87.0	13.0	100.0 (28,747)
	차상위	94.3	5.7	100.0 (43,383)	98.5	1.5	100.0 (43,383)	86.1	13.9	100.0 (43,383)
	일반	94.5	5.5	100.0 (2,707,830)	99.2	0.8	100.0 (2,707,830)	87.5	12.5	100.0 (2,707,830)
지역	대도시	95.0	5.0	100.0 (1,189,472)	98.7	1.3	100.0 (1,189,472)	86.8	13.2	100.0 (1,189,472)
	중소도시	94.0	6.0	100.0 (1,433,083)	99.4	0.6	100.0 (1,433,083)	87.5	12.5	100.0 (1,433,083)
	농어촌	96.5	3.5	100.0 (157,405)	99.9	0.1	100.0 (157,405)	92.1	7.9	100.0 (157,405)
가족 유형	양부모	94.5	5.5	100.0 (2,620,133)	99.2	0.8	100.0 (2,620,133)	87.5	12.5	100.0 (2,620,133)
	한부모·조손	94.1	5.9	100.0 (138,238)	99.0	1.0	100.0 (138,238)	84.4	15.6	100.0 (138,238)

민간학원 및 사교육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민간학원은 13만5천원, 개인 및 그룹과는 45만3천원, 학습지 7만8천원으로 나왔다. 여기서는 민간학원 및 과외의 이용률이 낮아 아동의 특성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2008년도와 결과를 비교하면 과외이용비용이 2013년도에 크게 상승하였다. 2008년도의 경우 0-2세의 학원비는 평균 16.9만원, 과외비는 11.3만원, 학습지 4.8만원이었으며 3-5세는 13.6만원, 과외비 13.0만원 학습지 7.2만원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민간학원 및 과외이용비용은 이용률이 낮아 아동의 특성별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표 11-5〉 0-5세 사교육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학원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등)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13.53	142,320	45.32	23,568	7.76	348,899

다. 기타 사교육 및 돌봄이용실태

영유아의 기관외의 돌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친인척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경우는 2.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1.8%, 여아 2.7%였으며, 연령별로는 0-2세 영아가 3.0%, 3-5세 유아 1.5%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가 3.6%, 일반가구 2.2%, 기초수급가구 2.1%의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2.6%, 중소도시 2.0%, 농어촌 1.6%의 순이었다.

이웃이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는 0.7%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 0.3%, 여아 1.2%로 여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0-2세 1.2%로 남아 0.2%에 비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가 1.3%, 차상위가구 0.5%, 일반가구 0.7%로 기초수급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과 관련이 있을 거라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0.5%, 중소도시 0.9%, 농어촌이 1.1%로 나타났다.

〈표 11-6〉 기타 돌봄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찬인척			이웃이나 아이돌보미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전체		97.8	2.2	100.0 (2,779,961)	99.3	0.7	100.0 (2,779,961)
성별	남자	98.2	1.8	100.0 (1,465,180)	99.7	0.3	100.0 (1,465,180)
	여자	97.3	2.7	100.0 (1,314,781)	98.8	1.2	100.0 (1,314,781)
연령	0-2세	97.0	3.0	100.0 (1,399,439)	98.8	1.2	100.0 (1,399,439)
	3-5세	98.5	1.5	100.0 (1,380,521)	99.8	0.2	100.0 (1,380,521)
소득수준 ¹	빈곤	97.0	3.0	100.0 (72,130)	99.2	0.8	100.0 (72,130)
	일반	97.8	2.2	100.0 (2,707,830)	99.3	0.7	100.0 (2,707,830)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97.9	2.1	100.0 (28,747)	98.7	1.3	100.0 (28,747)
	차상위	96.4	3.6	100.0 (43,383)	99.5	0.5	100.0 (43,383)
	일반	97.8	2.2	100.0 (2,707,830)	99.3	0.7	100.0 (2,707,830)
지역	대도시	97.4	2.6	100.0 (1,189,472)	99.5	0.5	100.0 (1,189,472)
	중소도시	98.0	2.0	100.0 (1,433,083)	99.1	0.9	100.0 (1,433,083)
	농어촌	98.4	1.6	100.0 (157,405)	98.9	1.1	100.0 (157,405)
가족유형	양부모	97.8	2.2	100.0 (2,620,133)	99.3	0.7	100.0 (2,620,133)
	한부모·조손	97.0	3.0	100.0 (138,238)	99.7	0.3	100.0 (138,238)

문화센터의 이용률은 4.8%로 낮은 편이었으며 남아의 이용률이 여아보다 다소 높았으며 0-2세의 이용률이 3-5세에 비하여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기초수급(0.3%)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차상위(3.6%), 일반(4.8%)가구의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졌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5.9%)와 중소도시(4.3%)에 비하여 농어촌의 이용률은 상당히 낮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양부모가족(5.0%)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이용률(0.3%)은 상당히 저조하였다.

〈표 11-7〉 문화센터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문화센터		
		비이용	이용	계 (명)
전체		95.2	4.8	100.0 (2,779,961)
성별	남자	94.1	5.9	100.0 (1,465,180)
	여자	96.5	3.5	100.0 (1,314,781)
연령	0-2세	94.8	5.2	100.0 (1,399,439)
	3-5세	95.7	4.3	100.0 (1,380,521)
소득수준1	빈곤	97.7	2.3	100.0 (72,130)
	일반	95.2	4.8	100.0 (2,707,830)
소득수준2	기초수급	99.7	0.3	100.0 (28,747)
	차상위	96.4	3.6	100.0 (43,383)
	일반	95.2	4.8	100.0 (2,707,830)
지역	대도시	94.1	5.9	100.0 (1,189,472)
	중소도시	95.7	4.3	100.0 (1,433,083)
	농어촌	99.1	0.9	100.0 (157,405)
가족유형	양부모	95.0	5.0	100.0 (2,620,133)
	한부모·조손	99.7	0.3	100.0 (138,238)

0-5세의 사적인 돌봄 이용비용은 친인척 돌봄의 경우 약 30.6만원 이웃이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37.8만원정도를 나타냈다. 그밖에 0-5세 영유아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약 5.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학원 및 과외이용비용은 이용률이 낮아 아동의 특성별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표 11-8〉 0-5세 돌봄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친인척 돌봄		이웃이나 아이돌보미		문화센터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30.55	58,368	37.78	18,336	5.07	124,021

2. 기관 이용 후 아동의 돌봄 형태

돌봄기관 및 사교육기관 이용 후 대부분의 아동은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이지만 이웃집 2.0%, 학원 0.4%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1-9〉 주로 있는 곳

(단위: %, 명)

구분		집	친척집 이웃집	학원	기타	계 (명)
전체		91.9	2.0	0.4	5.8	100.0 (2,752,630)
성별	남자	91.4	1.6	0.5	6.4	100.0 (1,451,220)
	여자	92.4	2.3	0.2	5.1	100.0 (1,301,410)
연령	0-2세	89.1	1.8	0.0	9.0	100.0 (1,374,722)
	3-5세	94.7	2.1	0.7	2.5	100.0 (1,377,908)
소득수준1	빈곤	91.8	0.9	1.1	6.1	100.0 (72,082)
	일반	91.9	2.0	0.3	5.8	100.0 (2,680,548)
소득수준2	기초수급	87.8	1.2	1.2	9.8	100.0 (28,716)
	차상위	94.5	0.8	1.0	3.7	100.0 (43,366)
	일반	91.9	2.0	0.3	5.8	100.0 (2,680,548)
지역	대도시	93.3	0.5	0.1	6.0	100.0 (1,168,488)
	중소도시	90.9	3.3	0.5	5.4	100.0 (1,432,975)
	농어촌	90.6	1.0	1.4	7.1	100.0 (151,166)
가족유형	양부모	91.8	1.9	0.4	5.9	100.0 (2,596,456)
	한부모·조손	91.8	2.9	0.2	5.1	100.0 (134,584)

영유아가 기관 이용 후 주로 있는 돌봐주는 대상은 부모 88.5%로 대부분이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었으며 조부모 9.6%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그리고 형제자매 0.8%, 친척 0.5%,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0.5%, 베이비시터 0.2%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기관 이용 후 부모님이 돌봐주는 경우는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낮아져, 기초수급 77.0%, 차상위 83.1%, 일반가구 88.7%의 순이었다. 또한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양부모 가족인 경우 부모님이 돌봐주는 경우 89.8%인 반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61.3%였으며 조부모가 27.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11-10〉 기관 이용후 돌봐주는 대상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친지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	베이비 시터	계 (명)
전체		88.5	0.8	0.5	9.6	0.5	0.2	100.0 (2,734,862)
성별	남자	88.9	0.9	0.4	8.8	0.7	0.3	100.0 (1,438,822)
	여자	88.0	0.6	0.5	10.4	0.3	0.1	100.0 (1,296,040)
연령	0-2세	87.7	0.3	0.5	10.2	1.0	0.3	100.0 (1,357,976)
	3-5세	89.2	1.3	0.4	8.9	0.0	0.1	100.0 (1,376,885)
소득수준1	빈곤	80.7	1.9	0.9	15.2	0.5	0.7	100.0 (72,024)
	일반	88.7	0.7	0.4	9.4	0.5	0.2	100.0 (2,662,838)
소득수준2	기초수급	77.0	3.4	2.4	16.3	0.3	0.6	100.0 (28,657)
	차상위	83.1	1.0	0.0	14.4	0.6	0.8	100.0 (43,366)
	일반	88.7	0.7	0.4	9.4	0.5	0.2	100.0 (2,662,838)
지역	대도시	88.2	0.4	0.5	9.3	1.2	0.4	100.0 (1,165,907)
	중소도시	89.1	0.8	0.5	9.6	0.0	0.0	100.0 (1,413,913)
	농어촌	84.6	3.5	0.0	11.0	0.0	0.8	100.0 (155,042)
가족유형	양부모	89.8	0.6	0.3	8.7	0.4	0.2	100.0 (2,577,812)
	한부모·조손	61.3	3.5	4.2	27.9	2.7	0.3	100.0 (135,460)

제2절 초·중·고생의 사교육 이용실태

1. 사교육 이용실태 (아동응답)

6-17세 아동의 사교육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68.1%로 절반이상이었으며, 개인 및 그룹과외를 이용은 9.1%,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22.0%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연령에 따라 9-11세 아동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6-8세 아동 69.5%, 12-17세 아동 63.1%의 순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반가구는 69.9%로 기초수급가구(29.9%)와 차상위가구(24.6%)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69.1%)와 중소도시(68.3%)의 이용률이 농어촌(59.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양부모 가족이 72.4%,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40.2%로 양부모가족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및 그룹과의 경우 연령에 따라 6-8세 저학년 아동(4.9%)에 비하여 9-11세 고학년 아동(9.7%)과 중고생(10.2%)의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1.8%)와 차상위가구(2.3%)인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가구(9.4%)의 이용률이 4-5배 정도 현저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8.6%)와 중소도시(9.9%)에 비하여 농어촌(5.5%)의 이용률은 낮았다.

학습지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중고생에 비하여 현격히 높았으며, 6-8세 47.5%, 9-11세 32.8%, 12-17세 9.6%의 순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수급가구 9.2%, 차상위가구 10.5%, 일반가구 22.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24.8%)와 중소도시(20.2%), 농어촌(17.4%)의 순으로 이용률이 낮아졌다. 또한 양부모가족(23.4%)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12.9%)에 비하여 이용률이 높았다.

〈표 11-11〉 사교육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학원			개인 및 그룹과의			학습지		
		비율	이용	계 (명)	비율	이용	계 (명)	비율	이용	계 (명)
전체		31.9	68.1	100.0 (6,754,257)	90.9	9.1	100.0 (6,748,197)	78.0	22.0	100.0 (6,749,291)
성별	남자	29.1	70.9	100.0 (3,494,081)	91.6	8.4	100.0 (3,490,522)	77.8	22.2	100.0 (3,490,815)
	여자	35.0	65.0	100.0 (3,260,176)	90.2	9.8	100.0 (3,257,675)	78.2	21.8	100.0 (3,258,476)
연령	6-8세	30.5	69.5	100.0 (1,266,787)	95.1	4.9	100.0 (1,265,986)	52.5	47.5	100.0 (1,266,787)
	9-11세	20.3	79.7	100.0 (1,546,054)	90.3	9.7	100.0 (1,544,479)	67.2	32.8	100.0 (1,544,628)
	12-17세	36.9	63.1	100.0 (3,941,416)	89.8	10.2	100.0 (3,937,733)	90.4	9.6	100.0 (3,937,876)
소득 수준1	빈곤	71.6	28.4	100.0 (299,858)	98.1	1.9	100.0 (299,715)	90.5	9.5	100.0 (300,007)
	일반	30.1	69.9	100.0 (6,454,399)	90.6	9.4	100.0 (6,448,483)	77.4	22.6	100.0 (6,449,284)
소득 수준2	기초수급	70.1	29.9	100.0 (216,301)	98.2	1.8	100.0 (216,301)	90.8	9.2	100.0 (216,450)
	차상위	75.4	24.6	100.0 (83,557)	97.7	2.3	100.0 (83,413)	89.5	10.5	100.0 (83,557)
	일반	30.1	69.9	100.0 (6,454,399)	90.6	9.4	100.0 (6,448,483)	77.4	22.6	100.0 (6,449,284)
지역	대도시	30.9	69.1	100.0 (2,970,967)	91.4	8.6	100.0 (2,965,852)	75.2	24.8	100.0 (2,966,001)
	중소도시	31.7	68.3	100.0 (3,355,341)	90.1	9.9	100.0 (3,354,539)	79.8	20.2	100.0 (3,355,341)
	농어촌	40.3	59.7	100.0 (427,950)	94.5	5.5	100.0 (427,806)	82.6	17.4	100.0 (427,950)
가족 유형	양부모	27.6	72.4	100.0 (5,825,486)	90.4	9.6	100.0 (5,819,570)	76.6	23.4	100.0 (5,820,371)
	한부모·조손	59.8	40.2	100.0 (859,080)	94.1	5.9	100.0 (858,936)	87.1	12.9	100.0 (859,229)

사교육 이용비용을 살펴보면(표 11-23 참고), 평균 학원비로는 30.4만원, 개인 및 그룹과외비로는 27.5만원, 학습지는 7.7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용비용을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원이용비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도 높아져, 6-8세는 20.9만원, 9-11세는 27.5만원 12-17세는 35.3만원을 지출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비용도 높아졌으며 기초수급가구 18.8만원, 차상위가구 24.4만원, 일반가구 30.6만원을 사용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32.4만원), 중소도시(29.3만원), 농어촌(24.9만원) 순으로 농어촌이 이용비용이 가장 낮았다.

개인 및 그룹과외의 경우 여아(30.5만원)가 남아(24.4만원)에 비해 이용금액이 다소 높았으며, 6-8세 18.1만원, 9-11세 16.7만원으로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고생(32.9만원)의 이용비용이 현저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31.8만원)의 비용이 중소도시(24.4만원)와 농어촌(26.0만원)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2. 사교육 이용 및 수강형태 (아동응답)

가. 사교육 이용여부

본 조사는 아동(만9세-17세)에게 학과와 관련된 사교육을 수강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 중 77.1%가 한번이라도 사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일반계층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12〉 한 번이라도 사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9-11세	12-17세
전체		77.1	87.1	73.2
아동 성별	남자	75.8	89.4	70.7
	여자	78.6	84.7	76.1
연령	9-11세	87.1	-	-
	12-17세	73.2	-	-
소득수준1	빈곤	49.2	62.2	46.6
	일반	78.5	87.9	74.8
소득수준2	기초수급	48.0	59.2	45.1
	차상위	52.5	82.2	50.0
	일반	78.5	87.9	74.8
지역	대도시	79.7	88.7	76.0
	중소도시	76.8	86.0	73.3
	농어촌	61.8	84.1	53.9
가족유형	양부모	80.6	89.0	77.1
	한부모·조손	55.9	71.3	51.3

과목별 사교육 수강여부를 살펴보면 수학과 영어과목의 경우 각각 70.3%, 69.6%의 아동이 수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어(34.3%), 과학 (21.2%), 사회(19.8%)로 나타났다. 과목별 수강여부를 연령, 소득수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사교육 수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9-11세 및 12-17세 아동 모두에게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수강이 더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9-11세 아동을 살펴보면, 수학과 영어의 경우 남자아동의 수강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수학 및 영어과목 수강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오히려 농어촌 아동의 수강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2-17세 아동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여자의 수강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보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강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13〉 9-17세 아동의 과목별 사교육 수강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소득수준1		소득수준2			지역			가족유형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기초수 급	차상 위	일반	대도 시	중소 도시	농어 촌	양부모	한부모 모·조 손
국어	34.3	32.0	36.9	43.6	30.7	18.6	35.1	20.8	12.7	35.1	30.8	37.7	31.4	36.4	22.2
수학	70.3	69.6	71.0	78.2	67.3	40.3	71.8	38.1	46.2	71.8	72.0	70.4	57.2	74.1	48.7
영어	69.6	68.6	70.7	75.0	67.4	37.2	71.2	40.6	28.5	71.2	71.5	70.2	51.0	73.2	47.0
사회	19.8	18.5	21.1	23.7	18.2	11.7	20.2	13.4	7.3	20.2	17.6	21.6	19.6	20.5	15.5
과학	21.2	20.4	22.1	25.2	19.7	12.0	21.7	13.0	9.3	21.7	20.1	22.2	21.6	21.5	18.4
명	5,472,856	2,877,631	2,595,225	1,531,742	3,941,114	265,952	5,206,904	5,206,904	73,456	192,496	2,386,373	2,749,571	336,912	4,669,477	760,123

〈표 11-14〉 9-17세 아동의 연령별 사교육 수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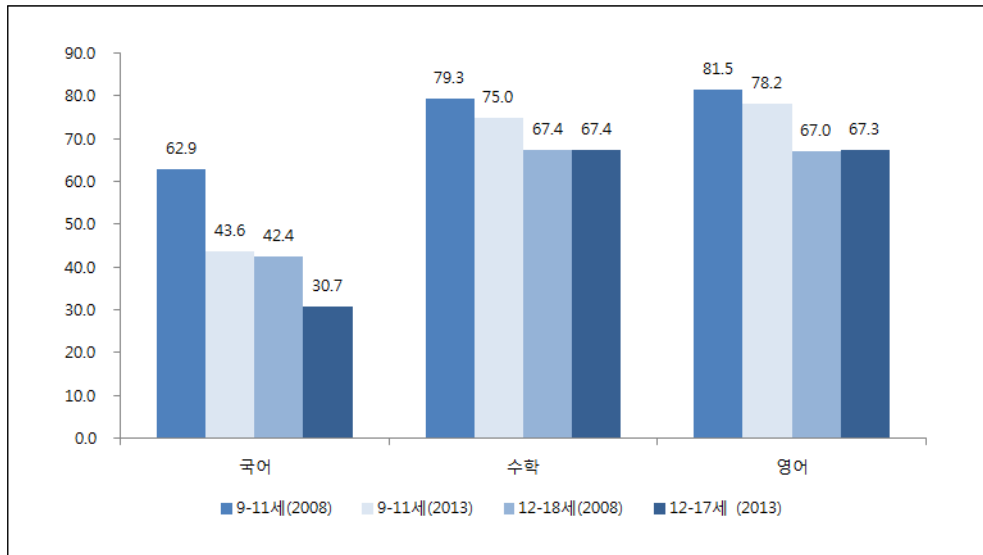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아동성별		소득수준1		소득수준2			지역			가족유형	
		남자	여자	빈곤	일반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
9-11세													
국어	43.6	42.1	45.3	29.5	44.1	44.1	22.3	30.5	37.8	48.5	48.5	44.3	37.1
수학	75.0	77.1	72.9	50.6	75.8	75.8	35.8	52.7	75.3	75.8	66.1	76.1	64.6
영어	78.2	81.5	74.6	47.3	79.1	79.1	67.7	44.3	79.6	76.7	79.1	80.7	59.3
사회	23.7	20.8	26.7	20.0	23.8	23.8	7.2	21.8	19.4	26.9	31.0	22.8	27.8
과학	25.2	24.9	25.7	20.3	25.4	25.4	10.8	21.6	22.7	26.7	33.3	23.3	37.6
명	1,531,742	785,309	746,433	44,985	1,486,757	1,486,757	5,720	39,265	697,475	746,602	87,665	1,346,017	173,013
12-17세													
국어	30.7	28.2	33.5	16.4	31.5	31.5	11.9	18.3	27.9	33.7	25.5	33.1	17.8
수학	67.4	65.4	69.8	34.5	69.4	69.4	27.9	37.5	69.9	68.0	45.7	72.0	41.8
영어	67.3	65.2	69.6	38.9	68.9	68.9	44.4	36.5	68.9	68.1	49.5	71.4	45.6
사회	18.2	17.7	18.9	10.1	18.7	18.7	7.3	11.3	16.9	19.7	15.6	19.5	11.9
과학	19.7	18.7	20.7	10.3	20.2	20.2	9.2	10.8	19.0	20.5	17.5	20.8	12.8
명	3,941,114	2,092,323	1,848,791	220,967	3,720,147	3,720,147	67,736	153,231	1,688,898	2,002,969	249,246	3,323,460	587,110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여부를 2008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림11-1]과 같다. 9-11세 아동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교육 수강비율이 감소하였다. 국어과목의 경우 2008

년 사교육 수강비율이 62.9%인데 반해 2013년에는 43.6%로 나타났다. 하지만 12-17세 아동의 경우 국어과목에서의 사교육 수강비율은 2008년 42.4%에서 30.7%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수학과 영어 과목의 사교육 수강비율은 2008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11-1] 9-17세 아동의 연령별 사교육 수강여부 변화추이, 2008-2013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평균 사교육 수강과목 수를 살펴보면 <표 11-15>와 같다. 우리나라 아동은 평균 2.2개의 과목에 대한 사교육 수강을 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거주할수록 평균 수강과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5〉 9-17세 아동의 평균 사교육 수강 과목 수

(단위: 개)

구분		전체	9-11세	12-17세
전체		2.15	2.46	2.03
아동 성별	남자	2.09	2.46	1.95
	여자	2.22	2.45	2.12
연령	9-11세	2.46	-	-
	12-17세	2.03	-	-
소득 수준1	빈곤	1.20	1.68	1.10
	일반	2.20	2.48	2.09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26	1.71	1.14
	차상위	1.04	1.44	1.01
	일반	2.20	2.48	2.09
지역	대도시	2.12	2.35	2.03
	중소도시	2.22	2.55	2.10
	농어촌	1.81	2.58	1.54
가족유형	양부모	2.26	2.47	2.17
	한부모·조손	1.52	2.26	1.30

주: 최소값=0(수강하지 않음), 최대값=5(5과목)

나. 사교육 수강형태

과목별 사교육 수강형태는 밑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각 과목별 수강형태 중 학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습지나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9-11세 아동은 학원과 학습지를 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2-17세 아동은 학원과 방과후 학교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계층일수록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차상위가구의 경우 학원과 학습지를,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학원과 방과후 학교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아동의 경우 일반계층의 아동에 비해 학교 밖 돌봄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국어(중복응답)

(단위: %)

구분		학원	개인 그룹 과외	인터넷 과외	학습지	방과 후 학교	학교밖 돌봄기관	계 (명)
전체		68.0	3.9	4.4	14.8	12.8	2.5	100.0 (1,864,538)
아동 성별	남자	67.4	4.6	2.2	16.9	13.2	3.6	100.0 (911,811)
	여자	68.7	3.3	6.5	12.8	12.5	1.5	100.0 (952,726)
연령	9-11세	64.0	3.2	2.2	26.3	5.1	3.5	100.0 (665,949)
	12-17세	70.3	4.3	5.7	8.4	17.1	1.9	100.0 (1,198,589)
소득 수준 ¹	빈곤	41.3	4.1	4.8	15.6	33.0	9.1	100.0 (48,450)
	일반	68.7	3.9	4.4	14.8	12.3	2.3	100.0 (1,816,088)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39.2	3.4	5.7	13.2	36.6	10.2	100.0 (39,476)
	차상위	50.2	7.2	0.9	26.1	17.3	4.4	100.0 (8,974)
	일반	68.7	3.9	4.4	14.8	12.3	2.3	100.0 (1,816,088)
지역	대도시	66.0	5.1	1.8	13.9	16.9	1.9	100.0 (727,891)
	중소도시	69.3	3.4	6.5	15.4	9.6	2.9	100.0 (1,035,620)
	농어촌	68.8	0.7	2.2	15.0	17.1	2.1	100.0 (101,027)
가족유형	양부모	68.4	3.7	4.5	15.1	13.2	1.9	100.0 (1,685,522)
	한부모·조손	62.3	6.5	4.3	12.6	9.9	8.7	100.0 (168,465)

〈표 11-17〉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수학(중복응답)

(단위: %)

구분		학원	개인 그룹 과외	인터넷 과외	학습지	방과 후 학교	학교밖 돌봄기관	계 (명)
전체		75.3	10.0	2.2	11.4	10.3	2.1	100.0 (3,750,643)
아동 성별	남자	77.3	9.4	0.6	13.0	8.9	3.2	100.0 (1,953,789)
	여자	73.0	10.8	4.0	9.7	11.9	1.0	100.0 (1,796,854)
연령	9-11세	71.3	6.7	0.7	20.2	7.8	3.0	100.0 (1,130,852)
	12-17세	77.0	11.5	2.9	7.7	11.4	1.8	100.0 (2,619,791)
소득 수준 ¹	빈곤	43.2	5.4	4.4	13.7	31.8	9.8	100.0 (96,820)
	일반	76.1	10.2	2.1	11.4	9.8	1.9	100.0 (3,653,824)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44.1	3.8	5.5	13.6	30.6	9.5	100.0 (75,887)
	차상위	40.1	11.1	0.4	13.9	35.8	10.8	100.0 (20,933)
	일반	76.1	10.2	2.1	11.4	9.8	1.9	100.0 (3,653,824)
지역	대도시	75.7	9.3	1.8	12.7	12.4	2.0	100.0 (1,662,577)
	중소도시	76.1	10.5	2.5	9.8	8.4	2.3	100.0 (1,927,651)
	농어촌	61.9	12.1	3.1	18.4	12.5	1.3	100.0 (160,415)
가족유형	양부모	77.0	10.4	2.2	11.4	9.5	1.4	100.0 (3,361,836)
	한부모·조손	61.1	6.4	2.6	12.5	17.1	7.5	100.0 (355,113)

〈표 11-18〉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영어(중복응답)

(단위: %)

구분		학원	개인 그룹 과외	인터넷 과외	학습지	방과 후 학교	학교밖 돌봄기관	해외연수	계 (명)
전체		80.0	7.9	2.4	6.8	10.5	2.1	0.1	100.0 (3,794,364)
아동 성별	남자	84.0	6.4	1.6	7.3	9.5	2.8	0.0	100.0 (1,983,009)
	여자	75.6	9.6	3.2	6.3	11.6	1.4	0.3	100.0 (1,811,355)
연령	9-11세	81.7	5.8	0.9	9.6	7.2	2.7	0.0	100.0 (1,183,101)
	12-17세	79.2	8.9	3.1	5.6	12.0	1.9	0.2	100.0 (2,611,263)
소득 수준1	빈곤	45.9	4.3	3.5	11.3	36.4	9.6	0.3	100.0 (105,329)
	일반	81.0	8.0	2.3	6.7	9.8	1.9	0.1	100.0 (3,689,035)
소득 수준2	기초수급	49.7	3.5	5.0	11.9	32.1	9.5	0.5	100.0 (71,793)
	차상위	37.7	6.0	0.3	9.9	45.8	9.9	0.0	100.0 (33,536)
	일반	81.0	8.0	2.3	6.7	9.8	1.9	0.1	100.0 (3,689,035)
지역	대도시	77.6	8.4	2.3	7.0	14.6	2.0	0.3	100.0 (1,676,432)
	중소도시	82.5	7.5	2.2	6.5	7.0	2.3	0.0	100.0 (1,935,737)
	농어촌	75.2	7.9	4.6	8.9	10.2	1.2	0.0	100.0 (182,194)
가족유형	양부모	82.4	7.7	2.4	6.4	10.0	1.4	0.1	100.0 (3,410,789)
	한부모·조손	58.5	9.8	2.5	10.7	15.9	7.4	0.0	100.0 (364,526)

〈표 11-19〉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사회(중복응답)

(단위: %)

구분		학원	개인 그룹 과외	인터넷 과외	학습지	방과 후 학교	학교밖 돌봄기관	계 (명)
전체		70.9	3.2	5.7	8.6	11.1	4.1	100.0 (1,064,005)
아동 성별	남자	68.7	5.1	4.4	9.8	10.5	6.3	100.0 (528,158)
	여자	73.1	1.3	7.0	7.5	11.7	1.9	100.0 (535,847)
연령	9-11세	71.7	3.6	4.2	13.8	3.7	6.4	100.0 (352,571)
	12-17세	70.6	2.9	6.5	6.1	14.7	2.9	100.0 (711,435)
소득 수준1	빈곤	37.1	5.2	7.6	18.3	30.6	8.8	100.0 (30,557)
	일반	71.9	3.1	5.7	8.3	10.5	3.9	100.0 (1,033,448)
소득 수준2	기초수급	40.9	3.7	8.9	12.1	33.0	9.9	100.0 (25,169)
	차상위	19.2	12.1	1.6	47.4	18.9	3.9	100.0 (5,387)
	일반	71.9	3.1	5.7	8.3	10.5	3.9	100.0 (1,033,448)
지역	대도시	72.3	4.4	2.7	4.2	17.1	1.5	100.0 (410,152)
	중소도시	70.9	2.5	7.7	11.3	6.2	5.9	100.0 (589,515)
	농어촌	62.8	0.9	6.4	12.6	17.6	3.2	100.0 (64,339)
가족유형	양부모	71.7	2.5	5.7	9.1	11.3	3.2	100.0 (938,004)
	한부모·조손	62.9	8.8	6.1	5.7	10.2	11.3	100.0 (118,032)

〈표 11-20〉 9-17세 아동의 사교육 수강형태-과학(중복응답)

(단위: %)

구분		학원	개인 그룹 과외	인터넷 과외	학습지	방과 후 학교	학교밖 돌봄기관	계 (명)
전체		69.3	2.4	6.2	9.3	13.8	4.0	100.0 (1,148,974)
아동 성별	남자	67.4	2.9	3.8	11.8	12.8	5.9	100.0 (579,830)
	여자	71.2	1.9	8.7	6.7	14.8	2.0	100.0 (569,144)
연령	9-11세	68.7	2.3	3.9	13.4	8.7	7.5	100.0 (376,992)
	12-17세	69.6	2.5	7.3	7.3	16.3	2.3	100.0 (771,982)
소득 수준 ¹	빈곤	35.1	5.1	11.3	10.3	31.6	13.3	100.0 (31,161)
	일반	70.3	2.3	6.1	9.3	13.3	3.7	100.0 (1,117,813)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40.7	3.9	6.1	12.5	34.1	10.5	100.0 (24,323)
	차상위	15.2	9.5	29.6	2.3	22.7	23.2	100.0 (6,837)
	일반	70.3	2.3	6.1	9.3	13.3	3.7	100.0 (1,117,813)
지역	대도시	65.5	2.5	6.4	6.1	20.7	3.3	100.0 (476,683)
	중소도시	73.5	2.5	6.1	11.3	7.2	4.7	100.0 (601,307)
	농어촌	59.3	0.9	5.8	13.5	23.4	2.9	100.0 (70,984)
가족유형	양부모	71.5	1.7	6.4	10.1	12.3	3.1	100.0 (993,357)
	한부모·조손	55.9	7.4	6.0	4.8	20.8	10.8	100.0 (139,931)

다. 사교육 수강시간

우리나라 아동의 1인당 평균 일주일간 수강시간을 살펴보면, 영어수강시간이 230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이 수학(229.1분), 국어(178.8분), 과학(155.2분), 사회(141.3분)으로 나타났다. 여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수강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목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1-21〉 9-17세 아동의 사교육 과목별 평균 수강시간

(단위: 분(평균))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체		178.79	229.06	230.02	141.33	155.17
아동 성별	남자	170.76	221.64	229.52	145.24	149.52
	여자	186.50	237.07	230.56	137.56	160.90
연령	9-11세	173.38	203.42	220.31	134.52	158.51
	12-17세	181.82	240.22	234.42	144.81	153.48
소득 수준1	빈곤	161.79	173.21	185.67	133.48	118.62
	일반	179.25	230.53	231.28	141.56	156.20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55.00	175.23	186.21	134.06	127.91
	차상위	191.09	165.85	184.53	130.71	85.15
	일반	179.25	230.53	231.28	141.56	156.20
지역	대도시	197.41	258.49	253.75	158.83	180.92
	중소도시	168.45	207.87	214.33	130.08	137.23
	농어촌	152.07	176.31	175.88	132.32	136.96
가족유형	양부모	180.90	234.84	235.34	139.42	147.37
	한부모·조손	156.91	176.40	180.17	157.48	215.48

라. 사교육을 통한 성적향상

사교육을 통한 성적향상은 최소 0점(전혀 효과가 없었다)에서 최대 3점 (매우 효과가 있었다)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우리나라 아동 중 사교육을 이용한 아동이 응답한 성적향상 정도는 모든 과목에서 2.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다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향상정도는 아동의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22〉 사교육을 통한 과목별 성적향상정도

(단위: 점수(SD))

구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체		1.99 (0.42)	2.04 (0.54)	2.01 (0.52)	2.00 (0.50)	1.99 (0.56)
아동 성별	남자	1.96 (0.43)	2.03 (0.58)	2.01 (0.51)	2.03 (0.44)	2.01 (0.55)
	여자	2.02 (0.41)	2.05 (0.50)	2.01 (0.52)	1.96 (0.55)	1.98 (0.57)
연령	9-11세	2.03 (0.42)	2.08 (0.52)	2.05 (0.54)	2.07 (0.55)	2.06 (0.52)
	12-17세	1.97 (0.42)	2.02 (0.55)	2.00 (0.50)	1.96 (0.47)	1.96 (0.57)
소득 수준 ¹	빈곤	1.89 (0.59)	2.01 (0.63)	2.00 (0.52)	2.03 (0.49)	1.98 (0.55)
	일반	1.99 (0.41)	2.04 (0.54)	2.01 (0.52)	2.00 (0.50)	1.99 (0.56)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1.91 (0.57)	1.96 (0.63)	1.98 (0.59)	2.05 (0.51)	1.94 (0.52)
	차상위	1.78 (0.64)	2.23 (0.57)	2.04 (0.34)	1.91 (0.36)	2.15 (0.61)
	일반	1.99 (0.41)	2.04 (0.54)	2.01 (0.52)	2.00 (0.50)	1.99 (0.56)
지역	대도시	1.93 (0.41)	2.06 (0.53)	2.04 (0.48)	2.01 (0.47)	1.98 (0.51)
	중소도시	2.05 (0.40)	2.02 (0.54)	1.99 (0.54)	1.98 (0.52)	2.01 (0.59)
	농어촌	1.91 (0.55)	2.04 (0.65)	2.02 (0.57)	2.02 (0.47)	1.94 (0.57)
가족유형	양부모	1.99 (0.41)	2.03 (0.53)	2.01 (0.50)	2.00 (0.49)	1.99 (0.57)
	한부모·조손	2.00 (0.50)	2.11 (0.61)	1.99 (0.61)	2.01 (0.56)	1.99 (0.54)

주: 최소값=0(전혀 효과가 없었다), 최대값=3(매우 효과가 있었다)

3. 사교육 이용비용

이러한 사교육 이용비용을 2008년도의 결과와 비교하면, 2008년도의 경우 6-8세 아동만을 조사하였는데, 6-8세 아동의 평균 학원비는 22.7만원, 과외비는 14.1만원, 학습지는 8.1만원이었다. 2013년도 6-8세의 아동과 비교하면 학원비용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과외는 상승하였고, 학습지는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1-23〉 사교육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30.41	4,570,572	27.51	611,145	7.74	1,484,814
아동성별	남자	30.86	2463,579	24.36	296,088	7.49	777,728
	여자	29.89	2,106,993	30.48	315,057	8.03	707,087
연령	6-8세	20.87	880,500	18.14	62,518	7.54	601,198
	9-11세	27.53	1,227,817	16.65	146,462	7.37	503,628
	12-17세	35.26	2,462,255	32.93	402,164	8.57	379,989
소득수준1	빈곤	20.19	84,615	22.79	5,150	6.85	28,081
	일반	30.60	4,485,957	27.55	605,994	7.76	1,456,734
소득수준2	기초수급	18.84	64,061	27.73	3,258	7.19	19,660
	차상위	24.40	20,554	14.29	1,893	6.05	8,420
	일반	30.60	4,485,957	27.55	605,994	7.76	1,456,734
지역	대도시	32.37	2,035,739	31.79	254,161	7.55	734,152
	중소도시	29.27	2,281,804	24.36	333,413	7.93	676,242
	농어촌	24.91	253,029	26.04	23,571	7.98	74,421
가족유형	양부모	31.02	4,192,747	27.98	552,946	7.90	1,360,976
	한부모·조손	23.58	341,549	20.67	51,766	6.20	113,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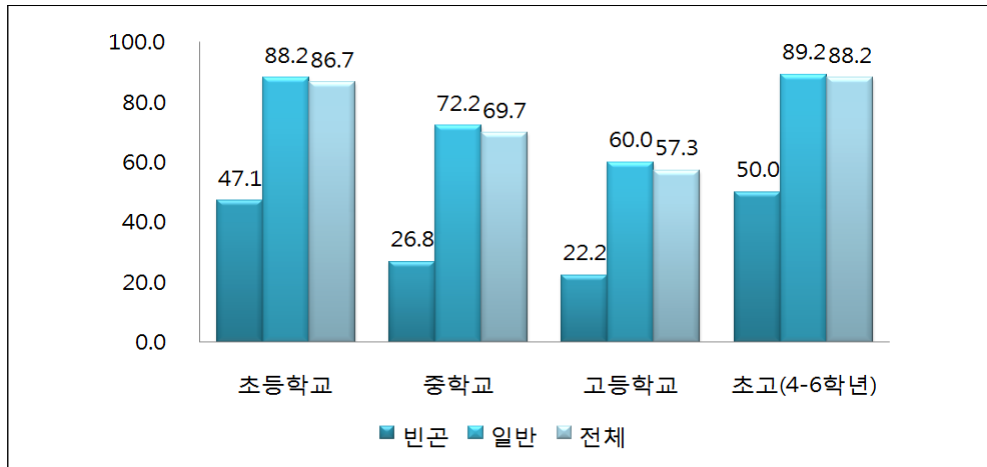
학원, 과외, 학습지를 모두 포괄한 사교육 전체를 살펴보면 사교육 이용비율은 77.5%로 파악되어 전체의 3분의 2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86.7%, 중학교 69.7%, 고등학교 57.3%로 나타났다. 빈곤가구에 비해서 일반가구의 이용율이 모든 학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을 3등분 했을 때는 수급층에 비해서 차상위계층 아동의 사교육 이용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1-24〉 초중고생 사교육 이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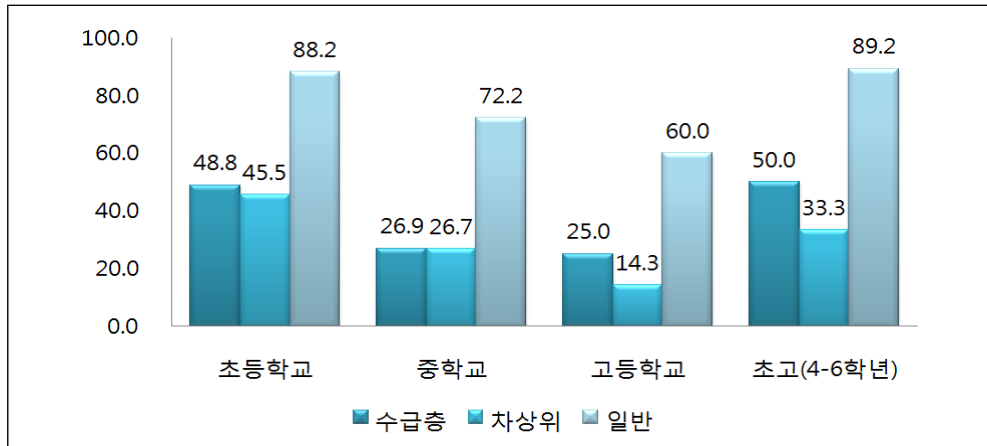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고(4-6학년)
전체	(77.5)	86.7	69.7	57.3	88.2
소득 구분1	빈곤	47.1	26.8	22.2	50.0
	일반	88.2	72.2	60.0	89.2
소득 구분2	수급층	48.8	26.9	25.0	50.0
	차상위	45.5	26.7	14.3	33.3
	일반	88.2	72.2	60.0	89.2

[그림 11-2]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소득수준 2유형 기준)



[그림 11-3]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소득수준 3유형 기준)



모든 유형의 사교육을 포괄한 이용비용을 살펴보았다. 비용은 초등학교 28만원, 중학교 41만원, 고등학교 36만원으로 중학교가 가장 높았다. 소득별로는 사교육 비용이 빈곤층이 일반계층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차이가 월평균 18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층과 차상위층을 비교했을 때는 초·중등은 차상위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이 더 많았고, 고등학교는 수급층이 29만원으로 차상위층 18만원보다 10만원 이상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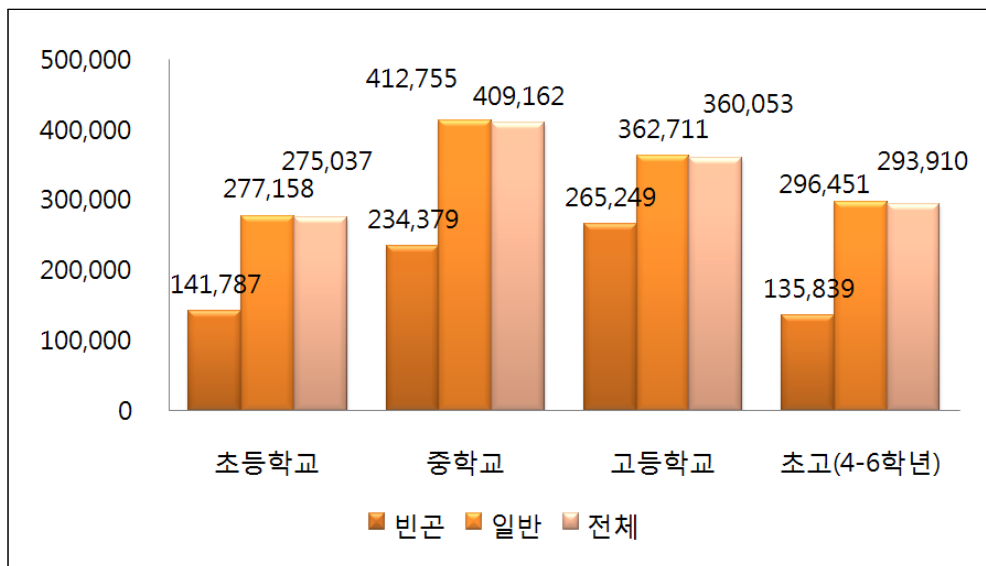
〈표 11-25〉 월평균 사교육 이용비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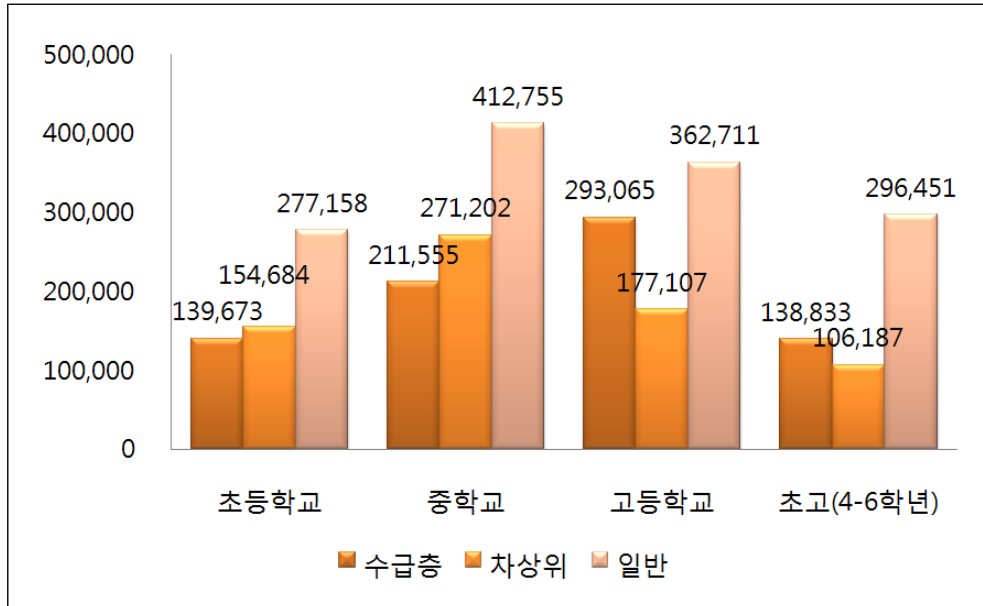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고(4-6학년)
전체		275,037	409,162	360,053	293,910
소득 구분1	빈곤	141,787	234,379	265,249	135,839
	일반	277,158	412,755	362,711	296,451
소득 구분2	수급층	139,673	211,555	293,065	138,833
	차상위	154,684	271,202	177,107	106,187
	일반	277,158	412,755	362,711	296,451

주: 이용아동 중 평균사교육 비용임

〔그림 11-4〕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 비용 (소득수준 2유형 기준)



[그림 11-5]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 비용 (소득수준 3유형 기준)



사교육을 통 털어서 총 사교육 이용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26>과 같다. 아동의 사교육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평균 약 28.6만원²⁸⁾이었다. 아동의 연령대별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연령은 12-17세 35만원, 9-11세 29만원을 차지하여 대학입시 등으로 학습지원이 요구되는 중고생 연령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사교육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수급가구 11.9만원, 차상위 가구 14.7만원, 일반가구 29.1만원이었다.

28) 이러한 결과는 2012년도 초중고생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23만6천원보다 다소 높게 파악됨. 본 조사에서 파악된 사교육 및 특별활동은 보육 및 돌봄서비스 이용비용도 포함되어 다소 높게 나타났을 거라 추정됨.

〈표 11-26〉 2013년 사교육·특별활동 비용

(단위: 만원)

구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7세	전체
기초수급가구	12.1	12.5	9.7	10.1	12.9	11.9
차상위가구	9.0	18.4	20.5	7.1	13.5	14.7
일반가구	19.1	20.2	24.7	29.7	35.6	29.1
전체	18.9	20.0	24.4	29.2	34.7	28.6

주 1) 0-5세 사교육 및 특별활동: 국공립·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정규시간내·외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원, 개인·그룹과의 학습지, 친인척 돌봄, 아이돌보미, 해외연수, 문화센터 등

2) 6-17세 사교육 및 특별활동: 학원, 개인·그룹과의 학습지, 학교내 방과후 보충학습, 학교외 방과후 교실, 친인척 돌봄, 아이돌보미, 해외연수 등

3) 모든 비용은 국가지원 비포함

반면에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사교육 비용은 약 13%이며, 기초수급가구 11.4%, 차상위 가구 11.9%, 일반가구 13.0%였으며, 이는 소득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으로, 빈곤가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비 대비 사교육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가구는 12-17세 일반가구(15.3%)와 3-5세 차상위 가구(15.2%)로 나타났으며, 가정 적게 지출하는 가구는 9-11세 차상위 가구(5.8%)로 나타났다.

〈표 11-27〉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보육·사교육비 비중

(단위: %)

구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7세	전체
기초수급가구	12.7	12.2	10.4	9.8	12.0	11.4
차상위가구	6.9	15.2	13.6	5.8	11.3	11.9
일반가구	9.3	10.9	11.1	12.9	15.3	13.0
전체	9.3	11.0	11.1	12.8	15.1	13.0

제3절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이용실태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학교 내 방과후 보충학습을 이용하는 경우는 24.9%, 학교 외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5.9%로 나타났다. 이를 아동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교 내 방과후 보충학습의 경우 여아(27.5%)가 남아(22.4%)에 비해 다소 이용률이 높았으며, 6-8세 28.6%, 9-11세 25.6%, 12-17세 23.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낮아졌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의 이용률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비하여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27.0%), 중소도시(23.8%), 농어촌(19.4%)의 순으로 이용률이 낮아졌다.

학교외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아(6.3%)가 남아(5.4%)보다 높았으며, 6-8세 9.3%, 9-11세 7.1%, 12-17세 4.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낮아졌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의 이용률이 15.8%로 차상위가구(8.2%)와 일반가구(5.5%)의 이용률보다 현저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8.3%)의 이용률이 중소도시(4.0%)와 농어촌(3.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4.7%)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12.5%)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았다.

〈표 11-28〉 학교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이용여부

(단위: %, 명)

구분		학교내 방과후 보충학습			학교외 방과후 교실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전체		75.1	24.9	100.0 (6,749,291)	94.1	5.9	100.0 (6,749,127)
아동성별	남자	77.6	22.4	100.0 (3,490,815)	94.6	5.4	100.0 (3,490,815)
	여자	72.5	27.5	100.0 (3,258,476)	93.7	6.3	100.0 (3,258,313)
연령	6-8세	71.4	28.6	100.0 (1,266,787)	90.7	9.3	100.0 (1,266,787)
	9-11세	74.4	25.6	100.0 (1,544,628)	92.9	7.1	100.0 (1,544,628)
	12-17세	76.6	23.4	100.0 (3,937,876)	95.7	4.3	100.0 (3,937,712)
소득수준1	빈곤	66.3	33.7	100.0 (300,007)	86.3	13.7	100.0 (299,843)
	일반	75.5	24.5	100.0 (6,449,284)	94.5	5.5	100.0 (6,449,284)
소득수준2	기초수급	68.4	31.6	100.0 (216,450)	84.2	15.8	100.0 (216,287)
	차상위	60.9	39.1	100.0 (83,557)	91.8	8.2	100.0 (83,557)
	일반	75.5	24.5	100.0 (6,449,284)	94.5	5.5	100.0 (6,449,284)
지역	대도시	73.0	27.0	100.0 (2,966,001)	91.7	8.3	100.0 (2,965,837)
	중소도시	76.2	23.8	100.0 (3,355,341)	96.0	4.0	100.0 (3,355,341)
	농어촌	80.6	19.4	100.0 (427,950)	96.3	3.7	100.0 (427,950)
가족유형	양부모	75.9	24.1	100.0 (5,820,371)	95.3	4.7	100.0 (5,820,371)
	한부모·조손	70.4	29.6	100.0 (859,229)	87.5	12.5	100.0 (859,065)

〈표 11-29〉는 학교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이용비용 분석결과이다. 학교 내 방과후 보충학습 이용비용은 평균 6.2만원이며 연령별로 6-8세 7.3만원, 9-11세 4.8만원 12-17세 6.4만원으로 상이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는 2.1만원으로 차상위가구 4.6만원, 일반 6.4만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6.9만원 중소도시 5.8만원 농어촌 3.9만원의 순이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6.7만원)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3.7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외 방과후 교실 이용비용은 평균 6.2만원이었으며 남아가 6.6만원 여아가 5.8만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8세 8.5만원으로 높았으며, 9-11세 5.6만원 12-17세 5.0만원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1만원대였으나 일반가구는 6.7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7.3만원, 중소도시 4.7만원 농어촌 8천원수준으로 나타나 농어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가족유

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은 약 8만원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2.3만원에 비하여 높았다.

〈표 11-29〉 학교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학교내 방과후 보충학습		학교외 방과후 교실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6.22	1,656,981	6.16	391,625
아동성별	남자	6.26	771,317	6.56	191,583
	여자	6.18	885,665	5.77	200,042
연령	6-8세	7.26	354,711	8.50	117,341
	9-11세	4.83	387,348	5.56	106,176
	12-17세	6.40	914,923	4.90	168,108
소득수준1	빈곤	2.92	96,865	1.36	38,768
	일반	6.42	1,560,116	6.68	352,857
소득수준2	기초수급	2.10	64,274	1.42	31,925
	차상위	4.56	32,591	1.07	6,844
	일반	6.42	1,560,116	6.68	352,857
지역	대도시	6.91	788,814	7.33	244,083
	중소도시	5.76	786,471	4.60	132,590
	농어촌	3.89	81,696	0.79	14,952
가족유형	양부모	6.73	1,381,179	7.97	272,115
	한부모·조손	3.65	253,068	2.27	106,858

이러한 사교육 이용비용을 2008년도의 결과와 비교하면, 2008년도의 경우 6-8세 아동만을 조사하였는데, 6-8세 아동의 교내보충수업비는 4.9만원, 교외 방과후 교실 비용은 6.3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해당연령의 교내 보충수업비는 상승하였고 교외보충수업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돌봄 및 해외연수 이용실태

돌봄 및 해외연수 이용실태를 파악해보면(표 11-30 참고), 6-17세 아동의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해외연수의 경험도 거의 없었다.

〈표 11-30〉 기타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친인척			이웃, 아이돌보미			해외연수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비이용	이용	계 (명)
전체		99.0	1.0	100.0 (6,747,389)	99.8	0.2	100.0 (6,749,291)	99.8	0.2	100.0 (6,749,291)
아동성별	남자	98.9	1.1	100.0 (3,488,913)	99.8	0.2	100.0 (3,490,815)	99.8	0.2	100.0 (3,490,815)
	여자	99.1	0.9	100.0 (3,258,476)	99.9	0.1	100.0 (3,258,476)	99.8	0.2	100.0 (3,258,476)
연령	6-8세	98.8	1.2	100.0 (1,266,787)	99.7	0.3	100.0 (1,266,787)	100.0	0.0	100.0 (1,266,787)
	9-11세	98.4	1.6	100.0 (1,544,628)	99.5	0.5	100.0 (1,544,628)	99.5	0.5	100.0 (1,544,628)
	12-17세	99.3	0.7	100.0 (3,935,974)	100.0	0.0	100.0 (3,937,876)	99.9	0.1	100.0 (3,937,876)
소득수준 ¹	빈곤	98.9	1.1	100.0 (300,007)	99.6	0.4	100.0 (300,007)	99.7	0.3	100.0 (300,007)
	일반	99.0	1.0	100.0 (6,447,382)	99.8	0.2	100.0 (6,449,284)	99.8	0.2	100.0 (6,449,284)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98.7	1.3	100.0 (216,450)	99.5	0.5	100.0 (216,450)	99.5	0.5	100.0 (216,450)
	차상위	99.6	0.4	100.0 (83,557)	99.9	0.1	100.0 (83,557)	100.0	0.0	100.0 (83,557)
	일반	99.0	1.0	100.0 (6,447,382)	99.8	0.2	100.0 (6,449,284)	99.8	0.2	100.0 (6,449,284)
지역	대도시	98.7	1.3	100.0 (2,966,001)	99.6	0.4	100.0 (2,966,001)	99.7	0.3	100.0 (2,966,001)
	중소도시	99.2	0.8	100.0 (3,353,439)	99.9	0.1	100.0 (3,355,341)	99.9	0.1	100.0 (3,355,341)
	농어촌	99.4	0.6	100.0 (427,950)	100.0	0.0	100.0 (427,950)	100.0	0.0	100.0 (427,950)
가족유형	양부모	99.3	0.7	100.0 (5,818,470)	99.8	0.2	100.0 (5,820,371)	99.8	0.2	100.0 (5,820,371)
	한부모가족	97.7	2.3	100.0 (859,229)	99.9	0.1	100.0 (859,229)	99.9	0.1	100.0 (859,229)

그 비용도 친인척 돌봄은 11만 7천원, 사적인 돌보미인 경우 18만3천원이었으며, 해외연수비용 169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학원 및 과외이용비용은 이용률이 낮아 아동의 특성별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표 11-31〉 돌봄 및 해외연수 이용비용

구분	친인척		이웃, 아이돌보미		해외연수	
	평균	명	평균	명	평균	명
전체	11.70	60,301	18.30	6,436	169.12	7,664

제5절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다음 예서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욕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복지서비스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영아이용 어린이집, 영아 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방과후 학습지도, 방과후 학습, 상담, 부모교육, 무료급식,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본 고에서 복지서비스와 같은 유료이기는 하지만 학원은 사교육으로 분류하였다.

1. 0-5세 아동의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필요여부

가. 이용여부

0-5세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의 이용여부 및 필요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영아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26.2%,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을 이용은 14.8%,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0%, 아동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3.8%,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을 이용한 경우는 6.6%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아이용 어린이집은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이용률이 높았으며, 0-2세 영아보다 3-5세 유아의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 가구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 26.3%, 기초수급가구 20.4%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28.5%)와 대도시(25.0%)의 이용률이 농어촌(15.5%)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25.7%)의 이용률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이용률(41.0%)이 높았다.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 이용여부는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0-2세 영아(7.1%)보다는 3-5세 유아(22.5%)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 17.4%, 일반가구 14.7%, 기초수급가구 1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13.7%)와 중소도시(16.3%)에 비하여 농어촌(8.5%)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24.4%)의 이용률이 양부모 가족(14.4%)에 비하여 높았다.

24시간 보육시설 이용여부는 2.0%로 낮았으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0-2세보다는 3-5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이용률이 양부모 가족보다 높았다. 이러한 분석은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아 세부분석에 한계가 있다.

아동상담 프로그램은 남아보다는 여아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0-2세보다는 3-5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의 이용률이 차상위가구와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 대도시의 순이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이용률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아 이러한 세부분석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은 남아보다 여아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0-2세 영아보다 3-5세 유아의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 7.8%, 일반가구 6.7%, 중소도시 1.8%의 순으로 중소도시의 이용률이 현격히 낮았다.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아 아동의 특성별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나. 필요여부

0-5세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복지서비스의 필요여부를 질문한 결과, 영아이용 어린이집은 72.8%,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 77.0%, 24시간 보육시설 52.2%, 아동상담 프로그램 58.2%,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59.1%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아이용어린이집은 여아(69.5%)보다는 남아(75.9%)의 필요성이 높았으며, 0-2세 영아(75.4%)가 3-5세 유아(70.2%)보다 다소 높았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82.6%)가 기초수급가구(75.9%)와 일반가구(72.6%)에 비하여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79.7%)가 중소도시(68.2%)와 농어촌(62.7%)에 비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85.3%)와 기초수급가구(81.9%)의 필요성이 일반가구(76.8%)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81.8%)의 필요성이 중소도시(73.3%)와 농어촌(73.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82.4%)가 양부모가족(76.5%)에 비해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59.8%)가 기초수급가구(53.8%)와 일반가구(52.0%)보다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60.9%)의 필요성이 중소도시(46.0%)와 농어촌(41.9%)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아동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0-2세 영아(55.1%) 다 3-5세 유아(61.3%)의 필요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65.5%)와 차상위가구(65.5%)인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58.0%)에 비해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필요성(60.6%)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56.7%), 농어촌(53.5%)의 순이었다.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0-2세 영아(56.7%)보다 3-5세 유아(61.6%)의 필요도가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반가구(59.0%)에 비하여 차상위가구(64.1%)와 기초수급가구(64.2%)의 필요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49.6%)보다는 대도시(61.6%)와 중소도시(58.1%)의 필요성이 높았다.

〈표 11-32〉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단위: %, 명)

구분	영아이용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아동상담 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전체	26.2	73.8	100.0 (2,774,413)	14.8	85.2	100.0 (2,775,409)	2.0	98.0	100.0 (2,773,039)	3.8	96.2	100.0 (2,771,248)	6.6	93.4	100.0 (2,771,071)	
	28.2	71.8	100.0 (1,462,639)	15.3	84.7	100.0 (1,463,635)	2.1	97.9	100.0 (1,462,639)	3.4	96.6	100.0 (1,462,591)	5.7	94.3	100.0 (1,462,591)	
아동 성별	여자	24.1	75.9	100.0 (1,311,774)	14.1	85.9	100.0 (1,311,774)	1.9	98.1	100.0 (1,310,400)	4.4	95.6	100.0 (1,308,657)	7.6	92.4	100.0 (1,308,480)
연령	0-2세	19.4	80.6	100.0 (1,393,229)	7.1	92.9	100.0 (1,393,229)	1.5	98.5	100.0 (1,391,856)	1.7	98.3	100.0 (1,393,229)	3.8	96.2	100.0 (1,393,052)
	3-5세	33.1	66.9	100.0 (1,381,183)	22.5	77.5	100.0 (1,382,180)	2.5	97.5	100.0 (1,381,183)	6.0	94.0	100.0 (1,378,019)	9.5	90.5	100.0 (1,378,019)
소득 수준	빈곤	25.7	74.3	100.0 (72,398)	15.2	84.8	100.0 (72,350)	1.7	98.3	100.0 (72,398)	3.8	96.2	100.0 (72,350)	4.2	95.8	100.0 (72,173)
	일반	26.3	73.7	100.0 (2,702,015)	14.7	85.3	100.0 (2,703,059)	2.0	98.0	100.0 (2,700,641)	3.8	96.2	100.0 (2,698,898)	6.7	93.3	100.0 (2,698,898)
소득 수준	기초 수급	20.4	79.6	100.0 (28,876)	11.8	88.2	100.0 (28,829)	2.2	97.8	100.0 (28,876)	6.3	93.7	100.0 (28,829)	7.8	92.2	100.0 (28,829)
	차상위	29.2	70.8	100.0 (43,521)	17.4	82.6	100.0 (43,521)	1.3	98.7	100.0 (43,521)	2.2	97.8	100.0 (43,521)	1.8	98.2	100.0 (43,344)
지역	일반	26.3	73.7	100.0 (2,702,015)	14.7	85.3	100.0 (2,703,059)	2.0	98.0	100.0 (2,700,641)	3.8	96.2	100.0 (2,698,898)	6.7	93.3	100.0 (2,698,898)
	대도시	25.0	75.0	100.0 (1,186,892)	13.7	86.3	100.0 (1,186,892)	1.5	98.5	100.0 (1,185,518)	0.9	99.1	100.0 (1,183,775)	4.5	95.5	100.0 (1,183,597)
지역	중소 도시	28.5	71.5	100.0 (1,431,062)	16.3	83.7	100.0 (1,432,058)	2.5	97.5	100.0 (1,431,062)	6.3	93.7	100.0 (1,431,014)	8.5	91.5	100.0 (1,431,014)
	농어촌	15.5	84.5	100.0 (156,459)	8.5	91.5	100.0 (156,459)	0.8	99.2	100.0 (156,459)	3.3	96.7	100.0 (156,459)	4.8	95.2	100.0 (156,459)
가족 유형	양부모	25.7	74.3	100.0 (2,614,585)	14.4	85.6	100.0 (2,615,629)	1.8	98.2	100.0 (2,614,585)	4.1	95.9	100.0 (2,611,468)	6.8	93.2	100.0 (2,611,291)
	한부모 ·조손	41.0	59.0	100.0 (138,238)	24.4	75.6	100.0 (138,190)	5.4	94.6	100.0 (136,864)	0.5	99.5	100.0 (138,190)	3.0	97.0	100.0 (138,190)

구분		영아이용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			24시간 보육시설			아동상담 프로그램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예	아요	계 (명)
전체	아동 성별	72.8	27.2	100.0 (2,759,284)	77.0	23.0	100.0 (2,755,069)	52.2	47.8	100.0 (2,750,352)	58.2	41.8	100.0 (2,748,474)	59.1	40.9	100.0 (2,750,057)
	남자	75.9	24.1	100.0 (1,448,189)	78.4	21.6	100.0 (1,446,667)	53.6	46.4	100.0 (1,446,667)	59.7	40.3	100.0 (1,446,667)	58.3	41.7	100.0 (1,446,667)
	여자	69.5	30.5	100.0 (1,311,095)	75.3	24.7	100.0 (1,308,403)	50.6	49.4	100.0 (1,303,686)	56.6	43.4	100.0 (1,301,807)	60.0	40.0	100.0 (1,303,391)
연령	0~2세	75.4	24.6	100.0 (1,382,990)	76.0	24.0	100.0 (1,380,088)	50.7	49.3	100.0 (1,381,613)	55.1	44.9	100.0 (1,373,493)	56.7	43.3	100.0 (1,375,076)
	3~5세	70.2	29.8	100.0 (1,376,294)	77.9	22.1	100.0 (1,374,981)	53.6	46.4	100.0 (1,368,739)	61.3	38.7	100.0 (1,374,981)	61.6	38.4	100.0 (1,374,981)
소득 수준	빈곤	79.9	20.1	100.0 (71,599)	83.9	16.1	100.0 (71,626)	57.4	42.6	100.0 (71,777)	65.5	34.5	100.0 (71,599)	64.1	35.9	100.0 (71,777)
	일반	72.6	27.4	100.0 (2,687,685)	76.8	23.2	100.0 (2,683,443)	52.0	48.0	100.0 (2,678,575)	58.0	42.0	100.0 (2,676,874)	59.0	41.0	100.0 (2,678,281)
소득 수준2	기초수급	75.9	24.1	100.0 (28,511)	81.9	18.1	100.0 (28,538)	53.8	46.2	100.0 (28,511)	65.5	34.5	100.0 (28,511)	64.2	35.8	100.0 (28,511)
	차상위	82.6	17.4	100.0 (43,088)	85.3	14.7	100.0 (43,088)	59.8	40.2	100.0 (43,265)	65.5	34.5	100.0 (43,088)	64.1	35.9	100.0 (43,265)
지역	일반	72.6	27.4	100.0 (2,687,685)	76.8	23.2	100.0 (2,683,443)	52.0	48.0	100.0 (2,678,575)	58.0	42.0	100.0 (2,676,874)	59.0	41.0	100.0 (2,678,281)
	대도시	79.7	20.3	100.0 (1,179,342)	81.8	18.2	100.0 (1,179,342)	60.9	39.1	100.0 (1,179,857)	60.6	39.4	100.0 (1,179,342)	61.6	38.4	100.0 (1,179,519)
농어촌	중소도시	68.2	31.8	100.0 (1,424,150)	73.3	26.7	100.0 (1,419,935)	46.0	54.0	100.0 (1,414,704)	56.7	43.3	100.0 (1,413,340)	58.1	41.9	100.0 (1,414,746)
	농어촌	62.7	37.3	100.0 (155,792)	73.6	26.4	100.0 (155,792)	41.9	58.1	100.0 (155,792)	53.5	46.5	100.0 (155,792)	49.6	50.4	100.0 (155,792)
가족 유형	양부모	72.6	27.4	100.0 (2,601,045)	76.5	23.5	100.0 (2,598,117)	52.4	47.6	100.0 (2,592,053)	58.5	41.5	100.0 (2,591,548)	59.2	40.8	100.0 (2,593,131)
	한부모·조손	72.7	27.3	100.0 (136,649)	82.4	17.6	100.0 (135,363)	51.7	48.3	100.0 (136,710)	57.6	42.4	100.0 (135,336)	56.5	43.5	100.0 (135,336)

2. 6-17세 아동의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필요여부

가. 이용여부

6-17세 아동의 양육자에게 복지서비스 이용여부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방과후 학습은 25.8%, 취미기능교실 25.7%, 문화활동 15.5%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습의 경우는 남아(23.2%)보다 여아(28.6%)의 이용률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낮아져 6-8세 36.3%, 9-11세 32.8%, 12-17세 19.8%로 초등학교보다 중고생의 이용률이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 36.4%, 차상위가구 32.7%, 일반가구 25.4%의 순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낮아졌다.

취미기능교실은 6-8세 38.3%, 9-11세 37.4%로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고생(17.0%)의 이용률이 현격히 낮아졌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가 6.0%로 가장 낮았으며, 기초수급가구(16.1%)와 일반가구(26.3%)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25.7%)와 중소도시(26.7%)에 비하여 농어촌(17.3%)의 이용률이 낮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27.2%)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14.4%)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다.

문화활동은 여아(16.9%)가 남아(14.1%)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으며, 9-11세 초등학교 고학년아동의 이용률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6-8세 18.9%였으며 12-17세 중고생인 경우 11.6%로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고생의 이용률이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의 이용률이 6.6%로 가장 낮았으며, 기초수급가구 12.7%, 일반가구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가 16.7%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14.9%, 농어촌 10.0%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또한 양부모가족(16.2%)이 한부모 및 조손가족(10.8%)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11-34〉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이용여부

(단위: %, 명)

구분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이용	비이용	계 (명)	이용	비이용	계 (명)	이용	비이용	계 (명)
전체		25.8	74.2	100.0 (6,743,574)	25.7	74.3	100.0 (6,738,835)	15.5	84.5	100.0 (6,735,244)
아동 성별	남자	23.2	76.8	100.0 (3,483,918)	25.6	74.4	100.0 (3,483,918)	14.1	85.9	100.0 (3,483,918)
	여자	28.6	71.4	100.0 (3,259,656)	25.8	74.2	100.0 (3,254,917)	16.9	83.1	100.0 (3,251,326)
연령	6-8세	36.3	63.7	100.0 (1,255,148)	38.3	61.7	100.0 (1,255,148)	18.9	81.1	100.0 (1,255,148)
	9-11세	32.8	67.2	100.0 (1,545,232)	37.4	62.6	100.0 (1,545,752)	22.6	77.4	100.0 (1,545,752)
	12-17세	19.8	80.2	100.0 (3,943,194)	17.0	83.0	100.0 (3,937,935)	11.6	88.4	100.0 (3,934,344)
소득 수준 ¹	빈곤	35.4	64.6	100.0 (299,162)	13.3	86.7	100.0 (298,498)	11.0	89.0	100.0 (298,498)
	일반	25.4	74.6	100.0 (6,444,412)	26.3	73.7	100.0 (6,440,337)	15.7	84.3	100.0 (6,436,747)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36.4	63.6	100.0 (215,861)	16.1	83.9	100.0 (215,196)	12.7	87.3	100.0 (215,196)
	차상위	32.7	67.3	100.0 (83,302)	6.0	94.0	100.0 (83,302)	6.6	93.4	100.0 (83,302)
	일반	25.4	74.6	100.0 (6,444,412)	26.3	73.7	100.0 (6,440,337)	15.7	84.3	100.0 (6,436,747)
지역	대도시	29.5	70.5	100.0 (2,965,095)	25.7	74.3	100.0 (2,959,836)	14.9	85.1	100.0 (2,959,836)
	중소도시	22.6	77.4	100.0 (3,351,050)	26.7	73.3	100.0 (3,351,050)	16.7	83.3	100.0 (3,349,293)
	농어촌	25.4	74.6	100.0 (427,430)	17.3	82.7	100.0 (427,950)	10.0	90.0	100.0 (426,115)
가족 유형	양부모	25.3	74.7	100.0 (5,812,494)	27.2	72.8	100.0 (5,808,419)	16.2	83.8	100.0 (5,804,828)
	한부모조손	28.6	71.4	100.0 (861,268)	14.4	85.6	100.0 (860,604)	10.8	89.2	100.0 (860,604)

성격, 정서문제 등 상담프로그램의 이용률은 4.5%였으며,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는 9-11세 아동의 이용률이 7.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2배정도 높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의 이용률이 7.7%로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이용률이 5.4%, 중소도시 3.8%, 농어촌 3.1%로 대도시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의 이용률은 6.0%이다.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아가 6.6%로 남아 5.4%에 비하여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6-8세 9.2%, 9-11세 8.2%,

12-17세 4.1%로 초등학생이 중고생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반가구 6.1%, 기초수급가구 6.0%, 차상위가구 1.4%로 차상위가구의 이용비율이 현격히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6.6%, 중소도시 5.6%, 농어촌 4.8%로 농어촌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양부모가족(6.5%)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족(2.6%)의 이용률이 낮았다.

〈표 11-35〉 상담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상담 프로그램			부모상담		
		이용	비이용	계 (명)	이용	비이용	계 (명)
전체		4.5	95.5	100.0 (6,736,709)	6.0	94.0	100.0 (6,740,257)
아동성별	남자	4.1	95.9	100.0 (3,479,551)	5.4	94.6	100.0 (3,483,099)
	여자	4.9	95.1	100.0 (3,257,158)	6.6	93.4	100.0 (3,257,158)
연령	6-8세	3.4	96.6	100.0 (1,255,148)	9.2	90.8	100.0 (1,255,148)
	9-11세	7.4	92.6	100.0 (1,540,866)	8.2	91.8	100.0 (1,545,232)
	12-17세	3.7	96.3	100.0 (3,940,696)	4.1	95.9	100.0 (3,939,877)
소득수준1	빈곤	6.6	93.4	100.0 (298,498)	4.8	95.2	100.0 (297,679)
	일반	4.4	95.6	100.0 (6,438,211)	6.1	93.9	100.0 (6,442,578)
소득수준2	기초수급	7.7	92.3	100.0 (215,196)	6.0	94.0	100.0 (214,377)
	차상위	3.8	96.2	100.0 (83,302)	1.4	98.6	100.0 (83,302)
	일반	4.4	95.6	100.0 (6,438,211)	6.1	93.9	100.0 (6,442,578)
지역	대도시	5.4	94.6	100.0 (2,960,064)	6.6	93.4	100.0 (2,964,431)
	중소도시	3.8	96.2	100.0 (3,351,050)	5.6	94.4	100.0 (3,350,231)
	농어촌	3.1	96.9	100.0 (425,595)	4.8	95.2	100.0 (425,595)
가족유형	양부모	4.4	95.6	100.0 (5,806,293)	6.5	93.5	100.0 (5,810,659)
	한부모·조손	3.9	96.1	100.0 (860,604)	2.6	97.4	100.0 (859,785)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의 이용률은 9.4%였으며 여아가 10.4%로 남아 8.4%로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 33.2%, 차상위가구 29.1%, 일반가구 8.3%로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양부모가족(7.7%)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족(20.9%)이 높았다. 이는 무료급식이 저소득가구 및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로 예상된 결과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10.3%, 중소도시 9.0%, 농어촌 5.6%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장학금 등 학비지원의 이용률은 7.9%였으며 여아 9.3%, 남아 6.5%에 비하여 높았다. 연령별로는 6-8세 6.7%, 9-11세 7.0%, 12-17세 8.6%로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고생의 이용률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 28.8%, 차상위가구 22.9%, 일반가구 7.0%로 저소득층이 높았으며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7.9%, 중소도시 8.0% 농어촌 6.7%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무료급식처럼 학비지원도 취약가구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예상된 결과이다.

〈표 11-36〉 무료급식 및 학비지원

(단위: %, 명)

구분		무료급식			학비지원		
		이용	비이용	계 (명)	이용	비이용	계 (명)
전체		9.4	90.6	100.0 (6,732,888)	7.9	92.1	100.0 (6,716,253)
아동성별	남자	8.4	91.6	100.0 (3,475,210)	6.5	93.5	100.0 (3,463,134)
	여자	10.4	89.6	100.0 (3,257,678)	9.3	90.7	100.0 (3,253,119)
연령	6-8세	9.1	90.9	100.0 (1,255,148)	6.7	93.3	100.0 (1,247,473)
	9-11세	10.6	89.4	100.0 (1,545,752)	7.0	93.0	100.0 (1,545,752)
	12-17세	9.0	91.0	100.0 (3,931,988)	8.6	91.4	100.0 (3,923,028)
소득수준1	빈곤	32.0	68.0	100.0 (297,679)	27.2	72.8	100.0 (297,629)
	일반	8.3	91.7	100.0 (6,435,209)	7.0	93.0	100.0 (6,418,624)
소득수준2	기초수급	33.2	66.8	100.0 (214,377)	28.8	71.2	100.0 (214,327)
	차상위	29.1	70.9	100.0 (83,302)	22.9	77.1	100.0 (83,302)
	일반	8.3	91.7	100.0 (6,435,209)	7.0	93.0	100.0 (6,418,624)
지역	대도시	10.3	89.7	100.0 (2,964,431)	7.9	92.1	100.0 (2,955,471)
	중소도시	9.0	91.0	100.0 (3,342,342)	8.0	92.0	100.0 (3,334,717)
	농어촌	5.6	94.4	100.0 (426,115)	6.7	93.3	100.0 (426,065)
가족유형	양부모	7.7	92.3	100.0 (5,803,290)	5.8	94.2	100.0 (5,786,706)
	한부모·조손	20.9	79.1	100.0 (859,785)	21.0	79.0	100.0 (859,734)

나. 필요여부

6-17세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과후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양육자는 73.1%, 취미기능 교실 77.7%, 문화활동 75.2%로 70%이상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세 서비스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대에 따라서는 6-8세와 9-11세 초등학생의 필요도보다는 중고생의 필요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학습은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 82.8%, 차상위가구 83.7%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층의 필요도가 높게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74.3%, 중소도시 73.6%로 농어촌 61.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취미기능 교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수급가구 82.2%, 차상위가구 79.8%, 일반가구 77.5%로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도가 낮아졌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76.5%, 중소도시 79.6%, 농어촌 71.1%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문화활동은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필요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의 필요도가 가장 낮았다.

〈표 11-37〉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필요여부

(단위: %, 명)

구분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교실			문화활동		
		필요	불필요	계 (명)	필요	불필요	계 (명)	필요	불필요	계 (명)
전체		73.1	26.9	100.0 (6,626,218)	77.7	22.3	100.0 (6,640,602)	75.2	24.8	100.0 (6,631,781)
아동성 별	남자	72.3	27.7	100.0 (3,436,628)	77.2	22.8	100.0 (3,438,371)	74.1	25.9	100.0 (3,439,975)
	여자	74.0	26.0	100.0 (3,189,591)	78.2	21.8	100.0 (3,202,231)	76.5	23.5	100.0 (3,191,806)
연령	6-8세	79.0	21.0	100.0 (1,250,555)	84.9	15.1	100.0 (1,255,813)	81.3	18.7	100.0 (1,247,825)
	9-11세	80.8	19.2	100.0 (1,536,493)	84.4	15.6	100.0 (1,533,707)	81.0	19.0	100.0 (1,533,707)
	12-17세	68.2	31.8	100.0 (3,839,170)	72.7	27.3	100.0 (3,851,083)	70.9	29.1	100.0 (3,850,249)
소득 수준 ¹	빈곤	83.1	16.9	100.0 (295,260)	81.6	18.4	100.0 (294,533)	75.5	24.5	100.0 (294,292)
	일반	72.7	27.3	100.0 (6,330,958)	77.5	22.5	100.0 (6,346,069)	75.2	24.8	100.0 (6,337,489)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82.8	17.2	100.0 (212,510)	82.2	17.8	100.0 (212,510)	76.6	23.4	100.0 (212,414)
	차상위	83.7	16.3	100.0 (82,750)	79.8	20.2	100.0 (82,023)	72.5	27.5	100.0 (81,877)
	일반	72.7	27.3	100.0 (6,330,958)	77.5	22.5	100.0 (6,346,069)	75.2	24.8	100.0 (6,337,489)
지역	대도시	74.3	25.7	100.0 (2,903,745)	76.5	23.5	100.0 (2,907,811)	76.1	23.9	100.0 (2,903,339)
	중소도시	73.6	26.4	100.0 (3,303,613)	79.6	20.4	100.0 (3,311,550)	75.6	24.4	100.0 (3,304,502)
	농어촌	61.6	38.4	100.0 (418,859)	71.1	28.9	100.0 (421,242)	66.4	33.6	100.0 (423,940)
가족 유형	양부모	73.3	26.7	100.0 (5,709,007)	77.6	22.4	100.0 (5,721,091)	74.9	25.1	100.0 (5,714,338)
	한부모·조손	71.6	28.4	100.0 (856,218)	77.5	22.5	100.0 (857,414)	76.5	23.5	100.0 (855,346)

정서문제 등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7.9%, 부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9-11세 61.7%, 6-8세 58.0%, 12-17세 5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 76.3%, 기초수급가구 66.1%, 일반가구 57.4%로 저소득층의 필요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59.6%, 중소도시 57.7%, 농어촌 48.0%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족(57.1%)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63.6%)이 필요도가 높았다.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성별에 따라 필요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6-8세 60.4%, 9-11세 55.9%, 12-17세 53.1%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상위가구 67.3%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수급가구 56.4%, 일반가구 54.9%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57.3%, 중소도시 55.1%, 농어촌 40.0%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표 11-38〉 상담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필요여부

(단위: %, 명)

구분		상담 프로그램			부모상담		
		필요	불필요	계 (명)	필요	불필요	계 (명)
전체		57.9	42.1	100.0 (6,619,502)	55.1	44.9	100.0 (6,620,828)
아동성별	남자	57.8	42.2	100.0 (3,433,821)	55.3	44.7	100.0 (3,433,665)
	여자	58.1	41.9	100.0 (3,185,681)	54.9	45.1	100.0 (3,187,163)
연령	6-8세	58.0	42.0	100.0 (1,247,215)	60.4	39.6	100.0 (1,247,268)
	9-11세	61.7	38.3	100.0 (1,523,407)	55.9	44.1	100.0 (1,523,407)
	12-17세	56.5	43.5	100.0 (3,848,880)	53.1	46.9	100.0 (3,850,154)
소득수준1	빈곤	68.9	31.1	100.0 (292,793)	59.5	40.5	100.0 (293,379)
	일반	57.4	42.6	100.0 (6,326,709)	54.9	45.1	100.0 (6,327,449)
소득수준2	기초수급	66.1	33.9	100.0 (212,190)	56.4	43.6	100.0 (211,705)
	차상위	76.3	23.7	100.0 (80,603)	67.3	32.7	100.0 (81,673)
	일반	57.4	42.6	100.0 (6,326,709)	54.9	45.1	100.0 (6,327,449)
지역	대도시	59.6	40.4	100.0 (2,903,339)	57.3	42.7	100.0 (2,899,262)
	중소도시	57.7	42.3	100.0 (3,295,690)	55.1	44.9	100.0 (3,299,841)
	농어촌	48.0	52.0	100.0 (420,474)	40.0	60.0	100.0 (421,725)
가족유형	양부모	57.1	42.9	100.0 (5,708,781)	54.9	45.1	100.0 (5,709,819)
	한부모·조손	63.6	36.4	100.0 (848,624)	57.3	42.7	100.0 (849,914)

무료급식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52.0%,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64.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아동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비지원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는 필요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무료급식은 6-8세 58.6%로 가장 높았으며 12-17세 51.0%, 9-11세 49.4%의 순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 74.3%, 차상위가구 69.1%, 일반 51.1%로 소득이 낮을수록 필요도가 높았으며, 지역별

로는 대도시 57.2%, 중소도시 48.8%, 농어촌 42.4%로 대도시가 가장 높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조손가족(60.9%)의 필요도가 양부모가족(50.7%)에 비해 높았다.

학비지원의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9-11세 58.2%, 6-8세 66.2%, 12-17세 6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수급가구 84.9%, 차상위가구 77.5%, 일반가구 63.1%로 소득이 낮을수록 필요도가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66.2%, 중소도시 63.0%, 농어촌 55.7%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조손가족(73.4%)가 일반가족(62.4%)에 비해 필요도가 높았다.

〈표 11-39〉 무료급식 및 학비지원 필요여부

(단위: %, 명)

구분		무료급식			학비지원		
		필요	불필요	계 (명)	필요	불필요	계 (명)
전체		52.0	48.0	100.0 (6,610,667)	64.0	36.0	100.0 (6,620,476)
아동성별	남자	52.1	47.9	100.0 (3,426,536)	62.6	37.4	100.0 (3,431,562)
	여자	51.9	48.1	100.0 (3,184,131)	65.5	34.5	100.0 (3,188,914)
연령	6-8세	58.6	41.4	100.0 (1,247,686)	66.2	33.8	100.0 (1,247,280)
	9-11세	49.4	50.6	100.0 (1,525,457)	58.2	41.8	100.0 (1,528,763)
	12-17세	51.0	49.0	100.0 (3,837,524)	65.6	34.4	100.0 (3,844,433)
소득수준1	빈곤	72.8	27.2	100.0 (293,784)	82.8	17.2	100.0 (294,806)
	일반	51.1	48.9	100.0 (6,316,883)	63.1	36.9	100.0 (6,325,670)
소득수준2	기초수급	74.3	25.7	100.0 (211,990)	84.9	15.1	100.0 (212,056)
	차상위	69.1	30.9	100.0 (81,794)	77.5	22.5	100.0 (82,750)
	일반	51.1	48.9	100.0 (6,316,883)	63.1	36.9	100.0 (6,325,670)
지역	대도시	57.2	42.8	100.0 (2,899,083)	66.2	33.8	100.0 (2,902,405)
	중소도시	48.8	51.2	100.0 (3,290,001)	63.0	37.0	100.0 (3,295,238)
	농어촌	42.4	57.6	100.0 (421,583)	55.7	44.3	100.0 (422,833)
가족유형	양부모	50.7	49.3	100.0 (5,693,531)	62.4	37.6	100.0 (5,702,384)
	한부모·조손	60.9	39.1	100.0 (855,039)	73.4	26.6	100.0 (855,995)

제6절 소결

아동의 사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0-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관 외에는 학습지의 이용률(12.6%)이 높게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면 0-2세의 경우 양육수당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6-17세 아동의 경우는 학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절반이상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중학생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학원 다음으로 학교 내 방과후 학습과 학습지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학원의 이용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지만, 특히 9-11세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학습지의 경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1세의 이용률이 중고생에 해당하는 12-17세에 비하여 현격히 높았다. 반면에 개인 및 그룹과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8세의 이용률에 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생의 이용률이 높았다.

6-17세의 사교육 이용실태를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현격히 높았다. 학원 이용의 경우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가구의 이용률은 2배 이상 높았으며, 개인 및 그룹과의 3~5배, 학습지도 2배 이상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반면에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충학습 또는 복지관련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교실의 이용률은 저소득 가구의 이용률이 일반가구의 이용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사교육 이용실태는 가구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직접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비용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액은 큰 차이를 보였으나,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사교육 비용의 비중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아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또한 빈곤가구에서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0-5세 영유아가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는 영아이용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으며 24시간 보육시설을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었으며,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등 상담과 관련된 이용률도 낮게 나타났다. 0-5세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과 영아이용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으며, 24시간 보육시설이 가장 낮았으나 거의 모든 서비스의 필요도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2008년도와 비교하면 전반적

으로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은 높아진 반면 필요도는 낮아졌으며 이는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즉 이용율의 전반적 상승으로 필요도는 낮아지는 상쇄효과를 보이고 있다.

6-17세 아동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방과후 학습과 취미기능교실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활동의 순이었다. 현재 상담프로그램 및 부모상담 서비스의 제공정도와 무료급식과 학비지원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된 결과이다. 한편 필요도를 살펴보면, 방과후 학습, 취미기능 교실, 문화활동 등의 필요도가 이용률과 유사하게 높게 높았다. 특히 취미기능 교실과 문화활동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도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방과후 학습의 경우 일반가구의 필요도는 저소득층이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도에 차이를 보이는 복지서비스로는 학비지원과 무료급식이 해당되며, 아동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의 필요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일반가구의 필요도도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6-17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습지원과 문화활동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선호도가 높았다.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는 여전히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낮은 이용률과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2-17세 중고생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의 필요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필요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농어촌의 경우가 이용과 필요도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나 농어촌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12장

진로 및 아르바이트

제1절 진로

제2절 아르바이트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9세에서 17세 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진로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 및 생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제1절 진로에서는 원하는 직업 순위와 진로 성숙도를 조사하였다. 제2절 12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아르바이트 한 기간과,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 이후에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1절 진로

1. 원하는 직업 순위

만 9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업 1순위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전체 평균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가 15.2%, 사무종사자가 1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사무종사자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서비스종사자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2-1〉 원하는 직업 1순위(9-17세)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군인	계(명)
전체		2.1	67.3	12.1	15.2	0.1	0.4	1.5	0.3	1.1	100.0 (5,309,329)
아동성 별	남자	2.4	62.2	14.1	17.0	0.1	0.4	1.2	0.5	2.1	100.0 (2,759,787)
	여자	1.7	72.9	9.8	13.2	0.1	0.5	1.9	0.0	0.0	100.0 (2,549,543)
연령	9-11세	1.0	77.6	5.1	14.3	0.0	0.5	1.1	0.0	0.4	100.0 (1,497,637)
	12-17세	2.5	63.3	14.8	15.5	0.1	0.4	1.7	0.4	1.4	100.0 (3,811,693)
소득 수준 ¹	빈곤	1.0	60.5	12.8	20.0	1.0	1.0	2.5	0.0	1.2	100.0 (260,681)
	일반	2.1	67.7	12.0	14.9	0.0	0.4	1.5	0.3	1.1	100.0 (5,048,648)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1.4	62.5	11.5	19.9	0.8	0.3	2.5	0.0	1.1	100.0 (187,985)
	차상위	0.0	55.2	16.3	20.2	1.5	2.7	2.6	0.0	1.5	100.0 (72,696)
	일반	2.1	67.7	12.0	14.9	0.0	0.4	1.5	0.3	1.1	100.0 (5,048,648)
지역	대도시	3.0	68.8	11.6	12.7	0.1	0.7	1.9	0.6	0.7	100.0 (2,338,344)
	중소도시	1.4	67.0	11.8	17.2	0.1	0.2	1.1	0.0	1.4	100.0 (2,636,340)
	농어촌	1.5	60.0	17.9	16.4	0.1	0.1	2.1	0.0	1.9	100.0 (334,645)
가족 유형	양부모	2.1	68.7	11.6	14.7	0.0	0.1	1.5	0.3	1.0	100.0 (4,501,970)
	한부모·조손	2.0	58.9	14.9	17.8	0.3	2.2	1.9	0.0	1.9	100.0 (764,103)

2순위로 희망하는 직업의 경우에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선택비율이 평균 64.5%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및 사무종사자가 그 다음 높은 비율로 선호 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표 12-2〉 원하는 직업 2순위(9-17세)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 무 종사자	군인	계 (명)
전체		1.2	64.5	15.2	15.3	0.3	0.2	1.0	0.3	0.1	1.9	100.0 (4,467,970)
아동 성별	남자	2.0	57.8	18.1	16.4	0.2	0.0	1.6	0.5	0.0	3.3	100.0 (2,277,437)
	여자	0.3	71.6	12.1	14.1	0.4	0.3	0.4	0.0	0.2	0.5	100.0 (2,190,533)
연령	9-11세	1.3	68.4	8.6	18.8	0.1	0.0	0.7	0.0	0.4	1.7	100.0 (1,298,763)
	12-17세	1.1	63.0	17.9	13.8	0.4	0.2	1.2	0.4	0.0	2.0	100.0 (3,169,207)
소득 수준1	빈곤	1.4	59.3	11.9	19.9	1.0	1.1	2.3	0.3	0.1	2.8	100.0 (214,786)
	일반	1.2	64.8	15.4	15.1	0.3	0.1	1.0	0.3	0.1	1.9	100.0 (4,253,184)
소득 수준2	기초수급	1.4	58.2	12.4	19.9	1.4	1.5	2.3	0.5	0.1	2.4	100.0 (150,349)
	차상위	1.5	61.8	10.8	19.7	0.0	0.2	2.2	0.0	0.0	3.8	100.0 (64,437)
	일반	1.2	64.8	15.4	15.1	0.3	0.1	1.0	0.3	0.1	1.9	100.0 (4,253,184)
지역	대도시	0.9	68.8	14.8	12.2	0.1	0.1	1.1	0.6	0.0	1.5	100.0 (2,031,397)
	중소도시	1.3	62.3	14.2	17.9	0.5	0.3	1.1	0.0	0.2	2.3	100.0 (2,129,515)
	농어촌	2.3	51.5	24.6	17.8	0.8	0.1	0.9	0.0	0.0	2.0	100.0 (307,058)
가족 유형	양부모	1.2	63.7	15.4	15.8	0.3	0.0	1.1	0.2	0.1	2.1	100.0 (3,814,025)
	한부모 조손	1.0	68.9	13.9	12.4	0.4	1.0	0.6	0.7	0.0	1.2	100.0 (627,538)

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만 9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진로성숙도는 66점이 최고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39.92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진로성숙도(9-17세)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9.92	7.88	5,505,142
아동성별	남자	39.50	7.67	2,897,704
	여자	40.39	8.09	2,607,438
연령	9-11세	39.14	8.22	1,546,503
	12-17세	40.23	7.72	3,958,639
소득수준1	빈곤	40.52	8.03	269,146
	일반	39.89	7.87	5,235,996
소득수준2	기초수급	40.36	7.88	194,415
	차상위	40.91	8.41	74,731
	일반	39.89	7.87	5,235,996
지역	대도시	40.29	8.06	2,404,831
	중소도시	39.86	7.79	2,761,142
	농어촌	37.81	6.96	339,169
가족유형	일반	39.89	7.85	4,680,979
	한부모·조손	40.17	8.05	771,512

만 9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로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급학교로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평균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5.8%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범주는 모두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9세에서 17세 대부분의 아동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4〉 진로계획(9-17세)

(단위: %, 명)

구분		상급학교 로 진학할 것이다	취업할 것이다 (가업포함)	창업할 것이다	파트타임 아르바이 트를 하며 지낼 것이다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것이다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기타	계 (명)
전체		89.2	5.8	0.6	0.6	0.2	0.1	3.0	0.5	100.0 (5,475,896)
아동 성별	남자	87.0	7.6	0.5	0.4	0.4	0.0	3.3	0.8	100.0 (2,875,074)
	여자	91.6	3.8	0.7	0.8	0.0	0.2	2.8	0.2	100.0 (2,600,822)
연령	9-11세	91.3	4.7	1.0	0.2	0.0	0.0	2.6	0.2	100.0 (1,538,443)
	12-17세	88.3	6.3	0.4	0.7	0.3	0.2	3.2	0.7	100.0 (3,937,453)
소득 수준 ¹	빈곤	78.3	12.0	1.4	0.8	0.0	0.1	6.1	1.3	100.0 (266,473)
	일반	89.7	5.5	0.5	0.6	0.2	0.1	2.9	0.5	100.0 (5,209,423)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78.9	11.8	1.9	0.8	0.0	0.1	5.3	1.2	100.0 (194,118)
	차상위	76.7	12.5	0.0	0.7	0.0	0.0	8.4	1.8	100.0 (72,355)
	일반	89.7	5.5	0.5	0.6	0.2	0.1	2.9	0.5	100.0 (5,209,423)
지역	대도시	88.7	7.2	0.4	0.2	0.1	0.2	2.7	0.5	100.0 (2,395,967)
	중소도시	89.1	5.0	0.7	0.8	0.3	0.0	3.4	0.6	100.0 (2,741,525)
	농어촌	93.1	2.6	0.3	1.1	0.0	0.0	2.6	0.4	100.0 (338,404)
가족 유형	양부모	90.1	5.3	0.6	0.6	0.2	0.1	2.4	0.6	100.0 (4,660,662)
	한부모 ·조손	82.5	9.6	0.3	0.2	0.0	0.0	7.0	0.4	100.0 (762,583)

제2절 아르바이트

1.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은 만1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중 7.6%만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92.4% 아동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유무는 가족유형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일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표 12-5〉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12-17세 아동용)

(단위: %, 명)

구분		해본적 없다	해본적 있다	계 (명)
전체		92.4	7.6	100.0 (3,909,807)
아동성별	남자	93.3	6.7	100.0 (2,074,549)
	여자	91.4	8.6	100.0 (1,835,259)
연령	12-17세	92.4	7.6	100.0 (3,909,807)
소득수준1	빈곤	83.4	16.6	100.0 (222,596)
	일반	93.0	7.0	100.0 (3,687,211)
소득수준2	기초수급	86.8	13.2	100.0 (153,795)
	차상위	75.9	24.1	100.0 (68,801)
	일반	93.0	7.0	100.0 (3,687,211)
지역	대도시	89.3	10.7	100.0 (1,689,507)
	중소도시	94.8	5.2	100.0 (1,974,270)
	농어촌	94.9	5.1	100.0 (246,030)
가족유형	양부모	93.6	6.4	100.0 (3,276,055)
	한부모·조손	85.8	14.2	100.0 (597,073)

2.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식당, 레스토랑 및 카페 서빙 경험이 평균 4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단지 돌리기가 1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편의점이나 가게판매원이 평균 15.7%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6〉 아르바이트 종류(12-17세 아동용)

(단위: %, 명)

구분		사무 업무 보조	PC방, 비디오 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	식당, 레스 토랑, 카페 서빙	편의점, 가게 판매원	신문, 우유, 피자, 음식 배달	전단지 돌리기	물건 포장 이나 운반	건설 현장 노동	주유소 주유원	기타	계(명)
전체		4.6	8.1	45.5	15.7	0.8	16.8	3.0	4.5	0.6	0.5	100.0 (211,942)
아동 성별	남자	9.8	10.0	45.4	7.2	1.8	14.7	0.8	9.7	0.9	0.0	100.0 (98,625)
	여자	0.0	6.4	45.6	23.1	0.0	18.7	4.9	0.0	0.4	0.9	100.0 (113,317)
연령	12-17세	4.6	8.1	45.5	15.7	0.8	16.8	3.0	4.5	0.6	0.5	100.0 (211,942)
소득 수준 ¹	빈곤	0.0	0.0	57.5	17.8	5.4	9.5	2.4	0.0	4.2	3.3	100.0 (31,894)
	일반	5.4	9.5	43.3	15.3	0.0	18.1	3.1	5.3	0.0	0.0	100.0 (180,048)
소득 수준 ²	기초수급	0.0	0.0	49.7	21.2	4.5	13.0	4.2	0.0	7.4	0.0	100.0 (18,098)
	차상위	0.0	0.0	67.6	13.4	6.6	4.9	0.0	0.0	0.0	7.6	100.0 (13,796)
	일반	5.4	9.5	43.3	15.3	0.0	18.1	3.1	5.3	0.0	0.0	100.0 (180,048)
지역	대도시	0.0	13.0	48.6	12.6	1.6	17.2	6.1	0.0	0.0	1.0	100.0 (103,823)
	중소도시	9.6	3.6	40.6	19.9	0.0	15.6	0.0	9.4	1.3	0.0	100.0 (101,312)
	농어촌	0.0	0.0	69.7	0.0	1.1	29.2	0.0	0.0	0.0	0.0	100.0 (6,806)
가족 유형	양부모	6.6	10.2	44.9	15.6	0.3	11.8	4.3	6.5	0.0	0.0	100.0 (146,998)
	한부모 ·조손	0.0	3.3	46.9	15.9	2.0	28.3	0.0	0.0	2.1	1.6	100.0 (64,944)

3.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

아르바이트를 경험 한 아동을 대상으로 경험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79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기간은 가족유형을 제외하고 성별,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부모·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평균 26.59일로 나타났지만 양부모가족에 속하는 아동은 평균 53.89일로 나타났다.

〈표 12-7〉 아르바이트 경험 기간 일/년(12-17세 아동용)

(단위: 일,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45.79	110.42	218,902
아동성별	남자	64.16	150.10	105,585
	여자	28.68	44.21	113,317
소득 수준1	빈곤	47.40	69.98	31,894
	일반	45.52	115.92	187,008
소득 수준2	기초수급	51.58	64.00	18,098
	차상위	41.93	76.78	13,796
	일반	45.52	115.92	187,008
지역	대도시	67.86	145.69	110,783
	중소도시	24.31	45.06	101,312
	농어촌	6.30	10.74	6,806
가족유형	양부모	53.89	126.24	153,958
	한부모·조손	26.59	52.84	64,944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1일당 평균 5.12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또한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⁹⁾.

〈표 12-8〉 하루평균 아르바이트 시간(12~17세 아동용)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5.12	2.90	218,902
아동성별	남자	5.47	3.16	105,585
	여자	4.80	2.59	113,317
연령	12~17세	5.12	2.90	218,902
소득수준 ¹	빈곤	6.06	2.82	31,894
	일반	4.96	2.88	187,008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5.85	2.47	18,098
	차상위	6.34	3.21	13,796
	일반	4.96	2.88	187,008
지역	대도시	4.81	3.07	110,783
	중소도시	5.29	2.65	101,312
	농어촌	7.69	2.00	6,806
가족유형	양부모	5.02	2.69	153,958
	한부모·조손	5.36	3.33	64,944

29) 예외적으로 지역 간에는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사례가 3 사례로,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어려움.

4. 아르바이트 임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금이 시간당 5,415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아르바이트 임금 또한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9〉 아르바이트 임금(12-17세 아동용)

(단위: 원, 명)

구분		평균(원/시간)	표준편차	명
전체		5,414.60	2,631.35	218,902
아동성별	남자	6,122.73	3,594.02	105,585
	여자	4,754.78	661.31	113,317
연령	12-17세	5,414.60	2,631.35	218,902
소득수준1	빈곤	4,976.53	747.09	31,894
	일반	5,489.31	2,823.36	187,008
소득수준2	기초수급	4,856.37	715.39	18,098
	차상위	5,134.15	758.43	13,796
	일반	5,489.31	2,823.36	187,008
지역	대도시	5,652.65	3,206.88	110,783
	중소도시	5,187.97	1,892.37	101,312
	농어촌	4,913.26	236.59	6,806
가족유형	양부모	5,674.84	3,032.37	153,958
	한부모·조손	4,797.65	999.23	64,944

5. 아르바이트 진로 선택 도움정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13.6%가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4.5%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80% 이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진로선택 도움정도는 평균 1.9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 범주에 가깝게 응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가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외적으로 지역 간에는 아르바이트가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아르바이트가 진로선택에 도움 주는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⁰⁾.

〈표 12-10〉 아르바이트 진로 선택 도움정도(12-17세 아동용)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SD)
전체		30.9	51.0	13.6	4.5	100.0 (218,564)	1.92 (0.79)
아동성별	남자	28.4	49.5	22.1	0.0	100.0 (105,247)	1.94 (0.71)
	여자	33.2	52.4	5.8	8.7	100.0 (113,317)	1.90 (0.85)
연령	12-17세	30.9	51.0	13.6	4.5	100.0 (218,564)	1.92 (0.79)
소득수준 ¹⁾	빈곤	48.7	39.7	11.6	0.0	100.0 (31,556)	1.63 (0.68)
	일반	27.9	52.9	14.0	5.3	100.0 (187,008)	1.97 (0.79)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38.8	43.8	17.4	0.0	100.0 (17,759)	1.79 (0.72)
	차상위	61.5	34.4	4.1	0.0	100.0 (13,796)	1.43 (0.57)
	일반	27.9	52.9	14.0	5.2	100.0 (187,008)	1.97 (0.79)
지역	대도시	42.8	56.2	1.1	0.0	100.0 (110,445)	1.58 (0.51)
	중소도시	17.7	46.6	26.1	9.7	100.0 (101,312)	2.28 (0.86)
	농어촌	35.2	32.5	32.3	0.0	100.0 (6,806)	1.97 (0.80)
가족유형	양부모	23.9	55.6	14.2	6.4	100.0 (153,620)	2.03 (0.80)
	한부모·조손	47.5	40.1	12.4	0.0	100.0 (64,944)	1.65 (0.69)

30)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사례가 3 사례로, 집단간 차이 분석의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어려움

6. 아르바이트 후 학업변화

아르바이트 경험 후 좋아하는 교과목을 알게 된 정도는 평균 1.66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후에 좋아하는 교과목을 알게 된 정도가 평균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범주 사이의 값 중에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 후 좋아하는 교과목을 알게 된 정도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아르바이트 경험 후 좋아하는 교과목을 알게 된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1〉 아르바이트 경험 후 좋아하는 과목을 알게 됨(12-17세 아동용)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SD)
전체		45.0	44.3	10.5	0.3	100.0 (218,564)	1.66 (0.67)
아동성별	남자	45.2	42.9	11.9	0.0	100.0 (105,247)	1.67 (0.68)
	여자	44.7	45.6	9.2	0.5	100.0 (113,317)	1.65 (0.66)
연령	12-17세	45.0	44.3	10.5	0.3	100.0 (218,564)	1.66 (0.67)
소득수준 ¹	빈곤	51.2	42.8	4.2	1.8	100.0 (31,556)	1.57 (0.66)
	일반	43.9	44.5	11.6	0.0	100.0 (187,008)	1.68 (0.67)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37.1	55.5	7.5	0.0	100.0 (17,759)	1.70 (0.60)
	차상위	69.5	26.4	0.0	4.1	100.0 (13,796)	1.39 (0.70)
	일반	43.9	44.5	11.6	0.0	100.0 (187,008)	1.68 (0.67)
지역	대도시	64.4	33.1	2.5	0.0	100.0 (110,445)	1.38 (0.54)
	중소도시	22.5	57.2	19.7	0.6	100.0 (101,312)	1.98 (0.67)
	농어촌	64.4	33.5	2.1	0.0	100.0 (6,806)	1.38 (0.53)
가족유형	양부모	41.1	46.2	12.7	0.0	100.0 (153,620)	1.72 (0.68)
	한부모·조손	54.2	39.8	5.1	0.9	100.0 (64,944)	1.53 (0.64)

아르바이트 경험 후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도는 평균 2.02로 ‘그렇지 않다’ 범주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 후 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 정도로 12세에서 17세 조사대상 아동의 1/3 이상이다.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12〉 아르바이트 경험 후 학교 교육 중요성 인식 정도(12-17세 아동용)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SD)
전체		36.1	29.4	30.9	3.7	100.0 (218,564)	2.02 (0.90)
아동성별	남자	29.0	28.8	36.3	5.9	100.0 (105,247)	2.19 (0.92)
	여자	42.6	29.9	25.9	1.6	100.0 (113,317)	1.86 (0.86)
연령	12-17세	36.1	29.4	30.9	3.7	100.0 (218,564)	2.02 (0.90)
소득수준1	빈곤	22.2	19.3	49.6	8.9	100.0 (31,556)	2.45 (0.93)
	일반	38.4	31.1	27.8	2.8	100.0 (187,008)	1.95 (0.88)
소득수준2	기초수급	23.6	23.8	46.2	6.4	100.0 (17,759)	2.35 (0.91)
	차상위	20.4	13.6	54.0	12.0	100.0 (13,796)	2.58 (0.94)
	일반	38.4	31.1	27.8	2.8	100.0 (187,008)	1.95 (0.88)
지역	대도시	56.5	11.0	28.6	3.9	100.0 (110,445)	1.80 (0.98)
	중소도시	15.4	49.2	33.9	1.5	100.0 (101,312)	2.22 (0.71)
	농어촌	11.6	31.7	25.2	31.5	100.0 (6,806)	2.77 (1.02)
가족유형	양부모	37.0	27.6	31.5	3.9	100.0 (153,620)	2.02 (0.92)
	한부모·조손	33.8	33.6	29.4	3.2	100.0 (64,944)	2.02 (0.87)

아르바이트 경험 후 성적이 나빠진 정도는 평균 1.63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사이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 범주에 약간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 후 성적이 나빠진 정도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 및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13〉 아르바이트 경험 후 성적이 나빠짐(12-17세 아동용)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SD)
전체		43.93	49.66	6.16	0.26	100.0 (218,564)	1.63 (0.61)
아동성별	남자	47.59	42.10	10.31	0.00	100.0 (105,247)	1.63 (0.66)
	여자	40.52	56.67	2.31	0.50	100.0 (113,317)	1.63 (0.56)
연령	12-17세	43.93	49.66	6.16	0.26	100.0 (218,564)	1.63 (0.61)
소득수준 ¹	빈곤	37.37	57.26	3.57	1.80	100.0 (31,556)	1.70 (0.62)
	일반	45.03	48.37	6.60	0.00	100.0 (187,008)	1.62 (0.61)
소득수준 ²	기초수급	34.17	59.49	6.34	0.00	100.0 (17,759)	1.72 (0.57)
	차상위	41.50	54.39	0.00	4.11	100.0 (13,796)	1.67 (0.68)
	일반	45.03	48.37	6.60	0.00	100.0 (187,008)	1.62 (0.61)
지역	대도시	63.92	24.06	12.01	0.00	100.0 (110,445)	1.48 (0.70)
	중소도시	21.47	77.97	0.00	0.56	100.0 (101,312)	1.80 (0.44)
	농어촌	53.69	43.45	2.85	0.00	100.0 (6,806)	1.49 (0.55)
가족유형	양부모	47.19	46.76	6.05	0.00	100.0 (153,620)	1.59 (0.60)
	한부모·조손	36.20	56.51	6.42	0.87	100.0 (64,944)	1.72 (0.62)

제3절 소결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높지 않은 편이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동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도나, 학교교육의 중요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이 높지 않다. 아르바이트 경험이후에 학교성적이 나빠졌는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응답률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첫째,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향후 본인이 원하는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실태조사에서 12세와 17세 사이의 아동 중 2/3 이상은 전문직을 계획하고 원하고 있다. 그러나 2/3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문직보다는 식당, 레스토랑 및 카페 서빙이나 전단지 돌기기이다. 아동이 원하는 진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13장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환경

제1절 주거생활

제2절 지역사회 환경

제3절 소결

13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환경 <<

본 장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 가구의 주거생활 및 지역사회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 점유 형태와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지역사회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내 생활환경(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근접성)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만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응집력)을 살펴보았다.

제1절 주거생활

1. 주거 실태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 점유 형태와 방의 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 점유형태의 결과는 <표 1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의 35.4%가 보증부월세, 그 다음이 월세(25.0%), 전세(21.2%) 순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가구의 경우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세와 보증부월세가 그 뒤를 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자가인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59.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계 (명)
전체		57.1	31.1	5.0	5.2	1.5	100.0 (9,655,513)
소득수준1	빈곤	10.4	23.5	31.5	27.2	7.4	100.0 (375,129)
	일반	59.0	31.4	3.9	4.3	1.3	100.0 (9,280,384)
소득수준2	기초수급	9.2	21.2	35.4	25.0	9.1	100.0 (246,418)
	차상위	12.6	27.8	24.0	31.2	4.3	100.0 (128,711)
	일반	59.0	31.4	3.9	4.3	1.3	100.0 (9,280,384)
지역	대도시	53.4	33.2	6.1	5.3	2.0	100.0 (4,210,537)
	중소도시	59.1	30.2	4.1	5.5	1.1	100.0 (4,857,432)
	농어촌	66.6	24.2	4.8	2.4	2.0	100.0 (587,544)
2008년		56.9	28.4	7.6	4.2	2.8	100.0 (11,349,476)

다음으로 방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방의 수가 3개인 가구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67.8%)인 것으로 나타났고, 2개인 가구는 28.4%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방이 2개인 경우가 65.2%로 가장 높았고, 3개인 경우가 27.5%, 차상위가구의 경우도 방이 2개인 경우(59.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는 방이 3개인 경우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1~2개인 가구는 약 2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 방의 수

(단위: %, 명)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 (명)
전체		0.7	28.4	67.8	2.8	0.3	100.0 (9,658,394)
소득수준1	빈곤	7.0	63.3	28.6	0.8	0.2	100.0 (375,678)
	일반	0.4	27.0	69.4	2.9	0.3	100.0 (9,282,716)
소득수준2	기초수급	6.2	65.2	27.5	0.9	0.2	100.0 (246,937)
	차상위	8.6	59.8	30.8	0.5	0.3	100.0 (128,741)
	일반	0.4	27.0	69.4	2.9	0.3	100.0 (9,282,716)
지역	대도시	0.7	29.3	66.5	3.1	0.3	100.0 (4,213,766)
	중소도시	0.6	28.6	68.1	2.5	0.2	100.0 (4,858,865)
	농어촌	1.0	20.7	74.5	3.6	0.2	100.0 (585,764)
2008년		1.1	28.9	62.9	6.3	0.9	100.0 (11,349,476)

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다음으로 조사 응답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와 성능 그리고 환경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13-3〉부터 〈표 13-6〉까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의 견고성 및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92%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도 90% 대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수준 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양호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70%대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3〉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92.0	8.0	100.0 (9,670,353)
소득수준1	빈곤	75.1	24.9	100.0 (375,867)
	일반	92.7	7.3	100.0 (9,294,486)
소득수준2	기초수급	76.5	23.5	100.0 (247,341)
	차상위	72.2	27.8	100.0 (128,527)
	일반	92.7	7.3	100.0 (9,294,486)
지역	대도시	92.8	7.2	100.0 (4,218,605)
	중소도시	91.2	8.8	100.0 (4,861,396)
	농어촌	93.1	6.9	100.0 (590,352)
2008년		84.4	15.6	100.0 (11,349,476)

다음으로 주택이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3.1%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는 일반가구는 6.2%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0%대로 나타나 일반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4〉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93.1	6.9	100.0 (9,666,104)
소득수준1	빈곤	75.0	25.0	100.0 (375,867)
	일반	93.8	6.2	100.0 (9,290,2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75.8	24.2	100.0 (247,341)
	차상위	73.5	26.5	100.0 (128,527)
	일반	93.8	6.2	100.0 (9,290,236)
지역	대도시	93.4	6.6	100.0 (4,218,605)
	중소도시	92.7	7.3	100.0 (4,857,146)
	농어촌	94.1	5.9	100.0 (590,352)
2008년		85.8	14.2	100.0 (11,349,476)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6.2%로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경우는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1.1%로 다른 지역에서 응답한 비율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5〉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36.2	63.8	100.0 (9,663,250)
소득수준1	빈곤	39.6	60.4	100.0 (375,867)
	일반	36.1	63.9	100.0 (9,287,382)
소득수준2	기초수급	39.6	60.4	100.0 (247,341)
	차상위	39.8	60.2	100.0 (128,527)
	일반	36.1	63.9	100.0 (9,287,382)
지역	대도시	31.8	68.2	100.0 (4,215,752)
	중소도시	41.1	58.9	100.0 (4,857,146)
	농어촌	28.2	71.8	100.0 (590,352)
2008년		10.3	89.7	100.0 (11,349,476)

마지막으로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3%였다. 소득수준 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5.9%, 17.5%로 일반가구와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6〉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93.3	6.7	100.0 (9,663,325)
소득수준1	빈곤	83.5	16.5	100.0 (375,867)
	일반	93.7	6.3	100.0 (9,287,457)
소득수준2	기초수급	84.1	15.9	100.0 (247,341)
	차상위	82.5	17.5	100.0 (128,527)
	일반	93.7	6.3	100.0 (9,287,457)
지역	대도시	91.2	8.8	100.0 (4,218,605)
	중소도시	94.7	5.3	100.0 (4,855,922)
	농어촌	96.0	4.0	100.0 (588,797)
2008년		91.8	8.2	100.0 (11,349,476)

제2절 지역사회 환경

1. 지역 내 생활환경

응답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내 생활환경에 관한 응답 결과는 <표 13-7>에서부터 <표 13-12>까지 제시되어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시립체육관, 도서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8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0%대로 일반가구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편리한 곳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13-7> 문화체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82.4	17.6	100.0 (9,666,104)
소득수준1	빈곤	72.2	27.8	100.0 (375,867)
	일반	82.8	17.2	100.0 (9,290,2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71.7	28.3	100.0 (247,341)
	차상위	73.2	26.8	100.0 (128,527)
	일반	82.8	17.2	100.0 (9,290,236)
지역	대도시	87.5	12.5	100.0 (4,218,605)
	중소도시	79.9	20.1	100.0 (4,857,146)
	농어촌	66.2	33.8	100.0 (590,352)
2008년		62.9	37.1	100.0 (11,349,476)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7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수준이나 지역별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기초수급가구가 차상위가구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30%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8〉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76.3	23.7	100.0 (9,655,604)
소득수준1	빈곤	67.4	32.6	100.0 (375,867)
	일반	76.7	23.3	100.0 (9,279,737)
소득수준2	기초수급	66.4	33.6	100.0 (247,341)
	차상위	69.2	30.8	100.0 (128,527)
	일반	76.7	23.3	100.0 (9,279,737)
지역	대도시	83.9	16.1	100.0 (4,218,605)
	중소도시	71.6	28.4	100.0 (4,846,646)
	농어촌	60.6	39.4	100.0 (590,352)
2008년		57.1	42.9	100.0 (11,349,476)

병원이나 보건소 등과 같은 의료기관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3-9〉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9.8%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경우 이용하기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10%로 나타났으나,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약 15%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표 13-9〉 의료기관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89.8	10.2	100.0 (9,666,104)
소득수준1	빈곤	83.5	16.5	100.0 (375,867)
	일반	90.0	10.0	100.0 (9,290,2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84.5	15.5	100.0 (247,341)
	차상위	81.7	18.3	100.0 (128,527)
	일반	90.0	10.0	100.0 (9,290,236)
지역	대도시	92.8	7.2	100.0 (4,218,605)
	중소도시	88.7	11.3	100.0 (4,857,146)
	농어촌	77.0	23.0	100.0 (590,352)
2008년		57.1	42.9	100.0 (11,349,476)

다음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 등과 같은 교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7%는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경우, 교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약 10% 대로 일반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교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10〉 교육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90.7	9.3	100.0 (9,665,928)
소득수준1	빈곤	87.9	12.1	100.0 (375,692)
	일반	90.8	9.2	100.0 (9,290,2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88.1	11.9	100.0 (247,165)
	차상위	87.7	12.3	100.0 (128,527)
	일반	90.8	9.2	100.0 (9,290,236)
지역	대도시	92.9	7.1	100.0 (4,218,605)
	중소도시	90.2	9.8	100.0 (4,856,970)
	농어촌	79.3	20.7	100.0 (590,352)
2008년		85.9	14.1	100.0 (11,349,476)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어촌의 경우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5.8%로 나타났다.

〈표 13-11〉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94.1	5.9	100.0 (9,666,104)
소득수준1	빈곤	90.8	9.2	100.0 (375,867)
	일반	94.3	5.7	100.0 (9,290,2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90.5	9.5	100.0 (247,341)
	차상위	91.4	8.6	100.0 (128,527)
	일반	94.3	5.7	100.0 (9,290,236)

지역	대도시	94.9	5.1	100.0 (4,218,605)
	중소도시	94.7	5.3	100.0 (4,857,146)
	농어촌	84.2	15.8	100.0 (590,352)
2008년		89.4	10.6	100.0 (11,349,476)

마지막으로 공원이나 녹지 등의 자연환경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8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소득수준이나 지역별로도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12〉 자연환경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87.3	12.7	100.0 (9,661,012)
소득수준1	빈곤	84.6	15.4	100.0 (375,830)
	일반	87.4	12.6	100.0 (9,285,182)
소득수준2	기초수급	84.9	15.1	100.0 (247,303)
	차상위	84.0	16.0	100.0 (128,527)
	일반	87.4	12.6	100.0 (9,285,182)
지역	대도시	86.5	13.5	100.0 (4,213,551)
	중소도시	88.5	11.5	100.0 (4,857,109)
	농어촌	83.1	16.9	100.0 (590,352)
2008년		80.4	19.6	100.0 (11,349,476)

2.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환경은 아동의 주양육자와 더불어 자가 응답이 가능한 만 9세에서 만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문항은 2008년의 지역사회환경에 관한 문항 및 Ross와 Mirowsky(1999)의 이웃무질서 인지척도, Silver와 Miller(2004)의 지역사회 환경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국내 상황에 맞는 문항을 채택하여 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지역사회 환경 문항은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만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응집력으로 요인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 문항은 2점 척도로 예(1), 아니오(0)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 요인과 내용을 살펴보면 〈표 13-13〉과 같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각 요인별 평균 점수를 통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3-13〉 지역사회 환경의 요인 및 문항 내용

구분	문항 내용
지역사회 무질서	우리 동네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쉽게 일어난다
지역사회 만족	나는 우리 동네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	동네 아이들이 어른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 잡아줄 것이다
	동네 아이들이 술 담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 잡아줄 것이다
지역사회 응집력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낸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만하다

〈표 13-14〉부터 〈표 13-17〉은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지역사회 무질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관한 인식은 2008년의 결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과 응집력은 2013년의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역사회 무질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서 지역사회 내의 무질서 점수가 각각 0.35점, 0.40점을 보여 일반이 0.25점인 데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지역사회 무질서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중소도시는 0.28점, 대도시는 0.25점으로 농어촌 보다는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13-14〉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

구분		지역사회 무질서		
		평균	SD	명
전체		0.26	0.38	9,661,049
소득수준1	빈곤	0.37	0.43	375,867
	일반	0.25	0.38	9,285,182
소득수준2	기초수급	0.35	0.42	247,341
	차상위	0.40	0.45	128,527
	일반	0.25	0.38	9,285,182
지역	대도시	0.25	0.38	4,213,551
	중소도시	0.28	0.39	4,857,146
	농어촌	0.18	0.34	590,352
2008년		0.44	0.45	7,718,975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다음으로 지역사회 만족은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가구의 경우는 0.80점으로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도시의 경우는 0.83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3-15〉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만족

구분		지역사회 만족		
		평균	SD	명
전체		0.80	0.31	9,666,104
소득수준1	빈곤	0.70	0.35	375,867
	일반	0.81	0.30	9,290,2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0.70	0.34	247,341
	차상위	0.70	0.36	128,527
	일반	0.81	0.30	9,290,236
지역	대도시	0.83	0.29	4,218,605
	중소도시	0.78	0.32	4,857,146
	농어촌	0.76	0.32	590,352
2008년		0.62	0.43	8,811,908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소득수준별로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이 전체 평균(0.40점)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은 0.62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3-16〉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구분		비공식적 사회통제		
		평균	SD	명
전체		0.40	0.45	9,666,104
소득수준1	빈곤	0.70	0.35	375,867
	일반	0.81	0.30	9,290,236

구분		비공식적 사회통제		
		평균	SD	명
소득수준2	기초수급	0.35	0.43	247,341
	차상위	0.35	0.43	128,527
	일반	0.41	0.45	9,290,236
지역	대도시	0.42	0.45	4,218,605
	중소도시	0.36	0.44	4,857,146
	농어촌	0.62	0.44	590,352
2008년		0.50	0.46	8,177,077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응집력은 기초수급가구(0.64점)가 차상위가구(0.70점)나 일반가구(0.78점)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0.84점)의 경우 대도시(0.78점)나 중소도시(0.76점)보다는 그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7〉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응집력

구분		지역사회 응집력		
		평균	SD	명
전체		0.77	0.38	9,664,991
소득수준1	빈곤	0.66	0.44	374,755
	일반	0.78	0.37	9,290,236
소득수준2	기초수급	0.64	0.44	246,228
	차상위	0.70	0.42	128,527
	일반	0.78	0.37	9,290,236
지역	대도시	0.78	0.37	4,218,605
	중소도시	0.76	0.38	4,856,033
	농어촌	0.84	0.33	590,352
2008년		0.73	0.40	9,592,019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다음으로 2008년 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주양육자에게만 질문했지만, 2013년 조사에는 만9세~만17세 아동에게도 주양육자와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응답 결과는 <표 13-18>부터 <표 13-21>까지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무질서의 경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아동이 인지하는 수준이 일반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그 수준이 낮았다.

<표 13-18>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

구분		지역사회 무질서		
		평균	SD	명
전체		0.23	0.36	5,493,776
아동 성별	남자	0.23	0.37	2,886,338
	여자	0.22	0.36	2,607,438
연령	9-11세	0.24	0.37	1,546,503
	12-17세	0.22	0.36	3,947,272
소득수준1	빈곤	0.31	0.40	269,146
	일반	0.22	0.36	5,224,630
소득수준2	기초수급	0.30	0.40	194,415
	차상위	0.34	0.41	74,731
	일반	0.22	0.36	5,224,630
지역	대도시	0.23	0.37	2,393,465
	중소도시	0.23	0.36	2,761,142
	농어촌	0.15	0.31	339,169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지역사회 만족은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속한 아동은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기초수급 0.61, 차상위 0.56)을 보였으며 일반가구의 아동(0.70)은 전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13-19〉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만족

구분		지역사회 만족		
		평균	SD	명
전체		0.69	0.41	5,493,776
아동 성별	남자	0.71	0.40	2,886,338
	여자	0.68	0.41	2,607,438
연령	9-11세	0.75	0.39	1,546,503
	12-17세	0.67	0.41	3,947,272
소득수준1	빈곤	0.60	0.42	269,146
	일반	0.70	0.41	5,224,630
소득수준2	기초수급	0.61	0.43	194,415
	차상위	0.56	0.42	74,731
	일반	0.70	0.41	5,224,630
지역	대도시	0.70	0.41	2,393,465
	중소도시	0.69	0.41	2,761,142
	농어촌	0.74	0.38	339,169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비공식적 사회통제도 지역사회 만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아동은 각각 0.29, 0.30점으로 일반가구의 아동(0.34)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0.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20〉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구분		비공식적 사회통제		
		평균	SD	명
전체		0.34	0.43	5,478,180
아동 성별	남자	0.33	0.43	2,880,082
	여자	0.34	0.43	2,598,098
연령	9-11세	0.39	0.45	1,546,503
	12-17세	0.32	0.43	3,931,677
소득수준1	빈곤	0.29	0.40	268,592
	일반	0.34	0.44	5,209,588
소득수준2	기초수급	0.29	0.40	193,861
	차상위	0.30	0.38	74,731
	일반	0.34	0.44	5,209,588
지역	대도시	0.36	0.44	2,393,465
	중소도시	0.30	0.42	2,745,546
	농어촌	0.47	0.46	339,169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응집력을 살펴보면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아동은 지역사회 응집력 수준은 각각 0.55점, 0.49점으로 일반가구의 아동(0.68)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이 지역사회 응집력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0.74).

〈표 13-21〉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응답 결과: 지역사회 응집력

구분		지역사회 응집력		
		평균	SD	명
전체		0.67	0.43	5,493,130
아동 성별	남자	0.69	0.41	2,886,246
	여자	0.65	0.44	2,606,884
연령	9-11세	0.74	0.39	1,546,412
	12-17세	0.65	0.44	3,946,718
소득수준1	빈곤	0.53	0.45	268,500
	일반	0.68	0.42	5,224,630
소득수준2	기초수급	0.55	0.45	193,769
	차상위	0.49	0.46	74,731
	일반	0.68	0.42	5,224,630
지역	대도시	0.69	0.42	2,393,465
	중소도시	0.65	0.43	2,760,496
	농어촌	0.74	0.40	339,169

주: 1점 만점, 최대값1, 최소값0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주거생활 실태(점유형태, 방의 수, 주택 구조 및 성능 등)와 지역 내 생활환경, 지역사회환경에 관한 주양육자 및 아동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자가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는 일반 가구만이 자가로 주거를 점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보증부 월세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의 수 역시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방이 하나인 경우도 일반 가구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주택의

구조와 성능 및 환경은 대부분이 양호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양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구의 아동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생활에서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하다는 경향성은 지역사회 환경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 자연환경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가구로 볼 때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소득수준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빈곤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일반가구와 지역규모가 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인식(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만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응집력)은 주양육자 및 아동 모두에게 질문하였는데, 소득수준 및 지역별로 비슷한 경향성을 띄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와 같은 빈곤가구의 아동은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높고 지역 내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나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빈곤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선행연구들(강현아, 2010; 김영미, 2010; 하태정·강현아, 2012; Massey & Denton, 1993)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며, 본 조사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빈곤 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빈곤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 및 지역 주민들 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14장

결론: 논의 및 정책제언

제1절 논의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논의

본 연구에서의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생태체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약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공격성 및 우울, 행복도나 만족도, 자존감 및 유능감 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이 보편화됨에 따라 아동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경우는 중독률이 급증한 상황이다.

모든 영역에서 공통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디지털 중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취약계층의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빈곤층과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계층 및 해체가족 아동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이 영역별로 매우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는데 있다. 아동의 주관적 건강의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나, 주관적 웰빙과 결핍 면에서는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최하위에 있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고 이는 학업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여가활동의 부족과 긴 학업시간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여가생활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과후의 경우는 아동과 주양육자의 욕구가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아동은 보다 많은 휴식을 원하고 있는 반면, 주양육자의 방과후에도 학업을 보충하기 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주양육자의 욕구 변화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주양육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다음 절에서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빈곤아동가족 지원

가. 현금지원 확대 및 소득활동보장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제고

아동이 있는 기초수급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양부모가족보다 월평균 소득이 1.9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있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가구원의 소득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손가족의 경우, 가구주가 노인이기 때문에 근로를 통한 지원보다 이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육아휴직급여 및 보육가사서비스지출확대를 통한 아동빈곤율 제고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10년 동안 빈곤율의 감소폭이 매우 작다.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빈곤율이 11.7%임을 감안하면 2013년도와 비교시 아동빈곤율 감소폭은 2.3%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시행된 아동빈곤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빈곤율 감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아동가구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현금지원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아동가족복지지출 항목 중 육아휴직급여지출비중과 보육가사서비스 지출비중은 아동빈곤율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김미숙 외, 2012). 아동빈곤율이 낮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경우에는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높고, 가구원의 근로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육

아휴직급여지출비중과 보육가사서비스 지출비중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기간 동안 육아 및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근로의욕을 낮추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노력이 아동빈곤율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2. 삶의 질 제고 및 스트레스 완화

가. 아동의 삶의 질 제고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UNICEF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의 웰빙을 측정하는 7가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위험행동이나 주관적 건강 차원은 매우 좋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물질적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은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경제수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는 친구관계, 여가활동이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활동은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 수준에서 가장 높은 결핍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동의 삶의 생활시간 및 활동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과중한 학업 및 사교육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여가활동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이 개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아동의 친구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중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현물 및 현금지원을 통해서 아동이 상대적인 박탈이 완화되어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가생활 보장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시간은 국제적으로 매우 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방과후에도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문제가 아동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삶의 질 수준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긴 학습시간과 아동의 놀 권리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동의 여가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동의 여가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교육 개혁과 과도한 입시경쟁 등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비록 당면한 과제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입시제도와 공교육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선행학습 금지 등의 마련되는 가운데 아동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여가활동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동장 확충, 체육시설 건립, 아동복지센터 건립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조기치료

다행히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우려할 만큼 높지는 않지만, 문제는 지난 5년간의 중독아동의 비율이 급증하였다는데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중독아동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속도로 가면 우리나라 아동의 중독율도 심각한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이 도달되기 전에 아동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아동의 경우는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중독 예방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셧다운제 등 직접적인 대안과 함께 아동의 다른 놀이활동을 통해서 소셜네트워크에의 접속시간을 줄이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 쪽지에서 제안하였듯이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생활 보장은 여러 측면의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하는데 필수요인이므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생애주기별 아동건강지원정책 강화

가. 신생아 및 영유아기 건강증진

신생아기의 건강은 이후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기초가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생아기 첫 6개월간은 완전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도 모유수유율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꼭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신생아기의 첫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와 이후 혼합수유 및 이유식 영양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일반가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신생아 및 영유아기 건강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사업이 마련되어 있고, 수검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기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수검홍보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동검진사업 등이 필요할 것이다.

나. 취학 전 및 학령기 아동 건강증진

취학 전 및 학령기 아동의 건강증진의 과제는 신체적 건강증진과 정신적 건강증진이 모두 필요하다. 신체적 건강문제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예방관리, 시력관리, 구강건강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신건강문제는 우울증을 비롯하여 ADHD, 틱장애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모성건강증진 및 양육자 건강지원정책 강화

아동기의 건강은 모성건강과 양육자의 건강상태와도 관련이 많다. 임신기부터 금연과 금주, 정신건강관리 등 양육자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아동의 비만, 안경착용 등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일하는 어머니가 임신직일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가정의 아동의 건강관리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내 아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은 아동 개인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이 주로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가정의 아동은 건강상태뿐 아니라 가족관계 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지원 정책과 주양육자 및 아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의 건강상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취약가정의 아동에게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생활 적응제고

가.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강화

학업성취도는 소득계층과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일수록 일반소득계층이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부모·조손가족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소득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 이용률이 낮으며, 사교육 이용률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는 특히, 영어 및 수학과목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기의 학업성취도는 미래에 취업시장에 진입 및 성취에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아동기의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미래 성인기의 생활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대물림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구 및 한부모·조손가족과 일반계층 및 양부모가족간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영어과목과 수학과목에서 소득계층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 비용부담이 없거나 낮은 상태에서 영어 및 수학과목과 관련한 사교육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나. 학업중단을 감소 정책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조를 통해 학업중단율을 감소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되고 있다. 학업중단 의사는 주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

이 낮을수록,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한부모나 조손가족 아동일수록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은 주로 학습 및 학업부진, 인간관계악화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에 기인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아동에 대한 타겟화된 개입이 필요하며, 학업성취 및 친구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 비행행동 예방 및 감소 정책 강화

가장 높은 비행행동 경험률을 보이는 흡연 및 음주 경험률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및 정책(예. 음주청정지역 확대선정 및 금연구역 지정 확대, 아동 음주·흡연 예방 및 홍보사업 등) 뿐 아니라 다른 비행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비행행동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비행행동간 연관성 역시 높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같은 예방사업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조기 스크리닝 및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 인프라 및 정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다각화된 접근방법 역시 필요하다. 이는 비행행동마다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특성이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정책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놀리기나 왕따, 절도와 같은 비행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9-11세 아동보다 12-17세 아동에게서 비행행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행행동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및 생애주기적 지속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감소 정책 강화

전반적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의 학교폭력 대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휴대폰, SNS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과 학교폭력간의 연관성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9-11세 아동의 학교폭력피해경험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낮은 학교생활만족도 및 높은 우울수준과도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입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 확충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치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학교생활 및 건강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마. 진로이행을 위한 경험기회 확대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높지 않은 편이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동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도나, 학교교육의 중요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이 높지 않다. 아르바이트 경험이후에 학교성적이 나빠졌는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응답률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먼저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아동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향후 본인이 원하는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실태조사에서 12세와 17세 사이의 아동 중 2/3 이상은 전문직을 계획하고 원하고 있다. 그러나 2/3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문직보다는 식당, 레스토랑 및 카페 서빙이나 전단지 돌기이기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충

가. 돌봄서비스 확충 필요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 후 생활 분석결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돌봄서비스의 확충’의 필요성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 아동과 한부모/조손 가정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는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기관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중 특히 차상위 가구 아동의 방과 후 방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상위 가구 아동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돌봄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확충

양부모 가정 아동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아동은 주양육자와 함께 지내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아동의 부인지 모인지에 따라서도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외에 필요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아동이 포함된 가정의 특성을 가장 일선에서 파악하여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양질의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 훈련된 돌봄인력 확충

앞에서 언급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훈련된 돌봄인력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돌봄교사 1명 당 적정아동 수에 대해 아동의 성별 및 연령, 소득수준, 지역크기,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2-5명의 소규모 집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돌봄교사 1명이 돌보고 있는 아동은 20명 이상의 대집단이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돌봄교사의 양적 확대는 물론이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돌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6.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강화

가.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심각성 국민인식 개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양육방법과 긍정적 훈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심각한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특별히 정서적 학대 및 아동방임은 단순히 훈육 및 양육방법뿐 아니라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형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캠페인 등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동안전교육 및 아동안전보호 장비 착용의무 강화

아동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부모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안전사고의 유발요인이 가정내 환경 혹은 부모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동의 실종경험과 관련해서 실종된 장소가 집근처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아동실종이 사람이 붐비는 장소 등 열악한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보호자의 단순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수치였지만 아동의 질식사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부주의한 행동도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영유아 검진시 실시되는 단편적인 지도수준이 아니라, 산전 또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실시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습관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실천율이 높으나, 자동차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특히 0-5세 영유아의 카시트 사용률은 2008년에 비하여 높아졌으나 여전히 6세미만 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는 완전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미만 아동의 보호용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카시트 보급률이 높지 않아 위반단속 등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승차 중 사고의 경우 카시트착용은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법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카시트의 보급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 카시트 보조금 지원제도, 저가형 카시트 보급 등 저소득층의 카시트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아동권리 제고

가. 아동권리관점에서의 아동정책수립 및 아동실태 심층연구 실시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8년보다 다소 낮아진 결과이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기본조건이면서 최소조건은 입법적, 행정적 조치이다. 법과 정책은 아동권리 실현의 근본적인 틀로서 이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아동권리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이재연, 황옥경, 김효진, 2009).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의 기본프레임을 권리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어느 영역에서의 권리가 취약한지, 어떠한 문제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정책의 방향과 집중대상 혹은 영역이 제시될 수 있다. 본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현재 아동의 생활실태, 문제, 욕구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이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좀 더 면밀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아동권리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홍보 실시

우리나라 아동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및 비준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우리나라 아동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권리 당사자인 아동 및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은 아동학대, 학교 폭력, 다문화 존중 등 폭넓게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참여권 행사 등 민주시민 양성의 기본토대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시장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 필요하다.

8. 주거환경 개선방안

가.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주민간 사회적 관계 향상

아동종합실태조사 조사 결과 주양육자와 아동(9세-17세)이 인식한 지역사회 환경은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빈곤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높고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나 지역사회 응집력 역시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더불어 지역 내 생활환경(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는지 여부) 역시 빈곤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공간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이나 지역사회 응집력은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를 통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사업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나. 빈곤가구의 밀집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마련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슬럼가와 같은 지역분화 현상이 뚜렷한 편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의 선택과 외국인 거주지역의 확대 등으로 지역분화 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박윤환, 2011; 하태정·강현아, 2012).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주양육자 및 아동) 결과, 빈곤가구가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았다. 이는 빈곤가구가 취약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역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빈곤가구는 특정지역에 밀집되어있을 확률이 높다.

빈곤가구의 특정 지역 밀집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지역 내에서 혼합될 수 있도록, 일반가구와 혼합된 공간 안에 주거지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빈곤가구가 직접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미국의 MTO (Moving to Opportunity for Fair Housing Demonstration)와 같은 주거정책도 빈곤 계층의 특정지역 밀집 해소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강현아(2010). 빈곤이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pp327-348.
-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에서 2013. 12. 18 인출.
- 김미숙·박능후·노대명·김혜련·김유경·배화옥 외(2009). 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구: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정익중·이주연·하태정(2012).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규모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미(2010). 이웃환경과 청소년의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pp.232-262.
- 김용석(1999). 국내외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코올사용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4), pp.67-88.
- 김정화(2004). 부모의 교육참여와 자녀의 영재성과의 관계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충남대학교.
- 노혜련·김형태·유서구(2006).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Peter Salovey 교수 초청강연 자료집.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서울대학교육연구소.
- _____(1997). 종합적성진로진단검사. 서울: 대교 교육 정보연구소
- 박윤환(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pp.103-122.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2013). 아동복지 척도집 (미간행).
- 손창균 외(2009).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재진 외(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방정환재단
- 오경자·김영아·하은혜·이혜련·홍강의(2010).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YSR). (주) 휴노, 서울.
- 이봉주·곽금주·구인화·김민화·김선숙·김지현·김혜란·박혜준·신혜은·윤명희·이강이·이광호·이순형·정

- 익중·진미정(2008).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재연·황옥경·김효진(2009).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학회지, 30(6), pp.153-165.
- 조맹제·김계희(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pp.381-399.
- 최현수 외(2012).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태정·강현아(2012). 가족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0, pp139-166.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pp.170-189.
- Achenbach, T. M. (1992).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2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Second Edition. WHO.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ependence.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s and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4), pp.610-617.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of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 pp.179-193.
- Massey, D.S. & Denton, N.A.(1993). *American Ap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Cambridge: Havard University.
-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C.E. & Mirowsky, J.(1999). Disorder and Deac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Urban Affairs Review*, 34(3), pp.412-432.
- Salvey, P. & Mayer, J.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 Personality*, 9(3), pp.185-211.
- Schumm, W. R., Scalon, E. D., Crow, C. L., Green, D. M., & Buckler, D. L. (1983).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in a sample of 79 marr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53, pp.583-588.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pp.663-671.
- Silver, E. & Miller, L.L.(2004).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3), pp.551-583.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2, pp.249-270. "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Inc.
- UNICEF (2007).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Report Card 7*,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New league tables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s rich countries. *Report Card 10*,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2013-03*.

부 록 <<

〈부록 1〉 아동종합실태조사 보호자용 조사표: 설문 문항과 문항작성의 근거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과의 관계	출처
	SQ1	아동 생년월일	추가	- 이봉주 외(2008)
	SQ2	주양육자	변경(보기)	- 이봉주 외(2008)
	SQ3	다문화가정 여부	유지	- 이봉주 외(2008)
1. 가구 일반 사항	문1	가구일반사항	유지 및 변경	- 이봉주 외(2008)
2. 사회 성 및 정서	문2	애착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	기질	유지	- Thomas,A.,&Chess,S.(1977)의 부모용유아기 질검사도구 수정 보완한 문항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4	친한 친구 수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5	친구와 노는 빈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	정서지능(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유지	- 이봉주 외(2008) - 문용린(1996)의 정서지능 척도 수정 보완한 문 항 사용
3. 가정 생활	문7	부부관계(배우자 동거 여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7-1	부부관계(결혼생활 만족)	유지	- 이봉주 외(2008) - Schumm et al.(1983)의 켄자스결혼만족측정 도구(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 수정 보완한 문항 사용
	문7-2	부부관계(부부갈등)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	사회적 지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9	희망 및 가능 교육 수준	변경(통합)	- 이봉주 외(2008)
	문10	영양 및 섭식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1	OECD 아동결핍지표	추가	- UNICEF(2012)의 문항 수정 보완 하여 사용
	문12	가족기능	추가	- 연구진 작성
	문13	양육스트레스	추가	- 연구진 작성
	문14	양육실효(본인/배우자 하루에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5	신체적 체별 필요성	추가	- 연구진 작성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과의 관계	출처
	문16	양육실제(훈육방법)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17	용돈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8	부모감독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8-1~문18-4〉 - 허묘연(2004)의 문항 수정 보완하여 사용 〈문18-5~문18-8〉 - Caldwell & Brdealy(2008)의 가정환경자극 검사(Home Observation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의 문항수정 보완 하여 사용
	문19	부모참여	유지	- 이봉주 외(2008) - 김정화(2004)의 문항 수정 보완하여 사용
	문20	미디어 노출(TV비디오 시청, 독서, 인터넷 사용 시간)	변경(보기)	- 이봉주 외(2008)
	문21	미디어 노출(TV비디오 시청, 인터넷 사용 제한 여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22	가족여가활동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23	인지적 자극	유지	- 이봉주 외(2008) - Caldwell & Brdealy(2008)의 가정환경자극 검사(Home Observation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의 문항수정 보완 하여 사용
	문24	가정형편(경제수준)	추가	
	문25	가족 유형	추가	- 연구진 작성
	문26	아동정책 관련 의견	추가	- 연구진 작성
4. 인지 및 언어 생활	문27	전반적인 인지 발달수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28	전반적인 언어 발달수준	추가	- 연구진 작성
5. 방과 후 생활	문29	평일 방과 후에 주로 하는 활 동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30	평일 방과후 아동이 하길 바라 는 활동	추가	- 연구진 작성
	문31	평일 방과후 어른 없이 혼자 있는 날(나홀로 아동)	유지 및 추가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32	평일 방과후 형제끼리 있는 시 간(나홀로 아동)	유지 및 추가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과의 관계	출처
6. 건강 및 안전	문33	평일에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4	주말에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	변경 (질문)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35	돌봄교사1인당적정돌봄아동수	추가	- 연구진작성
	문36	임신과 출산(분만 방법)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	임신과 출산(조산 여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8	임신과 출산(임신 시 건강 관련)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9	임신과 출산(출생 시 몸무게)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9-1	임신과 출산(출생 시 저체중 여부)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40	아동 건강특성(현재 몸무게와 키)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1	아동건강특성(필수예방접종여부)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42	임신과 출산(모유 수유)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2-1	임신과 출산(모유 수유 기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3	아동 건강특성(자녀의 건강상태)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44	아동 건강특성(와병일수)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45	아동 건강특성(병원응급실이용 경험여부)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45-1	아동 건강특성(병원응급실이용 이유)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46	아동 건강특성(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7	아동건강특성(지난1년간자녀 건강검진여부)	변경 (질문)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48	아동 건강특성(아동 만성질환 병명)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9	아동건강특성(지난1년간치과 검진받은경험)	변경 (질문)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50	아동건강특성(안전착용여부)	추가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51	수면(기상/취침시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52	수면(수면습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53	영양 및 섭식(세끼 식사 여부)	유지	- 이봉주 외(2008)

512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과의 관계	출처
	문54	신체활동(7일동안 운동 30분 이상 한 날)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55	보호자(응답자) 주관적 건강상태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56	부모 건강 특성(본인/배우자 지난 1년 간 음주 횟수)	유지	- Bador 외(2001). 김용석(1999)의 척도 수정 보완하여 사용 -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8)
	문56-3	부모 건강 특성(본인/배우자 음주량)	유지	
	문57	부모 건강 특성(본인/배우자 하루 평균 흡연량)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57-3	부모 건강 특성(간접흡연)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58	부모의 행복감	추가	- 연구진 작성
	문59	부모 우울	유지	- Radloff, L.S.(1977), 조맹제·김계희(1993). Kohout et al.(1993)의 CES-D 척도 -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문60	지난 6개월 동안 보호자 없이 집에서 아동 혼자 30분 이상 있었던 경험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1	아동학대(방임)	추가	- Straus et al.(1998)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 척도를 응답자 가해 경험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 - 안재진 외(2011)의 아동학대실태조사 문항 사용
	문62	아동학대(신체학대및정서학대)	추가	- Straus et al.(1998)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 척도를 응답자 가해 경험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 -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문63	아동의성학대경험1(성추행)	추가	- 안재진 외(2011)의 아동학대실태조사 문항 사용
	문64	아동의성학대경험2(성폭행)	추가	- 안재진 외(2011)의 아동학대실태조사 문항 사용
	문65	부모에 대한 아동의 행동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6	실종(자녀잃어버린경험)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6-1	실종(자녀잃어버린장소)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6-2	실종(자녀잃어버렸을때의자녀연령)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7-1	일상안전-①조그만물건아이아가 갖고놀게하는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7-2	일상안전-②카시트사용여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7-3	일상안전-③위험한물질보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7-4	일상안전-④외출시성인동반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7-5	일상안전-⑤욕조/화장실아이 홀로두는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7-6	일상안전-⑥도로보행시아이손 잡는지	추가	- 연구진 작성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과의 관계	출처
	문67-7	일상안전-⑦안전모착용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7-8	일상안전-⑧안전벨트사용여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8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9	아동권리의 인식(UN 아동협약관리 인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70	아동권리의 인식(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 보장 정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71	부모의 종교 유무	추가	- 이봉주 외(2008)의 아동 문항 수정하여 사용
	문71-1	부모의 종교활동 참여	추가	- 이봉주 외(2008)의 아동 문항 수정하여 사용
7. 사교육 및 특별활동	문72	보육 및 사교육(만0세-만5세)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73	방과후 거처(만0세-만5세)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74	방과후 주양육자(만0세-만5세)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75	복지서비스(만0세-만5세)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76	보육 및 사교육(만6세-만17세)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77	복지서비스(만6세-만17세)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8. 주거생활	문78	주거 일반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79	주거 구조/성능/환경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0-1	거주지역생활환경(문화/체육시설)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0-2	거주지역생활환경(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0-3	거주지역생활환경(의료기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0-4	거주지역생활환경(교육시설)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0-5	거주지역생활환경(대중교통)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0-6	거주지역생활환경(자연환경)	유지	- 이봉주 외(2008)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과의 관계	출처
	문80-7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무질서1)	유지	- Ross, & Mirowsky(1999)의 척도 수정보완하여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80-8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무질서2)	유지	
	문80-9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만족1)	유지	- Silver & Mille(2004)의 척도 수정보완하여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80-10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만족2)	유지	
	문80-11	지역사회환경(비공식적 사회통제1)	유지	
	문80-12	지역사회환경(비공식적 사회통제2)	유지	
	문80-13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응집력1)	유지	
	문80-14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응집력2)	유지	
9. 지출 및 소득	문81	월평균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추가	- 한국복지패널조사(2012)
	문82	월평균 총 생활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3	월평균 총 소득	유지	- 이봉주 외(2008)

〈부록 2〉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용 조사표: 설문 문항과 문항작성의 근거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과의 관계	출처
	SQ1	아동 생년월일	유지	- 이봉주 외(2008)
	SQ2	아동 성별	유지	- 이봉주 외(2008)
	SQ3	아동 학년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 작성
1. 사회성 및 정서	문1	아동행동평가	유지	- Achenbach(1992)의 척도를 오경자 외(2010)가 번안한 척도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2	정서지능	유지	- 이봉주 외(2008) - 문용린(1996)의 정서지능 척도 수정 보완한 문항 사용
	문3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	유지	-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4	스트레스	추가	- 김미숙 외(2007)
	문5	주관적삶의질(삶에대한만족도)	추가	- WHO
	문6	주관적삶의질(현재삶의수준)	추가	
	문7	행복감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8	공동체성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9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추가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 과의 관계	출처
2. 가정 생활	문10	부모님에 대한 생각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1	부모님과과의 관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2	부모님과대화(아버지/어머니에게고민이야기)	추가	- WHO
	문13	주관적 경제수준	추가	- 연구진작성
3. 인지 및 언어 생활	문14	언어사용(얼마나자주사용하는가)	추가	- 청소년언어사용실태조사(2010)
	문15	언어사용(어떻게생각하는가)	추가	- 청소년언어사용실태조사(2010)
4. 학교 생활	문16	학생여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7	학업성적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8	사교육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19	학교생활 계획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20	학교생활 만족도	유지	- 사회/심리적학교환경 - 한국복지패널4차년도아동부가조사(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8), 서울대학교 서울아동패널의 척도 사용 -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문21	친구들의 협조성	추가	- WHO
	문22	또래관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23	친한 친구 수	추가	- 연구진작성
	문24	이성친구 유무	추가	- 연구진작성
	문25	희망 교육수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26	비행경험	추가	- 연구진 작성
	문27-1	학교폭력피해경험-1)	유지	- PNI척도 피해경험형태로 변경 - 또래 지명 형식의 공격성 척도(PNI), 노혜련 외 (2007)에서 사용한 척도 수정 보완하여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27-2	학교폭력피해경험-2)	유지	
	문27-3	학교폭력피해경험-3)	유지	
	문27-4	학교폭력피해경험-4)	유지	
	문27-5	학교폭력피해경험-5)	유지	
	문27-6	학교폭력피해경험-6)	유지	
	문27-7	학교폭력피해경험-7)성희롱	추가	
	문28	학교폭력 가해경험	추가	- 또래 지명 형식의 공격성 척도(PNI), 노혜련 외 (2007)에서 사용한 척도 수정 보완하여 사용
	문29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추가	- 연구진 작성
	문30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추가	- 연구진 작성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 과의 관계	출처
5. 방과 후 생활	문31	평일 방과 후에 주로 하는 활동	변경 (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32	평일방과후아동이하고싶은활동	변경(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33	지난 6개월 동안 보호자 없이 집에서 아동 혼자 30분 이상 있었던 경험	변경(보기)	- 이봉주 외(2008) - 연구진작성
	문34	평일 방과후 어른 없이 혼자 있는 날(나홀로 아동)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5	평일 방과후 형제끼리 있는 시 간(나홀로 아동)	추가	- 연구진 작성
	문36	주말에 주로 함께 지내는 사람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문화 /예술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2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취미 /특기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3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과학 /정보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4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모험 /개척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5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환경 보호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6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직업 능력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7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자원 봉사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8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재능 기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37-9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현금 기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37-10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정책 참여활동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7-1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교류 활동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8	동아리활동 경험1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39	동아리활동 경험2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0	종교유무	추가	- 연구진 작성
	문40-1	종교참여정도	추가	- 연구진 작성
	문41	아동권리의 인식(UN 아동협 약관리 인지)	유지	- 이봉주 외(2008)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 과의 관계	출처
6. 건강 및 안전	문42	아동권리의 인식(우리 사회에 서 아동권리 보장 정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3	아동 건강특성(현재 몸무게와 키)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4	수면(기상/취침시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45	아동의(응답자) 주관적 건강상태	추가	- WHO
	문46	아동건강특성(지난1년간건강 검진여부)	추가	- 이봉주 외(2008)
	문47	아동건강특성(지난1년간치과 검진받은경험)	추가	- 이봉주 외(2008)
	문48	아동 건강특성(신체화 증상)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49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결석 일수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50	영양 및 섭식(세끼 식사 여부)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50-1	영양 및 섭식(아침식사 하지 않는 이유)	추가	- 연구진 작성
	문50-2	영양 및 섭식(체중감량을 위해 끼니 거르는지 여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51	OECD 아동결핍지표	추가	- UNICEF(2012)의 문항 수정 보완 하여 사용
	문52	신체활동(7일동안 운동 30분 이상 한 날)	추가	-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문53	아동학대피해경험(방임)	추가	- Straus et al.(1998)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 척도사용 - 안재진 외(2011)의 아동학대실태조사 문항 사용
	문54	아동학대 피해경험(신체, 정서)	유지	- Straus et al.(1998)의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 척도사용 -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8)
	문55	아동의성학대경험1(성추행)	추가	- 안재진 외(2011)의 아동학대실태조사 문항 사용
	문56	아동의성학대경험2(성폭행)	추가	- 안재진 외(2011)의 아동학대실태조사 문항 사용
	문57-1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무질서1)	추가	- Ross, & Mirowsky(1999)의 척도 수정보완 하여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57-2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무질서2)	추가	
	문57-3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만족1)	추가	- Silver & Mille(2004)의 척도 수정보완하여 사용 - 이봉주 외(2008)
	문57-4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만족2)	추가	
	문57-5	지역사회환경(비공식적 사회통제1)	추가	
	문57-6	지역사회환경(비공식적 사회통제2)	추가	
	문57-7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응집력1)	추가	
	문57-8	지역사회환경(지역사회 응집력2)	추가	

영역	문번	문항	08년 문항 과의 관계	출처
	문58	지난 1년 간 아동안전 교육 경험 여부	추가	- 연구진 작성
	문59	실종(보호자잃어버린경험)	추가	- 연구진 작성
	문59-1	실종(보호자잃어버린장소)	추가	- 연구진 작성
	문59-2	실종(보호자잃어버렸을때의아동연령)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0	자살생각 및 시도	추가	- 연구진 작성
7. 진로 및 아르 바이 트	문61	원하는 직업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2	진로성숙도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3	진로계획	유지	- 이봉주 외(2008)
	문64	아르바이트 경험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5-1	아르바이트 유형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5-2	아르바이트 기간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5-3	아르바이트 한 기간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5-4	아르바이트 한 시간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5-5	아르바이트 임금	추가	- 연구진 작성
	문66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생각	추가	- 연구진 작성

〈부록 3〉 시도별 연령대별 모집단 분포

행정 구역명	합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주민등록 인구	저소득	주민등록 인구	저소득	주민등록 인구	저소득	주민등록 인구	저소득	주민등록 인구	저소득	주민등록 인구	저소득	주민등록 인구	저소득
전국	9,678,277	247,665	1,407,368	11,995	1,407,946	17,116	1,357,821	24,138	1,546,502	39,403	1,897,030	65,081	2,061,610	89,932
서울특별시	1,701,705	31,008	256,455	1,502	246,268	2,123	236,910	2,956	265,961	4,752	328,586	8,079	367,525	11,596
부산광역시	575,291	21,717	81,737	951	78,551	1,331	76,380	1,997	90,487	3,377	115,135	5,678	133,001	8,383
대구광역시	475,503	19,309	62,419	902	63,611	1,335	64,181	1,740	77,073	3,022	97,902	5,046	110,317	7,264
인천광역시	551,755	13,490	82,187	826	82,225	1,026	76,776	1,353	86,942	2,120	105,604	3,385	118,021	4,780
광주광역시	324,996	14,405	42,785	885	44,934	976	44,810	1,382	53,422	2,283	67,072	3,752	71,973	5,127
대전광역시	316,885	9,349	44,746	413	45,855	696	45,212	928	50,978	1,582	62,139	2,411	67,955	3,319
울산광역시	239,671	2,799	35,241	122	34,576	201	32,062	287	36,916	407	47,390	772	53,486	1,010
세종시	22,206	499	3,598	16	3,761	27	3,484	48	3,651	90	4,002	131	3,710	187
경기도	2,527,355	32,947	373,992	1,657	383,858	2,267	368,317	3,275	407,794	5,246	485,376	8,576	508,018	11,926
강원도	279,300	10,569	37,174	473	38,612	728	39,417	967	46,507	1,746	57,088	2,886	60,552	3,769
충청북도	304,793	8,499	43,971	410	44,154	621	42,559	924	48,800	1,380	60,184	2,207	65,125	2,957
충청남도	394,312	10,502	60,084	429	60,111	755	56,748	1,139	62,855	1,705	75,574	2,794	78,940	3,680
전라북도	358,792	19,278	48,531	917	49,625	1,358	49,652	1,927	59,009	3,234	73,029	5,091	78,946	6,751
전라남도	348,727	15,532	49,276	686	48,177	996	46,754	1,423	56,014	2,503	71,086	4,327	77,420	5,597
경상북도	472,480	17,413	70,274	829	68,102	1,245	64,902	1,732	74,725	2,802	93,005	4,630	101,472	6,175
경상남도	658,815	15,391	97,481	697	97,517	1,049	91,435	1,499	104,290	2,364	128,915	4,061	139,177	5,721
제주도	125,691	4,958	17,417	280	18,009	382	18,222	561	21,078	790	24,993	1,255	25,972	1,690

〈부록 4〉 보호자용 조사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호자용

ID

					-	1
--	--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주요 목적은 아동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우리나라 아동정책 수립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사내용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02-380-8144, 하태정 연구원 02-380-8165
담당 S.V: 조선미 과장 (Tel: 02-3484-3053 / Fax: 02-3484-3098)

조사표번호					
조사구번호 1~3		거처번호 4~6		거처내 가구번호 7~9	

- ☐ 응답자 주소

--	--	--	--	--	--	--	--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 가구번호

--	--

☐ 가구원번호(가구일반사항 가구원번호 기록) 1. 응답자

--

 2. 아동

--

☐ 가구특성 1. 일반 2. 차상위 (기간: _____ 년 _____ 월) 3. 기초생활보장 (기간: _____ 년 _____ 월)

응답자 주소	구	동	아파트 번지	등 호
응답자 연락처	() -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 월 ___ 일 ___ 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	
2	___ 월 ___ 일 ___ 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	
3	___ 월 ___ 일 ___ 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 기타()	
조사원성명	(인)		조사시작시간	조사종료시간

SQ1) 귀댁 △△(이)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SQ1-1) (조사원 기입) 대상아동은 어느 연령대에 속합니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생일이 가장 빠른 아동 조사)

만 3세 미만 (2010.11.10후)	만 3-5세 (2010.10.31.-2007.11.1)	만 6-8세 (2007.10.31.-2004.11.1)	만 9-11세 (2004.10.31.-2001.11.1)	만 12-18세 미만 (2001.10.31.-1995.11.1)
☐ 1	☐ 2	☐ 3	☐ 4	☐ 5

SQ2) 귀댁 △△(이)의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면접원	어머니가 함께 살 경우 가능하면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할 것 어머니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는 주 양육자를 찾아서 조사진행 할 것
-----	--

1. 어머니 2. 아버지 3. 아동의 친조부모나 친가식구 4. 아동의 외조부모나 외가식구 5. 기타(적을 것: _____)

SQ3) 귀하 혹은 귀하의 배우자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 중 어느 분께서 다른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1. 그렇다 ① 본인 ②배우자 2. 아니다

II. 사회성 및 정서

문2) △△(이)의 행동에 대해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Age
0-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이)는 어머니의 말이나 웃음 등에 반응을 보인다	1	2	3	4
2-2. △△(이)는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을 좋아한다	1	2	3	4
2-3. △△(이)와 어머니가 서로 눈 맞춤을 한다	1	2	3	4
2-4. △△(이)와 어머니는 상호작용하는 동안 함께 웃는다	1	2	3	4

2-1

2-2

2-3

2-4

문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이)의 행동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Age
0-8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1. 우리 △△(이)는 활동적이다 (예: 신체 움직움이 활발하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한다)	1	2	3	4
3-2. 우리 △△(이)는 순하다 (예: 환경이 바뀌어도 잘 적응한다)	1	2	3	4
3-3. 우리 △△(이)는 예민하고 까다롭다 (예: 밤에 자주 깬다)	1	2	3	4
3-4. 우리 △△(이)는 더디다 (예: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1	2	3	4

3-1

3-2

3-3

3-4

문4) △△(이)는 함께 어울려 노는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Age
3-8

1. 없음 2. 1-2명 3. 3-5명 4. 6-10명 5. 11명이상

4

문5) △△(이)는 친구와 얼마나 자주 놀니까?

Age
3-8

1. 거의 놀지 않는다 2. 한달에 1-2회 3. 일주일에 1-2회 논다 4. 거의 매일 논다

5

문6)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이)의 행동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Age
3-8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6-1. 우리 △△(이)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6-2. 우리 △△(이)는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낀다	1	2	3	4
6-3. 우리 △△(이)는 친구가 울 때 친구의 기분을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6-4. 놀이터에서 친구가 밀렸을 때, 우리 △△(이)는 화가 나지만 참는다	1	2	3	4

6-1

6-2

6-3

6-4

III. 가정생활

문7) 현재 당신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7-1)~7-2)로 갈 것 2. 아니다 → 문8)로 갈 것 3. 비해당 → 문8)로 갈 것

문7-1) (문7)에서 1번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 편이다 3. 만족하는 편이다 4. 매우 만족한다

문7-2) (문7)에서 1번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는 △△(이) 앞에서 얼마나 자주 싸웁니까?

면접원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질문은 모두 조사대상 아동의 △△(이)에 대한 것임.

1. 거의 싸우지 않는다 2. 일년에 1-2회 싸운다 3. 일년에 3-4회 싸운다
-
4. 일년에 5-6회 싸운다 5. 한달에 1-2회 싸운다 6. 일주일에 1-2회 이상 싸운다

문8) 귀하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전혀받지 않는다	별로받지 않는다	받는 편이다	매우많이 받는다
8-1.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1	2	3	4
8-2. 의논, 쭈뼌 상대 등 정서적 도움	1	2	3	4
8-3. 가사, 집바꾸기, 간병 등 생활의 도움	1	2	3	4
8-4. 육아,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1	2	3	4

문9) 귀하는 △△(이)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이상 (석사 및 박사)
9-1. 희망교육 수준	1	2	3	4	5
9-2. 가능교육 수준	1	2	3	4	5

문10) 다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생활과 관련하여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귀하의 가구 내에서 경험하셨던 식생활과 비교해보고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거부
10-1.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1	2	3	9
10-2.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를 할 수가 없었다	1	2	3	9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10-3.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성인들이 <u>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u> 적이 있다	1	0	9	
10-3-1. (10-3에서 1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 거의 매일 2. 수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3. 1-2개월 동안				
10-4.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양보다 적게 먹은 적이 있다	1	0	9	
10-5.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적 이 있다	1	0	9	

문11) 귀댁의 자녀 △△(이)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Age
0-8

	예	아니오
11-1.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1	0
11-2. 하루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1	0
11-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1	0
11-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재 제외)	1	0
11-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1	0
11-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수영, 악기, 태권도 등)	1	0
11-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아동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	1	0
11-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1	0
11-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책장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1	0
11-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	0
11-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	0
11-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1	0
11-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1	0
11-14.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	1	0
11-15. 인스턴트 식품(예: 라면, 햄버거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1	0

문12) 귀댁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결정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참여시킨다	1	2	3	4	5
12-2. 각자의 제안을 들어주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5
12-3.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모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각자의 능력껏 살아가고 있다	1	2	3	4	5
12-4.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서로 이야기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12-5. 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	1	2	3	4	5
12-6. 가족 결정에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2	3	4	5
12-7.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 간의 사랑이 줄지는 않는다	1	2	3	4	5
12-8. 부모들은 모든 결정을 하기 전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	1	2	3	4	5

문13) 귀하가 평소에 △△(이)를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1.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3-2. △△(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13-3. △△(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1	2	3	4	5
13-4. 내가 우리 △△(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13-5.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1	2	3	4	5

문14) 본인과 배우자는 주중에 △△(이)와 하루에 얼마나 놀아줍니까? 아래의 번호를 골라 본인과 배우자에 각각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Age 0-8	전혀 놀아 주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비해당
14-1. 본인(주 양육자)	1	2	3	4	5	8
14-2. 배우자 또는 배우자 역할	1	2	3	4	5	8

14-1
14-2

문15) 귀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신체적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모르겠음

15

문16) 귀하는 △△(이)를 훈육할 때 다음의 방법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Age 3~17	거의 사용 하지 않는다	별로 사용 하지 않는다	자주 사용 한다	매우 자주 사용 한다
16-1. 신체적 처벌	1	2	3	4
16-2. 벌 세우기	1	2	3	4
16-3. 말로 야단치기	1	2	3	4
16-4. 장난감이나 게임기 사용 제한하기	1	2	3	4
16-5.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1	2	3	4

16-1
16-2
16-3
16-4
16-5

문17) 현재 △△에게 용돈을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다면)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 Age
6~17
1. 예 (월

십만	천	백
----	---	---

)천원 2. 아니오
17-1. (액수)

YN

17				
액수	17-1			

천원

문18)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십시오.

Age 6~17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8-1. △△(이)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18-2. △△(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1	2	3	4
18-3. 내가 집에 없을 때 △△(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18-4. △△(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한다	1	2	3	4
18-5. △△(이)와 얘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1	2	3	4
18-6. △△(이)와 얘기할 때 △△(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1	2	3	4
18-7. △△(이)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 준다	1	2	3	4
18-8. △△(이)가 집에서 학교 숙제를 할 때,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준다	1	2	3	4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문19) 다음은 귀하가 학부모로서 실제 △△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Age		예	아니오
6-17			
19-1.	△△(이)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얘기한다	1	0
19-2.	나는(혹은 배우자) △△(이)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는다	1	0
19-3.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의 행사에 참석한다	1	0
19-4.	△△(이)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1	0
19-5.	△△(이)의 알림장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	0

문20) 다음은 △△(이)가 하루 동안 각종 매체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 '주중에 하루 얼마동안 ○○을 합니까? 주말에는요?' 이런 방식으로 질문할 것

			시청 /사용 안함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Age							
All	TV/비디오 시청	20-1. 주중	1	2	3	4	5
		20-2. 주말	1	2	3	4	5
3~17	독서	20-3. 주중	1	2	3	4	5
		20-4. 주말	1	2	3	4	5
6~17	인터넷 사용	20-5. 주중	1	2	3	4	5
		20-6. 주말	1	2	3	4	5

문21) 다음 질문에 대해 주십시오.

Age		그렇다	아니다
All	21-1. 자녀의 TV/비디오 시청 시간을 제한하십니까?	1	0
All	21-2. 자녀가 시청하는 TV/비디오 프로그램의 종류를 제한하십니까?	1	0
6-17	21-3. 자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하십니까?	1	0
6-17	21-4. 자녀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십니까?	1	0

문22) 귀하는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여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Age		전혀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1년에 5-6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이상
All	22-1. 운동 및 놀이(예. 놀이공원, 한강시민공원)	1	2	3	4	5
All	22-2. 외식	1	2	3	4	5
All	22-3. 쇼핑	1	2	3	4	5
All	22-4. 여행	1	2	3	4	5
3-17	22-5. 영화나 공연관람	1	2	3	4	5
3-17	22-6.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1	2	3	4	5

문23) 다음은 귀하께서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Age 0-5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3-1. 당신은 △△(이)에게 상상놀이(소꿉놀이, 전쟁놀이, 병원놀이, 학교놀이 등)를 합니까?	1	2	3	4
23-2. 당신은 △△(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같이 노래를 부릅니까?	1	2	3	4
23-3. 당신은 △△(이)에게 책을 읽어주십니까?	1	2	3	4
23-4. 당신은 △△(이)와 함께 운동이나 신체적인 활동을 하십니까?	1	2	3	4

문24) 여러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문25) 현재 귀하의 가족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같이 사는 가족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아버지와 어머니) + 자녀
2. 한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 + 자녀
3. 양조부모 또는 한조부모(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 자녀
4. 양조부모 또는 한조부모(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 부모 + 자녀
5. 양조부모 또는 한조부모(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 한부모 + 자녀
6. 기타 ()

문26) 아동정책과 관련한 다음 2문항에 대해서 보기에서 번호를 2순위까지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26-1.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정책 중 만족스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빈곤아동 지원정책 ② 학대아동 보호정책 ③ 가정위탁 및 입양정책 ④ 장애아동 지원정책 ⑤ 아동건강증진정책 ⑥ 요보호아동 시설보호 정책 ⑦ 아동권리 증진정책 ⑧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⑨ 무상보육지원 정책 ⑩ 기타 () ⑪ 없음		
26-2. 앞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 ② 방과후 아동돌봄 정책 ③ 아동수당정책 도입 ④ 저소득층 아동의료비 지원정책 ⑤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 ⑥ 아동안전사고 예방정책 ⑦ 아동 성폭력예방 및 보호정책 ⑧ 왕따 등 학교폭력예방 정책 ⑨ 아동상담 등 정신건강정책 ⑩ 부모교육 지원정책 ⑪ 기타 () ⑫ 없음		

IV. 인지 및 언어생활

문27) △△(이)는 또래 아동에 비해서 전반적인 인지발달 수준이 어떠합니까?

- Age 0-8
1. 매우 느린 편이다 2. 느린 편이다 3. 비슷하다 4. 빠른 편이다 5. 매우 빠른 편이다

문28) △△(이)는 또래 아동에 비해서 전반적인 언어발달 수준이 어떠합니까?

- Age 0-8
1. 매우 느린 편이다 2. 느린 편이다 3. 비슷하다 4. 빠른 편이다 5. 매우 빠른 편이다

V. 방과후 생활

문29)~문34)

자녀가 초·중·고생일 경우만 응답 (6~17세)

문29~30 보기

- ① 집에서 쉬기 (TV 시청, 인터넷하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게임하기 등)
 ② 집에서 숙제하기
 ③ 친구들과 놀기 (놀이터, PC방 등)
 ④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참여하기
 ⑤ 학원이나 과외
 ⑥ 방과후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이나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⑦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
 ⑧ 아르바이트
 ⑨ 기타 _____

문29) △△(이)는 평일 방과후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위의 보기에서 우선순위 별로 2가지만 말씀해주시시오.

Age
6~17

1순위

2순위

문30) 귀하는 △△(이)가 평일 방과후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위의 보기에서 우선순위 별로 2가지만 말씀해주시시오.

Age
6~17

1순위

2순위

문31) △△(이)는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몇 일이나 됩니까?

Age
6~17

1. 거의 없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문32) 평일 방과후 △△(이)가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Age
6~17

1. 1시간 미만 2. 1-2시간 정도 3. 3-4시간 정도 4. 4시간 이상

문33~34) 보기

- ① 혼자서 ② 부모님 ③ 형제·자매 ④ 할머니, 할아버지 ⑤ 친척·친지
 ⑥ 친구 ⑦ 베이비시터/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⑧ 방과후 돌봄기관 친구(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⑨ 학원선생님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33) △△(이)는 평일 방과 후 주로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위의 보기에서 말씀해주시시오. (학교밖 생활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Age
6~17

번호

33-1. 평일 학교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주로 누가 맞이해 줍니까?

33-2. 학교에 가는 날 방과후(학교수업이 끝난 이후부터 저녁식사 전까지)에는 주로 누구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33-3. 방과후 보통 저녁식사는 누구랑 많이 합니까?

33-4. 저녁식사 이후에는 주로 누구랑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문34) △△(이)는 주말과 방학 중 낮 동안에 주로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위의 보기에서 말씀해주시시오.

Age
6~17

번호

34-1. 토요일에는 주로 누구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34-2. 일요일에는 주로 누구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34-3. 방학 중 낮 동안에는 주로 누구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학교생활 제외)

문35) △△(이)를 다른 곳이나 사람에게 맡기신다면 돌봄교사 1명당 아동수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Age 0~17
1. 1명 (단독) 2. 2~5명 3. 6~10명
4. 11명~20명 5. 21~30명 6. 31명이상

36

VI. 건강 및 안전

문36) 귀하는 △△(이)를 어떻게 분만하셨습니다?

1. 자연분만 2. 제왕절개 3. 모름

36

문37) 귀하는 △△(이)를 조산(37주 이하)하셨습니다?

1. 예 2. 아니오 3. 모름

37

문38)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비해당
38-1. 임신 시 산전진찰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1	0	8
38-2. 임신 시 철분제를 복용하였다	1	0	8
38-3. 임신 시 음주를 하였다	1	0	8
38-4. 임신 시 흡연을 하였다	1	0	8
38-5. 임신관련 합병증이 있었다	1	0	8
38-6. 아기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였다	1	0	8

38-1

38-2

38-3

38-4

38-5

38-6

문39) 출생 시 △△(이)의 몸무게는 얼마였습니까? (소수 첫째자리 기재)

몸무게 _____ kg ☐ 몸무게 모르는 경우 문39-1)로

39

kg

문39-1) 몸무게를 모르는 경우, 출생시 저체중이었습니까? (저체중 기준: 2.5 kg미만)

1. 예 2. 아니오 3. 모름

39-1

문40) 현재 △△(이)의 몸무게와 키는 얼마입니까? (소수 첫째자리 기재)

문40-1) 몸무게 _____ kg 문40-2) 키 _____ cm

40-1

kg

40-2

cm

문41) △△(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제 때 했습니까?

[필수예방접종종류]

- ① 결핵(BCG 피내용) ② B형 간염 ③ 뇌수막염(Hib) ④ 소아마비(폴리오)
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PT) ⑥ 수두 ⑦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1. 필수항목 중 하지 못한 것이 있다 2. 필수항목을 모두 다 했다 3. 모름

41

문42) △△(이)의 수유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1. 모유만 먹었다 —> 문 42-1)로 갈 것
2. 분유만 먹었다 —> 문 43)으로 갈 것
3.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먹었다
4. 모름

42

문42-1) (문41)에서 1번이라는 응답자만) 모유를 먹인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모름: 999)

42-1

년
개월

문43) △△(이)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나쁘다 4. 매우 나쁘다

문44) 최근 한 달 동안 질병이나 손상으로 △△(이)가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집이나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Age
3-17

_____ 일

문45) △△(이)는 지난 1년간 손상이나 중독(의약품 및 약물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병원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45-1)로 갈 것 2. 없다 → 문46)으로 갈 것

문45-1) 최근의 손상이나 중독으로 병원응급실 이용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 화상 2. 낙상 3. 추락 4. 교통사고
 5. 찢리거나 베임 6. 중독 7. 기타(적을 것: _____)

문46) △△(이)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는 무엇입니까?

0. 비 해당 1. 종합, 대학병원 2. 지역내 병·의원 3. 한방 병·의원
 4. 보건소 5. 기타(적을 것: _____)

문47) 지난 1년간 △△(이)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48) △△(이)는 질병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가 가지고 있는 주요 병명은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종류]

① 없음 ②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③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④ 소아당뇨 ⑤ 폐경전 결핵 ⑥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⑦ 천식 ⑧ 만성중이염	⑨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⑩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⑪ 알레르기 질환(아토피, 비염 등) ⑫ 주의집중장애(ADHD) ⑬ 우울장애 ⑭ 섭식장애 ⑮ 기타 질병(적을 것: _____)
---	---

43

44

일

45

45-1

46

47

48

49

50

문51) △△(이)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 몇 시에 잡니까?

문50-1) 기상: 아침 _____ 시에 일어나고 문50-2) 취침: 밤 _____ 시에 잠

문52) △△(이)의 수면습관은 어떻습니까?

1.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2.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3.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4.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문53) △△(이)는 세끼를 모두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 각각 답변해주시시오.

Age
3~17

	거의 먹지 않는다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모른다
53-1. 아 침	1	2	3	9
53-2. 점 심	1	2	3	9
53-3. 저 녁	1	2	3	9

문54) △△(이)가 최근 7일 동안 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Age
3~17

면접원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 그러나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0. 0 일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 5일 이상

문55) 귀하(응답자)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나쁘다
4. 매우 나쁘다

문56) 지난 1년간 본인과 배우자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전혀 마시지 않았다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마셨다	비해당
56-1. 본인	1	2	3	4	5	8
56-2. 배우자 등	1	2	3	4	5	8

문56-3) (문56-1, 56-2)에서 2-5번 응답자만) 지난 1년간 본인과 배우자는 술을 마실 때 보통 몇 잔 정도 마셨습니까?

	1-2잔 정도	3-4잔 정도	5-6잔 정도	7-9잔 정도	10잔 이상	비해당
56-3-1. 본인	1	2	3	4	5	8
56-3-2. 배우자 등	1	2	3	4	5	8

문57) 본인과 배우자는 하루 평균 흡연을 얼마나 하십니까?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흡연하지 않는다	반 갑 (10개파) 이하	반 갑-한 갑	한 갑 이상	비해당
57-1. 본인	1	2	3	4	8
57-2. 배우자 등	1	2	3	4	8

문57-3) (문57-1, 57-2)에서 2-4번 응답자만) 본인과 배우자는 가정 실내에서 얼마나 흡연을 하십니까?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흡연하지 않는다	가끔 실내에서 흡연한다	매일 실내에서 흡연한다	비해당
57-3-1. 본인	1	2	3	8
57-3-2. 배우자 등	1	2	3	8

51-1
기상
아침 _____ 시
취침
밤 _____ 시

52

53-1
53-2
53-3

54

55

56-1
56-2

56-3-1
56-3-1

57-1
57-2

57-3-1
57-3-1

문58) 지난 1주간 다음의 문항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8-1.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2	3	4
58-2. 귀하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1	2	3	4
58-3.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1	2	3	4
58-4. 무력감이 종종 드십니까?	1	2	3	4
58-5. 귀하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문59)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1-2일)	종종 있었다 (3-4일)	대부분 그랬다 (5일 이상)
59-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59-2.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59-3.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59-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59-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59-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59-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1	2	3	4
59-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59-9. 마음이 슬펐다	1	2	3	4
59-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59-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

문60) 지난 6개월 동안 △△(이)는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Age
0-8

1. 전혀 없었다 2. 가끔 있었다 3. 자주 있었다

문61) 지난 1년간 귀하는 △△(이)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에 1-2번 이상
61-1. △△(이)만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61-2. △△(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1	2	3	4	5
61-3. △△(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 (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2	3	4	5
61-4. △△(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데려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2	3	4	5
61-5.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1	2	3	4	5

문62) 지난 1년간 귀하의 가족원은 △△(이)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에 1-2번 이상
62-1. △△(이)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1	2	3	4	5
62-2. 주위의 물건(예. 재떨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아이가 맞았다	1	2	3	4	5
62-3. △△(이)를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4	5
62-4. 동봉이를 휘두르거나 굵은 막대기, 혁대로 때렸다	1	2	3	4	5
62-5. 칼이나 흉기(예. 송곳, 못, 도끼 등)로 찔렀다	1	2	3	4	5
62-6. △△(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5
62-7. △△(이)에게 '너란 없으면 속이 편한 것이다' 와 같은 말을 하였다	1	2	3	4	5
62-8. △△(이)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 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1	2	3	4	5

문63) 지난 1년간 △△(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나이 많은 아동이나 어른(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 포함)이 △△(이)를 성적으로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2.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일어난 적이 있다.
3.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딱 1번 일어났다
4.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2번 이상 일어났다

문64) 지난 1년간 △△(이)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아동이나 어른(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 포함)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2.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일어난 적이 있다.
3.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딱 1번 일어났다
4.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2번 이상 일어났다

문65) 지난 1년간 △△(이)가 부모님(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ge
9~17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월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일주일에 1-2번 정도
65-1. △△(이)가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한다	1	2	3	4	5
65-2. △△(이)가 욕을 하거나 화를 낸다	1	2	3	4	5
65-3.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1	2	3	4	5

문66) 과거에 △△(이)를 1-2시간 이상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66-1) (△△(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이)를 잃어버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 번 잃어버린 경우 가장 최근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주변
2. 길거리
3. 학교주변
4. 학원주변
5. 쇼핑센터·백화점
6. 역터미널
7. 놀이공원
8. 운동경기장
9. 시장
10. 병원
11. 유원지
12. 친구집
13. 친척집
14. 종교기관
15. 음식점
16. 기타()

문66-2) (△△(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잃어버린 당시 △△(이)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번 잃어버린 경우 가장 최근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0-2세
2. 3-5세
3. 6-8세
4. 9-11세
5. 12-14세
6. 15-18세 미만

문67) 귀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키고 계십니까?

Age		예	아니 오	비해 답
0-5	67-1. 땅콩, 포도, 단추와 같은 조그만 물건을 아이가 가지고 놀게 합니까?	1	0	
0-5	67-2. 승용차 탑승시 △△(이)가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합니까?	1	0	8
0-8	67-3. 위험한 물질(예. 약품, 뜨거운 물, 화기 등)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1	0	
3-8	67-4. 외출 시 성인이 동반합니까?	1	0	
3-8	67-5. 욕조나 화장실에 아이를 자주 혼자 있게 합니까?	1	0	
3-8	67-6. 도로보행시 항상 아이의 손을 잡습니까?	1	0	
3-8	67-7.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합니까? (예. 인라인스케이트)	1	0	8
6-17	67-8. 승용차 탑승시 △△(이)가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합니까?	1	0	8

문68) 다음 중 현재 △△(이)의 안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되는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1. 길을 건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2. 유괴될 수 있다
3.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예. 추락, 이사, 권식사 등)
5.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놀이감이 많이 있다
6.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하다
7.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8. 약물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예. 표백제, 세척제, 약물)
9.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예. 유해사이트, TV성인물)

문69)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들어본 적 없다
2. 들어본 적은 있는데 내용은 모른다
3. 들어봤고 내용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
4.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

문70)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못 받고 있다
2. 약간은 받고 있다
3. 상당히 받고 있다
4. 매우 많이 받고 있다

문71)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종교가 없다 → 문 72로 갈 것
2. 불교
3. 개신교(기독교)
4. 천주교(가톨릭)
5. 기타

문71-1) (종교가 있는 경우만 응답) 여러분은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1.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2. 1년에 1-2번
3. 1달에 1-2번
4. 매주

Ⅶ. 사교육 및 특별활동

문72) ~ 문75) △△(이)가 만 0세 ~ 만 5세일 경우에만 응답

문72) 다음은 보육이나 사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다음 각각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한다면) △△(이)가 다음 각각을 이용하는데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면접원 1~16까지 적을 것

		㉑ 이용여부		㉒ 월 평균 보육·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국가지원 비포함)
		비용	이용	
보육시설 및 양육수당	72-1. 양육수당	0	1	
	72-2.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어린이집	0	1	월평균 [] 만원
	72-3. 민간어린이집	0	1	월평균 [] 만원
	72-4. 가정어린이집 (개인가정에서 운영 하는 놀이방)	0	1	월평균 [] 만원
	72-5.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0	1	월평균 [] 만원
	72-6.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0	1	월평균 [] 만원
	72-7.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0	1	월평균 [] 만원
	72-8. 지역아동센터	0	1	월평균 [] 만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72-9. 학원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포함)	0	1	월평균 [] 만원
	72-10. 개인·그룹과의	0	1	월평균 [] 만원
	72-11. 학습지	0	1	월평균 [] 만원
기타	72-12. 친·인척	0	1	월평균 [] 만원
	72-13. 이웃이나 아이돌보미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보육사)	0	1	월평균 [] 만원
	72-14. 해외연수	0	1	월평균 [] 만원
	72-15. 문화센터	0	1	월평균 [] 만원
	72-16. 기타(적을 것 :)	0	1	월평균 [] 만원

72-1					
72-2					만원
72-3					만원
72-4					만원
72-5					만원
72-6					만원
72-7					만원
72-8					만원
72-9					만원
72-10					만원
72-11					만원
72-12					만원
72-13					만원
72-14					만원
72-15					만원
72-16					만원

문73) △△(이)가 이용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마친 후 △△(이)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1. 집 2. 학원 3. 친척집, 이웃집 4. 기타(적을 것 :)

73

문74) △△(이)가 이용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마친 후 △△(이)는 주로 누가 돌봐주고 계십니까?

1. 부모님 2. 형제자매 3. 친척·친지 4. 할머니, 할아버지
5.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 6. 이웃집 7. 베이비시터 8. 기타(적을 것 :)

74

문75) 다음은 특별활동, 부모교육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 또는 귀댁의 자녀 △△(이)는 다음 서비스들을 현재(지난 한달 기준)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 서비스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면접원 1~5까지 각각 물을 것

서비스	㉑ 현재 이용여부		㉒ 필요여부	
	예	아니오	필요	불필요
75-1. 영아전담어린이집 (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1	0	1	0
75-2. 영아를 위한 특별활동(신체활동, 한글, 미술 등)	1	0	1	0
75-3. 24시간 보육시설	1	0	1	0
75-4. 아동상담, 집단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등)	1	0	1	0
75-5.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1	0	1	0

75-1-A	75-1-B
75-2-A	75-2-B
75-3-A	75-3-B
75-4-A	75-4-B
75-5-A	75-5-B

Ⅷ. 주거생활

문78) ~ 문80)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이사 등으로 주거 유형 혹은 점유형태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바뀐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78) 귀댁이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대한 다음 질문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78-1. 점유형태는? _____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전월세) ④ 월세 ⑤ 기타(적을 것 :)
78-2. 방수는?	총 개 (화장실, 부엌, 마루 제외)

문7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79-1.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1	0
79-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1	0
79-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0
79-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1	0

문80) 귀댁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물음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역 내 생활환경	예	아니오
80-1. 문화체육시설(시립체육관, 도서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80-2.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80-3.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80-4. 교육시설(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0
80-5.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가능하다	1	0
80-6.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	0
80-7. 우리 동네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1	0
80-8.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쉽게 일어난다	1	0
80-9. 나는 우리 동네에 만족하고 있다	1	0
80-10. 나는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	0
80-11. 동네 아이들이 어른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 잡아줄 것이다	1	0
80-12. 동네 아이들이 술 담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 잡아줄 것이다	1	0
80-1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낸다	1	0
80-1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만하다	1	0

IX. 지출 및 소득

문81) 2012년 1년 동안(2012.1.1.~12.31) 월평균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은 총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십만	만	천	백	십	단
----	---	---	---	---	---

번호:

<포함내역>

세금항목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소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사회보장부담금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 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회보험(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응답을 거부하거나 가구소득을 모르는 경우는 구간으로 물어 본 후 응답받을 것

- ① 월 0~10만원 미만
- ② 월 10~20만원 미만
- ③ 월 20~40만원 미만
- ④ 월 40~60만원 미만
- ⑤ 월 60만원 이상

문82) 귀댁의 월평균 총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총 생활비

십만	만	천	백	십	단
----	---	---	---	---	---

<포함내역>

식료품비 : 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 :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 주택구입비 제외

보건의료비 : 입원비, 외래진료비, 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보장구 등.

※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해당

교육비 : 공교육비+사교육비

교양오락비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RV, 오디오,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 강습료, 어학 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등

기타지출 : 소비지출, 세금, 교통, 통신비, 피복비 등.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문83)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총 소득

십만	만	천	백	십	단
----	---	---	---	---	---

번호:

<포함내역>

근로소득 : 부업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전 총급여의 월평균

※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월평균 순소득

재산소득 :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부동산매매차익 등) ③ 기타(자각증 대여 등)

④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정부보조금 : ① 수당 (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② 수급여성 지원금(국민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③ 양육 및 보육료지원(영유아 양육지원, 이-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보육료 지원-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④ 정부지원금(학비지원, 농림부 학비지원 포함, 학비지원-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통신 감면 또는 보조(전화비, 인터넷 등), 통신-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농업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⑤ 근로장려세제

부모나 자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 현물(현금환산액)의 월평균액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 (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

※ 기타소득은 제외시킬 것

기타소득 : ① 중여상속 ② 경조금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⑥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등)

응답을 거부하거나 가구소득을 모르는 경우는 구간으로 물어 본 후 응답받을 것

- ① 월 100만원 미만
- ② 월 100~200만원 미만
- ③ 월 200~300만원 미만
- ④ 월 300~400만원 미만
- ⑤ 월 400~500만원 미만
- ⑥ 월 500~600만원 미만
- ⑦ 월 600~800만원 미만
- ⑧ 월 800~1,000만원 미만
- ⑨ 월 1,000만원 이상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접 후 기록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 (유선)		연락처 (핸드폰)	
응답자 주소	() 시/군/구 () 읍/면/동				
이메일	()@()			면 접 일 시	___월 ___일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분간)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S/V 확인	검증원 확인	에디터확인	
	ID _____	_____	_____	_____	

〈부록 5〉 아동용 조사표



아동종합실태조사(만9-18세미만)-아동용

1995년 11월 1일 출생~2004년 10월 31일까지

ID

					-	2
--	--	--	--	--	---	---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아동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하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문제를 잘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질문에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우리나라 아동정책 수립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사내용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02-380-8144, 하태정 연구원 02-380-8165

조사표번호						
조사구번호 1~3		거처번호 4~6		거처내 가구번호 7~9		
응답자 주소	구 동 아파트 동 호 번지 호					
응답자 연락처	() -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1	___ 월 ___ 일 ___ 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기타()				
2	___ 월 ___ 일 ___ 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기타()				
3	___ 월 ___ 일 ___ 시	① 완료 ② 외출 ③ 장기출타 ④ 응답거절 ⑤기타()				
조사원성명	_____(인)		조사시작시간		조사종료시간	

■ 지 역

--	--	--	--	--	--	--

☞ 면접원이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조사구 행정구역 번호임. 7자리)

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 가구번호

--	--

■ 가구원번호

--

☞ 면접원이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주의필요: 보호자 조사표 일반사항의 가구원번호 기입(1-9까지)]

주소

--	--	--	--	--	--	--

가구번호

--	--

가구원번호

--

<응답자 유의사항>

본인이 만 9~18세미만인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설문지 응답은 볼펜을 사용하여 ○표 하시거나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Q1) 여러분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SQ1-1. SQ1-2. SQ 1-3.

생년월일 : 년 월 일 → 만 8세이하이거나, 18세이상이면 설문중단
(199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혹은 2004년 9월 30일 이전 출생만 응답)

SQ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SQ3) 여러분은 몇 학년이십니까? (휴학생의 경우는 해당 휴학 당시 학년을 기입해 주세요)

1. 초2 2. 초3 3. 초4 4. 초5 5. 초6
6. 중1 7. 중2 8. 중3
9. 고1 10. 고2 11. 고3 12. 학생아님

SQ1-1 (생년)	년
SQ1-2	월
SQ1-3	일

SQ2

SQ3

I. 사회성 및 정서

문1)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여러분이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곳에 ○ 표 하여 주십시오.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다	자주 그런 다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 다	자주 그런 다		1-1	1-17
1-1.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1-17.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1	2	3	1-1	1-17	
1-2.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1-18.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1-2	1-18	
1-3. 외롭다고 불평한다	1	2	3	1-19.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1-3	1-19	
1-4. 잘 운다	1	2	3	1-20.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1	2	3	1-4	1-20	
1-5.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1	2	3	1-21. 고향을 지른다	1	2	3	1-5	1-21	
1-6.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1-22. 자신에 대한 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 안해 한다	1	2	3	1-6	1-22	
1-7.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1-23. 으스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 운짓을 한다	1	2	3	1-7	1-23	
1-8.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1-24.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 질을 부린다	1	2	3	1-8	1-24	
1-9.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1-25.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1	2	3	1-9	1-25	
1-10. 샘을 잘 낸다	1	2	3	1-26.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1-10	1-26	
1-11.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1	2	3	1-27. 남을 잘 놀린다	1	2	3	1-11	1-27	
1-12.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1-28. 성격이 급하고 제 뜻대로 안 되 면 테굴테굴 구른다	1	2	3	1-12	1-28	
1-1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1	2	3	1-29. 남을 위협한다	1	2	3	1-13	1-29	
1-14.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1-30.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1	2	3	1-14	1-30	
1-15. 내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1-31. 걱정이 많다	1	2	3	1-15	1-31	
1-16. 자주 싸운다	1	2	3					1-16		

☞ 이어서 오른쪽 항목들을 풀어주세요.

542 아동종합실태조사

문2)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1	2	4	5
2-2. 나는 외투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낀다	1	2	4	5
2-3. 나는 친구가 울 때 친구의 기분을 바꾸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1	2	4	5
2-4. 나는 친구가 나를 밀었을 때, 화가 나지만 참는다	1	2	4	5

2-1
2-2
2-3
2-4

문3) 지난 1년동안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3-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3-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3-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뉘든지 할 수 있다	1	2	3	4
3-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3-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3-6.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3-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1	2	3	4
3-8.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1	2	3	4
3-9.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3-10.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3-11.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1	2	3	4
3-12. 때때로 내가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3-13.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문4) 지난 1년동안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4.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5.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6.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7.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8.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9.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10.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11.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문5) 다음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거나 반대하십니까?

	매우 반대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찬성	매우 찬성
5-1.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1	2	3	4	5
5-2.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1	2	3	4	5
5-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1	2	3	4	5
5-4.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5-5. 내 인생은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낫다	1	2	3	4	5
5-6. 나는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다	1	2	3	4	5
5-7. 나는 인생이 달랐으면 좋겠다	1	2	3	4	5

5-1
5-2
5-3
5-4
5-5
5-6
5-7

- 문6) 삶의 수준을 0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현재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낮은 삶의 수준			←----- 중간 -----→				높은 삶의 수준			
0	1	2	3	4	5	6	7	8	9	10

6

- 문7) 지난 1년동안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1. 나는 행복하다	1	2	3	4
7-2.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1	2	3	4
7-3. 일이나 편지, 메모지 등에 자살에 대한 글을 자주 쓴다	1	2	3	4
7-4. 나는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7-5.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활한다	1	2	3	4
7-6.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2	3	4

7-1
7-2
7-3
7-4
7-5
7-6

- 문8)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8-1. 나보다 못한 친구를 잘 돕는다	1	2	3	4
8-2. 내 친구가 상이나 칭찬 받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1	2	3	4
8-3. 나는 양보할 줄 안다	1	2	3	4
8-4.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싶다	1	2	3	4
8-5. 친구가 없는 아이와도 잘 놀아준다	1	2	3	4
8-6.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눈다	1	2	3	4
8-7.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1	2	3	4
8-8. 시키지 않아도 봉사활동을 한다	1	2	3	4

8-1
8-2
8-3
8-4
8-5
8-6
8-7
8-8

- 문9) 인터넷·스마트폰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9-1.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1	2	3	4	8
9-2.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	2	3	4	8
9-3. 인터넷·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8
9-4. 인터넷·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1	2	3	4	8
9-5. 인터넷·스마트폰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1	2	3	4	8
9-6. 실재에서 보다 인터넷·스마트폰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1	2	3	4	8
9-7. 인터넷·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진다	1	2	3	4	8
9-8.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8
9-9. 인터넷·스마트폰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8
9-10. 인터넷·스마트폰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8
9-11.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	2	3	4	8
9-12.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8
9-13. 인터넷·스마트폰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인터넷·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는다	1	2	3	4	8
9-14.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	2	3	4	8
9-15. 인터넷·스마트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1	2	3	4	8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4
9-15

II. 가정생활

문10) 다음은 평상시 귀하의 **주보호자 [부모, (외)조부모, 이모, 고모, (외)숙부, (외)숙모]**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없음/ 만나지 못함
10-1. 나는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8
10-2. 나는 어머니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1	2	3	4	8
10-3. 나는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	1	2	3	4	8
10-4. 나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8
10-5. 나는 아버지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1	2	3	4	8
10-6. 나는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	1	2	3	4	8

문11) 귀하의 **주보호자 [부모, (외)조부모, 이모, 고모, (외)숙부, (외)숙모]**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없음/ 만나지 못함
11-1.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1	2	3	4	8
11-2.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	1	2	3	4	8
11-3. 보호자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1	2	3	4	8
11-4. 보호자는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1	2	3	4	8
11-5. 보호자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1	2	3	4	8
11-6. 나는 보호자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11-7. 내가 힘들 때 보호자께서 용기를 주셨다	1	2	3	4	8
11-8.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워하신다	1	2	3	4	8

문12) 지난 1년동안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매우 어렵다	어렵다	쉽다	매우 쉽다	없음/ 만나지 못함
12-1. 아버지께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1	2	3	4	8
12-2. 어머니께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1	2	3	4	8
12-3. 보호자(조부모, 이모, 고모, 숙모 등)에게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1	2	3	4	8

문13) 여러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10-1
10-2
10-3
10-4
10-5
10-6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2-1
12-2
12-3

13

Ⅲ. 언어생활

※ 박스에 제시된 예시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시오.

* 예: 존나, 새끼 등 (자료: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

문14) 여러분은 위의 박스에 제시된 예시와 같은 언어를 본인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 가끔 사용한다 3. 자주 사용한다 4. 매일 사용한다

문15) 여러분은 위의 박스에 제시된 예시와 같은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 2.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14

15

Ⅳ. 학교생활

문16) 여러분은 학생이십니까? (휴학생도 학생으로 인정됨)

1. 예 2. 아니오—▶문22)로 갈 것

문17) 지난학기 여러분의 학업성적을 1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했을 때, 본인의 현재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매우 못함		← 보통 →						매우 잘함	
17-1. 전체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7-2. 국 어	1	2	3	4	5	6	7	8	9	10
17-3.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17-4.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17-5.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17-6.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16

17-1
17-2
17-3
17-4
17-5
17-6

문18) 여러분은 지난 1년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형태로 받은 것인지 모두 표시해 주시고,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인지,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아래 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18-1) 수강여부		문18-2) 수강형태 (중복 응답)							문18-3) 전체 수강시간		문18-4) 사교육을 통한 성적향상 효과여부			
	없다	있다	학원	개인 그룹 과외	인터 넷 과외	학습 지	방과 후 학교	학교 밖 돌봄 기관	해외 연수	일주일 기준 평균시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	다소 효과가 있었다	매우 효과가 있었다	
1. 국어	0	1	1	2	3	4	5	6	7	___시간___분	1	2	3	4	
2. 영어	0	1	1	2	3	4	5	6	7	___시간___분	1	2	3	4	
3. 수학	0	1	1	2	3	4	5	6	7	___시간___분	1	2	3	4	
4. 사회 영역	0	1	1	2	3	4	5	6	7	___시간___분	1	2	3	4	
5. 과학 영역	0	1	1	2	3	4	5	6	7	___시간___분	1	2	3	4	

18-1 18-2-1 18-2-2 18-2-3 18-2-4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18-3 18-3 18-4
1 1 1
시간 분
2 2 2
시간 분
3 3 3
시간 분
4 4 4
시간 분
5 5 5
시간 분

문19) 여러분은 현재 학교생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 현재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졸업까지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다
2. 현재 학생(휴학생 포함)이지만 조만간에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다

문20)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 학교생활이 즐겁다	1	2	3	4
20-2.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20-3.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1	2	3	4
20-4.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20-5. 숙제나 과제물을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1	2	3	4
20-6.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20-7.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1	2	3	4
20-8.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적이 있다	1	2	3	4
20-9.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1	2	3	4

문21) 여러분의 반 친구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여러분을 잘 도와주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22) 다음은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2-1.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1	2	3	4
22-2.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1	2	3	4
22-3.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1	2	3	4
22-4.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1	2	3	4
22-5.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1	2	3	4
22-6.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22-7. 내 친구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1	2	3	4
22-8.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훔친) 적이 있다	1	2	3	4
22-9.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22-10.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1	2	3	4

문23) 여러분은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_____명

문24) 여러분은 서로 좋아하여 사귀는 이성친구 (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25)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다음 중 한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2-3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원 이상 (석사 및 박사)
1	2	3	4	5

19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2-10

23

24

25

문26) 여러분은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15가지 행동에 대해 경험 여부를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26-1. 경험 여부		26-2. 경험이 있는 경우, 횟수 주중(월-금)
	없다	있다	
26-1-1. 담배피우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또는 하루에 ____회
26-1-2. 술마시기(제사나 성찬식에서 한모금 마신 것 제외)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또는 한달 평균 ____회
26-1-3.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가지 않은 경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4. 가솔(하루밤 이상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6.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왕따) 시키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7. 패싸움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9. 다른 사람 협박하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훔치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12. 성관계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13. 임신 또는 임신시키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14. 성폭행이나 성희롱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15.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0	1	지난 1년 동안 ____회

26-1-1	26-2-1
26-1-2	26-2-2
26-1-3	26-2-3
26-1-4	26-2-4
26-1-5	26-2-5
26-1-6	26-2-6
26-1-7	26-2-7
26-1-8	26-2-8
26-1-9	26-2-9
26-1-10	26-2-10
26-1-11	26-2-11
26-1-12	26-2-12
26-1-13	26-2-13
26-1-14	26-2-14
26-1-15	26-2-15

문27) (학생만 응답)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 나에게 (피해)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27-1.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1	2	3	4
27-2.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1	2	3	4
27-3. 다른 아이들이 나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1	2	3	4
27-4.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27-5.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1	2	3	4
27-6.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1	2	3	4
27-7.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	1	2	3	4

27-1
27-2
27-3
27-4
27-5
27-6
27-7

문28) (학생만 응답)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 아이들에게 (가해)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28-1. 나는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다른 아이들을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1	2	3	4
28-2. 나는 다른 아이들을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1	2	3	4
28-3. 나는 다른 아이들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1	2	3	4
28-4. 내가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28-5.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온 적이 있다	1	2	3	4
28-6. 나는 다른 아이들을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1	2	3	4
28-7.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	1	2	3	4

28-1
28-2
28-3
28-4
28-5
28-6
28-7

문29) (학생만 응답)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 나에게 (피해)	거의 없음	보통	자주
29-1. 아이들로부터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SNS (싸이월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린 적이 있다 (욕설, 나쁜 소문, 불쾌한 글·사진)	1	2	3
29-2.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싸이월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서 나를 왕따시킨 적이 있다.	1	2	3

29-1
29-2

문30) (학생만 응답) 지난 1년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 아이들에게 (가해)	거의 없음	보통	자주
30-1. 나는 아이들에게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 (싸이월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리거나 받은 적이 있다 (욕설, 나쁜 소문, 불쾌한 글·사진)	1	2	3
30-2. 나는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SNS (싸이월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서 아이들을 왕따시킨 적이 있다.	1	2	3

30-1
30-2

V. 방과 후 생활

문31-32) (학생만 응답) 여러분은 평일 방과 후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며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보기에서 선택하여 2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문31) 방과후 하는 활동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문32) 방과후 희망 활동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순위	2순위
31-1	31-2
32-1	32-2

<보 기>

- ① 집에서 쉬기 (TV 시청, 인터넷하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게임하기 등)
- ② 집에서 숙제하기
- ③ 친구들과 놀기 (놀이터, PC방 등)
- ④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참여하기
- ⑤ 학원이나 과외
- ⑥ 방과후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이나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 ⑦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
- ⑧ 아르바이트
- ⑨ 기타 _____

문33)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집에서 5시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가끔 있었다 3. 자주 있었다

33

문34) 여러분은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몇 일이나 됩니까?

1. 거의 없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34

문35) 평일 방과후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1. 1시간 미만 2. 1-2시간 정도 3. 3-4시간 정도 4. 4시간 이상

35

문36) 여러분은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방학중에 주로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래 보기를 보고 각각의 물음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기> ① 혼자서 ③ 형제·자매 ⑤ 할머니, 할아버지 ⑦ 베이비시터/집단일 도와주는분 ⑨ 기타()	② 부모님 ④ 친척·친지 ⑥ 친구 ⑧ 방과후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친구	주말 및 방학중 함께 있는 사람	번호
		36-1. 주말 (토요일)	_____
		36-2. 주말 (일요일)	_____
		36-3. 방학중 (월 ~ 금)	_____

36-1
36-2

문37) 지난 1년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 참여하셨습니까? 다음의 각 활동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37-1. 참여경험		37-2. 참여횟수
	없다	있다	
37-1-1. 문화/예술 관련 활동 (영화감상, 문학 장각·감상활동,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감상활동, 탈춤/민속놀이 등 전통문화체험활동, 문화유적 답사등)	0	1	_____회
37-1-2. 취미/특기 관련 활동 (비디오/사진 촬영, 가요/댄스 공연, 악기 연주, 만화 장각, 프라모델 제작, 서예/수공예/목공 활동, 바둑/체스 교습 등)	0	1	_____회
37-1-3. 과학/정보 관련 활동 (인터넷/컴퓨터 경진대회, 학교/가족 신문 제작, 천체/기상 관측, 과학실험·실습활동 등)	0	1	_____회
37-1-4. 모험/게척 관련 활동 (오리엔티어링, 오지체험, 행글라이딩, 수상체험활동, 인명구조활동, 산악자전거, 알뜰 등반, 번지점프, 무인도탐험 등)	0	1	_____회
37-1-5. 환경보호 관련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 마을/생태지도 만들기, 환경오염 측정, 농사체험, 꽃밭가꾸기, 야생동물/조류 관찰, 동물보호 등)	0	1	_____회
37-1-6. 직업능력 관련 활동 (직업체험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진로적성 탐구활동 등)	0	1	_____회
37-1-7. 자원봉사활동			
37-1-7-1. 일손돕기 활동(복지시설, 병원, 공사 등의 일손돕기)	0	1	_____회
37-1-7-2. 위문 활동(고아원, 양로원, 장애부대 위문 등)	0	1	_____회
37-1-7-3. 지도/상담 활동(교통안전 지도, 학습지도, 또래상담 활동 등)	0	1	_____회
37-1-7-4. 캠페인 활동(환경보전 캠페인, 사회질서 캠페인 등)	0	1	_____회
37-1-7-5. 자신구호 활동(재해구조,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 등)	0	1	_____회
37-1-7-6. 환경/시설 보존 활동(문화재 보호, 자연 보호 활동 등)	0	1	_____회
37-1-7-7. 지역사회 개발 활동(동네 청소, 쓰레기 치우기 등)	0	1	_____회
37-1-7-8. 기타 위에 나와 있지 않은 자원봉사활동	0	1	_____회
37-1-8. 재능기부 (노래, 춤, 악기연주 등 특기 등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0	1	_____회
37-1-9. 현금기부 (적십자사, 불우이웃 등에 현금 기부) (교회헌금 기부 제외)	0	1	_____회
37-1-10. 정책참여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 등)	0	1	_____회
37-1-11. 교류활동			
37-1-11-1. 지난 1년동안 국내에서 외국 또는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만나서 같이 사귀면서 다양한 체험을 공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0	1	_____회
37-1-11-2. 지난 1년동안 해외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있습니까?	0	1	_____회

37-1. 경험	37-2. 횟수
37-1-1	37-2-1
37-1-2	37-2-2
37-1-3	37-2-3
37-1-4	37-2-4
37-1-5	37-2-5
37-1-6	37-2-6
37-1-7-1	37-2-7-1
37-1-7-2	37-2-7-2
37-1-7-3	37-2-7-3
37-1-7-4	37-2-7-4
37-1-7-5	37-2-7-5
37-1-7-6	37-2-7-6
37-1-7-7	37-2-7-7
37-1-7-8	37-2-7-8
37-1-8	37-2-8
37-1-9	37-2-9
37-1-10	37-2-10
37-1-11-1	37-2-11-1
37-1-11-2	37-2-11-2

※ 다음은 여러분의 동아리활동 경험에 관한 질문(<문38>~<문39>)입니다.

문38)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다음 각 동아리에 대하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38-1. 학교 동아리(여러 학교의 연합동아리 포함)	1	0
38-2. 청소년시설·단체의 동아리	1	0
38-3.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1	0

문39)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는 모두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인터넷동아리 포함)

1. 없다 2. 1~2 개 3. 3~5개 4. 6~9개 5. 10개 이상

문40) 여러분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종교가 없다 문41)로 갈 것 2. 불교 3. 개신교(기독교) 4. 천주교(가톨릭) 5. 기타

문40-1) (종교가 있는 경우만 응답) 여러분은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

1. 종교는 있으나 가지 않는다 2. 1년에 1~2번 3. 1달에 1~2번 4. 매주

문41)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들어본 적 없다 2. 들어본 적은 있는데 내용은 모른다
3. 들어봤고 내용에 대해 약간 알고 있다 4.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

문42)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보장 못 받고 있다 2. 약간 보장받고 있다
3. 상당히 보장받고 있다 4. 매우 많이 보장받고 있다

VI. 건강 및 안전

문43) 현재 여러분의 몸무게와 키는 얼마입니까? (소숫점 아래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3-1. 몸무게: _____ kg 43-2. 키: _____ cm

문44) 여러분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밤 몇 시에 자나요?

44-1. 기상: 아침 _____ 시에 일어나고 44-2. 취침: 밤 _____ 시에 잠

문45)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나쁘다 4. 매우 나쁘다

문46) 지난 1년동안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47) 여러분은 지난 1년동안 예방을 위한 치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8-1

38-2

38-3

39

40

40-1

41

42

문43) 몸무게: 43-1 Kg

키: 43-2 cm

문44) 취침: 44-1 시

기상: 44-2 시

45

46

47

문48) 지난 6개월동안 다음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거의 없음	매달 1번	매주 1번	1주 1번 이상	거의 매일
48-1. 두통(머리가 아픔)	1	2	3	4	5
48-2. 복통(배가 아픔)	1	2	3	4	5
48-3. 요통(허리 아픔)	1	2	3	4	5
48-4. 우울함	1	2	3	4	5
48-5. 짜증난 혹은 화남	1	2	3	4	5
48-6. 불안함	1	2	3	4	5
48-7. 잠들기 어려움(불면)	1	2	3	4	5
48-8. 어지러움	1	2	3	4	5

문49) 여러분은 최근 1달동안 아프거나 다쳐서 학교를 결석한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0. 없다(0일) 1. 1일 2. 2일 3. 3-4일 4. 5일 이상

문50) 여러분은 세끼를 모두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거의 먹지 않는다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50-1. 아 침	1	2	3
50-2. 점 심	1	2	3
50-3. 저 녁	1	2	3

문50-1-1)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 경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1.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2. 배고프지 않아서 3.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서
4. 살빼기 위해서 5. 먹을 양식이 없어서 6. 기타 ()

문50-2-1) (점심이나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 살을 빼기 위해서 식사를 거르나요?

1. 예 2. 아니오

문51)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아니오
51-1.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1	0
51-2. 하루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1	0
51-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1	0
51-4. 내 연령과 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재 제외)	1	0
51-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1	0
51-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수영, 악기, 태권도 등)	1	0
51-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형제자매 한명 당 한 개 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 포함)	1	0
51-8. 우리 집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낼 수 있다	1	0
51-9. 우리 집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적당하게 밝은 조용한 공간이 있다	1	0
51-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1	0
51-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1	0
51-12. 적어도 두 컬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그 중 한 컬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1	0
51-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다	1	0
51-14. 생일파티를 할 기회가 있다	1	0
51-15. 인스턴트 식품 (예: 라면, 햄버거, 콜라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1	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9

50-1

50-2

50-3

50-1-1

50-2-1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52 아동종합실태조사

문52) 최근 7일동안 한번에 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등 격렬하거나 중등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0. 0일(없음)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2

문53) 가족의 어른들은 여러분을 돌보아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2-3 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이상
53-1.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53-2.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1	2	3	4	5
53-3.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않았다	1	2	3	4	5
53-4.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	2	3	4	5
53-5.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 주지 못했다	1	2	3	4	5

53-1

53-2

53-3

53-4

53-5

문54) 다음은 어른(부모님이나 부모님역할을 하시는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난 1년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2-3 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이상
54-1. 어른이 나를 밀쳐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1	2	3	4	5
54-2. 어른이 주위의 물건(책걸이, 그릇, 의자 등)을 던져서 내가 맞았다	1	2	3	4	5
54-3. 어른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1	2	3	4	5
54-4. 어른이 휘두르는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 허리띠로 맞았다	1	2	3	4	5
54-5. 어른이 칼이나 흉기(송곳, 못, 도끼 등)로 나를 찔렀다	1	2	3	4	5
54-6.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어른이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5
54-7. 어른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1	2	3	4	5
54-8. 어른이 나에게 '명청한 것', '깨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1	2	3	4	5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문55) 지난 1년동안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가족이외의 어른이 성적으로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2.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일어난 적이 있다.
3. 지난 1년동안 그런 일이 1번 일어났다 4.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2번 이상 일어났다

55

문56) 지난 1년동안 가족이나 가족이외의 어른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2.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일어난 적이 있다.
3. 지난 1년동안 그런 일이 1번 일어났다 4. 지난 1년간 그런 일이 2번 이상 일어났다

56

문57) 여러분은 지난 1년동안 여러분의 동네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그렇다	아니다
57-1. 우리 동네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1	0
57-2. 우리 동네에서는 사람들이끼리 싸움이 쉽게 일어난다	1	0
57-3. 나는 우리 동네에 만족하고 있다	1	0
57-4. 나는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	0
57-5. 동네 아이들이 어른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준다	1	0
57-6. 동네 아이들이 술, 담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준다	1	0
57-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낸다	1	0
57-8.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만하다	1	0

문58) 최근 1년 동안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59)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호자를 1-2시간 이상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60)으로 갈 것

문59-1) (보호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보호자를 잃어버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 번 잃어버린 경우 가장 최근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집주변 2. 길거리 3. 학교주변 4. 학원주변 5. 쇼핑센터·백화점
6. 역터미널 7. 놀이공원 8. 운동경기장 9. 시장 10. 병원
11. 유원지 12. 친구집 13. 친척집 14. 종교기관 15. 음식점
16. 기타

문59-2) (보호자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보호자를 잃어버린 당시 만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번 잃어버린 경우 가장 최근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만0-2세 2. 만3-5세 3. 만6-8세 4. 만9-11세 5. 만12-14세 6. 만15-18세 미만

문60) 다음에 대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60-1. 여러분은 지난 1년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u>생각한</u> 적이 있나요?	1	0
60-2. 여러분은 지난 1년동안 자살을 <u>시도한</u> 적이 있나요?	1	0
↳ 60-2-1. (자살을 시도한 경우) 총 몇 회 시도하였나요?	총 _____ 회 시도	

Ⅶ. 진로 및 아르바이트

문61)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가장 원하는 직업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세요.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성악가, 은행원, 작곡가, 생물학자, 경찰관, 운동선수, 요리사, 연예인 등).

61-1. 원하는 직업 1순위 _____

61-2. 원하는 직업 2순위 _____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8

59

59-1

59-2

60-1

60-2

60-2-1

61-1

61-2

문62)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62-1.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62-2.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1	2	3	4
62-3. 부모님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1	2	3	4
62-4.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1	2	3	4
62-5.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62-6.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62-7. 나에게 맞는 학과나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1	2	3	4
62-8.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1	2	3	4
62-9.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62-10.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1	2	3	4
62-11.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62-12.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1	2	3	4
62-13.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62-14.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1	2	3	4
62-15.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1	2	3	4
62-16.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62-17.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1	2	3	4
62-18.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1	2	3	4
62-19. 내가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1	2	3	4
62-20. 내가 살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주 생각한다	1	2	3	4
62-21.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2	3	4
62-22.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1	2	3	4

문63) 여러분은 현재 이후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상급학교로 진학할 것이다
2. 취업할 것이다(보수를 받으며 가업을 돕는 것 포함)
3. 창업할 것이다
4.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것이다
5.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것이다
6. 진학도 취업(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창업, 무보수로 가업 도움 포함)도 하지 않을 것이다
7.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8. 기타(군입대 등 _____)
9. (학생이 아닌 경우만 해당) 현재 학교를 중퇴하였지만 조만간 다시 학교를 다닐 생각이다

(응답후 문9-11세는 설문종료)

★ (만 12-18세미만 응답)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시간제노동, 파트타임)한 경험이 있습니까?

1. 해본적 없다 **설문종료** 2. 해본적 있다 **문65**로 **갈것**

64

문65) ★ (만 12-18세미만 아르바이트 한 경우만 응답)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해당되는 답을 적어주십시오.

65-1. 어떠한 종류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습니까? 옆의 보기에서 번호를 적어주세요. (1개 선택) ()	< 보기 >	
	① 사무업무 보조	②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
	③ 식당, 레스토랑, 카페 서빙	④ 편의점, 가게 판매원
	⑤ 신문, 우유, 피자, 음식배달	⑥ 전단지 돌리기
	⑦ 물건포장이나 운반	⑧ 건설현장 노동
	⑨ 주유소 주유원	⑩ 아기 또는 노인돌보기
	⑪ 기타()	
65-2. 얼마의 기간 동안 일했습니까?	일한 기간: 총 ()일 (1개월은 30일로 표시)	
65-3. 장기였나요, 단기였나요? 그리고 주당 몇일 혹은 총 몇일 일했나요?	① 장기 아르바이트 1주 () 일 ② 단기 아르바이트 총 () 일	
65-4.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까?	1일 ()시간	
65-5. 임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간당 ()원	

65-1

65-2 일

65-3 일

65-4 시간

65-5 원

문66) ★ (만 12-18세미만 아르바이트 한 경우만 응답)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6-1.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진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2	3	4
66-2.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교과목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2	3	4
66-3.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학교교육이 중요함을 느꼈다	1	2	3	4
66-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이 나빠졌다	1	2	3	4

66-1

66-2

66-3

66-4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면 접 후 기 록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성된 설문지는 가능하면
면접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자연락처	() - () - ()		
응답자 지택 주소			
조 사 일 시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이메일	()@()		
면접원 이름		ID	
Supervisor	검증원 확인	에디터확인	

